

# 皇城新聞

## 고(古)신문 속의 인천 2 (하)

황성신문(1905~1907)

## 차 례

### 1906년

7월 .....	5
8월 .....	18
9월 .....	34
10월 .....	47
11월 .....	69
12월 .....	86

### 1907년

1월 .....	101
2월 .....	123
3월 .....	147
4월 .....	178
5월 .....	205
6월 .....	244
7월 .....	261
8월 .....	289
9월 .....	322
10월 .....	334
11월 .....	366
12월 .....	384

황성신문(1905~1907) 인천관련 기사목록 .....	401
---------------------------------	-----

# 고(古)신문 속의 인천 2 (하)

황성신문(1906)





1906년 7월 2일, 全兵自斃, 2면 6단, 기사

侍衛步兵隊兵卒全京化가 六月二十一日에 有緊急所關이라하고 請由三日而出番에 莫知所向이러니 仁川港警務署에서 該隊로 通知하되 貴隊兵卒全京化가 本港松林洞樹林中에서 自斃라하얏는디 該地는 現任法部大臣의 家屋近處인 故로 仁川郡守가 法部大臣家の 下隸輩를 切隣으로 一并捉囚하얏다는디 軍部에서 法부로 照會하기를 行檢一欸은 該地方官이 宜由辦理이나 陸軍法官之叅審이 亦有定則이기 茲以仰照하니 開檢前에 訂期 通知于斃部之意로 飛飭該地方官하라하얏더라.

1906년 7월 2일, 전 씨 병사 자살, 2면 6단, 기사

특위 보병대 병졸 전경화(全京化)가 6월 21일에 긴급한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3일부터 출번(出番)을 청하여 향한 바를 아무도 몰랐다. 인천항 경무서에서 해당 부대로 통지하기를, 귀 부대 병졸 전경화가 본항 송림동 수림 중에서 자살하였는데 그 땅은 현재 범부대신의 집 근처인 까닭에 인천군수가 범부대신 집의 하인들을 절린(切隣)<sup>1)</sup>으로 모두 잡아 가두었다. 군부에서 범부로 조회하기를 검시(檢屍) 1항은 그 지방관이 마땅히 처리해야 하나 육군 법관이 참석하여 살피는 것이 또한 법칙이기 때문에 조회를 올리니, 검시를 열기 전에 해당 부의 뜻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해당 지방관에 비칙(飛飭)하라고 하였다.

1)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이웃에 사는 사람을 말한다.

**1906년 7월 2일, 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sup>2)</sup>**

[電話韓語六六番] 皇城鍾路 資本金拾五萬圓 積立金壹千六百圓 一諸任金定期、不定期가 有흔디 任主에게 計撥흔는 利息이 隨各差異흔며 他人金額의 秘密、安全、融通、貯蓄에 極圖便利함 一諸貸金及手形割引[手形典入] 確實흔 典物을 典執하고 借主에게 貸給함 但諸利息及割引料는 日數로 計算함 一爲替送金[換錢부치는일] 其處所는 左開함 仁川、群山、木浦、釜山、馬山浦、大邱、開城、平壤、鎭南浦、元山 咸興、城津 其他一般銀行의 業務를 確實營行함.

**1906년 7월 2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 3면 5단, 광고**

[전화 한국어 66번] 황성 종로 자본금 150,000원, 적립금 1,600원, 모든 맡긴 돈은 정기, 부정기가 있는데, 맡긴 주인에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각각 차이가 있으며, 다른 사람 금액의 비밀, 안전, 융통, 저축에 극도로 편리함. 모든 대출금과 어음할인[어음전입]은 확실한 전당물을 전당잡고, 빌리는 사람에게 빌려준다. 다만 모든 이자와 할인료는 일수로 계산함. 환전하여 부치는 장소는 좌측을 보라.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포, 대구, 개성, 평양, 진남포, 원산, 함흥, 성진, 기타 일반은행의 사무를 확실히 이행함.

**1906년 7월 3일, 艦長救人, 1면 6단, 기사**

日昨에 泰安郡居木商等이 木材를 風帆船에 搭載하고 仁川港으로 上來하다가 長子島附近에 到흔 則風波가 大起하야 船隻

---

2) 본 광고는 1906년 7월 2일 외에도 7월 3일, 4일, 5일, 6일, 7일, 9일, 10일, 11일, 13일, 14일, 16일, 17일, 18일, 23일, 24일, 25일, 26일, 28일, 30일, 31일 모두 21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이 覆破에 船人五名이 海波中에 片木을 攀付하여 幾至死境이  
더니 日本御用船艦長이 航海하다가 見其光景하고 救護隊를  
派遣拯救하얏다더라.

1906년 7월 3일, 함장이 사람을 구함, 1면 6단, 기사  
며칠 전에 태안군에 사는 목재상 등이 목재를 풍범선(風帆  
船)에 탑재하고 인천항으로 올라오다가 장자도(長子島) 부근  
에 도착하였다. 풍파가 크게 일어나 선척이 뒤집혀 부서져 뱃  
사람 5명이 바다 풍파 속에서 편목을 붙들고 거의 죽을 지경  
이었는데, 일본 어용선(御用船) 선장이 항해하다가 그 광경을  
보고 구호대를 파견하여 건져내 구조하였다고 한다.

1906년 7월 3일, 仁監質稟, 2면 4단, 기사  
仁川監理徐丙珪氏의 報告를 據흔 則現에 京畿財政顧問支部財  
務官井上雅二의 來國內開에 本年五月二十四日官報로 公佈흔  
內部令第二號及度支部令第八九十號에 依흔야 發行흔 家契用  
紙百枚를 送附하랸마 此를 准查하오니 果於本年五月二十四  
日에 業經公佈이오나 該家契紙를 從何月何日로 實行與否와  
該井上雅二의 句管是否를 姑未承准部飭이옵기 茲에 質稟하오  
니 迅賜指飭하와 俾便准施케하랸앗더라.

1906년 7월 3일, 인천 감리 품의를 올림, 2면 4단, 기사  
인천감리 서병주(徐丙珪) 씨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경기재정  
고문관 정상아이(井上雅二)의 편지 내에 올해 5월 24일 관보  
로 공포한 내부령 제 18호에 의하여 발행할 가계(家契) 용지  
백 매를 송부하라고 한 바에 의거하여 조사하오니, 실로 본년  
5월 24일에 업무가 공포되었으나 해당 가계 용지를 몇 월 몇

일부터 실행하는 지 여부와 해당 정상아이의 구관(句管)의  
옳고 그름이 아직 부칙(部飭)으로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질  
품하오니 빨리 지칙(指飭)하여 더욱 편히 시행하게 해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 1906년 7월 4일, 檢官得情, 1면 6단, 기사

侍衛三隊兵全敬化가 致死於仁川松林洞하야 自仁港警務署로 通  
奇以自斃호 事에 自軍部로 憲兵叅尉鄭雨興을 初檢官으로 擇定  
下送하얏는디 明查得情하야 全兵殺害호 正犯을 捉得하얏다고  
仁港來人의 傳說이 有하더라.

#### 1906년 7월 4일, 검서관이 정성을 다함, 1면 6단, 기사

시위군 3대 병사 전경화(全敬化)가 인천 송림동에서 죽음에  
이르러 인천항경무로서부터 기이하게 자살하였다고 통지받은  
일에 군부로부터 헌병참위 정우흥(鄭雨興)을 초검관(初檢官)  
으로 정하여 보냈는데, 명백히 조사하고 정성을 들여 전 병사  
를 살해한 정범을 잡았다고 인천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  
야기가 전한다고 한다.

#### 1906년 7월 6일, 渡海亦難, 2면 4단, 기사

駐法公使閔泳瓚氏가 撤回호다가 淸國上海에 來着滯留中인디  
其夫人이 上海로 入去호 次로 仁川까지 下去호앗다가 船路가  
難便호야 還爲上來호앗다더라.

1906년 7월 6일, 바다를 건너기 또한 어려움, 2면 4단, 기사  
주 프랑스 공사 민영찬(閔泳瓚) 씨가 철회하다가 청국 상해에  
도착하여 체류 중인데, 그 부인이 상해로 들어가기 위하여 인



천까지 내려왔다가 선로가 좋지 않아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 1906년 7월 6일, 軍照檢案, 2면 4단, 기사

軍部에서 法部에 照會하기를 現接憲兵隊長報告則仁川郡에서 致死軍人金京化獄事初檢官案을 報來인바 該案은 應由該郡守主檢인되 今此尉官之徑先初檢은 實是格外이나 既爲報來하얏습기 玆以仰照하니 覆檢以上은 自貴部로 量宜措處이되 若至覆檢이 어딘 使該檢官으로 訂期先報于弊部하야 以便審辦케하심을 爲要라 하얏더라.

#### 1906년 7월 6일, 군부에서 검안에 대하여 조회함, 2면 4단, 기사

군부에서 법부에 조회하기를, “현재 헌병대장 보고를 접하니 인천군에서 군인 김경화가 죽음에 이른 일에 대한 초검관의 내용을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그 내용은 응당 해당 군수가 주로 검찰해야 하는데, 지금 이 위관(尉官)이 먼저 검찰한 것은 실로 자격 밖이지만 이미 보고가 왔기 때문에 조회를 올리니 검찰이 뒤집히는 것 이상은 귀 부로부터 마땅한 조치라 해야 려진다. 만약 다시 검찰하게 되면 해당 검관으로 하여금 기한을 잡고 해당 부에 먼저 알려 다시 심판하게 하난 것이 중요하다”고 하얏다고 한다.

#### 1906년 7월 7일, 永校卒業式, 3면 5단, 기사

仁川港永化學校는 該港有志諸氏의 誠心으로 敎務가 大有前進함은 已報하오니와 昨日下午二時에 第一回卒業式을 行하는되 該港紳士들과 贊成諸員과 各新聞記者를 請하야 該校盛況을 逞하얏더라.

**1906년 7월 7일, 영화학교 졸업식, 3면 5단, 기사**

인천항 영화학교는 인천항 유지 모두의 성심으로 교무가 전보다 진전이 크다는 것은 이미 보도하였다. 어제 오후 2시에 제1회 졸업식을 치렀는데 인천항 신사(紳士)들과 찬성(贊成)제원들과 각 신문기자를 초청하여 그 학교 성황을 드러냈다.

**1906년 7월 10일, 日宗生命保險株式會社 契約의 狀況, 3면 3단, 기사**

同保險會社는 昨年京城에出張所를設置한以來로 各地方에도 代理店을設置하여 日本人外韓人과 契約에 熱心從事한結果로 皇族大官其他縉紳等多數의 請求를受하여 已爲京城에서 參拾萬圓以上이오 仁川에서 拾萬圓以上이오 其他는 廣히 滿韓各要地에 代理店十數를設置하여 其契約의 採金이 實로 七十萬圓以上에 達한것을 今番京城에서 保險한 前議官金鼎煥氏(保險金五千圓)와 仁川에서 保險한 安致俊氏(保險金壹千圓)가 死한故로 同保險會社는 迅速히 前顯金額을 其死한 兩氏의 令胤에게 出給하는 義務를 畢한것으로 此後 誰某이던지 其確實한것을 信用하여 應募者의 數를 增加한것고또 以上兩人은 韓人中에 保險金受領한것시 始初라더라.

**1906년 7월 10일, 일종생명보험주식회사(日宗生命保險株式會社) 계약의 상황, 3면 3단, 기사**

동 보험회사는 작년 경성에 출장소를 설치한 이래로 각 지방에도 대리점을 설치하여 일본인 외 한인과 계약에 열심히 종사한 결과로 황족, 대관, 기타 진신(縉紳) 등 다수의 청구를 받아 이미 경성에서 300,000원 이상이고 인천에서 150,000원 이상이다. 기타는 넓게는 만한(滿韓) 각 요지에 대리점 십

수를 설치하여 그 계약의 채금(採金)이 실로 700,000원 이상에 달한다. 이번 경성에서 보험한 전의관 김정환(金鼎煥) 씨(보험금 5,000원)와 인천에서 보험한 안치준(安致俊) 씨(보험금 1,000원)가 사망한 까닭에 동 보험회사는 신속히 앞선 말한 금액을 그 사망한 두 사람의 자손에게 지급하는 의무를 마쳤다. 이후 누구든지 확실한 것을 사용하여 응모자의 수를 증가하고 또 이상 두 사람은 한인 중 보험금 수령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 1906년 7월 11일,卒業 優等, 1면 4단, 기사

本月六日에 仁川港永化學校에서 第一回尋常科卒業證書授與式을 設行하였다함은 已報하였거니와 其時叅席人員은 學部官員과 本港監理와 美國宣教師와 其外紳士六百餘人和 婦人五百餘人和 男女學徒二百餘人이 同席하여 前無히 盛況을 呈하였는디 尋常科卒業生十五人進級生三十六人의게 各其証書賞品物을 授與히 後에 學部編輯局長蔡範錫該港監理徐炳珪該校贊成員朴彥鎮本國牧師全德基海關幫辦姜準美國宣教師施蘭敦諸氏가 次第로 勸勉演說하미 該校學徒李汎鎭이 答辭히 後에 大皇帝陛下萬歲와 皇太子殿下千歲를 三呼하고 閉會하였는디 優等生은 左와 如하니 卒業生十五人中에 優等이 七人인디 金學仁 李汎鎭 鄭淳安 崔永昌 朴昌植 姜仁壽 李善卿이오 一年學으로 二年學에 進級生이 三十六人內에 優等이 十六人인디 崔鳳球 姜聲俊 裴寬玉 鄭淳奉 張壬淳 李萬春 崔福成 朴容石 朴達伯 李浩俊 鄭石允 朴容安 呂壬龍 金世與 李起雲 沈壽命이더라.

### 1906년 7월 11일, 졸업 우등, 1면 4단, 기사

본월 6일에 인천항 영화학교에서 제1회 심상과(尋常科) 졸업

증서 수여식을 거행하였다는 것은 이미 보도하였다. 그 때 참석 인원은 학부 관원과 본향 감리와 미국 선교사와 그 외 신사 600여 명과 부인 500여 명과 남녀 학도 200여 명이 동석하여 전무한 성황을 드러냈다. 심상과 졸업생 15명, 진급생 36명에게 각기 증서, 상품 등을 수여한 후에 학부 편집국장 채범석(蔡範錫), 인천항 감리 서병주(徐炳珪), 영화학교 찬성원(朴彥鎭), 본국 교사 전덕기(全德基), 해관 방관(幫辦) 강준(姜準), 미국 선교사 시난돈(施蘭敦) 씨가 차례로 나서서 연설에 힘썼다. 해당 학교도 이범진(李汎鎭)이 답사(答辭)한 후에 대황제 폐하 만세와 황태자 전하 천세를 삼창하고 폐회하였는데, 우등생은 좌와 같다. 졸업생 15명 중에 우등이 7명인데, 김학인(金學仁), 이범진(李汎鎭), 정순안(鄭淳安), 최영창(崔永昌), 박창식(朴昌植), 강인수(姜仁壽), 이선경(李善卿)이다. 1학년으로 2학년에 진급생이 36명 내 우등이 16명인데, 최봉구(崔鳳球), 강성준(姜聲俊), 배관옥(裴寬玉), 정순봉(鄭淳奉), 장임순(張壬淳), 이만춘(李萬春), 최복성(崔福成), 박용석(朴容石), 박달백(朴達伯), 이호준(李浩俊), 정석윤(鄭石允), 박용안(朴容安), 여임룡(呂壬龍), 김세여(金世與), 이기운(李起雲), 심수명(沈壽命)이라고 한다.

## 1906년 7월 13일, 高氏美舉, 3면 3단, 기사

江華府私立普昌學校長李東暉氏가 學部에 報告하되 本府松亭洞居高聖根請願書を 接準하즉은 內開에 現今急務는 莫先於教育이온지라 本洞附近三百餘戶에 聰俊子弟가 多有하와 可爲教育一區域이읍기 本人이 校舍艸家十二間과 每朔經費八十元預算을 自擔하읍고 玆에 請願하오니 貴學校支校로 設立하시고 教育人材하심을 伏望이읍기 該人熱誠을 深切感服하와 去月廿

七日에 領率本校學員하옵고 出往하와 開校式을 舉行하옵고 支校로 完全成立하얏습기 玆에 報告하오며 以高聖根言之하오면 本以貧寒之人으로 行商資業하와 僅免懸磬之歎이온디 有此 出人之義舉하오며 國勢之岌業과 民智之未開를 慨嘆憤痛하야 對人輒說에 期使開悟하오니 似此有志之人은 極爲嘉賞하온지라 照亮하옵신 後特爲褒獎하시와 教育上益加勉勵케하심을 伏望이라하얏스니 高氏의 教育에 有志호 開明思想으로 有此義舉는 攢頌호 事이더라.

### 1906년 7월 13일, 고 씨의 아름다운 거행, 3면 3단, 기사

강화부 사립 보창학교장 이동휘(李東暉) 씨가 학부에 보고하길, “본부 송정동(松亭洞)에 사는 고성근(高聖根) 청원서를 접하니 내용에 지금 현재 급무는 교육보다 먼저가 없으니 본동 부근 300여 호에 총명하고 준결인 자제가 많이 있어 한 구역을 교육할 수 있기에 본인이 교사(校舍)로 초가 12칸과 매월 경비 80원 예산을 스스로 부담하겠기에 청원하오니 귀 학교 지교로 설립하고 인재를 교육하심을 엇드려 바라니 그 사람의 열띤 정성에 깊이 감복하였다. 지난 달 27일에 본교 학원을 이끌고 다녀와 개교식을 거행하였고 지교로 완전 성립하였기에 보고하오며, 고성근의 말에 따르면 본디 가난한 사람으로 행상하는 일을 해와 겨우 벌어먹을 만한데, 이와 같이 의로운 일을 있으며 국세(國勢)의 높음과 민지(民智)의 미개(未開)를 개탄하고 분통하여 사람들에게 빈번이 말하며 열고 깨우치게 하계끔 기다렸다. 이와 같이 뜻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상을 주어야 마땅하니 조량(照亮)하신 후, 특별히 포장(褒獎)을 내려 교육 상 이익을 더하도록 힘쓰는 것을 엇드려 바란다고 하였으니, 고 씨의 교육에 뜻 있는 개명(開明)

사상으로 아름다운 거행은 칭송할 일이다”고 했다.

**1906년 7월 14일, 水道費 請撥, 2면 3단, 기사**

仁川港水道敷設費는 已爲記載하였거니와 稟聞한 則平壤府에  
水道를 敷設할터인디 該役費五萬圓을 一千萬圓借款中支撥하  
라고 水道局에서 諸求한다더라.

**1906년 7월 14일, 수도비 지불을 청함, 2면 3단, 기사**

인천항 수도 부설비는 이미 기재한 바 있다. 다시 들으니 평양부  
에서 수도를 부설할 것인데, 그 부설비 50,000원을 10,000,000원  
차관 중 지불(支撥)할 것을 수도국에서 모두 청하였다고 한다.

**1906년 7월 18일, 船長褒証, 2면 3단, 기사**

日本陸軍御用船明保野丸이 仁港長子島附近에서 我國船隻이 沉  
沒할 際에 船員趙士元等五人을 救還한 事로 政府에서 該船長  
眞野曾三以下九人에게 褒証狀一度式繕給하였더라.

**1906년 7월 18일, 선장에게 표창, 2면 3단, 기사**

일본 육군 어용선(御用船) 명보야환(明保野丸)이 인천항 장  
자도(長子島) 부근에서 우리나라 선척이 침몰할 때에 선원  
조사원(趙士元) 등 5명을 구환한 일로 정부에서 해당 선장  
진야증삼(眞野曾三) 이하 9명에게 증서를 하나씩 주어 칭찬  
했다고 한다.

**1906년 7월 18일, 誤殺良民, 3면 5단, 기사**

仁川郡居成洛西金仲皓李太奉氏等이 乘醉昏倒한거슬 該郡巡校  
李淵夏李淵昇等이 有何主見이던지 該三氏를 歸之於殊常한야

捉囚牢獄함의 該郡守도 不愼行查함야 成洛西가 誤被賊名함야  
 以至非命함으로 該道裁判所에서 法部에 質稟함앗는디 該部에  
 서 訓令함기를 乘醉昏倒가 本非殊常之跡이어날 奈之何亂加毆  
 打에 至此傷命함니 事甚矜惻이며 爲官長者가 其良其賊을 即  
 行詳審辦別함야 俾無冤枉이 直係分內事어날 偏聽亂民罔圖之  
 訴함고 一任悍校暴虐之手함야 鍛鍊勒服함니 該郡守之溺職이  
 胡至此極고 誠切駭歎이라 成洛西之橫被殺死와 李金兩民之誤  
 被誣引이 已係昭晰則不可時日掩留니 金仲浩李太奉은 即行放  
 免이고 派遣剛明郡守함야 成民被殺時에 首唱之誰某와 下手之  
 先後輕重을 築底查覈이되 屍若未埋어든 使之如例行檢함야 得  
 實報來이고 該校輩之恣行擬辦은 姑爲停止함라함앗더라.

1906년 7월 18일, 양민을 잘못하여 죽임, 3면 5단, 기사  
 인천군 거주 성낙서(成洛西), 김중호(金仲皓), 이태봉(李太  
 奉) 씨 등이 취기가 올라 넘어진 것을 해당 군 순교(巡校)  
 이연하(李淵夏), 이연승(李淵昇) 등이 보고 세 명을 수상히  
 여겨 감옥에 가두었다. 해당 군수도 신중히 조사하지 않아 성  
 낙서가 도적으로 오인되어 명을 달리하였다. 해당 도 재판소  
 에서 법부에 질품하였는데 해당 부에서 훈령하기를, “취기가  
 올라 넘어진 것이 본디 수상한 일이 아닌데 어찌 하여 어지  
 러이 구타를 가하여 목숨이 위험해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일이 매우 안타까우며, 이 일을 관장한 자가 양민과 도적을  
 즉시 상세히 살피고 판별하여 원통하고 굶움이 없이 올바르  
 게 구분할 일이거늘, 어지러이 백성의 명백하지 않은 말을 치  
 우쳐 듣고 사나운 순교의 포악한 손에 일임하여 억지로 복무  
 하게 단련하였다. 해당 군수가 직무를 다하지 못함이 이에 이  
 르게 했으니 실로 놀라고 탄식할만하다. 성낙서의 횡포로 인

한 피살자와 이·김 두 백성의 그릇된 무고가 이미 밝혀져, 억류가 불가한 시일이니 김중호, 이태봉은 즉시 방면하고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파견하여 성낙서 피살 시에 먼저 주장한 사람과 사람을 죽인 선후 경중을 상세히 조사하되, 주검을 만약 묻지 않았다면 예에 의거하여 검시하여 진실을 획득하여 보고하고 해당 순교 무리가 자행한 판단은 잠시 정지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 1906년 7월 24일, 兩賊捉囚, 2면 5단, 기사

仁川港警務署總巡金允福氏가 內部에 報告하기를 賊漢一名을 捕得取招則所供內에 平壤隊徵上兵玄致夏로 同謀討財라흐바 同玄兵은 現係軍人에 莫可捕捉이라흐얏는디 內部에서 軍部로 照會하야 玄致夏를 押囚警務廳하얏다더라

1906년 7월 24일, 두 도적을 잡아 옥에 가둠, 2면 5단, 기사  
인천항 경무서 총순(總巡) 김윤복(金允福) 씨가 내부에 보고하기를 “도둑놈 1명을 체포하여 취조하니 진술 내에 평양대장상병(平壤隊徵上兵) 현치하(玄致夏)로 함께 모의하여 재물을 훔치자고 하였다. 현치하 병사는 현재 군인에 관계되어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내부에서 군부로 조회하여 현치하를 경무청으로 가두었다고 한다.

#### 1906년 7월 27일, 玄盜查覈, 2면 4단, 기사

內部警務局에서 警務廳訊問課로 通牒하기를 仁川港總巡金允福의 報告를 接準內開에 強盜犯玄致夏를 除隊하야 押囚警務廳이다흐바 在囚호 其同謀犯諸賊으로 質查究覈하갓기로 刑事巡檢金尙浩를 派送하니 押付下送하랏흐마 茲以仰佈하니 貴廳에 留



置흔 該犯玄致夏를 此去巡檢處에 即爲出付하라햏더라.

**1906년 7월 27일, 도적 현치하를 낚낱이 조사함, 2면 4단, 기사**

내부 경무국에서 경무청 신문과(訊問課)로 통첩하기를, 인천항 총순 김윤복(金允福)의 보고를 접하니 내용에 강도범 현치하(玄致夏)를 제대시켜 경무청에 잡아 가두었다고 하였다. 감옥에 갇힌 함께 범죄를 도모한 도적을 속속들이 조사하여 밝혔다. 형사 순검 김상호(金尙浩)를 파송하여 죄인을 압송하고 아래로 내려 보내라고 하여 양포(仰佈)하니, 귀 청에 유치한 그 범인 현치하를 이 순검처에 가서 출부(出付)하였다고 한다.

**1906년 7월 28일, 민團設立, 1면 5단, 기사**

雜報. 去二十五日에 日本政府에서 官報로써 發布흔 韓國居留民團은 來八月十五日頃에 設立할터인디 其場所는 先次京城仁川釜山平壤元山等五居留地부터 施行한다더라.

**1906년 7월 28일, 민단 설립, 1면 5단, 기사**

잡보. 지난 25일에 일본 정부에서 관보로써 발표(發布)한 한국거류민단(韓國居留民團)은 오는 8월 15일 경에 설립할 예정인데, 그 장소는 먼저 경성, 인천, 부산, 평양, 원산 등 5개 거류지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 1906년 8월

### 1906년 8월 1일, 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sup>3)</sup>

[電話韓語六六番] 皇城鍾路 資本金拾五萬圓 積立金壹千六百圓 一諸任金定期、不定期가 有흔디 任主에게 計撥호는 利息이 隨各差異호며 他人金額의 秘密、安全、融通、貯蓄에 極圖便利호 一諸貸金及手形割引[手形典入] 確實호 典物을 典執호고 借主에게 貸給호 但諸利息及割引料는 日數로 計算호 一爲替送金[換錢부치는일] 其處所는 左開호 仁川、群山、木浦、釜山、馬山浦、大邱、開城、平壤、鎭南浦、元山 咸興、城津 其他一般銀行의 業務를 確實營行호.

### 1906년 8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 3면 5단, 광고

[전화 한국어 66번] 황성 종로 자본금 150,000원, 적립금 1,600원, 모든 맡긴 돈은 정기, 부정기가 있는데, 맡긴 주인에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각각 차이가 있으며, 다른 사람 금액의 비밀, 안전, 융통, 저축에 극도로 편리함. 모든 대출금과 어음할인[어음전입]은 확실한 전당물을 전당잡고, 빌리는 사람에게 빌려준다. 다만 모든 이자와 할인료는 일수로 계산함. 환전하여 부치는 장소는 좌측을 보라.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포, 대구, 개성, 평양, 진남포, 원산, 함흥, 성진, 기타 일반은행의 사무를 확실히 이행함.

3) 본 광고는 1906년 8월 1일 외에도 8월 2일, 3일, 4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모두 25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1906년 8월 2일, 是何人斯, 2면 3단, 기사**

政府에서 宮內府에 照會호되 仁川監理徐丙珪의 報告를 據호  
則貴府參書官金鎔濟가 該郡所管永宗島田土를 認許로 所有權이  
有호다호고 日人과 符同호야 該土에 稅金을 勒收함으로 島民  
의 呼冤이 遷至쐤더러 本年下半年稅金을 収去호앗다호니 事當  
拘拿審辦이나 係是貴府官人故로 玆先仰照호니 貴府에서 該島  
地段을 金鎔濟에게 認許호 事가 有호지 示明호라호앗더라.

**1906년 8월 2일, 어떤 사람이 옳은가, 2면 3단, 기사**

정부에서 宮內府에 조회하기를, 인천감리 서병주(徐丙珪)의  
보고에 따르면 “귀 부 참서관 김용제(金鎔濟)가 인천군 소관  
영종도 전토(田土)를 인허 받아 소유권이 있다고 하고, 일본  
인과 부동하여 그 땅에 세금을 징수하여 도민의 원망이 모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1906년) 하반기 연세금(年稅金)을 수  
취하였다고 하니, 일이 마땅히 붙잡아 심판해야 하나 귀 부  
관인과 관계되어 있는 까닭에 먼저 조회를 올리니, 귀 부에서  
그 섬의 지단(地段)을 김용제에게 인허한 일이 있는지 명백  
히 고시하라.” 하였다고 한다.

**1906년 8월 2일, 照有查正, 2면 5단, 기사**

南署居吳世光氏는 有何所失인지 仁川港日本理事官加藤本四郎  
氏が 該港監理에게 照會호기를 不容不審査호 事이 有호니 吳  
世光을 拿致本署호야 審査歸正케호라호앗더라.

**1906년 8월 2일, 조사하여 바로잡아 달라 조회함, 2면 5단,  
기사**

남서(南署)에 사는 오세광(吳世光) 씨는 어떠한 이유로 잘못

한 것이 있는지, 인천항 일본 이사관 가등본사랑(加藤本四郎)에게 조회하기를 “자세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으니 오세광을 본 서로 잡아 조사하고 바르게 돌리게 하라”고 하였다.

**1906년 8월 3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仁川監理署主事姜泰膺 任龍川監理署主事叙判任官七級△東萊監理署主事鄭喆永 任仁川監理署主事叙判任官七級 …… 以上七月三十一日.

**1906년 8월 3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인천감리서 주사 강태웅(姜泰膺) 임 용천(龍川)감리서 주사 서판임관(叙判任官) 7급△동래감리 주사 정철영(鄭喆永) 임 인천감리서 주사 서판임관 7급 …… 이상 7월 31일.

**1906년 8월 3일, 森肇法律事務所, 1면 6단, 광고**

京城事務所本町一丁目 理事廳前 電話三一六 仁川事務所日本居留地 理事廳隣 電話三一九 平壤事務所新市街大和町理事廳前 前事務員田中川上은 關係가 無함.

**1906년 8월 3일, 삼조법률사무국(森肇法律事務所), 1면 6단, 광고**

경성사무국 : 본정(本町) 1정목 이사청 앞. 전화 316, 인천사무국 : 일본거류지 이사청 인근. 전화 319, 평양 : 사무국 신시가(新市街) 대화정(大和町) 이사청 앞. 전 사무원 전중천상(田中川上)은 관계가 없음.

**1906년 8월 6일, 仁監報政, 2면 6단, 기사**

仁川監理徐丙珪氏가 政府에 報호되 本港理事廳에서 韓日議定書를 基因호야 各國人居留地에 地契繕給을 該廳에서 引繼호았다고호았더라.

**1906년 8월 6일, 인천 감리 정부에 보고, 2면 6단, 기사**

인천감리 서병주(徐丙珪) 씨가 정부에 보고하길, “본 항 이사청에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기수를 기인(基因)하여 각국 거류지에 지계 선급(繕給)을 이사청에서 인계하였다”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8월 9일, 釜港水道, 2면 3단, 기사**

水道局에서 仁川平壤兩處에 水道를 敷設호 次로 經費를 請求하고 日本技手를 派送호야 水道敷設地段을 測量호다더니 昨日度支部에서 釜山港에 水道敷設하기 爲호야 該港居留民團長과 契約書를 成立호 案件을 政府會議에 提出호았더라.

**1906년 8월 9일, 부산항 수도, 2면 3단, 기사**

수도국에서 인천, 평양 두 곳에 수도를 부설할 목적으로 경비를 청구하고 일본 기수(技手)를 파송하여 수도 부설 지단(地段)을 측량한다고 하더니, 어제(1906년 9월 8일) 탁지부에서 부산항에 수도를 부설하기 위하여 부산항 거류민단장과 조약서를 성립한 안건을 정부 회의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1906년 8월 10일, 升監付校, 3면 3단, 기사**

仁川港永化學校之興旺은 業已稱賀호던바어니와 該校에서 經費가 太半不足함을 每歎不已호더니 本港監理署理南麟熙氏도

亦是該校에 財政窘絀함을 悶慮하고 該校請願을 因하여 該署 所屬升監考를 移屬該校하여 經費를 補用케 하되 該校學徒等이 該氏에게 對하여 萬萬稱謝함은 不必多言이어나와 本港有志人 上들이 該氏의 教育上熱心贊成함을 莫不感服한다더라.

1906년 8월 10일, 감고를 올려 학교로 옮김, 3면 3단, 기사  
인천항 영화학교의 흥왕(興旺)은 업적을 이미 칭송했었는데, 그 학교에서 경비가 태반 부족함을 매 번 탄식하는 데 그치지 않더니 인천항 감리 서리 남인희(南麟熙) 씨도 역시 그 학교에 재정이 군색함을 염려하고 그 학교 청원으로 인하여 해당 감리서 소속 감고(監考)를 올려 그 학교로 이속하여 경비를 보충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그 학교 생도 등이 남인희 씨에게 매우 감사함을 표한 것은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본항 뜻 있는 사람들이 남인희가 교육 상 열심히 찬성(贊成)함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 1906년 8월 11일, 敎育漸張, 2면 5단, 기사

江華府普昌學校長李東暉氏가 開城府東面居朴宣鉉과 金基煥氏 등의 請願을 因하여 普昌學校支校를 開城府東面에 設置하고 學徒五十八人을 募集하여 熱心敎育하느니 雖愚夫愚婦라도 敎育의 漸進과 風俗의 善美함을 無不攢頌한다더라.

#### 1906년 8월 11일, 敎育이 점차 넓어짐, 2면 5단, 기사

강화부 보창학교 이동휘(李東暉) 씨가 개성부 동면에 사는 박선현(朴宣鉉)과 김기환(金基煥) 씨 등의 청원으로 인하여 보창학교 지교를 개성부 동면에 설치하고 학도 58명을 모집하여 열띤 마음으로 교육하였는데, 비록 어리석은 남자, 여자

라도 교육의 점진과 풍속의 착하고 아름다움을 칭송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한다.

#### 1906년 8월 13일, 事必歸正, 2면 4단, 기사

仁川에서 客主하는 吳南根氏가 今年陰三月分에 魚藿幾百同을 買得하여 其差人尹士元氏로 하여곰 甌南浦에서 客主하는 金用求氏의게 載送하여 善爲放賣하라고 申申書托호 後에 尹士元氏의 不爲信實함을 吳南根氏가 聞知하고 金用求氏에게로 電報하기를 雖一分이라도 尹士元의게 勿爲出給하라 하얏더니 該尹氏가 因此挾憾하고 諸般物件掌記를 盜取하여 京城居金時鉉氏에게 轉給함이 金氏가 該掌記를 憑藉하여 仁川監理署에 呈訴裁判하느니 監理署에서는 事之曲直을 不爲詳覈하고 但以從文券施行例로 吳南根氏를 歸之落科함이 南氏는 節節不服하얏다가 再昨日平理院에 申訴矣러니 金時鉉氏가 辯護士洪在祺氏를 請來하여 公開裁判時에 判事太明軾氏가 情節을 查覈호 則當初에 吳南根金用求兩氏가 該物件買賣하는 事에 對하여 書辭往復호 事와 電報로 通信호 事는 不卞而自明이오 尹士元金時鉉兩氏는 舞弄抑奪하라는 事가 綻露되야 物件掌記를 推給於吳南根氏하얏느니 太判事の 公平호 判決을 人皆讚頌하더라.

#### 1906년 8월 13일, 사필귀정, 2면 4단, 기사

인천에서 客主(客主)하는 오남근(吳南根) 씨가 금년(1906년) 음력 3월에 해산물(魚藿) 수 백동을 손에 넣어 그 차인(差人) 윤사원(尹士元) 씨로 하여금 증남포(甌南浦)에서 客主하는 김용구(金用求) 씨에게 실어 보내어 잘 판매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글을 썼다. 후에 윤사원 씨의 신실하지 않음을 오남근 씨가 들어 알게 되어 김용구 씨에게 전보하기를 혹시

한 뿐이라도 윤사원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하였더니, 그 윤사원씨가 양심을 품고 제반 물건 장부 기록을 훔쳐 경성에 사는 김사원(金時鉉) 씨에게 전달해주었다. 김 씨가 그 장부 기록을 빙자하여 인천감리서에 소를 제출하여 재판하는데, 감리서에서는 일의 옳고 그름을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 단지 이후 문권의 시행 예로써 오남기 씨를 도리어 패소하게 하였다. 남 씨는 한마디 한마디 불복하였다가 그저께 평리원에 고소하였다. 김시현씨가 변호사 홍재기(洪在祺) 씨를 불러 와서 공개 재판 시에 판사 태명식(太明軾) 씨가 정성스레 조사하니 당초에 오남근, 김용구 두 명이 해당 물건을 매매하는 일에 대하여 글과 말이 오고 간 일과 전보로 통신한 일은 법제는 아니지만 자명하고, 윤사원, 김시현 두 명은 마음대로 빼앗은 일이 탄로 나서 물건 장부를 오남근에게 찾아내 주었는데, 태판사의 공평한 판결을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고 한다.

#### 1906년 8월 14일, 敬啓者而今商業을 힘쓸 時代에, 4면 3단, 광고4)

敬啓者而今商業을 힘쓸 時代에 文明的通用하는 簿記에 素昧함을 慨歎이녀 本社에서 商業卒業生을 敎師로 雇聘하고 速成 簿記夜學會를 設立하옵기 玆에 廣告하오니 有意入學者는 來議 하심은 爲要 年齡十五歲以上四十歲以內 卒業期限五個月 光武十年八月 日 仁川港米商會社總務 李時永 贊成員 朱明濬 金弘潤 李承根 張世益 沈能炫 金基浩 鄭在洪 張乃興 姜允模 韓禹根 俞鎮億 李晚植 李重穆.

4) 본 광고는 1906년 8월 14일 외에도 1906년 8월 15일 모두 2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1906년 8월 14일, 삼가 아웁니다. 지금 상업에 힘쓸 시대에,  
4면 3단, 광고

삼가 아웁니다. 상업에 힘쓸 시대에 문명적 통용하는 부기(簿記)에 어두움을 개탄하여, 본사에서 상업 졸업생을 교사(敎師)로 초빙하고 속성부기야학회(速成簿記夜學會)를 설립하였기에 광고하오니, 입학할 뜻이 있는 자는 와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것은 년령 15세 이상 40세 이내, 졸업 기한 5개월. 광무 10년(1906년) 8월 일. 인천항 미상회사총무(米商會社總務) 이시영(李時永), 찬성원(贊成員) : 주명준(朱明濬), 김홍윤(金弘潤), 이승근(李承根), 장세익(張世益), 심능현(沈能炫), 김기호(金基浩), 정재홍(鄭在洪), 장내흥(張乃興), 강윤모(姜允模), 한우근(韓禹根), 유진억(兪鎭億), 이만직(李晩植), 이중목(李重穆).

1906년 8월 15일, 速成簿記會, 3면 4단, 기사

仁川港米商會社總務李時永贊成員朱明濬氏等十餘人이 本以有志인 人들노 該港商賈들이 現時通用하는 簿記法에 嫺熟지 못하여 物貨相關에 或外人과 交涉하다가 裁判決處할 事이 有하면 恒時壓制로 無理落科하여 抑冤을 莫伸하는 弊가 種種有之함으로 此를 慨歎하여 速成簿記夜學會를 設立하고 敎師를 延聘하여 十五歲以上四十歲以下되는 商界學生들을 敎授한다니 該氏들의 實地美舉는 攢頌할 만하더라.

1906년 8월 15일, 속성(速成) 부기회(簿記會), 3면 4단, 기사  
인천항 미상회사(米商會社) 총무 이시영(李時永), 찬성원(贊成員) 주명준(朱明濬) 씨 등 10여 명이 본래 뜻이 있는 사람들로 인천항 상인(商賈)들이 현재 통용하는 부기법에 익숙하

지 못하여 재물과 재화를 서로 주고 받을 때 혹은 외인과 교섭하다가 재판을 결정할 일이 생기면 늘 제압되어 이치에 맞지 않게 패소하고 억울함을 진술하지 못하는 폐단이 종종 있으므로, 이를 개탄하여 속성부기야학회를 설립하고 교사를 초빙하여 15세 이상 40세 이하 되는 상계학생(商界學生)들을 교수(教授)한다니, 그들의 실제 행한 아름다운 거행은 칭송할 만하다.

### 1906년 8월 16일, 監部園遊會, 2면 6단, 기사

京義鐵道敷設의 又工役을 竣了한 故로 軍用鐵道監部에서 長山根武亮氏가 來十八日仁川小月尾島에서 園遊會를 設하고 各部大官과 各新聞記者를 請邀하였다.

### 1906년 8월 16일, 軍用철도감부 원유회(園遊會), 2면 6단, 기사

경의철도 부설의 공역을 준공 완료한 까닭에 군용철도감부(軍用鐵道監部)에서 장산근무량(長山根武亮) 씨가 오는 18일 인천 소월미도에서 원유회(園遊會)를 열고 각 부 대신과 각 신문기자를 초청한다고 한다.

### 1906년 8월 17일, 政照統府, 2면 3단, 기사

仁川郡所管永宗島土地를 日本人武川氏가 宮內府認許라 藉稱하고 人民의 田土를 標勒稅하는 事로 政府에서 仁港監理報告를 因하여 統監府에 移照하고 日人의 非理行臆함을 禁止하라고 하였다.

1906년 8월 17일, 정부가 통감부에 조회함, 2면 3단, 기사  
 인천군 소관 영종도 토지를 일본인 무천(武川) 씨가 궁내부  
 인허라 핑계 삼아 칭하고, 인민의 전토(田土)를 표하여 강제  
 로 세를 걷는 일로, 정부에서 인천향감리 보고에 인해 통감부  
 에 이첩하여 조회하고 일인의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과 생각  
 을 금지하라 하였다고 한다.

#### 1906년 8월 18일, 法訓畿府, 2면 5단, 기사

法部에서 京畿觀察府로 訓令하기를 頃接軍部照會하야 管下仁  
 川郡松林洞에서 致死한 兵全京化의 屍身을 另定覆檢官하야 使  
 之如法檢驗後에 形止를 馳報之意로 發訓이 今既閱月에 尚無所  
 報者는 誠何委折인지 該案慎重이 與他迥異하니 晷刻이라도 不  
 可暫緩뿐더러 況有訓飭之嚴明者乎아 其在舉行에 殊庸駭歎이라  
 該屍覆檢與否와 該案의 處斷如何을 罔夜馳報이되 又復如前稽  
 緩이면 不免大生梗矣리니 十分惕念하야 免致後悔케 하라하얏더  
 라.

#### 1906년 8월 18일, 법무에서 경기관찰부에 훈령함, 2면 5단, 기사

법무에서 경기관찰부로 훈령하기를, “근래 군부 조회를 접하  
 고 소관 아래 인천군 송림동에서 사망에 이른 병사 전경화  
 (全京化)의 시신을 별도로 복검관(覆檢官)<sup>5)</sup>을 정하여 그로  
 하여금 법대로 검시하여 알아본 후에 사실의 전말을 급히 달  
 려가 보고하라는 의미의 훈령을 내린 지 지금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보고가 없으니 참으로 어떤 곡절인지 해당 안

5) 초검한 시체를 다시 검시(檢屍)하던 하는 관원을 말한다.

의 신중이 더불어 다른 것과 다르니, 잠깐 동안이라도 잠시 느슨함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하물며 훈칙의 엄중한 것이 있겠는가. 그 거행에 있어 유달리 범상치 않아 경계하고 탄식하고 있으니 해당 시신의 복검 여부와 해당 안의 처단 여하를 밤을 새워 보고하되, 또한 다시 앞의 조사와 같으면 또한 큰 불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심분 염려하여 후회를 면하게 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 1906년 8월 20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江華府公立小學校敎員金演培 …… 依願免本官 …… 任江華府公立小學校敎員叙判任官八級 鄭重根 以上八月十六日.

#### 1906년 8월 20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강화부 공립소학교 교원 김연배(金演培) …… 청원에 의하여 본 관직을 면함 …… 임 강화부 소학교 교원 서판임관 8급 정중근(鄭重根). 이상 8월 16일.

#### 1906년 8월 22일, 免稅請願, 2면 6단, 기사

徽文義塾理事金鴻卿氏가 學部에 請願하기를 本塾所用教科書を 刊出하기 爲하야 印刷部를 設寔하고 鑄字及機具와 外他諸般機械等物을 自日本으로 購來인바 該物品을 仁川港에서 免稅物外에 其他有稅物品도 并爲免稅하랴하얏더라.

#### 1906년 8월 22일, 면세를 청원, 2면 6단, 기사

휘문의숙(徽文義塾) 이사(理事) 김홍경(金鴻卿) 씨가 학부에 청원하기를, “본 의숙 사용 교과서를 출간하기 위하여 인쇄부를 설치하고 주자(鑄字) 및 기구(機具)와 그 외 다른 제반 기

계 등의 물건을 일본으로부터 사 온 바, 그 물품을 인천항에서 면세물 외에 기타 세금이 매겨지는 물품도 아울러 면세해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8월 23일, 兩尹譴責, 2면 4단, 기사**

開城府尹韓永源江華府尹安學柱兩氏는 今年戶口帳籍을 過限不修하였다고 譴責에 處하였다더라.

**1906년 8월 23일, 두 부윤을 견책함, 2면 4단, 기사**

개성부윤 한영원(韓永源), 강화부윤 안학주(安學柱) 두 명은 금년(1906) 호구 장적을 기한이 넘어서까지 정리하지 않아 견책에 처했다고 한다.

**1906년 8월 24일, 新進部, 4면 1단, 광고**

皇城新聞 新進部 仁川 橋本烽氏 茲今以後로 新聞請求 하시는 人은 居住氏卿을 世界에 公佈해야 其 有志함을 表함.

**1906년 8월 24일, 신진부(新進部), 4면 1단, 광고**

황성신문 신진부(新進部) 인천 교본봉(橋本烽) 씨. 이에 지금 이후로 신문 청구하시는 사람은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세계에 공개하여 그 뜻이 있음을 표시함.

**1906년 8월 27일, 日人勒立標木拔去, 2면 3단 기사**

日人勒立標木拔去 仁川永宗島土地事로 宮內府叅書官金鎔濟氏와 居間承認호 羅金兩人을 仁港監理署에서 對質審査하였는디 日人武川이가 居間人을 符同해야 勒立標木호지라 統監府에 交渉해야 武川의 立標함을 拔去하였다더라.

**1906년 8월 27일, 일본인이 강제로 세워진 표목을 뽑아 버림,  
2면 3단 기사**

일본인이 강제로 세워져 있는 표목(標木)을 뽑아버리고 간 인천 영종도 토지 건으로 궁내부 참서관 김용제(金鎔濟) 씨와 거간(居間)을 승인한 나 씨, 김 씨 두 사람을 인천항감리서에서 대질 심사하였는데, 일본인 무천(武川)이 거간인을 대동하여 강제로 표목을 세웠기 때문에 통감부에서 교섭하여 무천이 세운 표목을 뽑아버렸다고 한다.

**1906년 8월 28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鮮仁川港種痘支所事務委員 李重白 …… 命仁川港種痘支所事務委員崔鍾海 …… 以上八月二十三日.

**1906년 8월 28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해임. 인천항 종두지소(種痘支所) 사무위원 이종백(李重白) …… 임명. 인천항 종두지소 사무위원 최종해(崔鍾海) …… 이상 8월 23일.

**1906년 8월 28일, 支庫 附屬 各郡, 2면 4단, 기사**

度支部에서 來十月一日부터 各郡郵便局에 委托하야 收入과 支撥事務를 開始케하고 從前已設한 支金庫는 仍舊하기로 發訓하얏는디 附屬郡이 如左하니 中央金庫 漢城府果川始興陽川 高陽、仁川支金庫 仁川富平安山、開城支金庫 開城豐德、木浦支金庫 務安咸平智島、群山支金庫 沃溝臨陂、釜山支金庫 東萊梁山機張、大邱支金庫 大邱玄風漆谷仁同、甌南支金庫 三和龍岡、平壤支金庫 平壤、元山支金庫 德源文川安邊、城津支金庫 城津吉州、馬山支金庫 昌原漆原、咸興支金庫 咸興定平 以

上三十四郡外他郡에 公錢出納權을 該郵便局에서 主管하더라

### 1906년 8월 28일, 지금고 부속 각 군, 2면 4단, 기사

탁지부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각 군 우편국에 위탁하여 수입(收入)과 지불(支撥) 사무를 개시하게 하고, 종전에 이미 설치한 지금고(支金庫)는 그대로 두기로 훈령을 시행하였는데, 부속 군이 좌와 같다. 중앙 금고 : 한성부 · 과천 · 시흥 · 양천 · 고양, 인천 지금고 : 인천 · 부평 · 안산, 개성 지금고 : 개성 · 풍덕, 목포 지금고 : 무안 · 함평 · 지도(智島), 군산 지금고 : 옥구 · 임파, 부산 지금고 : 동래 · 양산 · 기장, 대구 지금고 : 대구 · 현풍 · 칠곡 · 인동, 증남 지금고 : 삼화 · 용강, 평양 지금고 : 평양, 원산 지금고 : 덕원 · 문천 · 안변, 성진 지금고 : 성진 · 길주, 마산 지금고 : 창원 · 칠원, 함흥 지금고 : 함흥 · 평주. 이상 34군 외 타 군에 공금 출납권을 해당 우편국에서 주관한다.

### 1906년 8월 28일, 欺騙被押, 2면 6단, 기사

平壤郡居李丙淳趙基澤全得富三氏가 日本人門脇儀로 伴到仁川港하야 日人이 稱云砂糖機械를 買給이라하고 李丙淳處에 紙貨二百九十元을 欺取하야 將次逃走之際에 該港警務署에서 派巡捉致하야 日警署로 押付하얏다더라.

### 1906년 8월 28일, 사기꾼을 압송함, 2면 6단, 기사

평양군에 사는 이병순(李丙淳), 조기택(趙基澤), 전득부(全得富) 3명이 일본인 문협 의(門脇儀)와 동반하여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일본인이 사탕기계라고 칭한 것을 사서 주고 이병순이 종이돈 290원을 거짓으로 취하여 장차 도주할 때, 인천항 경무서에서 순경을 보내 잡아와 일본 경서(警署)로 압송하여 주었다고 한다.

### 1906년 8월 29일, 英王府 開墾 認許, 2면 4단, 기사

政府에서 農商工部に 照會호되 現接統監府來文則 英親上府所屬仁川富平兩郡에 陳荒地開墾使用호는 特許一事에 對호야 此次本邦人間에서 該權利를 讓渡호기 希望호는 意로 特許確否를 京城理事廳에서 稟請호오니 光武九年二月에 英親王府에서 貴國人李義烈에게 開墾認許와 同年二月十日에 仁川郡守가 李義烈에게 許可指令호야 日本人松田과 合同起工이 確信이오니 右件이 貴政府承認함에 係호인지 回示爲盼이라호마 貴部로서 業經承認인지 刻即示明호라호았더라.

1906년 8월 29일, 英王부(英王府) 개간 인허, 2면 4단, 기사  
정부에서 農商公부에 조회하기를, “지금 통감부 내 문서를 접하니, 영친상부(英親上府) 소속 인천, 부평 두 군에 진황지(陳荒地)를 개간하여 사용하는 특별 허가 1건에 대하여 이에 사는 본 지방 사람 사이에서 해당 권리를 양도하기 희망하는 의도로 확실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특별히 허가하는 것을 경성 이사청에서 품의하여 청하니, 광무 9년(1905) 2월에 영친왕부(英親王府)에서 귀국인(貴國人) 이의열(李義烈)에게 개간 인허와 동년 2월 10일에 인천군수가 이의열에게 허가 지령하였다. 일본인 송전(松田)과 합동 기공이 확신되오니 오른쪽 건이 귀 정부 승인과 관계 있는지 보고 회답하라고 한 바에 따라 귀 부에서 일이 승인되었는지 즉각 포고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 1906년 8월 30일, 學政變遷, 2면 4단, 기사

學部에서 官公私立學校의 官制와 校名을 變遷하얏는디 中學校는 高等普通學校라하고 各小學校는 并稱普通이라하고 其規則



을 定限하얏고 學部直轄學校의 職員은 如左하니 官立漢城師範學校에 校長一人敎官及副敎官七人學監二人敎員及副敎員五人書記二人이오 漢城高等學校에는 校長一人敎官及副敎官八人書記一人이오 日語學校에는 敎官及副敎官八人書記一人이오 漢語英語德語法語等學校에는 敎官及副敎官并四人이오 書記各一人이오 仁川日語學校에는 校長一人敎官四人書記一人이니 九月一日 부터 施行한다더라.

### 1906년 8월 30일, 학교 행정 변경, 2면 4단, 기사

학부에서 관공사립학교의 관제와 교명을 변경하였는데, 중학교는 고등보통학교라 하고, 각 소학교는 모두 보통이라 칭하고 그 규칙을 한하여 정하였다. 학부 직할학교의 교원은 좌와 같다. 관립한성사범학교에 교장 1인, 교관(敎官) 및 부교관 7인, 학감(學監) 2인 교원 및 부교원 5인, 서기 2인이다. 한성고등학교에는 교장 1인, 교관 및 부교관 8인, 서기 1인이다. 일어학교에는 교관 및 부교관 8인, 서기 1인이다. 한성영어독어불어 등 학교에는 교관 및 부교관 모두 4인, 서기 각 1인이다. 인천일어학교에는 교장 1인, 교관 4인, 서기 1인이다.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 1906년 8월 31일, 示明 許墾 理由, 2면 6단, 기사

政府에서 英親王府所管仁川富平間陳荒地認許一欸으로 宮內府에 照會되 土地는 內部所管이오 開墾認許는 農商工部所管이어늘 貴府에서 特許權이 何有하야 事端을 滋生歧二케하는지 其事由을 示明하라하얏더라.

1906년 8월 31일, 개간을 허락한 이유를 분명히 밝힘, 2면 6단, 기사

정부에서 영친왕부(英親王府) 소관 인천, 부평 간 진황지(陳荒地) 인허 한 건으로 궁내부에 조회하길, “토지는 내부(內部) 소관이고, 개간 인허는 농상공부 소관이거늘, 귀 부에서 특허권이 어찌 있어 사단을 둘로 갈리게 하는지 그 사유를 밝혀 보여라.”고 했다고 한다.

1906년 8월 31일, 應信請付, 3면 4단, 기사

仁川勞働會社總裁權重奭氏가 農商工部に 請願되 應信廳을 本社에 合付하야 同營業케하랴앗더라.

1906년 8월 31일, 응신청에 청함, 3면 4단, 기사

인천노동회사 총재 권중석(權重奭) 씨가 농상공부에 청원하길, “응신청(應信廳)<sup>6)</sup>을 본사에 합하여 주어 함께 영업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 1906년 9월

1906년 9월 1일, 繳消認狀, 2면 4단, 기사

政府에서 統監府公函은 因하야 農商工部に 照會되 義親王府所屬加德及巨濟漁場特許와 英親王府所屬仁川富平兩郡에 陳荒地開墾認許一事는 俱係貴部所管하니 該兩案已許未許와 當許不當許를 趕速示明하랴앗더라.

6) 개항 이후 모군청(募軍廳)이라고 칭하는 하역조합에서 부두 노동자의 취업을 주선 하였는데, 모군청은 응신청이라고도 불렀다.

1906년 9월 1일, 문서 인허에 얽힌 것을 풀 것, 2면 4단, 기사

정부에서 통감부 공문으로 인하여 농상공부에 조회하길, “의친왕부 소속 가덕 및 거제 어장 특별 인허와 영친왕부(英親王府) 소속 인천, 부평 두 군에 진황지(陳荒地) 개간 인허 건은 모두 귀 부 소관과 관계되어 있으니 해당 두 안의 허가 여부와 당위성 여부를 신속히 밝혀 보여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9월 1일, 二府滯籍, 2면 4단, 기사

內部에서 京畿觀察府에 訓令되 每年帳籍를 六月晦內로 都聚來納이 照載規例이거늘 本府下開城江華兩府에 帳籍이 尙此不到하니 苟能先期董飭이면 其所漫漶이 胡至此極가 誠甚慨歎이라 該兩府尹은 爲先視警이건과 茲以嚴訓하니 刻則嚴飭하야 不日修上케 하라 하얏더라

1906년 9월 1일, 두 부서의 문서가 적체됨, 2면 4단, 기사

내부(內部)에서 경기관찰부에 훈령하기를, “매년 장적(帳籍)을 6월 그믐 내로 도읍으로 거두어 모이도록 하는 것이 규례인데, 본부 아래 개성, 강화 두 부의 장적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능히 먼저 기한을 동척(董飭)했는데도 그 희미해진 바가 어찌 이에 이르러 진실로 심히 개탄스럽다. 해당 두 부윤은 먼저 경계하여 보고 이에 엄정히 훈령하니 즉각 엄척(嚴飭)하여 며칠 내에 정리하여 진상하게 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9월 1일, 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sup>7)</sup>

---

7) 본 광고는 1906년 9월 1일 외에도 9월 3일, 5일, 6일, 7일, 8일, 10일, 11일, 12일,

[電話韓語六六番]皇城鍾路 資本金拾五萬圓 積立金壹千六百圓  
 一諸任金定期、不定期가 有흔디 任主에게 計撥호는 利息이 隨  
 各差異호며 他人金額의 秘密、安全、融通、貯蓄에 極圖便利호  
 一諸貸金及手形割引[手形典入] 確實호 典物을 典執호고 借主  
 에게 貸給호 但諸利息及割引料는 日數로 計算호 一爲替送金  
 [換錢부치는일] 其處所는 左開호 仁川、群山、木浦、釜山、馬  
 山浦、大邱、開城、平壤、鎭南浦、元山 咸興、城津 其他一般  
 銀行의 業務를 確實營行호.

### 1906년 9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 3면 5단, 광고

[전화 한국어 66번]황성 종로 자본금 150,000원, 적립금  
 1,600원, 모든 맡긴 돈은 정기, 부정기가 있는데, 맡긴 주인  
 에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각각 차이가 있으며, 다른 사  
 람 금액의 비밀, 안전, 융통, 저축에 극도로 편리함. 모든 대  
 출금과 어음할인[어음전입]은 확실한 전당물을 전당잡고, 빌  
 리는 사람에게 빌려준다. 다만 모든 이자와 할인료는 일수로  
 계산함. 환전하여 부치는 장소는 좌측을 보라. 인천, 군산, 목  
 포, 부산, 마산포, 대구, 개성, 평양, 진남포, 원산, 함흥, 성진,  
 기타 일반은행의 사무를 확실히 이행함.

### 1906년 9월 3일, 勅令 第四十號, 1면 2단, 기사

學部直轄學校及公立學校官制 第一條 普通學校를 除호 外에  
 學部直轄學校는 左와 如호이라 成均館 官立漢城師範學校 官  
 立漢城高等學校 官立漢城曰語學校 官立漢城漢語學校 官立漢

---

14일, 15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4일, 26일, 27일, 28일, 29일  
 모두 22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城英語學校 官立漢城德語學校 官立漢城法語學校 官立仁川日語學校 …… 第十二條 本令은 光武十年九月一日 로부터 施行함이라 第十三條 開國五百四年勅令第七十九號漢城師範學校官制와 光武三年 勅令第十一號中學校官制及開國五百四年勅令第八十八號外國語學校官制와 光武元年勅令第四十號外國語學校官制中改正件은 本令施行日로부터 并廢止함이라. 光武十年八月二十七日.

### 1906년 9월 3일, 칙령 제40호, 1면 2단, 기사

학부 직할학교 및 공립학교 관제. 제1조 : 보통학교를 제외하고, 그 외 학부 직할학교는 좌와 같다. 성균관, 관립한성사범학교, 관립한성고등학교, 관립한성일어학교, 관립한성한어(漢語)학교, 관립한성영어학교, 관립한성독일어(德語)학교, 관립한성불어(法語)학교, 관립인천일어학교 …… 제12조 : 본령은 광무 10년(1906)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 개국 504년 칙령 제79호 한성사범학교 관제와 광무 3년(1899) 칙령 제11호 중등학교 관제 및 개국 504년 칙령 제88호 외국어학교 관제와 광무 원년(1897) 칙령 제40호 외국어학교 관제 중 개정 건은 본 령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광무 10년(1906) 8월 27일.

### 1906년 9월 5일, 司令官 入城, 2면 3단, 기사

英國東洋艦隊司令官무 | 아 氏가 本月十一日仁港에 到泊함앗는디 十二日에 入城함야 數三日間該國領事館에서 留連함 預定이라더라.

**1906년 9월 5일, 사령관 입성, 2면 3단, 기사**

영국 동양함대(東洋艦隊) 사령관 뤼아 씨가 본 월 11일 인천항에 도착 정박하였는데, 20일에 입성(入城)하여 수삼일 간 영국 영사관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한다.

**1906년 9월 5일, 俄事次第, 2면 6단, 기사**

俄國總領事富蘭孫氏가 漢城에 駐筭 후 釜山에도 俄領事가 來到하였고 仁川港에도 俄領事가 來到한다더라.

**1906년 9월 5일, 러시아 영사 차례, 2면 6단, 기사**

러시아 총영사 부란손(富蘭孫) 씨가 한성에 주재한 후에 부산에도 러시아 영사가 도착하였고 인천항에도 러시아 영사가 도착한다고 한다.

**1906년 9월 6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前副敎官李根浩 全崔鼎夏任官立仁川日語學校敎官叙判任官六級  
△前副敎官徐丙協 任官立仁川日語學校副敎官叙判任官七級 .....  
以上九月三日.

**1906년 9월 6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전 부교관 이근호(李根浩) 동(全) 최정하(崔鼎夏) 임명 관립 인천일어학교 교관 서판임관 8급△전 부교관 서병협(徐丙協) 임명 관립인천일어학교 부교관 서판임관 7급 ..... 이상 9월 3일.

**1906년 9월 7일, 書記押上, 2면 4단, 기사**

京畿觀察署理가 内部에 電報되 江華府尹과 龍仁郡守가 無

由上京ᄃᆞᆯᆞᆫ 該郡首書記를 押上이라ᄃᆞᆯᆞᆫ다.

**1906년 9월 7일, 서기를 올려 보냄, 2면 4단, 기사**

경기관찰 서리가 내부(內部)에 전보하기를, “강화부윤과 용인 군수가 보좌 없이 상경하였기에 해당 군에 수서기(首書記)<sup>8)</sup>를 올려보내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9월 8일, 地方制度, 2면 5단, 기사**

地方制度를 調査改正ᄃᆞᆯᆞᆫ디 各港監理는 府尹으로 改正ᄃᆞᆯᆞᆫ 則 江華開城廣州三府尹은 廢止ᄃᆞᆯᆞᆫ야 郡守로 改正ᄃᆞᆯᆞᆫ고 三百四十二 郡에 主事一人式設置ᄃᆞᆯᆞᆫ야 郡守의 指揮를 從ᄃᆞᆯᆞᆫ야 事務를 補助케ᄃᆞᆯᆞᆫ디 月給은 十五圓式으로 磨鍊ᄃᆞᆯᆞᆫ다더라.

**1906년 9월 8일, 지방제도, 2면 5단, 기사**

지방제도를 조사 개정하는데, 각 향 감리는 부윤으로 개정한 강화, 개성, 광주 세 부윤은 폐지하여 군수로 개정하고, 342 군에 주사 1인씩 설치하여 군수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보조하게 하는데 월급은 15원씩으로 계획한다고 한다.

**1906년 9월 8일, 本人에 幹事人 魚聖夏가, 3면 5단, 광고<sup>9)</sup>**

本人에 幹事人 魚聖夏가 往留仁港타가 去陰六月二十八日에 忽不知去處이오니 內外國人은 錢物間切勿相關ᄃᆞᆯᆞᆫ시오 海州李圭昇 告白.

8) 지방관아에 딸린 서기의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이다.

9) 본 광고는 1906년 9월 8일 외에도 1906년 9월 15일, 17일, 18일, 19일, 20일 모두 6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1906년 9월 8일, 본인의 대리인 어성하(魚聖夏)가, 3면 5단, 광고

본인의 대리인(幹事人) 어성하(魚聖夏)가 인천항에 와서 머무르다가 지난 음력 6월 28일에 홀연히 간 곳을 알지 못하니, 내외국인은 전물(錢物) 간 절대 상관하지 마시오. 해주 이규승(李圭昇). 고백(광고).

1906년 9월 10일, 勅令 第四十五號, 1면 2단, 기사

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 第一條 成均館及普通學校를 除<sup>하</sup> 外에 學部直轄學校職員의 定員은 左와 如<sup>하</sup>함이라 官立漢城師範學校 校長一人 敎官及副敎官七人 學員監二人 敎員及副敎員五人 書記二人 官立漢城高等學校 校長一人 敎官及副敎官八人 書記一人 官立漢城日語學校 敎官及副敎官八人 書記一人 官立漢城漢語學校 敎官及副敎官四人 書記一人 官立漢城英語學校 敎官及副敎官六人 書記一人 官立漢城德語學校 敎官及副敎官四人 書記一人 官立漢城法語學校 敎官及副敎官四人 書記一人 官立仁川日語學校 校長一人 敎官及副敎官四人 書記一人 …중략… 附則. 第四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sup>하</sup> 이라 光武十年九月三日.

1906년 9월 10일, 칙령 제45호, 1면 2단, 기사

칙령 제45호. 학부직할 학교 직원 정원령. 제1조 : 성균관 및 보통학교를 제외한 그 밖에 학부 직할 학교 직원의 정원은 좌와 같이 한다. 관립한성사범학교 : 교장 1인, 교관 및 부교관 7인, 학원감 2인, 교원 및 부교원 5인, 서기 2인. 관립한성교등학교 : 교장 1인, 교관 및 부교관 8인, 서기 1인. 관립한성일어학교 : 교관 및 부교관 8인, 서기 1인. 관립한성한어



학교 : 교관 및 부교관 4인, 서기 1인. 관립한성영어학교 : 교관 및 부교관 6인, 서기 1인. 관립한성독어학교 : 교관 및 부교관 4인, 서기 1인. 관립한성불어학교 : 교관 및 부교관 4인, 서기 1인. 관립인천일어학교 : 교장 1인, 교관 및 부교관 4인, 서기 1인. …… 부칙. 제14조 :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10년(1906) 9월 3일.

### 1906년 9월 10일, 叙任及辭令, 1면 3단, 기사

兼任官立仁川日語學校長仁川監理徐丙珪 以上九月三日.

### 1906년 9월 10일, 서임 및 사령, 1면 3단, 기사

겸임 관립인천일어학교장 및 인천감리 서병주(徐丙珪). 이상 9월 3일.

### 1906년 9월 12일, 仁監報告, 2면 4단, 기사

仁川監理徐丙珪氏가 金鳳儀韓敬九及李瑛奎氏의 賭技贓贖錢四百元을 法部에 報告했더니 法部에서 金鳳儀韓敬九氏의 贓贖錢은 捧納하고 李瑛奎氏의 贓贖錢은 即爲出給이라고 訓令했더니 徐監理가 論報하기를 該錢을 下隸輩에게 已爲償給했스니 還爲徵出해야 上送할지 本判事가 自辦上送할지 即爲指飭하러왔더라.

### 1906년 9월 12일, 인천감리의 보고, 2면 4단, 기사

인천감리 서병주(徐丙珪) 씨가 김봉의(金鳳儀), 한경구(韓敬九) 및 이영규(李瑛奎) 씨의 노름(賭技) 장속전(贓贖錢)<sup>10)</sup> 4

---

10) 뇌물을 취득한 죄(贓罪)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속전(贖錢)을 말한다.

백원을 법부에 보고하였더니, 법부에서 김봉의, 한경구 씨의 장속전을 거두어 들고, 이영규 씨의 장속전은 즉시 내어 주라고 훈령하였더니, 서 감리가 논의하여 보고하기를, “해당 돈은 하리베에게 이미 상환하라 하였으니, 거두어 들여 돌려 주고 위로 보내야 할지, 본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올려 보낼지 즉시 지척해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 1906년 9월 12일, 傳道罪囚, 2면 4단, 기사

仁川港居傳道師洪乘河氏가 該港監理에게 請願하기를 本人이 播傳聖敎로 爲己任인바 諸般敎會傳敎事로 本港監獄罪囚에게 互相傳道하야 使自覺悔罪하고 回心向善케함을 伏望이라하얏다더라.

#### 1906년 9월 12일, 죄수를 전도함, 2면 4단, 기사

인천항에 사는 전도사(傳道師) 홍승하(洪乘河) 씨가 인천항 감리에게 청원하기를 “본인이 성스러운 가르침을 전파하는 임무를 다했기에 제반 교회 전교사(傳敎事)로 인천항 감옥 죄수에게 서로 전도하여 자각하게끔 하여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돌려 선을 향하게 함을 엿드려 바란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 1906년 9월 17일, 英將艦宴, 2면 3단, 기사

本月十二日에 入城하얏던 英國東洋艦隊司令官무아 中將이 再 昨日仁港該軍艦에서 午餐會를 設하고 叅政大臣以下各大臣과 伊藤統監以下總長과 各總領事를 請邀宴待하얏더라.

1906년 9월 17일, 영국 중장이 함대에서 연회, 2면 3단, 기사  
본월 12일에 입성하였던 영국 동양함대(東洋艦隊) 사령관 무

아 중장(中將)이 그저께(9월 15일) 인천 해당 군함에서 오찬 회(午餐會)를 열고 참정대신(參政大臣) 이하 각 대신과 이등(伊藤) 통감 이하 총장(總長)과 각 총영사(總領事)를 초청해 연회를 대접했다고 한다.

#### 1906년 9월 19일, 地制提議, 2면 2단, 기사

再昨日內部에서 地方制度의 調査事務를 畢了호 故로 政府에 請議書를 提出호았는디 地方形便을 調査호야 飛來面을 移付호고 郡治의 界限을 確定호았고 監理는 府尹으로 改稱호고 叅書一人主事三人을 置호니 內部管轄下에 置호았고 江華開城廣州三府尹은 郡守로 改正호았고 觀察府는 道로 改正호고 觀察道에 所屬官吏는 叅書一人警務官一人通譯官一人通譯官補一人並奏任이오 主事五人이니 前日自辟主事一窠는 廢止호고 書記十人은 八人으로 通引四名은 大廳直이라 改名호야 二人으로 使令은 使喚이라 改稱호야 十八人으로 確定호았는디 但觀察道人小事簡호 境遇에는 叅書官을 姑不設置호기로호았더라.

#### 1906년 9월 19일, 지방제도 제의, 2면 2단, 기사

그저께(9월 17일) 내부(內部)에서 지방제도의 조사 사무를 완료한 까닭에 정부에 청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지방형편을 조사하여 비래면(飛來面)을 옮겨 주고 군치(郡治)의 계한(界限)을 확정하였다. 감리는 부윤으로 개칭하고, 참서 1인, 주사 3인을 두니, 내부 관할 하에 둔다. 강화, 개성, 황주 3부윤은 군수로 개정하였다. 관찰부는 도로 개정하고, 관찰도에 소속 관리는 참서 1인, 경무관 1인, 통역관 1인, 통역관보 1인 모두 계임(奏任)이다. 주사 5인이니 전날 추천 받아 임명하는 주사 1자리는 폐지하고, 서기 10인은 8인으로, 통인(通引) 4

명은 대청직(大廳直)으로 개명한다. 2인으로 사령(使令)은 사환(使喚)으로 개칭하여 18인으로 확정하였다. 단지 관찰도가 사람이 적어 일이 적은 경우에는 참서관을 잠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 1906년 9월 20일, 訓飭發契, 2면 3단, 기사

度支部에서 京畿觀察府財務官井上雅二의 報告를 因하야 仁川監理徐丙珪氏에게 訓令하되 本監理가 以家券發給事를 不必許可於觀察府云云而左右彌托하야 以致事務之未完實施라하니 查此家契發給이 自有規程하야 莫敢違越이거날 夫何携貳하야 致此政令之紊亂인지 揆以舉行에 誠涉駭歎이라 另玆發訓하니 到即該家契發給을 一遵定式이되 若復如前漫漶이면 當有別般論警홀지니 惕念舉行하라하얏더라.

#### 1906년 9월 20일, 훈령을 내려 계약서를 발급함, 2면 3단, 기사

탁지부에서 경기관찬부 재무관 정상아이(井上雅二)의 보고를 접하여 인천감리 서병주(徐丙珪) 씨에게 훈령하기를, “본 감리가 집문서(家券) 발급 건을 관찰부에서 불필요하다고 운운하며 좌우로 부탁한다고 칭하여 사무가 완료되지 않고 실시된 것이라 하니, 이 집문서 발급을 조사하여 규정에 말미암아 감히 위반함이 없어야 하거늘, 대저 어찌 다른 마음을 갖고 이 조정의 법령을 문란하게 만들었는가. 헤아려 거행하는 것에 진실로 한탄스러우니, 별도로 이에 훈령을 내리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집문서 발급을 정해진 방식대로 지키되, 만약 다시 전과 같이 방만함이 있다면 마땅히 보통과 달리 처벌을 논할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9월 22일, 特別廣告, 3면 6단, 광고<sup>11)</sup>**

本人의 七寸族京淳이가 專事浮浪하야 本人의 庄土를 盜賣或 典執하얏거니와 近日에 墮生恠計하야 四五十石落庄土를 偽造 文券하야 日人處에 典執得債하단說이 狼藉하기로 茲以廣告하니 内外國人間切勿相關하야 後悔치 勿홈 江華邑居前丞旨 洪元燮 告白.

**1906년 9월 22일, 특별광고, 3면 6단, 광고**

본인의 가족 중 칠촌 경순(京淳)이 오로지 부랑자로 본인의 장토(庄土)를 도둑질하여 팔거나 혹은 전당 잡혔기에, 최근 다시 괴이하여 살펴보니 45섬지기 장토를 문권을 위조하여 일본인 측에 전당 잡혀 빚을 졌다는 말이 낭자하기로 이에 광고하오니, 내외국인 사이에 절대 상관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시오. 강화읍 거주 전 승지 홍원섭(洪元燮) 고백(광고).

**1906년 9월 25일, 文明錄, 3면 1단, 광고**

韓昌教氏 十圓 仁港 紳商會社 三圓五十一錢 金顯甲氏 二圓八十錢 李化淳氏 二圓七十八錢 崔錫夏氏 一圓九十二錢.

**1906년 9월 25일, 문명록, 3면 1단, 광고**

한창교(韓昌教) 씨 10환, 인항신상회사(仁港紳商會社) 3환 51전, 김현갑(金顯甲) 씨 2환 80전, 이화순(李化淳) 씨 2환 78전, 최석하(崔錫夏) 씨 1환 92전.

---

11) 본 광고는 1906년 9월 22일 외에도 1906년 9월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모두 7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1906년 9월 29일, 勅令第四十八號, 1면 4단, 기사

府를 郡으로 改稱하고 郡을 府로 改稱 하는 件과 府廳及郡廳에 關하는 件 第一條 廣州府와 江華府와 開城府는 并以郡으로 改稱함이라 第二條 仁川郡沃溝郡務安郡昌原郡東萊郡德源郡城津郡三和郡慶興郡義州郡龍川郡은 并以府로 改稱하고 府廳은 前監理署로 充當함이라 第三條 濟州郡廳은 前牧廳으로 充當함이라 附 則 第四條 本令은 本年十月一日로부터 施行함이라 光武十年九月二十四日.

1906년 9월 29일, 칙령 제48호, 1면 4단, 기사

부를 군으로 개칭하고, 군을 부로 개칭하는 건과 부청 및 군청에 관한 건. 제1조 : 광주부와 강화부와 개성부는 모두 군으로 개칭한다. 제2조 : 인천군 옥구군, 무안군, 창원군, 동래군, 덕원군, 성진군, 삼화군, 경흥군, 의주군, 용천군은 모두 부로 개칭하고, 부청은 전 감리서로 충당한다. 제3조 : 제주군청은 전 목청(牧廳)으로 충당한다. 부칙. 제4조 : 본령은 본년(19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무 10년(1906) 9월 24일.

1906년 9월 29일, 女子教育熱心, 2면 5단, 기사

我邦에 于今女子教育의 中學校와 大學校가 無하고 只今設校하자면 財政不敷에 經起無路中美國耶蘇敎中에서 日本神戶港에 設女學校하야 其內에 有中大各學校하야 隨其學力以敎授하며 敎費는 自己食費에 不過호 略干錢인디 仁川永化女學徒中平生出嫁치 안코 文明學業에 從事키 誓言하는 者ㅣ幾人이 有호 故로 出學시기여 良材을 養成하야 我國風氣를 叅互適宜케 敎授하고 我國人女敎師를 作하기로 該校諸員이 熱心講究周旋한다더라.

### 1906년 9월 29일, 여자 교육에 열심, 2면 5단, 기사

우리 지방에 지금 여자를 교육할 중학교와 대학교가 없고, 단지 지금 학교를 만들자면 재정이 이어지지 못해 경제가 일어날 길이 없는 중, 미국 예수교(耶蘇敎) 중에서 일본 고베항에 여학교를 설치하여 그 안에 중·대 각 학교가 있어 학문의 실력에 따라 가르치며 교비는 자기 식비에 불과한 약간의 돈이다. 인천영화여학도 중 평생 출가하지 않고 문명 학업에 종사하고자 명세한 자 몇 명이 있는 까닭에 학교로 보내 좋은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풍속을 서로 참조하고 헤아림이 마땅하게 가르치고, 우리나라 사람 여교사를 만들기로 해당 학교 재원이 열심히 강구하고 주선한다고 한다.

### 1906년 10월

### 1906년 10월 1일, 府尹叙任, 2면 2단, 기사

再昨日內部에서 各港監理를 府尹으로 改正奏裁함이 如左하니 仁川徐丙珪 沃溝李懋榮 務安安基鉉 昌原李琦 東萊金教獻 德源申珩模 城津李元榮 慶興張起淵 義州李民溥 龍川魚允迪 三和卞鼎相 諸氏더라.

### 1906년 10월 1일, 부윤 서임, 2면 2단, 기사

그저께(1906년 9월 29일) 내부(內部)에서 각 부 감리를 부윤으로 개정하고 재가를 받음이 좌측과 같다. 인천 서병주(徐丙珪), 옥구 이무영(李懋榮), 무안 안기현(安基鉉), 창원 이기(李琦), 동래 김교헌(金教獻), 덕원 신형모(申珩模), 성진 이원영(李元榮), 장흥 장기연(張起淵), 의주 이민부(李民溥), 용천 어윤적(魚允迪), 삼화 변정상(卞鼎相)이라고 한다.

## 1906년 10월 1일, 廿七郡守, 2면 2단, 기사

再昨日政府會議서에 廿七郡守를 經議奏裁하얏는디 羅州金聖基 安岳沈鍾舜 沔川朴芝陽 光陽黃會淵 扶安朴逸憲 鎭南權重瓚 三陟安玼煥<sup>12)</sup> 金城元有常 濟州尹元求 鏡城李翼鎬 石城金憲洙 甑山尹泰興 洪原崔九鶴 順興金昌洙 載寧李容弼 咸從金璉植 三水韓敬烈 歙谷申泰建 河東李圭三 杆城朴潤晟 永春鄭薰謨 信川閔憲植 南平李峻奎 麻田金泰熙 廣州吳泰泳 開城韓永源 江華安學柱 諸氏더라.

## 1906년 10월 1일, 이십칠 명의 군수, 2면 2단, 기사

그저께(1906년 9월 29일) 정부 회의에서 27군수를 의논하여 재가를 받았다. 나주 김성기(金聖基), 안악 심종순(沈鍾舜), 면천 박지양(朴芝陽), 광양 황회연(黃會淵), 부안 박일헌(朴逸憲), 진남 권중찬(權重瓚), 삼척 안기환(安玼煥), 금성 원유상(元有常), 제주 윤원구(尹元求), 금성 이익호(李翼鎬), 석성 김헌수(金憲洙), 병산 윤태흥(尹泰興), 홍원 최구학(崔九鶴), 순천 김창수(金昌洙), 재령 이용필(李容弼), 함흥 김연식(金璉植), 삼수 한경열(韓敬烈), 흙곡 신태건(申泰建), 하동 이규삼(李圭三), 간성 박윤성(朴潤晟), 영춘 정훈모(鄭薰謨), 신천 민희식(閔憲植), 평양 이준규(李峻奎), 마전 김태희(金泰熙), 경주 오태영(吳泰泳), 개성 한영원(韓永源), 강화 안학주(安學柱) 등이라고 한다.

<sup>12)</sup> 원문에는 ‘安玼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고종 43년(1906) 음력 8월 12일자 기사를 참조하여 삼척군수의 이름인 안기환(安玼煥)으로 교정한다.



1906년 10월 1일, 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sup>13)</sup>  
 [電話韓語六六番]皇城鍾路 資本金拾五萬圓 積立金壹千六百圓  
 一諸任金定期、不定期가 有호디 任主에게 計撥호는 利息이  
 隨各差異호며 他人金額의 秘密、安全、融通、貯蓄에 極圖便  
 利호 一諸貸金及手形割引[手形典入] 確實호 典物을 典執호고  
 借主에게 貸給호 但諸利息及割引料는 日數로 計算호 一爲替  
 送金[換錢부치는일] 其處所는 左開호 仁川、群山、木浦、釜  
 山、馬山浦、大邱、開城、平壤、鎭南浦、元山 咸興、城津 其  
 他一般銀行의 業務를 確實營行호.

1906년 10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 3면 5단, 광고  
 [전화 한국어 66번]황성 종로 자본금 150,000원, 적립금  
 1,600원, 모든 맡긴 돈은 정기, 부정기가 있는데, 맡긴 주인  
 에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각각 차이가 있으며, 다른 사  
 람 금액의 비밀, 안전, 융통, 저축에 극도로 편리함. 모든 대  
 출금과 어음할인[어음전입]은 확실한 전당물을 전당잡고, 빌  
 리는 사람에게 빌려준다. 다만 모든 이자와 할인료는 일수로  
 계산함. 환전하여 부치는 장소는 좌측을 보라. 인천, 군산, 목  
 포, 부산, 마산포, 대구, 개성, 평양, 진남포, 원산, 함흥, 성진,  
 기타 일반은행의 사무를 확실히 이행함.

### 1906년 10월 1일, 特別廣告, 3면 6단, 광고<sup>14)</sup>

本人의 七寸族京淳이가 專事浮浪호야 本人의 庄土를 盜賣或

13) 본 광고는 1906년 10월 1일 외에도 10월 2일, 4일, 5일, 6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9일, 30일, 31일 모두 26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14) 본 광고는 1906년 10월 1일 외에도 1906년 10월 2일 모두 2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典執호얏거니와 近日에 墮生恠計호야 四五十石落庄土를 偽造  
文券호야 日人處에 典執得債호다는 說이 狼藉호기로 茲以廣  
告호니 内外國人間切勿相關호야 後悔치 勿홈 江華邑居前丞旨  
洪元燮 告白.

#### 1906년 10월 1일, 특별광고, 3면 6단, 광고

본인의 가족 중 칠촌 경순(京淳)이 오로지 부랑자로 본인의  
장토(庄土)를 도둑질하여 팔거나 혹은 전당 잡혔기에, 최근  
다시 괴이하여 살펴보니 45섬지기 장토를 문권을 위조하여  
일본인 측에 전당 잡혀 빚을 졌다는 말이 낭자하기로 이에  
광고하오니, 내외국인 사이에 절대 상관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시오. 강화읍 거주 전 승지 홍원섭(洪元燮) 고백(광고).

#### 1906년 10월 2일, 雜稅濫討, 2면 4단, 기사

地方來人의 傳說을 得聞호 則江華玉浦津에서 宣禧宮派員이라  
稱호고 憑票를 來往船隻에 出付호고 魚鹽藿等屬과 米租豆太及  
雜物을 無一遺漏호고 稅錢을 一一討索호야 運輸船舶에 商民들  
이 因此困難호야 京江水路가 無異阻絶호 境에 至호다호니 自  
數年以來로 皇上陛下의 至仁호신 聖德으로 無名雜稅를 一一革  
罷호라심 詔勅에 懇惻호신 綸音이 非止再三호심은 惟我臣民의  
一同知悉호미 明確無餘이거날 何許雜類輩가 莫重 宮票를 憑藉  
호고 無辜商民의 可矜可憐호 殘錢을 無端侵討호야 皇室威信을  
汚瀆케호며 且國庫에 輸入호는 度支正供이아님은 分明호 則無  
事閑雜輩의 欺騙伎倆으도 剝割民財호는 挾雜手段에서 出호미  
明白호니 愚彼商民들은 但被剝奪에 仰天太息만호지말고 所關  
部廳에 呼訴호야 如此雜類를 一一捉懲케호면 政府에서 如斯  
情狀을 聞知호면 恬然不顧호 理가 無호리라호노라.

1906년 10월 2일, 잡세가 넘치는 것을 벌함, 2면 4단, 기사  
지방에서 온 사람의 전언을 듣기에 강화 옥포진(玉浦津)에서 선희궁(宣禧宮)에서 파견된 관원이라 칭하고 증명서(憑票)를 오가는 선박에 내어주고 물고기, 소금, 미역 등 종류와 쌀, 벼, 콩, 팥 및 잡물을 하나도 빠짐 없이 세금을 일일이 달라고 하였다. 운수 선박에 상민들이 이 곤란함으로 인하여 경강(京江) 수로가 막히고 끊길 지경과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수 년 이래로 황상 폐하의 인자하신 성덕으로 이름 없는 잡세를 일일이 혁파하라 하신 조칙에 진심을 다한 임금님의 말씀이 두 세 번 그치지 않은 것은 생각하건데 우리 신하와 백성의 모두 형편을 알고 명확히 더할 나위 없었다. 어찌 잡류배를 허하여 막중한 궁표(宮票)를 빙자하고 무고한 상민의 불쌍하고 가여운 푼 돈을 무단으로 침탈하여 황실 위신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또 국고에 수입하는 탁지부에서 정당히 부담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일 없이 한가한 잡배의 속이는 재주로 백성의 재물을 갈취하는 험잡 수단에서 생겨난 것이 분명하다. 어리석은 저 상민들은 단지 박탈당하여 하늘을 향해 탄식하지만 말고 소관 부청(部廳)에 읍소하여 이와 같은 잡류를 일일이 잡아 징계하면 정부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알면 안일하게 돌아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리라 한다.

1906년 10월 5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任仁川府尹叙奏任官一等 正三品徐丙珪 …… 任江華郡守叙奏任官三等 從二品安學柱 …… 以上十月 日.

1906년 10월 5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임명 인천부윤 서주임관 1등 정 3품 서병주(徐丙珪) ..... 임명 강화군수 서주임관 3등 중 2품 안학주(安學柱) ..... 이상 10월 일.

1906년 10월 8일, 陸運設社, 3면 1단, 기사

黃佑永氏가 同志諸人을 募集하여 仁川港에 陸運米穀會社를 設하고 陸運入港하는 米穀을 句管하여 都聚該社에 使之販賣케 하고 每石頭에 五合以下稅를 收納하여 本港衛生社를 維持케 할 目的인디 農商工部에 上納은 春秋二次에 八十圓으로 請願承認하였더라.

1906년 10월 8일, 육운미곡회사 설립, 3면 1단, 기사

황우영(黃佑永) 씨가 동지 모두를 모집하여 인천항에 육운미곡회사(陸運米穀會社)를 설립하였다. 육운 입항하는 미곡을 담당 독점하여 해당 회사에 그것을 판매하게 하고, 매 섬과 말에 5홉 이하 세금을 거두어 들여 인천항 위생사(衛生社)를 유지하게 할 목적인데, 농상공부에 상납은 봄, 가을 두 차례에 80환으로 청원 승인하였다고 한다.

1906년 10월 9일, 內訓仁尹, 2면 3단, 기사

內部에서 仁川府尹徐丙珪氏에게 訓令되 地方官制를 改正한 後에 貴府尹이 内部管轄인 則前日監理時에는 請由가 無하고 上京하였으나 今則不得已한 境遇에 上京할 時에는 觀察府에 請由하여 許可를 得한 後에 十來되 本部令第四條를 違背한 면 第十條에 依하여 施行할터이라하였더라.

**1906년 10월 9일, 내부에서 인천부윤에게 훈령함, 2면 3단, 기사**

내부(內部)에서 인천부윤 서병주(徐丙圭) 씨에게 훈령하기를, “지방 관제를 개정한 후에 귀 부윤이 내부 관할이니, 전일 감리 때에는 말미를 청하지 않고 상경하였으나, 이제는 부득이한 경우에 상경할 때에는 관찰부에 말미를 청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 10일 동안 오고, 본 부령 제 4조를 위배하면 제 10조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10월 9일, 服費請撥, 2면 4단, 기사**

本年九月에 軍部에서 各隊下士卒에 所着外套四千五百八十枚를 日本商宇伍辰見郎에게 購入할 時에 同人이 仁川稅關에 納付한 海關稅가 一千二百九十一圓五十六錢이니 該金額을 即速支撥하라고 度支에 照會하얏더라.

**1906년 10월 9일, 의복비 지불을 청함, 2면 4단, 기사**

본년(1906년) 9월에 군부에서 각 부대 군사에게 입을 외투 4,580장을 일본 상인 우오진견랑(宇伍辰見郎)에게 구입할 때, 같은 사람이 인천세관에 납부한 해관세가 1,291원 56전이니 해당 금액을 즉시 신속히 지불하라고 지부에 조회하였다고 한다.

**1906년 10월 9일, 總巡行政, 3면 4단, 기사**

仁港總巡金允福氏가 巫女十餘名及關公位牌奉安者十一人을 招致하야 此等事가 時局文明에 妨害됨을 曉諭하고 關公位牌香卓器具四十餘負을 即爲沒燒하니 金氏의 果斷行政을 稱頌不已하더라.

**1906년 10월 9일, 충순의 행정, 3면 4단, 기사**

인천충순 김윤복(金允福) 씨가 무녀 10여 명 및 관우(關公) 위패(位牌) 봉안자 11인을 초치하여 이와 같은 일이 시국 문명에 방해됨을 일러주고 관우 위패, 향로 기구 40여 점을 즉시 모조리 태워버리니, 김씨의 결단력 있는 행정을 칭송함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1906년 10월 9일, 永校秋動, 3면 4단, 기사**

仁港永化學校에서 男女學徒二百八十餘人이 陰十六日에 該港松林山에서 秋期大運動을 設行하였는디 有志官民에 賞品捐助와 過路各戶에 揭旗歡迎과 學徒父母에 設幕供食이 一大壯觀을 모았더라.

**1906년 10월 9일, 영화학교 가을운동회, 3면 4단, 기사**

인천항 영화학교에서 남녀학도 280여 인이 음력 16일에 인천항 송림산에서 가을 대운동회를 시행하였는데, 뜻 있는 관민이 상품을 기부하고 지나가는 길에 있는 각 집에서 환영 깃발을 내걸고 학도 부모가 천막을 치고 식사를 주는 일대 장관이 펼쳐졌다고 한다.

**1906년 10월 12일, 鹽運會社設立, 3면 1단, 기사**

京城居崔錫肇趙鎮泰氏等이 日本人鄭永昌氏와 協同合資하여 韓國鹽運會社를 瓶立하고 遼東半島와 淸國產鹽을 轉運販賣事業에 對하여 韓日兩國人이 契約을 十四條로 定하고 規則은 三條로 確定하여 農商工部에 請願認許하였는디 規則이 如左하니 第一條 本社設立後에 政府에서 沿海各地方官의게 嚴飭하여 淸鹽脫稅潛入을 嚴禁할 事 第二條 通商港以外와 沿海各地에 淸鹽輸入을 嚴禁

흔 以後에는 食鹽供給之道에 必有缺乏은 明瞭인 則各通商港에 輸入하는 淸鹽은 必經由本社後에 沿海各需用地로 運輸케 할 事 但本社에 經由를 得지못흔 者는 內地及沿海各地方에 擅自運輸함을 不得 할 事 第三條 淸鹽에 集散地는 仁川港과 鎭南浦及新舊義州로 定히되 各該地에 本社支社를 設置하고 且從來淸鹽輸入하는 沿海未開港各地에도 支所를 設히야 食鹽運輸에 從事 할 事.

### 1906년 10월 12일, 염운회사 설립, 3면 1단, 기사

경성에 사는 최석조(崔錫肇), 조진태(趙鎭泰) 등이 일본인 정영창(鄭永昌) 씨와 협동합자하여 한국염운회사(韓國鹽運會社)를 창립하고, 요동반도와 청국산 염의 수송 판매사업에 대하여 한일 양국인이 계약을 14조로 정하고 규칙은 3조로 확정하여 농상공부에 청원 허가하였는데, 규칙이 좌와 같다. 제1조 : 회사 설립 후에 정부에서 연해 각 지방관에게 엄칙하여 청염 탈세, 몰래 들어는 것을 엄금할 것. 제2조 : 통상항 이외 연해 각지에 청염 수입을 엄금한 이후에는 식염 공급의 도에 반드시 결핍이 있음이 명료하면 각 통상항에 수입하는 청염은 반드시 본 회사를 경유한 후에 연해 각 수용지로 운수하게 할 것. 단 본 회사에 경유를 얻지 못한 경우는 내지 및 연해 각 지방에 멋대로 운수하지 못하게 할 것. 제3조 : 청염의 집산지는 인천항과 진남포 및 신구 의주로 정하고, 각 해당 땅에 본사, 지사를 설치하고 또 종래 청염 수입하는 연해 미개항 각 지에도 지소를 설치하여 식염 운수에 종사할 것.

### 1906년 10월 13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富平郡守李海昌 …… 敍奏任官三等 以上十月一日.

1906년 10월 13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부평군수 이해창(李海昌) ..... 주임관 3등으로 서용한다. 이  
상 10월 1일.

1906년 10월 16일, 自服處役, 2면 5단, 기사

仁川港居劉基豐柳興柱羅一英三人이 日本人으로 契約하고 永  
宗島陳荒地를 買賣하였는데 日本人이 定界外民有地에 插標勒  
占함으로 民人等이 該港監理署에 呼冤하였더니 劉基豐等三人  
을 捉致取招함 則羅一英은 無罪放免하였고 柳興柱는 宮內府  
雇員이라 冒稱하고 行悖함 事이 有하야 答一百에 處辦하였고  
劉興基는 自服其罪함으로 役十年에 處하였다고 該府尹徐丙珪  
氏가 法部로 報告하였더라.

1906년 10월 16일, 자백하여 징역에 처함, 2면 5단, 기사

인천항에 사는 유기풍(劉基豐), 류흥주(柳興柱), 나일영(羅一  
英) 3인이 일본인과 계약하고 영종도 진황지를 매매하였는데,  
일본인이 정해진 지경 외에 민유지(民有地)에 가격을 붙여  
강제 점유하였다고 민인 등이 인천항 감리서에 원통함을 말  
하였다. 류기풍 등 3인을 잡아 취조하여 나일영은 무죄 방면  
하였고 류흥주는 궁내부 고용인이라 거짓으로 꾸며내고 행패  
부린 일이 있어 태(答) 1백에 처리하였고, 유흥기는 그 죄를  
자백하여 징역 10년에 처하였다고 인천부윤 서병주(徐丙珪)  
씨가 법부로 보고하였다고 한다.

1906년 10월 16일, 宮念民情, 3면 3단, 기사

江華郡玉浦津에서 宣禧宮收稅로 來往船隻에 商品의 巨細를  
勿論하고 一一收稅함으로 沿江魚鹽商等이 商販의 巨弊됨을



宣禧宮에 呼訴하얏더니 題音하기를 特念民情하야 永永勿施흔  
다하얏다더라.

1906년 10월 16일, 선희궁(宣禧宮)이 민정을 염려함, 3면  
3단, 기사

강화군 옥포진(玉浦津)에서 선희궁(宣禧宮) 수세(收稅)로 오  
가는 선척에 상품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일일이 수세하여  
강 연안의 어염 상인 등이 장사에 크게 폐단이 됨을 선희궁  
에 호소하얏더니 처분하기를, “특별히 백성의 마음을 염려하  
여 영영히 시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얏다고 한다.

1906년 10월 17일, 訓飭公選, 2면 4단, 기사

春川富平加平南陽等四郡에서 郡主事を 何如흔 資格으로 報하  
얏던지 內部에서 訓令하고 儒林鄉人中으로 公選更報하랏하얏  
더라.

1906년 10월 17일, 공정히 선발하라 훈령함, 2면 4단, 기사  
춘천, 부평, 가평, 남양 등 4군에서 군 주사를 어떠한 자격으  
로 임명하였는지 내부(內部)에서 훈령하고, 유림 향인 중에  
공정히 선발하여 다시 임명하라 하얏다고 한다.

1906년 10월 18일, 民團組織, 2면 6단, 기사

仁川府尹徐丙珪氏가 民團組織하기 爲하야 法規類編의 第二條  
例를 依하야 規則을 現令組織하느 中이라더라.

1906년 10월 18일, 민단 조직, 2면 6단, 기사

인천부윤 서병주(徐丙珪) 씨가 민단을 조직하기 위하여 법규

유편(法規類編)<sup>15)</sup>의 제2조례에 의하여 규칙을 현재 명한대로 조직하는 중이라고 한다.

### 1906년 10월 19일, 視學官 報告, 3면 3단, 기사

學部視學官魚瑑善氏가 江華府學校를 視察次로 本部訓令을 承  
訃야 本月初三日에 該郡에 到達後視察訃야 學部로 報告訃얏는  
디 本郡守는 上京不在訃고 鄉長及首書記는 使酒穰病에 視察難  
便이며 私立學校房屋에는 民人이 擅自居生訃고 什物은 遺失訃  
야 萬不成樣訃고 該郡北面에 私立普昌學校를 創立後經費가 窘  
絀이더니 自雲峴宮으로 特念校況訃야 本面에 所在訃 旅閣一座  
를 劃付學校인바 本郡鄉長이 冒稱雲峴宮의 公文이 有訃다訃고  
沮戲萬端訃고 郡守安學柱는 曠官許久에 頓不顧念訃뿐더러 一  
任鄉吏之舞弄訃야 專事謀利訃니 必至廢校之境이라訃얏더라.

### 1906년 10월 19일, 시학관(視學官) 보고, 3면 3단, 기사

학부 시학관(視學官) 어용선(魚瑑善) 씨가 강화부 학교를 시  
찰하기 위하여 본부 훈령을 승인 받아 본 월 초 3일에 강화  
군에 도달한 후 시찰하여 학부에 보고하였는데, “본 군수는  
상경하여 자리에 없고 향장(鄉長) 및 수서기(首書記)는 술을  
마시고 궤병으로 시찰이 편리하지 못하며, 사립학교 방옥(房  
屋)에는 민인이 제멋대로 거주하고 집물(什物)은 잃어버려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강화군 북면에 사립 보창학교  
를 창립 후 경비가 군색하더니 운현궁이 특별히 학교의 상황  
을 염려하여 본 면에 소재한 여각(旅閣) 한 자리를 학교로  
구획하여 준 바, 본부 향장이 거짓으로 꾸며 운현궁의 공문이

---

15) 1896년 대한제국의 법규를 모아 내각기록국에서 편찬·간행한 책을 말한다.

있다하고 여러 가지를 희롱하고 군수 안학주(安學柱)는 관을 비운지 오래에 전혀 염려치 않을 뿐만 아니라 향리에 일임하여 제멋대로여서 모든 일에 잇속만 챙기니 필히 학교를 폐지할 지경에 달했다.”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10월 20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南麟熙 趙南稷 鄭喆永 任仁川府主事叙判任官八級 …… 以上十月十五日.

**1906년 10월 20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남인희(南麟熙), 조남직(趙南稷), 정철영(鄭喆永) 임명 인천 부 주사 서판임관 8급 …… 이상 10월 15일.

**1906년 10월 20일, 民訴冤情, 2면 5단, 기사**

度支部에서 自露梁等地로 仁川港까지 水道局을 開設하는디 露梁津民人家가 自然多數撤毀함으로 該洞民人等百餘名이 昨日度支部에 呼訴하기를 今次水道局은 仁川港民의 飲料品을 爲하야 引水하기로 한다니 一視之下에 何厚何薄으로 胡至此境乎잇가 水道局開治하는 經費로 仁川港民人을 露梁津으로 搬移케하는거시 事甚妥當이갓다하고 泣訴不已한다더라.

**1906년 10월 20일, 백성이 원망하는 마음을 호소함, 2면 5단, 기사**

탁지부에서 노량 등지로부터 인천항까지 수도국을 개설하는데, 노량진 민인가(民人家)가 자연 다수 철회되어 해당 동(洞) 민인 등 100여 명이 어제 탁지부에 호소하기를, “이번 수도국은 인천항민의 식료품을 위하여 물을 끌기로 한다니 하나 같이

보살펴 주는 데서 어떠한 두텁고 열음으로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수도국을 개시하는 경비로 인천항 민인을 노량진으로 이사하게 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읍소할 따름이다.”고 한다더라.

**1906년 10월 20일, 學請安倅免官, 2면 5단, 기사**

學部에서 內部로 照會호되 現今教育이 異於他時인바 興學勸獎은 朝家之常典이오 沮戲誹謗은 法律之當禁이어늘 江華郡守 安學柱는 職在守宰호야 監督學校가 是乃義務이거늘 校務에 疎忽은 姑舍호고 反有沮戲之弊호니 亟行奏免호야 以完教育케 하라호았더라.

**1906년 10월 20일, 학부에서 안 수령의 면관을 청원함, 2면 5단, 기사**

학부에서 내부(內部)로 조회하길, “현재 교육이 다른 때와 다르니 흥학을 권장하는 것은 조정의 마땅한 법도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법률의 마땅한 금령이거늘, 강화군수 안학주(安學柱)는 수령(守宰)으로 있으면서 학교 감독이 의무이지만 교무에 소홀함은 고사하고 도리어 희롱하는 폐단이 있으니 긴급히 면직을 행하여 교육을 완전하게 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10월 20일, 江校秋試, 2면 6단, 기사**

江華郡松亭面普昌學校에서 秋期試驗을 經호았는디 二學年甲級 優等生은 高學祚劉春植等六人이오 乙級은 田喜龍柳範鎬等五人이오 一學年生은 高學燮等三人이라더라.

**1906년 10월 20일, 강화도 보창학교 가을시험, 2면 6단, 기사**

강화군 송정면 보창학교에서 가을 시험을 치렀는데, 2학년 갑등급 우등생은 고헌조(高學祚), 유춘식(劉春植) 등 6인이고, 을 등급은 전희룡(田喜龍), 류범호(柳範鎬) 등 5인이다. 1학년생은 고헌섭(高學燮) 등 3인이라고 한다.

**1906년 10월 20일, 施賞優等, 3면 4단, 기사**

開城府普昌學校에서 九月月終試驗을 設行하였는디 普通科優等生은 崔鍾善氏오 小學科優等生은 韓仁玉金天麟張命中秦永濟諸氏오 江華府內普昌學校에서 秋期試驗을 設行하였는디 高等科優等生은 朱允成高性守等十人이오 女學科優等生은 李仁順李義順劉順兮等三名인디 該優等生의게 紙筆墨空冊等物을 多數施賞하였다더라.

**1906년 10월 20일, 우등생을 시상함, 3면 4단, 기사**

개성부 보창학교에서 9월 월말 시험을 시행하였는데, 보통과 우등생은 최중선(崔鍾善) 씨, 소학과 우등생은 한인옥(韓仁玉), 김천린(金天麟), 장명중(張命中), 주영제(秦永濟) 씨다. 강화부내 보창학교에서 가을 시험을 치렀는데, 고등과 우등생은 주윤성(朱允成), 고성수(高性守) 등 10인이고, 여학과 우등생은 이인순(李仁順), 이의순(李義順), 유순혜(劉順兮) 등 3명인데 해당 우등생에게 종이, 연필, 먹, 공책 등의 물품을 다수 시상하였다고 한다.

**1906년 10월 22일, 租界確定, 2면 2단, 기사**

內部에서 仁川府尹의 報告를 接據하야 度支部에 照會하되 該

港租界內에 内外國人の 定界를 明確키호 意로 技手幾員을 派送하야 實地測量에 無至紛競케하랴하앗더라.

**1906년 10월 22일, 조계 확정, 2면 2단, 기사**

내부(內部)에서 인천부윤의 보고를 접한 것에 근거하여 탁지부에 조회하길, “인천항 조계 내에 내외국인의 정한 경계를 명확히 할 뜻으로 기수(技手) 몇 명을 파송하여 실지(實地) 측량(測量)에 어지러이 다툼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10월 22일, 果則當免, 2면 3단, 기사**

仁川港警務署總巡金允福氏가 該港居張奎明氏와 有何前嫌이던지 該張氏를 對하야 設局賭技하얏다고 無端執頗하야 惡刑濫施에 勒討貨財함으로 辯護士洪在祺氏가 再昨日에 前往하얏는디 該總巡은 今番에 遞任되기가 十常八九라더라.

**1906년 10월 22일, 결과는 즉 면직에 해당, 2면 3단, 기사**

인천항 경무서 순검 김윤복(金允福) 씨가 인천항에 사는 장규명(張奎明) 씨와 무슨 지난 악감정이 있는지 그 장씨를 대하여 노름판을 벌였다고 무단으로 잘못을 끄집어내 잔인한 형벌을 마음대로 시행하여 재화를 빼앗았다. 이 일로 변호사 홍재기(洪在祺) 씨가 그저께 왔었는데 그 순검은 이번에 체임(遞任)되기가 열에 아홉이라고 한다.

**1906년 10월 23일, 僧訴推畚, 2면 5단, 기사**

江華府積石寺僧錫俊等이 學部에 請願하되 本寺佛餉畚을 普昌學校에 見奪하얏스니 該府尹에게 嚴訓하야 折半은 還屬本寺케하심을 伏望이라하얏더라.

1906년 10월 23일, 승려가 논 환속을 호소함, 2면 5단, 기사  
강화부 적석사(積石寺) 승(僧) 석준(錫俊) 등이 학부에 청원  
하기를, “본 절 불향답(佛餉畝)<sup>16)</sup>을 보창학교에 빼앗겨 버렸  
으니, 해당 부윤에게 엄히 훈령을 내려 절반은 본 절로 환속  
하게 하심을 얻으려 바란다.”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10월 26일, 海産協同會社, 勒討商民, 3면 2단, 기사  
江華玉浦等地에서 雜類輩가 宣禧宮海稅라 稱托하고 過去船隻  
에 勒奪이 非常하기로 沿江魚鹽商民等이 宣禧宮에 呼訴하였  
더니 題旨內에 特念民情하야 即爲革罷事라하얏기로 諸商民이  
與一進會員으로 江華甲浦等地에 前往하야 收稅人을 逐送하고  
該地에서 留宿矣러니 意外大韓農商協同海産會社라고 領受証  
을 板刻하되 百五除라하고 鹽二十石載船에 勒奪이 一石이오  
四十石에 二石이오 六十石에 三石이오 二百石裝載의 九石을  
勒奪하면서 一石은 生色으로 減給이라하고 討索이 非常할 際  
에 會員與諸商民이 捉得上京하야 一進會本部에 報告하즉 評  
議長이 海産會社總務崔翊煥氏를 請來合席하고 二百石裝載의  
九石式勒奪은 理由를 質問하즉 崔氏가 言하기를 初不知事畚  
外라 勒奪은 罪는 岡知所謝라할 際에 評議長廉仲模氏가 言하  
기를 一進會員이 海産會社贊事員名目の 姓名을 拔去하하하즉  
崔翊煥氏所答이 然하면 大段妨害라하고 極力贊助함을 懇請하  
즉 廉仲模氏가 言하기를 常談에 父子兄弟至極은 天倫之情에  
도 其父가 疥癩이 有한 境遇에는 各居하는터인디 該社에서  
如此事가 往往有之하터인즉 勿爲舉論이라고하얏다더라.

16) 불양답(佛糧畝)과 같은 의미로, 부처에게 올리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 절에 딸린 논  
밭을 의미한다.

1906년 10월 26일, 해산협동회사(海產協同會社)가 상민을  
강제로 강탈함, 3면 2단, 기사

강화 옥포 등지에서 잡류배가 선희궁(宣禧宮) 해세(海稅)라  
의탁하여 칭하고는 과거 선척의 강탈이 예사롭지 않기에 강  
연안 어염상민 등이 선희궁에 호소하였더니, 처분문 내에 특  
별히 백성의 마음을 염려하여 즉시 혁파할 것이라 하였기에  
모든 상민이 함께 일진회원(一進會員)으로 강화 갑포(甲浦)  
등지 앞으로 가서 수세인(收稅人)을 쫓아 보내고, 그 땅에서  
유숙하게 했다. 뜻밖에 대한농상협동해산회사(大韓農商協同海  
產會社)라고 영수증을 판각하되, 105여라 하고 소금 20섬지  
기 배에 강탈이 1섬, 40섬에 2섬, 60섬에 3섬, 200섬 실는  
것에 9섬을 강탈하면서 1섬은 생색으로 감하게 주고 강탈이  
예사롭지 않을 때에 회원과 모든 상민이 체포하고 상경하여  
일진회 본부에 보고한 즉, 평의장(評議長)이 해산회사총무 최  
익환(崔翊煥) 씨를 청하여 와 합석하고 200섬 실는 것에 9섬  
씩 강탈한 이유를 질문하니, 최 씨가 말하기를 “애초에 알지  
못하는 일이고, 그 외 강탈한 죄는 대강 사죄한 것으로 안다.”  
고 했다. 그 때 평의장 염중모씨가 말하길, “일진회원이 해산  
회사 찬서원(贊事員) 명목의 성명을 빼버리라고 한 즉 최익  
환 씨의 답이 그러하면 대단히 해를 끼쳤다고 하고, 지극히  
힘을 다해 찬조함을 간청한다.”고 했다. 염중모 씨가 말하길  
“일상적 대화에 부자, 형제, 지극한 천륜지정(天倫之情)에도  
그 아버지가 전염병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거처하는데, 해당 회  
사에서 이와 같은 일이 왕왕 있을 터이니 거론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10월 26일, 總稅務司의 許可를 得ᄃ야, 4면 1단, 廣告<sup>17)</sup>

總稅務司의 許可를 得ᄃ야 左의 業務를 開始ᄃᄂ 一京城南大門外保稅貨物取扱所에 入庫ᄃᄂ 保稅貨物의 取扱所及通關等一切業務 一仁川釜山에 在ᄃᄂ 保稅貨物의 廻送及取扱 光武十年十月二十五日 京城南大門外 保稅貨物取扱人 漢城共同倉庫株式會社 仁川港各國居留地五號地 保稅貨物取扱人 漢城共同倉庫株式會社仁川出張所.

1906년 10월 26일, 總稅務司의 許可를 得ᄃ야, 4면 1단, 廣告  
總稅務司의 許可를 得ᄃ야 左의 業務를 開始ᄃᄂ 1. 京省 南대문 밖 保稅貨物 취급소에 入庫하는 保稅 貨物의 취급소 및 通關 등 일절 업무. 1. 인천, 부산에 있는 保稅 貨物의 회송 및 취급. 光武 10년(1906) 10월 25일. 京省 南대문 외 保稅 貨物 취급인 漢城共同창고株式會社. 인천항 各國거류지 5호지(地) 保稅貨物취급인 漢城共同창고株式會社 인천출장소.

1906년 10월 27일, 仁監報告, 2면 5단, 기사

仁川府尹徐丙珪氏가 該港萬石洞事件으로 理事官의 公函을 接據ᄃ야 内部에 報告ᄃ되 建陽二年五月에 該港監理李在正이가 築堀起墾ᄃ야 令民耕作ᄃᄂ 意로 宮內府訓令을 承準ᄃ야 派員金泓圭의게 以給印契이되 契面에 注明ᄃ기를 該地가 確係公用地ᄃ니 若至變遷이면 要遵政府令ᄃ야 施行이라ᄃ얏거늘 金泓圭가 仍將該契ᄃ야 日本人稻田勝彦西脅長太郎等處에 賣給

---

17) 본 廣告는 1906년 10월 16일 외에도 1906년 10월 27일, 29일, 30일, 31일 모두 5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廣告가 記載되어 있다.

이다가 猶爲不足호야 與其時署理監理主事金昌鍵으로 互相容奸호야 以稻田西脅等名下로 換發印契而初不載明坪數호고 只書四標호야 致此廣占境外而埋築이며 又將一契호야 典質於華商張階平호았다가 轉賣於美人大是羅이온지라 該僞券案件이 光武五年에 綻露되야 其時監理는 自京部로 拘拳審査에 明辨其無罪호야 仍行放免호고 金昌鍵金泓圭兩人은 由京院拿問後에 還囚本所가 于今五六年에 尙未妥決인마 該日人稻田勝彦과 西脅長太郎이 藉其僞券호야 犯標而恣行埋築호地段을 理不可發契호 意로 該理事와 現方交渉이나 勢不可妥決호와 據實報告호오니 查照處辦호라호았더라.

#### 1906년 10월 27일, 인천감리 보고, 2면 5단, 기사

인천부윤 서병주(徐丙珪) 씨가 인천항 만석동 사건으로 이사관의 공문을 접한 것에 따라 내부(內部)에 보고하길, “건양 2년(1897) 5월에 인천항 감리 이재정(李在正)이 독을 쌓고 개간하여 백성을 거느리고 경작할 뜻으로 궁내부 훈령을 승준하여 파견된 김홍규(金泓圭)에게 도장을 주어 계약하되 계약면에 주를 달아 명확하게 하기를 해당 땅이 확실히 공용지와 관계 있으니 만약 변경되면 다시 정부의 훈령을 좇아 시행한다고 하였다. 김홍규가 장차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일본인 도전승언(稻田勝彦), 서협장태랑(西脅長太郎) 등에 매매하였다가 오히려 부족하여 그 당시 서리, 감리, 주사, 김창건(金昌鍵)과 더불어 서로 용간(容奸)하여 도전, 서협 등 이름으로 바꾸어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처음에는 명확한 평 수를 기재하지 않고 단지 서류에 사방 경계만 있어 이 넓게 차지한 경계에 이르러 매축하였다. 또 장차 한번 계약하여 화상(華商) 장계평(張階平)에게 저당 잡혔다가 미국인 데윌러(大是羅)에게 다시 팔았는데, 해당 위조

한 문권, 안건이 광무 5년(1901)에 탄로나 그 때 감리는 경부(京部)로부터 체포하여 심사에 그 무죄를 명확히 밝혀 이에 방면되었다. 김창건, 김홍규 두 명은 경원(京院)에서 행한 신문(拿問) 후에 본부에서 죄인을 다시 가두고 지금 5, 6년에 아직 타당히 판결하지 못하였다. 그 일본인 도전승언(稻田勝彦)과 서협장대랑(西脅長太郎)이 이 위조 문권을 구실 삼아 경계를 표시하는 꽃말을 세우고 매축을 자행한 땅의 구역을, 이치로는 계약이 불가할 뜻으로 해당 이사와 현재 교섭 중이나 형세는 타당한 판결이 불가능하여 실제로 근거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더니 “명백히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 1906년 10월 29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兼任官立仁川日語學校長 仁川府尹徐丙珪 …… 以上十月十九日.

#### 1906년 10월 29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겸임 관립인천일어학교장 인천부윤 서병주(徐丙珪) …… 이상 10월 19일.

#### 1906년 10월 29일, 宮廷錄事, 1면 2단, 기사

議政府 叅政大臣 臣朴齊純 學部大臣 臣李完用 謹奏 官立仁川日語學校長 前仁川監理徐丙珪 今因新官制 叙任府尹矣 該校長之任亦使仍任之意謹上奏 光武十年十月十九日. ……

#### 1906년 10월 29일, 궁정녹사(宮廷錄事), 1면 2단, 기사

의정부 참정대신 신(臣) 박제순(朴齊純), 학부대신 신 이완용(李完用)은 삼가 아뢰입니다. 관립인천일어학교장 전 인천감리 서병주(徐丙珪)는 지금 신관제로 인하여 부윤에 서임하고, 해

당 교장의 직임 또한 이어나갈 것을 삼가 상주합니다. 광무  
10년(1906) 10월 19일. ....

**1906년 10월 30일, 統監出入, 2면 2단, 기사**

再昨日에 伊藤統監이 仁川港에 下去하얏다가 昨日上午十一時  
列車을 搭乘하고 入城하얏더라.

**1906년 10월 30일, 통감 출입, 2면 2단, 기사**

그저께(10월 28일) 이등(伊藤) 통감이 인천항에 내려 왔다가 어  
제(10월 29일) 오전 11시 열차를 탑승하고 입성하였다고 한다.

**1906년 10월 30일, 米商迷想, 3면 3단, 기사**

仁川來人의 傳說을 聞흔 則本港米商이 農商工部에 聚衆誣訴  
하야 該港陸運敎料會社를 革罷하얏는디 港內民議所에서 米商  
의 非理行爲를 質問하얏고 敎料會社에서는 損害金을 徵出할  
次로 平理院에 呼訴하나다더라.

**1906년 10월 30일, 미곡상의 미혹한 생각, 3면 3단, 기사**

인천에 온 사람이 전한 말을 들으니 인천항 미곡상이 농상공  
부에 무리를 모아 거짓 송사하여 인천항 육운교료회사(陸運  
敎料會社)를 혁파하였는데, 항내 민의소(民議所)에서 미곡상  
의 비리 행위를 질문하였고 교료회사에서는 손해금을 징수하  
기 위해 평리원(平理院)에 호소한다고 한다.

**1906년 10월 31일, 進興會社에서 農商工部 認許를 承하야,  
3면 6단, 광고**

進興會社에서 農商工部認許를 承하야 仁川港에 支社를 設施

하얏사오니 各項物品을 購用하실 兪君子는 本社로 來議하심을 爲要 支社長李溶鉉 副社長蔡奎憲.

1906년 10월 31일, 진흥회사(進興會社)에서 농상공부 인허를 받아, 3면 6단, 광고

진흥회사에서 농상공부 승허를 받아 인천항에 지사를 시행하기로 했으니, 각 항(項) 물품을 구하여 쓰실 여러분(兪君子)은 본사로 와서 의논하심을 요한다. 지사장 이용현(李溶鉉), 부사장 채규헌(蔡奎憲).

## 1906년 11월

1906년 11월 1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仁川港種痘支所事務委員崔鍾海 命江原道種痘事務委員 ..... 命  
仁川港種痘支所事務委員 崔行權 ..... 以上十月二十七日.

1906년 11월 1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인천항 중두(痘支)지소 사무위원 최중해(崔鍾海) 명(命) 강원도 중두사무위원 ..... 명 인천항 중두지소 사무위원 최행권(崔行權) ..... 이상 10월 27일.

1906년 11월 1일, 庖員賄賂, 2면 6단, 기사

江華郡居洪鍾益氏가 忠南의 庖肆都派員을 圖得하야 各郡派員을 差出時에 幾百兩幾千兩式納賂하얏더니 經理院에서 該道觀察府로 訓令하기를 庖稅收納一欸은 不必更差派員이오 各該郡守로 收納케하라함으로 用錢하 派員들이 不勝抑冤하야 該府警視에게 呼冤하야 該警視가 此事由를 觀察使에게 質問하 則

無辭可答호야 該錢은 先金으로 徵納호거시라호니 警視가 該錢을 欲推호는 中인디 同洪氏는 見機上京호앗다더라.

1906년 11월 1일, 포사도파원(庖肆都派員)에 뇌물, 2면 6단, 기사

강화군에 사는 홍종익(洪鍾益) 씨가 충남의 포사도파원(庖肆都派員)<sup>18)</sup>을 꾀하여 얻어 각 도 파원을 차출할 때에 수백냥, 수천냥씩 뇌물로 바쳤더니, 경리원(經理院)에서 해당 도 관찰부로 훈령하기를 “포세(庖稅) 수납 1관(欸)은 다시 파원을 보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해 군수로 수납하게 하라.”고 하였다. 돈을 사용한 파원들이 억울함을 이길 수 없어 해당 부 경시(警視)에게 원통함을 호소하여 해당 경시가 이 일의 연유를 관찰사에게 질문하니, 사리가 옳아 답할 말이 없었다. 그 돈은 선금으로 거두어 바친 것이라 하니, 경시가 해당 돈을 추적하고자 하는 중인데, 그 홍 씨는 기회를 보아 상경하였다고 한다.

1906년 11월 1일, 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sup>19)</sup>  
[電話韓語六六番] 皇城鍾路 資本金拾五萬圓 積立金壹千六百圓  
一諸任金定期、不定期가 有호디 任主에게 計撥호는 利息이  
隨各差異호며 他人金額의 秘密、安全、融通、貯蓄에 極圖便利  
利흥 一諸貸金及手形割引[手形典入] 確實호 典物을 典執호고  
借主에게 貸給호 但諸利息及割引料는 日數로 計算호 一爲替

18) 포사(庖肆)는 푸줏간을 말하는 것으로, 조사 관리와 포사세 수취를 위하여 내장원은 각도에 포사위원을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포사위원을 포사도파원으로 부르기도 하였다(양상현, 「한말 포사 운영과 포사세 수취구조」, 『한국문화』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5 참고)

19) 본 광고는 1906년 11월 1일 외에도 11월 2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6일, 28일, 29일, 30일 모두 24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送金[換錢부치는일] 其處所는 左開함 仁川、群山、木浦、釜山、馬山浦、大邱、開城、平壤、鎭南浦、元山 咸興、城津 其他一般銀行의 業務를 確實營行함.

1906년 11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 3면 5단, 광고  
[전화 한국어 66번] 황성 종로 자본금 150,000원, 적립금 1,600원, 모든 맡긴 돈은 정기, 부정기가 있는데, 맡긴 주인에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각각 차이가 있으며, 다른 사람 금액의 비밀, 안전, 융통, 저축에 극도로 편리함. 모든 대출금과 어음할인[어음전입]은 확실한 전당물을 전당잡고, 빌리는 사람에게 빌려준다. 다만 모든 이자와 할인료는 일수로 계산함. 환전하여 부치는 장소는 좌측을 보라.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포, 대구, 개성, 평양, 진남포, 원산, 함흥, 성진, 기타 일반은행의 사무를 확실히 이행함.

1906년 11월 1일, 總稅務司의 許可를 得ᄃ야, 4면 1단, 광고<sup>20)</sup>  
總稅務司의 許可를 得ᄃ야 左의 業務를 開始함 一京城南大門外保稅貨物取扱所에 入庫ᄃ는 保稅貨物의 取扱所及通關等一切業務 一仁川釜山에 在ᄃ는 保稅貨物의 廻送及取扱 光武十年十月二十五日 京城南大門外 保稅貨物取扱人 漢城共同倉庫株式會社 仁川港各國居留地五號地 保稅貨物取扱人 漢城共同倉庫株式會社仁川出張所.

1906년 11월 1일, 총세무사의 허가를 얻어, 4면 1단, 광고  
총세무사의 허가를 얻어 좌의 업무를 개시한다. 1. 경성 남

20) 본 광고는 1906년 11월 1일 외에도 1906년 11월 2일 모두 2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대문 밖 보세화물 취급소에 입고하는 보세 화물의 취급소 및  
통관 등 일절 업무. 1. 인천, 부산에 있는 보세 화물의 회송  
및 취급. 광무 10년(1906) 10월 25일. 경성 남대문 외 보세  
화물 취급인 -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인천항 각국거류지 5호  
지(地) 보세화물취급인 -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인천출장소.

### 1906년 11월 5일, 府郡叙任, 2면 3단, 기사

三昨日에 地方官銓考委員會에서 履歷書를 銓考하야 第一회에  
郡守及府尹十二窠를 奏裁하얏는디 仁川府尹宋憲斌、咸陽李鍾  
元、靑山韓興敎、孟山朴永世、華川趙濟均、始興李復榮、玄風  
金承杓、龍宮金炳夔、長連金裕定、突山吳克善、黃州韓澤履、  
瑞興李駿鎬諸氏더라.

### 1906년 11월 5일, 부(府)와 군(郡)에 서임(叙任), 2면 3단, 기사

삼일 전에 지방관 전고(銓考) 위원회에서 이력서를 전고(銓考)  
하여 제1회에 군수 및 부윤 12자리를 상주하여 재가 받았다.  
인천부윤 송헌빈(宋憲斌), 함양 이종원(李鍾元), 청산 한흥교  
(韓興敎), 맹산 박영세(朴永世), 화천 조제균(趙濟均), 시흥 이  
복영(李復榮), 현풍 김승표(金承杓), 용궁 김병기(金炳夔), 장  
연 김유정(金裕定), 돌산 오극선(吳克善), 황주 한택이(韓澤  
履), 서흥 이준호(李駿鎬)다.

### 1906년 11월 5일, 三府叅書, 2면 3단, 기사

仁川府叅書官李熙穆 東萊府叅書官崔憲 德源府叅書官洪鍾瀚 三  
氏가 被任하얏더라.



1906년 11월 5일, 세 부(府)에 참서관, 2면 3단, 기사  
인천부 참서관 이희목(李熙穆) 동래부 참서관 최덕(崔惠), 덕  
원부 참서관 홍종한(洪鍾瀚) 세 명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1906년 11월 5일, 仁川警報, 3면 4단, 광고  
仁川府尹徐丙珪氏가 内部에 請由上來호았는디 仁川港附近地  
에 賊警이 大熾호야 商旅杜絶호고 永宗多阜島等地에는 殺人  
奪財之變이 無日無之호니 派兵戡盜케호라호았더라.

1906년 11월 5일, 인천에 경보, 3면 4단, 광고  
인천부윤 서병주(徐丙珪) 씨가 내부(内部)에 말미를 청하여  
상경해 왔는데, “인천항 부근 땅에 도적이 일어날 기미가 매  
우 성하여 상인과 손님을 막고 영종 다부도(多阜島) 등지에  
는 살인, 재산 강탈의 변이 없는 날이 없으니 병사를 보내 도  
적을 잡게 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11월 6일, 工長新任, 2면 3단, 기사  
農商工部工務局長宋憲斌氏遞任호 代에 仁川府尹徐丙珪氏가 被命  
호았다더라.

1906년 11월 6일, 공무국장 새로 임명, 2면 3단, 기사  
농상공부 공무국장 송헌빈(宋憲斌) 씨가 체임(遞任)한 때에  
인천부윤 서병주(徐丙珪) 씨가 임명되었다고 한다.

1906년 11월 7일, 德艦倒仁, 2면 3단, 기사  
本月三日下午四時에 德國軍艦一隻이 仁川港에 到泊호았다더라.

1906년 11월 7일, 독일 군함 인천항에 도착, 2면 3단, 기사  
본월 3일 오후 4시에 독일 군함 1척이 인천항에 도착하여 정박했다고 한다.

1906년 11월 8일, 兩氏轉任, 2면 3단, 기사

泰仁郡守金潤晶氏는 仁川府尹으로 轉任되고 農商工部工務局長宋憲斌氏는 泰仁郡守로 轉任하였다.

1906년 11월 8일, 두 명의 전임, 2면 3단, 기사

태인군수 김윤정(金潤晶) 씨는 인천부윤으로 옮겨 임명되고, 농상공부 공무국장 송헌빈(宋憲斌) 씨는 태인군수로 옮겨 임명되었다고 한다.

1906년 11월 8일, 內照學部, 2면 3단, 기사

學部에서 視學官魚瑑善氏의 報告를 因하여 內部로 照會하기를 江華郡守安學柱가 學校事에 對하여 使其吏胥輩로 萬端沮戲하는 事로 亟宜奏免하라하였더니 答照하기를 該倅를 招致審査한 則貴照會辭意로 一切相左하니 的確한 證據를 要爲示明하라하였더라.

1906년 11월 8일, 내부에서 학부에 조회함, 2면 3단, 기사

학부에서 시학관(視學官) 어용선(魚瑑善) 씨의 보고로 인하여 내부(內部)에 조회하기를, “강화군수 안학주(安學柱)가 학교 일과 관련하여 이서배(吏胥輩)로 하여금 모든 것을 희롱하는 일로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조회에 답하기를, “해당 원을 불러 조사하니 귀 조회에 사의와 일절 서로 다르니, 정확한 증거를 다시 제시하여 명확하게 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11월 8일, 果則越權, 2면 4단, 기사**

漢城府는 本非訴訟衙門인데 該府尹朴義秉氏가 民事債訟에 對  
하여 日前에 江華郡居는 沈童을 發訓捉來함으로 該沈童이  
將次平理院에 呼訴質辦한다더라.

**1906년 11월 8일, 결과는 즉 월권, 2면 4단, 기사**

한성부는 본 죄 소송 아문(衙門)인데, 해당 부윤 박의병(朴義秉)씨가 민사 채무 송사에 대하여 일전에 강화군에 사는 심동(沈童)을 잡아 오라고 훈령을 내려 그 심동이 장차 평리원에 바른 판단을 호소한다고 한다.

**1906년 11월 9일, 各人發配, 2면 3단, 기사**

前叅判金商憲崔相夏兩氏는 古群山으로 發配하고 李世植氏는 濟州로 還發配하고 李載規韓弘植兩氏는 白翎島로 發配하고 金河奎黃淸一鄭雲京三氏는 鐵島로 發配한다는 事는 已爲頒布어니와 右諸氏를 法部에서 今明間에 各其配所로 發向케한다더라.

**1906년 11월 9일, 각 사람을 유배 보낸, 2면 3단, 기사**

전 참판 김상덕(金商憲), 최상하(崔相夏) 두 명은 고군산(古群山)으로 유배를 보내고, 이세직(李世植)씨는 제주로 유배를 되돌려 보내고 이재규(李載規), 한홍식(韓弘植) 두 명은 백령도로 유배를 보내고, 김하규(金河奎), 황청일(黃淸一), 정운경(鄭雲京) 세 명은 철도(鐵島)로 유배한다는 일은 이미 반포되었고, 오른쪽 모든 사람을 법부에서 오늘 내일 사이에 각기 유배소로 향하게 한다고 한다.

### 1906년 11월 9일, 安犯當律, 3면 5단, 기사

仁川府尹이 法部로 報告하기를 本港松峴面尊位崔奎煥의 報를 據흔 則本面執綱蔡相龜가 洞民에게 贓錢排歛흔 事가 有하다 하고 前任公員安光湜으로 夜半에 突入蔡家內庭하야 欲捉蔡姓타가 誤執內夫人之足이라흔바 提致安蔡兩姓하야 審査흔 則蔡之贓錢은 已屬虛無하고 安之突入內庭에 誤執夫人之足과 踞床詬辱之等節은 自服明白흔지라 該光湜을 突入內庭律에 依하야 禁獄十個月에 照勘하얏다더라.

### 1906년 11월 9일, 범인 안 씨 범률에 의하여 처분됨, 3면 5단, 기사

인천부윤이 법부로 보고하기를, “본 향 송현면 존위(尊位)<sup>21)</sup> 최규환(崔奎煥)의 보고를 접하니, 본 면 집행(執綱)<sup>22)</sup> 채상구(蔡相龜)가 동민에게 부정한 돈(贓錢)을 바로잡아 줄 일이 있다고 하고, 전임 공원(公員) 안광식(安光湜)으로 야반에 갑자기 채가의 집안에 들어가 채규환을 붙잡으려고 했다가 잘못하여 안부인의 발을 잡았다고 한 바, 안씨와 채씨 두 명을 잡아 상세히 조사하니 채씨의 부정한 돈은 이미 실체가 없고, 안씨가 갑자기 집안에 들어가 잘못 잡은 내부인의 발과 거상(踞床)에서 꾸짖고 욕하는 등의 절개는 스스로 고백한 것이 명백하다. 그 광식을 갑자기 집안에 들어간 범률(突入內庭律)에 의하여 옥에 가두는 형벌 10개월에 조감(照勘)하였다.”고 한다.

21) 한 면(面)이나 또는 한 동네의 어른이 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22) 면장(面長) · 이장(里長)들을 이르는 말이다.

1906년 11월 10일, 英艦到仁, 2면 4단, 기사

本月四日下午一時에 英國軍艦一隻이 仁川港에 碇泊하였다더라.

1906년 11월 10일, 영군 군함 인천항 도착, 2면 4단, 기사

본월 4일 오후 1시에 영국 군함 1척이 인천항에 정박하였다고 한다.

1906년 11월 13일, 생이 醫業從事한지, 4면 3단, 광고<sup>23)</sup>

生이 醫業從事한지 于玆三十餘載이온바 上年에 渡韓하여 設院試術에 內外科를 專治하였으며 就中産科에 尤爲精明하여 臨産未産及逆産等諸惡症을 一一隨治하여 呼吸之間에 産母與孩兒가 均保安全하여 効應이 神捷하온지라 江湖에 名譽가 日播하여 僉彦에 光寵을 猥荷하옵기 鄙悃을 鳴謝코져하여 貧人産患은 無料醫治하깃삽기 玆에 仰佈하오니 僉彦은 照亮하시옵 仁川港坵浦佐藤病院 告白.

1906년 11월 13일, 소생이 의업에 종사한 지, 4면 3단, 광고

소생이 의업에 종사한 지 이제 30여년인데, 작년(1905)에 한 국으로 건너와 의원을 차리고 의술을 행하여 내외과에 오로지 힘썼으며, 그 중에서 특히 산부인과에 더욱 뛰어나 임신부의 출산 및 역산(逆産)<sup>24)</sup> 등 모든 나쁜 증상을 일일이 치료 함에 따라 아주 짧은 시간에 산모와 어린아이(孩兒)가 두루 안전하여 효험이 귀신을 이길 만 하다. 강호에 명예가 날로

23) 본 광고는 1906년 11월 13일 외에도 1906년 11월 14일, 15일, 16일, 17일, 19일 모두 6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24) 아이를 낳는데 태아가 머리부터 나오지 않고 발이나 엉덩이가 먼저 나오는 이상 해산을 이르는 말이다.

퍼져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외람되게 받아, 비루한 정성을 마음으로 사례하고자 가난한 사람의 산부인과 질병은 무료로 치료하기로 하였기에 널리 알리니, 모든 사람들은 살피 헤아리시길. 인천항 탁포(坵浦) 좌등병원(佐藤病院) 고백(광고).

**1906년 11월 14일, 非囚即保, 2면 4단, 기사**

漢城府에서 江華郡居池童을 押上牢囚호는 事로 平理院에서 訓令호야 該事由를 昭詳報來호라호얏더니 報告호되 押上호는 事는 美國人吉禮泰의 請願을 因함이호 牢囚호얏다함은 牢囚가 아니라 裁判前에 保管호는 事이라고호얏다더라.

**1906년 11월 14일, 죄수가 아닌 즉 보관, 2면 4단, 기사**

한성부에서 강화군에 사는 지동(池童)을 체포하여 상부로 보내 가둔 일로 평리원(平理院)에서 그 사유를 상세히 밝히어 보고하라 하였더니 보고하기를, “체포하여 상부 감옥에 보낸 일은 미국인 길례태(吉禮泰)의 청원으로 인한 것이고,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가둔 것이 아니라 재판 전에 보관(保管)한 것이다.”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11월 15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任仁川府叅書官叙奏任官四等 正三品李熙穆 …… 依願免本官 仁川府尹徐丙珪. 任仁川府尹叙奏任官二等 …… 以上十一月五日.

**1906년 11월 15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임명 인천부 참서관 서주임관 4등 정 3품 이희목(李熙穆) …… 청원에 의하여 본 관직을 면함 인천부윤 서병주(徐丙珪). 임명 인천부윤 서주임관 2등 …… 이상 11월 5일.

1906년 11월 16일, 學照內部, 2면 3단, 기사

學部에서 內部로 照覆호되 江華郡守安學柱의 事件은 視學官 魚谿善의 報告가 確爲證據이거늘 覆查示明호라호바 部部間에 據事行文之際엔 實非公格이며 該郡守로 論之라도 職在監督敎務호야 另有勸獎敎育之意이면 豈有各校之請願호야 乃至報部之境이올잇가 事實如右에 覆無他明證이옴기 玆照會호니 照亮處辦호라호앗다더라.

1906년 11월 16일, 학부에서 내부에 조회, 2면 3단, 기사

학부에서 내부(內部)로 조회에 회답하기를, “강화군수 안학주(安學柱)의 사건은 시학관(視學官) 어용선(魚谿善)의 보고가 확실히 증거가 되는데, 다시 조사하여 명확히 하라하였으니 부와 부 사이에 일의 행위와 문서 간에 의거할 때에 실로 공식 격식이 아니며, 해당 군수를 논할지라도 직무가 교육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는 것에 있어 별다른 교육을 권장할 뜻이 있었다면 어찌 각 학교의 청원이 있어 보고할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사실이 우측과 같이 다른 명확한 증거가 바뀌지 않았기에 조회하니, 살펴 헤아려 처리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6년 11월 16일, 新進部, 4면 1단, 광고

皇城新聞 新進部 仁港 洪峻杓氏 玆今以後로 新聞請求호시는 人은 居住氏啣을 世界에 公佈호야 其有志함을 表함.

1906년 11월 16일, 신진부(新進部), 4면 1단, 광고

황성신문 신진부(新進部) 인천 홍준표(洪峻杓) 씨. 이에 지금 이후로 신문 청구하시는 사람은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세 계에 공개하여 그 뜻이 있음을 표시함.

**1906년 11월 17일, 法部令 第三號, 1면 3단, 기사**

各港市場裁判所各地方裁判所位置及管轄區域改正件 光武八年法部令 第一號 各開港市場裁判所와 各地方裁判所位置中沃溝港裁判所次에 「平壤市裁判所平壤市場內」十一字는 刪去하고 咸鏡北道裁判所次에 「濟州牧裁判所」는 「濟州裁判所」로 改正하고 同年 法部令第二號 「仁川港裁判所仁川港場內釜山港裁判所釜山港場內元山港裁判所元山港場內慶興港裁判所慶興港場內務安港裁判所務安港場內三和港裁判所三和港場內昌原港裁判所昌原港場內城津港裁判所城津港場內沃溝港裁判所沃溝港場內」九十九字는 刪去하고 「仁川港裁判所仁川府釜山港裁判所東萊府元山港裁判所德源府慶興港裁判所慶興府務安港裁判所務安府三和港裁判所三和府昌原港裁判所昌原府城津港裁判所城津府沃溝港裁判所沃溝府龍川港裁判所龍川府義州市裁判所義州府」九十九字를 添入하고 京畿裁判所下에 「三府三十五郡」은 「三十七郡」으로 改正하고 廣州府江華府開城府의 「府」字는 并以郡」字로 改正하고 喬洞郡次에 「仁川郡」三字를 刪去하고 …… 光武十年十月二十七日.

**1906년 11월 17일, 법무령 제 3호, 1면 3단, 기사**

각 항의 시장, 재판소, 각 지방의 재판소 위치 및 관할구역 개정 건(各港市場裁判所各地方裁判所位置及管轄區域改正件) 광무 8년 (1904) 법무령 제1호. 각 개항 시장, 재판소와 각 지방 재판소 위치 중 옥구항 재판소 다음에 「평양시재판소평양시장내(平壤市裁判所平壤市場內)」 11자는 삭제하고, 함경북도재판소 다음에 「제주목재판소(濟州牧裁判所)는 「제주재판소」로 개정하고, 같은 해 법무령 제2호. 「인천항재판소 인천항장내 부산항재판소 부산항장내 원산항재판소 원산항장내 경흥항재판소 경흥항장내 무안항재판소 무안항장내 삼화항재판소 삼화항장내



창원항재판소 창원항장내 성진항재판소 성진항장내 옥구항재판소 옥구항장내」 99자는 삭제하고 「인천항재판소 인천부 부산항재판소 동래부 원산항재판소 덕원부 경흥항재판소 경흥부 무안항재판소 무안부 삼화항재판소 삼화부 창원항재판소 창원부 성진항재판소 성진부 옥구항재판소 옥구부 용천항재판소 용천부 의주시재판소 의주부(仁川港裁判所仁川府釜山港裁判所東萊府元山港裁判所德源府慶興港裁判所慶興府務安港裁判所務安府三和港裁判所三和府昌原港裁判所昌原府城津港裁判所城津府沃溝港裁判所沃溝府龍川港裁判所龍川府義州市裁判所義州府)」 99자를 첨가하고, 경기재판소 아래에 「삼부삼십오군(三府三十五郡)」은 「삼십칠군(三十七郡)」으로 개정하고, 광주부 강화부 개성부의 「부(府)」자는 모두 「군(郡)」자로 개정하고, 교동군 다음에 「인천군」 3자를 삭제하고 ..... 광무 10년(1906) 10월 27일.

**1906년 11월 20일, 官立漢城師範學校 敎員, 4면 2단, 광고<sup>25)</sup>**

官立漢城師範學校敎員臨時養成科學員勸赴廣告 本校에 臨時로 敎員養成科를 設하고 學員을 試選하니 願學者는 本月二十八日(陰十月十三日)內로 學部에나 左開處所로 稟請証을 呈하고 伊日上午十時에 來하여 入學試驗을 應할 事 試驗規目은 官報에 頒布하였스니 求覽함 仁川官立日語學校 平壤 大邱 全州 公州 咸興 水原 公立普通學校 官立漢城師範學校.

**1906년 11월 20일, 官立漢城師範學校 敎員, 4면 2단, 광고**

官立漢城師範學校 敎員 임시 養成科(養成科) 학원(學員) 모

25) 본 광고는 1906년 11월 20일 외에도 1906년 11월 21일, 22일 모두 3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집 광고. 본교에 임시로 교원 양성과를 설치하고 학생을 시험으로 선발하니, 배움을 원하는 자는本月 28일(음력 10월 13일) 내로 학부나 좌측에 기재된 곳으로 청하는 증서를 내고, 그날 오전 10시에 와서 입학 시험을 치를 것. 시험 과목은 관보에 반포하였으니 열람할 것. 인천관립일어학교 · 평양 · 대구 · 전주 · 공주 · 함흥 · 수원공립보통학교, 관립한성사범학교.

**1906년 11월 21일, 俄事管轄區, 2면 2단, 기사**

露國에서 派送한 仁港駐領事が 日本外務省認許를 得하였다고 統監府에서 政府에 知照하였는데 該俄領事が 三和平壤等地까지 管領視務한다더라.

**1906년 11월 21일, 러시아영사 관할 구역, 2면 2단, 기사**

러시아에서 파견하여 보낸 인천항 주재 영사가 일본 외무성 인허를 얻었다고 통감부에서 정부에 알려 주기 위하여 조회하였는데, 해당 러시아 영사가 삼화(三和), 평양 등지까지 도맡아 다스려 시무를 본다 고 한다.

**1906년 11월 21일, 富民呼冤, 2면 5단, 기사**

富平郡民數百名이 上京하여 宮內府에 呼訴하기로 問其理由則 英親王府에서 本郡加齒洞에 沓稅를 本府所管이라하고 派員이 下來하여 科外濫討하는 故로 人民이 不勝抑冤하여 上京呼訴한다더라.

**1906년 11월 21일, 부평 백성이 원통함을 호소, 2면 5단, 기사**

부평군민 수 백명이 상경하여 궁내부에 호소하기에 그 이유

를 물으니, 영친왕부(英親王府)에서 본군 가치동(加齒洞)에  
보세(洑稅)를 본부 소관이라 하고 파견된 관원이 내려와 과  
(科) 외로 외람되이 징수하는 까닭에 인민이 원통함을 이길  
수 없어 상경하여 호소한다고 한다.

**1906년 11월 24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任京畿觀察道主事叙判任官八級前主事朴承烈 以上十一月十六  
日. 命兼任仁川港裁判所判事 仁川府尹金潤晶 ……

**1906년 11월 24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임명 경기관찰도 주사 서판임관 8급 전 주사 박승열(朴承烈).  
이상 11월 16일. 명 겸임 인천항재판소 판사 인천부윤 김윤  
정(金潤晶) ……

**1906년 11월 24일, 寄金普昌校, 2면 5단, 기사**

本國人民이 美國桑港에 留接하는 某某諸氏가 江華府普昌學校  
長李東暉氏가 教育에 熱心함을 聞知하고 勞働金幾十圓을 募  
集하야 贊成할 意로 學部大臣에게 寄附委托한지가 于今幾朔  
인디 各新聞上에 未爲頒布하니 或中間에서 浮沉之歎이 有한  
지 該事由를 學部大臣에게 詳探示明하라고 某社에 寄書하얏  
다더라.

**1906년 11월 24일, 보창학교에 기금, 2면 5단, 기사**

본국 인민이 미국 샌프란시스코(桑港)에 머물러 있는 모모  
여러 사람이 강화부 보창학교장 이동휘(李東暉)씨가 교육에  
열심히 하고 있음을 들어서 알고 노동금 몇 십원을 모집하여  
찬성(贊成)할 뜻으로 학부대신에게 기부 위탁한지가 지금 몇

개월인데, 각 신문상에 반포되지 않았으니 혹 그 간에 도중에 없어지는 개탄이 있는지 해당 사유를 학부대신에게 상세히 조사하여 명확히 하라고 모 사(社)에 기고하였다고 한다.

#### 1906년 11월 24일, 不通港潛商, 2면 6단, 기사

近來海州及清川江其他不開港口에 烟台或大連地方으로서 米穀, 獸皮, 鹽, 洋木等を 密輸入함이 每年五百萬元에 達할뿐아니라 該地方의 我國官憲이 商人과 此事를 反히 符同함이 獎勵하는 貌樣인 故로 政府에서 仁川稅關에 命함이 該各地에 監督官吏를 派送함이 嚴重히 檢査한다더라.

#### 1906년 11월 24일, 개항하지 않은 항구에서 몰래 상행위, 2면 6단, 기사

근래 해주 및 청주강, 기타 개항하지 않은 항구에 연태 혹은 대련 지방으로부터 미곡, 수피(獸皮), 소금, 양목(洋木) 등을 밀수입하는 것이 매년 5,000,000원에 달할 뿐 아니라 해당 지방의 우리나라 관리가 상인과 이 일을 도리어 부동하여 장려하는 모양인 까닭에 정부에서 인천세관에 명하여 해당 각지에 감독 관리를 파견하여 보내어 엄중히 검사한다고 한다.

#### 1906년 11월 26일, 法相下仁, 2면 3단, 기사

法部大臣李夏榮氏는 昨日에 京仁鐵道第二番列事를 搭乘하고 仁川港本第로 下往하였다더라.

#### 1906년 11월 26일, 법무대신이 인천에 내려옴, 2면 3단, 기사

법무대신 이하영(李夏榮) 씨는 어제 경인철도 제2번 열차를

답승하고 인천항 본저(本第)로 내려왔다고 한다.

### 1906년 11월 29일, 富倅政跡, 2면 6단, 기사

富平郡守李海昌氏의 政跡을 聞흔 則如左하더라 一 今夏에 彌云防賊하고 招募退吏十餘名하야 定以別巡校하고 料費는 每年春秋에 牟租를 每戶에 一斗半式出給케 하고 謂以軍物質買하고 葉錢萬餘兩을 勒徵民間하야 質物費는 只以當五錢三千餘金으로 需用하고 其餘는 沒喫事 一 身死官廳色朴容燮의 所逋三萬餘金을 勒徵於民間하야 與鄉長邊正煥으로 分喫事 一 郡主事薦報時에 不爲收議於民間하고 初以百惡具備흔 邊正煥으로 薦報라가 自內部로 先燭邊氏의 惡習故로 終不聽施還退하니 諸吏所奏가 不得不收議於士民然後에 從民望修報之意로 屢屢懇乞이되 終不聽從하고 納賂四千兩後에 以沈遠聲으로 薦報事 一 諸般事務을 委托於百惡具備흔 邊正煥及洪羲植林聲鶴하야 幾萬生靈이 竟至舉散事.

### 1906년 11월 29일, 부평 수령의 공적, 2면 6단, 기사

부평군수 이해창(李海昌) 씨의 政跡(政跡)을 들으니 좌와 같다고 한다. 1. 이번 여름에 도둑을 잘 막았다고 하고 퇴직한 관리 10여 명을 불러 모아 별순교(別巡校)로 정하고 급여는 매년 봄 가을에 모조(牟租)를 매 호에 1두 반 씩 내게 하고, 군의 무기를 교역하여 사들였다고 이르는데 엽전 만여냥을 민간에 징수하여 물건을 바꾼 비용은 단지 당오전 3,000여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조금도 남기지 않은 일. 1. 죽은 관청색(官廳色)<sup>26)</sup> 박용섭(朴容燮)이 30,000여 금을 포탈하여

26) 조선시대 지방 관서에서 주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향리를 이르는 말이다.

민간에게 징수해 향장 변정환(邊正煥)과 더불어 나누어 먹은 일. 1. 군 주사 추천을 보고할 때에 민간에 의논하지 않고 당초 백악(百惡)을 구비한 변정환(邊正煥)으로 추천하여 보고하였다가 내부(內部)로부터 먼저 변씨의 나쁜 버릇을 간파한 까닭에 종내 도로 무르라는 말을 듣지 않으니, 모든 관리의 상주하여 결국 사민(士民)에게 의논한 연후에 마침내 백성의 바람을 갖추어 보답할 뜻에 따라 누누이 간절히 빌어도 끝내 듣지 않고, 4,000냥 뇌물을 바친 후에 심원성(沈遠聲)으로 천보한 일. 1. 제반 사무를 백악을 구비한 변정환 및 홍희식(洪羲植), 임성학(林聲鶴)에게 위탁하여 몇 만의 생명이 마침내 흩어지게 이르게 된 일.

## 1906년 12월

1906년 12월 1일, 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sup>27)</sup>  
 [電話韓語六六番] 皇城鍾路 資本金拾五萬圓 積立金壹千六百圓 一諸任金定期、不定期가 有흔디 任主에게 計撥호는 利息이 隨各差異호며 他人金額의 秘密、安全、融通、貯蓄에 極圖便利호 一諸貸金及手形割引[手形典入] 確實호 典物을 典執호고 借主에게 貸給호 但諸利息及割引料는 日數로 計算호 一爲替送金[換錢부치는일] 其處所는 左開호 仁川、群山、木浦、釜山、馬山浦、大邱、開城、平壤、鎭南浦、元山 咸興、城津 其他一般銀行의 業務를 確實營行호

27) 본 광고는 1906년 12월 1일 외에도 12월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1일 모두 26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1906년 12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 3면 5단, 광고  
 [전화 한국어 66번] 황성 종로 자본금 150,000원, 적립금 1,600원, 모든 맡긴 돈은 정기, 부정기가 있는데, 맡긴 주인에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각각 차이가 있으며, 다른 사람 금액의 비밀, 안전, 융통, 저축에 극도로 편리함. 모든 대출금과 어음할인[어음전입]은 확실한 전당물을 전당잡고, 빌리는 사람에게 빌려준다. 다만 모든 이자와 할인료는 일수로 계산함. 환전하여 부치는 장소는 좌측을 보라.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포, 대구, 개성, 평양, 진남포, 원산, 함흥, 성진, 기타 일반은행의 사무를 확실히 이행함.

**1906년 12월 1일, 全羅北道 臨陂郡, 4면 5단, 광고<sup>28)</sup>**

全羅北道臨陂郡羅浦居하는 李來洙는 本是浮雜之人으로 本道益山郡春浦面新湖里居하는 洪士聖氏의 妻男인디 李某가 貧寒하야 庚寅以後로 洪某家에 錢千餘兩을 徵債흔 事와 數三年洪某의게 托身寄食흔 事를 境內所共知온디 李某가도로혀 洪某의 先考丈氏의게 捧次錢이 七千餘兩이라고 云하야 日人을 符同하야 橫侵勒捧하기로 謀흔다헝기로 玆에 廣告하오니 無論 內外國人하고 切勿見欺흠 仁港龍洞洪士彥 告白.

**1906년 12월 1일, 전라북도 임피군, 4면 5단, 광고**

전라북도 임피군(臨陂郡) 나포(羅浦)에 사는 이내수(李來洙)는 본래 추잡한 사람이고, 전라북도 익산군 춘포면(春浦面)

28) 본 광고는 1906년 12월 1일 외에도 1906년 12월 3일, 4일 모두 3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신호리(新湖里)에 사는 홍사성(洪士聖) 씨는 처남이다. 이 씨가 가난하여 경인(庚寅) 이후로 홍씨 집에 돈 1,000여 냡을 빚진 일과 수 3년 홍 씨에게 몸을 의탁하여 밥을 얻어 먹은 일을 경내 모두가 알고 있다. 이 씨가 도로 홍 씨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수입금(捧次錢)이 7,000여 냡이라고 운운하여 일본인을 부동하여 비정상적으로 침탈하여 받아 내기로 모의한다 하기에 광고하오니, 내외국인을 물론하고 절대 속지 마시길. 인천 용동 홍사언(洪士彦) 광고.

### 1906년 12월 3일, 兩官面質, 2면 3단, 기사

江華郡守安學柱氏가 該郡學校에 沮戲호았다는 視學官魚瑢善氏의 報告를 因호야 學部에서 內部로 照會호았다함은 已爲掲載어니와 內部에서 該事件에 對호야 互相質辦호 次로 再昨日下午二時에 江華郡守安學柱視學官魚瑢善兩氏를 對質次內部에 會同호았다더라.

### 1906년 12월 3일, 두 관리를 대질, 2면 3단, 기사

강화군수 안학주(安學柱) 씨가 강화군 학교에 횡방을 놓았다는 시학관(視學官) 어용선(魚瑢善) 씨의 보고를 받아 학부에서 내부(內部)로 조회하였다는 것은 이미 게재하였다. 내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호 질의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그저께(12월 1일) 오후 2시에 강화군수 안학주, 시학관 어용선 두 명을 대질하기 위해 내부에 회동하였다고 한다.

### 1906년 12월 3일, 戡盜請船, 2면 5단, 기사

仁川府警署總巡金允福氏가 內部에 報告호되 近日各處沿海邊에 水賊이 大熾호야 商路阻絶호고 內外國人의 生命財産에 損



害가 頗多하야 聽聞이 狼藉뿐더러 米穀을 裝載하 船隻이 逢賊見奪하얏다는 報告가 無日無至이온 則不可不搭乘輪船이라야 乃可捕賊인 則交涉於海關稅務司하야 海關에 所有하 輪船一隻을 借付하야 俾便使用케 하라하얏더라.

### 1906년 12월 3일, 도둑 단속을 위하여 배를 청항, 2면 5단, 기사

인천부 경서(警署) 총순(總巡) 김윤복(金允福) 씨가 내부(內部)에 보고하길, “요사이 각 처 연해변에 수적(水賊)이 크게 성하여 상로(商路)가 막히고 내외국인의 생명 재산에 손해가 매우 커서 들리는 소문이 낭자할 뿐만 아니라, 미곡을 실은 선척이 적을 만나 빼앗겼다는 보고가 이르지 않은 날이 없으니, 마땅히 윤선(輪船)에 탑승하여 이에 적을 잡을 수 있으니 해관 세무사에 교섭하여 해관에서 소유한 윤선 1척을 빌려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 1906년 12월 3일, 民情悲慘, 3면 4단, 기사

自露梁等地로 仁川港까지 水道局을 設始하다함은 已記어니와 該役事를 現今實施하느디 水道局定界內에 所有하 家屋을 現今毀撤하느니라 失棲人民은 扶老携幼하고 棲屑道路하느디 冬節民情이 滿目愁慘하다더라.

### 1906년 12월 3일, 백성의 형편이 비참, 3면 4단, 기사

노량 등지로부터 인천항까지 수도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 기재하였고, 해당 역사(役事)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 수도국에서 정한 경계 내에 소유한 가옥을 현재 허물고 있다. 집을 잃은 인민은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아이는 이끌고 도로를 떠

도는데 겨울철 백성의 형편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근심스럽고 참혹하다고 한다.

**1906년 12월 4일, 事不妥決, 2면 4단, 기사**

內部에서 日前에 視學官魚瑬善江華郡守安學柱兩氏을 會同하야 互相質辦한다더니 安氏는 初不來會하고 該部顧問室에서 魚氏을 招하야 安郡守가 敎育의 沮戢하은 事由를 一一査問하얏다더라.

**1906년 12월 4일, 일이 타당하게 판별되지 못함, 2면 4단, 기사**

내부(內部)에서 일전에 시학관(視學官) 어용선(魚瑬善), 강화군수 안학주(安學柱) 두 명을 회동하여 상호 질의하고 판단한다더니, 안 씨는 처음 회동에 오지 않았고 내부 고문실(顧問室)에서 어 씨를 불러 안군수가 교육을 희롱한 사유를 일일이 문초하여 조사하였다고 한다.

**1906년 12월 7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任議政府主事叙判任官七級 仁川府主事鄭喆永 十二月四日.

**1906년 12월 7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임명 의정부 주사 서관임관 7급 인천부 주사 정철영(鄭喆永) 12월 4일.

**1906년 12월 7일, 正式認狀, 2면 2단, 기사**

漢城과 仁川港에 駐筭하은 俄國領事가 假認狀으로 姑先赴任하얏더니 近日에 駐韓俄領事에 正式認狀을 日本外務省으로 送交하은 故로 再昨日統監府에서 日本政府은 公文을 因하야 俄領

事の 正式認狀을 政府로 移照聲明하엿다더라.

**1906년 12월 7일, 정식 인장, 2면 2단, 기사**

한성과 인천항에 주재한 러시아 영사가 거짓 인장(認狀)으로 잠시 먼저 부임하였는데 근일에 주한 러시아 영사에 정식 인장을 일본 외무성으로 보낸 까닭에 그저께(12월 5일) 통감부에서 일본 정부는 공문으로 인하여 러시아 영사의 정식 인장을 정부로 이조(移照)하여 성명하였다고 한다.

**1906년 12월 10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農商工部工務局長徐丙珪 解兼任官立仁川日語學校長. 兼任官立仁川日語學校長 仁川府尹金潤晶 以上十二月三日.

**1906년 12월 10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농상공부 공무국장 서병규(徐丙珪) 해임 겸임 관립인천일어학교. 겸임 관립인천일어학교장 인천부윤 김윤정(金潤晶). 이상 12월 3일.

**1906년 12월 13일, 本人에 所居仁港杻峴, 3면 5단, 광고<sup>29)</sup>**

本人에 所居仁港杻峴五十一統十三戶家券四張과 紙貨二千元所用 手記一張을 路中에서 遺失하엿사오니 誰某拾得하셔도 休紙施行하시며 上麻洞金副領宗源氏家로 來傳하시면 厚謝하오리다 人心을 難測이라 不無典執圖賣之慮하오니 内外國人間 切勿見欺하심 爲要 宋昌柱 告白.

29) 본 광고는 1906년 12월 13일 외에도 1906년 12월 14일, 15일, 17일, 18일 모두 5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1906년 12월 13일, 본인에 인천항 축현에 있는, 3면 5단, 광고  
본인이 인천항 축현에 있는 51통 13호 가권(家券) 4장과 지  
대 2,000원에 쓰일 수기(手記) 1장을 길에서 잃어버렸으니,  
누가 습득하더라도 휴지로 처리하시고, 상마동(上麻洞) 부령  
(副領) 김종원(金宗源)씨 집으로 와서 전하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인심을 헤아리기 어려워 저당 잡히거나 베끼어 파는 염  
려가 되오니, 내외국인은 절대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창주(宋昌柱) 고백(광고).

**1906년 12월 14일, 日校落成, 2면 4단, 기사**

仁川港官立日語學校를 新建築하야 今已竣工호故로 明十五日  
下午一時에 落成宴을 該校內에 盛設호고 内外國紳士及新聞記  
者를 請邀호았더라.

**1906년 12월 14일, 일어학교 낙성연, 2면 4단, 기사**

인천항관립일어학교를 새로 건축하여 지금 이미 준공한 까닭  
에 오는 15일 오후 1시에 낙성연(落成宴)을 해당 교내에서  
성대히 열고, 내외국 신사(紳士) 및 신문기자를 초청했다고  
한다.

**1906년 12월 19일, 四倅免官, 2면 4단, 기사**

再昨日內部에서 各郡守를 免官奏本호았는디 江華郡守安學柱  
氏는 依願免本官호았고 .....

**1906년 12월 19일, 네 명의 수령을 관직에서 면함, 2면 4단,  
기사**

그저께 내부(內部)에서 각 군수를 면관(免官)하는 상주를 올

렸는데, 강화군수 안학주(安學柱) 씨는 청원에 의하여 본 관 직을 면하였고 ……

**1906년 12월 19일, 稅務視察 發程, 2면 5단, 기사**

度支에서 三南地方에 稅務를 視察한다함은 已爲揭載어니와 稟聞한 則視察區域을 定한것은 度支部大臣閔泳綺氏는 慶尙 南北道로 協辦柳正秀氏는 全羅南北道로 司稅局長李健榮氏는 忠清南北道로 的定하고 柳正秀氏는 昨日上午六時에 京仁鐵道 第一番列車을 搭乘하고 仁川에 到達하여 輪船을 搭乘하고 發向한다더라.

**1906년 12월 19일, 세무시찰 출발, 2면 5단, 기사**

탁지부에서 삼남 지방에 세무를 시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게재하였는데, 다시 들으니 시찰 구역을 정하였는데 탁지부 대신 민영기(閔泳綺) 씨는 경상남북도로, 류정수(柳正秀) 씨는 전라남북도로, 사세국장(司稅局長) 이건영(李健榮) 씨는 충청남북도로 적정하고, 류정수 씨는 어제(12월 18일) 오전 6시에 경인철도 제1번 열차를 탑승하고 인천에 도달하여 윤선(輪船)을 탑승하고 출발했다고 한다.

**1906년 12월 19일, 志士美舉, 3면 3단, 기사**

仁川港에서 我國有志人士들이 廣學會를 組織하고 内外國人間 學者의 志願을 隨하여 各國語及理化動植農工商等の 各種學科를 教授하기로 議定한것은 發起人은 李學仁姜準鄭在洪諸氏라더라.

1906년 12월 19일, 유지 인사의 아름다운 거행, 3면 3단, 기사

인천항에서 우리나라 유지 인사들이 광학회(廣學會)를 조직하고 내외국인 간 학자(學者)의 지원을 받아 각 국어 및 물리, 화학, 동물, 식물, 농업, 공업, 상업 등의 각종 학과를 교수하기로 확정하였는데, 발기인은 이학인(李學仁), 강준(姜準), 정재홍(鄭在洪)이라고 한다.

1906년 12월 19일, 有志斯人, 3면 3단, 기사

仁港居鄭在洪氏는 邇來各種新事業에 發展을 啓圖하는 好個志士인데 大韓自強會의 趣旨目的을 贊同하여 該港에 支會를 設立하기로 現方發起中이라더라.

1906년 12월 19일, 뜻이 있는 이 사람, 3면 3단, 기사

인천항에 사는 정재홍(鄭在洪)씨는 근래 각종 신사업에 발전을 계품하는 좋은 지사(志士)인데,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의 취지, 목적을 찬동하여 인천항 지회를 설립하기로 현재 발기중이라고 한다.

1906년 12월 22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依願免本官 江華郡守安學柱 ..... 以上十二月十七日.

1906년 12월 22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청원에 의하여 본 관직을 면함. 강화군수 안학주(安學柱) ..... 이상 12월 17일.

1906년 12월 24일, 郡奏 裁下, 2면 3단, 기사

三昨日內部地方官銓考委員會에서 郡守十一窠府尹一窠를 銓考

하야 上奏 裁下함이 如左하니 開城劉漢容江華吳相奎 ……

1906년 12월 24일, 군수를 아뢰어 재가 받음, 2면 3단, 기사  
삼일전(12월 21일) 내부(內部) 지방관 전고위원회(地方官銓  
考委員會)에서 군수 11자리, 부윤 1자리를 전고(銓考)하여  
상주해 재가 받은 것이 좌와 같다. 개성 유한용(劉漢容), 강  
화 오상규(吳相奎) ……

1906년 12월 25일, 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任江華郡守叙奏任官三等 從二品吳相奎 …… 以上十二月二十一日.

1906년 12월 25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임명 강화군수 서주임관 3등 중 2품 오상규(吳相奎) …… 이  
상 12월 21일.

1906년 12월 25일, 金浦郡 雲陽里 盧敬화가, 3면 5단, 광  
고<sup>30)</sup>

金浦郡雲陽里盧敬화가 本邑刑吏와 通津桑洞居李致俊伯氏李進  
士와 仁川栗木居鄭樂進이와 挾雜符同허와 盧敬化父順甫에 畚  
量案立旨을 郡守에게너여가지고 日本人에 典執허려흐든차에  
父親이 聞此事實호고 立旨量案을 推尋허엿사오니 内外國人은  
債給見欺치마시옵 盧敬文告白.

30) 본 광고는 1906년 12월 25일 외에도 1906년 12월 26일 모두 2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1906년 12월 25일, 김포군 운양리 노경화가, 3면 5단, 광고  
 김포군 운양리(雲陽里) 노경화(盧敬化)가 본읍 형리(刑吏)와  
 통진 상동(桑洞)에 사는 이치준(李致俊)의 만형(伯氏) 이진  
 사(李進士)와 인천 율목에 사는 정낙진(鄭樂進)과 협잡 부동  
 하여 노경화 아버지 순보(順甫)의 논 양안(量案) 입지(立  
 旨)<sup>31)</sup>을 군수에게 발급 받아 일본인에 저당 잡히려던 차에  
 부친이 이 사실을 듣고 입지 양안을 추심(推尋)하였으니, 내  
 외국인은 속아서 빌려주기 마시길. 노경화 고백(광고).

#### 1906년 12월 29일, 張哥의 土地暗賣, 2면 4단, 기사

度支部에서 仁川港에 水道局을 設置한다함은 本報에 屢揭어  
 니와 該水道局定界內에 松林山이 有한디 該山을 不容不買入  
 인 故로 度支部에서 測量技手를 派送踏檢하는디 該港居留하  
 는 名不知英國人一名이 禁止曰此山은 韓國人張世憲의게 買得  
 흔거시라함으로 該根因을 探知則果然張氏가 暗賣逃躲흔 事이  
 有하다더라.

#### 1906년 12월 29일, 장 씨의 토지 암매, 2면 4단, 기사

탁지부에서 인천항에 수도국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본보에 누  
 차 게재하였다. 해당 수도국의 경계 내에 송림산이 있는데, 해당  
 산을 얻지 못하고 사지 못한 까닭에 탁지부에서 측량 기수를 파  
 송하여 답사하였다. 인천항에 거류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영국  
 인 1명이 금지하며 말하길 이 산은 한국인 장세헌(張世憲)에게  
 산 것이라 했으므로 해당 근본이 되는 원인을 찾아 알게 되었는  
 데, 과연 장씨가 암매하고 도망쳐 숨었던 일이 있다고 한다.

31) 조선시대 관부에서 개인이 청원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하는 문서를 이르는 말이다.



**1906년 12월 29일, 會員特義, 3면 2단, 기사**

漢北興學會에서 明日曜日上午十一時에 年終總會를 開하고 會務를 處理한다는디 該會員現任江華郡守吳相奎氏가 該會로 一百圓을 補助하고 該會中學校에 每朔二十圓式何時까지 擔任捐助하야 敎務를 進就케한다더라.

**1906년 12월 29일, 회원의 특별한 의(義), 3면 2단, 기사**

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에서 내일(12월 30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연중총회(年終總會)를 열고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해당 회원으로 현재 재임 중인 강화군수 오상규(吳相奎)씨가 해당 회의로 100환을 보조하고, 해당 회의 중 학교에 매달 20환씩 어느 때까지 맡아 보조하며 교육 사무를 진취하게 한다고 한다.

**1906년 12월 31일, 賣趙非英, 3면 3단, 기사**

日昨本報에 仁川港松林山을 張世憲氏가 暗賣逃竊하였다함을 聞聞 則昨年五月에 張氏가 京城長橋居前叅判趙英熙氏에게 斥賣한 事는 有하되 英人에게 賣買한 事는 無하고 逃避한 事도 無하다더라.

**1906년 12월 31일, 조 씨에게 팔고 영국인에게는 그렇지 아니함, 3면 3단, 기사**

일전 본보에 인천항 송림산을 장세헌 씨가 암매하고 도망쳐 숨었다 한 것을 다시 들으니, 작년(1905) 5월에 장씨가 경성 장교(長橋)에 사는 전 참관 조영희(趙英熙) 씨에게 헐값으로 판 일은 있지만 영국인에게 매매한 일은 없고 도피한 일도 없다고 한다.



# 고(古)신문 속의 인천 2 (하)

황성신문(1907)





1907년 1월 5일, 光武十年度内外歴史, 2면 1단, 기사

別報 光武十年度内外歴史 光武十年二月十二日 △本사가 上年十一月二十日に 本社長 張志淵氏被禁호 事로 因爲停止호 았다가 本日に 續刊호 △外部를 廢止호고 外事局을 置호야 政府에 付屬호 ..... △財政顧問 目賀田氏의 意見으로 一千萬圓借款中 五百萬圓은 爲先推來호야 仁川港水道費로 一百七十萬圓, 農工銀行補助費로 八十萬圓, 警察費로 五十三, 萬四千圓, 各港口治道費로 一百四十九萬六千圓을 豫算호 四月 .....

1907년 1월 5일, 광무 10년 내외 역사, 2면 1단, 기사

별보(別保) △본사가 작년(1906) 11월 20일에 본(本)사장 장지연(張志淵) 씨가 투옥된 일로 인하여 정지하였다가 오늘 속간(續刊) 함 △외부(外部)<sup>32)</sup>를 폐지하고 外事국(外事局)<sup>33)</sup>을 설치하여 정부에 부속함. .... △재정고문(財政顧問) 메가타(目賀田)<sup>34)</sup> 씨의 의견으로 1,000만 환을 빌려 그 중 500만환을 먼저 받아 인천항 수도비로 170만환, 농공은행(農工銀行) 보조비로 80만환, 경찰비로 53만4천환, 각 항구 치도비(治道費)로 149만6천환을 미리 계산 함. 4월 .....

32) 외무아문(外務衙門). 조선 말기에 외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1895년 4월에 시행되고 1906년에 폐지되었다.

33) 조선 말기 의정부(議政府)의 한 국(局)으로 외부(外部)의 후신. 광무10년(1906)년 시행하다 융희4년(1910)에 폐지함.

34)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1853~1926).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이 조인되자 탁지부(度支部)의 고문으로 내한하여 재정 및 경제적 예측작업에 착수하였다.

**1907년 1월 5일, 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新進名士諸氏恭祝新禧 鄭永斗氏 後墨井洞 韓丙烈氏 江華內可面 李東初氏 苑洞 徐相珍氏 惠橋後洞 玆今以後로 新聞請求하시는 人은 居住氏啣을 世界에 公佈하야 其有志함을 表함.

**1907년 1월 5일, 황성신문 신진부, 4면 1단, 광고**

새로 진입한 명사 여러분을 축하한다. 정영두 씨 후묵정동(後墨井洞), 한병렬 씨 강화 내가면, 이동초 씨 원동(苑洞), 서상진 씨 혜교후동(惠橋後洞). 지금 이후로 신문에 청구하시는 사람은 사는 곳과 이름, 직함을 세계에 알려 그 뜻있음을 표함.

**1907년 1월 5일, 株式會社漢城銀行, 4면 6단, 광고<sup>35)</sup>**

[電話六四六番] 皇城鍾路 支店所在地水原 資本金拾五萬圓 積立金五千五百圓 一 諸任金 定期, 不定期가 有하디 任主에게 計撥하는 利息이 隨各差異하며 他人金額의 秘密, 安全, 融通, 貯蓄에 極圖便利함 一 諸貸金及手形割引 [手形典入] 確實한 典物을 典執하고 借主에게 貸給함 但 諸利息及割引料는 日數로 計算함 一 爲替送金 [普通換及電報換] 其處所는 左開함 水原, 仁川, 群山, 木浦, 釜山, 馬山浦, 大邱, 開城, 平壤, 鎮南浦 元山, 咸興, 城津, 全州, 忠州, 晉州, 光州, 鏡城, 海州, 日本東京, 大坂 其他 一般 銀行의 業務를 確實營行함.

35) 주식회사한성은행에 관한 광고는 1907년 1월 5일 외에도 1907년 1월 8일, 1907년 1월 9일, 1907년 1월 10일, 1907년 1월 11일, 1907년 1월 12일, 1907년 1월 14일, 1907년 1월 15일, 1907년 1월 16일, 1907년 1월 17일, 1907년 1월 18일, 1907년 1월 19일, 1907년 1월 21일, 1907년 1월 22일, 1907년 1월 23일, 1907년 1월 24일, 1907년 1월 26일, 1907년 1월 28일, 1907년 1월 29일, 1907년 1월 30일, 1907년 1월 31일, 1907년 2월 1일, 1907년 2월 2일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1907년 1월 5일, 주식회사 한성은행, 4면 6단, 광고<sup>36)</sup>

[전화 646번] 황성종로(皇城鐘路) 지점이 있는 곳은 수원, 자본금 15만원, 적립금 5천5백 원 1. 돈을 맡기는 데에는 정기(定期), 부정기(不定期)가 있으므로 돈을 맡기는 사람마다 계산되는 이자가 각각 다르며 타인에게 금액의 비밀, 안전, 융통, 저축에 매우 편리함 1. 대금(貸金)과 어음할인, 확실한 담보를 잡고 대출자에게 빌려줌. 단 모든 이자와 할인료는 일수(日數)로 계산함 1. 송금환[보통환과 전보환] 그 처소는 좌개(左開) 함. 수원,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포, 대구, 개성, 평양, 진남포원산, 함흥, 성진, 전주, 충주, 진주, 광주, 경성(鏡城), 해주, 일본동경, 대판(大坂). 기타 일반 은행의 업무를 확실히 영업함.

1907년 1월 7일, 敬啓者는 本人이 鹽業資生인 바 鹽稅을 今年爲始하야, 3면 6단, 광고

敬啓者는 本人이 鹽業資生인 바 鹽稅을 今年爲始하야 每釜 五圓式 收納하랴 하고 度支部訓令이 有하기로 鹽民 等이 等訴于 度支部하고 本郡守 李性植氏가 民情을 特念하야 屢有舉報하오되 竟未蒙減 故로 一依度支部訓令하야 每釜 五圓式 收納이거늘 今에 一進會民이 言稱本人이 本郡守主에게 見奪錢이 當坪六千六百餘兩이라 하고 内部에 誣訴하야 至於 明查官이 下來하오니 世豈有如許變恠乎잇가 本郡守主 明白清廉은 一境이 咸頌하

36) 주식회사한성은행에 관한 광고는 1907년 1월 5일 외에도 1907년 1월 8일, 1907년 1월 9일, 1907년 1월 10일, 1907년 1월 11일, 1907년 1월 12일, 1907년 1월 14일, 1907년 1월 15일, 1907년 1월 16일, 1907년 1월 17일, 1907년 1월 18일, 1907년 1월 19일, 1907년 1월 21일, 1907년 1월 22일, 1907년 1월 23일, 1907년 1월 24일, 1907년 1월 26일, 1907년 1월 28일, 1907년 1월 29일, 1907년 1월 30일, 1907년 1월 31일, 1907년 2월 1일, 1907년 2월 2일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야 萬口成碑는 鄰境이 稱頌者이옵거날 以此無根之說노 誣錄不當人之姓名호야 構陷呈訴가 是何無據이온지 明查官查實之場에도 郡守主橫被誣陷之由을 詳細告白호얏거니와 本人이 爲其民人호야 明廉호신 郡守政治之下에 豈無嫌碍之端乎잇가 本人則 初無一分見奪於郡守호고 亦無借名於一進會民이오니 以此揭載新報上호야 使本人으로 免致橫厄케 홈 光武十一年一月三日 京畿金浦郡黔丹面峰火村居 朴富陽 字永雲.

1907년 1월 7일, 삼가아뢴 본인이 염업자생인 바 염세를 금년 위시하여, 3면 6단, 광고

삼가 아뢰오니 본인이 염전업을 하는 바 염세(鹽稅)를 올해 부터 매 부(釜)<sup>37)</sup>마다 5환씩 내라 하는 탁지부 훈령이 있기로 염민(鹽民) 등이 탁지부에 모여 하소연 하고 본(本) 군수 이성직씨가 백성의 사정을 유념하여 여러 번 신고하였으나 끝내 줄지 않았다. 그러므로 탁지부 훈령에 의해 매 부(釜)마다 5환을 수납하니 지금 일진회(一進會)<sup>38)</sup>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여 본 군수에게 빼앗긴 돈이 부평전(富坪錢) 6천6백여 냥이라 하고 내부(內部)<sup>39)</sup>에 거짓으로 소를 제기하여 이에 명사관(明查官)이 내려오니 세상에 어찌 이런 변괴가 있단 말인가. 본 군수는 청렴결백해서 온 나라가 칭송하여 만구성비(萬口成碑)하고 인접한 고을에서도 칭송하거늘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의 이름을 부당하게 거짓으로 기록하여 모함에 빠뜨려 소를 제기하니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인가. 명사관이 조

37) 용량 단위로 6말 4되를 가리킴.

38) 194년에서 1910년 사이 송병준의 유신회(惟新會)를 개칭한 일진회에 이용구의 진보회를 흡수 통합한 친일단체.

39) 조선 말기 내부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5년 4월에 설치되어 1910년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사한 것에도 군수가 모함에 빠진 이유를 상세히 고백하였거니와 본인이 그 백성이 되어 청렴한 군수의 정치 아래에 혐의와 구애되는 단서가 어찌 없겠는가. 본인은 애초에 군수에게 한 푼도 빼앗긴 것이 없고 또한 일진회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준 적이 없으니 이로써 신문에 게재하여 본인을 뜻밖의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함. 광무 11년 1월3일, 경기 김포군 검단면 봉화촌에 사는 박부양 자(字) 영운(永雲).

**1907년 1월 8일, 本人의 族人 通津堡谷居 李芸夏 兒名은 奇孫이라 性本浮浪하야, 3면 6단, 광고<sup>40)</sup>**

本人의 族人 通津堡谷居 李芸夏 兒名은 奇孫이라 性本浮浪하야 欺人挾雜으로 認作能事하고 江華 金浦 坡州 仁港 等地로 閃忽往來하야 本人의 姓名을 冒稱하며 自稱某參判之子요 某承旨之弟라 하며 農商工部參書官이라 하고 本人之名譽를 損傷케 하니 内外國人은 幸勿見欺하시옵 李泰夏 告白.

**1907년 1월 8일, 本人의 족인 通津 別곡에 사는 이운하 아명은 기손이라 성품이 본래 불량해서, 3면 6단, 광고**

本人의 친족 通津(通津)<sup>41)</sup> 別곡(堡谷)에 사는 이운하의 아명(兒名)은 기손(奇孫)이라. 성품이 본래 불량(浮浪)해서 挾잡(挾雜)으로 남을 속여 이간시키는 일을 능사로 여기고 江華(江華), 김포(金浦), 파주(坡州), 인항(仁港) 등지로 오가며 本人의 名譽를 損傷하며 自稱某參判之子요 某承旨之弟라 하며 農商工部(農商工部)<sup>42)</sup>의 參書官이라 하고 本人의 名譽를

40) 본 광고는 1907년 1월 8일 외에도 1907년 1월 9일 한 차례 더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41)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옛 읍.

손상케 하니 내외국인은 행여 속지 마시 마시오. 이태하(李泰夏) 고백(광고).

### 1907년 1월 9일, 訓正稅弊, 2면 5단, 기사

農商工部에서 連山郡에 訓令되 現接洪陵令 洪承範의 報告 內에 本陵所屬忠淸南道連山郡陽良所面과 仁川市稅와 庖稅는 卽自全州郡으로 移屬該郡인 바 本面 居는 金雲翊 爲名人이 際此新屬하야 稱以本面虛結補弊하고 冒訴本部하고 以此依據 하야 橫侵陵稅에 自中生弊하고 本陵收稅가 到今難刷할 境이며 補弊錢 三百二十兩은 已自本稅中으로 出給本面之例이니 有何他件이오리가 查照한 後에 該郡에 發訓하야 卽爲禁止하며 其間橫俸도 推給該監하야 使之無弊刷納하라 한 바 查此金雲翊訴告하야 該結弊를 設法厘正할 意로 有所行飭이러니 金民이 冒托部訓하고 橫佔陵稅는 其所梗頑이 已極痛駭어니와 郡守는 抑何任其憑藉하야 致此生弊인지 殊庸慨然이라 到卽提致金民하야 嚴懲悖習하고 已捧稅額은 准數推給于該派監하야 使之無弊刷納케 하라 하였더라.

### 1907년 1월 9일, 세금 폐단을 바로잡으라 훈령하다, 2면 5단, 기사

農상공부(農商工部)에서 연산군(連山郡)에 훈령하되 현재 홍릉(洪陵) 령(令) 홍승범의 보고 안에 본 능(陵) 소속 충청남도 연산군 양량소면(陽良所面)과 인천 시세(市稅)와 포세(庖稅)<sup>43)</sup>는 전주군으로부터 이 고을로 옮겨 속하게 하는바, 본

42) 1895년 농·상·공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 행정기관. 1910년에 폐지됨.

43) 가축을 잡는 데 물리는 세금.

면(面)에 거주하는 김운익 이라는 사람이 새로 소속되어 본면(面)의 허결(虛結)<sup>44)</sup>의 폐단을 보충한답시고 본부(部)의 호소를 무시하고 의거(依據)하여 능(陵)의 세금을 함부로 침노함에 폐단을 일으키고 본 능(陵)이 거둔 세금이 지금에 이르러 깨끗하기 어려운 지경이며 폐단을 보충할 돈 2백20냥은 이미 본 세금으로 본면(面)의 규정에 따라 지급했으니 어찌 다른 문제가 있으리오. 조사한 후에 이 군(郡)에 훈령을 내려 금지토록 하며 그 사이 가로채ن 녹봉도 찾아내 감영에 내어주어 폐단이 없이 깨끗이 납부케 하라고 한 바, 이 김운익을 고소한 것을 조사하여 이 결폐(結弊)를 범으로 바르게 다스릴 뜻으로 경계하려고 하니 김 씨가 부훈(部訓)을 청탁하고 함부로 차지한 능세(陵稅)는 그 완고함이 매우 놀랍거니와 또한 군수(郡守)가 어찌 남의 힘을 빌려 이 폐단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분개하노라. 김 씨를 체포하여 엄히 징계하고 이미 거둔 세액은 파견한 감영에게 셈하여 찾아 내어주도록 하여 폐단 없이 깨끗하게 납부케 하라 하였더라.

### 1907년 1월 9일, 財顧說明, 3면 1단, 기사

一月五日 南大門停車場構內保稅貨物取扱場에서 開場式을 舉行하고 目賀田總稅務司가 大要를 說明함이라 開港場이 於貿易發達에 設備가 不足狹隘하야 關稅貨物 若干 種類를 保稅하기 爲하야 本倉庫를 開始하니 本倉庫는 韓國政府의 所有에 屬하고 管理局鐵道敷地內에 設하야 韓日兩國이 協同事業을 經營하야 嚆矢가 된지라 今日 開場式을 舉行함이 各位來臨하

44) 조선 후기 삼정문관의 한 사례로 토지대장에 관리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전결(田結).

야 本倉庫를 次第 一覽하섯거니와 鐵道를 依하여 釜山 仁川의 連絡은 韓國貿易上多大便益함을 望하노니 其須知悉이라 하얏더라.

#### 1907년 1월 9일, 재정고문 설명, 3면 1단, 기사

1월 5일 남대문정거장 구내 보세화물(保稅貨物)<sup>45)</sup> 취급장에서 개장식을 거행하고 메가타 다네타로 세무사가 대요를 설명함이라. 개항장이 무역발달에 대한 설비가 부족하여 관세화물 약간의 종류를 보세(保稅)하기 위하여 본 창고를 개시하니 본 창고는 한국 정부의 소유에 속하고 관리국 철도 부지 내에 설치하여 한일 양국이 협동사업을 경영하는 효시가 된지라. 금일 개장식을 거행함에 여러분이 오셔서 본 창고를 차례로 둘러보섯거니와 철도로 부산 인천을 이어 한국무역의 큰 편익을 희망하노니 모름지기 그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더라.

#### 1907년 1월 11일, 支會視察, 1면 4단, 기사

大韓自強會副會長 尹孝定氏가 去七日 仁港에 支會視察로 前往하엿는디 當日 該地의 有志人士가 紳商會所에서 入會請願人臨時會를 開하고 發起人 鄭在洪氏가 支會發起호 趣旨를 說明호 後 尹氏는 我國家의 由來萎弱을 馴致호 弊源과 本會成立호 趣旨目的과 支會에서 他日 行動이 如何호 거슬 演說하엿는디 該地는 數十年來 開港之地라 會集호 諸氏의 交際開儀式이 極히 整理호 罔 아니라 其集會의 熱心함이 進步호 希望

45) 관세제도의 특전으로 과세할 것을 유보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화물이 수입허가 미필의 상태에 놓여있는 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한다.

이 大有하다 하며 當日 席上에 入會請願인이 七十餘人이요  
傍聽을 并하야 合爲 一百三十五人の 盛會의 達하엿다더라.

## 1907년 1월 11일, 지회시찰, 1면 4단, 기사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sup>46)</sup> 부회장 윤효정(尹孝定) 씨가 지난  
7일 인천항에 지회시찰로 왔었는데 당일 이 지역의 뜻있는 인  
사(人士)가 신상회소(紳商會所)<sup>47)</sup>에서 입회청원인임시회(入  
會請願人臨時會)를 열고 발기인 정재홍(鄭在洪)<sup>48)</sup> 씨가 지회  
(支會)를 발기한 취지를 설명한 후 윤 씨는 우리 국가가 위약  
하게 된 근본 원인과 본회를 설립한 목적, 지회에서 타일 행  
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연설하였는데 이곳은 수십 년 동안 개  
항한 한 곳이라, 모인 여러 사람들의 교제함에 의식이 열려있  
어 극히 단정할 뿐 아니라 그 집회의 열심함이 진보할 희망  
이 크다 하며 당일 석상에 입회청원인이 70여 인이요, 방청  
한 사람까지 합하면 1백 35인에 달하였다더라.

46) 대한자강회는 1905년 5월이준(李儁)·양한묵(梁漢默) 등이 조직한 헌정연구회(憲政  
硏會)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장지연(張志淵)·윤효정(尹孝定)·심의성(沈宜性)·임진  
수(林珍洙)·김상범(金相範) 등 20여 명이 국민 교육을 고양하고 식산(殖産)을 증  
진해 부국강병을 이루어 장차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1906년 4월에 조직되어 강연회의 개최, 기관지 발행 등을 추진하였고 1907년 8월  
이완용(李完用) 내각의 지시에 따라 내부대신의 명의로 해산당했다.

47) 고종22년(1885)년 경 설립된 인천객주상회(仁川客主商會)가 1897년 이후 인천신  
상협회(仁川紳商協會)로 전환 된 것으로 객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성격을 가진  
단체이다.

48) 정재홍(鄭在洪, 1867~1907)은 1907년 대한자강회 인천지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서 단연동맹회(斷煙同盟會)를 조직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천기의숙(千  
起義塾)을 설립하여 교육계몽에 힘쓰다가 동년 6월 박영효 환영식에서 이토 히로  
부미(伊藤博文)를 살해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하였다. 1905년 일본인 이  
토[伊藤博文]가 친일대신과 결탁하여 군대로서 왕궁을 위협하고 고종을 강요하여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을 보호국화하자, 이토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우  
선 서울에 있던 미국청년회(美國青年會)에 가입하고 기회를 노렸다. 1907년 5월  
이토가 조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규합하여 연회를 마련하고 이토를 초청하였다. 그러나 이토가 그 기미  
를 눈치 채고 의심하여 참석하지 않게 됨으로써 거사가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  
니라 거사계획 역시 점차 누설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토에게서 화를 면하지 못하  
게 될 것을 알고는 원수의 손에 죽을 수 없다며 스스로 자결하였다.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본 황성신문에 여러 상세한 기사들이 연이어 나온다.

1907년 1월 12일, 光武十一年度歲入歲出總預算, 3면 4단, 기사

度支部所管 [續] 第三欸 家屋設備費 金五萬圓 …… 第五欸 仁川水道費 金六十五萬八千六百十六圓 第一項 俸給 金三萬三千七百二十圓 第二項 廳費 金五千四百圓 第三項 雜給及雜費 金一萬六千六百三十六圓 第四項 旅費 金一萬五千六百六十圓 第五項 工事費 金五十五萬七千二百圓 第六項 預備費 金三萬圓 ……

1907년 1월 12일, 광무1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 3면 4단, 기사

탁지부소관 [속] 제3관 가옥설비비 금 5만원 제1항 가옥설비비 금 5만원 …… 제5관 인천수도비 금 65만 8616원 제1항 봉급 금 3만 3,720원 제2항 청비(廳費) 금 5천 4백원 제3항 잡급 및 잡비 금 1만 6,636원 제4항 여비(旅費) 금 1만 5,660원 제5항 공사비 금 55만 7,200원 제6항 예비비 금 3만원 ……

1907년 1월 14일, 敍任及辭令<sup>49)</sup>, 1면 1단, 기사

…… △鮮仁川港種痘支所事務委員 崔行權 …… △命仁川港種痘支所事務委員 元徹圭 以上一月四日 ……

1907년 1월 14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해임 인천항 중두(種痘)<sup>50)</sup>지소 사무위원 최행권 ……

49) 서임(敍任)은 벼슬자리를 내린다는 뜻(부여)이며, 사령(辭令)은 임명 및 해임 따위의 인사에 관한 명령을 뜻함.

50)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을 인체의 피부에 접종하는 일을 뜻함.

△임명 인천항 중두지소 사무위원 원경규(元敬圭) 이상 이월 4일 .....

**1907년 1월 15일, 御用免稅, 2면 4단, 기사**

宮內府에서 度支部에 照會호되 皇太子殿下嘉禮時에 御用物品을 淸商廣昇號가 溫州 龍門 兩輪船에 搭載호고 本月九日에 上海에서 發호야 仁港에 到着호았는디 該物品이 尙在船中호니 不容不免驗免稅이기 該物包를 另具別紙添付호야 玆以照會호니 照亮後에 總稅務司에게 訓飭호야 使之無碍輸入케 호라호았더라.

**1907년 1월 15일, 정부 물품 면세, 2면 4단, 기사**

궁내부에서 탁지부에 조회하되 황태자 전하 하례시에 어용 물품을 청상(淸商) 광승호(廣昇號)가 온주(溫州)<sup>51)</sup>와 용문(龍門)에서 두 개 윤선에 싣고本月 9일에 상해에서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였는데 해당 물품이 아직 배 안에 있으니 면험 면세(免驗免稅)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해당 물포(物包)에 별지 첨부를 따로 갖추어 조회하니 살펴본 후에 총세무사에게 훈칙(訓飭)하여 유입에 어려움이 없게 하라고 하였더라.

**1907년 1월 15일, 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吳州學會 江東元堂面 鄭鎬爽氏 橫城邑蓮洞 張乃興氏 仁川市街木布廬 黃錫龍氏 江東高泉坊龜岩里 李圭淵氏 沃川邑 玆今以後로 新聞請求호시는 人은 居住氏啣을 世界에 公佈호야 其有志함을 表함.

51) 중국 절강성(浙江省) 남동부 해안에 있는 항구도시.

1907년 1월 15일, 황성신문 신진부, 4면 1단, 광고

오주학회 강동 원당면 정호석씨, 황성읍 연동 장내흥씨, 인천 시가(市街) 포목전 황석용씨, 강동 고천방 구암리 이규연씨, 옥천읍 지금 이후로 신문 청구를 하시는 사람은 거주지와 이름을 세계에 공포하여 그 뜻있음을 표함.

1907년 1월 16일, 水道費移庫, 2면 4단, 기사

光武十一年度の 仁川港水道費中 五千圓과 平壤水道費中 三千圓을 興業銀行에서 引出하야 中央金庫에 移付할 事로 度支部에서 興業銀行으로 通牒하얏다더라.

1907년 1월 16일, 수도비 옮김, 2면 4단, 기사

광무 11년의 인천항 수도비 중 5천환과 평양 수도비 중 3천환을 흥업은행에서 인출하여 중앙금고에 이부(移付)할 일로 탁지부에서 흥업은행으로 통첩하였다더라.

1907년 1월 16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 官立漢城英語學校敎官 崔炳憲 公立富平普通學校敎員 朴在衡 …… 以上一月十二日 ……

1907년 1월 16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임명 관립한성영어학교 교관 최병헌 공립 부평보통학교 교원 박재형 …… 이상 1월 12일 ……



### 1907년 1월 16일, 農業幻燈<sup>52)</sup>, 3면 3단, 기사

農商工部에서 勸業模範場員 山田熙氏에게 訓令되 各地方農民의 智識을 開히기 爲하야 農事講話會를 開設하고 以幻燈으로 農業上改良에 最緊要한 件을 丁寧히 講話할 事로 委任派遣하니 各郡에 往하야 與各該郡守로 協議하야 講話處所를 公廨中에 隨宜定設하고 原定日에 齊會農民하야 敦明하랴 하얏는디 其講話日字가 如左하니 一月十五日陽川 十六日富平十七日金浦 十九日通津 二十日江華 二十二日交河 二十三日坡州 二十五日楊州 二十七日高陽 三十日廣州 等 各郡이더라.

### 1907년 1월 16일, 농업 환등, 3면 3단, 기사

농상공부에서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sup>53)</sup>의 일원인 산전희(山田熙) 씨에게 훈령하되 각 지방 농민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농사강화회를 개설하고 환등(幻燈)으로 농업 개량에 가장 요긴한 것을 꼭 강화할 일로 위임 파견하니 각 군에 가서 각 지역 군수와 협의하여 강화할 곳을 공관 가운데 잘 설치하고 정한 날짜에 농민을 모아 밝게 하라 하였는데 그 강화 날짜가 아래와 같으니 1월 15일 양천, 16일 부평, 17일 김포, 19일 통진, 20일 강화, 22일 교하, 23일 파주, 25일 양주, 27일 고양, 30일 광주 등 각 군이더라.

### 1907년 1월 18일, 統函度部, 2면 4단, 기사

日本統監府에서 度支部에 公函하되 日本人 稻田勝彦外二人이

52) 환등(幻燈)은 그림·사진(寫眞)·실물 따위에 강(強)한 불빛을 비치어 그 반사광을 렌즈에 의(依)해서 확대(擴大) 영상하는 장치(裝置)를 가리킨다.

53) 1906년 일제 통감부가 우리나라에서의 농업기술의 시험·조사 및 지도를 위해 설치한 기관.

合同發起호야 仁港柵岬停車場, 松林里, 及萬石洞의 道路開鑿一事에 對호야 役費 金一萬六千八百圓內에 其半部分은 捐補호라 호았더라.

1907년 1월 18일, 탁지부에 공문을 보내다, 2면 4단, 기사  
일본 통감부에서 탁지부에 공문을 보내길, 일본인 도전승언(稻田勝彦) 외 2명이 합동 발기하여 인항(仁港) 축현(柵岬) 정거장, 송림리와 만석동의 도로 개착(開鑿)하는 일에 대하여 역비(役費) 금 1만 6천 8백환 내에 그 받은 연보(捐補) 하라고 했더라.

1907년 1월 19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肇慶廟參奉 趙在元 順昌園參奉 韓鼎基 依願免本官 …… 前敎員 申宰均 任公立富平普通學校敎員敍判任官八級 一月十六日.

1907년 1월 19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조경묘(肇慶廟)<sup>54)</sup> 참봉 조재원, 순창원(順昌園)<sup>55)</sup> 참봉 한정기 의원면본관<sup>56)</sup> …… 전 교원 신재균 임명 공립부평보통학교교원 부여 관임관 8급 1월 16일.

1907년 1월 22일, 看婦請褒, 2면 6단, 기사  
仁川港警務署總巡 金允福氏가 內部에 報告호되 本港活人所를 上年二月分에 自民議所로 設立인 바 日本看護婦 丹野富譽氏가

54) 전주이씨의 시조 사공 이한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

55) 조선 제13대 왕 명종의 장자인 순회세자와 세자빈인 공회빈 윤씨의 합장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

56)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본 관직을 해면함.

昨年三月二日로 始하야 自願看護이다가 間罹傳染病하야 數日 呻吟이기로 本總巡이 日本理事廳警部에게 交涉하야 捐助救療 이더니 昨年十二月十八日에 本港花開洞妓女驅藏院에 奮身從事 하니 以他國女人으로 注意衛生에 自願勤務이거늘 嘉尙其志에 不可泯默하야 玆以報告하니 特施褒獎之典이라 하얏더라.

1907년 1월 22일, 간호사 포상을 청하다, 2면 6단, 기사  
인천항 경무서 총순(總巡) 김운복 씨가 내부(內部)에 보고하 되 본항(港) 활인소(活人所)를 작년 2월께에 민의소(民議所)로 설립한바, 일본 간호부 단야부예(丹野富譽) 씨가 작년 3월 2일부터 간호하기를 자원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수일을 앓았다. 본 총순이 일본 이사청경부(理事廳警部)에 교섭하여 치료를 도왔더니 작년 12월 8일에 본항(港) 화개동(花開洞)<sup>57)</sup> 기녀 구장원(驅藏院)에서 힘써 일하니 다른 나라 여인으로 위생을 신경쓰며 성실히 일하거늘 그 뜻이 가상하므로 침묵할 수 없어 이로써 보고하니 특별히 포장(褒獎)의 은전(恩典)을 베풀 다고 하얏더라.

1907년 1월 24일, 志士同情, 2면 5단, 기사  
大韓自強會에서 仁川港에 支會를 設立함은 已報하얏거니와 向日 會規를 組織하기로 開會할 터인디 處所가 無하야 臨時 窘境을 未免하더니 該港紳商會社社員들이 元來 志士들인 故로 趣旨를 贊成하고 同情을 表하야 該會社家屋을 許借하야 開會케 하얏다고 該社員들의 有志함을 京郷人士들이 莫不稱頌한다더라.

57) 지금의 인천 신흥동. 개항 초기까지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화장터와 공동묘지가 있던 곳으로 1903년에는 화개동으로 불리었다.

**1907년 1월 24일, 지사 동정, 2면 5단, 기사**

대한자강회에서 인천항에 지회를 설립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지난 날 회규(會規)를 조직하기로 개회할 터인데 장소가 없어서 잠간의 곤경을 면치 못하더니 인천항의 신상회사(紳商會社) 사원들이 원래 지사들인 까닭에 취지를 찬성하고 동정을 표하여 이 회사 가옥을 빌려주어 개회케 하였다고 이 사원들의 뜻있음을 경향(京鄉)의 인사들이 칭송해 마지않았다 하더라.

**1907년 1월 24일, 文明錄<sup>58)</sup>, 3면 1단, 광고**

漆谷郡守 崔鉉達氏 主事 書記 十一圓五十二錢 水原郡守 李完鎔氏 主事 書記 八圓六十四錢 金祥演氏 五圓三十三錢五里李子平氏 五圓 仁港紳商會社 一圓四十四錢 高炳斗氏 一圓.

**1907년 1월 24일, 문명록, 3면 1단, 광고**

칠곡(漆谷) 군수 최현달 씨, 주사(主事) 서기(書記) 2십 1원 5십 2전, 수원군수 이완용 씨 주사 서기 8원 6십 4전 김상연 씨 5원 3십 3전 5리 이자평 씨 5원 인천항 신상회사 1원 4십 4전 고병두 씨 1원.

**1907년 1월 24일, 魚大臣度大時에 以江華軍餉多月未下時急事로, 3면 3단, 광고**

魚大臣度大時에 以江華軍餉多月未下時急事로 本人質米商賈桶一千石을 貸下之意로 鄭重爲托이기 不得已 奉行矣러니 其翌年에 魚大臣이 遭亂卒逝後에 本人이 落心仍無居鄉호야 侵病

---

58) 황성신문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기부 활동.

數年이다가 刷神上來하야 欲推該米則 財政未敷로 專事推托이  
 읍기 不勝抑冤하야 甚至有呈訴于漢裁하야 該部主事로 裁判之  
 場에 卽當出給之意로 納考判決矣러니 又不報給하고 但 以指  
 令內開前後指令에 已悉其冤狀이나 現今 財政未敷하야 應用預  
 算은 亦難排備인 즉 此條를 姑難立欸이니 退俟明年事라 하니  
 豈不冤抑乎아 本人이 由此敗亡은 知舊間 無不洞悉이오나 悠  
 悠倉天은 尙不顧恤하시니 至冤極痛하외다 當此歲末하야 濱死  
 之人이 有何顧忌로 坐以待死乎잇가 勢不得已 將欲裁判하와  
 具邊欲推하오니 內外國人은 洞燭此漢之冤抑하읍소서 金壽珉  
 告白.

1907년 1월 24일, 어대신이 탁대일 때에 강화 군향이 많기로  
 달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급한 일로, 3면 3단, 광고  
 어대신(魚大臣)<sup>59)</sup>이 탁대(度大)<sup>60)</sup>일 때, 강화 군향(軍餉)<sup>61)</sup>  
 이 많기로 달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급한 일로 본인의  
 무미상(貿米商)으로 값을 되로 쳐서 일천 석을 빌려줄 뜻으로  
 정중히 부탁함에 부득이 받들었더니 그 다음 해에 어대신이 난  
 리를 만나 갑자기 죽은 후에 본인이 낙심하여 고향에 머물지  
 않아 병이 들이 수년이다가 정신을 차리고 올라 와서 이 쌀을  
 헤아리고자 하나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므로 억울함과 원  
 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심지어 한재(漢裁)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그 부(部)의 주사로 재판장에 마땅히 출급(出給)의 뜻  
 으로 판결을 할 줄 알았더니 또 갚아주지 않고 단 소장 전후

59) 개항기 조사시찰단 조사, 동래암행어서, 탁지부대신 등을 역임한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을 지칭한다.

60) 탁지대신(度支大臣)을 일컬음. 탁지부 으뜸 관직.

61) 군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병역을 면제하여 준 군정(軍丁)에게서 받은 삼베·무명 따  
 위.

지령(指令)에 이미 그 억울한 상황이 모두 있으니 지금 재정이  
 퍼지 못하여 예산(豫算) 응용(應用)은 또한 미리 갖추어 놓기  
 어렵다, 따라서 조목을 세우기 어려우니 내년 일로 미루라 하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 본인이 이로써 패망함은 오래된 관계  
 를 통찰하지 않음이 없으나 유유(悠悠)한 하늘은 오히려 불쌍  
 히 여기지 않으시니 지극히 원통하도다. 이 해의 끝자락에서 죽  
 음에 가까워진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기로 앉아서 죽기를 기다  
 리겠는가. 형세가 부득이 장차 재판을 하고자 하여 본전과 이자  
 를 합쳐 계산하고자 하오니 내외국인은 이 사람의 억울함을 통  
 측하옵소서. 김수민(金壽珉) 고백(광고).

**1907년 1월 24일, 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sup>62)</sup>, 4면 4단,  
 광고**

仁川港米商會社附屬簿記 夜學會義捐錄 本會社 五圓 校長 李  
 時永氏 一圓 校監 鄭在洪氏 一圓 學監 張錫建氏 一圓 贊成員  
 朱明濬氏 一圓 金弘潤氏 一圓 李承根氏 一圓 張世益氏 一圓  
 沈能炫氏 一圓 河導容氏 一圓 金基浩氏 五十錢 姜允模氏 五  
 十錢

**1907년 1월 24일, 재일본 단지유학생 학자의연, 4면 4단,  
 광고**

인천항 미상회사(米商會社) 부속 부기(簿記)야학회 의원록 본  
 회사 5원 교장 이시영(李時永) 씨 1원 교감 정재홍 씨 1원

62) 1906년 일본 동경에서 조직되었던 유학생친목단체인 대한유학생회(大韓留學生會)  
 에서 일진회(一進會)로부터 학비가 끊기자 1907년 1월 5일 단지(斷指)하여 학업  
 의 완수를 결의하였고 이에 국내에서는 유학생을 돕기 위해 의연금(義捐金) 모집  
 을 시작한다. 모집 내용은 같은 신문 1907년 1월 16일, <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  
 捐金募集趣旨書>, 3면 6단, 광고 내용 참고.

학감(學監) 장석건 씨 1원 찬성원(贊成員) 주명준 씨 1원 김  
홍윤 씨 1원 이승근 씨 1원 장세익 씨 1원 심능현 씨 1원 하  
도용 씨 1원 김기호 씨 50전 강윤모 씨 50전.

**1907년 1월 26일, 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永柔通湖面 崔烈氏 永柔郡 李花學校 仁港 松尾茂吉氏 茲今以  
後로 新聞請求하시느 人은 居住氏啣을 世界에 公佈하야 其有  
志함을 表함.

**1907년 1월 26일, 황성신문 신진부, 4면 1단, 광고**

영유(永柔) 통호면(通湖面) 최열 씨 영유군 이화학교 인천항  
송미무길(松尾茂吉) 씨 지금 이후로 신문 청구하시는 사람은  
거주지와 이름을 세계에 알려 뜻있음을 표함.

**1907년 1월 26일, 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 4면 4단, 광고**

仁川港米商會社附屬簿記 夜學會義捐錄 教師 俞鎮億氏 一圓  
學員 趙容九氏 一圓 沈宜根氏 一圓 千光根氏 五十錢 金明潤  
氏 五十錢 河相勳氏 二十五錢 李興潤氏 二十五錢 朴泰元氏  
二十五錢 南珽鎮氏 二十五錢 合二十圓 柳芝秀氏 一圓 始興稅  
務主事 徐起淳氏 一圓 恩津城德里.

**1907년 1월 26일, 재일본 단지유학생 학자의연, 4면 4단,  
광고**

인천항 미상회사(米商會社) 부속 부기(簿記)야학회 의원록  
교사 유진억 씨 1원 학원(學員) 조용구 씨 1원 심의근 씨 1  
원 천광근 씨 50전 김명윤 씨 50전 하상훈 씨 25전 이홍윤  
씨 25전 박태원 씨 25전 남정진 씨 25전 합 20환 류지수 씨

1환 시흥세무주사 서기순 씨 1환 은진(恩津) 성덕리(城德里).

**1907년 1월 28일, 兩女爭財, 2면 5단, 기사**

仁川港居 孫士元氏가 兩妾을 率히고 居生하다가 不幸身死하였는데 該氏에 先妾 金召史가 家舍와 什物을 盡爲放賣하여 喪債를 報하고 餘在錢이 二萬兩인데 後妾 徐召史가 分半하고자 卽 二千五百兩만 出給하기로 徐氏가 呈郡呈府하여 半分하기로 作定한다더라.

1907년 1월 28일, 두 여성이 재산을 다투다, 2면 5단, 기사  
인천항에 사는 손사원 씨가 두 첩을 거느리고 살다가 불행히 죽었는데 이 사람의 선첩(先妾) 김소사가 집과 물건을 모두 팔아 장례 빚을 갚고 남은 돈이 2만냥인데 후첩(後妾) 서소사가 반분하자 한 즉 2천 5백냥만 주자 서 씨가 마을 관아에 청원하여 반분하기로 작정한다더라.

**1907년 1월 28일, 特使往還, 2면 6단, 기사**

日本特使 田中光顯氏가 仁川港에 日本人居留하는 情況과 各學校를 閱覽次로 昨日上午八時에 發向하였다가 下午九時에 入城하였다더라.

1907년 1월 28일, 특사가 왔다 돌아가다, 2면 6단, 기사  
일본특사 전중광현(田中光顯) 씨가 인천항에 일본인 거류하는 正황과 각 학교를 둘러보러 어제 오전 8시에 출발하여 오전 9시에 서울로 돌아갔다더라.



1907년 1월 28일, 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 4면 4단, 광고  
慶尙南道觀察道主事 金復圭 二圓 …… 仁川港永化學校男女學  
徒義捐金 高等科十七人 合三圓三十五錢 尋常科一百人 合十四  
圓十七錢五里 幼稚生五十三人 合四圓七錢五里 女學校學員一  
百五人 合四圓三十七錢 ……

1907년 1월 28일, 재일본 단지유학생 학자의연, 4면 4단, 광고  
경상남도관찰도주사 김복규 2원 최명규 2원 …… 인천항영화  
학교 남녀 학도의연금 고등과 17인 합 3원 35전 심상과(尋常  
科) 1백인 합 14원 17전 5리 유치생(幼稚生) 53인 합 4원 7  
전 5리 여학교학원 15인 합 4원 37전 ……

#### 1907년 1월 29일, 學照度部, 2면 4단, 기사

學部에서 度支部에 照會되 官立漢城高等學校長 李源鎔이 本  
部會計課에 通牒한 內開에 本校에서 日本東京安藤運動具店으  
로부터 買來한 木銃 等物을 仁川稅關에서 税金 五十五元을 徵  
收라 한 바 學校用品의 徵稅가 原係例外이고 且該金額의 撥交  
가 無路이니 度支部에 備細說明하야 俾得算外支出케 함이 是  
合妥當이라 한 故로 玆以仰佈하니 算外支出하라 하였더라.

1907년 1월 29일, 학부에서 탁지부에 조회하다, 2면 4단, 기사  
학부(學部)에서 탁지부에 조회하되 관립한성고등학교장 이원  
용이 본부(本部) 회계과에 통첩한 공문 안에 본교에서 일본  
동경의 안등(安藤) 운동기구점으로부터 들여온 목총(木銃)  
등물을 인천 세관에서 세금 55원을 징수한다 한 바, 학교 용  
품의 징세가 원래 예외이고 또 그 금액을 낼 길이 없으니 탁  
지부에 자세히 설명하여 산외(算外) 지출케 해주심이 합당하

다 한 고로 이로써 명하니 산외(算外) 지출하라 하였더라.

1907년 1월 30일, 皇太子殿下嘉禮時 日本特派大使 田中光顯閣下께서 仁港에 光臨時, 3면 2단, 광고<sup>63)</sup>

皇太子殿下嘉禮時 日本特派大使 田中光顯閣下께서 仁港에 光臨時 本校에서 歡迎하엿습더니 捐助金 一百五十圓을 寄付하시니 敎育에 勸獎하시는 盛念을 茲以仰佈하오니 内外國人은 照亮함 仁川官立日語學校 告白.

1907년 1월 30일, 황태자 전하 혼례 때 일본 특파 대사 전중광현 각하께서 인항에 광림하실 때, 3면 2단, 광고

황태자 전하 혼례 때 일본 특파 대사 전중광현(田中光顯)<sup>64)</sup> 각하께서 인천항에 광림하실 때 본교에서 환영하였더니 연조금(捐助金) 1백 50원을 기부하시니 敎育에 권장하시는 성념(盛念)을 우러러 알리오니 내외국인은 조량(照亮) 함. 인천관립일어학교 고백(광고).

1907년 1월 31일, 特使寄金日校, 2면 4단, 기사

仁川日語學校長 金潤晶氏가 學部에 報告하되 本月二十七日에 日本特使 田中光顯氏가 本港에 來到하얏기 本校長이 敎師 敎官과 學徒를 帶同하고 停車場에 出迎하 則 本校에 金貨 一百五十元을 寄付이기 該金額을 第一銀行에 任置하다 하얏더라.

63) 皇太子殿下嘉禮時(황태자전하가례시) 광고는 1907년 1월 30일 외에도 1907년 1월 31일에도 한 차례 더 게재되어 있다.

64) 다나카 미쓰야키. 일본 궁내부대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무단으로 해체해 도쿄의 자기 집 정원에 가져다 놓음. 1918년에 돌려받음.

1907년 1월 31일, 특사가 인천일어학교에 기부하다, 2면 4단, 기사

인천일어학교장 김윤정 씨가 학부에 보고하되本月 27일에 일본특사 전중광현(田中光顯) 씨가 본항에 오셨기에 본 교장이 교사, 교관과 학도를 대동하고 정거장에 나가 환영한 즉 본교에 금화 1백 50원을 기부하셨으므로 그 금액을 제1은행에 임치(任置)한다 하였더라.

## 1907년 2월

1907년 2월 2일, 張氏義心, 2면 5단, 기사

大韓自強會支會가 仁川港에 設立됨은 已揭어니와 該支會에서 去月第四土曜일에 通常會를 開호고 任員을 組織호는디 有志人士 鄭在洪氏는 會長으로 張錫根氏는 副會長으로 選定되고 該會事務所가 無호야 第一回組織時에는 該港紳商會社의 處所를 暫借開會호았다가 該社에서 還收함으로 副會長 張錫根氏가 自己所居 二十餘間 瓦家를 該支會事務所로 借與호야 何時까지던지 所用케 함으로 張氏의 有志함을 京鄕人士가 莫不稱歎호더라.

1907년 2월 2일, 장 씨의 의로운 마음, 2면 5단, 기사

대한자강회지회가 인천항에 설립됨은 이미 알렸거니와 그 지회에서 지난 달 4주차 토요일에 통상회(通常會)를 열고 임원을 조직하는데 뜻있는 인사 정재홍 씨는 회장으로 장석근 씨는 부회장으로 선정되고 그 지회 사무소가 없어서 제1회 조직(組織) 시에는 그 항(港) 신상회사의 처소를 잠시 빌려 개최하였다가 그 회사에서 환수함으로 부회장 장석근씨가 자기의 거처 20여 칸 기와집을 그 지회 사무소로 빌려주어 어느

때라도 사용케 함으로 장 씨의 뜻있음을 경향지사(京鄕志士)가 칭찬하지 않음이 없다 하더라.

#### 1907년 2월 4일, 俄國巡洋艦의 製造, 1면 2단, 기사

俄國巡洋艦의 製造 俄國부데이로후스키 造艦所에서 排水量 九百噸 되는 巡洋砲艦 一隻을 艤裝하느디 該艦은 고레쓰 号 (日俄開戰時 仁川에 擊沈된 巡洋艦의 名을 仍用함이라) 命名 해야 竣工後에는 東洋에 遊戈하더라.

#### 1907년 2월 4일, 러시아 순양함의 제조, 1면 2단, 기사

러시아 부데이로후스키 조함소에서 배수량 9백톤 되는 순양포함(巡洋砲艦) 한 척을 의장(艤裝)<sup>65)</sup>하는데 그 군함은 고레쓰호(러일 개전시 인천에 격침된 순양함의 이름을 가져와 씀이라) 명명(命名)해야 준공 후에는 동양에 유과(遊戈) 한다더라.

#### 1907년 2월 4일, 株式會社漢城銀行, 4면 6단, 광고<sup>66)</sup>

[電話六四六番] 皇城鍾路 支店所在地水原 資本金拾五萬圓 積

65) 출범(出帆) 준비를 위하여 배에 필요한 모든 선구(船具)나 기계를 장비함. 또는 그런 장비.

66) 주식회사한성은행에 관한 광고는 1907년 2월 4일 외에도 1907년 2월 5일, 1907년 2월 6일, 1907년 2월 7일, 1907년 2월 8일, 1907년 2월 9일, 1907년 2월 11일, 1907년 2월 12일, 1907년 2월 15일, 1907년 2월 16일, 1907년 2월 18일, 1907년 2월 19일, 1907년 2월 20일, 1907년 2월 21일, 1907년 2월 22일, 1907년 2월 23일, 1907년 2월 25일, 1907년 2월 26일, 1907년 2월 27일, 1907년 3월 2일, 1907년 3월 4일, 1907년 3월 5일, 1907년 3월 6일, 1907년 3월 7일, 1907년 3월 8일, 1907년 3월 11일, 1907년 3월 12일, 1907년 3월 13일, 1907년 3월 14일, 1907년 3월 15일, 1907년 3월 16일, 1907년 3월 18일, 1907년 3월 19일, 1907년 3월 20일, 1907년 3월 21일, 1907년 3월 23일, 1907년 3월 25일, 1907년 3월 26일, 1907년 3월 27일, 1907년 3월 30일, 1907년 4월 1일, 1907년 4월 11일, 1907년 4월 12일, 1907년 4월 13일, 1907년 4월 15일, 1907년 4월 16일, 1907년 4월 17일, 1907년 4월 18일, 1907년 4월 19일, 1907년 4월 20일, 1907년 4월 22일, 1907년 4월 23일, 1907년 4월 24일, 1907년 4월 25일, 1907년 4월 26일, 1907년 4월 27일, 1907년 4월 29일, 1907년 4월 30일,

立金一萬一千圓 一 諸任金 定期, 不定期가 有흔디 任主에게  
計撥호는 利息이 隨各差異호며 他人金額의 秘密, 安全, 融通,  
貯蓄에 極圖便利호 一 諸貸金及手形割引 [手形典入] 確實호  
典物을 典執호고 借主에게 貸給호 但 諸利息及割引料는 日數  
로 計算호 一 爲替送金[普通換及電報換] 其處所는 左開호 水  
原, 仁川, 群山, 木浦, 釜山, 馬山浦, 大邱, 開城, 平壤, 鎮南浦  
元山, 咸興, 城津, 全州, 忠州, 晉州, 光州, 鏡城, 海州, 日本東  
京, 大坂 其他 一般 銀行의 業務를 確實營行호.

#### 1907년 2월 4일, 주식회사 한성은행, 4면 6단, 광고

[전화 646면] 황성종로(皇城鐘路) 지점이 있는 곳은 수원,  
자본금 15만원, 적립금 1만 1천원 - 돈을 맡기는 데에는 정  
기(定期), 부정기(不定期)가 있으므로 돈을 맡기는 사람마다  
계산되는 이자가 각각 다르며 타인에게 금액의 비밀, 안전,  
유통, 저축에 매우 편리함 - 대금(貸金)과 어음할인, 확실한  
담보를 잡고 대출자에게 빌려줌. 단 모든 이자와 할인료는 일  
수(日數)로 계산함 - 송금환[보통환과 전보환] 그 처소는 좌  
개(坐開) 함. 수원,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포, 대구, 개  
성, 평양, 진남포원산, 함흥, 성진, 전주, 충주, 진주, 광주, 경  
성(鏡城), 해주, 일본동경, 대판(大坂). 기타 일반 은행의 업  
무를 확실히 영업함.

#### 1907년 2월 5일, 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平安北道裁判所 檢事室 南宮焯氏 江華北門外唐州洞 西友學會  
貞靜義塾 東萊府 大韓留學生會事務所 茲今以後로 新聞請求호  
시는 人은 居住氏啣을 世界에 公佈호야 其有志호를 表함.

**1907년 2월 5일, 황성신문 신진부, 4면 1단, 광고**

평안북도재판소 검사실 남궁작 씨 강화북문외당주동 서우학회 정정의숙 동래부 대한유학생회 사무소 지금 이후로 신문을 청구하시는 사람은 거주지와 성명을 세계에 알려 그 뜻있음을 표함.

**1907년 2월 6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淑陵參奉 張滢根 莊陵參奉 李象麒 依願免本官 …… 公立仁川普通學校敎員 趙寬增 公立鏡城普通學校敎員 金昶濟 官立漢城漢語學校敎官 崔永年 依願免本官 △任公立豐德普通學校敎員 敍判任官八級 李周應 △任公立仁川普通學校敎員敍判任官八級 李承默 以上二月二日.

**1907년 2월 6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숙릉참봉 장형근 장릉참봉 이상기 의원면본관(依願免本官) …… 공립인천보통학교 교원 조관증 공립경성보통학교교원 김창제 관립한성한어학교 교관 최영년 의원면본관 △임명 공립풍덕보통학교 교원 부여 판임관 8급 이주응 △임명 공립인천보통학교 교원 부여 판임관 8급 이승묵 이상 2월 2일.

**1907년 2월 6일, 捕艦紀念, 2면 4단, 기사**

仁川港에 到泊한 軍艦沖之島는 俄國皇帝가 偏愛한 軍艦인데 日俄戰爭時에 日本에서 捕獲한 艦인 故로 日本海軍司令官 寺垣氏가 該艦紀念하기 爲하여 本月十一일에 宴會를 大設하고 各部大臣을 請邀宴待한다더라.

### 1907년 2월 6일, 군함 포획 기념, 2면 4단, 기사

인천항에 머무른 군함 충지도는 러시아 황제가 편애하던 군함인데 러일 전쟁시에 일본에서 포획한 군함인 고로 일본해 군사령관 사원(寺垣) 씨가 그 군함을 기념하기 위하여本月 11일에 연회를 베풀고 각부 대신을 청요연대(請邀宴待) 한다더라.

### 1907년 2월 7일, 精神과 感覺 (續), 2면 1단, 사설

四千載相傳之魂이 其遂一朝而泯滅耶아 二千萬均稟之魂이 其遂一時而飄散耶아 寂而不動에 冷而不燃호야 一片神經에 尙不見感覺之兆候호니 魂乎魂乎여 其作隆中草堂에 諸葛亮之大夢耶아 其隨華山石室에 陳圖南之千日睡耶아 魂乎여 中間恐怖之歷史가 凡幾度며 年來 難得之機會가 凡幾廻오 積薪火起에 汝不爲賈生之痛哭호며 中夜鷄鳴에 汝不爲祖逖之起舞호고 竟使一片靑邱로 陷此悲境호니 至此而汝尙不知愧耶며 至此而汝尙不知懼耶아 嗟乎五百年來로 閉門而居호고 高枕而臥호야 花開而知春호며 葉落而知秋호고 日出而知晝호며 日入而知夜호야 耕田鑿井에 歌堯舜之世界호고 依山阻河에 誇魏國之美寶호시 案上歷史는 惟有通鑑綱目 幾卷호고 學者希望은 祇在進士及第一件호야 海外鄰國은 知有支那 日本而已오 生前事業은 知有仕宦富貴而已니 當是時호야는 聞見이 限於域內호고 夢寐가 酣於室中호야 罕有如何之刺激과 如何之感觸호니 吾雖責汝나 汝猶可不受오 吾雖咎汝나 汝猶可不任이어니와 丙寅洋擾에 汝何不回頭而視之며 丙子通商에 汝何不傾耳而聽之며 壬午之變과 甲申之亂에 汝果安在며 日清之戰과 日俄之爭에 汝果何去오 噫吁嘻라 至於 仁川八尾島之砲聲이 轟天而裂地호야 震動八域之山河호고 危急之現狀이 迫眉호며 各國之批評이 如雨호

디 于斯時而淺斟을 如故也호며 于斯時而偻行曲步를 如故也호  
 며 于斯時而鴟鳶之嚇鼠를 如故也호며 于斯時而燕雀之爭粒을  
 如故也호야 京都遊宦은 但問主事 議官之價호며 山林高士는  
 尙說人獸華夷之判호고 政界波瀾은 蝸角之戰爭이 未息호며 地  
 方情況은 生靈之悲號가 未已호고 山亭水閣에 高臥昇平之宰相  
 호며 漆室暗燈에 悶死憂國之男兒호야 居然地球圖中 我韓一點  
 이 凋盡舊時之顔色호니 嗟我朝鮮魂이여 汝其忘汝國之耻乎아  
 其不忘汝國之耻乎아 往事는 不忍說이라 只有淚汪汪이어니와  
 來者는 猶可爲니 胡不猛着力고 魂一省호면 可獨立이오 魂一  
 奮호면 可自由니 汝爲獨立魂호고 無爲奴隸魂호며 汝爲自由魂  
 호고 無爲犬馬魂이어다 汝在漏船中이니 蕩槳轉舵母放心호라  
 心一放호면 粘天風浪可奈何오 汝在側徑畔이니 整睛拭眼母失  
 足호라 足一失호면 滿地荊棘可奈何오 汝須踴躍勿安坐호라 安  
 坐不踴躍호면 網者 羅者 游者 弋者가 皆來侵汝可奈何오 汝須  
 團結勿渙散호라 渙散不團結호면 射者 刺者 持杖者 放銃者가  
 皆來害汝可奈何오 嗟汝之生이 已四千載矣라 若日若俄若英若  
 美德諸國이 或 汝之兄弟行也며 或 汝之後進少年也어늘 今也  
 에 彼不以平等으로 遇我호고 不以朋儕로 呼我호나니 能無愧  
 乎며 張牙舞吻에 爲虎爲狼호고 奮翅鼓爪에 爲鷹爲鷂호느니  
 能無愧乎아 嗟汝之子孫이 凡二千萬衆矣라 他家襁褓에는 抱得  
 華盛頓, 俾斯麥호며 鄰舍學堂에 養得韋日遜, 格蘭斯頓호느니  
 弄子育孫에 能無奮發之心乎아 嗟汝之田土가 亦八萬二千方里  
 矣라 祖宗產業이 將不爲我家之所有오 膏腴津血을 盡付諸他人  
 之手中호느니 求田問舍에 能無悲憤之意乎아 今日 而無我朝鮮  
 魂호면 浩浩然千劫萬劫에 竟無我朝鮮魂이오 今日 而有我朝鮮  
 魂호면 茫茫然來生來世에 皆有我朝鮮魂이니 今日은 何日고  
 二十世紀競爭劇爭之天演界也라 願無以仕宦慾으로 換我朝鮮



魂호며 願無以依賴劣性으로 擲我朝鮮魂호며 願無以腐敗之習  
 慣으로 眊我朝鮮魂호며 願無以愚頑之暴動으로 惱我朝鮮魂호  
 고 願我四千載後, 三千里內, 血續相傳호 我大韓帝國二千萬同  
 胞여 熱誠, 冒險, 團結, 進步, 殖産, 敎育, 不屈不撓, 毋躁毋怠  
 호야 二千萬口로 齊呼我朝鮮魂호며 二千萬手로 齊救我朝鮮魂  
 호고 千歲萬歲로 齊祝我朝鮮魂호지어다 我朝鮮魂이여 其終無  
 感歎아 我朝鮮魂이여 其終無覺歎아. (完)

### 1907년 2월 7일, 정신과 감각 (속), 2면 1단, 사설

4천년 대대로 이어진 혼이 하루아침에 민멸되나 2천만이 고루  
 품부 받은 혼이 일시에 바람에 날려 흩어지나 고요하면서 움  
 직이지 않으며 냉정하면서도 타오르지 않아 한 조각 신경에  
 오히려 감각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 혼이여, 혼이여. 융중(隆  
 中)에 초당(草堂)을 지음은 제갈량의 큰 꿈이었나. 그 화산  
 (華山) 석실에 진도남(陳圖南)의 천일(天日)의 잠인가. 혼이  
 여 중간 공포의 역사가 무릇 몇 번이며 지금까지 얻기 어려웠  
 던 기회가 그 몇 회오. 쌓아 놓은 땀나무에 불이 일어남에 어  
 썸 가생(賈生)의 통곡이 되지 못하며 한밤중 닭울음 소리에  
 어찌 조적(祖述)처럼 무예를 단련하지 못하고 마침내 한 조각  
 청구(靑邱)로 이 같은 슬픔에 빠지니 이에 당신은 오히려 부  
 끄러움을 모르며 두려움을 모르는가. 아, 5백년 동안 문을 닫  
 아걸고 높은 베개를 베고 누워 꽃이 피니 봄인 줄 알며 잎이  
 지니 가을인 줄 알고, 해가 나오니 낮인 줄 알며 해가 들어가  
 니 밤인 줄 알아, 맡은 갈고 우물을 파는데 요순의 세계를 노  
 래하고 산에 기대고 강에 막혀 위국(魏國)의 미보(美寶)를 자  
 랑할새, 책상 위 역사는 오직 통감강목(通鑑綱目) 몇 권이 있  
 고 학자의 희망은 단지 진사 급제에만 있어 해외 이웃 나라는

지나(支那)와 일본만 알 뿐이오, 생전(生前) 사업은 사환(仕宦)과 부귀만 알 뿐이니 이때를 당해서는 견문이 나라 안으로 한정되고 꿈이 방안에서만 즐거우니 어떠한 자극과 어떠한 감촉이 있기 드무니 내 비록 너를 책하나 너는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내 비록 너를 꾸짖으나 너는 오히려 임하지 않거니와 병인양요(丙寅洋擾)에 너는 어찌 머리를 돌려 보지 않으며 병자(丙子) 통상(通商)에 너는 어찌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며 임오(壬午)와 갑신(甲申)의 변란에 너는 과연 편안하였으며 일청(日淸)의 전쟁과 일아(日俄)의 전쟁에 너는 과연 어디로 갔는가. 오호라, 인천 월미도의 포성이 하늘을 울리고 땅을 찢어 놓아 팔역(八域)의 산하(山河)에 진동하고 위급한 현상이 눈앞에 닥쳐 각국의 비평이 비 쏟아지듯 하되 이때에도 술 한잔 하기를 예와 같이 하며 이때에도 누행곡보(樓行曲步)함이 예와 같으며 이때에도 올빼미가 귀를 위협하기를 예와 같이 하며 이때에도 참새가 난알을 다투기를 예와 같이 하여 경도(京都)의 유환(遊宦)은 단지 주사에게 의관(議官)의 값을 물으며 산림고사(山林高士)는 항상 인수화이(人獸華夷)가 다름을 말하고 정계(政界)의 파란(波瀾) 같은 하찮은 싸움이 그치질 않으며 지방의 상황은 살아있는 혼령들의 울부짖음이 그치질 않고 산수의 정각(亭閣)에는 세상 태평한 재상들이 높이 누워 있으며 캄캄한 방에서는 나라를 걱정한 남아가 고민하다 죽어 거연(居然)히 지구도(地球圖) 가운데 한 점 우리나라가 시들어버리니, 아! 우리 조선의 혼이여 너는 네 나라의 부끄러움을 잊었는가, 네 나라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았는가. 지난 일은 차마 말하지 못함이라 다만 눈물이 가득하거니와 뒤에 오는 자는 오히려 할 수 있으니 어찌 맹렬히 힘쓰지 않는고. 정신을 한번 차리면 독립할 수 있고 정신을 한번 떨치면 자유로울 수

있으니 너는 독립의 혼이 되고 노예의 혼이 되지 말며 너는 자유의 혼이 되고 견마(犬馬)의 혼이 되지 말지어다. 너는 밑이 새는 배 가운데 있으니 노를 젓되 방심하지 말아라. 한번 방심하면 풍량이 하늘에 닿아 어찌 하리오. 너는 좁은 길 옆에 있으니 눈동자를 바로 하고 눈을 깨끗이 씻어 실족하지 말아라. 한 번 실족하면 온 땅의 가시덤불을 어찌 하리오. 너는 모름지기 뛰어올라 편안히 앉지 말아라. 편안히 앉아서 뛰어오르지 않으면 망자(網者)·나자(羅者)·유자(游者)·익자(弋者)가 모두 너를 침노하리니 어찌 하리오. 너는 모름지기 단결하고 흠어지지 말아라. 흠어져 단결하지 않으면 사자(射者)자가(刺者) 지장자(持杖者) 방총자(放銃者)가 모두 와서 너를 해치리니 어찌 하리오. 아, 너의 생이 이미 4천년이라 만일 일(日)·아(俄)·영(英)·미(美)·덕(德)의 여러 나라들이 혹 너의 형제라 하며 혹 네가 후진(後進) 소년이다 하거늘 지금 저들이 평등으로 나를 만나지 않고 친구로 나를 부르지 않나니 능히 부끄럽지 않으며 이빨을 드러내고 입술이 춤추며 호랑이요 이리라 하고 날개를 떨치고 손톱으로 북을 침에 매라 하나니 능히 부끄럽지 않은가. 아, 너의 자손이 무릇 2천만 무리라 그들의 집마다 강보(襁褓)에는 화성돈(華盛頓)<sup>67)</sup>, 비사맥(俾斯麥)<sup>68)</sup>이 안겨있으며 근처 학당에는 위일손(韋日遜)<sup>69)</sup>, 격란사돈(格蘭斯頓)<sup>70)</sup>을 기르고 있나니 자손을 교육함에 능히 분발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아, 너의 전토(田土)가 또한 8만 2천 방리(方里)라 조종(祖宗) 산업이 장차 우리 집의 소유

---

67) '워싱턴'의 음역

68) '비스마르크'의 음역

69) '윌슨'의 음역

70) '글래드스톤'의 음역

가 아니요, 기름을 짜내고 피를 흘리는 수고로움을 전부 타인의 수중에 맡겨야 하나니 밭과 집을 구함에 능히 분한 마음이 없겠는가. 금일 우리 조선의 혼이 없으면 호호연(浩浩然) 천 겁만겁(千劫萬劫)에 마침내 우리 조선의 혼이 없는 것이요, 금일에 우리 조선의 혼이 있으면 망망연(茫茫然) 내생내세(來生來世)에 모두 우리 조선의 혼이 있는 것이니 금일은 어떤 날이고, 20세기 경쟁이 매우 심한 세상이라 원컨대 사환(仕宦)의 음욕(陰慾)으로 우리 조선의 혼을 바꾸지 말며 원컨대 못난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 조선의 혼을 걸지 말며 원컨대 부패한 습속으로 우리 조선의 혼을 흐리게 하지 말며 원컨대 어리석은 폭동으로 우리 조선의 혼을 괴롭히지 말고 원컨대 우리 4천년 후, 3천리 내, 대대로 이어져 우리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여 열성, 모험, 단결, 진보, 식산, 교육, 불굴불요(不屈不撓), 무조무태(毋躁毋怠)하야 2천만 인구로 우리 조선의 혼을 부르며 2천만의 손으로 우리 조선의 혼을 구제하고 천세만세로 우리 조선의 혼을 기릴지어다. 우리 조선의 혼이여, 그 끝내 느끼는 것이 없는가. 우리 조선의 혼이여 끝내 깨닫는 것이 없는가. (완)

#### 1907년 2월 8일, 文明錄, 3면 1단, 광고

江華郡守 吳相奎氏 鄉長 書記 八圓六十四錢 江華鎮衛隊中隊長陸軍步兵正尉 林愚春氏 五圓八錢 安濬氏 三圓四十錢 金炳駿氏 三圓 金義庚氏 三圓 崔性長氏 二圓八錢 曹玉承氏 二圓.

#### 1907년 2월 8일, 文明錄, 3면 1단, 광고

강화군수 오상규 씨 향장(鄉長) 서기 8환 64전 강화진위대(鎮衛隊) 중대장 육군보병 정위(正尉) 임우춘 씨 5환 8전 안

준 씨 3환 40전 김병준 씨 3환 김희경 3환 최성장 씨 2환 8  
전 조옥승 씨 2환.

**1907년 2월 12일, 各官赴邀, 2면 4단, 기사**

仁川港에 到泊한 日本冲之島軍艦을 紀念하기 爲하야 宴會를  
大設하고 各部大臣을 請邀함은 前報와 如히 各部大臣이 昨日  
仁川港에 發往하얏다더라.

**1907년 2월 12일, 各부 관리를 맞이하다, 2면 4단, 기사**

인천항에 정박한 일본 충지도(冲之島) 군함을 기념하기 위하  
야 연회를 대설하고 각부 대신을 초청하여 맞이함은 전보(前  
報)와 같이 각부 대신이 어제 인천항에 발왕(發往)하얏다더라.

**1907년 2월 12일, 稅關事簡, 2면 5단, 기사**

仁川海關에 巡檢 二員이 前者부터 派駐하얏는디 海關長이 近  
日에는 別無事務라 하고 一員은 撤送하얏다더라.

**1907년 2월 12일, 세관이 일이 적음, 2면 5단, 기사**

인천세관에 순검(巡檢) 2명이 지난 번부터 파견 나와 머물렀  
는데 해관장이 근일에는 별다른 사무가 없다 하고 1명은 돌  
려보냈다더라.

**1907년 2월 12일, 仁川治道費, 3면 2단, 기사**

日本人 稻田勝彦, 太田吉太郎, 桶口平吾 三氏가 仁川港道路建  
築費 一萬四千圓을 我政府에서 補助하라고 申請하얏는디 度  
支部에서 請助額半數는 先撥하고 半數는 待竣工繼撥할 터이  
고 竣工한 後에 該道路基址는 當爲官有하얏다더라.

1907년 2월 12일, 인천 도로 건축비, 3면 2단, 기사

일본인 도전승언(稻田勝彦), 태전길테랑(太田吉太郎), 통구평오(桶口平吾) 3명이 인천항 도로 건축비 1만 4천환을 우리 정부에서 보조하라고 신청하였는데 탁지부에서 청구한 금액의 반은 선발(先撥)하고 나머지 반은 준공을 기다렸다 지급할 터이니 준공한 후에 그 도로 기지(基址)는 마땅히 관의 소유가 된다더라.

1907년 2월 12일, 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 4면 4단, 광고  
肅川郡守 俞致秉氏 十圓 …… 江華普昌學校 校長 李東暉 一圓  
校監 金性初 教師 徐相七 高時駿 宋錫麟 甲湖校監 張致弘 月  
湖校監 劉景根 山湖校監 張東植 松亭校監高成根 崇雷校監 朴  
聖源 古上校監 韓丙烈 江后校監 李斗永望月校監 高泰鉉 烟洞  
校監 權泰亨 長井校監 李采乾 開城崧陽校監 金基夏 兩合校監  
朴宜鉉 豐德瀛湖校監 鄭夏永 長湍阜湖校監 崔光鎬 以上五十  
錢 男學徒等 十圓 女學徒等 二圓.

1907년 2월 12일, 재일본 단지유학생 학자의연, 4면 4단,  
광고

숙천군수 유치병씨 10원 …… 강화보창학교 교장 이동휘 1원  
교감 김성초 교사 서상칠 고시준 송석인 갑호교감 장치홍 월  
호교감 유경근 산호교감 장동식 송정교감 고성근 승뢰교감  
박성원 고상교감 한병렬 강후교감 이두영 망월교감 고태현  
연동교감 권태형 장정교감 이채건 개성숭양교감 김기하 양합  
교감 박의현 풍덕영호교감 정하영 장단고호교감 최광호 이상  
50전 남학도 등 10원 여학도 등 2원.

### 1907년 2월 15일, 三賊並捉, 2면 5단, 기사

朴錫伊 金永鎭 李建榮 三漢이 昨秋以來로 漢城內外에서 行盜  
하야 財物을 奪取하느디 該漢들이 貌樣을 朝夕變更하야 或  
洋服도 着하고 或 日本人力車役夫貌樣도 하고 或 韓國衣服도  
被하야 城內에 逗遛하며 財物奪取와 人命傷害가 非一非再인  
故로 警務廳에서 知其跟因하고 訶探하되 該三漢이 衣服을 變  
更하야 終不捕捉이러니 日昨에 兩漢이 銀指環 幾個를 持하고  
鐘路銀房에 來하야 放賣할 際에 別巡檢이 賊漢인가 疑하고  
捕縛問招흔 즉 果然 昨秋以來로 訶探하던 賊漢인디 仁川居  
金永鎭으로 同伴하얏다 하느니라 該漢도 亦卽 捕捉하야 警務  
廳에 方今 牢囚하얏다더라.

1907년 2월 15일, 세 명의 도적을 모두 잡다, 2면 5단, 기사  
박석이 김영진 이견영 세 사람이 작년 가을 이래로 한성 내외  
에서 도적질을 하여 재물을 탈취하는데 그 무리들이 외모를  
조석으로 변경하여 혹 양복도 입고 혹 일본 인력거 역부 외양  
도 하고 혹 한국 의복도 입어서 도성 내에서 체류하며 재물탈  
취와 인명상해가 비일비재인 까닭으로 경무청에서 그 자취를  
밟아 살살이 찾았으나 그 세 사람이 의복을 변경하여 끝내 붙  
잡지 못했는데 일전에 두 사람이 은반지 몇 개를 가지고 종로  
은방에 와서 방매(放賣)하는 사이에 별순검(別巡檢)이 도적놈  
인가 의심하고 포박하여 문초한 즉 과연 지난 가을 이래로 찾  
던 도적놈인데 인천에 사는 김영진과 같이 다녔다 하는지라  
그 놈도 또한 즉시 잡아서 경무청에 방금 가두었다더라.

### 1907년 2월 16일, 簿記應聘, 2면 4단, 기사

仁川港 米商會社에서 昨年에 商用簿記專門講習所를 設立하고

該港에 靑年俊才를 募集敎授호야 今已卒業호 故로 京鄕間 各 實業社會에서 複式簿記호 書記를 請聘호면 實地에 應川케 호 다더라.

#### 1907년 2월 16일, 부기할 서기 초빙, 2면 4단, 기사

인천항 미상회사(米商會社)에서 작년에 상용부기전문강습소를 설립하고 그 항(港)에 청년준재(靑年俊才)를 모집하고 가르쳐 이제 졸업하므로 경향간(京鄕間) 각 실업 사회에서 복식부기(複式簿記)할 서기를 초빙하면 실제 업무에 응천(應川)케 한다더라.

#### 1907년 2월 18일, 부령, 1면 2단, 기사

內部令第十六號 地方警務署及同分署의 管轄區域及配置定員을 添入改正호는 件 第一條 內部令第十號 各道新設分署名及位寔線內에 警務分署及位寔를 如左添入호이라 新設分署名 位寔 京畿 仁川分署 仁川 全羅南道 務安分署 ..... 第二條 內部令第十一處 各道警務署同分派所管轄區域線內에 管轄區域을 如左 添入改正호이라 分署名 管轄區域 京畿 仁川分署 仁川府 全羅南道 務安分署 務安府 .....

#### 1907년 2월 18일, 부령, 1면 2단, 기사

내부령 제16호 지방 경무서와 동분서(同分署)의 관할 구역과 배치 정원을 첨입개정(添入改正)하는 건 제1조 내부령 제10호 각도신설분서명(各道新設分署名)과 위치선내(位寔線內)에 경무분서(警務分署)와 위치를 아래와 같이 첨입(添入)함이라 신설 분서명(分署名) 위치 경기 인천 분서 인천 전라남도 무안분서 ..... 제2조 내부령 제11처 각도 경무서 동 분과소(分



派所) 관할구역선내에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첨입 개정함  
이라 분서명 관할구역 경기 인천분서 인천부 전라남도 무안  
분서 무안부 .....

### 1907년 2월 18일, [寄書] 論度量衡, 1면 4단, 독자란

梁在昶 ◎夫度量衡者 百貨交易의 標準으로 可所以衆庶之信  
憑이라 一國之交易이 由此興敗하고 一國之盛衰도 亦此起因하  
느니 我國從來 慣用하든 制度는 各道各郡은 勿論하고 甚至於  
各面各村의 用器가 不同하느니 甚哉라 交易發達의 妨害여 至哉  
라 商業社會의 弊害여 我韓이 今에 文明之域에 日進하며 內  
外通商之關係가 漸赴繁盛하느니 當光武하야 國光을 太極에 窮  
傳코져 홀진디 制定於度量衡法하야 全國一般이 同一하 器具  
를 用함이 急先政務라 故로 至慈至聖하신 大皇帝陛下게옵서  
光武九年三月에 改正於度量衡法하사 使人民으로 萬國度量衡  
法(卽米突制)을 并用케 하시고 白金製의 原器를 備하사 度量  
衡의 基礎를 鞏固케 하시니 我二千萬同胞의 幸福이로다 度는  
長을 謂함시오 量은 長廣深을 謂함시오 衡은 重을 謂함이니  
此는 學術上 度量衡이오 法律上 度量衡은 度量衡器가 必有함  
이니 器를 製코져 홀진디 比較物이 無하면 不能하며 比較物  
도 萬世不變하느니 物이 아니면 差가 生함이라 故로 本法度는  
地球를 比하야 子午線의 一億三千二百萬分之一를 尺이라 稱  
하느니 長이 從來 木尺과 同하며 一米突의 三十三分之十이며  
量은 尺의 依하야 六萬四千八百二十七立方分으로써 升이라  
稱하느니 京城市升의 七合五勺과 同하며 各郡平均升二升과 同  
容이며 一翊突의 一千三百三十一分之二千四百〇一이며 日本  
升과 同容量이며 衡은 京城市場에서 使用하든 兩과 同重同名  
이니 三十七久覽二分之一(一岐路久覽의 四百分之十五)이라

三十三年前 佛國巴리에 十七個國이 締結한 萬國度量衡會를  
 開하고 萬國通商함에는 米突制를 通用하기로 決議하였스니  
 何故요 一米突(三尺三寸)은 地球子午線의 四千萬分之一이오  
 一翊突(五合五勺餘)은 一米突의 十分之一立方이오 一岐路久  
 覽(二十六兩六錢六分餘)은 一翊突의 溫度四度 되는 極精冷水  
 를 入한 重이니 根本原器를 地球로 標準한 所以라 故로 本法  
 도 米突法을 并用及比較의 定限하였스니 同會에 加盟하였다  
 可謂할지며 量器는 現今 我國에서 輸出品을 穀物이 最多한  
 中 日本이 全數買去하니 日本國과 同容量됨이 先後方針이라  
 度量衡器製造는 農商工部度量衡製造所에서 製造하고 一切 私  
 造는 不許한다 하였스니 此條는 物質種類及形狀構造를 同一  
 케 함이오 但 製造한 器物도 檢定所에서 檢定을 施한 後에  
 合格이 되어야 檢印을 押하니 度量衡器는 檢印이 有한 然  
 後에 可用할지며 使用中에도 臨檢員이 恒常 巡回하니 不正  
 한 器具는 使用키 不能하며 實施後 每五個年에 定期檢定을  
 施하니 如是면 均一於全國할지며 帝國大都會京城과 第一開  
 港場仁川에 再昨年十一月에 實施한 結果를 略舉하건디 價格  
 이 五六千圓에 不過하니 豫想額의 十分之一이라 各鐵道沿地  
 와 各開港場及商業繁華地를 今年에 實施할 計畫이나 推此可  
 知할지니 農商工業의 發達程度를 顯出於最低함이라 製造販賣  
 에 多少不滿足함이 有함인지 不知커니와 製造內容을 論하면  
 農商工部管下에 在하니 日本人 井上宜文氏의 管理에 屬하여  
 一切 製造하기에 人民의 迷惑함을 起케 하더니 多幸히 昨年  
 十一月에 右人를 解雇하고 行政及檢定과 製造及販賣를 農商  
 工部에서 直轄하니 是는 當局者의 政務計畫이라 故로 自今爲  
 始하여야는 外人은 不雇할 줄 確信하는 바니 願我同胞諸君은  
 世界에 模範의으로 三千里疆土內의 度量衡沿革을 着肩委任하

면 腐敗호 商權도 回復호며 劣等호 工業도 改良호지며 農業  
所産도 増進호지며 輸出이 増加호지며 已失호 外交權도 回復  
호지며 帝國主義도 敷於六大洲호야 富强列國과 比肩호이니  
勉之哉어다 勉之哉어다.

1907년 2월 18일, [기고문] 도량형을 논함, 1면 4단, 독자란  
양재창 ◎무릇 도량형이라는 것은 백화(百貨) 교역의 표준으  
로 여러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함이라. 일국의 교역이 이로  
말미암아 흥패(興敗)하고 일국의 성쇠도 또한 이것에 기인하  
나니 우리나라가 종래 관용(慣用)하던 제도는 각도(各道) 각  
군(各郡)은 물론하고 심지어 각면(各面) 각촌(各村)의 용기  
(用器)가 같지 않으니 심하구나, 교역발달의 방해여. 심하구  
나, 상업사회의 폐해여. 우리나라가 지금 문명의 영역에 일진  
(日進)하며 내외통상의 관계가 점차 변성하는 광무(光武)에  
당하여 나라가 빛남을 태극에 전하고자 할진대 도량형법을  
제정하여 전국 일반이 동일한 기구를 사용함이 급선무라. 그  
러므로 지극히 자애롭고 성스러우신 대 황제폐하께서 광무 9  
년 3월에 도량형법을 개정하사 인민으로 하여금 만국도량형  
법(즉 미터제)를 병용하게 하시고 백금제(白金製)의 원기(原  
器)를 갖추어 도량형의 기초를 공고케 하시니 우리 2천만 동  
포의 행복이로다. 도(度)는 장(長)을 일컬음이요, 량(量)은  
장광심(長廣深)을 일컬음이요, 형(衡)은 중(重)을 일컬음이  
니, 이는 학술상 도량형이요 법률상 도량형은 도량형기(度量  
衡器)가 반드시 있어야 함이니 기(器)를 제조하고자 할진대  
비교물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비교물도 만세불변(萬世不變)하  
는 물질이 아니면 차이가 생김이라. 그러므로 본 법도는 지구  
를 비(比)하여 자오선(子午線)의 1억 32만분의 1을 척(尺)이

라 칭하니 장(長)이 종래 목척(木尺)과 같으며 1미돌(米突)<sup>71)</sup>의 33분의 10이며 량(量)은 척(尺)에 의지하여 6만 4,827입방분(立方分)으로써 승(升)이라 칭하니 경성 시승(市升)의 7합 5작과 같으며 각군 평균승(平均升) 2승(升)과 같은 용량이며 1익돌(翼突)의 1천 331분의 2천 4백 1이며 일본승(日本升)과 같은 용량이며 형(衡)은 경성 시장에서 사용하던 량(兩)과 같은 무게 같은 이름이니 37구람(久覽)2분지 1(1岐路久覽의 4백분지15)라. 33년 전 불국(佛國) 파리(巴里)에 17개국이 체결한 만국도량형회를 열고 만국통상합에는 미돌제(米突制)를 통용하기로 결의하였으니 무슨 까닭으로 1미돌(3척3촌)은 지구 자오선의 4천만분의 1이요, 1익돌(5합5작 여)은 1미돌의 10분의 1입방이요, 1기로구람(26량6전6분 여)은 1익돌의 온도(溫度) 4도 되는 가장 깨끗한 냉수를 넣은 무게이니 근본 원기(原器)를 지구로 표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법도 미돌법을 병용하면서 비교적 일정하게 제한하였으니 동회(同會)에 가맹(加盟)했다고 이를 수 있으며 양기(量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품은 곡물이 가장 많은 중 일본이 전 수량을 무역해가니 일본국과 용량을 같게 함이 선후 방침이라. 도량형기 제조는 농상공부도량형제조소에서 제조하고 일절 사조(私造)는 불허한다고 하였으니 이 조항은 물질 종류와 형상 구조를 동일하게 함이요, 단 제조한 기물도 검정소(檢定所)에서 검정을 실기한 후에 합격이 되어야 검인(檢印)을 받으니 도량형기는 검인이 있는 연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에도 임검원(臨檢員)이 항상 순회하나니 부정 한 기구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실시 후 매 5년마다 정기검정

---

71) 미터법에 따른 길이의 기본 단위.

을 시행하나니 이와 같이 하면 전국이 균일하며 제국대도회(帝國大都會) 경성과 제1개항장 인천에 작년 11월에 실시한 결과를 약거(略擧)하건대 가격이 5, 6천원에 불과하니 예상액의 10분의 1이라. 각 철도 부근의 땅과 각 개항장과 상업변화지를 금년에 실시할 계획이나 이를 미루어 할 수 있으니 농상공업의 발달정도를 가장 낮게 드러냄이라. 제조 판매에 다소 불만족함이 있을지 알지 못하거니와 제조 내용을 말하자면 농상공부 관하에 있으나 일본인 정상의원(井上宜文)씨의 관리에 속하여 일체 제조함에 인민의 미혹함을 일게 하더니 다행히 작년 11월에 이 사람을 해고(解雇)하고 행정 및 검정 제조 및 판매를 농상공부에서 직할(直轄)하니 이는 당국자의 정무계획이라. 그러므로 지금부터 외인(外人)은 팔지 못할 줄을 확신하는 바니 원컨대 우리 동포 여러분은 세계에 모범적으로 3천리 강토 내의 도량형 연혁을 믿고 맡기면 부패한 상권도 다시 회복하며 열등한 공업도 개량하며 농업 생산도 증진하며 수출이 증가하며 잃어버린 외교권(外交權)도 다시 회복하며 제국주의도 6대주(大洲)에 퍼져 부강열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니 힘쓸지어다. 힘쓸지어다.

**1907년 2월 18일, 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 4면 4단, 광고**  
 仁川港紳商會社 十圓 海州大寧學校義捐 學校中 二圓 校長 李相薰 二圓 學徒 元丙熹 一圓 李鍾應 一圓 元皙熹 一圓.

**1907년 2월 18일, 재일본 단자유학생 학자의연, 4면 4단, 광고**  
 인천향신상회사 10원 해주대녕학교 의연 학교중 2원 교장 이상훈 2원 학도 원병희 1원 이중응 1원 원석희 1원.

**1907년 2월 19일, 部令, 1면 2단, 기사**

內部令第十六號（續）第三條 內部令第十二號 各道警務署同分  
派出所警察官吏配置定員線內에 配寔定員을 如左添入改正함이라  
警務署名 分署名 分派所名 總巡權任巡檢 京畿 仁川分署 一二  
一八 全羅南道 務安分署 一二八 全羅北道 沃溝分署 一二八  
…… 附則 第四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함이라 光武十一  
年一月三十一日

**1907년 2월 19일, 부령, 1면 2단, 기사**

내부령제16호 (속) 제3조 내부령 제12호 각도경무서동분파소  
경찰관리배치정원선내에 배치정원을 죄와 같이 첨입 개정함이  
라 경무서명 분서명 분파소명 총순권임순검 경기 인천분서  
1218 전라남도 무안분서 128 전라북도 옥구분서 128 …… 부  
칙 제4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이라 광무 11년 1월31일.

**1907년 2월 20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依願免本官 德源府主事 李尙珪 …… △任江華郡主事敍判任官  
八級 黃翊周 …… △任富平郡主事敍判任官八級 九品 李濟翼  
…… 以上二月八日.

**1907년 2월 20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의원면본관(依願免本官) 덕원부주사 이상규 …… △임명 강화  
군 주사 부여 판임관 8급 황익주 …… △임명 부평군 주사 부  
여 판임관 8급 9품 이제익 …… 이상 2월8일.

**1907년 2월 21일, 斷烟決心, 1면 4단, 기사**

仁川港 紳商會社에서 斷烟同盟會를 組織하고 各其 姓名下에

盟字를 쓰고 捺章호 者 朴元淳 金道善 金允星 金鍾一 姜允模 鄭在洪 張乃興 諸氏인디 該社使喚 禹昌根 金鳳圭 尹輔永 安聖五 張鎭煥 五人을 召集호야 曰 平日은 雖有使喚 社員之別이나 國民된 義務로 言之면 毫無差等호니 若有志願者則 一般會員이라 호니 五人이 悉皆入會호야 當場 十二人에 達호고 該港有志願入者不知其數니 大邱 徐相돈 氏의 斷烟償債之一說이 我韓獨立의 基礎를 可望이라더라.

### 1907년 2월 21일, 금연결심, 1면 4단, 기사

인천항 신상회사에서 단연동맹회를 조직하고 각 그 이름 아래에 맹(盟)자를 쓰고 날인한 자 박원순 김도선 김윤성 김종일 강윤모 정재홍 장내홍인데 그 회사 사환(使喚) 우창근 김봉규 윤보영 안성오 장진환 5인을 불러 모아 말하길, 평일은 오직 사환(使喚)만 있고 사원과 다르나 국민 된 의무로 말하자면 터럭도 다름이 없으니 만약 지원자가 있다면 같은 회원이라 하니 5인이 모두 입회하여 당장 12인에 달하고 그 항(港)에 지원자가 부지기수니 대구(大邱) 서상돈 씨의 단연상채(斷烟償債) 한 마디 말이 우리 대한 독립의 기초를 바랄 수 있다 하더라.

### 1907년 2월 21일, 製鹽立標, 2면 3단, 기사

仁川朱安面于瀉地에 製鹽試驗地를 開設次로 度支部에서 立標호앗다더라.

### 1907년 2월 21일, 제염 표시 세움, 2면 3단, 기사

인천 주안면 갯벌에 제염(製鹽) 시험지(試驗地)를 개설차 탁지부에서 입표(立標)하였다더라.

**1907년 2월 23일, 日隊向仁, 2면 3단, 기사**

本月十九日에 海州郡에 駐在한 日本守備隊尉官 三員과 兵卒 一百三十名이 軍艦을 搭乘하고 仁川港으로 發向하였다더라.

**1907년 2월 23일, 일본 군대가 인천을 향함, 2면 3단, 기사**

본월 19일에 해주군에 주재한 일본수비대 위관 3명과 병졸 130명이 군함을 탑승하고 인천항으로 발향(發向)하였다더라.

**1907년 2월 23일, 本人子昌五於再昨年陰二月分與宋健金德煥李台永等諸人邂逅於仁川港, 4면 4단, 광고**

本人子昌五於再昨年陰二月分與宋健金德煥李台永等諸人邂逅於仁川港而志氣相合故義結弟兄而出稼於米國加哇禮里禮里縣情愛殊深矣不意去陰四月分子昌五與金正執李勝學朴勝爽吳永化李重克等觀光漁船次乘漁艇而入矣未及渡爲風浪所覆唯昌五與李重克不幸溺沒故結義中諸人聞其凶報卽雇善水者艱辛拯屍而重克耶蘇教人故自教中治喪亡子則自結義中鳩財治葬幸免魚腹之魂而且亡子所貯有金貨五十元而無一錢入用於葬費沒數還送于本家當此之境雖親弟兄猶曰難事況以結義如是相救前後蒙惠鏤骨難忘感淚所激玆以仰佈 漣川玉山里오 湄 尹顯夏 告白 亡子結義人 劉相鉉 李台永 宋健 韓鳳錫 金德煥 尹昌五 尹致完 梁侖九 白雲炳 睦元弼 金翊龍 吳燦龍 南錫祐.

**1907년 2월 23일, 본인 아들 창오가 재작년 음력 2월경에 송건 김덕환 이태영 등과 인천항에서 해후하여, 4면 4단, 광고**

본인 아들 창오가 재작년 음력 2월 경에 송건 김덕환 이태영 등과 인천항에서 해후(邂逅)하여 지기(志氣)가 서로 맞아 의



형제를 맺고 미국(米國) 가와예리(加哇禮里)로 출가(出稼)했는데 예리현(禮里縣) 정애(情愛)가 유달리 깊었으나 뜻밖에도 지난 음력 4월경 아들 창오와 김정집 이승학 박승석 오영화 이중극 등이 기선(氣船) 관광차 어정(漁艇)에 올랐으나 다 건너지도 못하고 풍랑을 만나 전복되어 오직 창오와 이중극이 불행히도 물에 빠졌으므로 결의한 사람들이 그 흉보(凶報)를 듣고 바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간신히 시신을 건졌으니 중국이 야소교인(耶蘇敎人)<sup>72)</sup> 이므로 자교(自敎) 중 망자의 초상을 치른 즉 결의한 자들이 스스로 재물을 모아 장례를 치르니 다행히 고기 뱃속의 혼이 되는 꼴은 면하고 또 망자가 저축해 놓은 금화 50원이 있어 장례비용으로 한푼도 들이지 않고 몰수하여 본가에 보내니 이런 지경을 당했으나 친형제라도 오히려 말하길 어려운 일을 당해 하물며 결의로써 이와 같이 서로를 구해주니 꿈속에서라도 은혜를 잊기 어렵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니 이로써 널리 알린다 하더라. 연천(漣川) 옥산리(玉山里)요, 미(湄) 윤현하 고백. 망자와 결의한 사람 유상현 이태영 송건 한봉석 김덕환 윤창오 윤치완 양륜구 백운병 목원필 김익용 오찬용 남석우.

### 1907년 2월 25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任公立海州普通學校副敎員敍判任官十級 丁奎榮 …… △任公立江華普通學校副敎員敍判任官十級 魚秉善 △任公立富平普通學校副敎員敍判任官十級 李光來 …… 以上二月十八日 ……

---

72) 예수교를 믿는 사람

1907년 2월 25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임명 공립해주보통학교부교원 부여 관임관10급 정규영 .....  
△임명 공립강화보통학교부교원 부여 관임관10급 어병선 △  
임명 공립부평보통학교부교원 부여 관임관10급 이광래 .....  
이상 2월18일 .....

1907년 2월 26일, 照請免稅, 2면 4단, 기사

宮內府에서 度支部에 照會호되 卽接赤十字來函內開에 樊社紀章을 日本郵船會社에 囑托호야 該紀章을 搭載호 四國丸이 到着仁港인 바 不得不 免稅轉入이라 호얏기 茲以照會호니 卽爲 指飭總稅務司호야 免稅케 호라 호얏더라.

1907년 2월 26일, 면세를 청하며 조회하다, 2면 4단, 기사

궁내부에서 탁지부에 조회하여 적십자가 보낸 편지에 폐사(樊社) 기장(紀章)을 일본우선회사에 촉탁하여 그 기장을 탑재한 사국환(四國丸)이 인천항에 도착한 바 부득불 면세(免稅)로 전입(轉入)이라 하기에 이로써 조회하니 즉 총세무사에 일러 면세케 하라 하얏더라.

1907년 2월 27일, 製鹽定界派員, 2면 4단, 기사

度支部에서 仁川府朱安面十升里에 製鹽試驗地로 立標호은 前報에 掲載호얏거니와 該部에서 民有地家屋을 買收호 次로 參書官 金敎憲 主事 卞志庠 兩氏를 派送호얏더라.

1907년 2월 27일, 제염지 경계를 정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하다, 2면 4단, 기사

탁지부에서 인천부 주안면 십승리<sup>73</sup>)에 제염시험지로 입표(立

標)함은 전보(前報)에 게재하였거니와 그 부(部)에서 민간이 가진 땅과 가옥을 매수할 차로 참서관(參書官) 김교현 주사(主事) 변지상 두 사람을 파송(派送)하였더라.

**1907년 2월 27일, 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小廣橋 權東漢氏 江華內可面 鰲山普昌學校 茲今以後로 新聞請求하시는 人은 居住氏啣을 世界에 公佈해야 其有志함을 表함.

**1907년 2월 27일, 황성신문 신진부, 4면 1단, 광고**

소광교 권동한 씨 강화 내가면 오산보창학교 지금 이후로 신문을 청구하시는 사람은 거주지와 이름을 세계에 공포(公佈)해야 그 뜻있음을 표함.

**1907년 3월**

**1907년 3월 4일, 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朴贊稷氏 新溪草灘 廉鳳俊氏 新溪郡中部 俞在五氏 昌寧郡南昌學校 黃璟性氏 日本 普昌學校 江華 李晚秀氏 齋洞 金玉顯氏 釜港 權泰亨氏 江華 普明學校 龍川 茲今以後로 新聞請求하시는 人은 居住氏啣을 世界에 公佈해야 其有志함을 表함.

**1907년 3월 4일, 황성신문 신진부, 4면 1단, 광고**

박찬직씨 신계초탄(新溪草灘) 염봉준 씨 신계군중부 유재오 씨 창녕군 남창학교 황경성 씨 일본 보창학교 강화 이만수

---

73) '십정리(十井里)'의 오키로 여겨진다.

씨 재동(齋洞) 김옥현 씨 부산항(釜港) 권태형 씨 강화 보명 학교 용천 지금 이후로 신문을 청구하시는 사람은 거주지와 이름을 세계에 공포(公佈)하여 그 뜻있음을 표함.

### 1907년 3월 5일, 濟寧復濟, 1면 3단, 기사

濟寧學校는 仁港轉運會社副社長 金貞坤氏와 總務 崔致洪氏에 勸立한 비라 一切 經費를 該社에서 用心濟用하여 學徒가 一百二十名에 達하여 將就有望하더니 自客年以後로 該社財政이 窘拙하여 校費를 接濟키 極難한 境遇에 當하여 校監 金貞坤氏는 該社諸員에게 校務維持할 方針을 熱心勸告하고 學校을 修理하며 生徒를 募集하되 該社에 或 有財用極艱이면 氏가 自家로 出力補助하고 教師 徐丙斗氏는 敎課을 嚴立하고 晝夜 熱心敎育하여 期欲速成 故로 該校가 百廢復興하여 進就之望이 比前稍加인 즉 該港物議가 濟寧復濟는 兩氏의 同心同力한 原因이라고 稱頌한다더라.

### 1907년 3월 5일, 제녕학교가 다시 구제됨, 1면 3단, 기사

제녕학교<sup>74)</sup>는 인천항 전운회사 부사장 김정곤 씨와 총무 최치홍 씨에 의해서 세워진 바라 일체 경비를 그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여 학도가 120명에 달하여 장차 유망하더니 지난 해부터 그 회사 재정이 어려워져서 교비(校費)를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를 당하여 교감 김정곤 씨는 그 회사원들에게 교무(校務)를 유지할 방침을 열심히 권고하고 학교를 수리하며 생도를 모집하되 그 회사에 혹 극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74) 1903년 6월 설립된 제녕학교는 인천 최초로 민간인이 경영하는 학교였다. 인천의 유지 서상신(徐相彬)이 주도했고, 김정곤(金貞坤)이 도움을 주었다.

김정곤 씨가 스스로 힘써 보조하고 교사 서병두 씨는 교과목을 엄히 세우고 주야로 열심히 교육하여 속히 이루기를 기대하므로 그 학교가 부흥하여 진취적인 희망이 전에 비해 점점 나아지니 그 항(港)의 평판이 제녕(濟寧)이 다시 구제됨은 두 사람의 동심동력한 원인이라고 칭송한다더라.

### 1907년 3월 5일, 皇城新聞價, 3면 2단, 광고<sup>75)</sup>

河相驥監理 自光武六年一月至六月一圓八十六錢一里 自六年九月至十二月條七十錢八里 自七年一月至十二月條二圓十九錢九里 自八年一月至十二月條二圓七十二錢四里 九年一月條 二十二錢七里 自十年二月十二日至三月條六十三錢 徐相濩監理 自六年七月至八月條三十五錢四里 劉燦監理 自九年二月至十一月二十日條三圓六錢九里 徐丙珪監理 自十年四月至十月條三圓三十六錢 主事 仝上合十四圓七錢二里 警務官 自四年四月至十年十二月條十九圓九十八錢五里 郡守鄉長書記 自十年七月至九月條四圓三十二錢 右記諸氏는 右開新聞價를 本府로 本月十五日內에 送致하야 皇城新聞社로 送交케 함을 爲要 仁川府 告白.

### 1907년 3월 5일, 황성신문 값, 3면 2단, 광고

하상기 감리(監理)<sup>76)</sup> 광무 6년 1월부터 6월까지 1원 86전 1리 6년 9월부터 12월까지 70전 8리 7년 1월부터 12월까지 2원 19전 9리 8년 1월부터 12월까지 2원 72전 4리 9년 1월 22전 7리 10년 2월 12일부터 3월까지 63전 서상집 감리 6년 7월부터

75) 황성신문의 가격에 관한 광고는 1907년 3월 5일 외에도 1907년 3월 6일, 1907년 3월 7일, 1907년 3월 20일, 1907년 3월 21일 모두 4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76) 개항기 개항장과 개시장의 통상사무를 관리 및 감독하던 지방장관으로 1883년 부산, 원산, 인천 3개소의 개항장에 감리서가 신설되며 감리가 임명되었다.

8월까지 35전 4리 유찬 감리 9년 2월부터 11월 20일까지 3원 6전 9리 서병규 감리 10년 4월부터 10월까지 3원 36전 주사(主事) 모두 합하여 14원 7전 2리 경무관(警務官) 4년 4월부터 10년 12월까지 19원 98전 5리 군수향장서기(郡守鄉長書記) 10년 7월부터 9월까지 4원 32전 우기(右記)한 사람들은 우개(右開)한 신문값을 본부(本府)로 본월 15일 내에 송치하여 황성신문사로 보내주게 함을 요함. 인천부(仁川府) 고백( 광고).

**1907년 3월 5일, 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成周亨氏 小安洞 金永鎭氏 仁港海館 朴永燾氏 東萊 商業會議所 金泉市 市議所 大邱 江界 李日英氏 化平里 劉漢雄氏 松山里 金寶鑑氏 天奉里 朴光烈氏 龍城里 玆今以後로 新聞請求하시는 人은 居住氏啣을 世界에 公佈하야 其有志함을 表함.

**1907년 3월 5일, 황성신문 신진부, 4면 1단, 광고**

성주형씨 소안동 김영진씨 인천항해관 박영희씨 동래 상업회의소 김천시 시의소 대구 강계 이일영씨 화평리 유한웅씨 송산리 김보감씨 천봉리 박광렬씨 용성리 지금 이후로 신문을 청구하시는 사람은 거주지와 이름을 세계에 공포(公佈)하여 그 뜻있음을 표함.

**1907년 3월 6일, 仁港大火灾, 1면 4단, 기사**

再昨日 仁川港에서 失火하야 民家 四百餘戶가 連燒하얏는디 起火根因과 人命의 傷不傷을 現今 調査하느 中이라더라.

**1907년 3월 6일, 인천항 대화재, 1면 4단, 기사**

그저께 인천항에서 실화(失火)하여 민가 4백여 호(戶)가 연

달아 불에 댔는데 불이 일어난 원인과 인명의 피해를 지금 조사하는 중이라더라.

### 1907년 3월 7일, 斷烟報償가 卽親日이오 非排日, 2면 1단, 사설

唇亡而齒憂는 爲其寒也오 瓶罄而罍耻는 愛其類也어날 多事哉  
라 謬見之徒여 認鹿爲馬호고 鮮白爲黑호야 空然惹起妄說에  
貽惱於隣邦之友情호니 吾於彼輩에 固無足責이로되 不得已 而  
又此置辨호노니 彼輩는 且捲舌而退哉이다 何謂也오 曰 近日  
斷烟償債之說이 自東而西호고 自南而北호야 一鼓作氣에 萬旗  
齊舉호니 嗚乎라 此豈徒我韓人士의 所當歌之舞之에 一般 欣  
慰者哉아 卽日 本上下官民도 莫不拍手喝采曰 日本이 其從此  
無憂乎닌저 日本이 其從此無憂乎닌저 호리니 或有曰 韓人之  
償債也에 日本은 但按期責償호고 隨時計利而已라 호야 兩國  
關係를 視以越人之肥瘠호면 吾將以一句 冷評으로 舉筆諡之曰  
爾是世界大盲眼이라 홀지오 又或曰 韓人之愛國은 是日本之所  
不喜오 韓人之不愛國은 反是日人之所喜라 호야 此友邦厚誼를  
誤認以不平和不相愛之敵國호면 吾將以一場熱罵로 當面呵之曰  
爾是東洋大癡蠻이라 홀지니 不惟吾一人이 如此評之罵之라 舉  
韓人이 皆將如此오 不惟韓國人이 如此評之罵之라 舉日人이  
皆將如此호리니 此說也는 合韓日兩邦六千萬民호야 面面以問  
之라도 稍具有一般靈性者면 無一人不點頭라 吾又何費唇費舌  
에 有所云云이리오만은 奈之何日本文明國中에도 尙有一種愚  
昧短見者流호야 謾然稱之曰 韓國民之募金報償가 排日者運動  
이라 호야 至如仁川朝鮮報호야는 騰諸論說호니 此는 不足辨  
이오 不必辨이라 但惜其學問知識이 太屬蔑如而已오 所可恐者  
는 此等浮言이 日日煽吹호면 彼日本當局者도 或 以是誤解於

我韓人民호고 我國人民도 從以是誤解於日本官憲호야 以訛傳訛호고 以疑生疑호면 天下大可慮之事가 其有加於此者乎아 彼爲此說者여 試更問之호노니 日人이 憂韓乎아 惡韓乎아 愛韓乎아 仇韓乎아 若曰 惡韓仇韓이라 호면 何故로 擲國民之頭顱호고 糜全國之財力호야 戰淸擯露에 每稱保護証我獨立也오 且使我韓人으로 早知自憂其國호고 早能自愛其國이러면 鼎足之勢가 完成已久호야 歐米雄國이 無敢正覬東洋홀지나 我民之不能憂國愛國은 日本之所當甚憂也오 我民之能憂國愛國은 日本之所當甚愛也라 使我國民으로 不能自憂自愛면 雖日人之憂之 愛之 근달 將何益於我國哉며 日本이 亦安能孤立獨雄於亞東哉아 是以로 我民之憂國愛國이 苟有其兆之微現이면 不惟我民의 所官相提相倡이라 亦日本之所竭力贊成이니 我民이 果能自憂其國이면 日本이 其何憂며 我民이 果能自愛其國이면 日本이 其何憂오 我韓人之愛國事業이 久此寂寞호야 風浪孤舟에 悠然高枕이라가 一朝我民이 撥雲見天호야 斷烟募價之聲이 蓬蓬徧於國中호니 遙揣日本全國이 潮湧獻賀호야 曰 友鄰이 其庶幾乎며 曰 日本이 其無憂乎 근저 호야 悉表同情에 無有異辭호깃 거날 彼何人斯완디 做言無已호니 然則 我韓國民이 蠢蠢蠻悖에 不償鄰債호고 不畏嘖言호면 是可曰 親日乎며 昏昏大寐에 不思鄰誼호고 不救前途호면 是可曰 親日乎아 從今我民이 始知自憂而自愛矣오 始知親鄰而愛鄰矣니 妄造排日之說者는 自癡自愚를 其無再現哉어다 第念趙壁을 不肯完하고 秦粟을 不肯償호면 彼此相憾에 結果不良호리니 此當加之以排日之名하려니와 今日 募金은 將以報隣債也오 報債는 將以睦隣誼也어날 親鄰與排外之分界를 何其言之不明고 無論公債私債하고 期圖淸帳者로 謂以懷抱不良之說은 從古未之聞歟인저.



1907년 3월 7일, 금연하여 빛을 갚는 것이 즉 친일이요 배일이 아니라, 2면 1단, 사설

입술이 없으면 이가 근심이라는 것은 찬 기운 때문이요, 병에 술이 없는 것이 술통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 동류를 아끼기 때문이거늘 일이 많기도 하여라, 잘못된 견해를 가진 무리들이여. 사슴을 말이라 하고 하얀 것을 검다 하여 공연히 명령된 말을 일으킴에 이웃 나라의 우정에 괴로움을 끼치니 내저 무리들에게 진실로 책임이 없지만 부득이 또 이런 변명을 하노니, 저 무리는 또 혀를 말고 물러날지어다. 무엇이라 하는가. 근일 담배를 끊어 국채를 보상하자는 말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퍼져 한 번 북을 두드려 사기를 진작시킴에 수만 개의 깃발이 일제히 들고 일어서니 오호라, 이 어찌 우리 대한 인사(人士)의 응당 노래하고 춤춘 것에 일반 기쁘고 위안이리오. 즉일(卽日) 본(本) 상하(上下) 관민(官民)도 박수갈채를 보내며 말하길 일본이 이것으로 우환이 없겠구나, 일본이 이것으로서는 우환이 없겠구나, 하리니 혹 어떤 이가 말하길 한인(韓人)이 빛을 갚는다 함에, 일본은 그 빛을 갚으라, 억누르고 수시로 이익을 계산할 뿐이라, 그리하면 양국 관계를 월나라 사람이 살찌고 여원 것을 보는 것처럼 하면<sup>77)</sup> 내 장차 한 마디 냉정한 평가로 붓을 들어 웃으며 말하길, 너는 세계의 커다란 맹인이라 할 것이요. 또 혹 말하길 한인(韓人)의 애국은 일본이 기뻐하지 않는 바요, 한인이 애국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일인(日人)이 기뻐하는 바라 하여 우방(友邦)의 두터운 다스림을 평화스럽지 않고 서로 아끼지 않는

77) 월인지비척(越人之肥瘠) : 한유(韓愈)의 <쟁신론(爭臣論)>에는 “마치 남쪽의 월나라 사람이 북쪽 진나라 사람의 살지고 여원 것을 보는 것처럼 무관심해서 마음 속에 기쁨이나 슬픈 느낌을 전혀 갖지 않는다[若越人視秦人之肥瘠 忽焉不加喜戚於其心]”는 구절이 있다.

적국으로 오인하면 나는 장차 한바탕 꾸짖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꺾꺾 웃으며 말하길, 너는 동양의 커다란 어리석은 오랑캐라고 할지니 나 한 사람만이 이처럼 평가하고 꾸짖을 뿐이 아니요, 한인(韓人)이 모두 장차 이처럼 들고 일어나면 이처럼 평가하고 꾸짖음이 한국인뿐만이 아니요, 일인(日人)이 모두 장차 이와 같이 들고 일어나리니 이 말은 한일 두 나라 6천만 국민이 합하여 사람마다 물어보더라도 조금이라도 일반적인 영성(靈性)을 가진 자라면 한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또 어찌 쓸데없이 입술과 혀를 놀려 운운하리오만은 어찌 일본 문명국 중에도 오히려 일종(一種) 우매하고 식견이 짧은 자들이 있어 거만하게 말하길, 한 국민이 모금하여 빚을 갚는 것이 배일자(排日者) 운동이라 해서 인천조선보(仁川朝鮮報)에 여러 논설을 올리니 이것은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애석하게도 그 학문과 지식이 지나치게 멀시에 속할 뿐이요, 두려워할 것은 이 같은 뜬소리들이 날마다 퍼지면 저 일본 당국자도 혹 우리 한인민(韓人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우리 국민민(國人民)도 따라서 일본 관헌(官憲)에 대해 오해를 하여 와전되고 의심이 일어나면 천하의 큰 근심이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다. 저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여, 다시 묻노니 일인(日人)이 한(韓)을 걱정하는가, 한(韓)을 악하게 하는가, 한(韓)을 아끼는가, 한(韓)을 원수로 여기는가, 만일 말하길 악하게 하고 원수로 여긴다, 라고 하면 무슨 이유로 국민의 머리통을 던져버리고 전국의 재력을 소비하여 청나라와 전쟁하고 러시아를 물리침에 매번 보호라고 칭하고 우리 독립을 충고하겠는가. 또 우리 한인(韓人)으로 하여금 일찍이 스스로 그 나라를 걱정하게 하고 일찍이 스스로 그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면 정족지세(鼎足之勢)가 완성된지

이미 오래되어 구미(歐米) 웅국(雄國)이 감히 바로 동양을 넘  
 겨보지 못할지나 우리 국민이 우국애국(憂國愛國)하지 못함은  
 일본이 심히 근심하는 바요, 우리 국민이 능히 우국애국(憂國  
 愛國)함은 일본이 심히 아끼는 바라.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자우자애(自憂自愛) 할 수 없다면 비록 일인(日人)이 근심하  
 고 아낀들 장차 우리나라에 무엇이 이로울 것이며 일본이 또  
 한 어찌 동아(東亞)에 고립되어 홀로 강대할 수 있겠는가. 이  
 로써 우리 국민의 우국애국이 진실로 그 조짐이 조금이라도  
 나타남이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노래함이 우리 국민뿐  
 만이 아닐 것이요, 일본 역시 힘을 다해 찬성함이니 우리 국  
 민이 과연 스스로 그 나라를 걱정할 수 있으면 일본이 어찌  
 걱정하며 우리 국민이 과연 그 나라를 아낄 수 있으면 일본이  
 어찌 걱정하리오. 우리 한인(韓人)의 애국 사업이 오래도록  
 적막하여 풍랑 속 외로운 배에 유연(悠然)히 높은 배개인데  
 하루아침에 우리 국민이 구름을 헤치고 하늘을 보아 담배를  
 끊어 빛을 갇자는 목소리가 나라 안에 무성하게 퍼지니 멀리  
 서 일본 전국이 헤아려 조용(潮湧) 현하(獻賀)하여 말하길,  
 우린(友隣)이 그 바람이여, 하며 말하길 일본이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하여 모두 동정을 표함에 다른 말이 없거늘 저들은 어  
 떤 사람들인데 말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그런즉 우리 한국민이  
 꾸물거리며 이웃의 빛을 갇지 않고 책망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를 친일(親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큰 침대에서  
 정신이 흐릿해져 이웃의 옳음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갈 길  
 을 구하지 않으면 이것을 친일(親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  
 금부터 우리 국민이 비로소 스스로 근심하고 스스로 사랑함을  
 알았고 비로소 이웃과 친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알았으니 망령  
 되니 배일(排日)의 말을 만들어낸 자는 스스로 어리석음을 다

시 드러내지 말지어다. 차례로 생각해보되 조나라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고 진나라 곡식을 갚지 못하면 피차 서로 서운함에 결과가 좋지 못하리니 마땅히 배일(排日)의 이름을 더하려니와 금일 모금은 장차 이웃의 빚을 갚기 위해서요, 빚을 갚음은 장차 이웃과 화목해지기 위해서거늘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과 외세를 배척하는 경계를 어찌 그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가. 공채(公債)와 사채(私債)를 막론하고 빚을 깨끗이 갚는 것을 기약하는 자가 맘에 품은 불량한 말로 일컫는 것은 예부터 듣지 못하였도다.

**1907년 3월 7일, 仁港大火後報, 2면 6단, 기사**

仁川港에서 失火호야 四百餘戶가 連燒호얏다 囑은 昨報에 已揭어니와 該府尹이 詳細調査호 則 日本人商店에서 起火호야 五百餘戶가 被燒호 內에 我國民家屋은 十八戶오 淸國人家舍는 九戶인디 日本人 三名이 被燒致死호얏다더라.

**1907년 3월 7일, 인천항 대화재 이후 기사, 2면 6단, 기사**

인천항에서 실화(失火)하여 4백여 호가 연달아 탔다고 함은 어제 기사에 이미 실었거니와 그 부윤(府尹)이 상세히 조사한 즉 일본인 상점에서 불이 일어나 불에 탄 5백여 호 안에 우리 국민 가옥은 18호요 청국인의 가옥은 9호인데 일본인 세 명이 불에 타 죽었다 하더라.

**1907년 3월 8일, 統員法務視察, 2면 3단, 기사**

統監府法務院長 香坂氏가 各地方에 法務視察次로 昨日에 京仁鐵道 一番列車을 搭乘호고 仁川으로 下去호야 群山港과 木浦港 等地로 發往호다더라.

1907년 3월 8일, 통감부 법무원장 시찰, 2면 3단, 기사

통감부 법무원장 향판(香坂) 씨가 각 지방에 법무시찰차 어제 경인철도 1번 열차를 탑승하고 인천으로 내려와 군산항과 목포항 등지로 간다고 하더라.

1907년 3월 8일, 避兵被打, 2면 5단, 기사

侍衛步兵一聯隊兵丁 李根植氏가 富平郡으로 逃走호얏는디 該隊에서 兵丁 金漢泰 鄭興圭 兩氏를 派送호야 富平郡에 到達호 즉 逃兵이 田豐根氏家에 有호다 云호는 故로 該兵이 內庭에 突入搜查호 즉 田氏與尹南奎가 該兵을 歸之賊漢호고 洞民을 聚集호야 毆打호는 際에 該郡巡檢 方景列氏가 加以捕縛호고 一向亂打호야 手指가 綻裂호고 重傷을 被호 改로 該隊에서 軍部에 報告호얏더라.

1907년 3월 8일, 도망친 병사가 구타를 당하다, 2면 5단, 기사

시위(侍衛)보병 1연대 병정 이근식 씨가 부평군으로 도주하였는데 그 대(隊)에서 병정 김한태 정홍규 두 병을 파송하여 부평군에 도달한 즉 도주한 병정이 전풍군 씨 집에 있다고 하는 고로 그 병정이 내정(內庭)에 돌입하여 수사한 즉 전씨와 윤남규가 그 병정을 도둑놈이라 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구타하는 사이에 그 군(郡) 순검(巡檢) 방경열 씨가 포박하고 난타하여 손가락이 찢어지고 중상을 입혔으므로 그 대(隊)에서 군부(軍部)에 보고하였더라.

1907년 3월 8일, 本人이 李駿九處에 陰正月廿三日推次 新貨三百元魚驗을 遺失호얏스오니, 4면 3단, 광고

本人이 李駿九處에 陰正月廿三日推次 新貨 三百元魚驗을 遺

失<sup>하</sup>얏스오니 誰某拾得<sup>하</sup>와도 休紙施行<sup>하</sup> 仁川港 鄭在寬 告白.

1907년 3월 8일, 본인이 이준구처에 음력 정월 23일 즈음  
신화 3백 원 어음을 유실하였사오니, 4면 3단, 광고

본인이 이준구처(李駿九處)에 음력 정월23일 즈음 신화(新  
貨) 3백원 어음을 유실하였사오니 누가 습득하여도 휴지(休  
紙)로 처리함. 인천항 정재관 고백(광고).

1907년 3월 9일, 仁港龍洞 朴三洪 寄書, 1면 5단, 독자란

生은 本以草野魯鹵으로 聞見이 未廣<sup>하</sup>은 則 豈足與論於時務  
哉리오만은 人無智愚히 稍俱彝性者면 孰無愛國熱誠이리오 概  
見年來時事之蹉跎<sup>하</sup>고 痛心落淚者 爲日久矣러니 近閱申報에  
大邱 徐相敦氏가 國債報償事로 斷烟同盟會을 發起<sup>하</sup>야 使全  
國同胞로 熱血을 鼓動<sup>하</sup>야 至於 閭巷孺婦와 勞働愚夫도 樂而  
向應<sup>하</sup>야 立會義捐이 逐日增加<sup>하</sup>고 乃若仁川은 烟草을 難售  
<sup>하</sup>니 衆心之團合을 從此可知이오며 古語에 云호되 衆心成城  
이라 <sup>하</sup>니 顧我二千萬同胞가 團結若此則 何患底事之不成이리  
오 然則 國債之報償還이 必有其期오 國權之回復도 計日可待  
이오며 竊念土壤成山<sup>하</sup>고 細流就海라 <sup>하</sup>니 謂其合小聚大之義  
也라 我大韓人口가 二千萬中에 無用吸烟者 畧六百萬名可量而  
每日 每人費가 新貨 二錢五里 每日計가 十五萬元이오 一年計  
之則 五千四萬元이오 且以戶總言之라도 原四百萬戶에 每日  
每戶 食糧中 二匙米式 貯置<sup>하</sup>면 一朔 六十匙作一升到 價新貨  
十錢 一年計 一元二十錢 總戶合計 四百八十萬元이오 且以飲  
酒者로 言之라도 畧三百萬名可量인 즉 每人 每日 酒用이 新  
貨 十錢인 즉 一日合 三十萬元 一年合 一億〇八百萬元인 則

總都合 一年觀컨디 一億六千四百八十萬元也라 此三件事은 不爲則已어니와 爲之則 非不能也니 若使同胞로 合心強作하야 做過一年則 內有合資之實하고 外有輸出之益하리니 然則 國債一千三百萬元償還은 綽綽有餘地오 至若鐵道 等 土地讓與權도 次第 可推하깃습기 生亦國民之一數 故로 提此薊薨之說하오니 勿以人廢言하시고 揭諸報上하야 使全國同胞로 各自留神하야 一以償國債하고 一以復國權을 千萬千萬 仁港龍洞 朴三洪.

### 1907년 3월 9일, 인천항 용동의 박삼홍이 보낸 글, 1면 5단, 독자란

나는 본래 초야의 미련한 사람으로 건문이 넓지 못하니 어찌 더불어 시무(時務)를 논할만 하리오만은 사람은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없고 조금이라도 이성(彝性)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들 애국의 열성이 없으리오. 대강 보니 연래의 시사(時事)가 시기를 놓치고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래니 근래 신문을 보니 대구 서상돈 씨가 국채보상하는 일로 단연동맹회(斷烟同盟會)를 발기하여 전국 동포로 하여금 뜨거운 피를 요동치게 하여 여항의 부녀자와 노동하는 지아비까지도 기꺼이 화답하여 입회하고 기부함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 인천은 연초를 팔기 어려우니 중심(衆心)의 단합을 이로써 알 수 있으며 옛말에 중심(衆心)이 성(城)을 이룬다 하니 돌아보건대 우리 2천만 동포가 이와 같이 단결하면 어찌 일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근심하리오. 그런즉 국채를 보상함이 반드시 그 기약이 있음이요 국권을 회복하는 것도 날을 세며 기다릴 수 있으며 삼가 생각건대 토양이 산을 이루고 세류가 바다에 이른다 하니 합소취대(合小聚大)의 뜻을 이룸이라. 우리 대한의 인구가 2천만 중에 흡연하지 않는 자가 약 6백만명 가량인데

매일 매인(每人)의 비용이 신화(新貨) 2전 5리 매일을 계산하면 15만원이요 1년을 계산하면 5천 4만원이요, 또 호(戶)로 합하여 말하더라도 원래 4백만 호에 매일 매호(每戶) 식량 중 2시미(匙米)<sup>78)</sup>씩 저축하면 한달에 60술가락에 한 되를 만듬에 가격이 신화 10전 1년을 계산하면 1원 20전 모든 호(戶)를 합하면 4백 80만원이요, 또 음주(飲酒)로 말하더라도 약 3백만명 가량인즉 매인(每人)이 매일 마시는 술이 신화 10전인 즉 하루를 합하면 30만원 1년을 합하면 1억 8백만원인 즉 1년치를 모두 합해보면 1억 6천 4백 8십만원이라. 이 세 건의 일은 당장 그만둘 수 없거니와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 만일 동포로 하여금 합심해서 반드시 하게 하여 1년이 지나면 안으로는 합자(合資)의 결실이 있고 밖으로는 수출(輸出)의 이익이 있으리니 국채 1천 3백만원을 갚은 것은 작작(綽綽)이 여유가 있고 철도 등 토지 양여권(讓與權)에 이르러서도 차례(次第) 미룰 수 있으니 나 역시 국민의 하나로 비천한 사람이나 감히 말씀을 올리니 비천한 사람의 말이라 폐하지 마시고 모두 보고를 올려 전국 동포로 하여금 각자 조심하게 해서 국채를 보상하고 국권을 회복하여 천만 천만(千萬千萬). 인항(仁港) 용동(龍洞) 박삼흥.

### 1907년 3월 13일, 文明錄, 3면 1단, 광고

前仁川監理 徐相漢 自六年七月至今年八月條 三十五錢.

### 1907년 3월 13일, 문명록, 3면 1단, 광고

전 인천감리 서상한 6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35전.

---

78) 한 끼에 한 수저씩 쌀을 저축한다는 뜻.



**1907년 3월 13일, 入札廣告, 3면 2단, 광고79)**

仁川港私立小學校四十間單層집을 本港牛角洞에 建築할 터이니 此에 志願者는 本港面議所에 來호야 該圖形을 持去호고 來三月二十日下午一時에 入札함 入札保證金百分二十이오 開札은 全時에 卽開함 仁川港栗木洞面議所內 專擔體約者 鄭在洪.

**1907년 3월 13일, 입찰광고, 3면 2단, 광고**

인천항사립소학교 40칸 단층집을 본항 우각동(牛角洞)에 건축할 터인데 이에 지원자는 본항 면의소(面議所)에 와서 그 도형을 가지고 3월 20일 오후 1시에 와서 입찰함. 입찰 보증금 100분(分) 20이오 개찰(開札)은 동시에 즉개(卽開)함. 인천항 울목동 면의소내 전담체약자(專擔體約者) 정재홍.

**1907년 3월 13일, 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 3면 5단, 광고**

金然鶴 三圓 尹晶錫 十圓 安錫元 二圓 …… 仁川官立日語學校 義捐金 校長 金潤晶 二圓 教師 岩崎厚太郎 西村秀吉 各一圓 敎官 李根浩 崔鼎夏 徐丙協 各五十錢 三年級學徒 張道淳 李喜台 斐斗星 金相勳 皮敎德 各二十五錢 黃文周 二十四錢 崔震夏 廿一錢 金奎祥 盧鍵彬 各二十錢 李春長 李圭容 李元玉 各十錢 崔英敏 崔星奎 尹秉斗 各五錢 二年級學徒 韓稷 一圓 安永遠 廿五錢 鄭天玉 金錫根 李種承 李台善 李相高 鄭泰國 各廿錢 金泰鎔 林景烈 李萬實 李仁用 鄭泰夏 崔光潤 各十錢 李明浩 康福男 李廷慶 蔡麟 各五錢 一年級學徒 李熙善 李瑆

79) 入札廣告에 관한 광고는 1907년 3월 13일 외에도 1907년 3월 14일 1회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金永仁 各五十錢 金士雄 李聖範 金良根 尹興九 申永洙 各二十錢 崔秉昊 金善學 沈能榮 鄭禮卿 玄極 李謹英 金東夔 金先奉 金昌世 柳福壽 金三哲 金二東 朱基南 金命出 張基瓚 鄭泰善 張吉龍 安鍾璇 各十錢 以上合 金 十六圓.

### 1907년 3월 13일, 재일본 단지유학생 학자의연, 3면 5단, 광고

김연학 3환 윤정석 10환 안석원 2환 ..... 인천관립일어학교 의연금 교장 김윤정 2환 교사 암기후태랑(岩崎厚太郎) 서촌수길(西村秀吉) 각 1원 교관 이근호 최정하 서병협 각 50전 3년 급학도 장도순 이희태 비두성 김상훈 피교덕 각 25전 황문주 24전 최진하 21전 김규상 노건빈 각 20전 이춘장 이규용 이원옥 각 10전 최영민 최성규 윤병두 각 5전 2년급 학도한직 1원 안영원 25전 정천옥 김석근 이종승 이태선 이상설 정태국 각 20전 김태용 임경렬 이만실 이인용 정태하 최광윤 각 10전 이명호 강복남 이연경 채린 각 5전 1년 급학도 이희선 이진 김영인 각 50전 김사웅 이성범 김양근 윤흥구 신영수 각 20전 최병호 김선학 심능영 정예경 현극 이근영 김동기 김선봉 김창세 유복수 김삼철 김이동 주기남 김명출 장기찬 정태선 장길용 안중선 각 10전 이상 합 금 16환.

### 1907년 3월 14일, 夫人의 愛國誠, 2면 5단, 기사

仁港耶蘇敎中夫人들이 可賀할 事가 有하니 烟艸라 하는 거슨 夫人이 本是喫하는 者ㅣ 小忽 則 斷烟하얏다 하고 每朔 二十錢式 出捐함이 不美라 하야 每人每時에 糧米中에 一匕式을 每朔聚合하면 烟價에 優過하고 食口數되로 一匕式을 計除할 時에 祝願하기를 此愛國米를 收合하야 國債를 報償하고 國權

을 回復호야 주읍쇼서 耶蘇敎名號로 每日誠祝호니 此會가 勝  
於斷烟會오 會員이 已至五百餘名인디 會名은 掬米積誠會오  
收米委員 二人이 每週日에 收合호며 何許婦人은 或 自親傳호  
며 入會호는 婦人이 日加時增호다더라.

### 1907년 3월 14일, 부인의 애국성, 2면 5단, 기사

인천항 야소교(耶蘇敎) 중 부인들이 축하할 일이 있으니 연  
초(烟艸)라 하는 것은 부인이 본시 피우는 자가 적은 즉 단  
연(斷烟)하였다 하고 매삭(每朔) 20전씩 출연(出捐)함이 아  
름답지 않다고 하여 매인매시(每人每時)에 곡식 중 한 수저  
씩 매삭(每朔) 취합하면 담배 가격에 훨씬 넘고 식구 수대로  
한 수저씩 계산하여 뽕 때 축원하기를 이 애국미(愛國米)를  
수합하여 국채를 보상하고 국권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야소  
교(耶蘇敎) 이름으로 매일 정성스럽게 축원하니 이 모임이  
단연회(斷烟會)보다 낮고 회원이 이미 5백여 명에 이르는데  
회명(會名)은 국미적성회(掬米積誠會)요 쌀을 거두는 위원 2  
명이 매주일에 수합하며 어떤 부인은 혹 스스로 직접 전하며  
입회라는 부인이 매일 증가한다더라.

### 1907년 3월 14일, 愛友代償報價, 2면 6단, 기사

仁川港大韓自強支會長 鄭在洪氏가 前監理 徐相濩氏로 既往親  
分이 有호더니 徐氏가 仁川監理在任時에 本新聞價를 淸完치  
아니호얏심으로 該府廣告에 徐氏의 姓名이 連出함을 見호고  
徐氏의 名譽가 損傷호다 호야 該新聞價를 自己가 擔出호얏시  
니 邇來에 自己新聞價도 尠不來償호는 人이 多호디 鄭氏는  
親友의 名譽를 爲호야 他人의 新聞價를 代償호니 鄭氏에 義  
心은 참 可賀호 事이다라.

**1907년 3월 14일, 친한 친구가 신문 값을 대신 갚아준다, 2면 6단, 기사**

인천항 대한자강지회장 정재홍 씨가 전 감리 서상집 씨로 기왕(既往) 친분이 있더니 서씨가 인천감리 재임시에 본 신문 값을 청완(淸完)치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府) 광고에 서 씨의 성명이 연달아 나옴을 보고 서 씨의 명예가 손상된다 하여 그 신문값을 자기가 책임지고 내었으니 근래에 자기 신문 값도 달려와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씨는 친구의 명예를 위하여 타인의 신문 값을 대신 갚아주니 정씨의 의심(義心)은 참 칭찬할 일이다.

**1907년 3월 14일, 文明錄, 3면 2단, 광고**

金永來氏 一圓四十錢 太和醬院 一圓七十五錢 李協辦 一圓五錢 尹昶錫氏 一圓四十錢 白允和氏 一圓四十錢 羅在恒氏 二환 七十八錢 金元榮氏 四환 三十二錢 崔文鉉氏 七환 六十八錢 金瑞圭氏 七환 八十六錢 李承哲氏 二환 七十八錢 前仁川監理 徐相濩 自六年七月至全年八月條三十五錢.

**1907년 3월 14일, 문명록, 3면 2단, 광고**

김영래 씨 1환 40전 태화장원 1환 75전 이협관 1환 5전 윤창석 씨 1환 40전 백윤희 씨 1환 40전 나재항 씨 3환 78전 김원영 씨 4환 32전 최문현 씨 7환 68전 김서규 씨 7환 86전 이승철 씨 2환 78전 전 인천감리 서상집 6년 7월부터 동년 8월조까지 35전.

**1907년 3월 14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3단, 광고**

高濟完 三환 李基昌 一환 沈正駿 三十錢 朴治勳 一환 孫萬成

廿錢 崔錫祐 三환 崔在澤 二환 車德賢 五十錢 權完奎 四十錢  
 李昌善 二十錢 仁川濟寧學校 徐丙斗 徐廷冕 徐丙薰 金榮洙  
 安成淳 林昌鉉 元容喆 朴泰元 李北星 沈宜根 金相勳 沈宜哲  
 李甲成 朴仁興 沈大錫 崔英洙 姜斗星 林冠玉 趙學奉 各六十  
 錢 崔昌植 朴閏興 成昌福 朴順興 各五十錢 成煥鏞 金哲洙 趙  
 東赫 各四十錢 崔七龍 李相俊 咸昌成 各三十錢 金奉吉 廿五  
 錢 金今錫 金福仁 朴上龍 崔景玉 方大熙 崔德奉 金今用 李在  
 珪 各二十錢 鄭壽童 金其星 梁貴男 金仁吉 李三鳳 金弘成 尹  
 成得 沈南極 崔五將 鄭命釗 各二十錢 朴河振 徐福成 金松雲  
 各十五錢 崔順成 十三錢 朴壽福 周命用 姜恩男 姜奇男 李萬  
 元 孔富吉 金興石 羅聖突 朴元植 朴善明 朴仁明 周喜龍 金陳  
 甲 梁元伊 各十錢 李甲丕 任興洙 金良雲 各二十錢 南慶俊 十  
 五錢 李一男 七錢 李又男 五錢 徐廷璨 六十錢 崔泰吉 朴壽童  
 各十錢 本校內夜學演究會義捐金 四환 合 二十七환 .....

### 1907년 3월 14일, 국채보상 의무금 모아 보낸 사람과 액수, 3면 3단, 광고

고제완 3환 이기창 1환 심정준 30전 박치훈 1환 손만성 20전  
 최석호 3환 최재택 2환 차덕현 50전 권완규 40전 이창선 20전  
 인천제녕학교 서병두 서정면 서병훈 김영수 안성순 임창현 원  
 용철 박태원 이배성 심의근 김상훈 심의철 이갑성 박인홍 심대  
 석 최영수 강두성 임관옥 조학봉 각 60전 최창식 박윤홍 성창  
 복 박순홍 각 50전 성환용 김철수 조동혁 각 40전 최철용 이  
 상준 함창성 각 30전 김봉길 25전 김금석 김복인 박상용 최경  
 옥 방대희 최덕봉 김금용 이재규 각 20전 정수동 김기성 양귀  
 남 김인길 이삼봉 김홍성 윤성득 심남극 최오장 정명희 각 20  
 전 박하진 서복성 김송운 각 15전 최순성 13전 박수복 주명용

강은남 강기남 이만원 공부길 김홍석 나성돌 박원식 박선명 박인명 주희룡 김진갑 양원이 각 10전 이갑돌 임흥수 김양운 각 20전 남경준 15전 이일남 7전 이우남 5전 서정찬 60전 최태길 박수동 각 10전 본교내야학연구회의연금 4환 합 27환 ……

**1907년 3월 15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3단, 광고**

葛於里 李鶴奎 金興玉 各二圓 金春善 金汝善 李景善 韓健源 林準錫 權允寬 李三汝 李春植 韓辰五 韓辰赫 各一圓 …… 仁川港老人契 李穉綱 六圓 韓肯鎬 二圓 李基東 彭翰周 李永均 金鍾岳 合一圓 林昌根 姜華錫 朴明珪 李用錫 林昌茂 李學仁 皮熙術 徐相潤 安浩然 崔禹政 金昌植 李時永 鄭春一 朱明濬 沈能賢 朴希洙 張東昱 李演興 盧謙洙 李光祥 各六十錢 妓 彩姬 暎月 月出 明玉線城紅 各六十錢 合 金二十七圓 金額을本社에 收入지 아니하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3월 15일, 國債보상 의무금 모아 보낸 사람과 액수, 3면 3단, 광고**

갈어리 이학규 김홍옥 각 2환 김춘선 김여선 이경선 한건원 임준석 권윤관 이삼여 이춘식 한진오 한진혁 각1환 …… 인천 향노인계 이치강 6환 한금호 2환 이기동 팽한주 이영균 김종악 합1환 임창근 강화석 박명규 이용석 임창무 이학인 피희술 서상윤 안호연 최우정 김창식 이시영 정춘일 주명준 심능현 박희수 장동옥 이연홍 노겸수 이광상 각 60전 기(妓) 채희 영월 월출 명옥 선성홍 각 60전 합 금27환 금액을 본사에 수입(收入)하지 아니하면 이름을 광고에 게재치 아니함.

### 1907년 3월 16일, 度訓仁府, 2면 3단, 기사

度支部에서 仁川府에 訓令하되 製鹽場基址를 業已派送部員하야 該基址內에 在ᄃᆞᆫ 田畝及家屋價를 出給ᄃᆞᆫ 際에 人民 等の 田土及家屋이 初無文蹟之可憑하야 尙此遷就者인 바 該基址를 現方始役이기 訓令하니 到卽該額을 一從部員調査出給이되 或有頑拒弊어든 嚴行懲勵하야 毋至公役遲緩케 하라 하얏더라.

### 1907년 3월 16일, 탁지부에서 인천부에 훈령하다, 2면 3단, 기사

탁지부에서 인천부에 훈령(訓令)하되 제염장(製鹽場)의 기초 다지기를 이미 부원(部員)을 파송하여 시작하야 그 기지(基址) 내에 있는 전답과 가옥의 값을 내어준 사이에 인민 등의 전토(田土)와 가옥이 전거할 만한 문서나 장부가 애초에 없어서 지체되는 바 그 기지(基址)를 지금 일을 시작하기를 훈령하니 그 액수를 한 부원이 따라가 조사하여 돈을 내어주되 혹 완고하게 막거든 엄히 징계하여 공역(公役)을 지연시키지 말게 하라 하얏더라.

### 1907년 3월 16일,公私競址, 3면 2단, 기사

仁川港에 居ᄃᆞᆫ 有志人士들이 發起하야 私立小學校를 建築ᄃᆞᆫ 地段을 三千四百五十圓에 買得ᄃᆞᆫ 다했던 學部에서는 公立學校를 設立하랴고 經費折半은 民間에 負擔ᄃᆞᆫ 意로 本府尹과 交渉하되 民不聽從하고 私立으로 設建하랴 ᄃᆞᆫ 際에 日本理事廳으로 文字가 來到하얏던 其文字인 則 學部에서 統監府에 囑托하야 該府로서 日本理事廳에 來到ᄃᆞᆫ 거인디 其辭意則該基址를 勿爲見奪하랴거든 公立으로 認定하랴 ᄃᆞᆫ 지라 本府尹이 該事를 人民이 相議報來하랴 ᄃᆞᆫ 意로 面長 崔鎭翰氏가 發文하야 各洞

代表者와 各社會代表者가 會同하야 學校贊成長 鄭在洪氏가 會集大旨를 公佈後에 爛商協議하야 期於하 私立으로 建築하깃다고 議論이 一致되얏는디 其中에 金貞坤氏가 聲言하되 我는 勞働者의 代表인 則 每日 募軍 百名式을 赴役케 하되 雇價는 自擔補助하깃다고 廣仰하고 現今 始役하는 中이라더라.

1907년 3월 16일, 공립과 사립이 터를 두고 다투다, 3면 2단, 기사

인천항에 거하는 뜻있는 인사들이 발기하여 사립소학교를 건축할 지단(地段)을 3천 4백 5십환에 사들였는데 학부(學部)에서는 공립학교를 설립하려고 경비의 절반은 민간에 부담할 뜻으로 본 부윤과 교섭하되 민(民)은 따를지 않고 사립을 세우려고 할 제에 일본 이사청(理事廳)으로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인 즉 학부에서 통감부에 촉탁하여 그 부(府)로서 일본 이사청에 온 것인데 그 문자의 뜻인 즉 그 기지(基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공립으로 인정(認定)하라 한지라. 본 부윤이 그 일을 인민이 서로 의논하고 답을 달라 함으로 면장(面長) 최진한씨가 발문(發文)하여 각 동대표와 각 사회 대표자가 회동하여 학교 찬성장(贊成長) 정재홍씨가 모임의 큰 뜻을 공포한 후에 난상토론하여 기어 이 사립으로 건축하겠다고 의론이 일치되었는데 그 중에 김정곤씨가 성언(聲言)하되 나는 노동자의 대표인 즉 매일 모군(募軍) 백 명씩을 부역(赴役)하게 하되 품삯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광양(廣仰)하고 현재 일을 시작하는 중이라더라.

1907년 3월 16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4단, 광고

朔寧郡 李元興 林薰植 金允敬 合 五十錢 鄭鴻翔 李基貞 朴景武



李鳳翼 各二十五錢 合 二圓五十錢 江華北門外唐州洞 南宮焯 一圓 柳在九 妻 金氏 子 山根 並一圓 柳世鉉 柳仁鉉 黃鍾英 柳在樹 柳順烈 柳喜烈 柳致官 申泰韻 柳在德 柳在根 柳在業 柳成烈 柳順根 柳在山 柳在訓 柳在嫻 柳昌烈 柳道烈 柳致日 柳連俊 柳行烈 李漢吉 柳春甫 柳德烈 柳晚烈 柳己先 金致順 柳在奎 柳珠烈 金龍雲 柳信烈 金致連 朴允根 金敬玉 金一弘 金永西 金洛賢 金銀瑞 金仁福 金文交 金文實 金花瑞 金仕亨 金德祚 金景實 方性鎭 朴俊守 具秉書 高石亨 高性元 柳在欽 朴仕成 柳性基 朴允才 朴連守 金秉俊 金演周 朴銀成 朴圭三 鄭性澤 金伯仁 金銀夢 金致相 合計 新貨 六圓六十五錢 …… 金額을 本社에 收入지 아니하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3월 16일, 국채보상 의무금 모아 보낸 사람과 액수,  
3면 4단, 광고

삭녕군 이원홍 임훈식 김윤경 합 50전 정홍익 이기정 박경무 이봉익 각 25전 합 2환 50전 강화북문의 당주동 남궁작 1환 유재구 처 김씨 자 산근 합1환 유세현 유인현 황종협 유재수 유순렬 유희열 유치관 신태운 유재덕 유재근 유재업 유성렬 유순근 유재산 유재훈 유재혁 유창렬 유도렬 유치일 유연준 유항렬 이한길 유춘보 유덕렬 유만렬 유기선 김치순 유재규 유주열 김용운 류신렬 김치연 박윤근 김경옥 김일홍 김영서 김낙현 김은서 김인복 김문교 김문실 김화서 김사형 김덕조 김경실 방성진 박준수 구병서 고석형 고성원 유재흠 박사성 유성기 박윤재 박연수 김병준 김연주 박은성 박규삼 정성택 김백인 김은몽 김치상 합계 신화 6환 65전 …… 금액을 본사에 수입(收入)지 아니하면 이름을 광고에 게재치 아니함.

1907년 3월 18일, 支會視察, 2면 4단, 기사

本社長 南宮薰氏가 大韓自強支會視察次로 昨日에 江華로 發往하여 二三日間 視察하고 卽時 回還한다더라.

1907년 3월 18일, 지회시찰, 2면 4단, 기사

본 사장 남궁훈 씨가 대한자강지회 시찰차로 어제 강화로 출발하여 2~3일간 시찰하고 즉시 돌아온다 하더라.

1907년 3월 18일, 本校新學期에 學員을 更히 募集호오니 入學에 有志人員은, 3면 3단, 광고<sup>80)</sup>

本校新學期에 學員을 更히 募集호오니 入學에 有志人員은 (陽四月十日陰二月二十八日)內로 稟請狀을 本校로 呈遞 納事 年齡은 自十二歲以上 官立仁川日語學校.

1907년 3월 18일, 본교 신학기에 학생을 다시 모집하니 입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3면 3단, 광고

本교 신학기에 학원(學員)을 다시 모집하니 입학에 관심있는 인원(人員)은 양력 4월 10일 음력 2월 28일 안으로 품청장(稟請狀)을 본교로 제출. 연령은 12세 이상부터. 관립인천일어학교.<sup>81)</sup>

1907년 3월 21일, 函請示明, 2면 4단, 기사

農商工部商務局에서 仁川港 協同郵船會社에 公函호되 貴社設

---

80) 관립인천일어학교 학생 모집에 관한 광고는 1907년 3월 18일 외에도 1907년 3월 19일, 1907년 3월 20일 모두 2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81) 1895년 6월 인천에 설립된 관립인천일어학교는 한성외국어학교(漢城外國語學校)의 지교로 설립된 공립학교였다.

始以來로 漁船及航船의 購入 或 賣却과 雇入及解雇各船의 年月日과 船號와 總噸數와 登簿噸數를 時急調査事가 有하야 茲以函請하니 區別示明하라 하얏더라.

**1907년 3월 21일, 공문을 보내서 널리 알리라고 함, 2면 4단, 기사**

농상공부상무국에서 인천항 협동우선회사에 공문서를 보내되 귀사가 설립된 이래로 기선과 항선의 구입 혹 매각과 각 배의 고용과 해고의 연 월 일과 선호(船號)와 총 톤수와 등록한 톤수를 시급히 조사할 일이 있어 공문서를 보내니 구별하여 널리 알리라 하얏더라.

**1907년 3월 23일, 特旨貸罪, 3면 2단, 기사**

光武三年度에 仁川港 居하느 金昌根爲名者가 該港의 民有地段을 外國人의게 暗相賣買타가 綻露되야 該府裁判所에서 審査後에 處絞宣告하디 하야 于今 牢囚하얏더니 皇帝陛下게옵서 不無斟酌者存焉이니 特貸一縷하라 하옵섯다더라.

**1907년 3월 23일, 특별히 죄를 용서하라 조서를 내리심, 3면 2단, 기사**

광무 3년에 인천항에 거주하는 김창근이라는 사람이 그 항의 민간 소유의 지단(地段)을 외국인에게 얼굴도 보지 않고 매매하다가 탄로되어 그 부(府) 재판소에서 심사 후에 교수형 선고까지 하여 지금 가두었는데 황제 폐하께서 헤아리셔서 특별히 용서하여 목숨을 살려주라 하셧다더라.

**1907년 3월 23일, 盜稅面長, 3면 2단, 기사**

本月七日에 富平郡石川面長 趙熙能이가 結錢, 戶稅, 均役稅 幾百元을 收捧하야 가지고 逃走한지라 該郡에서 官差를 發送하야 該漢에 家産什物을 先自洞中으로 執留하랴 하고 仁川警務署에서 巡檢을 派送하야 方在調探中이라더라.

**1907년 3월 23일, 세금을 훔친 면장, 3면 2단, 기사**

본 월 7일에 부평군 석천면장 조희능이 결전, 호세, 군역세 몇 백원을 징수하여 가지고 도주한지라 그 군(郡)에서 관차(官差)를 발송하여 그 놈의 재산과 살림 도구를 먼저 마을 가운데로 모으라 하고 인천 경무서에서 순검을 파송하여 살살이 찾는 중이라더라.

**1907년 3월 25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侍從武官長 趙東潤 侍從武官 魚潭 命視察日本國軍務事務 ..... △ 任陰城郡守敍奏任官四等 仁川府主事 南麟熙 ..... 以上三月二十日.

**1907년 3월 25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시종무관장 조동윤 시종무관 어담 명시찰일본국군무사무 ..... △임명 음성군수 부여 주임관 4등 인천부주사 남인희 ..... 이 상 3월 20일.

**1907년 3월 27일, 勅令第十五號, 1면 1단, 기사**

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中添入件 光年十年勅令第四十五號 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第一條 官立仁川日語學校次에 左開十四字를 添入함이라 官立平壤日語學校 一人 四人 一人 光武十一年三月二十二日.

1907년 3월 27일, 칙령 제15호, 1면 1단, 기사

학부직할학교직원정원령 중 첨입건 광무 10년 칙령 제45호 학부직할학교직원정원령 제1조 관립인천일어학교차에 다음 14자(字)를 첨입함이라. 관립평양일어학교 1인 4인 1인 광무 11년 3월 22일.

1907년 3월 27일, 勅令第十五號, 1면 1단, 기사

學部直轄學校及公立學校官制中添入件 光武十年勅令第四十號 學部直轄學校及公立學校官制第一條 官立仁川日語學校次에 (官立平壤日語學校)八字를 添入함이라 光武十一年三月二十二日.

1907년 3월 27일, 칙령 제15호, 1면 1단, 기사

학부직할학교 및 공립학교관제 중 첨입 건 광무 10년 칙령 제40호 학부직할학교 및 공립학교관제 제1조 관립인천일어학교 차에 관립평양일어학교 8자(字)를 첨입함이라. 광무 11년 3월 22일.

1907년 3월 27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5단, 광고

西道義成會金鼎熙門中 三百圓 開城居免山每場行商客百人總代 秦聖濂 二十圓 …… 金浦黔丹面高棧里 李潤夏 一圓 金商實 李健榮 各三圓 李台文 趙鍾成 二圓五十錢 李容憲 一圓 徐寬甫 二圓 朴聖云 李成實 李德奉 金春心 李文習 李在憲 李文奎 各五十錢 李聖兆 蔡明才 李致化 裴善京 李奉云 各三十錢 韓弘植 金士俊 蔡致心 朴允化 李成甫 李汝化 趙京允 各二十錢 李京順 李春元 各十錢 李圭明 二圓五十錢 朴順巾 盧文淑 各一圓 趙鍾迷 趙福增 李鍾敏 尹在熙 任百賢 各五十錢 金好石 趙

鍾萬 趙鍾范 趙順增 朴允坤 各四十錢 趙鍾勳 趙光增 趙濟增  
張錫永各卅錢 趙鍾辰 趙伯增 趙慶增 趙鵠增 申聖凡 蔡允默  
金善京 李應順 李連甫 朴致守 盧秉和 金聖奉 廉用西 各二十  
錢 李圭元 李忠鉉 各二圓 李光榮 李基榮 李京先 各一圓 李守  
榮 六十錢 李基和 李圭億 李德咸 李淳榮 申貞均 李圭恒 李用  
七各五十錢 李圭台 四十一錢五里 李高順 孔炳基 李鍾聲 各四  
十錢 李俊鉉 李順元 各三十錢 李京玉 鄭春日 李京云 李京七  
趙鍾守 李昌根 李建守 柳官兼 李成三 李用石 李致弘 李圭秉  
李京三 各二十錢 李千釗 李聖九 各十錢 合 五十圓五十一錢五  
里 ……

1907년 3월 27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 3면 5  
단, 광고

서도의성회김정희문중 300환 개성에 거주하는 토산매장행상  
객(兔山每場行商客) 백인총대(百人總代) 진성렴 20환 ……  
김포 검단면 고잔리 이윤하 1환 김상실 이견영 각 3환 이태  
문 조종성 2환 50전 이용현 1환 서관보 2환 박성운 이성실  
이덕봉 김춘심 이문습 이재현 이문규 각 50전 이성조 채명재  
이치화 배선경 이봉운 각 30전 한홍식 김사준 채치심 박윤화  
이성보 이여화 조경운 각 20전 이경순 이춘원 각 10전 이규  
명 2환 50전 박순건 노문숙 각 1환 조종미 조복증 이종민 윤  
재희 임백현 각 50전 김호석 조종만 조종범 조순증 박윤곤  
각 40전 조종훈 조광증 조제증 장석영 각 30전 조종신 조백  
증 조경증 조휴증 신성범 채윤묵 김선경 이용순 이연보 박치  
수 노병화 김성봉 염용서 각 20전 이규원 이충현 각 2환 이  
광영 이기영 이경선 각 1환 이수영 60전 이기화 이규억 이덕  
함 이순영 신정균 이규항 이용칠 각 50전 이규태 41전 5리

이고순 공병기 이종성 각 40전 이준현 이순원 각 30전 이경  
 옥 정춘일 이경운 이경칠 조종수 이창근 이건수 유관검 이성  
 삼 이용석 이치홍 이규병 이경삼 각 20전 이천쇠 이성구 각  
 10전 합 50환 51전 5리 .....

### 1907년 3월 28일, 株式會社漢城銀行, 4면 6단, 광고<sup>82)</sup>

[電話六四六番] 皇城鍾路 支店所在地水原 資本金拾五萬圓 積  
 立金五千五百圓 一 諸任金 定期, 不定期가 有흔디 任主에게  
 計撥호는 利息이 隨各差異호며 他人金額의 秘密, 安全, 融通,  
 貯蓄에 極圖便利호 一 諸貸金及手形割引 [手形典入] 確實호  
 典物을 典執호고 借主에게 貸給호 但 諸利息及割引料는 日數  
 로 計算호 一 爲替送金 [普通換及電報換] 其處所는 左開호  
 水原, 仁川, 群山, 木浦, 釜山, 馬山浦, 大邱, 開城, 平壤, 鎮南  
 浦元山, 咸興, 城津, 全州, 忠州, 晉州, 光州, 鏡城, 海州, 日本  
 東京, 大坂 其他 一般 銀行의 業務를 確實營行호.

### 1907년 3월 28일, 주식회사 한성은행, 4면 6단, 광고

[전화 646번] 황성종로(皇城鐘路) 지점이 있는 곳은 수원,  
 자본금 15만원, 적립금 5천 5백원 - 돈을 맡기는 데에는 정  
 기(定期), 부정기(不定期)가 있으므로 돈을 맡기는 사람마다  
 계산되는 이자가 각각 다르며 타인에게 금액의 비밀, 안전,  
 융통, 저축에 매우 편리함 - 대금(貸金)과 어음할인, 확실한  
 담보를 잡고 대출자에게 빌려줌. 단 모든 이자와 할인료는 일  
 수(日數)로 계산함 - 송금환[보통환과 전보환] 그 처소는 좌

82) 주식회사한성은행에 광고는 이전 광고에 비해 적립금의 변화가 있으며 모든 내용  
 은 같음. 주식회사한성은행에 관한 광고는 1907년 3월 28일 외에도 1907년 3월  
 29일 1회만 같은 광고가 게재되었으며 다시 이전 광고와 동일하다.

개(坐開) 함. 수원,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포, 대구, 개성, 평양, 진남포원산, 함흥, 성진, 전주, 충주, 진주, 광주, 경성(鏡城), 해주, 일본동경, 대판(大坂). 기타 일반 은행의 업무를 확실히 영업함.

#### 1907년 3월 29일, 簿記卒業, 2면 6단, 기사

仁川港米商會社の 勸設한 學校에서 日前에 簿記卒業式을 設行한데 校長代辦 金弘潤氏가 該社員과 校中學員을 對하여 說明한되 國債報償前에는 一切 斷烟한자고 同盟한다더라.

#### 1907년 3월 29일, 부기 졸업, 2면 6단, 기사

인천항 미상회사의 창설한 학교에서 일전에 부기졸업식을 설행(設行)하였는데 교장대변(代辦) 김홍윤씨가 사원과 학교의 학원을 대하여 설명하되 국채보상 전에는 일체 단연하자고 동맹하였다더라.

#### 1907년 3월 29일, 普校大振, 2면 6단, 기사

伊來教育家로 著名한 李東暉氏의 熱誠은 人所欽仰인 바 江華郡 普昌學校의 設立과 進興이 專히 該氏의 事業인디 去益擴張한야 該校學徒가 數百名에 達한야 小學 高等 中學 三課로 教授한디 學徒의 成績이 頗히 良好하고 該支校가 八九處에 達하니 該郡에 文明進步도 可賀할 事이어니와 將來 有用의 人材를 多數 養成한갓다더라.

#### 1907년 3월 29일, 보창학교의 발전, 2면 6단, 기사

이래(伊來) 교육가로 저명한 이동휘<sup>83)</sup> 씨의 열성은 사람들이



공경하는 바 강화군 보창학교<sup>84)</sup>의 설립과 진흥이 오로지 그의 사업인데 갈수록 더욱 확장하여 그 학교 학도가 수백 명에 달하여 소학 고등 중학 세 과로 수업하는데 학도의 성적이 자못 양호하고 지교(支校)가 8, 9처에 달하니 그 군에 문명진보도 축하할 일이거니와 장래 유용한 인재를 다수 양성 하겠다더라.

### 1907년 3월 30일, 仁校卒業式, 2면 6단, 기사

仁川官立日語學校에서 第七回學徒의 卒業證書授與式을 今日 下午一時에 舉行한다더라.

### 1907년 3월 30일, 인천관립일어학교 졸업식, 2면 6단, 기사

인천관립일어학교에서 제7회 학도의 졸업증서수여식을 오늘 오후 1시에 거행한다더라.

---

83) 이동휘(李東輝, 1873~1935)는 한말~일제강점기 군인, 교육구국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다. 대한제국의 사관양성소를 졸업하고 입관하여 1903년 강화도진위대장으로 부임하여 강화 군민의 존경을 받았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침략이 심화되자 1905년 3월 군직을 사임하고 민족교육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는 1903년 11월에 강화도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인 합일학교를 설립했고, 1904년 대한협동회에 참여하여 일제의 토지침탈에 반대하였다. 1905년에는 윤명삼, 유경근 등과 보창학교(普昌學校)를 설립하여 교육 운동에 헌신하였다. 1907년 일제에 의한 정미칠조약 강제 체결과 군대 해산이 이어지자 강화도 진위대의 김동수(金東秀), 연기우(延起羽) 등과 군민들이 봉기했는데, 이때 봉기의 배후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신민회의 지도자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고려공산당의 지도자 등의 민족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다가 시베리아에서 병사하였다.

84) 1904년 8월 이동휘(李東輝)는 강화에 육영학교(育英學校)를 설립하고, 자신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운영하였다. 1905년 5월에 이르러 육영학교를 보창학교(普昌學校)로 개명하는 한편, 강화도 내의 여러 곳에 70개의 보창학교 지교를 세웠으며, 타지에도 개성보창학교, 장단보창학교, 안악보창학교 같은 보창지교를 설립인가하고 이들 보창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각 지교에 배치하였다.

## 1907년 4월

1907년 4월 1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4단, 광고  
西署社洞三十一統五戶居 崔錫遠 崔英澤 各二圓 崔有澤 崔世澤 崔漢柱 各一圓 合 七圓 ..... 江華內可面鰲山普昌學校 韓丙烈 二十五錢 安秀東 十七錢五里 曹麟默 二圓 韓相雨 曹喜常 金容植 鄭瑜鉉 尹泮 南宮煉 安元燮 李連昌 各十錢 黃弼周 尹九儀 韓圭冕 韓圭縉 金壽昌 安大南 韓應男 尹德儀 安吉鳳 安奎燮 文鉉玉 崔德三 安東植 韓圭轍 金乙男 高吉돌 崔日萬 各七錢五里 韓東轍 安吉龍 曹昌甲 安五鳳 尹壽男 韓泰淳 金孝祖 安福成 安千龍 韓龍雲 田三龍 金丁龍 各五錢 安秉泰 一圓 以上合 六圓十錢.

## 1907년 4월 1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4단, 광고

서서사동(西署社洞) 31통 5호에 사는 최석원 최영택 각 2환 최유탉 최세택 최한주 각 1환 합 7환 ..... 강화 내가면 오산보창학교 한병렬 25전 안수동 17전 5리 조인묵 2환 한상우 조희상 김용식 정유현 윤반 남궁련 안원섭 이연창 각 10전 황필주 윤구의 한규면 한규진 김수창 안대남 한응남 윤덕의 안길봉 안규섭 문현옥 최덕삼 안동식 한규철 김을남 고길돌 최일만 각 7전 5리 한동철 안길룡 조창갑 안오봉 윤수남 한태순 김효조 안복성 안천용 한용운 전삼용 김정용 각 5전 안병태 1환 이상 합 6환 10전.

## 1907년 4월 5일, 吳倅善處, 2면 6단, 기사

江華郡守 吳相圭氏가 過歲次로 上京하야 辭職請願之說이 播

傳흥이 該郡父老 二十餘人이 願留次上京호얏더니 吳相圭氏가 父老를 招致호야 說明호기를 本郡守가 到任數朔에 惠功이 無호거늘 空擲旅費호면 民間에 貽害호 慮가 不無호 쏜더러 且 農務가 方殷호니 速速 下去호야 勿失農時호라고 四十圓을 劃給該人民호고 奪其訴狀호얏다더라.

#### 1907년 4월 5일, 오 군수의 선처, 2면 6단, 기사

강화군수 오상규 씨가 설을 쇠러 상경하여 사직을 청원한다는 말이 퍼져서 그 군 부로(父老) 20여 인이 머무르기를 청하러고 상경하였더니 오상규씨가 부로를 초치(招致)하여 설명하기를 본 군수가 도입한지 수개월에 혜공(惠功)이 없는데 헛되이 여비(旅費)를 버리면 민간에 해를 끼칠까 염려가 될 뿐더러 또 농무(農務)가 많으니 속히 내려가서 농사의 때를 잃지 말라 하고 40원을 그 인민에게 나누어 주고 그 소장(訴狀)을 빼앗았다더라.

#### 1907년 4월 5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3단, 광고

江華郡下道面德浦洞 柳箕養 二圓 柳奎養 五十錢 柳喜養 柳訓養 柳然養 各四十錢 柳邦養 柳國養 柳璇養 各二十錢 柳忠養 柳和養 柳舜養 各十錢 柳永養 各二十錢 柳淸養 柳秋養 各十錢 柳詳 柳善 各五十錢 柳曄 三十錢 柳謹 柳諫 各二十錢 柳讚 柳燮 各十錢 柳信 廿錢 柳宗根 柳信根 各二圓 柳忠根 一圓 柳洪根 柳貞根 柳大根 各五十錢 柳仁根 四十錢 呂 仲根 呂 春根 呂 萬根 各三十錢 呂 碩根 呂 永根 呂 龍根 呂 文根 呂 範根 呂 學根 呂 孟根 各二十錢 呂 賢根 十錢 呂 漢根 二十錢 呂 張珪 二圓 呂 永珪 六十錢 柳祥珪 呂 昌珪 呂 容珪

各五十錢 呂 鳳珪 呂 角珪 各卅錢 呂 邦珪 呂 桓珪 呂 賢珪  
 呂 元珪 各二十錢 呂 錫珪 十五錢 呂 啓秀 呂 享秀 各二十錢  
 李源植 二圓 李源極 李源相 李源河 李璟 各二十錢 姜弼榮 一  
 圓 姜世榮 姜俊榮 姜佑榮 各五十錢 姜達榮 十五錢 李起商 二  
 圓 李龍夏 李鎮建 各一圓 李鎮台 三十錢 李常哲 五十錢 李敦  
 敏 三十錢 李奇玄 廿錢 李建弘 李敬學 李順在 各十錢 李順瑞  
 五十錢 黃鍾萬 一圓 黃鍾協 十錢 黃時奎 三十錢 具然弘 具元  
 祖 具德祖 各十五錢 具學祖 具然昌 各十錢 具然宿 二十五錢  
 具時會 廿錢 具敏書 十錢 呂 炳彪 五十錢 呂 炳虎 呂 鼎九  
 各二十錢 呂 龍九 十錢 呂 鳳九 呂 命九 各二十錢 呂 基昌  
 十錢 姜芝馨 五十錢 姜善會 十錢 姜天會 廿錢 姜聖三 十錢  
 姜聖元 姜菊馨 各二十錢 南宮檀 五十錢 南宮敦 廿錢 趙鎔宇  
 五十錢 韓洪錫 盧鳳洙 各二十錢 沈明奎 呂 震永 各十錢 林順  
 七 五十錢 李賢七 呂 甲災 呂 漢悉 具聖俊 方壤 方道然 方聖  
 三 各廿錢 沈聖心 呂 順五 各十錢 呂 攻玉 十四錢五里 呂 文  
 道 五十錢 呂 永叔 十錢 柳億養 羅春成 各二十錢 以上各四十  
 三圓五十九錢五里 …… 金額을 本社에 收入지 아니하면 姓名  
 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4월 5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중 인원 및 액수, 3면 3  
 단, 광고

강화군 하도면 덕포동 류기양 2환 류규양 50전 류희양 류훈  
 양 류연양 각 40전 류방양 류국양 류선양 각 20전 류충양 류  
 화양 류순양 각 10전 류영양 각 20전 류청양 류추양 각 10  
 전 류상 류선 각 50전 류황 30전 류근 류간 각 20전 류찬  
 류섭 각 10전 류신 20전 류종근 류신근 각 2환 류충근 1환  
 류홍근 류정근 류대근 각 50전 류인근 40전 류중근 류춘근

류만근 각 30전 류석근 류영근 류용근 류문근 류범근 류학근  
 류맹근 각 20전 류현근 10전 류한근 20전 류장규 2환 류영  
 규 60전 류상규 류창규 류용규 각 50전 류봉규 류각규 각  
 30전 류방규 류환규 류현규 류원규 각 20전 류석규 15전 류  
 계수 류향수 각 20전 이원식 2환 이원극 이원상 이원하 이경  
 각 20전 강필영 1환 강세영 강준영 강우영 각 50전 강달영  
 15전 이기상 2환 이용하 이진건 각 1환 이진태 30전 이상철  
 50전 이교민 30전 이기현 20전 이진홍 이경학 이순재 각 10  
 전 이순서 50전 황종만 1환 황종협 10전 황시규 30전 구연  
 홍 구원조 구덕조 각 15전 구학조 구연창 각 10전 구연숙 25  
 전 구시회 20전 구민서 10전 류병표 50전 류병호 류정규 각  
 20전 류용규 10전 류봉규 류명규 각 20전 류기창 10전 강지  
 형 50전 강선회 10전 강철회 20전 강성삼 10전 강성원 강국  
 형 각 20전 남궁단 50전 남궁돈 20전 조용우 50전 한홍석  
 노봉수 각 20전 심명규 류진영 각 10전 임순철 50전 이현칠  
 류갑재 류한실 구성준 방양 방도연 방성삼 각 20전 심성심  
 류순오 각 10전 류공옥 14전 5리 류문도 50전 류영숙 10전  
 류억양 나춘성 각 20전 이상 각 43환 59전 5리 ..... 금액을  
 본사에 수입지 아니하면 성명을 광고에 게재치 아니함.

1907년 4월 5일, 陰二月旬夜 本人家에 賊黨이 放銃突入하야,  
 3면 6단, 광고<sup>85)</sup>

陰二月旬夜 本人家에 賊黨이 放銃突入하야 兩家農牛 二匹을  
 牽去永失터니 仁港總巡 金潤福氏가 與巡檢으로 捉囚賊漢而因

85) 잃어버린 소를 찾아 준 경찰에게 감사하는 광고는 1907년 4월 5일 외에도 1907년  
 4월 6일 1회에 걸쳐 나오며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其口招하야 揭榜水原府하며 并布新聞 故로 往覓失牛하고 該氏의 警察勤懇과 人民保護을 感謝하기로 廣告함 振威 金英基 告白.

1907년 4월 5일, 음력 2월 10일 본인 집에 도적의 무리가 총을 들고 갑자기 쳐들어와, 3면 6단, 광고

음력 2월 10일 본인 집에 도적의 무리가 총을 들고 갑자기 쳐들어와 두 집 농우(農牛) 두 필을 끌고 가서 잃었더니 인천항 총순(總巡) 김윤복씨가 순검(巡檢)과 도적놈들을 잡아 가두고 심문 조서를 수원부(水原府)에 방문을 내걸어 붙이고 더불어 신문에도 알리므로 잃어버린 소를 찾고 그 분의 경찰로서의 성실함과 인민 보호를 감사하기에 광고함. 진위(振威) 김영기 고백(광고).

1907년 4월 9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振威余方面東朔谷洞中 八圓 …… 江華書記廳 金基業等 五圓 …… 江華郡下道面如此洞 李泰榮 二十元 金在進 十六元 韓致官 六元 高尚中 五元 韓良洙 李昌日 李明元 李銖榮 李裕德 金昌順 趙錫玄 各四元 沈相圭 具鳳祖 李周榮 金命九 高玄明 各三元 李圭昌 金景植 李裕兼 朴錫玄 張昌順 鄭秀範 車德洙 車在用 李興石 劉長叔 李性儀 趙仁用 各二元 金有玄 崔一俊 各一元六十錢 高在貞 趙永洙 各一元二十錢 金石夫 權成用 金德洙 各一元 李相厚 姜興洙 金允實 金連三 車德三 李裕文 李卿文 金允明 高明三 金和進 高洙德 金澤順 各八十錢 金順根 七十錢 李致洙 李官洙 柳順根 李範榮 咸漢明 劉卿叔 廉明用 各六十錢 韓景天 朴德用 李卿順 金己連 李卿和 梁德實 李秀

鳳 姜益先 李大榮 高範日 金儀在 金永文 金官應 高文植 高性  
魯 金有昌 金有在 康順三 各四十錢 李建汝 李尙用 李洪洙 李  
南洙 李斗石 姜永春 咸二燮 리 永石 韓在根 曹卿日 高允根  
高致三 高文三 高光玄 金貴祿 金卿在 金貴得 金洙淡 韓己玄  
韓忠根 金富山 金有術 金洙祿 高有學 金聖江 韓漢洙 李建洙  
金根用 金福玄 金洪俊 各二十錢 共合 舊貨 一百五十元三十錢  
…… (未完) 金額을 本社에 收入지 아니하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4월 9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중 인원 및 액수, 3면 1  
단, 광고

진위 여방면 동작곡동중 8환 ..... 강화서기청 김기업 등 5환  
..... 강화군 하도면 여차동 이태영 20원 김재진 16원 한치관  
6원 고상중 5원 한양수 이창일 이명원 이수영 이유덕 김창순  
조석현 각 6원 심상규 구봉조 이주영 김명구 고현명 각 3원  
이규창 김경식 이유겸 박석현 장창순 정수범 차덕수 차재용  
이흥석 류장숙 이성의 조인용 각 2원 김유현 최일준 각 1원  
60전 고재정 조영수 각 1원 20전 김석부 권성용 김덕수 각  
1원 이상후 강홍수 김윤실 김연삼 차덕삼 이유문 이경문 김  
윤명 고명삼 김화진 고수덕 김택순 각 80전 김순근 70전 이  
치수 이관수 류순근 이범영 함한명 류경숙 염명용 각 60전  
한경천 박덕용 이경순 김기연 이경화 양덕실 이수봉 강익선  
이대영 고범일 김의재 김영문 김관웅 고문식 고성노 김유창  
김유재 강순삼 각 40전 이견여 이상용 이홍수 이남수 이두석  
강영춘 함이섭 이영석 한재근 조경일 고윤근 고치삼 고문삼  
고광현 김귀록 김경재 김귀득 김수담 한기현 한충근 김부산  
김유술 김수록 고유학 김성강 한한수 이견수 김근용 김복현

김홍준 각 20전 모두 합해서 구화(舊貨) 1백 50원 30전 ……  
(미완) 금액을 본사에 수입지 아니하면 성명을 광고에 게재  
치 아니함.

**1907년 4월 11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仁川海關會同 姜準 리 學仁 張箕彬 李敎永 各二元 李熙  
敏 姜繼鶴 李容仁 李裕寬 沈膺澤 閔箕鎬 박 滢錫 金永鎭 玄  
根 姜範植 李東현 朱錫鳳 各 一元 高丙翼 金圭永 秦學民 朴  
定實 各五拾錢 洪弼鉉 三拾錢 金龍安 리 聖江 各 三拾錢 韓  
英俊 姜壽命 許炳五 劉始童 洪永雲 洪承權 各二拾錢 韓春鳳  
韓泊錫 各 三十錢 金相云 리 昌鉉 朱云西 박 允敬 洪永順 張  
俊植 河永九 金壽鳳 車창 允 金昌昊 各二拾錢 安成萬 朱華益  
各廿五錢 金永秀 二十錢 羅永鉉 三十五錢 리 鳳翼 嚴守奉 各  
三十錢 尹亨祿 鄭順敬 李慶春 朴萬成 各 二拾錢 呂守창 金才  
瑞 洪永學 各三十錢 合 三十圓十錢.

**1907년 4월 11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인천해관회동 강준 이학인 장기빈 이교영 각 2원 이희민  
강계학 이용인 이유관 심응택 민기호 박형석 김영진 현근 강  
범식 이동현 주석봉 각1원 고병익 김규영 진학민 박정실 각  
50전 홍필현 30전 김용안 이성강 각 30전 한영준 강수명 허  
병오 류시동 홍영운 홍승권 각 20전 한춘봉 한박석 각 30전  
김상운 이창현 주운서 박윤경 홍영순 장준식 하영구 김수봉  
차창윤 김창호 각 20전 안성만 주화익 각 25전 김영수 20전  
나영현 35전 이봉익 엄수봉 각 30전 윤형록 정순경 이정춘 박



만성 각 20전 여수창 김재서 홍영학 각 30전 합 30환 10전.

#### 1907년 4월 12일, 度函日事, 2면 4단, 기사

度支部에서 日本理事廳에 公函되 本部所管仁川水道水源地를 鷺梁津으로 擇定하고 買收되 每一坪에 金 二十錢式 支撥함을 畢호얏스나 其中 日本人 暮松太의 典執地 三千四百九十一坪과 佐佐正之의 所有田土 六百二十四坪은 每一坪에 一圓五十錢을 支給치 아니호면 本部協商에 難호나 附近 地價에 比호면 大端不當호고 事係外國人이기 仰佈호니 兩人을 招致호야 說諭後에 相當호 價額으로 圓滿히 交渉에 應호도록 盡力호라 호얏더라.

#### 1907년 4월 12일, 일본 이사청에 공문을 보내다, 2면 4단, 기사

탁지부에서 일본 이사청(理事廳)<sup>86)</sup>에 공문을 보내되 본 부 소관 인천 수도 수원지를 노량진으로 선택하고 매수하되 1평마다 금 20전씩 지불함을 마쳤으나 그 중 일본인 모송태(暮松太)의 전집지(典執地) 3천 4백 91평과 좌좌정지(佐佐正之)의 소유 전토 6백 24평은 1평마다 1환 50전을 지급치 아니하면 본부 협상에 어려우나 부근 땅값에 비하면 대단히 부당하고 일에 관련된 외국인임을 알리니 두 사람을 초치(招致)하여 설득한 후에 상당한 가격으로 원만히 교섭에 응하도록 진력하라 하였더라.

86) 1905년 통감부(統監府) 산하 각 지방에 설치된 관청.

**1907년 4월 13일, 語校卒業生, 1면 2단, 기사**

漢城內에 官立各 語學校의 春期試驗을 經호야 卒業호 氏名及 數조가 如左호니 英語學校第五回卒業生에는 尹皐炳 金吉勳 林炳三 諸氏오 仁川日語學校第六回卒業生에는 李圭容 金相勳 氏 等 十三人이오 法語學校第三回卒業生에는 吳景煥 鄭寅敎 金弘烈 諸氏라더라.

**1907년 4월 13일, 어학교 졸업생, 1면 2단, 기사**

한성 내에 관립 각 어학교의 춘기 시험을 치르고 졸업한 이름과 수효가 다음과 같으니, 영어학교 제5회 졸업생에는 윤호병 김길훈 임병삼 씨요 인천일어학교 제6회 졸업생에는 이규용 김상훈 씨 등 13인이요 법어학교 제3회 졸업생에는 오경환 정인교 김홍렬 씨라더라.

**1907년 4월 13일, 愚民蚩訴, 1면 3단, 기사**

仁川郡遠湖面の 人民이 本面을 爲하야 陰祠를 設置호고 祈禱호지가 于今 幾年인디 仁川港에 耶蘇敎人들이 該祠를 燒火호 後로 該面人民이 一齊苦痛中이라고 該事由를 裁判所에 呼冤하앗다더라.

**1907년 4월 13일, 백성들이 하소연하다, 1면 3단, 기사**

인천군 원호면의 인민이 본 면을 위하여 음사(陰祠)를 설치하고 기도한지가 지금에 이르러 몇 년인데 인천항에 야소교인들이 그 사당을 불태운 후로 그 면의 인민이 모두 고통 중이라고 그 사유를 재판소에 하소연하였다더라.

**1907년 4월 13일, 兩倅請願, 2면 5단, 기사**

江華郡守 吳相奎氏는 濕滯成崇에 不可視務라 하며 藍浦郡守 李哲圭氏는 親患이 孔劇에 不可暫離라 하여 兩氏가 辭職請願 하였더라.

**1907년 4월 13일, 두 군수의 청원, 2면 5단, 기사**

강화군수 오상규 씨는 습체(濕滯)를 이유로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하며 남포군수 이철규 씨는 부모의 병환이 매우 급하여 잠시도 떠날 수 없다고 하여 두 사람이 사직을 청원하였다더라.

**1907년 4월 15일, 葬費不許, 2면 4단, 기사**

度支部所管仁川港水道局沿路을 現方起工開拓하는데 永登浦人民의 墳墓壓近地를 掘鑿함으로 人民들이 他處로 移葬하고 葬費를 支給하라고 度支部에 呼冤하였다니 本塚之移가 初非本部指委인 則 葬費一欸은 斷不可支給이라 하였더라.

**1907년 4월 15일, 장례 비용 불허, 2면 4단, 기사**

탁지부 소관 인천항 수도국 큰길을 현재 개척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영등포 인민의 분묘를 무너뜨리고 굴착함으로 인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장(移葬)하고 장비(葬費)를 지급하라고 탁지부에 호소하였더니 본 무덤을 옮기는 것이 애초 본부에 위임된 것이 아닌 즉 이장 비용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였더라.

**1907년 4월 15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江華河陰面陽五里 韓衡教 二圓 金永周 金永錫 金永秀 金

義鉉 金周鉉 金永俊 韓震錫 韓申錫 리 春吉 韓瑀錫 韓載錫  
辛在哲 各五十二錢五里 韓仁錫 黃守東 金先弼 韓汝範 鄭在弘  
許秦汝 韓聖浩 金順良 金德三 韓鎔錫 韓浩允 河三容 韓光玄  
리 喜鼎 韓伯教 韓仁官 各三十二錢 리 喜元 二十八錢 韓聖三  
韓永錫 李喜達 韓廷履 鄭德永 辛在坤 金在鳳 韓允洙 韓光汝  
黃在孫 金致行 各二十錢 黃允叔 黃五福 黃千萬 黃順甫 韓晉  
教 韓聖信 韓翼錫 韓景玉 韓良教 金文玄 金致純 金一成 金元  
七 黃明國 韓光範 韓貴教 韓泓錫 韓德文 리 文景 韓璟錫 韓  
熙教 리 致見 韓致南 韓聖元 高永西 辛秉默 黃鍾億 리 致文  
丁光三 許順汝 리 聖教 李宗錫 李順七 李喜成 리 雲教 金益  
之 金聖律 丁公燮 丁興燮 朴泰元 黃奉西 各十錢 新貨 合 二  
十圓 ……

1907년 4월 15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 3면 1  
단, 광고

…… 강화 하음면 양오리 한형교 2환 김영주 김영석 김영수  
김의현 김주현 김영준 한진석 한신석 이춘길 한우석 한재석  
신재철 각 52전 5리 한인석 황수동 김선필 한여범 정재홍 허  
진여 한성호 김순양 김덕삼 한용석 한호윤 하삼용 한광현 이  
희정 한백교 한인관 각 32전 이희원 28전 한성삼 한영석 이  
희달 한정이 정덕영 신재곤 김재봉 한윤수 한광여 황재손 김  
치행 각 20전 황윤숙 황오복 황천만 황순보 한진교 한성신  
한익석 한경옥 한양교 김문현 김치순 김일성 김원칠 황명국  
한광범 한귀교 한홍석 한덕문 이문경 한경석 한희교 이치현  
한치남 한성원 고영서 신병목 황종억 이치문 정광삼 허순여  
이성교 이종석 이순칠 이희성 이운교 김익지 김성률 정공섭  
정홍섭 박태원 황봉서 각 10전 신화(新貨) 합 20환 ……

**1907년 4월 16일, 團成總會延期, 1면 1단, 기사**

杷成學校에서 漢城內外各私立小學校를 聯合하여 教育의 振興 方針을 計圖하기로 教育團成總會를 去土曜日에 開하려다가 因天霈雨하여 各學校任員들이 齊集지 못하여 來火曜日 下午一時로 退定하였다더라.

**1907년 4월 16일, 단성 총회 연기, 1면 1단, 기사**

과성학교에서 한성 내외 각 사립소학교를 연합하여 教育의 진흥방침을 계도하기 위해 教育단성총회를 지난 토요일에 개최하려다가 큰 비로 인하여 각 학교 임원들이 모이지 못하여 다음 화요일 오후 1시로 퇴정(退定) 하였다더라.

**1907년 4월 16일, 郵便局所在地, 1면 3단, 기사**

郵便으로 貨幣를 換送하는 方法은 昨紙에 揭佈하였거니와 郵便局取及所의 在지가 如左하니 京畿 京城 光化門 西大門 南大門 仁川 永登浦 開城 水原 安城 楊州 漣川 坡州 廣州 楊根 驪州 長湍 金浦 南陽 陽智 振威 江華 抱川 京城新町 京城東大門通 龍山 水原停車場前 平澤 仁川花開洞 麻浦 素砂 烏山 漢江坊 蘢島 汶山 仁川停車場前 土城 京城本町 龍山亢町 忠清南 江景 公州 洪州 太田 .....

**1907년 4월 16일, 우편국 소재지, 1면 3단, 기사**

우편으로 화폐를 환송(換送)하는 방법은 지난 신문에 알렸거니와 우편국 취급소가 있는 곳이 다음과 같으니 경기 경성 광화문 서대문 남대문 인천 영등포 개성 수원 안성 양주 연천 파주 광주 양근 여주 장단 김포 남양 양지 진위 강화 포천 경성 신정 경성 동대문통 용산 수원정거장 전 평택 인천

화개동 마포 소사 오산 한강방 독도 문산 인천정거장 전 토  
성 경성본정 용산 항정 충청남 강경 공주 홍주 태전 .....

1907년 4월 16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富平玉山面朝宗里 리 龍淳 리 仁善 各二환 리元西 宋世  
榮 各一圓 리聖西 리龍鎬 리壽鎬 各五十錢 박允甫 四十錢 金  
春先 三十錢 曹起番 金元甫 崔元植 姜凡陳 洪承祚 安鎬成 各  
二十錢 合 新貨 九圓四十錢.

1907년 4월 16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부평 옥산면 조종리 이용순 이인선 각 2환 이원서 송세  
영 각 1환 이성서 이용호 이수호 각 50전 박윤보 40전 김춘  
선 30전 조기번 김원보 최원식 강범진 홍승조 안호성 각 20  
전 합 신화 5환 40전.

1907년 4월 17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依願免本官 官立漢城日語學校副敎官 文膺善 ..... 仁川港警務  
署總巡 金允福 任京畿觀察道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 以  
上四月十二日.

1907년 4월 17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의원면본관(依願免本官) 관립한성일어학교 부교관 문응선  
..... 인천항경무서 총순 김윤복 임명 경기관찰도 경무서 총순  
부여 판임관7급 ..... 이상 4월 12일.

**1907년 4월 17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江華郡乙道面內洞 吳沁相 沈遠昌 各五圓 黃今俊 朴富應 丁奎俊 各四圓 姜漢永 三圓 朴伊述 朴啓鳳 丁大哲 丁善述 各二圓 金德順 朴善己 丁仲淳 全永寬 리 萬俊 各一圓五十錢 朴京用 權元日 朴善容 金業俊 金連俊 朴富岩 姜漢嫻 金凡俊 金希俊 丁應辰 各一圓 金允學 七十錢 朴彥漢 柳在敏 各六十錢 金萬俊 五十六錢 黃成叔 金箕萬 朴容觀 朴德天 박 濟漢 박 在漢 金青用 柳聖昌 柳在沅 各五十錢 박 明浩 四十六錢 卞敬植 丁仲述 리 用孫 四十錢 박 永實 卅六錢 姜奉吉 박 永福 金千俊 金星甫 朱相學 丁辰燮 全元岩 丁奎男 金宜岩 各卅錢 박 致正 박 彥岩 尹善在 姜有鳳 리 圭三 姜仁童 朴興云 金順洽 金先俊 朴大奉 柳國烈 金允達 朴俊植 丁順道 丁富永 丁泰燮 丁殷燮 李尙範 魯돌 順 金斗俊 朱福星 金聖日 全完石 柳在川 柳應烈 朴上甫 黃京甫 劉永山 徐性福 朴啓玄 各廿錢 朴己甫 朴己石 박 彥燁 劉致命 朱福祿 各十八錢 金義學 八拾錢 合 新貨 六十九圓八十錢 ...중략... 金額을 本社에 收入지 아니 하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4월 17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강화군 을도면 내동 오심상 심원창 각 5환 황금준 박부응 정규준 각 4환 강한영 3환 박이술 박계봉 정대철 정선술 각 2환 김덕순 박선기 정중순 전영관 이만준 각 1환 50전 박경용 권원일 박선용 김업준 김연준 박부암 강한혁 김범준 김희준 정응신 각 1환 김윤학 70전 박언한 류재민 각 60전 김만준 56전 황성숙 김기만 박용관 박덕천 박제한 박재한 김청

용 류성창 류재원 각 50전 박명호 46전 변경식 정중술 이용  
 손 40전 박영실 36전 강봉길 박영복 김천준 김성보 주상학  
 정진섭 전원암 정규남 김의암 각 30전 박치정 박언암 윤선재  
 강유봉 이규삼 강인동 박흥운 김순흡 김선준 박대봉 류국렬  
 김윤달 박준식 정순도 정부영 정태섭 정은섭 이상범 노돌순  
 김두준 주복성 김성일 전완석 류재천 류응렬 박상보 황경보  
 류영산 서성복 박계현 각 20전 박기보 박기석 박언엽 류치명  
 주복록 각 18전 김의학 80전 합 신화 69환 80전 ..... 금액을  
 본사에 수입 아니하면 성명을 광고에 게재치 아니함.

#### 1907년 4월 20일, 銓考消息, 2면 3단, 기사

前報와 如히 再昨日下午三時頃에 地方官銓考委員이 會同하여  
 觀察郡守의 各現窠는 有何層節인지 姑未銓考하였고 履歷書積  
 滯한 郡主事 四十二人和 道府主事 十二人和 仁川慶北平北通  
 譯官補 三人을 銓考하여 氏名及履歷書を 政府로 送交하였다  
 더라.

#### 1907년 4월 20일, 전고 소식, 2면 3단, 기사

앞서의 소식과 같이 그저께 오후 3시경에 지방관 전고(銓  
 考)<sup>87)</sup> 위원이 회동하여 관찰군수의 각 현과(現窠)가 어떤 변  
 화가 있는지 잠깐 전고(銓考)하지 않았고 이력서가 적체(積  
 滯)한 군주사(郡主事) 42인과 도부주사(道府主事) 12인과 인  
 천 경북 평북 통역관보 3인을 전고(銓考)하여 이름과 이력서  
 를 정부로 넘겨주었다더라.

---

87) 사람을 전형할 때에 대상자를 여러 모로 따져 고름.



1907년 4월 22일, 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洪祐夔氏 海州郡 金址相氏 金海郡 吳奎賢氏 新門外 辛泰斌氏  
仁港龍洞 林光世氏 開城郡.

1907년 4월 22일, 황성신문 신진부, 4면 1단, 광고

홍우기 씨 해주군 김지상 씨 김해군 오규현 씨 신문외(新門外)<sup>88)</sup> 신태빈 씨 인천항 용동 임광세 씨 개성군.

1907년 4월 23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江華艮占面四洞 新成洞 四百四十兩 三巨洞 三百兩倉橋洞 五百兩 江后洞 五百九十兩 合 當五 一千八百三十兩 ……  
金額을 本社에 收入지 아니하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4월 23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강화 간점면 4동 신성동 4백 40냥 삼거동 3백냥 창교동 5백냥 강후동 5백 90냥 합 당오전 1천 8백 30냥 …… 금액을 본사에 수입지 아니하면 성명을 광고에 게재치 아니함.

1907년 4월 24일, 水賊熾盛, 2면 6단, 기사

近日 各沿海邊에 水匪가 大熾하여 内外國商民의 損害가 不小  
뿐더러 本月二日에 日本人 福田德重의 質米 一百三十餘石을

---

88) 중구 충정로1가에 있던 마을. 도성의 서대문인 돈의문을 세종 연간에 새로 세워 새문이라고도 했고, 이 지역이 새문의 밖이 되어 새문밖이라고 하였고, 한자명으로 신문외라고 함.

仁川港八尾島에서 水賊에게 見奪 故로 商船이 阻絶하여 交通  
上에 大有妨害라더라.

1907년 4월 24일, 해상 도적이 성함, 2면 6단, 기사  
근일 각 연해 주변에 수비(水匪)<sup>89)</sup>가 크게 성해서 내외국 상  
인의 손해가 적지 않을 뿐더러本月 2일에 일본인 복전덕중  
(福田德重)의 무미(貿米) 1백30여석을 인천항 팔미도에서 해  
적에게 빼앗겼으므로 상선(商船)이 막히고 끊어져 교통상에  
큰 방해가 있다더라.

1907년 4월 25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官立仁峴普通學校敎員 吉昇奎 公立金城普通學校敎員 鄭洙英  
依願免本官 四月十七日 任仁川府通譯官補敍判任官六級 六品  
崔旭榮 ……

1907년 4월 25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관립인현보통학교 교원 길승규 공립금성보통학교 교원 정수  
영 의원면본관 4월 17일 임명 인천부 통역관보 부여 관임관  
6급 6품 최옥영 ……

1907년 4월 26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 △任仁川府主事敍判任官八級 慶興府主事 洪淳炯 以上四  
月二十三日 …… △任仁川府主事敍判任官八級 金昶坤 …… 以  
上四月十九日.

---

89) 섬이나 배에서 웅거하며, 해상 인근 고을의 재물을 빼앗거나 약탈하는 도적 무리.

#### 1907년 4월 26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임명 인천부 주사 부여 판임관8급 경흥부 주사 홍순형  
이상 4월 23일 ..... △임명 인천부 주사 부여 판임관8급 김  
창곤 ..... 이상 4월 19일

#### 1907년 4월 26일, 水源地買收, 2면 4단, 기사

度支部에서 京城理事廳에 公函호되 仁川水道水源地土地收用  
에 關호야 本月十一日 委托事에 對호 貴函은 接閱인 바 木暮  
松太의 所有田土每坪 六十錢과 佐佐正之의 所有田土每坪 一  
圓은 俱是我國人民의 所有田土價額에 比호면 同等土地에 甚  
涉高低이기 仰佈호니 更招該人 等호야 更審의定後에 詳細示  
明호라 호았더라.

#### 1907년 4월 26일, 수원지 매수, 2면 4단, 기사

탁지부에서 경성 이사청에 공문을 보내어 인천 수도수원지  
토지수용에 관하여本月 11일 위탁사항에 대한 귀사의 내용  
은 확인한 바 목모송태(木暮松太)의 소유 전토를 평당 60전  
과 좌좌정지(佐佐正之)의 소유 전토를 평당 1환으로 하는 것  
은 우리나라 인민의 소유 전토 가격에 비하면 동등한 토지에  
차이가 심하다 알리니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 살펴 정한 후  
에 상세히 명시하라 하였더라.

#### 1907년 4월 26일, 稅員報告, 2면 5단, 기사

江華郡海稅派員 金炳植氏가 度支部에 報告호되 本郡各浦丙午  
年度 海稅未捧條가 夥多인디 本郡首書記 金基業은 各浦漁網  
稅 四百三十二환을 自意挪用인 바 本部訓飭이 非止一再로되  
該漢이 視若尋常호고 尙今 延拖호야 以至上納未勘이기로 報

告訢니 該郡에 訓令訢야 該漢을 捉囚督捧케 訢라 訢앗더라.

1907년 4월 26일, 세금 징수원 보고, 2면 5단, 기사

강화군 해세(海稅)로 과건된 김병식 씨가 탁지부에 보고하되 본 군(郡)의 각 포구가 병오년(丙午年)에 해세(海稅)를 내지 못한 것이 많은데 본 군(郡) 수서기(首書記) 김기업은 각 포구의 어망세(漁網稅) 4백 32환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바, 본 부(部)가 훈령으로 경계함이 한두 번이 아니로되 그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직도 일을 미루어 지금까지 상납하지 못하므로 이를 보고하니 그 군(郡)에 훈령하여 그 사람을 잡아 가두어 체납한 세금을 받으라 하였더라.

1907년 4월 26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仁川鳥洞面 朴用健 박 昌緒 任弘奎 各三圓 李達春 二환 五十錢 박 麟煥 李相薰 裴萬奎 各二환 宋憲萬 崔昌鉉 金賢植 尹炯基 各 一환 五十錢 박 晩源 一환 十錢 李學京 리 義善 李君哲 崔和志 裴熙元 裴熙春 吳膺根 吳獻根 嚴覲燮 李然浩 尹夏鉉 尹台爽 尹致教 崔正鉉 韓百壽 曷 相煥 최 昌根 孫賢謨 各一圓 尹致德 八十錢 金順源 七十錢 李運采 金春根 申大鉉 李龜浩 朴仲源 최 鼎鉉 尹德求 최 升鉉 尹正天 各六十錢 李學九 崔順善 李奉瑞 申聖七 李化實 박 昌浩 金元植 金台學 金永淳 金基化 金基祖 李樂振 裴丕蒙 吳世根 吳敏泳 韓承教 韓鎬履 吳典泳 李麟鎬 朴師寬 박 師淳 崔德鉉 任百鉉 任百振 任百善 韓俊澤 韓永澤 任永善 任弘臻 曷 有煥 金裕鉉 尹德浩 金元善 各五十錢 박 聖兼 宋俊用 金學淳 김 學基 尹俊弼 尹

用基 尹奎錫 卨 春鉉 朴良源 金春洙 柳喜奉 河致雲 河永振  
 河百鉉 李化舜 裴喜天 李仁英 丁大淳 李仁先 李升凡 李京弼  
 李有鉉 리 義眞 朴弘信 朴德根 各四十錢 李致俊 金聖招 任士  
 逸 李元善 리 順東 申永淳 李時雨 李羅範 李國三 鄭士俊 李  
 順範 俞鎮元 韓奎履 申季五 리 雲春 金鳳億 金龍珠 崔漢鎬  
 金有京 卨 京鉉 尹東植 尹正三 尹聖眞 申道哲 金光鉉 金先根  
 金東翼 韓道元 各三十錢 李俊弼 二十五錢 金奉雲 二十四錢五  
 厘 金永培 尹士鳳 朴順石 李君善 尹永烈 金台淳 朴福三 洪元  
 三 金重孝 任百亨 吉成通 崔台鉉 卨 漢聖 尹連植 尹德連 崔  
 致培 尹應在 卨 漢奎 박 鍾云 申洙鳳 金春鳴 洪垞 卞聖甫 趙  
 能顯 河京伯 韓承敎 韓正履 鄭奉云 裴建奎 裴喜連 裴碩云 金  
 泰京 金京浩 金萬順 李順弼 徐돌 伊 金相執 李君成 李相範  
 李禹京 孫壽吉 리 元弼 李明善 리 順弼 리 善澤 리 春燮 리  
 完甫 리 連弼 박 弘植 리 學元 李國三 各二十錢 리 學西 十  
 六錢 金興植 鄭仙童 金完用 尹連弼 金業童 尹有鉉 各十五錢  
 韓鼎履 十二錢 金永植 金萬돌 安士眞 卞 春道 王春彦 金永根  
 송 憲祥 金允實 崔雲善 安石俊 安成玉 金興雲 鄭星七 박 春  
 成 金俊學 金興順 金弘在 鄭致成 金興燮 韓百萬 박 春甫 任  
 士弘 李君先 洪永三 韓順童 申春萬 韓百股 池學敎 申順西 리  
 三男 卞 斗煥 申昌云 尹天植 尹永鉉 尹桂弘 尹興道 윤 文京  
 윤 順志 윤 興台 윤 興植 尹容九 박 鍾玉 박 禮源 朴義源 朴  
 鍾亨 李琦 卞建洙 河致洙 河相殷 金德用 韓鍾林 卞順甫 崔有  
 三 崔化成 姜碩公 李公善 李寬日 리 寬成 리 京云 리 占用  
 리 京俊 리 昌송 리 相謙 리 有植 리 連範 리 信雨 리 壽億  
 리 元京 各十錢 合 新貨 一百三圓七錢五厘 …중략… 仁川田反  
 面一里鞍峴 柳冀兆 柳冀勳 邊志學 邊志昌 金奎澤 李會敏 李  
 喆宇 崔尙奉 各四十五錢 金貞欽 金云善 林元日 李常宇 曹奉

漢 各三五十錢 柳冀德 柳冀千 金青欽 李勉宇 李仁沼 各二十五錢 金利欽 鄭 雲龍 曹秉熙 李 鳳宇 李寬儀 李光善 李時榮 各十五錢 李鶴宇 李常儀 金熙甫 林元燮 李昌心 朴 聖朝 各十錢 合 八圓二十五錢 ……

1907년 4월 26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 인천 조동면 박용건 박창서 임홍규 각 3환 이달춘 2환 50전 박인환 이상훈 배만규 각 2환 송헌만 최창현 김현식 윤형기 각 1환 50전 박만원 1환 10전 이학경 이의선 이군철 최화지 배희원 배희춘 오응근 오현근 엄근섭 이연호 윤하현 윤태석 윤치교 최정현 한백수 박상환 최 창근 손현모 각 1환 윤치덕 80전 김순원 70전 이운채 김춘근 신대현 이귀호 박중원 최정현 윤덕구 최승현 윤정천 각 60전 이학구 최순선 이봉서 신성칠 이화실 박창호 김원식 김태학 김영순 김기화 김기조 이낙진 배돌몽 오세근 오민영 한승교 한호리 오전영 이인호 박사관 박사순 최덕현 임백현 임백진 임백선 한준택 한영택 임영선 임홍진 박유환 김유현 윤덕호 김원선 각 50전 박성겸 송준용 김학순 김학기 윤준필 윤용기 윤규석 최춘현 박양원 김춘수 류희봉 하치운 하영진 하백현 이화순 배희천 이인영 정대순 이인선 이승범 이경필 이유현 이의진 박홍신 박덕근 각 40전 이치준 김성초 임사일 이원선 이순동 신영순 이시우 이나범 이국삼 정사준 이순범 유진원 한규리 신계오 이운춘 김봉억 김용주 최한호 김유경 최경현 윤동식 윤정삼 윤성진 신도철 김광현 김선근 김동익 한도원 각 30전 이준필 25전 김봉운 24전 5리 김영배 윤사봉 박순석 이군선 윤영렬 김태순 박복삼 홍원삼 김중효 임백형 길성통 최태현 최한성

윤연식 윤덕연 최치배 윤응재 최한규 박종운 신수봉 김춘명  
 홍경 변성보 조능현 하경백 한승교 한정리 정봉운 배건규 배  
 희련 배석운 김태경 김경호 김만순 이순필 서둘이 김상집 이  
 군성 이상범 이우경 손수길 이원필 이명선 이순필 이선택 이  
 춘섭 이완보 이연필 박홍식 이학원 이국삼 각 20전 이학서  
 16전 김홍식 정선동 김완용 윤연필 김업동 윤유현 각 15전  
 한정리 12전 김영식 김만돌 안사진 박춘도 왕춘언 김영근 송  
 현상 김윤실 최운선 안석준 안성옥 김홍운 정성칠 박춘성 김  
 준학 김홍순 김홍재 정치성 김홍섭 한백만 박춘보 임사홍 이  
 군선 홍영삼 한순동 신춘만 한백은 지학교 신순서 이삼남 박  
 두환 신창운 윤천식 윤영현 윤계홍 윤홍도 윤문경 윤순지 윤  
 흥태 윤홍식 윤용구 박종옥 박예원 박의원 박종형 이기 변건  
 수 하치수 하상은 김덕용 한종임 변순보 최유삼 최화성 강석  
 공 이공선 이관일 이관성 이경운 이점용 이경준 이창송 이상  
 겹 이유식 이연범 이신우 이수억 이원경 각 10전 합 신화 1  
 백 3환 7전 5리 ..... 인천 전반면 1리 안현 류기조 류기훈  
 변지학 변지창 김규택 이회민 이철우 최상봉 각 45전 김정흙  
 김운선 임원일 이상우 조봉한 각 35전 류기덕 류기천 김청흙  
 이면우 이인소 각 25전 김리흙 정운용 조병희 이봉우 이관의  
 이광선 이시영 각 15전 이학우 이상의 김희보 임원섭 이창심  
 박성조 각 10전 합 8환 25전 .....

#### 1907년 4월 27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依願免本官 平安北道觀察道通譯官補 姜根道 四月十九日 兼任  
 仁川港裁判所通譯官補 仁川府通譯官補 崔旭榮 ..... 以上四月  
 二十日 .....

1907년 4월 27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의원면 본관 평안북도관찰도 통역관보 강근도 4월 19일 겸임  
인천항재판소 통역관보 인천부 통역관보 최옥영 ..... 이상 4  
월 20일 .....

1907년 4월 27일, 郡守三十, 2면 3단, 기사

地方官銓考所에서 郡守合格者를 銓考하얏다 ㅎ은 已爲揭報어  
니와 新任及遷轉 ㅎ 氏名이 如左 ㅎ니 英陽郡守 姜甲秀 ..... 江  
華 李祖鉉, 靈巖 李秉輝, 淮陽 南宮薰, 陝川 李敏恒, 熙川 朱  
哲濬, 旌義 張容堅, 諸氏더라.

1907년 4월 27일, 군수 30, 2면 3단, 기사

지방관 전고소(銓考所)<sup>90</sup>에서 군수합격자를 전고(銓考)하였  
다 ㅎ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신임과 천전(遷轉)한 성명이  
다음과 같으니 영양군수 강갑수 ..... 강화 이조현, 영암 이병  
휘, 회양 남궁훈, 함천 이민항, 희천 주철준, 정의 장용견 등  
이더라.

1907년 4월 27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齊陵 本陵令 尹敎性 二元 參奉 趙鍾禹 二元 員役及守護軍 二  
十元 合 舊貨 二十四元 ..... 江華鄉校中學校 八圓三十錢 .....  
金額을 本社에 收入지 아니 ㅎ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지 아니  
ㅎ.

---

90) 문관전고서(文官銓考所)의 줄임말로 대한제국 의정부(議政府)에 딸린 관아의 하나.  
문관(文官)의 전형과 임용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광무9년(195)에 설치하고 위  
원장 1인, 위원 5인, 서기 약간인을 두었다가 융희4년(1910)에 폐지되었다.



1907년 4월 27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제릉(齊陵)<sup>91)</sup> 본릉령(本陵令) 윤교성 2원 참봉 조종우 2원  
원역(員役)<sup>92)</sup>과 수호군(守護軍)<sup>93)</sup> 20원 합 구화 24원 .....  
강화향교중학교 8환 30전 ..... 금액을 본사에 수입지 아니하  
면 성명을 광고에 게재치 아니함.

1907년 4월 29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 靈光郡守 俞鎭贊 靈岩郡守 李在正 江華郡守 吳相奎 知禮  
郡守 金璜鎭 甌山郡守 尹泰興 英陽郡守 金思重 咸悅郡守 李  
胄相 杆城郡守 朴潤晟 藍浦郡守 李哲圭 依願免本官 △任江華  
郡守敍奏任官三等 陸軍參領 李祖鉉 ..... △任開寧郡守敍奏任  
官四等 仁川府主事 朴一陽 ..... 以上四月二十五日.

1907년 4월 29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영광군수 유진찬 영암군수 이재정 강화군수 오상규 지례  
군수 김황진 증산군수 윤태흥 영양군수 김사중 함열군수 이주  
상 간성군수 박윤성 남포군수 이철규 의원면 본관 △임명 강  
화군수 부여 주임관 3등 육군참령 이조현 ..... △임명 개령군  
수 부여 주임관 4등 인천부 주사 박일양 ..... 이상 4월 25일.

1907년 4월 29일, 蜜啞請演, 1면 5단, 기사

日昨에 仁川港大韓自強支會에서 通常總會를 開호고 蜜啞子  
劉元杓氏를 請호야 演說호는디 自強會副會長 尹孝定氏와 本

91) 조선 태조의 비(妃) 신의왕후(神懿王后)의 능. 경기도 개풍군 상도면 풍천리에 위치함.

92) 이서(吏胥)과 한가지로 각 관아에 딸린 구실아치를 통틀어 일컬음.

93) 수릉군(守陵軍)과 같은 말로 능(陵)을 지키는 군사.

社長 南宮薰氏도 同伴往會호았는디 當日 該會場에 港內一船紳士와 男女老幼들이 雲集호야 該支會長 鄭在洪氏와 一般會員諸氏의 引導로 該會員 朴用來氏가 先次演壇에 登호야 演說호고 蜜啞子의 一行三氏 等이 次第 出演호는디 傍聽 數百人이 靜聽歡迎호야 一大盛況을 逞호았고 其翌日에 永化學校와 濟寧學校의 請邀를 因호야 兩校學員에 對호야 勸勉演說을 愉快히 호았더라.

1907년 4월 29일, 밀아자에게 연설을 청함, 1면 5단, 기사  
일전에 인천항 대한자강지회에서 보통의 총회를 열고 밀아자(蜜啞子) 류원표<sup>94)</sup> 씨를 청하여 연설하는데 자강회 부회장 윤효정 씨와 본사장 남궁훈 씨도 같은 일로 회의에 갔는데 당이 그 회의장에 항내(港內) 선박의 신사(紳士)와 남녀노소들이 운집하여 그 지회장 정재홍 씨와 일반 회원 사람들의 인도로 그 회원 박용래 씨가 차례로 연단에 올라 연설하고 밀아자의 일행 3명 등이 차례로 출연하는데 방청하는 수백 인이 조용이 듣고 환영하여 일대 성황을 이루었고 그 다음날에 영화학교(永化學校)<sup>95)</sup>와 제녕학교(濟寧學校)<sup>96)</sup>의 요청으로 인해 두 학교 교원에 대하여 연설을 권면함을 유쾌히 하였더라.

94) 밀아자 유원표(蜜啞子 劉元杓, 1852~1919년 5월 이후), 조선시대 역관을 지냈으며 군인을 거쳐 근대 전환기에는 개몽지식인으로 활동했다.(이성해, 「蜜啞子 劉元杓에 대한 전기적 고찰」, 『동북아문화연구』제33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12. 참조)

95) 영화학교의 전신인 영화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에 파견된 존스(Jones, G.H.) 목사와 그의 부인 벵겔(Bengel, M.J.)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1892년 4월 30일 벵겔이 영화여학당(제물포 여자매일학교)을 설립한데 이어, 1893년 3월 12일 존스 목사가 영화남학당(제물포 남자매일학교)을 각각 설립하여 서구식 초등교육을 실시하였다. 영화학당은 1912년 사립영화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현재 인천 동구 우각로39에는 1911년 완공된 영화학당의 교사가 일부 남아있다.

96) 1903년 6월 설립된 제녕학교는 인천 최초로 민간인이 경영하는 학교였다.

1907년 4월 29일, 日艦到仁, 2면 5단, 기사

本月二十四日下午三時에 日本軍艦 新高及笠眞 兩隻이 仁川港에 碇泊하였다더라.

1907년 4월 29일, 일본 군함이 인천항에 정박하다, 2면 5단, 기사

본월 24일 오후 3시에 일본군함 신고(新高)와 입치(笠眞) 두 척이 인천항에 정박하였다더라.

1907년 4월 29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仁川港人宜會 四拾圓 加平郡朝宗上面曹家垵 李復應 一환 .....  
江華外可面合三洞長 沈宜夏 山串洞 拾四圓 望月洞 二拾圓 三  
巨洞 二拾圓 合 舊貨 五十四圓 .....

1907년 4월 29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인천항 인의회(人宜會) 40환 가평군 조종상면(朝宗上面) 조가대(曹家垵) 이부응 1환 ..... 강화 외가면 합3동장 심의하 산곶동 14원 망월동 20원 삼거동 20원 합 구화 54원 .....

1907년 4월 29일, 本人의 子가 在開城本家하야 紙貨 二百六拾圓을 書簡同封하야, 4면 3단, 광고<sup>97)</sup>

本人의 子가 在開城本家하야 紙貨 二百六拾圓을 書簡同封하야 金于天의게 寄付하야 信傳하기를 囑托이온 바 金友가 陰

---

97) 1907년 4월 30일자에도 동일한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三月初七日 終車에 下來하다가 路中遺失하였으나 覓得無述矣  
러니 本港總巡 金潤福氏와 權任申永鎭 朴仁生氏가 明於警察  
하여 拾遺한 街童을 調捉하여 遺失한 紙貨을 沒數覓給하였으니  
右三氏의 人民財産을 熱心保護함을 感謝하여 玆에 公佈함 仁  
港杻峴 全廼明 告白.

1907년 4월 29일, 본인의 아들이 개성의 본가에 있으면서 지  
폐 2백 60환을 편지에 동봉하여, 4면 3단, 광고  
본인의 아들이 개성의 본가에 있으면서 지폐 2백 60환을 편  
지에 동봉하여 김우천에게 물건을 주며 확실히 전해주기를  
부탁하는 바 김우가 음력 3월 초7일에 막차에서 내리다가 길  
에서 잃어버렸으나 찾지 못하였더니 본 항(港) 총순(總巡)  
김윤복 씨와 권임(權任)<sup>98)</sup> 신영진 박인생 씨가 경찰에 밝혀  
물건을 주운 아이를 붙잡아 잃어버린 지폐를 몰수하여 찾아  
주니 3명의 인민의 재산을 열심히 보호함을 감사하여 이에  
공포함. 인천 축현(杻峴) 전내명 고백(광고).

1907년 4월 30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 △任公立仁川普通學校副敎員敍判任官七級 姜新馨 …… 以  
上四月一日 …하략…

1907년 4월 30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임명 공립인천보통학교 부교원 부여 관임관 7급 강신  
형 …… 이상 4월 1일 ……

---

98) 대한제국 때 순검의 우두머리.

## 1907년 5월

1907년 5월 1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江華郡下道面興旺洞 朴吉秉 咸命植 各拾圓 俞天煥 韓益洙 朴希聖 各四圓 韓份錫 韓元洙 咸元根 各 三圓 金在允 韓賢洙 韓文洙 各二圓 咸龍巖 呂致順 俞龍煥 咸龍策 咸龍雲 咸龍山 金英璣 鄭有吉 鄭有根 鄭有祿 崔東善 桂廷律 金一成 各一圓 韓영洙 八拾錢 韓貞洙 七十錢 咸永壽 咸龍淳 柱英福 崔光益 各六十錢 朴今實 咸永攝 韓鶴洙 韓龍錫 金尙錫 韓在洙 韓龜錫 金德浩 俞章煥 朴奎秉 ■容益 杜炳雲 李三植 鄭有達 鄭士俊 韓靈洙 金官吉 柱英식 各五十錢 鄭鶴壽 崔尙福 高德實 金官仲 各四十錢 咸善根 金官應 咸銀三 各三拾錢 桂廷玉 咸元述 金聖學 金官祿 朴聖烈 田仁根 梁允壽 田完식 桂順昌 廉明甫 金松連 金允祿 閔元錫 金有玉 정學信 韓雲수 韓貴錫 桂英俊 桂英實 金應敎 高德壽 高德用 金石星 徐萬俊 鄭今鳳 韓尙祿 趙長祿 各二十錢 合計 八十圓 八十錢 …… 金額을本社에 收入지 아니하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5월 1일, 國債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 강화군 하도면 흥왕동 박길병, 함명식 각 10환(圓), 유천환, 한익수, 박희성 각 4환, 한일석, 한원수, 함원근 각 3환, 김재운, 한현수, 한문수 각 2환, 함룡암, 김치순, 유룡환, 함룡책, 함룡운, 함룡산, 김영기, 정유길, 정유근, 정유록, 최동선, 계정률, 김일성 각 1환, 한영수 80전(錢), 한정수 70전, 함영수, 함룡순, 주영복, 최광익 각 60전, 박금실, 함영섭, 한학수,

한룡석, 김상석, 한재수, 한구석, 김덕호, 유장환, 박규병, ■  
 용익, 두병운, 이삼식, 정유달, 정사준, 한령수, 김관길, 주영  
 식 각 50전, 정학수, 최상복, 고덕실, 김관중 각 40전, 함선  
 근, 김관응, 함은삼 각 30전, 계정옥, 함원술, 김성학, 김관록,  
 박성렬, 전인근, 양윤수, 전완식, 계순창, 염명보, 김송련, 김  
 윤록, 민원석, 김유옥, 정학신, 한운수, 한귀석, 계영준, 계영  
 실, 김응교, 고덕수, 고덕용, 김석성, 서만준, 정금봉, 한상록,  
 조장록 각 20전. 합계 80환 80전. …… 금액을 본사에 수입하  
 지 아니하면 성명을 광고에 게재치 아니함.

### 1907년 5월 1일, 株式會社漢城銀行, 4면 6단, 광고<sup>99)</sup>

[電話六四六番]皇城鍾路 支店所在地水原 資本金參拾萬圓 積  
 立金一萬一千圓 一 諸任金 定期, 不定期가 有흔디 任主에게  
 計撥호는 利息이 隨各差異호며 他人金額의 秘密, 安全, 融通,  
 貯蓄에 極圖便利호 一 諸貸金及手形割引 [手形典入] 確實호  
 典物을 典執호고 借主에게 貸給호 但 諸利息及割引料는 日數  
 로 計算호 一 爲替送金 [普通換及電報換] 其處所는 左開호  
 水原, 仁川, 群山, 木浦, 釜山, 馬山浦, 大邱, 開城, 平壤, 鎭南  
 浦元山, 咸興, 城津, 全州, 忠州, 晉州, 光州, 鏡城, 海州, 日本  
 東京, 大坂 其他 一般 銀行의 業務를 確實營行호.

99) 본 광고는 1907년 5월 1일 외에도 1907년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2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5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6  
 월 3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  
 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  
 일, 6월 22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7  
 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까지 모두 56회에  
 걸쳐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 1907년 5월 1일, 주식회사 한성은행, 4면 6단, 광고

[전화 646번] 황성종로(皇城鍾路) 지점 소재지 수원, 자본금 30만원, 적립금 1만 1천원 1. 돈을 맡기는 데에는 정기, 부정기가 있으므로 돈을 맡기는 사람마다 계산되는 이자가 각각 다르며 타인에게 금액의 비밀, 안전, 융통, 저축에 매우 편리함 1. 모든 대출금과 어음할인[어음전입] 확실한 전당물을 전당잡고, 대출자에게 빌려줌. 단 모든 이자와 할인료는 일수로 계산함. 1. 송금환[보통환과 전보환] 그 처소는 좌개(左開)함. 수원,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포, 대구, 개성, 평양, 진남포, 원산, 함흥, 성진, 전주, 충주, 진주, 광주, 경성(鏡城), 해주, 일본 동경, 대판(大坂). 기타 일반 은행의 업무를 확실히 영업함.

### 1907년 5월 2일, 學徒拜闕, 1면 5단, 기사

仁川港永化學校의 學徒 一百三十五人和 職員 十八人이 春期大運動에 參與하기 爲하야 再昨日에 上京하얏는디 雨勢를 因하야 現今 留京하느니라 昨日下午一時에 昌德宮을 拜觀할 次로 學部에서 主殿院으로 通牒하고 臨時門票을 請求하야 一齊히 拜觀하얏다더라.

### 1907년 5월 2일, 학도 궁궐 배관, 1면 5단, 기사

인천항 영화학교<sup>100)</sup>의 학도 135인과 직원 18인이 춘기 대운

100) 영화학교의 전신인 영화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에 파견된 존스(Jones, G.H.) 목사와 그의 부인 벵겔(Bengel, M.J.)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1892년 4월 30일 벵겔이 영화여학당(제물포 여자매일학교)을 설립한데 이어, 1893년 3월 12일 존스 목사가 영화남학당(제물포 남자매일학교)을 각각 설립하여 서구식 초등교육을 실시하였다. 영화학당은 1912년 사립영화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현재 인천 동구 우각로39에는 1911년 완공된 영화학당의 교사가 일부 남아있다.

동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에게 상경하였는데, 비로 인해 지금 서울에 머무는지라. 어제 오후 1시에 창덕궁을 배관(拜觀)하는 일로 학부(學部)에서 주전원(主殿院)<sup>101</sup>으로 통첩(通牒)하고, 임시 입장권을 청구하여 일제히 배관하였더라.

### 1907년 5월 3일, 志士義學, 1면 4단, 기사

雜報 志士義學 仁川港에서 有志人士들이 資財를 義捐하여 學校를 設立하기로 校基를 買收하였는데 該基址를 學部에서 公立學校를 設立하기로 該港民들과 交渉이 有하여 相持한다 囑은 已報어니와 該港紳士中 鄭在洪氏가 港內 一般 人士의 堅確한 教育主意를 代表하여 學部和 該府及日本理事廳에 許多干涉을 一辭拒絕하고 純然한 私立義務學校로 設立하기를 結心하여 校字를 宏傑히 建築하고 敎場을 通暢히 修治하며 諸般 敎具를 一新準備하는데 許多費用을 該港紳商諸氏와 志士들이 陸續 義捐하여 該校前望이 大有進就라 하니 該港諸氏에 義務熱心은 攢賀不暇할 事이더라.

### 1907년 5월 3일, 지사의거, 1면 4단, 기사

인천항에서 유지인사들이 자재(資財)를 의연(義捐)하여 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학교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부지에 학부(學部)는 공립학교를 설립하자고 인천항 백성들과 교섭이 있어 만난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인천항 신사(紳士) 정재홍(鄭在洪)<sup>102</sup> 씨가 인천항 내의 일반 인사의 확고한 교육주

101) 대한제국 시기 궁내부에 속해 궁전을 지키고 수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102) 정재홍(鄭在洪, 1867~1907)은 1907년 대한자강회 인천지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단연동맹회(斷煙同盟會)를 조직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천기의숙(千起義塾)을 설립하여 교육계몽에 힘쓰다가 동년 6월 박영효 환영식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살해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하였다. 1905년 일본인 이토(伊藤博文)가 친일대신과 결탁하여 군대로써 왕궁을 위협하고 고종을 강



의를 대표해서 학부와 인천부 및 일본 이사청(理事廳)<sup>103)</sup>에 많은 간섭을 한 번에 거절하고 순연한 사립의무학교(私立義務學校)로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교우(敎宇)를 크게 건축하고 교장(敎場)을 막힘이 없이 수리하며, 제반 교구를 새로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많은 비용을 인천항 신상(紳商) 여러 명과 지사들이 계속 의연(義捐)하여 이 학교의 전망이 크게 밝다고 하니 인천항 여러 명의 책임감은 마땅히 찬하(攢賀) 받을 일이다.

1907년 5월 3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黔丹面安東浦 金龍澤 尹相鉉 方明甫 各 一圓 方明甫夫人 金氏 六十錢 金景有 金顯昌 各 一圓 許萬燁 金應西 各六拾錢 許尙 趙景三 元永先 趙奉祚 金興植 孫聖權 正喜順 各五十錢 吳善益 尹用三 千順元 正喜先 金汗甲 正 長순 各四十錢 金春五 三拾五錢 金云先 崔局先 金士元 安德甫 崔永春 各三拾錢 金元植 崔奉云 各廿五錢 金元化 正德三 正德威 裴甫年 李德순 尹文순 金尙彦 李萬순 李分甫 尹元三 李 永守 李石돌 李曾玉 朴 元和 劉準燮 各 二拾錢 各拾八圓 五錢 金谷里 李汝

요하여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을 보호국화하자, 이토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우선 서울에 있던 미국청년회(美國青年會)에 가입하고 기회를 노렸다. 1907년 5월 이토가 조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규합하여 연회를 마련하고 이토를 초청하였다. 그러나 이토가 그 기미를 눈치 채고 의심하여 참석하지 않게 됨으로써 거사가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거사계획 역시 점차 누설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토에게서 화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는 원수의 손에 죽을 수 없다며 스스로 자결하였다.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본 황성신문에 여러 상세한 기사들이 연이어 나온다.

103) 이사청(理事廳)은 일제 통감부가 1905년 12월 20일 관제를 공포하며, 조선의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재조선 일본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지방 행정기관이다. 주로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던 개항장이나 조선의 주요 도시에는 일본 영사관이 있었는데, 이를 이사청으로 개편하여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한 지방 행정기관이었다.

道 李윤甫 李致三 各五拾錢 李長有 李春道 各四十錢 金義道  
李石玄 各三拾錢 李在道 李敬信 金尹三 李上奉 李致순 李致  
交 李春元 朴순官 各廿錢 金春山 拾錢 合 四圓六十錢 (未完).

**1907년 5월 3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 검단면 안동포 김룡택, 윤상현, 방명보 각 1환(圓), 방명  
보 부인 김씨 60전(錢), 김경유, 김현창 각 1환, 허만엽, 김응  
서 각 60전(錢), 허강, 조경삼, 원영선, 조봉조, 김홍식, 손성  
권, 정희순 각 50전, 오선익, 윤용삼, 천순원, 정희선, 김한갑,  
정장순 각 40전, 김춘오 35전, 김운선, 최국선, 김사원, 안덕  
보, 최영춘 각 30전, 김원식, 최봉운 각 25전, 김원화, 정덕  
삼, 정덕함, 배보년, 이덕순, 윤문순, 김상언, 이만순, 이분보,  
윤원삼, 이영수, 이석돌, 이증옥, 박원화, 류준섭 각 20전 각  
18환 5전, 금곡리 이여도, 이윤보, 이치삼 각 50전, 이장유,  
이춘도 각 40전, 김의도, 이석현 각 30전, 이재도, 이경신, 김  
윤삼, 이상봉, 이치순, 이치교, 이춘원, 박순관 각 20전, 김춘  
산 10전. 합 4환 60전(미완).

**1907년 5월 4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 仁川府通譯官補 崔旭榮 任江原道觀察道通譯官補敍判任官  
六級 △全羅南道觀察道通譯官補 崔益夏 任仁川府通譯官補敍  
判任官六級 …… 以上四月二十六日 ……

**1907년 5월 4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인천부 통역관보<sup>104</sup>) 최옥영을 강원도 관찰도 통역관보  
에 임면하고 판임관<sup>105</sup>) 6급에 부여함 △전라남도 관찰도 통

역관보 최익하를 인천부 통역관보에 임면하고 관입관 6급에  
부여함 ..... 이상 4월 26일 .....

### 1907년 5월 4일, 普校漸昌, 1면 4단, 기사

江華郡普昌學校에서 去月十四日에 高等 初等 兩小學校 第一  
回卒業式을 舉行하였는데 高等小學校及第生이 十九人에 最優  
等은 朴俊成 高聖根 朱永燮이오 及第에 張成英 金鍾萬 徐丙  
哲 黃完秀 金富昌 金弘章 高聖壽 張基俊 金顯稷 崔儀濟 趙鍾  
桓 尹壽赫 金錫富 尹榮錫 黃南周 朴龍南이오 初等小學校 十  
八人에 最優等이 李忠仁 金庚辰 崔義淳이오 及第는 田世昌  
劉富榮 盧始昌 方英嫻 崔錫範 琴東滿 趙淇淳 張興健 宋綺用  
李昌用 金顯九 鄭秀東 羅一龍 金永大 曹良默이라 當日에 學  
徒의 父母와 贊成員과 邑村有志人士를 請邀하여 卒業의 成績  
을 說明한 後 卒業證書와 褒證書와 多數 賞品을 授與하고 校  
長 李東暉氏가 學員의 益加勉勵함을 一場勸勉하고 高等小學  
科卒業生은 中學校에 入學하고 初等小學校卒業生은 高等小學  
科에 入學하여 成績이 頗히 良好하다더라.

### 1907년 5월 4일, 보창학교가 점점 창성하다, 1면 4단, 기사

강화군 보창학교<sup>106</sup>)에서 지난달 14일에 고등·초등 두 소학과

104) 통역관(通譯官)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만들어진 궁내부에서 외국어의 통역, 번역 사무를 담당하는 전문 관리가 없다가 이듬해 관계 개편 때 주임관(奏任官)의 통역관 2인을 두고 맡아보도록 하였다. 점차 외국과의 교섭이 많아지며 번역과(繙譯課)가 신설되는 등 조직 및 인원이 확대되어 나갔는데, 통역관보는 통역관의 아래 계급으로 그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105) 관입관(判任官)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진 관료 계급의 하나로 주무대신이 국왕에게 상주(上奏)하여 임명되는 하급관료를 말한다. 일본의 근대적 관료 제도의 영향을 받아 갑오개혁 당시 문관은 정1품~정2품을 칙임관, 3~6품을 주임관, 7~9품을 관입관으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계급 분류는 이후에도 유사하게 이어졌다.

106) 1904년 8월 이동휘(李東輝)는 강화에 육영학교(育英學校)를 설립하고, 자신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운영하였다. 1905년 5월에 이르러 육영학교를 보창학교(普昌學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고등소학과 학생 19인 중에서 최우등은 박준성, 고성근, 주영섭이고, 나머지 졸업생이 장성영, 김종만, 서병철, 황완수, 김부창, 김홍장, 고성수, 장기준, 김현직, 최의제, 조종환, 윤수혁, 김석부, 윤영석, 황남주, 박룡남이다. 초등 소학과 18인 중에서 최우등이 이충인, 김경진, 최의순이고, 나머지 졸업생은 전세창, 류부영, 노시창, 방영혁, 최석범, 금동만, 조기순, 장홍건, 송기용, 이창용, 김현구, 정수동, 나일룡, 김영대, 조양묵이다. 당일에 학도의 부모와 찬성원(贊成員)과 읍촌의 유지인사를 초청하여 졸업의 성적을 설명한 후 졸업증서와 보증서, 다수의 상품을 수여하고 교장 이동휘(107)씨가 학원(學員)이 더욱 힘써야 함을 일장 권면(勸勉)했다. 고등 소학과 졸업생은 중학과에 입학하고, 초등 소학과 졸업생은 고등 소학과에 입학하여 성적이 자못 양호하다더라.

1907년 5월 4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金浦郡(續) 黔丹面小旺吉里 李善文 四拾錢 李善在 三拾錢 리  
善浩 李德根 李幸순 李化一 各二拾錢 李善官 李因文 姜元才  
各十錢 合 一圓八十錢 麻田里 李世容 一圓 洪秉悌 五拾錢 洪

校)로 개명하는 한편, 강화도 내의 여러 곳에 70개의 보창학교 지교를 세웠으며, 타지에도 개성보창학교, 장단보창학교, 안악보창학교 같은 보창지교를 설립인가하고 이들 보창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각 지교에 배치하였다.

107) 이동휘(李東輝, 1873~1935)는 한말~일제강점기 군인, 교육구국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다. 대한제국의 사관양성소를 졸업하고 임관하여 1903년 강화도진위대장으로 부임하여 강화 군민의 존경을 받았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침략이 심화되자 1905년 3월 군직을 사임하고 민족교육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는 1903년 11월에 강화도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인 합일학교를 설립했고, 1904년 대한협동회에 참여하여 일제의 토지침탈에 반대하였다. 1905년에는 윤명삼, 유경근 등과 보창학교(普昌學校)를 설립하여 교육 운동에 헌신하였다. 1907년 일제에 의한 정미칠조약 강제 체결과 군대 해산이 이어지자 강화도 진위대의 김동수(金東秀), 연기우(延起羽) 등과 군민들이 봉기했는데, 이때 봉기의 배후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신민회의 지도자로 구국 운동을 전개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고려공산당의 지도자 등의 민족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다가 시베리아에서 병사하였다.

義燮 洪夏燮 洪在範 金疇壽 各四十錢 洪秉五 洪信燮 洪智燮  
 李昉容 李時容 李順男 리 敬九 金完吉 林永石 金連奉 韓景石  
 許汗石 許三禮 梁泰煥 各 二十錢 洪慶燮 李箕燮 李晉容 李俊  
 應 許汗祿 金石俊 田福萬 金芝樂 金學同 各十錢 合 六환 八  
 十錢 旺吉里 李年實 金永安 各五拾錢 李順巨 리化春 리順元  
 各 四拾錢 鄭辰五 金景先 權聖三 李順明 各卅錢 李順寬 鄭氏  
 同 리景實 리景弼 리文能 各二拾錢 鄭在윤 李순 祚 鄭春先  
 金景七 金敬化 各拾錢 合 四환 九拾錢 左洞 梁柱七 申在祿  
 申錫夏 최 學教 各五拾錢 梁錢洙 梁柱三 各卅錢 申泰益 金在  
 永 梁柱表 朴순 京 吳俊成 張承賢 趙先根 各廿錢 梁宣洙 權  
 君先 各十五錢 梁智煥 梁柱天 申泰白 各 拾錢 박永淑 十六錢  
 合 四환 七十六錢 如來里 梁文煥 梁柱雲 各五十錢 梁明煥 申  
 亨善 各三拾錢 金命根 二拾錢 梁一煥 梁柱鶴 梁鳳煥 申學善  
 安用根 李才根 各拾錢 合 二환 四十錢. ....

# 1907년 5월 4일, 국채보상 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김포군(續) 검단면 소왕길리 이선문 40전(錢), 이선재 30전, 이선호, 이덕근, 이행순, 이화일 각 20전, 이선관, 이인문, 강원재 각 10전, 합 1환(圓) 80전. 마전리 이세용 1환, 홍병제 50전, 홍의섭, 홍하섭, 홍재범, 김주수 각 40전, 홍병오, 홍신섭, 홍지섭, 이방용, 이시용, 이순남, 이경구, 김완길, 임영석, 김연봉, 한경석, 허한석, 허삼례, 양태환 각 20전. 홍경섭, 이기섭, 이진용, 이준응, 허한록, 김석준, 전복만, 김지악, 김학동 각 10전, 합 6환 80전.

왕길리 이년실, 김영안 각 50전, 이순거, 이화춘, 이순원 각 40전, 정진오, 김경선, 권성삼, 이순명 각 30전, 이순관, 정씨

동, 이경실, 이경필, 이문능 각 20전, 정재윤, 이순조, 정춘선, 김경칠, 김경화 각 10전, 합 4환 90전.

좌동(左洞) 양주칠, 신재록, 신석하, 최학교 각 50전, 양전수, 양주삼 각 30전, 신태익, 김재영, 양주표, 박순경, 오준성, 장승현, 조선근 각 20전, 양선수, 권군선 각 15전, 양지환, 양주천, 신태백 각 10전, 박영숙 16전, 합 4환 76전.

여래리 양문환, 양주운 각 50전, 양명환, 신흥선 각 30전, 김명근 20전, 양일환, 양주학, 양봉환, 신헌선, 안용근, 이재근 각 10전, 합 2환 40전. ....

#### **1907년 5월 6일, 日船拔錨, 2면 4단, 기사**

日本軍艦笠眞及新高 兩隻이 仁川港에 碇泊했더니 去月二十九日에 拔錨했었다더라.

#### **1907년 5월 6일, 日本 선박이 출항함, 2면 4단, 기사**

일본 군함 입치(笠眞) 및 신흥(新高) 두 척이 인천항에 정박하였다가 지난달 29일에 출항하였었다더라.

#### **1907년 5월 6일, 各費移割, 2면 4단, 기사**

度支部에서 起業資金出納順序第四條를 依하야 臨時治道費 六萬圓과 大韓醫院建設費 三萬圓과 仁川水道工事費 二萬圓과 裁判所建築費 三萬圓 合 十八萬圓을 興業銀行에서 引出하야 中央金庫에 移付했었다더라.

#### **1907년 5월 6일, 各 비용을 이관, 2면 4단, 기사**

탁지부에서 기업자금출납순서 제4조에 의하여 임시 도로 건설비용 6만환(萬圓)과 대한의원건설비용 3만환, 인천수도공

사비용 2만원, 재판소건설비용 3만원, 도합 18만원을 흥업은행에서 인출하여 중앙금고에 이관하였다더라.

#### 1907년 5월 6일, 校長延聘, 2면 6단, 기사

仁川港에서 有志人士들의 熱心으로 學校를 私立한다 囑은 前報에 已揭어니와 爲先學員을 多數 募集하고 日間開學하는디 京城에서 徐丙轍氏가 校長으로 日昨에 京仁線瀛車를 搭往하였다더라.

#### 1907년 5월 6일, 교장을 초빙함, 2면 6단, 기사

인천항에서 유지인사들의 노력으로 학교를 사립(私立) 한다는 것은 앞서 신문에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우선 학생을 다수 모집하고 가까운 시일에 개교한다는데, 경성에서 서병철씨가 교장으로 어제 경인선 기차를 타고 왔다더라.

#### 1907년 5월 7일, 保國論(續), 2면 1단, 사설

歐風米雨가 捲我國以將去호고 紅尸黑鬼가 喚我民以爲侶호리니 故로 我民之能保我國도 惟在今日이오 我民之不能保我國도 亦惟在今日이라 今日者는 撒但(魔鬼의 名)妖魔가 試我輩志行之日也오 彼蒼上帝가 鼓我輩進前之日也니 我同胞는 其無自沮호며 其無示弱이어다 昔我百年之長睡가 固多可耻오 嚮我累度之失機가 固甚可悔나 彼迂儒俗士는 往往 因此自貶호야 曰 我國은 果不可獨立이오 我民은 果不可自由라 호느니 惡라 是何言也오 其爲此言者는 知其一이오 不知其二라 請爲我國民而一辨之호리니 昔者 我民이 雖欲愛國이나 烏從而愛之며 雖欲保國이나 烏從而保之리오 今夫六洲五種이 合爲一國호야 同戴一君主호며 同服一政府호고 言語가 混一호며 風俗이 歸一호야

黃男白女가 比鄰通婚하고 歐弟亞兄이 並室相處하면 于斯時而  
 尙有愛國云 愛國云者乎아 噫라 所向이 吾國이어니 吾又何勞  
 乎愛國이며 又或海中孤島에 人跡이 不到하는디 偶有生人於此  
 하야 立一酋長하며 設一都邑하고 生於斯하며 死於斯하며 耕  
 於斯하며 鑿於斯하며 養子孫於斯하야 橘中 二叟가 不知局外  
 之天地하고 武陵居人이 不見漁父之問津하야 寸天尺地에 優遊  
 自在하면 于斯地而尙有保國云 保國云者乎아 噫라 不知有他國  
 이어니 吾又何事乎保國이리오 是故로 有他國然後에 始知有吾  
 國이오 知有吾國然後에 可以愛國이오 愛國 然後에 可以保國  
 이니 竊念我國이 自有歷史以來로 迄于今 四千有餘載矣나 其  
 間對外競爭이 果能幾次오 漢武唐太는 邈矣라 不復記하며 女  
 眞蒙古는 渺哉라 亦已忘하고 康衢烟月에 擊壤熙熙하야 坐臥  
 起居를 惟吾所意하며 東西南北을 惟吾所向하니 深深閉戶에  
 狂叫亂嚷하달 詰我者ㅣ 其誰며 坦坦行路에 橫走斜步하달 責  
 我者ㅣ 其誰리오 種種 惡夢은 不過甲子适亂, 壬申西賊類也오  
 間間劫運은 不過壬辰日兵, 丙子清國等也라 春疇把鋤에 突然驚  
 顧하다가 暴風驟雨가 倏爾復晴하니 一番喪亂은 非不慘酷이오  
 一時人情은 非不警動이나 譬如諺所謂 天崩에도 猶有出穴이라  
 深入丹陽金谷하야 安過幾朔하면 必有亂離平靖之一日하리니  
 我ㅣ 然後에 當向仁川大邱하야 如意行商坐賈할 것이오 蟄伏  
 茂朱龍潭하야 默送 幾年하면 必有天運回泰之一時하리니 我ㅣ  
 然後에 當赴增廣謁聖하야 摘得進士及第할지라 不在其位하얀  
 不謀其政하느니 吾輩는 白頭라 豈可憂國運이며 危邦不入하고  
 亂邦不居하느니 此時는 亂世라 豈可問國事리오 此國이 興하  
 야도 只是議政大監判書大監之所當慶이라 於汝에 何關이며 此  
 國이 亡하야도 只是參判令監丞旨令監之所共憂라 於我에 何與  
 리오 歸歟歸歟 긴저 北風其涼하고 雨雪其霏하느니 惠而好我로



携手同歸호야 掩耳不聞當世事호고 拾橡採藥에 保全一命호며  
 通鑑卷史畧卷으로 敎稚孫以記姓名호야 以圖後世門戶之光榮이  
 라 호고 語之以國家存亡호면 新羅高麗之代興을 吾亦嘗習見於  
 古史라 視之如金氏勢途 趙氏勢途에 此盛彼衰호며 諭之以列強  
 窺伺호면 凶奴突厥之侵犯을 吾亦曾慣聞於舊諺이라 信之如孟  
 監役馬中軍(火賊黨)輩에 既飽且去호느니 假令 幾十年以前에  
 有以波蘭史 埃及史 幾億萬帙로 戶戶刊佈라도 將無一人動心者  
 오 有如盧梭氏 孟德斯鳩氏 幾千百人이 處處演說이라도 將無  
 一人傾耳者어던 況乎 或聞或聾之丙子通商과 忽起忽敗之甲午  
 更張과 獨立協會之移時苦叫와 新聞記者之幾年啞哭으로 烏足  
 以一藥奏効에 輒成完人哉아 若至今日호야는 既以仁川八尾島  
 之一聲大砲로 震擊全國之朦昧耳根호며 繼以閔忠正之一尺血刀  
 로 劈開全國之頑固腦髓호고 加之以事機가 日迫에 風雲이 日  
 慘호야 三千里疆域에 遍埋藥彈호고 二千萬民族이 陷落地獄호  
 야 其生其死가 間不容髮이오 爲強爲弱이 在我自擇이니 彼奄  
 奄行尸에 未久入北邙之塚者도 吾且勿論호며 滔滔宦海에 甘作  
 民國之蠹而不恤者도 吾且勿問호고 彼漆室嫠婦에 具有一般之  
 秉彝者와 青年英才에 抱有前途之希望者는 呼天叫地而求保國  
 者ㅣ 當不知幾人이오 磨拳擦掌而圖保國者ㅣ 當不知幾人이니  
 我國民이 苟欲保國인딘 今其時哉며 今其時哉근저 此筆이 雖  
 秃이나 請與我同胞信男善女로 痛究保國之道호리니 (未完).

1907년 5월 7일, 보국론(속), 2면 1단, 사설

구미의 풍우가 우리나라를 휘감고 붉은 시체와 검은 귀신이  
 우리 민족을 불러 밋 삼고자 하리니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오직 오늘이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는 것 또한 오직 오늘이라. 오늘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이름) 요괴가 우리들의 뜻을 시험하는 날이요, 저 늙은 상제가 우리들의 진전을 북돋우는 날이니 우리 동포는 주저하지 말며 약점을 보이지 말지어다. 옛날 우리 백년의 긴 잠이 진실로 부끄럽고 지난 날 우리가 몇 번의 기회를 잃은 것이 진실로 심히 후회가 되지만 저 세상물정 모르는 선비는 왕왕 이것으로 인해 스스로 폄하하며 말하길, 우리나라는 과연 독립할 수 없고 우리 민족은 과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나니, 오호라, 이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을 하는 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 청컨대 우리 국민이 되어 한번 변론하리니 옛날 우리 국민이 비록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나 어찌 사랑하며 비록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나 어찌 보호하리오. 지금 무릇 전 세계가 합하여 한 나라가 되어 함께 일 군주를 받들며 함께 한 정부에 복무하고 언어가 한데 섞여 하나가 되고 풍속이 같아져서 황남백녀가 서로 결혼하고 구미와 아시아의 형제가 가까이 살면 이 때에 오히려 애국이 있다하니, 애국이라는 것이여! 아! 향하는 곳이 나의 나라이니 내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애국이며 또 혹 바다 가운데 외로운 섬에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우연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주장으로 세우며 도읍을 세우고 여기에서 살며 여기에서 죽으며 여기에서 밭갈고 여기에서 곡식을 뺏으며 여기에서 자손을 길러 바둑 두는 두 늙은이가 바둑판 바깥의 천지를 알지 못하고 무릉에 사는 사람이 어부가 나무터 묻는 것을 보지 못하여 작은 천지에 한가로이 있으면 이 땅에 오히려 보국이라는 것이 있으니 보국이라는 것이여! 아! 다른 나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또 무슨 일로 보국하리오. 이런 까닭으로 다른 나라가 있는 연후에 비로소 우리나라가 있음을 알고, 우리나라가 있음을 안 연후에 애국할 수 있고, 애국한 연후에

보국할 수 있으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니 우리나라가 역사가 있는 이래로 지금에 이르러서 4천여 년이나 그 사이 대외전쟁이 과연 몇 차례인가. 한무제 당태종은 멀어 다시 기록하지 못하며 여진 몽고는 아득하여 또한 이미 잊었고 태평성대에 적을 물리쳐 일상생활을 오직 내 뜻대로 하며 동서남북을 오직 향하는 바대로 하니 깊이 문을 닫아걸고 미치도록 부르짖은들 나를 책망할 자가 누구며 탄탄행로에 오락가락한들 나를 책망할 자가 그 누구리오. 종종 악몽은 갑자궐난<sup>108)</sup>, 임신서적<sup>109)</sup> 같은 것에 불과하고, 간간이 든 액운은 임진일병<sup>110)</sup>, 병자청국<sup>111)</sup> 등이라. 봄에 호미 잡고 이랑을 파는데 돌연 놀라 돌아봄에 사나운 비바람이 치다가 다시 밝아지니 첫 번째 상관은 참혹하지 앓음이 없음ियो, 인정은 한때 놀라지 앓음이 없으나 속담에 비유하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였다. 단양, 금곡으로 깊이 들어가 편안히 몇 달만 지나면 반드시 난리가 평정될 날이 있으리니 내가 연후에 인천, 대구로 향하여 장사하기를 뜻대로 할 것이요, 무주와 용담에 칩거하며 조용히 몇 년을 보내면 반드시 천운이 돌아올 때가 있으리니 내가 연후에 증광시와 알성시에 나아가 진사 급제 할지라. 그 지위에 있지 않고서는 그 정사를 도모하지 못하니 우리들은 벼슬하지 못했으니 어찌 국운을 걱정할 수 있겠으며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 거하지 않으니 이 때는 난세라, 어찌 국사를 물을 수 있으리오. 이 나라가 흥하여도 단지 의정대감판서대감이

---

108) 1624년, 이괄의 난.

109) 1812년, 홍경래의 난.

110) 1592년, 임진왜란.

111) 1636년, 병자호란.

축하할 일이라, 너와 무슨 상관이며 이 나라가 망하여도 단지 참관영감승지영감이 같이 걱정할 바라, 너와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북풍이 싸늘히 불더니 눈이 펄펄 날리누나. 사랑스럽게 나를 좋아하는 이와 손잡고 함께 돌아가서<sup>112)</sup>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며 세상일을 감당하고 도토리를 줍고 약초를 캐며 목숨을 보전하며 통감, 사략 책으로 어린 자손을 가르치고 성명을 기록하여 후세의 문호가 광영하길 도모함이라, 하고 국가존망으로 말하자면 신라, 고려대의 흥성함을 내 또한 일찍이 고사에서 익히 보았는지라, 김씨 세도, 조씨 세도를 보아하니 이에 성하고 저에 쇠하며 열강을 엿보아 논하자면 흉노, 돌궐의 침범을 내 역시 일찍이 옛말에서 익히 들었음이라. 맹감역, 마중군(화적당)<sup>113)</sup> 무리를 믿음에 배가 부르면 또 떠나가나니 가령 몇 십년 이전에 폴란드 역사, 이집트 역사 몇 억만 책이 있어 집집마다 간행하여 배포하더라도 장차 한 사람도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루소와 몽테스키 같은 몇 천백 인이 곳곳에서 연설을 하더라도 장차 귀 기울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하물며 혹 듣기도 하고 혹 듣지 못했던 병자통상과 홀연 일어나 홀연 패한 갑오경장과 독립협회의 시절에 따른 울부짖음과 신문기자의 몇 년 동안의 소리없는 울음이 어찌 약 한번으로 효과를 보아 갑자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겠는가. 오늘날에 이르러 이미 인천 팔미도의 대포 일성으로 전국의 어두운 귀를 쳐 울리며 민충정<sup>114)</sup>의 일 척 혈도로 이어서 전국의 완악

112) 《시경》 〈북풍(北風)〉에 나오는 구절로써, “사랑스럽게 나를 좋아하는 이와 손잡고 함께 가리라. 여유 부리며 천천히 할 수 있겠는가. 일이 이미 다급해졌는걸. [北風其涼 雨雪其雱 惠而好我 攜手同行 其虛其邪 既亟只且]”이라는 말이 나온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자 조정의 신하들이 서둘러 떠나는 것을 읊은 시이다.

113) 활빈당의 무리. 활빈당은 1900년 충청남도 일대에서 시작하여 남한 각지에서 반봉건주의와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들고 봉기했던 무장민중집단.

한 뇌를 열고 일의 기틀이 더해져 날이 저물어서는 풍운이 날로 참혹해져 삼천리 강역에 탄환이 두루 묻히고 이천만 민족이 지옥에 빠져 그 생사가 터럭만큼도 용납하지 못함이라. 강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내 선택에 달려 있으니 저 기진맥진한 몸으로 북망의 무덤에 들어간지 오래지 않아도 내가 또 따질 것이 없으며, 도도한 벼슬 바다에서 국민을 줌으로 만들어 놓고 구휼하지 않는 자도 내가 또 물을 것이 없고 저 칠실 과부<sup>115)</sup>에 일반적인 몇몇함이 갖추어져 있는 것과 청년 영재에 전도의 희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르짖으며 보국을 구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될지 알지 못함이요, 주먹을 문지르고 손을 비비며 보국을 도모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될지 알지 못하니 우리 국민이 만일 보국하고자 할진대 지금이 그 때이며 지금이 그 때도다. 이 붓이 비록 부족하나 우리 동포, 믿음직한 남아와 선한 여아와 더불어 보국의 길을 힘써 궁구하길 청한다 (미완).

### 1907년 5월 8일, 國內日人戶口, 1면 3단, 기사

去月末에 我國에 在ᄃᆞᆫ 日本人의 戶口를 調査함이 如左ᄃᆞᆫ니  
釜山戶四千廿一, 口一萬五千八百七十九 京城戶三千五百七十四,  
口一萬二千六百五十一 仁川戶二千九百七十八, 口一萬二千六百三十三  
元山戶一千三十八, 口四千九百十九 平壤戶一千五

114)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은 대한제국 시기 내부대신, 군법교정총재 등을 역임한 문신, 1905년 11월 옥사늑약 직후 매국오적의 처단과 조약 파기를 부르짖다가 자결 순국하였다.

115) 칠실지우(漆室之憂). 제 분수에 넘치는 일을 근심함을 말함. 그러나 나라 일을 근심하는 뜻으로도 사용함. 칠실(漆室)은 노(魯)나라의 고을 이름. 옛날 칠실의 천한 여인이 나라 일을 근심하였다는 고사에서 온 말. 칠실은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방이란 설도 있고, 노나라의 작은 읍의 지명이라는 설, 혹은 왕실을 말한다는 설도 있음.

百二十三, 口四千八百四十三 甌南浦戶七百四十二, 口二千八百卅二 木浦戶五百七十五, 口二千三百八十七 大邱戶六百六十三, 口二千二百二十二 義州戶五百十六, 口一千八百四十六 群山戶四百五十八, 口一千七百六十 龍山戶五百四十一, 口一千五百六十四 馬山戶三百七十三, 口一千四百十 開城戶三百二十一, 口一千十二 咸興戶二百八十七, 口九百三十八 太田戶二百七十二, 口九百二十八 ..... 이라더라.

### 1907년 5월 8일, 국내 일본인 호구, 1면 3단, 기사

지난달 말에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의 호구(戶口)를 조사한 바가 다음과 같다. 부산의 호구는 4,021가구, 인구 15,879명, 경성의 호구는 3,574가구, 인구 12,651명, 인천의 호구는 2,978가구, 인구 12,633명, 원산의 호구는 1,038가구, 인구 4,919명, 평양의 호구는 1,523가구, 인구 4,843명, 진남포의 호구는 742가구, 인구 2,832명, 목포의 호구는 575가구, 인구 2,387명, 대구의 호구는 663가구, 인구 2,222명, 의주의 호구는 516가구, 인구 1,846명, 군산의 호구는 458가구, 인구 1,760명, 용산의 호구는 541가구, 인구 1,564명, 마산의 호구는 373가구, 인구 1,410명, 개성의 호구는 321가구, 1,012명, 함흥의 호구는 287가구, 938명, 대전의 호구는 272가구, 인구 928명 ..... 이라더라.

### 1907년 5월 8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富平下梧面鵲洞 閔泳淑 五拾錢 閔庭植 二圓 閔奎植 五拾錢 閔鴻基 一圓 閔元植 拾五錢 閔丙五 二拾錢 閔丙壽 五拾錢 閔內孝 拾錢 閔俊식 二拾錢 閔岐植 拾五錢 閔敬基 拾錢 閔恒

植 二拾五錢 閔順基 拾五錢 韓基源 三十錢 韓義東 韓和東 各  
 廿錢 俞鎮台 一圓 俞永言 俞化順 各十錢 俞禹凡 十五錢 俞致  
 伯 二十錢 尹相鎮 三拾錢 池學甫 二十錢 白致云 三十錢 嚴中  
 連 二十錢 嚴中浩 河仁宣 各 拾錢 申윤先 拾五錢 文永涉 拾  
 錢 李德有 五錢 姜順如 李東榮 各二拾錢 金占龍 拾錢 俞聖必  
 五拾錢 鄭宇教 鄭禹錫 鄭윤錫 鄭基錫 各拾錢 鄭明教 廿錢 鄭  
 孝錫 鄭斗錫 各拾錢 合 新貨 拾一圓三拾五錢

金浦郡黔丹面束沙串里 沈俊식 一圓 沈을 金錫殷 리敎高 梁澤  
 華 權常五 權光允 權德五 各五拾錢 李聖模 拾錢 權學洙 柳在  
 九 李炳模 金錫完 各二拾錢 柳魯麟 權炳錫 리영壽 李召史 各  
 拾錢 梁在龜 二拾錢 合 新貨 六圓

江華長峰島 趙鏞敎 拾圓 池成甫 五圓 林公植 崔聖弼 各 二圓  
 朴承昌 金錫玄 金昌甫 金君星 各一圓 李春浩 鄭淵鎔 各 六拾  
 錢 리景九 張聖奎 劉光雲 曷聖五 최宅煥 鄭斗鎔 各 五拾錢  
 金道謙 金汝昌 各卅錢 金儀卿 四拾錢 鄭鼎基 金景一 朴允甫  
 李淳七 黃時仁 各 三拾錢 崔常春 八拾錢 鄭範鎔 李永弼 鄭德  
 鎔 車聖根 鄭善基 羅宜夏 李淳弼 鄭炳一 리老田 崔淳元 洪公  
 弼 慎聖學 鄭舜卿 金永先 各廿錢 金允甫 姜漢錫 各拾錢 合  
 新貨 三拾三圓五拾錢 ……

1907년 5월 8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중인원 및 액수, 3면 1  
 단, 광고

…… 부평 하오면 작동 민영숙 50전, 민정식 2원(圓), 민규식  
 50전, 민흥기 1환(圓), 민원식 15전, 민병오 20전, 민병수 50  
 전, 민내효 10전, 민준식 20전, 민기식 15전, 민경기 10전,  
 민항식 25전, 민순기 15전, 한기원 30전, 한희동, 한화동 각  
 20전, 유진태 1환, 유영언, 유화순 각 10전, 유우범 15전, 유

치백 20전, 윤상진 30전, 지학보 20전, 백치운 30전, 엄중런 20전, 엄중호, 하인선 각 10전, 신윤선 15전, 문영섭 10전, 이덕유 5전, 강순여, 이동영 각 20전, 김점룡 10전, 유성필 50전, 정우교, 정우석, 정윤석, 정기석 각 10전, 정명교 20전, 정효석, 정두석 각 10전, 합 신화(新貨) 11환 35전.

김포군 검단면 속사곶리 심준식 1환, 심을, 김석은, 이교설, 양택화, 권상오, 권광윤, 권덕오 각 50전, 이성모 10전, 권학수, 류재구, 이병모, 김석완 각 20전, 류노린, 권병석, 이영수, 이소사 각 10전, 양재구 20전, 합 신화(新貨) 6환.

강화 장봉도 조용교 10환, 지성보 5환, 임공식, 최성필 각 2환, 박승창, 김석현, 김창보, 김군성 각 1환, 이춘호, 정연용 각 60전, 이경구, 장성규, 유광운, 박성오, 최택환, 정두용 각 50전, 김도겸, 김여창 각 30전, 김의경 40전, 정정기, 김정일, 박윤보, 이순칠, 황시인 각 30전, 최상춘 80전, 정범용, 이영필, 정덕용, 차성근, 정선기, 나의하, 이순필, 정병일 이노전, 최순원, 홍공필, 신성학, 정순경, 김영선 각 20전, 김윤보, 강한석 각 10전, 합 신화(新貨) 33환 50전 .....

### 1907년 5월 9일, 仁川千起義塾, 1면 4단, 기사

仁川港牛角洞千起義塾은 本港有志紳士諸氏가 發起한 事는 前報에 概揭하였거니와 該塾基址를 三千四百五十圓으로 買入하고 建築費는 爲先二千圓으로 算定하여 洋製로 新建하였는디 該金額은 昨年中의 紳商會社에서 二千圓과 米商會社에서 一千圓과 其他 各社會에서 幾百圓式 義捐한 바오 本府尹 金潤晶氏와 紳士 鄭在洪氏가 熱心贊助하여 期圖完成하는디 日昨에 京城居 紳士 徐丙轍氏를 請邀하고 港內各社會主任과 該面長及各洞尊位領所任을 會集하여 維持方針과 任員組織을 議決



하얏는디 紳商會社에서 每朔 三十圓式 米商會社에서 每朔 二十圓式 柴炭會社에서 每朔 十圓式 金鳳儀氏가 每朔 三圓式 自擔出捐하야 永久維持하기로 確定하며 其他 某某社會와 或 個人的으로 出義할 諸氏가 尙多하다 하고 任員은 塾長에 徐丙轍氏오 塾監에 金允星 南基薰氏오 總教師는 李鍾濬氏오 副教師 二人은 現方選任할 터이오 學監은 總教師가 姑爲兼行한다 하니 該港有志諸氏의 熱心教育하는 義務와 塾長教師를 社會上 名譽人으로 推選함이 實노 開進文明의 基礎 | 라고 聞者 莫不讚賀하더라.

#### 1907년 5월 9일, 인천 천기의숙, 1면 4단, 기사

인천항 우각동 천기의숙<sup>116)</sup>은 본항의 유지 신사(紳士) 여러 명이 발기(發起)한 것은 앞서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 의숙의 터를 3,450환(圓)으로 매입하고 건축비는 우선 2,000환으로 산정하여 서양식으로 신축하였는데, 이 금액은 작년에 신상회사(紳商會社)<sup>117)</sup>에서 2,000환과 미상회사(米商會社)에서 1,000환, 기타 각 회사에서 기 백 환씩 기부한 것이다. 인천항 부윤(府尹) 김윤정(金潤晶)<sup>118)</sup> 씨와 신사 정재홍 씨가 열심히 찬조하고 기약하여 완성하였다. 몇일 전에 경성에 사는 신사 서병철 씨를 초청하고 인천항 내 각 회사의 주임과 면장(面長) 및 각 동(洞)의 우두머리 분들을 화합하여 유지(維持) 방침

116) 천기의숙은 정재홍(鄭在洪, 1867~1907)을 비롯한 인천의 유지 신사(紳士)들이 지역의 교육계몽을 위해 설립한 학교로 1907년 5월 16일 인명학교로 교명을 개명하였다.

117) 1880년대 초 개항장 인천에서 서상집, 박명규 등의 상인이 주체가 되어 조선상인의 상권 보호를 위해 결성된 객주조합으로 신상협회(紳商協會)라고도 불렸고, 1905년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118) 김윤정(金潤晶, 1869~1949)은 1906년 인천부윤에 임명되어 인천항제판소 판사와 관립 인천일어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으나, 이후 조선총독부 관리를 역임하고 일제의 전쟁에 협력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여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과 임원조직을 의결하였다. 신상회사에서 매달 30환씩, 미상 회사에서 매달 20환씩, 시탄회사(柴炭會社)에서 매달 10환씩, 김봉의(金鳳儀) 씨가 매달 3환씩 부담 출연하여 영구 유지하기로 확정하며, 기타 모모 회사와 혹 개인적으로 출연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한다. 임원은 숙장(塾長)에 서병철 씨, 숙감(塾監)에 김윤성·남기훈 씨, 총교사(總教師)는 이종준 씨, 부교사(副教師) 2인은 조만간 선임할 것이고, 학감(學監)은 총교사가 우선 겸한다고 하니, 인천항 유지 여러 사람의 열심 교육하는 의무(義務)와 숙장·교사를 사회의 명예인으로 추천하는 것이 실로 문명(文明)으로 나아가는 기초라 듣는 자들이 찬하(攢賀)할만 하더라.

#### 1907년 5월 9일,恤金頒賜, 2면 4단, 기사

仁川港本日人居留地內에서 二月分에 失火호야 内外國人家가 多數 延燒호은 已爲揭報어니와 日本皇帝及皇后兩陛下게옵서 勿論内外國人호고 被燒每戶에 救恤金 一圓五十七錢五厘式과 義捐金 四圓六十五錢式을 支給호섯다더라.

#### 1907년 5월 9일, 구휼금을 내려 주심, 2면 4단, 기사

인천항 일본인거류지 내에서 2월에 실화(失火)로 내외국인 집이 다수 연소한 것은 이미 게재하였는데, 일본 황제 및 황후 두 폐하께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피소(被燒) 매 가구에 구휼금 1원 57전 5리씩과 의연금 4원 65전씩을 지급하였다더라.

1907년 5월 10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江華下道面上坊洞 金長鉉 李學寬 各 一百兩 晝性默 金振默 金義弘 李常郁 各五拾兩 子鎮壽 拾兩 次子鎮奎 二拾五兩 辛承道 李明植 李鎮九 閔載弘 各二拾五兩 金萬錫 三拾兩 李鉉植 李儀植 尹顯燦 陶河英 李常彬 金澤鳳 各二拾五兩 尹達勳 辛敬善 閔載八 李時哲 全泰順 朴進元 李慶玉 姜漢永 各二拾兩 金漢卿 拾五兩 南定元 拾二兩五錢 李慶星 柳鶴永 李智永 李命會 李建三 朱炳文 金鳳周 全■福 金돌錫 閔載三 金永祚 李錫浩 李慶春 禹■淵 沈遠斗 盧昌洙 金宜창 柳德汝 申順伯 李敬鉉 禹一淵 金守甫 金判錫 李熙明 金창明 韓先學 高基甫 各拾兩 金千守 八兩 金奉淳 七兩五錢 金浩錫 六兩 辛承憲 金長烈 李富相 金勝春 金光榮 李善交 俞福萬 文有成 金士建 各五兩 金辰鳳 三兩 合 當五 一千二百四拾二兩 ……

1907년 5월 10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강화 하도면 상방동 김장현, 이학관 각 100냥(兩) 최성묵, 김진묵, 김의홍, 이상욱 각 50냥, 아들 진수 10냥, 둘째 아들 진규 25냥, 신승도, 이명직, 이진구, 민재홍 각 25냥, 김만석 30냥, 이현식, 이의직, 윤현찬, 도하영, 이상빈, 김택봉 각 25냥, 윤달훈, 신경선, 민재팔, 이시철, 전태순, 박진원, 이경옥, 강한영 각 20냥, 김한경 15냥, 남정원 12냥 5전, 이경성, 류학영, 이지영, 이명희, 이견삼, 주병문, 김봉주, 전■복, 김돌석, 민재삼, 김영조, 이석호, 리경춘, 우■연, 심원두, 노창수, 김의창, 류덕여, 신순백, 이경현, 우일연, 김수보, 김판석, 이희명, 김창명, 한선학, 고기보 각 10냥, 김천수 8냥, 김

봉순 7냥 5전, 김호석 6냥, 신승헌, 김장렬, 이부상, 김승춘, 김광영, 이선교, 유복만, 문유성, 김사건 각 5냥, 김진봉 3냥. 합 5,242냥. ....

**1907년, 5월 11일, 製鹽將始, 2면 3단, 기사**

度支部에서 仁川朱安面十井里와 東萊石南面龍洞里에 日本式 製鹽田을 爲先開始한다더라.

**1907년, 5월 11일, 제염을 장차 시작함, 2면 3단, 기사**

탁지부에서 인천 주안면 십정리와 동래 석남면 용동리에서 일본식 염전을 우선 시작한다고 한다더라.<sup>119)</sup>

**1907년 5월 13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仁川府前通譯官補 崔旭榮 解兼任仁川港裁判所通譯官補 △全羅南道觀察道前通譯官補 崔益夏 解兼任全羅南道裁判所通譯官補 △兼任仁川港裁判所通譯官補 仁川府通譯官補 崔益夏 ..... △任仁川府主事敍判任官八級 九品 崔章燮 以上五月九日 .....

**1907년 5월 13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인천부 전 통역관보 최옥영을 겸임(兼任) 인천항재판소 통역관보에서 해임 △전라남도 관찰도 전 통역관보 최익하를 겸임 전라남도재판소 통역관보에서 해임 △겸임 인천항재판소 통역관보 인천부 통역관보 최익하 ..... △임명 인천부 주사 부여 판임관 8급 9품 최장섭. 이상 5월 9일 .....

---

119) 1907년 일본 대장성의 조사와 자문에 기초하여 인천 주안면 십정리에 중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최초로 시험용 염전 1정보(3,000평)를 축조했는데, 중국이나 대만보다 양호한 천일염이 생산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190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 1907년 5월 13일, 鐵道改築, 2면 4단, 기사

農商工部에서 仁川 富平 始興 果川 廣州 等郡에 訓令하되 京仁鐵道を 自永登浦로 至仁川港까지 軌道改良하는 事에 對하야 實地調査次로 本部官吏를 派送하니 現行線路附近地에 洞頭民 一人式을 預先指揮하야 來十五日에 來待該地하야 調査之場에 無至窘速케 하라 하였더라.

### 1907년 5월 13일, 철도 개축, 2면 4단, 기사

농상공부에서 인천, 부평, 시흥, 과천, 광주 등 군에 훈령(訓令)을 내렸다. 경인철도를 영등포부터 인천항까지 궤도 개량하는 일에 대하여 실지 조사차로 본부 관리를 파송하니, 현행 선로(線路) 부근지의 동두민(洞頭民)<sup>120)</sup> 1인씩에게 먼저 알려서 오는 15일에 그 장소에서 기다리게 하여 조사 장소에서 곤란을 겪지 않게 하라 하였더라.

### 1907년 5월 13일, 度訓三郡, 2면 6단, 기사

度支部에서 果川, 仁川, 始興 三郡에 訓令하되 本部所管水道局經營에 關한 仁川水道에 送水하기 爲하야 自果川郡鷺梁津水源地로 至仁川府松林山松林里配水池間에 鐵道を 埋設하깃기 其線路는 已了測量하고 木抹를 插置인 바 京仁鐵道各驛相距는 自永登浦驛으로 北一里半이오 自梧柳洞驛으로 十里오 自素沙驛으로 北九里오 自富平驛으로 北三리에 位置를 通過하며 線路의 幅은 工事結了之前에는 難可確定이나 平均三間을 要하깃스며 民有地는 竣工後에 廣狹及等級을 精査하야 相當한 代價를 支給하깃스며 自京仁鐵道로 至各驛所用으로 前

---

120) 예전에 한 동네에서 나이가 많고 식견이 높은 사람을 이르던 말이다.

記各驛과 送水線路間에 輕便鐵道加設하기 爲하야 平均幅一間에 土地를 一時使用하고 其中 民有地는 使用後에 相當補償支給하깃기로 訓令하니 爲此眞諺翻飭于各該洞하야 使民人으로 咸悉無誤케 하라 하였더라.

### 1907년 5월 13일, 탁지부에서 3군에 훈령을 내리다, 2면 6단, 기사

탁지부에서 과천, 인천, 시흥 3군에 훈령을 내렸다. 본부 소관 수도국 경영과 관련하여 인천수도에 송수(送水)하기 위해 과천군 노량진 수원지로부터 인천부 송림산 송림리 배수지까지 철도를 매설하는 것으로 그 선로는 이미 측량했고 목재를 쫓아 두었다. 경인철도의 각 역 간의 거리는 영등포역부터 북으로 1리 반이고, 오류동역으로부터 10리고, 소사역으로부터 북으로 9리고, 부평역으로부터 북으로 3리의 위치를 통과한다. 선로의 폭은 공사 완료 전에는 확정하기 어려우나 평균 3칸(間)이 필요하겠으며, 민유지는 준공 후에 광협 및 등급을 조사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겠다. 경인철도부터 각 역의 소용(所用)으로 앞서 언급한 각 역과 송수(送水) 선로 간에 편리한 철도를 가설하기 위해 평균 폭 1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 그 중 민유지는 사용 후에 상당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훈령하니, 이를 위해 참된 말로 각 해당 동(洞)에 번칙(翻飭)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오해하지 않게 하라 하였더라.

### 1907년 5월 14일, 園遊開會, 2면 4단, 기사

再昨日下午三時에 仁川港에서 桃山園遊會를 開設하였는데 漢城府尹 朴義秉氏가 往參하였다가 同六時에 還邸하였다더라.

**1907년 5월 14일, 원유회 개최, 2면 4단, 기사**

그저께 오후 3시에 인천항에서 도산(桃山) 원유회(園遊會)를 개설하였는데, 한성부윤 박의병(朴義秉) 씨가 직접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6시에 집으로 돌아갔다더라.

**1907년 5월 14일, 文明錄<sup>121)</sup>, 3면 1단, 광고**

襄陽郡守 南宮攄氏 書記 主事 八圓六十四錢 仁港警署 四圓九十五錢 太極殿直所 十圓 茂山郡守 張樂臣氏 主事 書記 八圓六十四錢 李稱翼氏 一圓四十錢 宋淳斗氏 一圓四十錢 雲峴宮 一圓五錢 趙重益氏 一圓五十七錢五里 盧伯麟氏 一圓五錢 金敎錫氏 一圓五錢 朴慶陽氏 一圓五十七錢五里 尹定老氏 一圓五錢 李鎔浩氏 一圓五錢.

**1907년 5월 14일, 문명록, 3면 1단, 광고**

양양군수 남궁익 씨, 서기, 주사 8환 64전, 인천항 경찰서 4환 95전, 태극전(太極殿)<sup>122)</sup> 직소(直所)<sup>123)</sup> 10원, 무산군수 장악신 씨, 주사, 서기 8환 64전, 이칭익 씨 1환 40전, 송순두 씨 1환 40전, 윤현궁 1환 5전, 조중익 씨 1환 57전 5리, 노백린 씨 1환 5전, 김교석 씨 1환 5전, 박경양 씨 1환 57전 5리, 윤정로 씨 1환 5전, 이용호 씨 1환 5전.

**1907년 5월 15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江華松亭面崇雷洞 朴聖源 七十五兩 兪化三 朴황 朴俊弼 各五

121) 황성신문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기부행위.

122) 대한제국 시기 궁궐 안에서 황제가 각국 사절을 접견하던 건물의 명칭이다.

123) 여럿이 차례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곳.

十兩 柳창燮 朴鍵 尹萬守 尹道榮 李仲玉 具元中 各三十兩 李應守 朴學先 劉俊秀 各二十五兩 李仲賢 姜德日 各二十兩 柳善玉 卞聖煥 朴致良 柳相順 朴京周 朴太賢 李應若 各十五兩 朴來云 姜德在 黃允熙 全영培 申京化 卞聖德 李元三 朴俊敏 洪景章 姜德守 柳文浩 全汝固 李吉鳳 柳元浩 各十兩 朴應三 朴致浩 俞先俊 朴聖聿 리順五 朴成根 朴應大 各五兩 合當五 八百兩 …… 江華郡松亭面浦村洞 宋奎成 二十錢 李德成 李奉允 各十五兩 崔賢奎 張元明 李時會 李石甫 張良돌 金學俊 丁箕瑞 高黃山 尹昌瑞 千箕延 金在銀 리鳳鶴 張永植 高千萬 張仁弘 各十兩 李元叔 朴千石 張謹元 張明福 朱銀用 田致道 姜義永 各五兩 合當五 二百三拾五兩 ……

### 1907년 5월 15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중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강화 송정면 수뢰동 박성원 75냥, 유화삼, 박황, 박준필 각 50냥, 류창섭, 박진, 윤만수, 윤도영, 이중옥, 구원중 각 30냥, 이응수, 박학선, 유준수 각 25냥, 이중현, 강덕일 각 20냥, 류선옥, 박성환, 박치량, 류상순, 박경주, 박태현, 이응약 각 15냥, 박래운, 강덕재, 황윤희, 전영배, 신경화, 박성덕, 이원삼, 박준민, 홍경장, 강덕수, 류문호, 전여고, 이길봉, 류원호 각 10냥, 박응삼, 박치호, 유선준, 박성율, 이순오, 박성근, 박응대 각 5냥, 합 당오전 800냥 …… 강화군 송정면 포춘동 송규성 20전, 이덕성, 이봉윤 각 15냥, 최현규, 장원명, 이시회, 이석보, 장량돌, 김학준, 정기서, 고헌산, 윤창서, 천기연, 김재은, 이봉학, 장영식, 고천만, 장인홍 각 10냥, 이원숙, 박천석, 장근원, 장명복, 주은용, 전치도, 강희영 각 5냥, 합 당오전 235냥 ……



1907년 5월 16일, 仁塾改名, 1면 4단, 기사

仁川港牛角洞私立義塾을 以千起名之러니 名稱이 未洽흔 줄노  
士論이 多하야 仁明으로 改稱하얏더라.

1907년 5월 16일, 인천 의숙 개명, 1면 4단, 기사

인천항 우각동 사립 의숙(義塾)을 천기(千起)로 이름을 지었  
는데, 그 명칭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아 인명(仁明)으로 개  
칭하였더라.

1907년 5월 17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南陽利洞 鄭致雲 二十錢 仁川港內洞 趙容九 一圓二十五錢  
.....

1907년 5월 17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중인원 및 액수, 3면 1  
단, 광고

남양군 리동(利洞) 정치운 20전, 인천항 내동(內洞) 조용구  
1환 25전 .....

1907년 5월 18일, 三倅請願, 2면 2단, 기사

曩時에 新任흔 江華郡守 李祖鉉 天安郡守 呂炳鉉 兩氏와 時  
在江西郡守 李宇榮氏가 一切 辭職請願하얏다더라.

1907년 5월 18일, 세 군수의 청원, 2면 2단, 기사

지난번에 새로 부임한 강화군수 이조현, 천안군수 여병현 두 명  
과 지금 강서군수 이우영 씨가 모두 사직(辭職) 청원하였더라.

**1907년 5월 21일, 普校運動, 2면 4단, 기사**

江華普昌各學校에서 今日上午八時에 大運動을 行한다더라.

**1907년 5월 21일, 보창학교 운동, 2면 4단, 기사**

강화 보창(普昌) 각 학교에서 오늘 오전 8시에 대운동을 행한다더라.

**1907년 5월 21일, 宜急還緩, 2면 4단, 기사**

本月十六日에 京仁鐵道を 自永登浦로 至仁川까지 軌道を 改良하는 沿路의 犯入地段을 實地調査測量次로 農商工部에서 官吏를 派送하고 附近洞頭民을 定期擇送하라고 各該附近 郡守에게 訓令하였다 흠은 已揭어니와 一民도 來待흠이 無하여 不爲調査하였고 來二十三日로 更爲退定하고 再次 發訓하되 又復如前疎忽이면 該郡守는 斷當嚴懲이라 하였더라.

**1907년 5월 21일, 서둘러 늦지 않게 하라 , 2면 4단, 기사**

이번 달 16일에 경인철도를 영등포부터 인천까지 궤도(軌道)를 개량하는 길 옆에 포함되는 지단(地段)을 실지 조사 측량차로 농상공부에서 관리를 파송하고, 인근의 동두민(洞頭民)을 정해진 기간에 뽑아서 보내라고 각 군수에게 훈령하였다고 한 것은 이미 게재하였다. 그런데 한 사람도 와서 기다리는 것이 없어 조사하지 못 했고, 오는 23일로 다시 미루어 기간을 정하고 재차 훈령을 보내니, 또다시 전과 같이 소홀히 하면 해당 군수를 결단코 엄정하겠다고 한다.

**1907년 5월 21일, 仁校開塾式, 2면 4단, 기사**

仁川仁明學校에서 今日에 開塾式을 舉行한다더라.

1907년 5월 21일, 인명학교 개숙식, 2면 4단, 기사  
인천인명학교에서 오늘 개숙식(開塾式)을 거행한다더라.

1907년 5월 21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仁川海關會同第二回 姜準 張箕彬 卍敏泳 各二환 卍熙敏  
姜繼鶴 卍裕寬 沈膺澤 玄根 姜範植 各一환 卍容仁 卍東현 各  
五十錢 秦學民 韓英俊 劉始童 各二拾錢 林完實 三拾錢 卍龍  
安 洪永云 各廿五錢 朱云西 卍允敬 洪永順 河永九 尹亨祿 春  
慶春 卍光雲 各二拾錢 呂守昌 卍在瑞 洪영學 各三拾錢 合 新  
貨 十六圓八十錢 ……

1907년 5월 21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 인천해관(仁川海關) 회동(會同) 제2회 강준, 장기빈, 이  
민영 각 2환, 이희민, 강계학, 이유관, 심응택, 현근, 강범식  
각 1환, 이용인, 이동현 각 50전, 진학민, 한영준, 유시동 각  
20전, 임완실 30전, 김용안, 홍영운 각 25전, 박윤경, 홍영순,  
하영구, 윤형록, 춘경춘, 김광운 각 20전, 여수창, 김재서, 홍  
영하 각 30전, 합 신화(新貨) 16화 80전 .....

1907년 5월 22일, 農照度支, 2면 3단, 기사

農商工部에서 度支部에 照會하되 京仁鐵道改良工事に 對하여 自永登浦로 至仁川까지 犯入하는 地段實地를 鱗次로 調査測量하기 爲하여 本月二十三日로 爲始할것기로 弊部에서 官吏를 特爲派送인 바 貴部에서도 官吏를 選定派遣하여 伴行調査케 하라 하얏다더라.

1907년 5월 22일, 농상공부가 탁지부를 조회하다, 2면 3단, 기사

농상공부에서 탁지부에 조회(照會) 했는데, 경인철도 개량공사에 대하여 영등포부터 인천까지 포함되는 지단(地段) 실지(實地)를 연이어 조사 측량하기 위해 이번 달 23일 시작하려고 우리 부에서 관리를 특별히 파송한 바, 귀 부에서도 관리를 정해 파견하여 동행 조사케 하엿다더라.

1907년 5월 23일, 志士義捐, 1면 3단, 기사

公州郡 金在勉氏가 本社에 補助金 二圓을 寄付하얏고 仁川龍洞 辛奭柱氏가 本社에 十錢을 寄付하얏더라.

1907년 5월 23일, 지사 의연, 1면 3단, 기사

공주군 김재면 씨가 본사에 보조금 2환을 기부하였고, 인천 용동(龍洞)의 신석주 씨가 본사에 10전을 기부하였더라.

1907년 5월 23일, 仁塾盛況, 1면 3단, 기사

仁川港有志紳商諸氏가 敎育에 熱心으로 牛角洞에 基址를 三千환으로 買收하야 仁明義塾을 新設하고 昨日에 開塾式을 設行하얏는디 塾長 尹政昨氏가 一場演祝에 激勵感發함과 紳士諸氏가 次第 演述함이 抑揚勸勉하야 現狀에 盛美와 來頭에 漸就는 塾長 尹氏의 敎育上 敏活한 手段과 發起贊成하신 諸氏의 奮發한 腦力을 因하야 大將進흥 希望이 有하더라.

1907년 5월 23일, 인명의숙 상황, 1면 3단, 기사

인천항 유지 신상(紳商) 여러 명이 敎育에 노력으로 우각동에 그 터를 3천환으로 매수하여 인명의숙(仁明義塾)을 신설

하고 어제 개숙식(開塾式)을 거행하였는데, 숙장(塾長) 윤정 오씨가 일장 축사에 격려감발(激勵感發) 함과 신사 여러 명이 이어서 연술(演述) 함의 억양(抑揚)이 권면(勸勉)하여, 현재의 성미(盛美)와 앞날로 나아가 이루는 것은 숙장(塾長) 윤씨의 교육상 민활(敏活)한 수단과 발기(發起)에 찬성한 여러 명이 분발한 노력(腦力)으로 인하여 대장진(大將進)할 희망이 있다고 한다.

### 1907년 5월 27일, 江華大運動景況, 1면 4단, 기사

現今 教育家로 第一指屈數호는 普昌學校長 李東暉氏가 江華郡內에 所有호는 普昌學校와 各里各村에 所在支校 三拾二校와 鄰近各郡公私立學校 合 三十八校에 公函호야 春期聯合大運動을 開호는디 學徒가 一千一百八十餘名이오 女學徒가 二十餘名이라 本月二十一日에 東門外鍊兵場에다 設場호고 運動科目 二十二條를 次第 設行호는디 來賓은 京鄕有志紳士가 咸集호얏고 女賓이 亦不下數千人이오 帳幕布陳의 具備함과 茶果食料의 豐足함은 本郡內贊成諸員과 耶蘇教會와 義務社諸氏의 誠心誠力이 自然團體를 成立호는 所以라 各項 競走의 運動을 十科에 纔過호야 忽然 天陰雨下호야 勢不得停止解散호는지라 當場에 各 學徒父母가 此天然의 殺風景을 十分 愛惜호야 一齊히 會所에 口舌로 請願호기를 今既雨注廢會則 來日待天晴호야 繼續了畢호자 호며 會中認可를 得호는 後에 一般 來賓과 各處學徒의게 夕飯과 朝飯等 食料饌品을 分掌호며 市陳物品을 達宵把守호야 翌日 繼行호얏스니 子孫의 學務를 爲호야 如彼호는 誠意는 令人欽歎不已者러라 該運動科程中 新發明호는 科目은 防禦攻擊이니 十歲內外된 學徒 一百名을 抄出호야 五十名式 分作兩小隊호고 一小隊는 砲隊帽子肩章服裝을 着호야 大

砲 一坐를 左右列로 繩을 牽히며 該小隊長이 執刀領率前進케  
 ㅎ얏고 一小隊는 步兵帽子笠前毛를 插히며 步兵肩章에 曲號  
 兵 一雙이 該小隊長을 隨히야 前進ㅎ얏고 又十五歲內外學徒  
 六十名은 輕裝을 着히고 靑紅巾으로 頭部를 裹히야 最後列이  
 되야 決死隊貌樣을 ㅎ얏고 二十歲內外學徒 十名은 赤十字票  
 를 右臂에 付히며 擔輦器具를 持히고 該旗號를 隨行ㅎ얏는디  
 敵陣形勢는 運動場一邊에 學徒 五十名이 一城을 擁護흔 모양  
 이오 城內高壘에 敵將이 一旗를 執히고 號令挑戰히며 外面에  
 는 學徒 二百名이 一字長蛇陣을 開ㅎ얏더라 小焉에 兩陣에서  
 砲聲이 連發히야 一場을 酣鬪할 際에 砲隊에서 遠距離로 大  
 砲를 發射히되 敵勢가 堅固히야 卒莫衡突터니 後列決死隊가  
 一齊蜂擁而來히며 長蛇陣을 破潰케 ㅎ며 敵壘護兵을 殺散히  
 고 敵旗를 拔取할식 一邊에서는 赤十字軍이 死傷兵을 擔去히  
 고 一邊에서는 捕虜兵을 結縛捉來히야 一場大戰鬪를 經過흔  
 후에 萬歲三唱히고 軍歌를 唱히며 一陣將卒이 各各受賞而歸  
 ㅎ얏스니 可謂稀罕흔 運動科程일너라 當日上午二時에 各樣  
 運動二十二條를 畢흔 후에 茶果를 進히고 演說會를 開히니  
 男女老少와 各處學徒가 萬數에 洽滿히디 言壇을 周圍히여 整  
 齊히 坐定흔 후 職員演說은 魚鎔善氏요 來賓演說은 廬伯麟  
 姜祖源 劉元杓 三氏요 婦人演說은 許氏가ㅎ엇는디 傍聽人中  
 通津居 前參判 李寅轍氏가 今年 六旬인디 言權을 請得히여  
 演說을 ㅎ는디 今日 國家의 如此悲境을 當흔은 政府의 暗弱  
 과 人民의 蒙昧흔이라고 一場痛論흔 즉 滿場一致로 喝采히기  
 를 如彼흔 老宰의 健康은 世所稀罕이어니와 我朝縉紳章甫가  
 多數히얏다면 國勢가 此境에 不至히얏스리라고 ㅎ얏고 劉元  
 杓氏演說中에 曰히되 余가 今春 聯合大運動을 三處에 參觀히  
 얏는디 平南二十三郡大運動에는 有志人士의 團體力이 可敬할

빅오 訓練院公私學徒大運動에는 規則方範이 可敬홀 빅오 此江華大運動에는 人力物品이 可敬홀 비라 ㅎ앗더라 演說을 畢흔 후에 李東暉氏가 登壇ㅎ야 餘興이라고 四十二件의 遊戲를 ㅎ고 散會ㅎ앗다더라.

### 1907년 5월 27일, 강화 대운동 경황, 1면 4단, 기사

현금의 교육가로 제일 으뜸인 보창학교장(普昌學校長) 이동휘(李東暉) 씨가<sup>124</sup> 강화군 내에 소유한 보창학교와 각리 각촌의 소재한 지교(支校) 32교와 인근 각 군의 공사립학교 도합 38개교에 공문을 보내, 춘기 연합 대운동을 열었는데 학도가 1,180여 명이고, 여학도가 20여 명이다. 이번 달 21일에 동문(東門) 밖 연병장(鍊兵場)에다 운동장을 만들고, 운동 과목 22조(條)를 차례대로 설행(設行)하는데, 내빈은 경향(京鄉) 유지 신사가 모였고, 여성 내빈 또한 수천인으로 적지 않고, 장막(帳幕) 포진의 구비함과 다과 식료(食料)의 풍족함은 본 군 내의 찬성한 여러 인원과 야소교회(耶蘇敎會)<sup>125</sup>와 의무사(義務社) 여러 명의 성심성력(誠心誠力)이 자연히 단체를 성립한 까닭이다. 각항 경주(競走)의 운동(運動)이 10과를 겨우 지났는데, 돌연 하늘이 흐려지고 비가 내려서 부득이 정지하였는데, 당장에 각 학도의 부모가 이 천연적 살풍경을 심분 애석하여 일제히 회소(會所)에 구설(口舌)로 청원하기를 지금 비가 내려 폐회한 것을 내일 하늘이 갠 것을 기다려서 운동회를 이어서 마치자 하며 모임의 인가를 얻은 후에 일반 내빈과 각 학교의 학도에게 석식과 조식 등

124) 보창학교와 이동휘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에 설명이 자세하다.

125) 예수교의 신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이고, ‘야소(耶蘇)’는 예수의 음역어이다.

의 식료 찬품을 나누어 주며 시진물품(市陳物品)을 밤새 지켰고, 다음날 이어서 거행하였으니 자손의 학무(學務)를 위한 이와 같은 성의(誠意)는 모두가 흠탄(欽歎)할 일이다. 이 운동 과정 중 새로이 발명한 과목은 방어공격(防禦攻擊)이니 10세 내외된 학도 100명을 차출하여 50명씩 두 소대에 나누고, 한 소대는 포대모자(砲隊帽子) 견장(肩章) 복장을 하고 대포 1좌(一坐)를 좌우 열로 줄이어 해당 소대장이 집도(執刀) 영솔(領率) 전진케 하였고, 다른 한 소대는 보병모자(步兵帽子)를 쓰고 보병 견장에 나팔병 한 쌍이 해당 소대장을 따라 전진하였고, 또한 15세 내외의 학도 60명은 가벼운 차림을 입고 청홍건(靑紅巾)으로 머리를 싸서 맨 마지막 열이 되어 결사대 모양을 하였고, 20세 내외 학도 10명은 적십자표를 오른쪽 견장에 붙이며 담여(擔輦)<sup>126</sup> 기구를 갖고 해당 깃발을 수행하였는데, 적진의 형세는 운동장 한켠에 학도 50명이 한 성을 지키는 모양이고, 성내 고루에 적장(敵將)이 한 깃발을 잡고 호령도전(號令挑戰)하며 바깥에 200명이 일자장사진(長蛇陣)을 펼쳤다. 소언(小焉)에 양진에서 포성이 연발하여 한 장을 감투(酣鬪)할 사이에 포대(砲隊)에서 원거리로 대포를 발사하네 적세(敵勢)가 견고하여 죽지 않고 맹렬하니 뒷 열의 결사대가 일제히 벌 떼처럼 와서 장사진 파괴하며 적의 보루를 지키는 병사를 살산(殺散)하고 적기를 빼낼 때 한쪽에서는 적십자군이 사상병을 구호하고, 한쪽에서는 포로병을 결박(結縛)해와서 일장 대전투를 경과한 후에 만세삼창하고 군가(軍歌)를 부르며 일진장졸(一陣將卒)이 각각

126) 담여(擔輦)는 상여를 메는 것, 담여군(擔輦軍)은 상두꾼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의 의무병(위생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을 받아 돌아왔으니 한마다의 말로 이르자면 희한(稀罕)한 운동 과정이더라. 당일 오전 2시에 각 모양의 운동 22조를 마친 후에 다과를 나누어주고 연설회를 여니 남녀노소와 각 처의 학도가 만수(萬數)에 모자람이 없이 넉넉한데, 언단(言壇)을 주위하여 정제(整齊)히 좌정(坐定)한 후 직원(職員) 연설은 어용선 씨이고, 내빈 연설은 여백린, 강조원, 유원표 세 명이고, 부인(婦人) 연설은 허 씨가 하였는데 방청인 중 통진(通津)에 사는 전 참판(參判) 이인철 씨가 금년 육순(六旬)인데 발언권을 얻어 연설하는데 지금 국가가 이와 같은 슬픈 지경을 당함은 정부(政府)의 우둔하고 나약함과 인민(人民)의 몽매(蒙昧)함이라고 일장 통론(痛論)한 즉 만장일치로 갈채(喝采)하기를 이 같은 노재상의 건강은 세상에 드물거니와 우리 조정에 진신장보(縉紳章甫)<sup>127)</sup>가 다수 있었다면 국세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리라고 하였다. 유원표 씨 연설 중에 말하기를, 내가 이번 봄에 연합 운동장회를 세 곳에 참관하였는데 평안남도 23군 대운동회에는 유지인사의 단체력(團體力)이 존경할 만하고, 훈련원(訓練院) 공·사립 학도 대운동장회에는 규칙 방법(方範)이 존경할 만하고, 이번 강화 대운동장회에는 인력물품(人力物品)이 존경할 만하다 하였다. 연설을 마친 후에 이동휘 씨가 단상에 올라 여흥(餘興)이라고 42건의 유희(遊戱)를 하고 모임을 마치고 흠어졌다고 한다.

1907년 5월 27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江華位良面項州洞 申奎泳 八圓 ……

127) '벼슬아치와 유생'을 일컫는 말이다.

1907년 5월 27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 강화 위량면(位良面) 항주동(項州洞) 신규영 8환 .....

1907년 5월 28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全南光州社洞居 林炳龍 新貨 五十圓江華位良面乾坪洞 黃鍾律  
等 新貨 二十圓 .....

1907년 5월 28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전라남도 광주 사동(社洞) 사는 임병룡 신화(新貨) 50환, 강  
화 위량면 건평동(乾坪洞) 황종률 등 신화(新貨) 20환 .....

1907년 5월 30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 △公立江華普通學校副敎員 魚秉善 任公立南原普通學校副  
敎員敍判任官十級 ..... 以上五月二十七日.

1907년 5월 30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공립 강화보통학교(江華普通學校) 부교원(副敎員) 어  
병선 임명 공립 남원보통학교 부교원, 부여 관임관 10급  
..... 이상 5월 27일.

1907년 5월 30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1단, 광고

..... 江華屬注文島 朴淳景 四拾兩 김昌範 尹善才 各拾兩 尹寅  
五 三十兩 李昌南 廿兩 김俊植 李之連 各 六兩 김元範 리仁

成 각 四兩 孫云敏 二兩五錢 金元泰 二兩 朴順石 拾兩 田仁成 三拾兩 金學鳳 二拾兩 金昌植 拾四兩 俞興連 田裕文 各拾兩 田裕成 田致德 各 人兩 河學根 李昌云 田柄力母 各四兩 鄭仲基 최鳳順 各三兩 金先成 四拾兩 최儀根 十兩 孫日星 孫斗星 孫昌教 各 六兩 孫貞安 尹希才 各五兩 朴泰景 孫貞珍 박桂春 박桂出 各 四兩 朴凡文 三兩 金尙玄 姜山千母 各二兩 최希俊 최希昌 金善兼 박敏浩 各六兩 최元化 南守成 禹學權 各拾兩 尹允才 朴淳日 各五兩 申奇俊 四兩四錢 牟仁成 崔鳳南 各四兩 曷道完 三十兩 趙吉孫 金山鳳 各十四兩 劉貞三 禹辰九 各 六兩 金成才 禹銀三 趙銀凡 金平順 梁仕彦 各四兩 金應初 三兩 金平日 二兩 金仁善 十兩 張奇連 九兩 韓仕文 高致萬 各 八兩 金順돌 李泰山 徐用澤 各 三兩 尹成七 尹元七 韓用石 各二兩 朱興元 二兩五錢 金漢草 一兩 田敏甫 二拾兩 朴興敏 十兩 박龍燮 六兩 朴申浩 五兩四錢 韓仕允 金泰永 各五兩 李化峰 金元甫 各四兩 金銀植 三兩六錢 尹柱萬 三兩 姜仁吉 二兩 葉錢 六百三拾兩四錢 ……

1907년 5월 30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중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 강화 주문도(注文島) 박순경 40냥, 김창범, 윤선재 각 10냥, 윤인오 30냥, 이창남 20냥, 김준식, 이지런 각 6냥, 김원범, 이인성 각 4냥, 손운민 2냥 5전, 김원태 2냥, 박순석 10냥, 전인성 30냥, 김학봉 20냥, 김창식 14냥, 유흥련, 전유문 각 10냥, 전유성, 전치덕 각 8냥, 각 8냥<sup>128)</sup>, 하학근, 이창운, 전병력 모(母) 각 4냥, 정중기, 최봉순 각 3냥, 김선성 40

128) 원문에 ‘人兩’으로 되어 있으나, ‘八兩’의 오자로 여겨진다.

냥, 최의근 10냥, 손일성, 손두성, 손창교 각 6냥, 손정안, 윤희재 각 5냥, 박태경, 손정진, 박계춘, 박계출 각 4냥, 박범문 3냥, 김상현, 강산천 모(母) 각 2냥, 최희준, 최희창, 김선겸, 박민호 각 6냥, 최원화, 남수성, 우학권 각 10냥, 윤윤재, 박순일 각 5냥, 신기준 4냥 4전, 모인성, 최봉남 각 4냥, 박도완 30냥, 조길순, 김산봉 각 14냥, 유정삼, 우진구 각 6냥, 김성재, 우은삼, 조은범, 김평순, 양사언 각 4냥, 김응초 3냥, 김평일 2냥, 김인선 10냥, 장기런 9냥, 한사문, 고치만 각 8량, 김순돌, 이태산, 서용택 각 3냥, 윤성칠, 윤원칠, 한용석 각 2냥, 주흥원 2냥 5전, 김한초 1냥, 전민보 20냥, 박흥민 10냥, 박용섭 6냥, 박신희 5냥 4전, 한사윤, 김태영 각 5냥, 이화봉, 김원보 각 4냥, 김은식 3냥 6전, 윤주만 3냥, 강인길 2냥, 엽전(葉錢) 630냥 4전 ……

## 1907년 6월

### 1907년 6월 1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 △鮮仁川府種痘支所事務委員 李庚肅 △鮮甲山郡種痘支所事務委員 金敎駟 △命黃海道種痘事務委員 九品 李鍾夏 △命平安南道種痘事務委員 孟義淳 △命平安北道種痘事務委員 黃學秀 △命咸鏡南道種痘事務委員 權成洛 △命仁川府種痘支所事務委員 尹宰善 …… △兼任公立仁川普通學校長 仁川府尹 金潤晶 △兼任公立清州普通學校長 清州郡守 閔泳殷 以上五月三十日.

### 1907년 6월 1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해임(解任) 인천부 중두지소(種痘支所) 사무위원(事務

委員) 이경숙 △해임 갑산군 종두지소 사무위원 김교경 △임명(任命) 황해도 종두 사무위원 9품 이종하 △임명 평안남도 종두 사무위원 맹의순 △임명 평안북도 종두 사무위원 황학수 △임명 함경남도 종두 사무위원 권성락 △임명 인천부 종두지소 사무위원 윤재선 …… △겸임(兼任) 공립인천보통학교장에 인천부윤 김윤정 △겸임 공립청주보통학교장에 청주군수 민영은 이상 5월 30일.

### 1907년 6월 1일, 統監仁港行, 2면 4단, 기사

伊藤統監이 何事件을 因함인지 昨日上午九時에 京仁鐵道を 搭乘하고 仁川港에 下去하였다더라.

### 1907년 6월 1일, 통감 인천항에 오다, 2면 4단, 기사

이등박문(伊藤博文)<sup>129)</sup> 통감이 어떤 일로 인함인지, 어제 오전 9시에 경인철도를 탑승하고 인천항에 왔다고 한다.

### 1907년 6월 5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南陽郡紫月島 高順日 四拾五兩 강基云 高順學 金正叔 各廿兩 강俊用 김相益 各十七兩五錢 高順益 강文學 강順元 강元植 各二兩 강化叔 五兩 裴致仲 三十兩 강元相 김仁會 김相眞 裴致極 강元成 各二十兩 강元三 十七兩五錢 김允善 十五兩 김命奉 강在福 裴正根 各十兩 김正有 裴德玄 曷正德 張士賢 各二十兩 강伊善 拾五兩二錢五分 박正根 十五兩 박萬在

129)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는 을사늑약 이후 조선의 초대 통감이 되어 일본이 강제로 한반도를 병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1909년 중국의 하얼빈 역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안중근(安重根)에게 저격되어 죽었다.

강順明 강春明 各拾兩 裴學瞻 二拾兩 강春三 金允京 강成根  
 各十七兩五錢 裴平日 拾五兩 裴明俊 文昌三 김守吉 강弘凡  
 강相順 南興三 강順善 各■兩 金云善 金永鉉 各二十兩 金文  
 敎 朴萬實 各十七兩五錢 강丁甫 강仁先 洪豐連 裴云浩 金元  
 道 姜英善 各十兩 金泰元 八兩七錢五分 朴元實 五兩 김致鉉  
 南興澤 各二拾兩 김正三 拾七兩 朴萬根 拾五兩 박正俊 김成  
 玉 김敬習 김令甫 강云叔 各拾兩 강云京 김萬甫 김聖道 張聖  
 甫 김相根 高先良 鄭銀甫 金君弼 金云相 各五兩 김永在 四兩  
 合 當五 錢一千兩 ……

## 1907년 6월 5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 남양군 자월도<sup>130)</sup> 고순일 45냥, 강기운, 고순거, 김정숙  
 각 20냥, 강준용, 김상익 각 17냥 5전, 고순익, 강문거, 강순  
 원, 강원식 각 2냥, 강화숙 5냥, 배치중 30냥, 강원상, 김인  
 회, 김상진, 배치극, 강원성 각 20냥, 강원삼 17냥 5전, 김운  
 선 15냥, 김명봉, 강재복, 배정근 각 10냥, 김정유, 배덕현,  
 박정덕, 장사현 각 20냥, 강이선 15냥 2전 5푼, 박정근 15냥,  
 박만재, 강순명, 강춘명 각 10냥, 배학첨 20냥, 강춘삼, 김운  
 경, 강성근 각 17냥 5전, 배평일 15냥, 배명준, 문창삼, 김수  
 길, 강홍범, 강상순, 남홍삼, 강순선 각◆냥, 김운선, 김영현  
 각 20냥, 김문교, 박만실 각 17냥 5전, 강정보, 강인선, 홍풍  
 련, 배운호, 김원도, 강영선 각 10냥, 김태원 8냥 7전 5푼, 박  
 원실 5냥, 김치현, 남홍택 각 20냥, 김정삼 17냥, 박만근 15  
 냥, 박정준, 김성옥, 김경습, 김령보, 강운숙 각 10냥, 강운경,

130) 현재 행정구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에 있는 섬이다.

김만보, 김성도, 장정보, 김상근, 고선녕, 정은보, 김군필, 김운상 각 5냥, 김영재 4람, 도합 당오전(當五錢) 1천냥 ……

**1907년 6월 6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 △任公立仁川普通學校副敎員敍判任官七級 徐丙斗 …… 以上五月三十一日 ……

**1907년 6월 6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임명 공립인천보통학교부교원 부여 관임관 7급 서병두  
…… 이상 5월 31일 ……

**1907년 6월 6일, 仁校基址買收訓飭, 2면 5단, 기사**

學部에서 仁川郡에 訓令하되 普通學校基址價額을 精算하여 平均一坪에 六圓八十錢價格으로 買收하라 하였더라.

**1907년 6월 6일, 인교 기지 매수 훈칙, 2면 5단, 기사**

학부(學部)에서 인천군에 훈령하되 보통학교 터 가격을 정산하여 평균 1평에 6환 80전 가격으로 매수하라 하였더라.

**1907년 6월 6일, 仁港戢盜方略, 2면 5단 기사**

仁川港商民들이 戢盜費를 自擔하여 盜賊을 期於駭息케 한다더라.

**1907년 6월 6일, 인천항 도둑 단속 방법 , 2면 5단 기사**

인천항 상민들이 도둑 단속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 도적을 빨리 없애기를 기약하고자 한다더라.

**1907년 6월 7일, 統監下仁續聞, 2면 3단, 기사**

日前 伊藤統監이 仁川港에 下往하얏다 함은 已爲揭報어니와 更聞則 伊藤統監이 自仁川港으로 入城하던 翌日에 日本高等 官吏가 多數 入城하얏다는 說이 有하더라.

**1907년 6월 7일, 통감이 인천항에 왔다는 후문, 2면 3단, 기사**

일전에 이등통감(伊藤統監)이 인천항에 왔다 함은 이미 알렸 거니와 다시 들으니 이등통감이 인천항으로부터 입성하던 다음 날 일본 고등관리가 다수 입성하였다는 설이 있더라.

**1907년 6월 7일, 四倅依免, 2면 4단, 기사**

端川郡守 玄昇圭 江華 李祖鉉 天安 呂炳鉉 雲峯 李俊 諸氏가 依免되얏더라.

**1907년 6월 7일, 네 군수 의원면직, 2면 4단, 기사**

단천군수 현승규, 강화 이조현, 천안 여병현, 운봉 이준 씨 등이 의원면직(依願免職) 되었더라.

**1907년 6월 8일, [寄書] 墨西哥<sup>131)</sup>에 留在하 同胞의 慘狀, 2면 1단, 독자란**

竊開井底之蛙가 不識寰宇之爲大者는 以其未出其井 故也어니와 至於 空氣所通過 光景所照하야는 尙測天地之陰晴과 日夜之暗明也여늘 況吾韓人은 身爲萬物之靈而且坐於如是光明昭然之世界하야 有耳有目에 所見所聞도 無하지 前車之覆이 未幾

---

131) 멕시코.



에 後轍이 更倒홀 大患이 有호니 豈不寒心哉아 嗟夫方今 墨  
 西哥所在 一千三十名同胞之萬端見欺受困은 大地所共知而且在  
 內旅外之各處新聞에 已告悲愴之狀호엿거니와 連後細探홀스록  
 耳不忍聞과 目不堪睹홀 困狀이 不可枚舉로다 當初 日本莠民  
 이 入墨홀 工人를 招홀 時의는 萬端甘言利說로 募集矣러니  
 及其入墨호야 百言에 一事가 合함이 無호고 買賣上 一個賤物  
 이 될 쥔 아니라 何日에 好天和日을 見홀 期約이 無호디 我  
 가 又聞홀 즉 入墨募集이 復爲始作云호니 嗟我同胞는 切勿見  
 欺호시옵 當初 日本莠民이 募集韓人時에 頒布廣告云 北美墨  
 西哥國은 卽合衆比鄰에 在호 著名文明富國으로 富多貧少호며  
 水土極佳호고 工價가 甚厚호야 日淸之人이 携眷及單身入農호  
 야 往往 致富者不可勝記이며 兼設學校호야 農夫의 子女로 文  
 明學業을 修케 한다더니 不幸호 同胞가 甘言好語에 惑호야  
 香餌를 隨호야 去호더니 今作死魚호얏도다 大抵 本人이 緣於  
 此事호야 往來美墨之間호여 細探其入墨同胞之景狀호 즉 大概  
 가 如左호니 再昨年陰二月에 同胞 一千三十名이 乘일썌드 船  
 호고 殖民視務 崔奎翼은 依諸約施行홀 擔保次로 按同入墨이  
 라 호더니 離船時에는 不見形影이며 來韓호야 招工호던 墨人  
 마야스도 取他船還墨호고 通辯 權裕燮 丙叔은 諸般 率行權을  
 任호고 入호다가 韓人과 不和호 事가 多호야 必竟 不精호 貌  
 樣까지 生호얏으며 憑票까지도 個個히 給지 아니호야 已過釜  
 山外海호얏든 船이 衆人大鬧에 復回仁港호야 各得憑票後 發  
 船호얏시며 船中炊食을 日人 三十名이 主飯호는디 白飯薄饌  
 에 爭詰不和호얏시며 墨海風浪이 甚險호야 水疾에 韓人男 二  
 人 小兒 二人 幼女 一名이 死호 屍身은 浮于水上호엿고 及到  
 墨港호야는 巡檢兵丁으로 爲先間逃함을 防禦호며 輪車에는  
 窓戶를 不開케 호고 白洋木으로 帳를 下호야 路道熟視함을

禁호며 輪車門頭마다 兵丁이 守立호고 農夫의 許多行李는 輸運호야 傳치도 안코 港下에서 衝火호앗시며 及入柔加丹호야 一千餘名을 一座空營에 駟入호여 一日一夜에 宿處食具를 不給호며 猛火갓흔 炎熱中에 風浪의 辛苦호든 老人 二名이 其夜에 死호고 翌日에 ■ 人을 各處分送호니 二百里間에 十人도 送往호고 百八九七十里에 多즉 二十人 十五人 七八人 四五人씩 分送호앗시며 家屋은 深山窮谷에 草莽으로 風雨만 掩호게 되었시며 工役은 草田과 火田과 叢林과 石田及一切 荒蕪之地開墾호는 苦役이며 雇價는 勞力 十一時의 或 十時에 僅得墨銀 三十仙이며 米肉은 求之不得이오 土産의 原多호 玉蜀黎로 爲糧인디 忍不下喉이고 氣候는 四時로 酷熱호야 炎火가 難支호 中 日射病이 有호야 韓人이 致死者 十餘人이오 土疾과 瘴氣는 常有호야 水土不服호는 他國人의게는 大害가 되며 毒蛇猛虫이 多中又多호야 往往히 傷人性命을 不勝枚舉이며 如此호 故로 韓人得病者는 農主가 爲先治療호 主意도 안코 目下의서 死함은 惡見호야 遠外에 出送호니 方今 農庄千里와 싸괄쿠 港의 病夫 金允昌 李丁石 等 七人이 一出호 後 未知 存亡이오 若有懶怠工役者은 或 農主自有笞罰權而 或囚 或刑 或送他地호며 吳鳳錫氏妻은 墨人茲의 強奸受호야 自縊死於樹下호앗고 張太根 柳漢一 兩氏는 子女가 多호디 工價로 支用을 不贍호며 十五歲 十三歲 女兒를 放賣于其他 行商淸人 趙之春處云云이며 東洋通호는 港頭에는 日人 伊東正雄 別府豐形 二人이 韓人間逃를 嚴査이며 其他 淸人의 密報를 舉호 즉 其間 虐待에 韓人自死者 數三人이오 女人病死者 二十餘人이오 兒孩死者 十七人이오 男子死者不知其數云호니 萬端悲慘之說은 耳不堪聞이오 目不正見이로다 又況通辯 權裕燮 丙叔은 農主에 厚囑를 受호며 如此호 消息이 本國에 達호면 追後

募集에 妨害될가 ㅎ야 一切 韓人書信의 付于郵局者는 相與照查 ㅎ야 開見事由 ㅎ고 改之刪之 或傳 或不傳 ㅎ니 韓人血脉이 通 ㅎ 路가 無 ㅎ미 呼天寒心이고 其外 萬端辛酸之說은 筆難代記이온 中曾見年前貴社新聞즉 同根相煎 ㅎ든 權氏가 拔名 ㅎ는 寄書가 有 ㅎ니 明若觀火 ㅎ는 耳目이 尙在커늘 欺死境之同胞 不足而更欺本國同胞如是乎아 日後에 權氏之寄書와 及他人之 甘言利說이 千萬百十번 有 ㅎ지라도 切勿信聽 ㅎ고 莫蹈此禍 ㅎ시옵 若不信此忠告之血語而更有入墨者인디 當於自己親戚古土에 永訣을 告 ㅎ고 行 ㅎ 거시오 本人도 預告吊喪 ㅎ노라 光武十一年四月十九日 美國留學 朴鳳來.

## 1907년 6월 8일, [기서] 멕시코에 머물러 있는 동포의 참상, 2면 1단, 독자란

우물안 개구리가 세계의 위대함을 모르는 것은 그 우물을 나 오지 못한 까닭인데 공기가 통하는 것과 광경이 비치는 데 이르러서는 오히려 천지의 음청(陰晴)과 밤낮의 암명(暗明)을 측량하거늘 하물며 우리 한인(韓人)은 몸이 만물의 영(靈)이요, 또 이처럼 밝은 세계에 앉아 눈과 귀가 있어도 보고 듣는 것도 없는지 앞선 수레가 전복된지 오래지 않아 뒤에서 수레바퀴가 다시 넘어질 우환이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방금 멕시코에 있는 1천 30명이 수많은 속임수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땅이 크기 때문임은 모두가 아는 바요, 내외의 각처 신문에 이미 근심스런 상황이 보고되었거니와 그 후로도 살필수록 귀로 차마 들을 수 없고 눈으로 감히 볼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을 모두 들어 말할 수 없도다. 당초 일본 유민(莠民)이 멕시코에 들어갈 공인(工人)을 모을 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모집하더니 멕시코에 들어감에 이르러

백마디 말에 한 가지 일도 합한 것이 없고 매매상의 일개 천한 물건이 될 뿐 아니라 언제 좋은 날을 볼지 기약이 없는데 내가 또 들은 즉 멕시코에 들어가는 모집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 아, 우리 동포는 절대 속시 말라. 당초 일본 유민이 한인(韓人)을 모집할 때에 광고를 반포하며 말하길 북미 멕시코라는 나라는 합중국에 이웃하여 저명한 문명 부국으로 부유한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적으며 물과 땅이 극히 아름답고 품삯이 매우 후하여 일본과 청나라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단신으로 농장에 들어가 왕왕 부유해 진자를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학교를 세워 농부의 자녀로 문명 학업을 배우게 한다더니 불행한 동포가 감언이설에 혹하여 미끼를 따라 가더니 지금 죽은 물고기가 되었다. 대저 본인이 이 일에 연관되어 미국과 멕시코를 왕래하여 멕시코에 들어간 동포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니 대개가 다음과 같으니 재작년 음력 2월에 동포 1천 30명이 배를 타고 식민시무 최규익은 약속을 시행할 담보차로 함께 멕시코에 입국한다 하더니 배가 떠날 때에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내한(來韓)하여 공인(工人)을 모집하던 멕시코 사람 마야스도 그 배를 타고 멕시코로 돌아가고 통역 권유섭과 병숙은 제반 인솔권을 맡아서 멕시코에 들어가다가 한인과 불화한 일이 많아 결국 단정치 못한 모양까지 생겼으며 여행 허가증까지도 각각 지급하지 않아서 이미 부산 외해(外海)를 지났거든 배가 여러 사람이 크게 시끄러움에 인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각각 여행 허가증을 받은 후에 배가 출발하였으며 배 안에서 취사를 일본인 30명이 준비하는데 흰 밥에 변변치 못한 반찬에다 두고 불화하였으며 멕시코 바다의 풍랑이 매우 험하여 뱃멀미에 한인 남자 2명 소아 2명 어린 여자아이 1명이 죽어

시신은 물 위에 띄어 보냈고 멕시코 항구에 도착해서는 순찰하는 병정으로 도망치는 것을 방어하며 수레에는 창호를 열지 못하게 하고 백양목으로 장막을 내려 도로를 자세히 보는 것을 금하며 수레의 문머리마다 병정이 지키고 서서 농부의 많은 짐을 운송하여 전해 주지도 않고 항구 아래에서 불을 놓았으며 유가단(柔加丹)에 들어감에 이르러서는 1천여 명을 비어있는 진영에 몰아넣으며 하루에 잘 곳과 먹을 식기를 제공하지 않으며 맹화(猛火) 같은 더위 중에 풍랑으로 고생하던 노인 2명이 그 밤에 죽고 다음날 ■ 사람을 각처로 나누어 보내니 2백리 사이에 열 사람도 보내고 1백 8, 9, 70리에 많으면 20명 15명 7, 8명 4, 5명 씩 나누어 보냈으며 가옥은 깊은 산 궁벽한 곳에 풀로 비바람만 면하게 되어 있으며 공역(工役)은 초전(草田)과 화전(火田)과 총림(叢林)과 석전(石田)과 일체 황무지를 개간하는 고역(苦役)이며 품삯은 노력(勞力) 11시 혹 10시에 겨우 묵은(墨銀)<sup>132)</sup> 30선(仙)이며 쌀과 고기는 구해도 얻지 못하고 그 지방에 많은 옥촉서(玉蜀黍)<sup>133)</sup>로 식량을 삼는데 차마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고 기후는 사계절이 더위가 혹독하여 염화(炎火)에 버티기 어려운 중 일사병이 있어 한인이 죽음에 이른 자가 10여인이요, 토질병과 장기(瘴氣)<sup>134)</sup>는 항상 있어 물과 땅에 맞지 않는 타국사람에게는 큰 해가 되며 독사(毒蛇)와 맹충(猛虫)이 많고도 많아 왕왕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함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까닭으로 병을 얻은 한인은 농주(農

132) 옛날 멕시코에서 쓰인 은화. 은화의 질이 고르고 중량이 정확해서 동양에서 무역 화폐로 쓰기도 했음.

133) 옥수수.

134)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기.

主)가 먼저 치료할 생각도 안하고 눈앞에서 죽는 것은 보기 싫어해서 멀리 보내버리니 방금 농장 천리 파싸팔쿠 항(港)의 병든 사람 김윤창 이정석 등 7명이 한 번 나간 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고 만일 게으르고 느린 공역(工役)자는 혹 농주(農主)가 스스로 태벌권(笞罰權), 혹 수(囚) 혹 형(刑) 혹 타지로 보내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오봉석의 아내는 멕시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여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었고 장태근 류한일 두 사람은 자녀가 많아 품삯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며 15세 13세 여아를 기타 행상하는 중국사람 조지춘 처(趙之春處)에 내다 판다는 말들이며 동서양이 통하는 항구 근처에는 일본 사람 이동정웅(伊東正雄) 별부풍형(別府豐形) 두 사람이 한인(韓人)이 도망치는 것을 엄격히 조사하며 기타 중국사람의 밀보를 보니 그 사이 학대에 의해 자살한 한인(韓人)의 수가 3명이요, 병에 걸려 죽은 여자가 20여명이요, 죽은 아이들이 17명이요, 죽은 남자는 부지기수라 하니 술한 비참한 말은 귀로 감히 듣지 못하겠고 눈으로 바로 볼 수 없도다. 또 하물며 통역 권유섭, 병숙은 농주에 부탁을 받으며 이와 같은 소식이 본국에 도달하면 추후 모집에 방해될까 하여 일절 우체국에 부치는 한인 서신(書信)을 서로 조사하여 편지를 열어보고 고치고 삭제하고 혹 전하고 전하지 않기도 하니 한인의 혈육이 통할 길이 없으며 오호 하늘이 무심하고 그외 술한 고생스런 이야기는 붓으로 대신 기록하기 어려운 가운데 일찍이 귀사 신문을 본 즉 형제끼리 싸우던 권씨가 발명(拔名)하는 기서(寄書)가 있으니 명약관화하는 귀와 눈이 있거늘 동포를 속여 죽게 하는 지경이 부족하여 다시 본국 동포를 속이려 하는가. 후일 권씨의 기서와 타인의 감언이설이 천만백십번 있을지라도 절대 믿지 말고 이 재앙

에 빠지지 마소서 만일 이 충고하는 혈어(血語)를 믿지 않고 다시 멕시코에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자기 친척과 고향에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행할 것이요 본인도 미리 조상(吊喪)을 고하노라. 광무11년 4월19일 미국유학 박봉래.

**1907년 6월 10일, 保護人民固當如是, 2면 4단, 기사**

傳說을 得聞호 仁川港警務署總巡 金允福氏가 警察事項과 衛生事件에 熱心注意호야 民賴其安이며 一日은 日本軍官이 騎馬馳走할 際에 韓國女人 一名이 被傷偃倒함을 該軍官이 頓不顧見호고 直行前進호거날 該金總巡이 適其時에 見其光景호고 同軍官을 挽執後에 論責其所失호고 賠償金 幾十圓을 懲出호야 該女人에게 給付호엿다더라.

**1907년 6월 10일, 인민을 보호함은 마땅히 이와 같이, 2면 4단, 기사**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천항 경무서 총순 김윤복 씨가 경찰사향과 위생사건에 열심으로 주의하여 백성들이 편안하며 하루는 일본 군관이 말을 타고 달리는 사이에 한국 여인 한 명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음을 그 군관이 돌아보지 못하고 앞으로 직행하거늘 김총순이 그 때 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같은 군관을 붙잡은 후에 그 잘못을 나무라고 배상금 몇 십환을 벌금으로 내게 하여 그 여인에게 주었다더라.

**1907년 6월 11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金浦黔丹面新里 李周賢 五拾錢 金天命 四拾錢 李象漢 李德賢 金命福 各三十錢 李象膺 朴洪鎭 李象濂 李象寬 李周云

各二拾錢 리象涵 拾五錢 리建春 金龍參 各拾錢 合 新貨 三圓  
拾五錢 金浦검단면반월촌 부인 三十一人제씨 덕촌 부인 二十一  
人제씨 봉화촌 부인 十一人제씨 덕소왕길리 부인 十八人제  
씨 통진황기울중말상롱식말 부인 三十六人제씨 구례골 리기  
중씨부인김씨 二拾錢 남정용씨덕부인허씨 五拾錢 合 新貨 二  
拾圓 ……

1907년 6월 11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 김포 검단면 신리 이주현 50전, 김천명 40전, 이상한, 이  
덕현, 김명복 각 30전, 이상응, 박홍진, 이상렴, 이상관, 이주  
운 각 20전, 이상로 15전, 이건춘, 김용삼, 각 10전, 도합 신  
화 3환 15전. 김포 검단면 반월촌 부인 31인, 대촌 부인 21  
인, 봉화촌 부인 11인, 대소왕길리 부인 18인, 통진 황개울중  
말상롱새말 부인 36인, 구례골 이기중 씨 부인 김씨 20전, 남  
정용 씨 대부인 허씨 50전, 도합 신화 20환 ……

1907년 6월 15일, 必也使無弊, 2면 4단, 기사

仁川港商民들이 該港에 賊徒를 駭息케 하기 爲하야 該費를  
自擔防禦한다 함은 前報에 掲載하얏거니와 内部에서 此事件  
으로 京畿道에 訓令하되 爲防水匪하야 各商會의 志願出助가  
聞甚良嘉라 副從衆願이되 因此美學하야 其費用을 勒助生弊함  
이 無케 하라 하얏더라.

1907년 6월 15일, 반드시 폐단이 없게 하라, 2면 4단, 기사  
인천항 상민들이 그 항에 도적을 침식(駭息)하게 하기 위하  
여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 방어한다 함은 이전 신문에



紙재했거니와 내부(內部)에서 이 사건으로 경기도에 훈령하  
되 부뚝가 도적을 막기 위하여 각 상회의 지원출조(志願出  
助)가 들으니 매우 좋다 하여 여럿이 따르므로 이 아름다움  
을 들어 그 비용을 억지로 돕게 하여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하  
라고 하였더라.

**1907년 6월 17일, 造紙社勅設, 2면 4단, 기사**

農商工部大臣 宋秉峻氏의 令男 宋進憲氏가 造紙會社를 富平  
郡에 設始하고 贊成金과 捐助金을 現今 請求한다더라.

**1907년 6월 17일, 조지사 창설, 2면 4단, 기사**

농상공부대신 송병준<sup>135)</sup> 씨의 아들 송진헌 씨가 조지회사(造  
紙會社)를 부평군에 실시하고 찬성금과 연조금을 지금 청구  
한다더라.

**1907년 6월 18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 △江華郡守 李祖鉉 天安郡守 呂炳鉉 雲峰郡守 李俊 端川  
郡守 玄昇奎 依願免本官 …… 以上六月十四日.

**1907년 6월 18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강화군수 이조현, 천안군수 여병현, 운봉군수 이준, 단  
천군수 현승규의 본관(本官)을 의원면직(依願免職) …… 이상  
6월 14일

---

135) 송병준(宋秉峻, 1858~1925)은 조일수호조규 이후 일본의 조선침탈에 협력했으  
며, 일진회를 이끌며 고종의 퇴위와 일본의 한반도 강제병합을 적극 추진한 대표  
적인 친일파이다.

1907년 6월 20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江華內可面浦村洞中 朴鼎會 李容憲等 六환 .....

1907년 6월 20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  
단, 광고

..... 강화내가면포촌동중 박정회 이용헌 등 6환 .....

1907년 6월 21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富平石串面高棧里 李日三 一圓 鄭云창 五拾錢 金善大 張  
德守 各四拾錢 李致坤 孔善燁 各三十錢 張德寬 李君成 金潤  
河 李慈三 李君三 鄭春輔 鄭連植 朴正煥 張聖實 各二十錢 崔  
善有 金景澤 張學模 各十錢 合 新貨 五圓 .....

1907년 6월 21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  
단, 광고

..... 부평 석곶면 고잔리 이일삼 1환, 정운창 50전, 김선대,  
장덕수, 각 40전, 이치곤, 공선업 각 30전, 장덕관, 이군성,  
김윤하, 이자삼, 이군삼, 정춘보, 정연식, 박정환, 장성실 각  
20전, 최선유, 김경택, 장학모 각 10전, 합 신화 5환 .....

1907년 6월 22일, 仁郡賊警, 1면 4단, 기사

仁川來人의 傳說을 聞ᄃᆞᆫ 則 該郡重林 居ᄃᆞᆫ 富豪 鄭允求氏  
家의 何許强盜 三十餘名이 各持銃劒ᄃᆞᆫ 白晝突入ᄃᆞᆫ야 如干  
錢財與米穀物을 沒數奪去ᄃᆞᆫ앗다더라.

1907년 6월 22일, 인천군 도적을 경계하라, 1면 4단, 기사  
인천에 온 사람의 말을 전해 들으니 그 군의 중림(重林)<sup>136)</sup>  
에 거주하는 부호 정윤구 씨 집에 어떤 강도 30여 명이 모두  
총검을 들고 백주대낮에 갑자기 쳐들어와 약간의 금전과 곡  
식을 탈취하였다더라.

1907년 6월 25일, 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金漢卿氏 仁港客主.

1907년 6월 25일, 황성신문 신진부, 4면 1단, 광고  
김한경 씨 인천항 객주.

1907년 6월 27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富平郡黃魚面黃魚場基 蔡汝寬 五拾錢 裴銀云 洪萬甫 各  
二十錢 張春化 五拾錢 李卜玄 朴永洙 各四十錢 吳元化 李玄  
凡 金聖信 各二十錢 林成春 三十錢 合 新貨 三圓拾錢.

1907년 6월 27일, 國채보상의무금 집중인원 및 액수, 3면 1  
단, 광고  
…… 부평군 황어면 황어장터 채여관 50전, 배은운, 홍만보 각  
20전, 장춘화 50전, 이복현, 박영수 각 40전, 오원화, 이현범,  
김성신 각 20전, 임성춘 30전, 합 신화 3환 10전.

---

136) 조선시대 인천부의 동쪽 30리 지역에 있었던 역(驛)의 이름이다. 조선시대의 역  
로(驛路)의 하나인 중림도(重林道)의 중심 역이었다.

**1907년 6월 29일, 二十六郡守, 2면 3단, 기사**

日前內閣會議時에 現闕한 郡守를 奏本하랴다가 延期되얏다  
함은 已揭어니와 再昨日에 奏本한 案件을 據한 則 二十六窠  
인디 其氏名이 如左하니 黃州郡守 韓貞奎, 務安 洪在祺, 江華  
鄭璟洙, 南陽 金得鍊, 端川 劉文卿 ……

**1907년 6월 29일, 26군수, 2면 3단, 기사**

일전에 내각회의 때에 현재 비어있는 군수를 아뢰려다가 연  
기되었다 함은 이미 게재했거니와 그저께 아뢴 안건을 근거  
한 즉 26자리인데 그 이름이 다음과 같으니, 황주군수 한정  
규, 무안 홍재기, 강화 정경수, 남양 김득련, 단천 유문경 ……

**1907년 6월 29일, 度訓果郡, 2면 4단, 기사**

度支部에서 果川郡에 訓令하되 本部所管仁川水道水源用地內 姜  
聖弼 徐石根 兩氏의 家屋買收事로 定限訓飭이 已徑屢月에 尙無  
如何皂白하니 在郡舉行이 何若是汗漫인지 誠甚可駭라 玆更發訓  
하니 令到卽日에 該姜徐 兩氏을 不日 起送하랴 하얏더라.

**1907년 6월 29일, 탁지부에서 과천군에 훈령하다, 2면 4단, 기사**

탁지부에서 과천군에 훈령하되 본 부(部) 소관 인천 수도 수  
원(水源) 용지(用地) 내에 강성필, 서석근 두 사람의 가옥을  
매수하는 일로 일정 기간의 훈령이 이미 몇 개월이나 흘렀음  
에도 아직 어떠한 결정이 없으니 군에서 일을 처리함이 어찌  
나 한만한지 심히 놀랄만하다. 이에 다시 훈령을 내리니 명령  
이 도착한 그 즉시 그 강과 서 두 사람을 며칠 안에 내보내  
라 하였더라.

1907년 6월 29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陰竹上栗面長城洞 趙聲九 四圓十錢 金川郡好賢面 李燦龜 李錫夏 等 二拾三圓 江華煤音島石浦寓 安瑢植 五圓 ...중략... 金額을 本社에 收入지 아니하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6월 29일, 國債報償義務金 집송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음죽 상울면 장성동 조성구 4환 10전, 금천군 호현면 이찬균, 이석하 등 23환, 강화 매음도 석포우 안용식 5환 ...중략... 금액을 본사에 보내지 아니하면 성명을 광고에 게재치 아니함.

## 1907년 7월

1907년 7월 1일, 本人이 北美墨西哥有加丹<sup>137)</sup>에 羈居하는 本國同胞의 傳語官<sup>138)</sup>으로, 4면 1단, 광고<sup>139)</sup>

本人이 北美墨西哥有加丹에 羈居하는 本國同胞의 傳語官으로 二十四個月間을 該城에 住在하다가 本年二月分에 該地로서 發還本國하는 바 本國各處에 寄하는 該同胞의 書函 一百六十

137) 북미 멕시코 유카탄(Yucatán) 지역을 가리킴. 멕시코의 첫 번째 한인 이민자들은 1904년 11월부터 1905년 1월까지 대한일보와 황성신문에 게재된 ‘농부모집’ 광고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었으며 유카탄 지역의 에네켄 산업이 활황에 접어들며 노동자수가 부족해지자 에네켄 농장주 협회와 유카탄 의회는 해외 노동자 이민을 추진했다. 이민 브로커 존 마이어스가 중국과 일본에서 노동자 모집을 실패하고 대한제국으로 와 전국 18개 지방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신문 광고를 냈다. (『에네켄 농장서 4년의 중노동 이후 귀국 못하고 멕시코에 정착』, 『한국일보』 2019.8.13.일자 참조). 에케켄은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북서부를 포함한 메소 아메리카 지역이 원산지이다. 대체로 25년 정도 사는데, 5~6년 정도 자라면 섬유를 뽑을 수 있다.

138) 통역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139) 멕시코에서 돌아온 통역관이 이민자들의 편지를 전달하고자 주소를 알리는 광고는 1907년 7월 1일 외에도 1907년 7월 2일, 1907년 7월 3일 2회에 걸쳐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餘度を 本人帶來<sup>하</sup>야 八十餘度<sup>는</sup> 已爲傳遞<sup>하</sup>얏고 所餘八十度<sup>는</sup> 該受信人의 居址가 多有未詳<sup>키</sup>로 該受信人員을 左開廣佈<sup>하</sup>오니 僉員은 其住址를 本人의 家로 昭詳錄送<sup>하</sup>시거나 本人家로 親來領取<sup>하</sup>시거나 隨便施行<sup>하</sup>심을 望<sup>홈</sup> 皇城北署大帶洞 第八統六戶 權丙淑 告白 …… 仁川港魚商會社朴泰淳 仁川海關 留李主事裕寬 釜山港四街里富平洞客主崔瑞五 釜山港草梁敬裴 淑 仁川港世昌洋行留權載述 仁川港畚洞客主南明五 京畿道江華邑南谷曹先達龍夏十六度一包 ……

**1907년 7월 1일, 본인이 북미 멕시코 유카탄에 기거하는 본국 동포의 전어관으로, 4면 1단, 광고**

본인이 북미 멕시코 유카탄에 기거하는 본국 동포의 통역관으로 24개월간 그 성(城)에 가 있다가 본년 2월 경에 본국으로 돌아온 바, 본국 각처에 부치는 동포의 편지 160여 통을 본인이 가지와 와서 80여 통은 이미 전하였고 그 나머지 80여 통은 그 수신인의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그 수신인원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여러분은 그 주소를 본인의 집으로 소상히 적어 보내주시거나 본인 집으로 직접 와서 가져가시거나 편한 대로 하시길 바라오. 황성 북서 대대동 제8통 6호 권병숙 고백 …… 인천항어상회사 박태순, 인천해관 유(留) 이주사 유관, 부산항 4가리 부평동 객주 최서오, 부산항 초량 경배숙, 인천항 세창양행 유(留) 권재술, 인천항 답동 객주 남명오, 경기도 강화읍 남곡 조선달 용하(龍夏) 16통 한 꾸러미 ……

**1907년 7월 2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 △任江華郡守敍奏任官三等 正三品 鄭璟洙 …… 以上六月二十七日 ……

1907년 7월 2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임명 강화군수 주임관 3등 정3품 부여 정경수 ..... 이  
상 6월 27일 .....

1907년 7월 4일, 鄭在洪<sup>140)</sup>君略傳, 2면 1단, 기사

自國權墮落以來로 如鄭君之發憤自戕者 | 凡已幾人고 子車가  
且死에 百身難贖이오 菟弘이 既逝에 遺血空碧이라 慷慨忠義  
之倫은 碧落黃泉에 携手同歸호고 以此廻天捧日之大艱業으로  
託諸愚昧劣弱之我輩後人호니 我輩가 雖欲無悲憤怨懟之辭나  
得乎아 雖然이나 鄭君之死는 實非鄭君之自殺也로다(志士는  
聽哉어다)我同胞가 早發憤於十數年以前호야 國權이 不至墮落  
호며 人類가 不爲奴隸런들 鄭君이 可不死오 我同胞가 且戮力  
於光武九年以後호야 人民이 有開進之機호고 國家가 有回蘇之  
望이라도 鄭君이 可不死어늘 奈之何光陰이 日下에 民知는 愈  
錮호고 危機가 日迫에 國是는 日紊호야 時時刺鄭君之腦호며  
日日激鄭君之血호야 驅鄭君於不得不自殺之途호니 然則 鄭君  
之死는 頑迷之國民이 殺之也며 腐敗之政府가 殺之也오 非鄭  
君之自殺鄭君也로다 嗚呼라 鄭君이 既死호니 其復有鄭君乎아  
有鄭君之志者는 皆已死矣니 生者는 其有鄭君之志者一幾人고  
我且痛호며 我且憤호며 我且希望호야 畧掇鄭君之遺事호니 凡  
得七八節이라 揮淚以告我同胞호노라

#### 第一 君의 家世와 幼年

此節은 暫付闕如호야 以俟廣探호거니와 竊聞君이 早喪父호고  
養於母호되 極孝라 云호더라

#### 第二 君의 發願과 經歷

---

140) 정재홍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를 참조하면 된다.

君이 初以實業家로 從事ᄃ야 家稍饒ᄃ더니 後來國事に 憤激  
ᄃ야 同志者 幾人과 教育界에 着手ᄃᄂ시 仁川仁明學校校監의  
任으로 家産을 皆斥賣ᄃ야 學校經費에 補用ᄃᄂ 故로 死之後에  
家에는 餘財가 無ᄃ고 又大韓自強支會長으로 大苦心을 費ᄃ  
앗더라

### 第三 君의 決死

韓日新協約之日에 君의 死志가 已決이로되 一則 老母在堂 故  
로 不忍死오 二則 猶庶幾於國家之前途 故로 不遽死러니 邇來  
에 見國事日非ᄃ고 初志益決이라 將死前一日에 自己所親을  
對ᄃ야 若干 悵別ᄃᄂ 容을 帶ᄃ더라

### 第四 君의 自砲時日과 境況

光武十一年六月三十日에 朴泳孝氏歡迎會를 北署農桑所內에  
開催ᄃ고 紳士 千餘人이 集ᄃᄂ았는디 君이 洋服을 着ᄃ고 手  
帛을 持ᄃ고 入來ᄃ더니 社會上有志者라 稱ᄃᄂ 人氏면 曾前  
面分이 生疎ᄃᄂ더리도 一一姓名을 通ᄃᄂ더라 衆人이 立食을 畢  
ᄃ고 奏樂과 演戲ᄃᄂ 方張ᄃᄂ는디 君이 忽然히 演壇前에서 自  
砲ᄃ야 氣絶昏倒ᄃᄂ라

### 第五 遺書 二則과 歌 二闕

時에 數百張片紙가 雪갓치 散ᄃᄂ니 此散紙가 皆何物也오 卽自  
砲者의 遺書也며 追托書也며 思想八變歌也며 生辱死榮歌也인  
디 書頭에 鄭在洪이라 書ᄃᄂ았더라 (書와 歌는 見本報二千五  
百二十号) 其始也에는 何人이 何事 故로 自砲ᄃᄂ았는지 不知  
ᄃ야 皆錯愕ᄃᄂ 而已러니 及其書와 其歌를 讀ᄃᄂ인 無不雙淚가  
雨注ᄃ야 朴氏의 歡迎會가 鄭氏의 慘別場으로 變ᄃᄂ더라 嗚乎  
라 君의 思想이 一二變에만 止ᄃ야도 誤國者 一二人의 頭는  
必斷이오 三四變에만 止ᄃ야도 誤國者 一二人의 脣은 必割어  
날 非徒一二變而 至三四變ᄃ고 非徒三四變而 至五六七八變ᄃ



야 君則死而誤國者則生호니 惜夫로다 然이나 君今死矣로되  
死者는 其體殼也오 其精神則 固生矣라 吾知君之精神은 愈往  
愈生而賣國之賊은 其喪魂失魄而死者ㅣ 將不知幾人이니 彼賊  
臣也는 生而亦死者오 如君者는 死而猶生者로다

#### 第六 君의 永眠

卽時赤十字病院으로 昇去호니 赤血이 口中에 騰出호고 氣息  
이 喘促호더라 錦陵尉 朴泳孝氏가 遣人慰問호되 君이 其爲國  
盡瘁함을 勉호고(其詳은 見本報二千五百廿一号) 溘然長逝호  
니 時는 大韓光武十一年六月三十日下午八時也라 志士가 長瞑  
에 天日이 慘黑호도다

#### 第七 君의 死後에 輿情과 家族救恤

君의 死信을 接함이 雖閭巷婦孺라도 莫不流涕咨嗟 曰 正直의  
人士는 皆一死로 自靖호니 吾儕는 將誰與求活고 호며 各志士  
는 君의 遺書所托에 依호야 其遺孤를 教育할 目的으로 義金  
을 收集中이더라

#### 第八 君의 生死一貫의 血願

然이나 若但 此遺孤救恤로만 君의 血願을 答호다 호면 豈非  
誤解의 大誤解哉아 其遺書劈頭第一行에 被大日本保護韓國國  
民 鄭在洪이라 書호얏스니 竊想호라 君이 書此十三字之時에  
必也骨戰戰호며 手躍躍호고 血沸沸千萬丈矣리니 他日吾輩가  
君의 自裁所에 就호야 大韓獨立國民鄭某就義碑라 大書特書立  
之호면 君於是乎 可以瞑目乎아 嗚乎라 君於是乎 可以瞑目矣  
리로다.

1907년 7월 4일, 정재홍군 약전, 2면 1단, 기사

국권이 타락한 이래로 정군(鄭君)처럼 발분하여 자결한 자가  
무릇 이미 몇 명이고, 자거(子車) 또 죽음에 백 개의 몸으로

도 속죄하기 어려웠고 장홍(莚弘)<sup>141)</sup>이 이미 죽음에 그 피가 흘러 벽옥(碧玉)이 되었다. 강개(慷慨) 충의(忠義)한 무리는 푸른 하늘 황천에 손을 끌고 함께 돌아가고 이로써 임금을 피하고 일제를 받드는 커다란 어려운 일로 우매하고 열약(劣弱)한 우리 후손들에게 맡기니 우리들이 비록 슬퍼하고 원망하는 말이 없고자 해도 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러나 정군의 죽음은 실로 정군의 자살이 아니로다. (지사는 들을지어다) 우리 동포가 일찍이 십수년 이전에 발분(發憤)하여 국권이 타락에 이르지 않으며 인류가 노예가 되지 않았던들 정군이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우리 동포가 또 광무 9년 이후에 힘을 모아 인민이 개화의 기계가 있고 국가가 희생의 희망이 있더라도 정국이 죽지 않을 수 있었거늘 어찌 세월이 천하에 인민의 지식이 점점 막히고 위험한 기물이 날로 압박함에 국가의 방침이 날로 어지러워져 때마다 정군의 뇌를 찌르며 날마다 정군의 피를 흘리게 하여 정군을 부득불 자살의 길로 몰았으니 그런즉 정군의 죽음은 어리석은 국민이 그를 죽게 한 것이며 부패한 정부가 그를 죽인 것이요 정군의 장국을 죽게 한 것이 아니로다. 오호라. 정군이 이미 죽었으니 다시 정군이 있겠는가. 정군이 가졌던 뜻은 모두 이미 죽었으니 살아있는 자에서 정군과 같은 뜻있는 자가 몇 사람인고. 나는 또 아파하며 분개하며 또 희망하여 정군의 유사(遺事) 대강 모으니 무릇 7, 8절(節)을 얻었기에 눈물을 흘뿌리며 이로써 우

141) 장홍(莚弘, 미상~BC 492년)은 춘추 시대 주(周)나라 경왕(景王)과 경왕(敬王) 때 사람으로 대부(大夫)를 지냈다. 공자(孔子)가 일찍이 그에게 악(樂)을 배웠다. 경왕 28년 진(晉)나라의 대부 범길사(范吉射)와 중행인(中行寅)이 난을 일으켰는데, 함께 일을 도모했다. 진나라 사람이 이 일로 주나라 왕실을 문책하자 촉(蜀) 땅에서 주나라 사람들에게 살해되었다. 또는 주영왕(周靈王) 때 사람으로, 천문에 밝았고 귀신에 관한 일을 잘 알았다고 한다. 일설에 따르면 그가 죽은 뒤 피가 흘러 돌 또는 벽옥(碧玉)으로 변했는데,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장홍(莚弘), 『중국역대인명사전』 참조).

리 동포에게 고하노라.

### 제1 정군의 가세(家世)와 어린 시절

이 부분은 잠시 결여되어 널리 찾기를 기다리거니와 적이 든 기로는 군이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에게서 자랐으며 효성이 지극했다고 하더라.

### 제2 정군의 소원과 경력

정군이 처음 실업가(實業家)로 종사하여 집안이 조금 넉넉했는데 후에 국사(國事)에 격분하여 동지 몇 사람과 교육계에 착수할 새 인천 인명학교교감을 맡아 가산을 모두 처분하여 학교 경비에 쓰는 고로 죽은 후에 집안에는 남은 재산이 없고 또 대한자강지회장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였더라.

### 제3 정군의 결사(決死)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sup>142)</sup>에 군의 죽을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되 하나는 노모가 아직 살아계신 고로 차마 죽을 수 없었고 둘은 국가의 장래를 바라봄으로써 갑자기 죽을 수 없었는데 이래에 국사가 날로 비관적이 되는 것을 보고 애초의 뜻이 더욱 굳어졌음이라. 장차 죽기 하루 전에 자기의 벗들을 대하여 약간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더라.

### 제4 정군의 자포시일(自砲時日)과 경황(境況)

광무 11년 6월 30일에 박영효<sup>143)</sup>씨 환영회를 북서(北署) 능

142)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부른다. 1907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예비 조치로서 체결한 7개 항목의 조약으로,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코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고용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의국인고문용병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할 것이 그것이다.

143) 박영효(朴泳孝, 1861~1939)는 한말의 정치가·개화사상가로 근대적 개혁을 추구한 갑신정변 및 갑오개혁의 주체로 참여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중추원고문, 조선식산은행 이사에 취임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변모하였다.

상소(農桑所) 내에서 개최하고 신사(紳士) 천여 인이 모였는데 군이 양복을 입고 수대(手袋)<sup>144</sup>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사회의 유지자(有志者)라 칭하는 사람이면 일찍이 안면이 생소하더라도 일일이 통성명을 하더라. 여러 사람이 먹기를 마치고 음악과 연회가 한창인데 군이 홀연히 연단 앞에서 자포(自砲)하여 기절 혼도(昏倒)하더라.

#### 제5 유서 2칙(則)과 노래 2결(関)

때맞추어 수백 장 편지가 눈같이 흩어지니 이 흩어진 종이가 모두 어떤 물건이오. 즉 자포(自砲)자의 유서이며 추탁서(追托書)이며 사상팔변가(思想八變歌)며 생육사영가(生辱死榮歌)인데 서두에 정재홍이라 썼더라. (서와 가는 본지 2520호에 있음) 그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자포(自砲)하였는지 알지 못하여 모두 놀랄 뿐이러니 그 글과 노래를 읽음에 두 줄기 눈물이 흐르지 않음이 없어 박 씨의 환영회가 정 씨의 참별장(慘別場)으로 변하였더라. 오호라. 군의 사상이 한두 번에만 그쳤어도 나라를 그르친 자 한두 명의 머리는 반드시 잘렸을 것이요, 서너 번에만 그쳤어도 나라를 그르친 자 한두 명의 가슴은 반드시 갈라졌을 것을 헛되니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에 이르고 서너 번이 아니라 5, 6, 7, 8번에 이르러 군은 죽고 나라를 그르친 자는 살아있으니 애석하도다. 그러나 군은 지금 죽었으되 죽음이란 것은 그 신체는 껍데기요 그 정신은 진실로 살아있다. 내가 아는 군의 정신은 갈수록 더욱 살아나서 매국한 놈은 그 혼백을 잃어 죽은 자가 장차 몇인지 알지 못하니 저 적신(賊臣)은 살았으나 또한 죽은 것이요, 군과 같은 자는 죽었으나 오히려 살아 있는 자로다.

144)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전대나 부대.

## 제6 정군의 영면(永眠)

즉시 적십자 병원으로 옮기니 붉은 피가 입 안에 가득차고 숨이 가쁘더라. 금릉위(錦陵尉) 박영효 씨가 사람을 보내 위문한대 군이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함을 권면하고(자세한 것은 본보 2521호에 있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때는 대한제국 광무 11년 6월 30일 오후 8시라. 지사가 길이 잠듦에 하늘이 참혹하도다.

## 제7 군의 사후 여론과 가족구휼

정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함에 비록 여항(閭巷)<sup>145</sup>의 아녀자와 어린 아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말하길, 정직한 인사(人士)는 모두 죽음으로 스스로 평안해지니 우리들은 장차 누구와 더불어 살기를 구할고 하며 각 지사는 군의 유서에 부탁한 바에 의하여 그 고아 된 아이를 교육할 목적으로 의금(義金)을 수집중이더라.

## 제8 군의 생사일관(生死一貫)의 피맺힌 소원

그러나 만일 단지 이 남겨진 아이를 구휼하는 것으로만 군의 피맺힌 소원에 답한다 하면 어찌 그릇 해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유서의 첫머리 제1항에 피(被)대일본보호한국국민 정재홍이라 썼으니 잘 생각하라. 군이 이 13자를 쓸 때에 반드시 뼈에 사무치며 손을 바들바들 떨고 피눈물을 천만 길이나 흘렸으리니 다른 날 우리들이 군의 자살한 곳에 이르러 대한독립국민 정모 취의비(大韓獨立國民鄭某就義碑)라고 크게 써서 세우면 군이 이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으리라. 오호라. 군이 이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으리рода.

---

145) 백성의 살림집들이 모여 부락을 이룬 곳 또는 일반 대중들의 사회를 의미한다.

**1907년 7월 5일, 畿察初政, 2면 2단, 기사**

京畿觀察使 崔錫敏氏가 到任하면서 陽城郡守 鄭泰魯 麻田郡守 金東熙 富平郡守 李海昌 陽川郡守 安中植 四氏를 免官하고 内部에 報告하였다.

**1907년 7월 5일, 경기관찰사 초정, 2면 2단, 기사**

경기관찰사 최석민 씨가 도임하면서 양성군수 정태노, 마전군수 김동희, 부평군수 이해창, 양천군수 안중식 네 사람을 면관(免官)하라고 내부에 보고하였다.

**1907년 7월 5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牙山郡縣內面下月田 崔舜源 二十錢 리 聖汝 리 弘基 최  
奉雲 柳元伊 各十錢 김 聖七 김영洙 박 永順 崔成雲 북 士玉  
정 聖德 리 光三 리 聖弼 리 興龍 具敎先 김 福祿 김 德輔  
張致連 최 敬順 눈 敬實 張存汝 宋千一 宋元植 리 石甫 김  
敬華 田判國 李春三 韓聖有 宋敬千 全德五 全德化 全君瑞 全  
喜鳳 리 仁輔 宋平汝 리 光執 崔學成 김 致瑞 金昌植 李命根  
리 春西 宋元必 崔善一 崔仁采 덩 雲甫 덩 先甫 高成根 덩  
學西 리 弘根 孟道欽 權致連 김 學先 李正五 宋聖三 宋김승  
李應化 리 元順 裴聖七 金龍振 리 應敏 李德一 리 奉國 金英  
三 崔慶葉 리 尙雲 북 明華 卞德必 金先習 申成五 林春三 정  
成輔 눈 春伯 리 太福 郭者근최 方壽周 各五錢 富平郡郡內面  
金天益 二拾六錢 合 舊貨 四圓四十錢 …… 金額을 本社에 收  
入지 아니하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7월 5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 3면 1단, 광고**

..... 아산군 현내면 하월전 최순원 20전, 이성여, 이흥기, 최봉운, 류원이 각 10전, 김성칠, 김영수, 박영순, 최성운, 박사옥, 정성덕, 이광삼, 이성필, 이홍용, 구교선, 김복록, 김덕보, 장치런, 최경순, 윤경실, 장존여, 송천일, 송원식, 이석보, 김경화, 전판국, 이춘삼, 한성유, 송경천, 전덕오, 전덕화, 전군서, 전희봉, 이인보, 송평여, 이광집, 최학성, 김치서, 김창식, 이명근, 이춘서, 송원필, 최선일, 최인채, 정운보, 정선보, 고성근, 정학서, 이흥근, 맹도흙, 권치런, 김학선, 이정오, 송성삼, 송검승, 이응화, 이원순, 배성칠, 김용진, 이응민, 이덕일, 이봉국, 김영삼, 최경섭, 이상운, 박명화, 변덕필, 김선습, 신성오, 임춘삼, 정성보, 윤춘백, 이태복, 곽자근쇠, 방수주 각 5전, 부평군 군내면 김천익 26전, 함 구화 4환40전 ..... 금액을 본사에 수입지 아니하면 성명을 광고에 게재치 아니함.

**1907년 7월 6일, 德島賊報, 1면 3단, 기사**

京畿德積島에 盜賊이 大熾하여 民難支保함으로 該島居 南敬模氏가 盜賊을 捕捉하라고 追去하다가 該盜에게 中丸致斃한지라 該道觀察使 崔錫敏氏가 此報를 聞하고 内部에 報告하되 南敬模氏가 強盜에게 被害함이 慘酷하니 特施恤典하라 하얏더라.

**1907년 7월 6일, 덕적도 도적 소식, 1면 3단, 기사**

경기 덕적도에 도적이 크게 일어나 인민이 살기 어려우므로 그 섬에 거주하는 남경모 씨가 도적을 붙잡으려고 쫓다가 도적에게 총탄을 맞아 죽음에 이르렀는지라, 그 도 관찰사 최석

민 씨가 이 보고를 듣고 내부(內部)에 보고하되 남경모 씨가 강도에게 피해함이 참혹하니 특별히 홀전(恤典)<sup>146)</sup>을 베풀라 하였더라.

#### 1907년 7월 6일, 法大仁川行, 2면 5단, 기사

日本軍艦禮式을 昨日 仁川港에서 設行하고 法部大臣 趙重應氏에게 請牒함 故로 該氏가 昨日上午十二時에 京仁鐵道를 搭乘하고 發向함앗다가 同日下午九時에 入城함앗다더라.

#### 1907년 7월 6일, 법무대신 인천행, 2면 5단, 기사

일본군함예식을 어제 인천항에서 베풀었고 법무대신 조중응<sup>147)</sup> 씨에게 초청장을 보냈더니 어제 오전 12시에 경인철도를 탑승하고 출발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9시에 서울에 도착하였다더라.

#### 1907년 7월 8일, 各大往參日艦式, 2면 3단, 기사

再昨日 仁川日本軍艦의 禮式을 舉行함는디 總理大臣 李完用氏以下 各部大臣이 同伴參與함앗다가 同日下午八時頃에 入城함앗다더라.

---

146) 나라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계를 잃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로 조선 시대에는 호조(戶曹)와 진휼청(賑恤廳) 및 각 도에서 홀전을 주관하였음. 집이 가난하여 결혼할 나이가 지나서도 혼인하지 못한 사람과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 및 흉년에 구걸하는 어린아이들과 버려진 어린아이들에 대한 구호도 포함됨.

147) 조중응(趙重應, 1860~1919)은 대한제국 시기에 법무대신, 농상공부대신 등을 역임했고, '정미칠적'과 '경술국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중추원 고문과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회장 등으로 활동한 친일반민족 행위자이다.



1907년 7월 8일, 각부 대신이 일함식에 참석하다, 2면 3단, 기사

그저께 인천일본군함의 예식을 거행하는데 총리대신 이완용<sup>148</sup>) 씨 이하 각부 대신이 동반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경에 서울에 도착하였더라.

1907년 7월 8일, 鄭志士葬禮, 2면 5단, 기사

志士 鄭在洪氏의 葬禮는 前報와 如히 再昨日上午十一時에 發靱하야 貞洞禮拜堂에서 禮式을 舉行하얏는디 該氏의 生前歷史는 學務局長 尹致昨氏가 說明하고 石鎭衡 李東暉 金東完 諸氏가 該氏의 熱誠憂國하던 事實을 悲憤慷慨하 言辭로 次第 演說하얏고 牧師 全德基 崔秉憲 兩氏가 祈禱하 後에 阿峴公同墓地로 出往하는디 仁港永化學校와 仁明義塾과 京城孤兒院의 諸學徒가 前導하고 一般 社會의 有志紳士가 多數히 護葬하얏다더라.

1907년 7월 8일, 정지사 장례, 2면 5단, 기사

지사 정재홍 씨의 장례는 전보와 같이 그저께 오전 11시에 발인하여 정동(貞洞) 예배당에서 예식을 거행하였는데 그의 생전 역사는 학무국장(學務局長) 윤치오<sup>149</sup>) 씨가 설명하고 석진형<sup>150</sup>), 이동휘, 김동완 씨가 정 씨의 열성 우국하던 사실

148) 이완용(李完用, 1958~1926)은 대표적인 친일파 관료로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모두에 이름이 올라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거두이다.

149) 윤치오(尹致昨, 1869~1950)는 일본 게이오의숙을 졸업하고 1894년 의정부 주사, 1895년 중추원 참서관을 지냈다.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망명 시 도쿄 외국어학교의 한어교사로 근무했고, 1906년 4월 사면되어 귀국해 10월부터 1907년 3월까지 일본유학생 감독이 되었다. 1907년 5월 학부 학무국장이 되었고, 11월에는 홍사단 발기인이 되었다.

150) 석진형(石鎭衡, 1877~1946)은 대한제국 시기에 부동산법조사위원회 위원, 법관 양성소 교관 등을 역임했으나, 일제강점기 전라남도지사, 동양척식주식회사 감사 등을 지낸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을 비분강개한 언사로 차례로 연설하였고, 목사 전덕기, 최병헌 두 사람이 기도한 후에 아현공동묘지로 출발하는데 인천향 영화학교와 인명의숙과 경성고아원의 여러 학도가 앞서 인도하고 일반 사회의 뜻있는 신사(紳士)가 다수 장례 행렬을 호위하였더라.

1907년 7월 8일, 志士鄭在洪氏遺族救助義捐金氏名, 4면 4단, 광고

錦陵尉 二十圓 南章熙 金潤晶 仁港紳商會社 各五圓式 趙琬九 一圓 (未完)

1907년 7월 8일, 지사 정재홍씨 유족 구조 의연금 씨명, 4면 4단, 광고

금릉위<sup>151)</sup> 20환, 남장희, 김윤정, 인항신상회사 각 5환씩, 조완구 1환 (미완)

1907년 7월 9일, 志士鄭在洪氏喪中賻儀金氏名, 4면 4단, 광고

…… 仁川港耶蘇教會 貳환 仁川港柴炭商會 貳환 吳榮根 貳환 崔永奭 參환 최 夏卿 參환 仁川港大韓自強會仁川支會 拾五환 崔禹政 西厚紙貳束 黃燭壹雙 仁川港米商會社 五환 南小洞洞中 燈百介 七月四日 志士鄭在洪氏遺族救助義捐金氏名廣告欄內 鄭錫暢 一圓은 以鄭暢煥 一圓으로 正誤함.

---

151) 금릉위(錦陵尉)는 철종의 부마이자 고종의 친척 매제가 되는 박영효(朴泳孝)를 지칭하는 품계이다.

1907년 7월 9일, 지사 정재홍씨 상중 부의금 씨명, 4면 4단, 광고

..... 인천항야소교회 2환, 인천항시탄상회 2환, 오영근 2환, 최영석 3환, 최하경 3환, 인천항대한자강회인천지회 15환, 최우정 서후지(西厚紙) 2속(束), 황촉(黃燭) 한쌍, 인천항미상회사 5환, 남소동동중 등(燈) 100개, 7월 4일 지사 정재홍씨 유족구조 의연금 씨명 광고란내 정석창 1환은 정창환 1환으로 바로 고침.

1907년 7월 10일, 普昌校運動, 1면 4단, 기사

陰五月六日에 江華郡可內面鰲山晉昌學校에서 運動會를 設行  
하는디 敎師以下 一般 任員과 學徒 六十五名을 引率하고 玄  
川 等地에서 運動會를 舉行하는디 廟洞敎師 李承烈氏도 學徒  
十餘名을 帶同來到하여 聯合運動하는디 學徒의 隊伍도 端肅  
하고 諸般規模는 整齊하여 次第로 施行하는디 二百步競走 金  
永植 韓圭冕 一百步 韓三敦 安吉鳳 旗取 金孝祖 韓龍雲 黃祐  
琯 計筭 李敎承 韓圭冕 安吉鳳 韓三敦 作文競走 韓圭冕 黃弼  
周 韓應男 韓東轍 安吉鳳 高吉돌 兩人三脚 韓圭縉 黃弼周 韓  
圭冕 李斗甲 兩人同走 金永植 安東植 南宮煉 韓圭冕 騎馬 韓  
圭冕 金永植 黃弼周 金乙男 韓相雨 韓圭縉 文鉉玉 安五鳳 等  
이라 各運動節次를 經試한 후 賞品을 多數이 施與하였다더라.

1907년 7월 10일, 보창학교 운동, 1면 4단, 기사

음력 5월 6일에 강화군 가내면 오산보창학교에서 운동회를  
실시하는데 교사 이하 1반 임원과 학도 65명을 인솔하고 현  
천(玄川)<sup>152</sup> 등지에서 운동회를 거행하였다. 묘동교사 이승  
렬 씨도 학도 10여 명을 대동하고 와서 연합 운동하는데 학

도의 대오도 단정하고 제반 규모는 정제하여 차례로 시행하는데 200보 경주 김영식, 한규면, 100보 한삼돈, 안길봉, 깃발 뺏기 김효조, 한용운, 황우관, 계산 이교승, 한규면, 안길봉, 한삼돈, 작문경주 한규면, 황필주, 한응남, 한동철, 안길봉, 고길돌, 2인 3각 한규진, 황필주, 한규면, 이두갑, 두 사람 함께 달리기 김영식, 안동식, 남궁련, 한규면, 기마 한규면, 김영식, 황필주, 김을남, 한상우, 한규진, 문현옥, 안오봉 등이다. 각 운동 절차를 경험한 후 상품을 다수가 받았더라.

### 1907년 7월 10일, 不法者禁戢訓飭, 2면 4단, 기사

農商工部에서 江華郡守에게 訓令하되 貴郡玉浦에 名不知陰姓者가 浦監考라 稱하고 來往船舶의 税金을 收捧이다 하니 雜稅革罷事로 前後申飭이 不啻申重이어날 該人은 以何悖類로 行此不法徵收이며 其在地方官하야 胡爲任他不禁인지 到卽嚴行禁戢하라 하였더라.

### 1907년 7월 10일, 불법자 금증 훈칙, 2면 4단, 기사

농상공부에서 강화군수에게 훈령하되 귀 군(郡) 옥포(玉浦)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음 씨 성을 가진 자가 포감고(浦監考)<sup>153</sup>라 칭하고 왕래하는 선박의 세금을 거둔다 하니 잡다한 세금을 혁파하는 일로 계속 타이름이 거듭 중하거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부류로 이런 불법 징수를 행하며 그 지방관이 있는데 임무를 맡아서는 어찌 금하지 않는 것인지 도

152)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고려저수지의 서쪽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0.695km 구간은 강화군의 소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다.

153) 세곡이나 물자가 운송되는 포구(浦口)를 감독하며 수세(收稅)를 하던 관리를 말한다.

작 즉시 엄히 다스려 물리치도록 하라 하였더라.

**1907년 7월 11일, 金氏到仁, 2면 3단, 기사**

智島郡流配호았던 金允植氏가 再昨日 木浦에서 發程호았던디  
今日 仁川港에 到泊한다더라.

**1907년 7월 11일, 김씨가 인천항에 도착, 2면 3단, 기사**

지도군(智島郡)<sup>154</sup>)에 유배되었던 김윤식<sup>155</sup>) 씨가 그에게 목  
포에서 출발하였는데 금일 인천항에 도착한다더라.

**1907년 7월 12일, 證明錯誤起訴, 1면 3단, 기사**

仁港居 安重基 李寅圭 兩氏의 山坂이 在於該郡多所面松林洞  
인디 兩氏의 山坂中間에 日本人 武川盛次氏의 山坂이 有하더  
니 武川氏 山坂을 日本人 佐田精一氏의게 渡賣할 時에 安李  
兩氏의 山坂이 並호야 該府尹 金潤晶氏가 三處山坂을 佑田  
氏가 並皆買得한 樣으로 證明臺帳에 記載호고 日本理事廳으  
로 地契를 繕給호라고 照會호야 安李兩氏가 白失山坂호지라  
該兩氏의 代言人 安國善 李冕宇 兩氏가 該府尹 金潤晶氏를  
被告삼아 土地證明錯誤에 基因한 損害賠償金 二萬餘圓을 徵  
出호야 달나고 京畿裁判所에 起訴호았더니 裁判管轄區域이  
互異함으로 不可決處라 호는 故로 平理院에 抗告狀을 提呈호  
았다더라.

---

154) 전라남도에 위치함.

155)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조선 말기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관료로 황실제  
도국총재, 강구회 회장, 홍사단 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일제강점기 작위 등을 받  
기는 했으나 3·1운동 때에는 이윤직과 함께 독립을 청원하는 <대일본장서>를 제  
출하여 작위를 삭탈당하기도 했다.

**1907년 7월 12일, 증명 착오 기소, 1면 3단, 기사**

인천항에 사는 안중기, 이인규 두 사람의 산판(山坂)<sup>156)</sup>이 그 군의 다소면 송림동에 있는데 두 사람의 산판 중간에 일본인 무천성차(武川盛次)씨의 산판이 있더니 무천 씨의 산판을 일본인 좌전정일(佐田精一) 씨에게 팔 때에 안 씨, 이 씨 두 사람의 산판까지 합하여 그 부윤 김윤정 씨가 세 곳의 산판을 좌전 씨가 모두 산 모양으로 증명대장에 기재하고 일본 이사청으로 토지 소유 문서를 지급하라고 조회하여 안 씨, 이 씨 두 사람이 산판을 죄다 잃어버린지라. 그 두 사람의 대변인 안국선, 이면우 두 사람이 그 부윤 김윤정 씨를 피고삼아 토지증명착오에 기인한 손해배상금 2만여 원을 징출해 달라고 경기재판소에 기소하였더니 재판관할구역이 서로 다르다고 가결치 못한다고 하니 평리원<sup>157)</sup>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

**1907년 7월 13일, 趙氏迎接金氏, 2면 3단, 기사**

法部大臣 趙重應氏가 再昨日 仁川港에 前往하야 解配한 金允植氏를 迎接하얏는디 同日下午六時에 南門外 朴用勳氏家에 留宿하얏다더라.

**1907년 7월 13일, 조씨 영접 김씨, 2면 3단, 기사**

법부대신 조중응 씨가 그저께 인천항에 가서 귀양살이에서 돌아온 김윤식<sup>158)</sup> 씨를 영접하였는데 동일 오후 6시에 남문

---

156)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

157) 대한제국 때, 재판을 맡아보던 관아.

158) 1835~1922. 조선 말기의 문신·학자. 갑오개혁의 입안자로 참여하는 한편, 일본에 의해 국권이 잠식당하는 굴욕적인 모든 조약이나 조처에 순응하였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사건이 일어나자 외무대신직에서 면직되었고, 을미사변과 관련해 탄핵을 받고 제주목(濟州牧)으로 종신 징배되었다. 1907년 7월 일진회의 간청과, 정부의 70세 이상자에 대한 석방 조처에 따라 10년 만에 해금되어 서울에 돌아왔다.

박 박용훈 씨 집에 유숙하였다더라.

**1907년 7월 15일, 言志悽悵, 2면 6단, 기사**

金允植氏가 日前 仁川港에 到泊할 時에 感舊之懷를 不勝호야 絶句을 呼題호았다는디 其詩가 如左호니 千里鄉關一日程 挈 挈老子不勝情 當年故舊知何在 惟有青山帶笑迎<sup>159)</sup>.

**1907년 7월 15일, 말뜻이 구슬프다, 2면 6단, 기사**

김윤식 씨가 전일 인천항에 도착할 때에 지난날을 떠올리며 절구를 읊었다는데, 그 시가 다음과 같다. “천리 먼 고향을 하루 여정으로 오니, 가냘픈 늙은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네. 이전의 옛 친구들은 어디 있는가, 오직 청산만 웃음 띠고 맞아주네.”

**1907년 7월 17일, 李氏下鄉, 2면 4단, 기사**

警務廳警察課長 李憲珪氏는 所關事가 有호야 昨日 仁川本第로 下往호았는디 數日後에 還歸호다더라.

**1907년 7월 17일, 이 씨가 고향에 내려오다, 2면 4단, 기사**

경무청 경찰과정 이현규 씨는 관련된 일이 있어서 어제 인천 고향집으로 내려왔는데 수일 후에 돌아간다더라.

**1907년 7월 18일, 九郡守依免, 2면 3단, 기사**

江陵 李台珽 抱川 金永儀 陽川 安中植 振威 白南奎 安城 李鎬集 金堤 李時宰 蔚珍 尹榮兌 富平 李海昌 穩城 白冀洙 諸氏는 依免호았더라.

---

159) 김윤식, <搭輪船泊仁港作 六月(윤선을 타고 인천항에 도착하다 6월)>, 『운양집』 제6권.

**1907년 7월 18일, 9명 군수 의원면직, 2면 3단, 기사**

강릉 이태정, 포천 김영의, 양천 안중식, 진위 백남규, 안성 이호집, 김제 이시재, 울진 윤영태, 부평 이해창, 온성 백기수 등은 의원면직(依願免職) 하였더라.

**1907년 7월 18일, 挾雜收稅者禁訓, 2면 5단, 기사**

農商工部에서 江華 金浦 通津 陽川 等 四郡守에게 訓令호되 雜稅革罷事로 前後朝飭이 不是申嚴뿐더러 隨弊隨革을 靡不行飭인 바 近於陽川郡鹽倉浦에 全仁成 爲名者가 稱托宮內府認許호고 來往船隻에 立松稅라 稱호야 擅行收稅호기로 本部에서 派員調査호야 并飭禁斷케 호 後에 宮內府에 照詢호았더니 答照內에 該差帖을 業已繳收라 호나 慮有無賴輩가 乘間暗售호야 不法徵收之弊이기로 發訓호노니 調査各浦호야 或 有收稅者어던 捉囚郡獄호고 形止를 馳報호라 호았더라.

**1907년 7월 18일, 협잡 수세자 금훈, 2면 5단, 기사**

농상공부에서 강화, 김포, 통진, 양천 등 네 군수에게 훈령하되 잡세를 혁파하는 일로 전후 조치가 엄중하지 않을 뿐더러 폐단을 좇기를 경계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가까이 양천군 염창포에 전인성이라는 자가 궁내부 인허를 청탁하고 배를 타고 와서 입송세(立松稅)라고 하며 맘대로 세금을 거두니, 본부에서 사람을 보내 조사하여 아울러 경계하고 금지시킨 후에 궁내부에 물었더니 답변 안에 그 차첩(差帖)<sup>160)</sup>을 이미 거두어들였다고 하나 염려하기를 무뢰배가 어둠을 틈타 팔아 불법 징수한 폐단이기로 훈령을 내리니 각 포구를 염탐 조사

---

160) 하급 관원에게 내어 주는 임명장.



하여 혹 세금을 거두는 자가 있으면 붙잡아 군에 가두고 사실대로 전하라고 하였더라.

**1907년 7월 19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 富平郡守 李海昌 穩城郡守 白冀洙 依願免本官 …… 以上  
七月十六日 ……

**1907년 7월 19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부평군수 이해창, 온성군수 백기수 의원면직 본관 ……  
이상 7월 16일 ……

**1907년 7월 19일, 費達巨額, 2면 4단, 기사**

日前 度支部에서 治道費 三萬圓, 仁川水道費 五萬圓, 平壤水道費 三萬圓, 病院建設費 二萬圓 裁判所建築費 一萬圓, 學事擴張費 二萬四千圓, 工業傳習所建設費 一千圓, 煉瓦製造所費 三萬圓, 印刷局擴張費 一萬圓을 日本興業銀行에서 中央金庫로 移付하였다더라.

**1907년 7월 19일, 비용이 거액에 달하다, 2면 4단, 기사**

일전에 탁지부에서 치도비 3만환, 인천수도비 5만환, 평양수도비 3만환, 병원건설비 2만환, 재판소건축비 1만환, 학사확장비 2만4천환, 공업전습소건설비 1천환, 연와제조소비 3만환, 인쇄국확장비 1만환을 일본흥업은행에서 중앙금고로 이부하였더라.

**1907년 7월 20일, 仁港回祿, 1면 5단, 기사**

再昨日上午九時半에 仁港各國民居留地內에서 起火하여 火燄

이 冲天호고 家屋이 延燒호았다는디 風勢所激에 良久乃滅호  
았다라.

**1907년 7월 20일, 인천항 화재, 1면 5단, 기사**

그저께 오전 9시 반에 인천항 각국민 거류지 내에서 불이 일  
어나 화염이 하늘로 치솟고 가옥이 불에 탔는데 바람의 기세  
가 격렬하여 한참 후에야 불이 꺼졌다더라.

**1907년 7월 23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仁川朝洞面宜洞 리 心英 徐丙炫 各五十兩 리 秀同 三十  
兩 李景德 리 千萬 各二十五兩 李東賢 리 敬天 各十五兩 리  
常華 李龜承 各十兩 李東明 申永國 趙 龍漢 各五兩 合 當五  
二百四十五兩 金額을 本社에 收入지아니 호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7월 23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  
단, 광고**

…… 인천 조동면 의동 이심영, 서병현 각 50냥, 이수동 20냥,  
이경덕, 이천만 각 25냥, 이동현, 이경천 각 15냥, 이상화, 이  
귀승 각 10냥, 이동명, 신영국, 조용한 각 5냥, 합 당오 245  
냥. 금액을 본사에 수입하지 아니하면 성명을 광고에 게재치  
아니함.

**1907년 7월 24일, 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公立仁川普通學校敎員 李承默 公立富平普通學校敎員 申宰均  
依願免本官 七月一日 ……

1907년 7월 24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공립인천보통학교교원 이승묵, 공립부평보통학교교원 신재균  
의원면직 본관 7월 1일 .....

1907년 7월 24일, 流刑諸氏發配, 2면 4단, 기사

何許罪人 三十餘人을 監獄署에서 出發하야 南大門 等地로 領  
去하얏다고 已揭昨報어니와 確報를 據호 則 流配罪人 閔宗植  
李容泰 諸氏 等 三十六人이 到配次로 再昨日 京仁列車를 搭  
乘호고 同上午十時五十分에 仁港에 到着하야 即時에 日本燈  
台巡視艦光濟號를 搭乘호고 日本憲兵 一分隊와 仁港稅關吏  
十名이 同乘하야 木浦方面으로 護送하얏는디 該罪人諸族戚이  
此信을 聞호고 急히 仁港으로 下去作別코저 호나 不及호 者  
가 多하다더라.

1907년 7월 24일, 유배 죄인 여럿이 유배를 떠나다, 2면 4  
단, 기사

어떤 죄인 30여 인을 감옥서에서 출발하여 남대문 등지로 데  
리고 갔다고 이미 어제 신문에 보도했거니와 확실한 소식에  
근거한 즉 유배 죄인 민종식, 이용태씨 등 36인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위해 그저께 경인열차를 탑승하고 오전 10시 50분  
에 인천항에 도착하여 즉시에 일본 등대 순시함 광제호<sup>161)</sup>를  
탑승하고 일본 헌병 1분대와 인천항 세관 관리 10명이 동승  
하여 목포방면으로 호송하였는데 그 죄인의 여러 친척들이

---

161) 광제호(光濟號)는 서해안 경비를 위해 건조된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군함으로 무  
선 전진시설이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이었다. 전장 약 73m(220척), 너비  
약 10m(30척), 선심 약 7m(21척), 화물 적재량 540톤, 총톤수 1,056톤으로 해  
안경비, 등대 순시 및 세관 감시에 이용되었다. 1904년 12월 20일 대한제국 정  
부에 인도되어 활용되다가,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해관의 관리권도 일본으로 넘어  
감에 따라 해군 군함으로서의 사명은 끝이 났다.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인천항으로 내려와 작별하고자 하나 이르지 못한 자가 많다고 하더라.

**1907년 7월 24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仁川新峴面三里銀杏亭 黃聖參 曹康植 金萬山 各五十兩  
李明信 金尹參 金參興 金永執 金春先 黃正路 各三十兩 金春  
法 金 號先 金上順 各廿五兩 金春甫 金聖有 芮新通 金永根  
各二十兩 黃氏돌 金春實 梁聖順 各拾五兩 黃順元 黃黃山 文  
吉南 金春根 嚴釗公 金弘在 金德甫 裴皆돌 金道戊 朴聖大 鄭  
壽命 金順參 黃聖尹 各十兩 裴元明 二拾兩 合 當五 六百八十  
兩 …… 金額을 本社에 收入지 아니하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  
치 아니함.

**1907년 7월 24일, 國債報償義務金 集送人員 및 액수, 3면 1단, 광고**

…… 인천 신현면 삼리 은행정 황성삼, 조강식, 김만산, 각 50  
냥, 이명신, 김윤삼, 김삼흥, 김영집, 김춘선, 황정로 각 30냥,  
김춘법, 김호선, 김상순 각 25냥, 김춘보, 김성유, 예신통, 김  
영근 각 20냥, 황씨돌, 김춘실, 양성순 각 15냥, 황순원, 황황  
산, 문길남, 김춘근, 엄쇠공, 김홍재, 김덕보, 배개돌, 김도수,  
박성대, 정수명, 김순삼, 황성윤 각 10냥, 배원명 20냥, 합 당  
오 680냥 …… 금액을 본사에 수입지 아니하면 성명을 광고에  
게재치 아니함.

**1907년 7월 25일, 仁港賴安, 2면 5단, 기사,**

仁川府尹 金潤品氏가 内部電訓을 承準하야 巡檢을 帶同하고

晝行夜察하야 家諭戶說에 一境이 晏然이라고 內部에 報告하  
았더라.

**1907년 7월 25일, 인천항 평안, 2면 5단, 기사**

인천부윤 김윤정(金潤晶)이 내부(內部) 지시에 따라 순검을  
대동하고 집집마다 순찰하여 그 일대가 평안하다고 내부에  
보고하였다 한다.

**1907년 7월 25일, 株式會社漢城銀行,<sup>162)</sup> 4면 4단, 광고,**

[電話六四六番]皇城鍾路 支店所在地水原 資本金拾五萬圓 積  
立金五千五百圓 一 諸任金 定期, 不定期가 有하디 任主에게  
計撥하느 利息이 隨各差異하며 他人金額의 秘密, 安全, 融通,  
貯蓄에 極圖便利하 一 諸貸金及手形割引 [手形典入] 確實하  
典物을 典執하고 借主에게 貸給하 但 諸利息及割引料는 日數  
로 計算하 一 爲替送金 [普通換及電報換] 其處所는 左開하  
水原, 仁川, 群山, 木浦, 釜山, 馬山浦, 大邱, 開城, ……

**1907년 7월 25일, 주식회사 한성은행, 4면 4단 광고,**

[전화 646번]황성 종로, 지점소재지 수원, 자본금 15만원, 적  
립금 5,500원

1. 제 예금 정기·부정기가 있는데 예금주에게 주는 이자가 각  
기 다르며 타인 예금의 비밀·안전·유통·저축에 극히 편리함

1. 제 대금 및 어음 할인은 확실한 물건을 담보하고 차주(借  
主)에게 대급함.

단 제 이자 및 할인료는 일수(日數)로 계산함.

---

162) 주식회사한성은행 광고는 7월 27일 ~ 8월 7일까지 같은 광고가 게재되었다.

1. 환어음 송금(보통환 및 전보환) 장소는 아래와 같음.  
수원·인천·군산·목포·부산·마산포·대구·개성 .....

1907년 7월 26일, 敎場何如農場, 2면 6단, 기사,  
江華郡府內面紅門 東門 兩洞에 鎭衛隊에서 兵額이 隨時 鍊習  
하던 敎場에 農林場을 設寔하야 民業을 發達할 事로 農商工  
部에서 軍部로 照會하고 該基址를 借與하라 ㅎ앗더라.

1907년 7월 26일, 교장에 농장 설치, 2면 6단, 기사,  
강화군 부내면 홍문(紅門) 동문(東門)동에 진위대(鎭衛隊)  
에서 병사들이 수시 연습하던 교장(敎場)에 농림장을 설치하  
여 민업(民業)을 발달할 일로 농상공부에서 군부(軍部)로 조  
회하고 그 땅을 빌릴 것이라 하였다 한다.

1907년 7월 27일, 十五郡守, 2면 3단, 기사,  
內部에서 郡守를 奏本하단는 說은 已揭前報어니와 奏裁호 氏  
名이 如左하니 陽川 徐丙業, 安城 金榮鎭, 竹山 趙鏞夏, 陽智  
沈宜赫, 穩城 金斗天, 金堤 殷松悅, 富平 全國煥, 利川 趙勉淳,  
洪川 南龍熙, 抱川 韓晩容, 通川 金孝益, 江陵 池逸燦, 長湍  
趙重恩, 振威 金英鎭, 蔚珍 李啓宓 等 諸氏러라.

1907년 7월 27일, 15개군 군수, 2면 3단, 기사  
내부(內部)에서 군수(郡守)를 상주한다는 설은 이미 보다하였거  
니와 그 이름이 다음과 같으니 양천 서병업, 안성 김영진, 죽산  
조용하, 양지 심의혁, 온성 김두천, 김제 은송열, 부평 전국환,  
이천 조면순, 홍천 남룡희, 포천 한만용, 통천 김효익, 강릉 지일  
찬, 장단 조중은, 진위 김영진, 울진 이계복 등이라 한다.

**1907년 7월 30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任富平郡守敍奏任官四等 全國煥 …… 以上七月二十四日

**1907년 7월 30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 임명 부평군수 주임관 4등 전국환(全國煥) …… 이상 7월 24일

**1907년 7월 31일, 普校夏期成績, 1면 4단, 기사**

江華郡內可面鰲山普昌學校에서 陰本月十一일에 夏期試驗을 經호얏는디 普通課優等生은 韓圭縉 韓圭冕 文鉉玉, 及第生은 黃弼周 南宮嫻 尹九儀 李敎承, 中等小學課優等生은 安吉鳳 安奎燮 韓觀鎬 韓圭大, 及第生은 金乙男 高吉돌 韓圭轍, 初等小學課優等生은 安福成 韓龍雲 安千龍 諸氏더라.

**1907년 7월 31일, 보창학교 성적, 1면 4단, 기사**

강화군 내가면 오산 보창학교(鰲山 普昌學校)에서 음력 7월 11일에 하기 시험을 하였는데 보통과 우등생은 한규진(韓圭縉) 한규면(韓圭冕) 문현옥(文鉉玉) 급제생은 황필주(黃弼周) 남궁혁(南宮嫻) 윤구의(尹九儀) 이교승(李敎承), 중등소학과 우등생은 안길봉(安吉鳳) 안규섭(安奎燮) 한관호(韓觀鎬) 한규대(韓圭大) 급제생은 김을남(金乙男) 고길돌(高吉돌) 한규철(韓圭轍), 초등소학 우등생은 안복성(安福成) 한용운(韓龍雲) 안천룡(安千龍) 등이라고 한다.

**1907년 7월 31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安山馬遊面九芝井洞中 唐潤周 六圓二拾錢 …… 富平郡巫夫廳

石川 申興福 一圓五十錢 申興善 四十錢 申興鳳 申龍鉉 各 二十錢 邑內 申興雲 沒串面 張春山 張基山 梨花村 宋得釗 方殷種 石串面 申孝童 申吉童 洞所井面 申壽童 조 楊錫 各四十錢 西面 申憶奉 二十錢 申凡實 十錢 佐串面 조 陽孫 조 陽福 玉山面 韓得達 各四十錢 韓龍民 二十錢 水呑面 金順奉 조 陽得 金致根 各四十錢 合 新貨 八圓八十錢 …… 金額을 本社에 收入지 아니하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7월 31일, 국채보상금 납부자와 금액, 3면 1단, 광고  
 안산 마유면 구지정동 당윤주(唐潤周) …… 부평군 무부청  
 (巫夫廳) 석천(石川) 신흥복(申興福) 1환 50전, 신흥선(申興  
 善) 40전, 신흥봉(申興鳳) 신흥현(申龍鉉) 각 20전, 읍내 신  
 흥운(申興雲) 물곡면(沒串面) 장춘산(張春山) 장기산(張基  
 山) 이화촌(梨花村) 송득쇠(宋得釗) 방은중(方殷種) 석곶면  
 (石串面) 신흥동(申孝童) 신길동(申吉童) 동소정면(洞所井  
 面) 신수동(申壽童) 조양석(조楊錫) 각 40전, 서면(西面) 신  
 억봉(申憶奉) 20전 신범실(申凡實) 10전 좌곶면(佐串面) 조  
 양순(조陽孫) 조양복(조陽福) 옥산면(玉山面) 한득달(韓得  
 達) 각 40전 한용민(韓龍民) 20전 수탄면(水呑面) 김순봉(金  
 順奉) 조양득(조陽得) 김치근(金致根) 각 40전 합계 신화(新  
 貨) 8환 80전 …… 금액을 본사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면 성명  
 을 광고에 게재치 아니함.



## 1907년 8월

### 1907년 8월 1일, 法艦泊仁, 2면 3단, 기사

仁川府尹 金潤晶氏가 内部에 報告호되 法國軍艦 一隻이 本月 二十六日上午十時頃에 到泊호았다 호았더라.

### 1907년 8월 1일, 프랑스군함 정박, 2면 3단, 기사

인천부윤 金潤晶氏가 内部(内部)에 보고하되 프랑스 군함 1척이 7월 26일 상호 10시경 정박하였다고 한다.

### 1907년 8월 1일, 타임스社被訴, 2면 6단, 기사

仁川港에서 日本人이 發行호는 타임스 新聞社에서 日前 號外 新聞에 掲載호기를 日本人 高橋, 大垣 諸氏 等이 朴泳孝氏의 陰謀에 同參호았다 호 事로 高橋氏 等이 損害賠償金 十萬餘 圓을 添附호야 理事廳에 起訟호았다고 某報에 揭道호았더라.

### 1907년 8월 1일, 타임스사 고소, 2면 6단, 기사

인천항에서 일본인이 발행하는 타임스신문사에서 전날 호외 신문에 게재하기를 일본인 고교(高橋), 대원(大垣) 등이 박영효(朴泳孝)의 음모에 동참한 일로 고교(高橋) 등이 손해배상금 10만여 원을 첨부하여 이사청에 소송하였다고 모 신문에 보도하였다고 한다.

### 1907년 8월 2일, 仁港失火, 2면 5단, 기사

仁川府尹 金潤晶氏가 内部에 電報호되 七月三十日夜에 本港 花開洞에서 失火호야 郵便局까지 延燒호고 人命은 幸無致傷 이라 호았더라.

1907년 8월 2일, 인천항 화재, 2면 5단, 기사

인천부윤 김윤정(金潤晶)이 내부에 전보하되 7월 30일 밤에 인천항 화개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편국까지 연소하고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다고 한다고 전한다.

1907년 8월 7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高陽下道面亂下里洞中 當五 一百兩 …… 江華郡內可面黃清洞中 二十圓 江界前川面 盧亨俊 柳元成 柳丙吉 合 一환 金仲漢 五十錢 宋洛亨 一환 合 二圓五十錢 …… 金額을 本社에 收 入지 아니하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8월 7일, 국채보상금 납부자와 금액, 3면 1단, 광고

고양군 하도면 난하리동, 당오전 일백냥 …… 강화군 내가면 황청동(黃淸洞) 20환 강계군 전천면 노형준(盧亨俊) 유원성(柳元成) 유병길(柳丙吉) 합 1환 김중한(金仲漢) 오십전 송낙형(宋洛亨) 1환 합 2환 50전 …… 본사(本社)에서 수입하지 않은 것은 이름을 광고에 게재하지 않음.

1907년 8월 8일, 本月一日爲始호야 平澤停車場前에 本會社出張所를 開設호고, 3면 6단, 광고<sup>163)</sup>

本月一日爲始호야 平澤停車場前에 本會社出張所를 開設호고 左開호 一般 倉庫業을 營行호오니 多少를 不拘호고 去來호심을 仰要 一 一般 商品의 保管 一 保管物品에 對호 金融 一 換錢 隆熙元年八月七日 京城南大門外漢城共同倉庫株式會社

---

<sup>163)</sup> 이 광고는 8월 9일에도 같은 광고가 게재되었다.

電話五四四番 仁川各國居留地五號 同出張所 忠淸南道江景浦  
同出張所 平澤停車場前 同出張所.

**1907년 8월 8일, 이번 달 1일부터 평양정거장 앞에 출장소  
개설, 3면 6단, 광고**

본월(8월) 1일부터 평택정거장 앞에 회사 출장소를 개설하고  
일반 창고업을 운영하오니 다소를 불구하고 거래하시길 바랍  
니다.

**1. 일반 상품 보관**

**1. 보관물품에 대한 금융**

**1. 환전**

융희 원년(1907) 8월 7일 경성 남대문 밖 한성공동창고주식  
회사, 전화 544

인천 각국거류지 5호 출장소, 충남 강경포 출장소, 평택정거  
장 앞 출장소.

**1907년 8월 8일, 株式會社漢城銀行, 4면 4단, 광고<sup>164)</sup>**

[電話六四六番] 皇城鍾路 支店所在地水原 資本金參拾萬圓 積立  
金一萬七千圓 一 諸任金 定期, 不定期가 有흔디 任主에게 計撥  
하는 利息이 隨各差異하며 他人金額의 秘密, 安全, 融通, 貯蓄  
에 極圖便利함 一 諸貸金及手形割引 [手形典入] 確實호 典物を  
典執호고 借主에게 貸給함 但 諸利息及割引料는 日數로 計算함  
一 爲替送金 [普通換及電報換] 其處所는 左開함 水原, 仁川, 群  
山, 木浦, 釜山, 馬山浦, 大邱, 開城, …… 其他 一般 銀行의 業  
務를 確實營行함 總務長 韓相龍 營業部長 李升鉉.

---

164) 이 광고는 8월 9일 ~ 12월 5일까지 같은 광고가 게재되었다.

**1907년 8월 8일, 주식회사 한성은행, 4면 4단, 광고**

[전화 646번] 황성 종로, 지점소재지 수원, 자본금 13만원,  
적립금 17,000원

1. 제 예금 정기·부정기가 있는데 예금주에게 주는 이자가 각  
기 다르며 타인 예금의 비밀·안전·유통·저축에 극히 편리함

1. 제 대금 및 어음 할인은 확실한 물건을 담보하고 차주(借  
主)에게 대급함.

단 제 이자 및 할인료는 일수(日數)로 계산함.

1. 환어음 송금(보통환 및 전보환) 장소는 아래와 같음.

수원·인천·군산·목포·부산·마산포·대구·개성 .....

기타 일반 은행 업무를 확실영업함. 총무장 한상룡(韓相龍),  
영업부장 이승현(李升鉉).

**1907년 8월 10일, 日艇泊仁, 2면 4단, 기사**

本月八日에 日本國驅逐水雷艇 兩隻이 仁川港에 到泊하엿다더  
라.

**1907년 8월 10일, 일본 선박 인천 도착, 2면 4단, 기사**

본월(8월) 8일에 일본국 구축 수뢰정 2척이 인천항에 정박하  
였다고 한다.

**1907년 8월 12일, 統監餞別, 2면 3단, 기사**

伊藤統監이 昨日下午二時에 歸國次로 南大門外停車場에서 仁  
川港으로 發向하얏는디 總理大臣 李完用 農商大臣 宋秉畷 法  
部大臣 趙重應 諸氏가 餞別하기 爲하야 仁川港까지 下往하얏  
다더라

1907년 8월 12일, 통감 환송, 2면 3단, 기사

이토 통감(伊藤統監)이 어제(11일) 오후 2시에 귀국차 남대문 밖 정거장에서 인천항으로 출항하였는데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 대신 송병준(宋秉駿) 법무대신 조중응(趙重應)이 전별하기 위하여 인천항까지 갔다고 한다.

1907년 8월 13일, 江華不穩, 2면 4단, 기사

江華郡에 人民이 暴動하야 日兵이 鎮壓次로 發往하느니 該暴徒가 日兵과 交戰하야 日兵 四名은 致死하고 四名은 重傷을 被하고 船夫 四名도 致斃하얏다느니 暴徒의 數호는 益益 增加하더라.

1907년 8월 13일, 강화도 불온, 2면 4단, 기사

강화군에 인민이 폭동하여 일본군이 진압차 갔는데 이 폭도가 일본군과 교전하여 일본군 4명은 치사(致死)하고 4명은 중상을 입고 선원 4명도 치사하였다는데 폭도 수효는 점점 증가한다고 전한다.

1907년 8월 13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淸風郡遠西面中老灘 李元宰 二圓 韓弼履 一圓五十錢 李益宰 金漢翊 各一圓 …… 江華郡 尹相健 四十元 崔秉敦 張基文 田榮鐸 各二十元 金相益 金永淳 金性範 曹相貞 洪元燮 洪允燮 各十元 金興三 八元 金泰容 六元 崔永培 任台錫 吳相燮 各五元 李文圭 金光鉉 金完植 吳銀燮 尹相佑 金學濟 李永萬 黃輔顯 朴汝貞 各四元 俞鎮根 三元 金儀錫 李明俊 金鍾式 盧相德 金南秀 俞鎮植 金炳弼 崔佑玄 黃國玄 琴完錫 咸致祥

李學洙 金根植 尹寅嫻 金允富 金東憲 洪在弼 趙元成 申龍燮  
 金斗洙 田元培 金聖翊 盧良日 俞錫柱 金九奉 金應善 安永範  
 金重九 金晚植 金顯聲 李元柱 崔聖儀 鄭基銓 朴承佑 尹奉吉  
 崔聖周 尹洛瑞 朴兢來 李致德 張聖彩 金斗鉉 朴景裕 趙敬泰  
 召 啓弘 尹伯寅 金氏 ㅁ 聖茂 各二元 李益祥 一元六十錢 田  
 貞實 白守成 李命吉 黃在洪 各一元二十錢 張淳五 尹斗鉉 田  
 鎬吉 張琦英 趙昌道 劉寅軾 金永秀 琴完成 金윤 敬 方台精  
 ㅁ 昌植 方宜大 金奎淳 盧宗雲 白南周 尹永突 權聖錄 李容  
 善 姜敬桓 金斗秀 嚴仁鎔 蔡元根 朴台益 崔斗鉉 李春逢 ㅁ  
 淵壽 金啓根 尹三秀 僧善祚 李元成 ㅁ 大元 朴鎮圭 李時英  
 韓君善 韓信教 方容學 韓祥教 李元根 朴宗成 ㅁ 相春 盧義  
 鉉 魯占東 召 顯模 金仁培 崔仁基 崔駿琪 金潤邦 崔光鍊 召  
 景淳 曹世默 各一元 金益模 金宗浩 各八十錢 金東鎬 七十錢  
 高佑鎮 金致煥 李玉寅 金昌桓 朱德興 崔鎮亨 徐相嫻 僧德元  
 李春根 各六十錢 金富壽 五十五錢 金順浩 金奎煥 崔錫浩 尹  
 寬嫻 申箕範 李忠吉 金應鉉 李貴富 李淳浩 金潤豐 黃建周  
 金德秀 崔相根 趙文元 李時應 金榮熙 安吉用 李聖雲 各五十  
 錢 李連伯 李有山 林貞西 李윤 文 ㅁ 錫淵 金二弘 金鎬鳳  
 金甲秀 金泰鎮 嚴學來 俞鎮國 全云善 黃甫玄 田相植 徐容琪  
 趙應洙 黃鳳錫 金東根 金錫喜 李斗英 各四十錢 李基昌 金順  
 元 各三十錢 張鳳榮 李京琯 金昌煥 龍滿錫 ㅁ 喜錫 高東伊  
 趙元榮 趙雲善 ㅁ 義奉 權清一 李容稷 金光錫 各二十錢 高  
 春卿 十錢 洪順根 一元五十錢 合 舊貨 四百八元二十五錢  
 (未完)

1907년 8월 13일, 국채보상금 납부자 명단과 금액, 3면 1단,  
광고

청풍군(淸風郡) 원서면(遠西面) 중로탄(中老灘) 이원재(李元宰) 2환 한필리(韓弼履) 1환50전, 이익재(李益宰), 김한익(金漢翊) 각 1환 ..... 강화군 윤상건(尹相健) 40원, 최병돈(崔秉敦) 장기문(張基文) 전영탁(田榮鐸) 각 20원, 김상익(金相益) 김영순(金永淳) 김성범(金性範) 조상정(曹相貞) 홍원섭(洪元燮) 홍윤섭(洪允燮) 각 10원, 김흥삼(金興三) 8원 김태용(金泰容) 6원, 최영배(崔永培) 임태석(任台錫) 오상범(吳相燮) 각 5원, 이문규(李文圭) 김광현(金光鉉) 김원식(金完植) 오은섭(吳銀燮) 윤상우(尹相佑) 김학제(金學濟) 이영만(李永萬) 한보현(黃輔顯) 박여정(朴汝貞) 각 4원, 유진근(兪鎭根) 3원, 김의석(金儀錫) 이명준(李明俊) 김종식(金鍾式) 노상덕(盧相德) 김남수(金南秀) 유진식(兪鎭植) 김병필(金炳弼) 최우현(崔佑玄) 황국현(黃國玄) 금완석(琴完錫) 함치상(咸致祥) 이학수(李學洙) 김근식(金根植) 윤인혁(尹寅爌) 김윤부(金允富) 김동헌(金東憲) 홍재필(洪在弼) 조원성(趙元成) 신용섭(申龍燮) 김두수(金斗洙) 전원배(田元培) 김성익(金聖翊) 노양일(盧良日) 유석주(兪錫柱) 김구봉(金九奉) 김응선(金應善) 안영범(安永範) 김중구(金重九) 김만식(金晩植) 김현성(金顯聲) 이원주(李元柱) 최성익(崔聖儀) 정기전(鄭基鎭) 박승우(朴承佑) 윤봉길(尹奉吉) 최성주(崔聖周) 윤낙서(尹洛瑞) 박경래(朴兢來) 이치덕(李致德) 장성채(張聖彩) 김두현(金斗鉉) 박경유(朴景裕) 조경태(趙敬泰) 김계홍(金啓弘) 윤백인(尹伯寅) 김씨(金氏) 박성무(朴聖茂) 각 2원, 이익상(李益祥) 1원 60전, 전정실(田貞實) 백수성(白守成) 이명길(李命吉) 황재홍(黃在洪) 각 1원 20전, 장순오(張淳五) 윤두현

(尹斗鉉) 전호길(田鎬吉) 장기영(張琦英) 조창도(趙昌道) 유인식(劉寅軾) 김영수(金永秀) 금완성(琴完成) 김윤경(金윤敬) 방태정(方台精) 박정식(朴昌植) 방의대(方宜大) 김규순(金奎淳) 노종운(盧宗雲) 백남주(白南周) 윤영돌(尹永突) 권성록(權聖錄) 이용선(李容善) 강경환(姜敬桓) 김두수(金斗秀) 엄인용(嚴仁鎔) 채원근(蔡元根) 박태익(朴台益) 박두현(崔斗鉉) 이춘봉(李春逢) 박현수(朴淵壽) 김계근(金啓根) 윤삼수(尹三秀) 승선조(僧善祚) 이원성(李元成) 박대원(朴大元) 박진규(朴鎭圭) 이시영(李時英) 한군선(韓君善) 한신교(韓信敎) 방용학(方容學) 한상교(韓祥敎) 이원근(李元根) 박종성(朴宗成) 박상춘(朴相春) 노의현(盧義鉉) 노점동(魯占東) 김현모(金顯模) 김인배(金仁培) 최인기(崔仁基) 최준기(崔駿琪) 김윤방(金潤邦) 최광련(崔光鍊) 김경순(金景淳) 조세묵(曹世默) 각 1원, 김익모(金益模) 김종호(金宗浩) 각 80전, 김동호(金東鎬) 70전, 김우진(高佑鎭) 김치환(金致煥) 이옥인(李玉寅) 김창환(金昌桓) 주덕명(朱德興) 최진형(崔鎭亨) 서상혁(徐相赫) 승덕원(僧德元) 이춘근(李春根) 각 60전, 김부수(金富壽) 55전, 김순호(金順浩) 김규환(金奎煥) 최석호(崔錫浩) 윤관혁(尹寬赫) 신기범(申箕範) 이충길(李忠吉) 김응현(金應鉉) 이관부(李貴富) 이순호(李淳浩) 김윤풍(金潤豐) 황건조(黃建周) 김덕수(金德秀) 최상근(崔相根) 조문원(趙文元) 이시응(李時應) 김영희(金榮熙) 안길용(安吉用) 이성운(李聖雲) 각 5전, 이연백(李連伯) 이유산(李有山) 임정서(林貞西) 이운문(李雲文) 최석연(崔錫淵) 김이홍(金二弘) 김호봉(金鎬鳳) 김갑수(金甲秀) 김태진(金泰鎭) 엄학래(嚴學來) 유진국(兪鎭國) 전운선(全云善) 황보현(黃甫玄) 전상식(田相植) 서용기(徐容琪) 조응수(趙應洙) 황봉석(黃鳳錫) 김



동근(金東根) 김석희(金錫喜) 이두영(李斗英) 각 40전, 이기창(李基昌) 김순원(金順元) 각 30전, 장봉영(張鳳榮) 이영관(李京琯) 김창환(金昌煥) 용만석(龍滿錫) 박희석(朴喜錫) 고동이(高東伊) 조원영(趙元榮) 조운선(趙雲善) 최의봉(崔義奉) 권청일(權淸一) 이용직(李容稷) 김광석(金光錫) 각 20전, 고춘경(高春卿) 10전, 홍순근(洪順根) 1원 50전 집화 408원 25전 (미완)

### 1907년 8월 14일, 探查員下江, 2면 4단, 기사

江華郡에 派駐兵 幾十名과 人民이 合同하야 日兵과 互相交戰하야 日兵 幾名이 致斃하얏다 흙은 已爲揭報어니와 更聞은 則 暴徒 等이 該郡守 鄭景洙氏를 殺害하얏다는디 一進會에서 該情況을 調査偵探次로 昨日에 該會員 一名을 派送하얏다는 說이 有하더라.

### 1907년 8월 14일, 조사원 강화도로, 2면 4단, 기사

강화군에 倂견병 10여 명과 인민이 합동하여 日本군과 상호 交戰하여 日本군 수명이 致斃(致斃)한 것은 이미 보도하였으며 다시 들려온 소식은 폭도 등이 강화군수 정경수(鄭景洙)를 살해하였다는데 일진회(一進會)에서 이 정황을 조사정탐차 어제(13일) 일진회원 1명을 파송하였다는 설이 있다고 한다.

### 1907년 8월 14일, 地方消息一束, 2면 5단, 기사

通信管理局長 池田十三郎氏가 内部警務局에 通知하되 江華郡에는 九日에 郵便取扱所長及韓人通譯은 共히 乘舟하고 十一日 上午十時에 龍山에 到着하얏고 原州郡郵便取扱所什物은 總히 被害하고 郵便所長 涉田丈助의 弟는 當時罹病未避하얏다

가 該徒에게 被害호았고 驪州 原州間에 遞傳夫가 一切 來往  
 치 못호고 洪州郡에서는 十日에 郵便事務를 開始호고 原州  
 等地에서는 暴徒 百餘名이 本月八日에 一部는 平昌 堤川으로  
 向호고 一部는 橫城으로 向호고 十日에 暴徒 百餘名이 堤川  
 으로 進入호 電報가 來호았고 江陵郡에서는 本月三日에 遞傳  
 夫 上埜隆義를 路中에서 砲殺하고 該郡大關嶺에도 數百名이  
 會集하얏고 榮川及安東 等地에도 原州脫營兵이 火賊과 合併  
 하여 九日에 榮川郡郵便取扱所를 襲擊하얏고 金浦 通津에도  
 本月十日에 江華隊兵 十餘名이 來到通津郡하야 彈丸을 該郡  
 守에게 強請호 즉 該郡守는 避身호았고 金山郡에도 人民이  
 不穩호 狀態가 有함으로 該郡守는 辭職하얏다 하얏더라

#### 1907년 8월 14일, 지방 소식 일부, 2면 5단, 기사

통신관리국장 지전십삼랑(池田十三郎)이 내부 경무국에 통지  
 하길 강화군에서 9일 우편취급소장 및 한국인 통역은 모두  
 배를 타고 11일 오전 10시 용산에 도착하얏고, 원주군 우편  
 취급소 물품은 모두 피해를 입얏고 우편소장 섭전장조(涉田  
 丈助)의 동생은 당시 피하질 못하여 폭도에서 피해를 당하얏  
 고, 여주 원주 간 우체부가 일절 내왕하지 못하고, 홍주군에  
 서는 10일 우편사무를 개시하고 원주 등지에서는 폭도 백여  
 명이 본월(8월) 8일에 일부는 평창 제천으로 향하고 일부는  
 횡성으로 향하고 10일에 폭도 백여 명이 제천으로 진입하얏  
 다는 전보가 도착하얏고, 강릉군에서는 본월 3일에 우체부 상  
 야용의(上埜隆義)를 도중에서 살해하고 강릉군 대관령에도  
 수백명이 모얏다 하며 영천 및 안동 등지에서도 원주탈영병  
 이 화적과 연합하여 9일에 영천군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얏고,  
 김포 통진에도 본월 10일에 강화대병 10여 명이 도착 통진군

하여 탄환을 군수에게 강청하니 군수는 피신하였고, 금산에도 인민이 불온한 상태가 있어 군수는 사직하였다고 한다.

**1907년 8월 14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江華郡〔續〕 仁政面白雲洞 宋炳健 八元 宋汶修 宋在濂 各三元 宋在協 具平祖 金炳燦 各二元 具然澤 一元六十錢 具豐祖 一元四拾錢 金福允 一元二十錢 朴大根 洪在德 閔泳殷 閔泳德 具壽祖 黃鍾協 宋炳日 宋在璣 宋鍊 申錫信 安明奎 各一元 具然奎 具春祖 羅殷福 李昌宇 各八十錢 申俊植 宋在式 崔明吉 金允卿 姜福淳 吳致遠 李炳淵 金益秀 各六十錢 朱學性 金應福 梁順吉 黃鍾巨 池慶雲 金應淡 金文善 姜先錫 金貴福 池成學 金明五 韓甲洙 趙舜巨 姜榮舜 金永甫 李文甫 韓敬淑 池敬福 各四十錢 合 舊貨 五十元四十錢 府內鍾閣洞 申光錫 八十錢 金宗錫 一元 全淳喆 五十錢 朴元永 劉興鳳 各四十錢 金明五 趙敬佑 各二十錢 秋말 山 李允式 崔春植 各十五錢 金宜濟 十錢 合 舊貨 四元五錢 國下洞 金賢濟 二元 魯俊業 李聖文 趙長元 金容燦 咸聖遠 田永實 魯聖浩 韓信教 韓永履 孫今錫 各一元 金炳珏 劉聖九 方汎鎭 各八十錢 張煥淳 高士日 金明秀 李致寬 李錫五 安德汝 張甫賢 李興植 박 善學 宋泰淵 各六十錢 金善明 鄭致洙 李鎭和 高俊洙 高錫淳 盧俊道 全禹錫 俞鎭洙 韓亨寬 各五十錢 鍾在奉 李運昌 車天允 金長錫 安成甫 朴汝七 吳昌成 文順弘 尹永植 辛致化 梁德洙 辛用善 河在元 韓福鎭 尹學西 各四十錢 朴台國 三十錢 宋致道 金致善 尹桂東 崔福吉 郭桂浩 鄭漢洙 李所희 金奉吉 金浩吉 金春卿 李永培 桂永錫 孫萬文 文純卿 李在明 辛鎭善 各二十錢 合 舊貨 三十四元四十錢 上道面造山洞 李珪儀 六元 李星九 閔泰雲 李

聖洛 各四元 權天甫 權先五 韓殷守 各二元 邊守兼 一元八十錢 宋美京 一元二十錢 宋明九 李仲集 李根淑 宋尙連 宋根守 李德京 李仲克 閔泰靈 宋聖玄 李仲回 邊聖敎 各一元 李俊明 韓根守 李京伯 各八十錢 韓順文 韓成汝 李成執 宋相烈 宋聖五 李敬安 各六十錢 韓順七 韓仲汝 權順佐 盧致佑 李京集 宋厚連 宋在元 송 相銀 李聖培 李先甫 李致三 韓云伯 柳學甫 宋致遠 各四十錢 金伯善 崔聖儀 李文甫 李良汝 韓汝芳 申平日 崔致玉 俞文行 李載漢 李允成 韓順汝 李永先 權義三 李京玉 韓光善 各二十錢 合 舊貨 五十二元六十錢 艮召 面三巨洞中 舊貨 五元 艮召 面梨峴洞中 舊貨 二十元 仁政面斗頭尾洞 高在亨 四元 崔永祚 具然燦 各二元 具弘祖 具冀祖 具興祖 具憲祖 具鳳祖 具然燮 各一元六十錢 高在翼 具聖祖 各一元四十錢 高觀中 一元二十錢 高時中 高化中 高石奉 具星祖 具福祖 具道日 具然泰 具然德 各一元 李寅奎 八十錢 高泰中 徐英玉 徐明玉 柳宅魯 具希祖 各六十錢 金正萬 具舜祖 李寅三 李士叔 蔡炳華 朴氏 李允夏 具然範 元永綏 具東根 各四十錢 合 舊貨 三十七元四十錢 河陰面長井洞 李明承 金益秀 羅大奎 羅順九 張春植 金儀鉉 金春鳳 鍾連吉 各二元 羅聖浩 鍾俊成 各一元六十錢 洪永燮 八十錢 羅寬汝 羅先必 崔聖昌 洪在亨 李宗學 張先甫 羅日汝 黃順七 羅通汝 劉根五 劉元甫 黃致成 張聖汝 金順西 鍾永祚 各六十錢 鍾俊用 五十四錢 金益鳳 李敬承 李回承 박 仲吉 黃聖長 劉元日 劉聖甫 張致浩 張益善 金滋華 張聖在 張聖培 裴承文 張春成 高明先 鍾永培 鍾先俊 鍾承守 鍾永煥 各四十錢 羅俊汝 八十錢 吳建浩 羅元淳 趙春京 卨 周瑞 南宮棟 羅仁浩 劉石甫 張善汝 朴元西 丁有鳳 張致公 鍾永仲 鍾三用 各二十錢 韓性順 劉允甫 各十六錢 羅致弘 崔性伯 羅守範 張銀鎬 吳仁浩 趙在龍 李殷成 李京守 羅性奉 羅

元西 黃致江 崔順在 羅致在 羅致根 黃萬奉 黃致九 徐聖三 金春鉉 張致甫 丁京明 張致順 金成仁 金淳五 鍾石公 鍾永瑞 鍾天明 金氏 各十二錢 吳泰建 一元 李采乾 二十四錢 羅仁汝 十錢 黃歧奉 六錢 洪小順 十錢 合 舊貨 四十五元六十錢 仁政面 石城洞 裴炳益 二元 裴炳奎 裴周星 申英均 申鳳顯 趙暈日 李元根 各一元 裴炳淳 裴炳秀 裴鳳星 曹信默 各六十錢 申明均 許潤 全亨柱 張智淳 各五十錢 車天奉 韓玄錫 金相植 朴允實 嚴洛顯 各四十錢 裴福成 鄭仲七 韓致淑 各三十錢 裴光星 金星植 申泰元 金龍弼 各廿錢 合 舊貨 拾六元十錢 河陰新村洞 金東植 李尙濬 各二元 金益龍 一元六十錢 金蘭植 一元廿錢 金南植 朴선 金七星 洪禮燮 各一元 金益順 金益俊 金益奎 金璇植 金益斗 金有鄉 金弘千 李根鼎 李根斗 李士弘 徐聖浩 徐連五 黃貴甫 張善化 羅善明 趙春番 各四十錢 李和濬 八十錢 金允益 李鉉壽 各六十錢 金伯祿 二十五錢 金益慶 金益甫 金益富 金孝善 金仁守 金在學 金泰善 金基瑞 李日用 申亮俊 申龍均 徐光守 羅文三 羅道汝 趙永守 廉元昌 朱聖天 黃仁錫 各廿錢 李澤俊 李昌錫 崔甲吉 各十錢 合 舊貨 二十三元卅五錢 (未完) 金額을 本社에 收入지 아니하면 姓名을 廣告에 掲載치 아니함.

1907년 8월 14일, 국채보상금 납부자와 금액, 3면 1단, 광고  
강화군 [계속] 인정면(仁政面) 백운동(白雲洞) 송병건(宋炳健) 8원, 송문수(宋汶修) 송재렴(宋在濂) 각 3원, 송재협(宋在協) 구평조(具平祖) 김병혁(金炳赫) 각 2원, 구연택(具然澤) 1원 60전, 구풍조(具豐祖) 1원 40전, 김복윤(金福允) 1원 20전, 박대근(朴大根) 홍재덕(洪在德) 민영은(閔泳殷) 민영덕(閔泳德) 구수조(具壽祖) 황중협(黃鍾協) 송병일(宋炳日)

송재기(宋在璣) 송련(宋鍊) 신석신(申錫信) 안명규(安明奎) 각 1원, 구연규(具然奎) 구춘조(具春祖) 나은복(羅殷福) 이창우(李昌宇) 각 80전, 신준식(申俊植) 송재식(宋在式) 최명길(崔明吉) 김윤경(金允卿) 강복순(姜福淳) 오치원(吳致遠) 이병연(李炳淵) 김익수(金益秀) 60전, 주학성(朱學性) 김응복(金應福) 양순길(梁順吉) 황종거(黃鍾巨) 지경운(池慶雲) 김응담(金應淡) 김문선(金文善) 강선석(姜先錫) 김귀복(金貴福) 지성학(池成學) 김명오(金明五) 한갑수(韓甲洙) 조순거(趙舜巨) 강영순(姜榮舜) 김영보(金永甫) 이문보(李文甫) 한경숙(韓敬淑) 지경복(池敬福) 각 40전 함께 50원 40전, 부내(府內) 종각동(鍾閣洞) 신광석(申光錫) 80전, 김종석(金宗錫) 1원, 전순철(全淳喆) 50전, 박원영(朴元永) 유흥봉(劉興鳳) 각 40전, 김명오(金明五) 조경우(趙敬佑) 각 20전, 추말산(秋말山) 이윤식(李允式) 최춘식(崔春植) 각 15전, 김의제(金宜濟) 10전 함께 4원 5전, 국하동(國下洞) 김현제(金賢濟) 2원, 노준업(魯俊業) 이성문(李聖文) 조장원(趙長元) 김용혁(金容赫) 함성원(咸聖遠) 전영실(田永實) 노성우(魯聖浩) 한신교(韓信敎) 한영이(韓永履) 손금석(孫今錫) 각 1원, 김병각(金炳珪) 유성구(劉聖九) 방범진(方汎鎭) 각 80전, 장환순(張煥淳) 고사일(高士日) 김명수(金明秀) 이치관(李致寬) 이석오(李錫五) 안덕녀(安德汝) 장보현(張甫賢) 이흥식(李興植) 박선학(朴善學) 송태연(宋泰淵) 각 60전, 김선명(金善明) 정치수(鄭致洙) 이진화(李鎭和) 고준수(高俊洙) 고석순(高錫淳) 노준도(盧俊道) 전우석(全禹錫) 유진수(兪鎭洙) 한형관(韓亨寬) 각 50전, 종재봉(鍾在奉) 이운창(李運昌) 차천윤(車天允) 김장석(金長錫) 안성보(安成甫) 박여칠(朴汝七) 오창성(吳昌成) 문순홍(文順弘) 윤영식(尹永植) 신치화(辛致

化) 양덕수(梁德洙) 신용선(辛用善) 하재원(河在元) 한복진(韓福鎭) 윤학서(尹學西) 각 40전, 박태국(朴台國) 30전, 송치도(宋致道) 김치선(金致善) 윤계동(尹桂東) 최복길(崔福吉) 곽계호(郭桂浩) 정한수(鄭漢洙) 이소회(李所 회) 김봉길(金奉吉) 김호길(金浩吉) 김춘경(金春卿) 이영배(李永培) 계영식(桂永錫) 손만문(孫萬文) 문순경(文純卿) 이재명(李在明) 신진선(辛鎭善) 각 20전 합계 34원 40전, 상도면(上道面) 조산동(造山洞) 이규의(李珪儀) 6원, 이성구(李星九) 민태운(閔泰雲) 이성락(李聖洛) 각 4원, 권천보(權天甫) 권선오(權先五) 한은수(韓殷守) 각 2원, 변수겸(邊守兼) 1원 80전, 송미경(宋美京) 1원 20전, 송명구(宋明九) 이중집(李仲集) 이근숙(李根淑) 송상련(宋尙連) 송근수(宋根守) 이덕경(李德京) 이중극(李仲克) 민태령(閔泰靈) 송성현(宋聖玄) 이중회(李仲回) 변성교(邊聖敎) 각 1원, 이준명(李俊明) 한근수(韓根守) 이경백(李京伯) 각 80전, 한순문(韓順文) 한성녀(韓成汝) 이성집(李成執) 송상렬(宋相烈) 송성오(宋聖五) 이경안(李敬安) 각 60전, 한순칠(韓順七) 한중여(韓仲汝) 권순좌(權順佐) 노치우(盧致佑) 이경집(李京集) 송후련(宋厚連) 송재원(宋在元) 송상은(宋相銀) 이성배(李聖培) 이선보(李先甫) 이치삼(李致三) 한운백(韓云伯) 류학보(柳學甫) 송치원(宋致遠) 각 40전, 김백선(金伯善) 최성의(崔聖儀) 이문보(李文甫) 이양녀(李良汝) 한여방(韓汝芳) 신평일(申平日) 최치옥(崔致玉) 유문행(俞文行) 이재한(李載漢) 이윤성(李允成) 한순녀(韓順汝) 이영선(李永先) 권의삼(權義三) 이경옥(李京玉) 한광선(韓光善) 각 20전 합계 52원 60전, 은점면(艮점面) 신거동(三巨洞) 합계 5원, 은점면(艮점面) 이현동(梨峴洞) 합계 20원, 인정면(仁政面) 두두미동(斗頭尾洞) 고재형

(高在亨) 4원, 초영조(崔永祚) 구연찬(具然燦) 각 2원, 구홍조(具弘祖) 구기조(具冀祖) 구흥조(具興祖) 구헌조(具憲祖) 구봉조(具鳳祖) 구연섭(具然燮) 각 1원 60전, 고재익(高在翼) 구성조(具聖祖) 각 1원 40전, 고관중(高觀中) 1원 20전, 고시중(高時中) 고화중(高化中) 고석봉(高石奉) 구성조(具星租) 구복조(具福祖) 구도일(具道日) 구연태(具然泰) 구연덕(具然德) 각 1원, 이인규(李寅奎) 80전, 고태중(高泰中) 서영옥(徐英玉) 서명옥(徐明玉) 류택로(柳宅魯) 구희조(具希祖) 각 60전, 김정만(金正萬) 구순조(具舜祖) 이인삼(李寅三) 이사숙(李士叔) 채명화(蔡炳華) 박씨(朴氏) 이윤하(李允夏) 구연범(具然範) 원영수(元永綏) 구동근(具東根) 각 40전, 하음면(河陰面) 장정동(長井洞) 이명승(李明承) 김익수(金益秀) 나대규(羅大奎) 나순구(羅順九) 장춘식(張春植) 김의현(金儀鉉) 김춘봉(金春鳳) 종연길(鍾連吉) 각 2원, 나성호(羅聖浩) 종준성(鍾俊成) 각 1원 60전, 홍영섭(洪永燮) 8전, 나관여(羅寬汝) 나선심(羅先必) 최성창(崔聖昌) 홍재형(洪在亨) 이종학(李宗學) 장선보(張先甫) 나일여(羅日汝) 황순칠(黃順七) 나통여(羅通汝) 유근오(劉根五) 유원보(劉元甫) 황치성(黃致成) 장성여(張聖汝) 김순서(金順西) 종영조(鍾永祚) 각 60전, 종준용(鍾俊用) 54전, 김익봉(金益鳳) 이영승(李敬承) 이회승(李回承) 박중길(朴仲吉) 황성장(黃聖長) 유원일(劉元日) 유성보(劉聖甫) 장치호(張致浩) 장익선(張益善) 김자화(金滋華) 장성재(張聖在) 장성배(張聖培) 배승문(裴承文) 장춘성(張春成) 고명선(高明先) 종영배(鍾永培) 송선준(鍾先俊) 종승수(鍾承守) 종영환(鍾永煥) 각 40전, 나준녀(羅俊汝) 80전, 오건호(吳建浩) 나원순(羅元淳) 조춘경(趙春京) 최주서(崔周瑞) 남궁동(南宮棟) 나



인호(羅仁浩) 유석보(劉石甫) 장선녀(張善汝) 박원서(朴元西) 정유봉(丁有鳳) 장치공(張致公) 종영중(鍾永仲) 종삼용(鍾三用) 각 20전, 한성순(韓性順) 유윤보(劉允甫) 각 16전, 나치홍(羅致弘) 최성백(崔性伯) 나수범(羅守範) 장은호(張銀鎬) 오인호(吳仁浩) 조재룡(趙在龍) 이은성(李殷成) 이경수(李京守) 나성봉(羅性奉) 나원서(羅元西) 황치강(黃致江) 최순재(崔順在) 나치재(羅致在) 나치근(羅致根) 황만봉(黃萬奉) 황치구(黃致九) 서성삼(徐聖三) 김춘현(金春鉉) 장치보(張致甫) 정경명(丁京明) 장치순(張致順) 김성인(金成仁) 김순오(金淳五) 종석공(鍾石公) 종영서(鍾永瑞) 종천명(鍾天明) 김씨(金氏) 각 12전, 오태건(吳泰建) 1원, 이채건(李采乾) 24전, 나인녀(羅仁汝) 10전, 황기봉(黃歧奉) 6전, 홍소순(洪小順) 10전 함께 45원 60전, 인정면(仁政面) 석성동(石城洞) 배병익(裴炳益) 2원, 배명규(裴炳奎) 배주성(裴周星) 신영균(申英均) 신봉현(申鳳顯) 조훈일(趙暈日) 이원근(李元根) 각 1원, 배명순(裴炳淳) 배명수(裴炳秀) 배봉성(裴鳳星) 조신묵(曹信默) 각 60전, 신명균(申明均) 허운(許潤) 전형주(全亨柱) 장지순(張智淳) 각 50전, 차천봉(車天奉) 한현석(韓玄錫) 김상식(金相植) 박윤실(朴允實) 엄낙현(嚴洛顯) 각 40전, 배복성(裴福成) 정중칠(鄭仲七) 한치숙(韓致淑) 각 30전, 배광성(裴光星) 김성식(金星植) 신태원(申泰元) 김용필(金龍弼) 각 20전 함께 16원 10전, 하음(河陰) 신촌동(新村洞) 김동식(金東植) 이상준(李尙濬) 각 2원, 김익룡(金益龍) 1원 60전, 김난식(金蘭植) 1원 20전, 김남식(金南植) 박선(朴선) 김칠성(金七星) 홍예섭(洪禮燮) 각 1원, 김익순(金益順) 김익준(金益俊) 김익규(金益奎) 김선식(金璇植) 김익두(金益斗) 김유향(金有鄉) 김홍천(金弘千) 이근정

(李根鼎) 이근두(李根斗) 이사홍(李士弘) 서성호(徐聖浩) 서연오(徐連五) 황귀보(黃貴甫) 장선호(張善化) 나선명(羅善明) 조춘번(趙春番) 각 40전, 이화준(李和濬) 80전, 김윤익(金允益) 이현수(李鉉壽) 각 60전, 김백록(金伯祿) 25전, 김익경(金益慶) 김익보(金益甫) 김익부(金益富) 김효선(金孝善) 김인수(金仁守) 김재학(金在學) 김태선(金泰善) 김기서(金基瑞) 이일용(李日用) 신양준(申亮俊) 신용균(申龍均) 서광수(徐光守) 나문삼(羅文三) 나도여(羅道汝) 조영수(趙永守) 염원창(廉元昌) 주성천(朱聖天) 황인석(黃仁錫) 각 20전, 이택준(李澤俊) 이창석(李昌錫) 최갑길(崔甲吉) 각 10전  
합계 23원 35전 (미완) 금액을 본사에 수입하지 않으면 성명을 광고에 게재하지 않음

#### 1907년 8월 15일, 日艦歸國, 2면 4단, 기사

仁川港에 到泊하였던 日本軍艦千早, 新高, 笠置 三隻과 驅逐水雷艦 四隻이 本月十二日에 伊藤統監歸國時에 同爲發向本國하였다고 該府尹 金潤晶氏가 内部에 報告하였더라.

#### 1907년 8월 15일, 일본함대 일본으로 돌아가다, 2면 4단, 기사

인천항에 정박하여던 일본군함 천조(千早) 신고(新高) 립치(笠置) 3척과 구축수뢰함 4척이 이번 달 12일에 이등통감(伊藤統監) 귀국 때 동시 귀국하였다고 인천부윤 김윤정이 내부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 1907년 8월 15일, 警總江華行, 2면 4단, 기사,

江華郡의 不穩한 事件은 累累揭報어니와 警視總監 丸山重俊

氏가 該事由를 因하여 曉諭鎭撫次로 巡査 三四人을 領率하고  
昨日에 該地로 出張하였다더라.

1907년 8월 15일, 경시총감 강화행, 2면 4단, 기사,  
강화군의 불온 사건은 누차 보도하였으며 경시총감 환산중길  
(丸山重俊)이 이 사유로 곧 진무(鎭撫)하기 위해 순사 3~4  
명 데리고 어제(14일) 강화로 출장하였다고 한다.

1907년 8월 15일, 兩氏被捉, 2면 5단, 기사,  
江華普昌學校長 李東暉氏와 奉侍 洪宅柱氏는 何事件을 因緣  
흡인지 不知히거니와 再昨日 警視廳에 被捉되었다더라.

1907년 8월 15일, 경시청에 압송, 2면 5단, 기사,  
강화 보창학교(普昌學校) 학교장 이동휘(李東暉)씨와 봉시  
(奉侍) 홍택주(洪宅柱) 씨는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모르  
겠지만 그제(13일) 경시청에 피촉(被捉)되었다고 한다.

1907년 8월 15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3단,  
광고,

江華郡〔續〕 甫乙音島 朴元亨 金敎哲 白鳳起 各四元 高永鎬  
車斗星 姜景三 高舜玉 朴良瑞 金泰玉 李弘九 李聖玄 各二元  
田德汝 一元六十錢 金銀守 朴用勤 田德尙 高元培 各一元二拾  
錢 朴順玄 許君範 曹承三 曹仁甫 都光淳 朴永勤 曹成元 田鍾  
安 趙泰山 田景禧 各八十錢 車應七 崔仁浩 各一元 趙登龍 嚴  
啓根 洪景式 朴永坤 張士元 全晚春 趙致三 金斗熙 李信叔 金  
大鍾 各六十錢 車士云 朴良壽 各五十錢 金德周 趙元光 金君  
集 曹汝信 朴勤昌 全時春 金聖壽 田京祚 安成根 吳京元 全五

長 吳連弘 龍銀周 姜用辰 金元浩 各四十錢 趙石山 三十六錢  
 高永培 二十錢 合 舊貨 五十七元九十六錢 三海面下道洞五流  
 川 金龍植 一元五十錢 金健植 金正彝 金正元 金正奎 金教彦  
 各一元四十錢 金正模 一元六十錢 金正演 金正臻 金正勗 各八  
 十四錢 金正禧 金教琬 金正燮 金教賢 金商植 金允植 各六十  
 錢 金正顯 金仁植 金快豐 金辰成 金正근 金正憲 金正彬 金正  
 珉 金正건 金正衡 金正範 各二十錢 金正冕 九十六錢 金正弼  
 二十錢 朴汝正 四十錢 合 舊貨 二十元 位良面與川洞 金容軾  
 金仁教 金汗教 各八十錢 金鎬世 三元 金鍾奎 二元 尹滋喜 二  
 元四十錢 金容奉 金容老 金俊秀 李炳哲 各一元 金容昌 韓相  
 稷 全永喜 尹滋善 李炳華 各六十錢 金容德 尹性行 李炳斗 鄭  
 俊先 李允七 鄭致明 各四十錢 柳信永 全永浩 尹順元 金元甫  
 徐元三 申順教 各二十錢 趙德三 十錢 合 舊貨 二十元五十錢  
 長嶺面小山洞 崔炳錫 崔汝七 魯寬植 黃貴根 各六十錢 金奉云  
 崔文五 崔京必 崔文京 魯致文 高基鉉 魯致西 崔奉根 高聖甫  
 各四十錢 李周鉉 金永道 黃致元 高致安 崔成五 魯基允 尹京  
 壽 魯貞植 羅致俊 黃浩吉 各二十錢 合 舊貨 八元 仁政面西門  
 洞 黃富敬 姜益甫 柳己千 俞儀順 姜友學 各六十錢 黃儀石 黃  
 儀千 洪寬祿 裴在善 李仕弘 南宮沃 金用希 俞辰元 全点孫 魯  
 伯賢 各四十錢 申允三 韓富福 各六十錢 高順明 沈弘植 金浩  
 順 俞汝行 金致尙 韓順浩 韓文汝 各二十錢 合 舊貨 玖元陸十  
 錢 河陰面富近洞中 貳十元 (未完)

1907년 8월 15일, 국채보상금 납부자와 금액, 3면 3단, 광고,  
 강화군 [계속] 보을음도(甫乙音島) 박원형 김교철 백봉기 각  
 4원, 김영호 차두성 강경삼 고순옥 박양서 김태옥 이흥구 이  
 성현 각 2원, 전덕녀 1원 60전, 김은수 박용근 전덕상 고원배

각 1원 20전, 박순현 허군범 조승삼 조인보 도광순 박영근  
 조성원 전종안 조태산 전경희 각 80전, 차응칠 최인호 각 1  
 원, 조등룡 엄계근 홍경식 박영곤 장사원 전만춘 조치삼 김두  
 희 이신숙 김대중 각 60전 차사운 박양수 각 50전, 김독주  
 조원광 김군집 조여신 박근창 전시춘 김성수 전경조 안성근  
 오경원 전오장 오연홍 용은주 강용진 김원호 각 40전, 조석  
 산 36전, 고영배 20전 합계 57원 96전, 삼해면(三海面) 하도  
 동(下道洞) 오류천(五流川) 김용식 1원 50전, 김건식 김정이  
 김정원 김정규 김교언 각 1원 40전, 김정모 1원 60전, 김정  
 연 김정진 김정옥 각 84전, 김정희 김교완 김정섭 김교현 김  
 상식 김윤식 60전, 김정현 김인식 김쾌풍 김진성 김정곤 김  
 정현 김정립 김정빈 김정민 김정건 김정형 김정범 각 20전,  
 김정면 96전, 김정필 20전, 박여정 40전 합계 20원, 위량면  
 (位良面) 여천동(與川洞) 김용식 김인교 김한교 각 80전, 김  
 호세 3원, 김종규 2원, 윤자희 2원 40전, 김용봉 김용로 김준  
 수 이병철 각 1원, 김용창 한상직 전영희 윤자선 이병화 각  
 60전, 김용덕 윤성행 이병두 정준선 이윤칠 정치명 각 40전,  
 류신영 전영호 윤순원 김원보 서원삼 신순교 각 20전, 조덕  
 삼 30전 합계 25원 50전, 장령면(長嶺面) 소산동(小山洞) 최  
 병석 최여칠 노관식 황귀근 각 60전, 김봉원 최문오 최경필  
 최문경 노치문 고기현 노치서 최봉근 고성보 각 40전, 이주  
 현 김영도 황치원 고치안 최성오 노기윤 윤경수 노정식 나치  
 준 황호길 각 20전 합계 8원, 인정면(仁政面) 서문동(西門  
 洞) 황부경 강익보 류기천 유의순 강우학 각 60전, 황의석  
 황의천 홍관록 배재선 이사홍 남궁옥 김용희 유진원 전점손  
 노백현 각 40전, 신윤삼 한부복 각 60전, 고순명 심홍식 김호  
 순 유여행 김치상 한순호 한문여 각 20전 합계 9원 60전, 하

음면(河陰面) 부근동(富近洞) 20원 (미완)

**1907년 8월 16일, 權氏被捉說, 2면 6단, 기사**

今番 江華郡의 暴動은 狀態가 有함은 人所共知어니와 傳說을 得聞은 則 該郡居 前龍川郡守 權國顯氏가 昨日 警視廳에 押上되앗다더라.

**1907년 8월 16일, 권씨 압송설, 2면 6단, 기사**

금번 강화군의 폭동 상태에 있음은 모두 아는 일로 전하는 말로는 강화도 군민 예전 용천군수(龍川郡守) 권국현(權國顯)이 어제 경시청에 압송되었다고 한다.

**1907년 8월 16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2단 광고,**

江華郡 [續] 河陰面鳳祥洞 李根宅 二元 韓成敎 一元六十錢 李賢植 一元二十錢 韓啓履 韓夢履 韓滿敎 洪在元 各一元 韓德敎 八十錢 韓德履 金東善 洪義燮 李永秀 各六十錢 沈昌植 李根浩 李錫文 金益亮 全錫用 韓基錫 李奎永 李鍾億 各四十錢 金義喆 三十錢 吳滢奎 廿八錢 曹泰永 曹珠永 曹文永 金孺善 姜潤 李根俊 李永壽 韓學突 李鉉郁 廉德和 李千鳳 李賢九 申範均 各二十錢 申泰昌 十五錢 合 舊貨 十八元五十三錢 上道面陵內洞 朴善壽 金雲用 劉化春 各四元 鄭祥雲 李先儀 劉致元 各二元 閔載憲 鄭順相 各各一元六十錢 桂聖芝 一元二十錢 廉石根 劉學巢 各一元 金演旭 金宗喜 曹鳳敎 各八十錢 劉恒伯 鄭祥五 金商永 劉周安 劉致晚 李儀先 閔重鉉 各六十錢 桂太雄 金君先 鄭順奉 桂仁穆 金相燦 金相允 桂太壽 金根國 金福奎 劉致良 李尙儀 鄭淳學 鄭淳鎭 鄭甲出 劉興石 金在元

桂太山 李淳奉 劉裕訓 李順興 金聖業 劉晚俊 金淳根 金應用  
桂聖坤 廉鐸龍 鄭春吉 劉淳英 李成根 金壽卿 閔晉鉉 廉今龍  
朴齊豐 李春儀 各四十錢 朱晚吉 金基學 桂喜善 金景祿 金基  
達 閔復鉉 洪公甫 桂應壽 高聖先 金相梅 李聖鉉 各二十錢 合  
舊貨 四十六元八十錢 府內南山洞 沈遠馨 十二元 沈遠榮 八元  
承景烈 四元 趙重鍊 方儀貞 李基永 各二元 高順凡 南宮性天  
金奎奉 全德在 梁致連 趙順甫 朴應守 朴漢益 各一元 李京佑  
八十錢 朴春鳳 朴承默 崔昌永 南宮煥 朴永文 金連根 朴泰京  
權輔鉉 各六十錢 李昌福 李福東 各五十錢 吳仁瑞 朴春浩 李  
用云 趙明浩 南宮銀 金炳日 池順江 金基德 李春興 朴相玄 李  
連俊 崔應浩 池京守 李德俊 李在鳳 韓永三 李學道 金漢叔 金  
銀仲 金成三 趙有實 曹相化 李漢福 張順業 各四十錢 金青一  
三十錢 車洛善 南宮述億 朴京元 崔德甫 朴昌根 崔京瑞 高允  
興 吳應裕 韓國玄 李漢必 劉應弼 朴恩植 俞京道 吳京雲 朴春  
連 李允壽 南宮應台 各二十錢 合 舊貨 五十七元九十錢 內可  
面古阜洞 鄭成伯 四元 崔致德 黃在益 俞致奎 各二元 黃在璿  
一元八十錢 黃在賢 一元六十錢 崔秀英 俞龍煥 黃雷夏 各一元  
二十錢 鄭芝三 一元 李麟會 俞致德 俞致英 李鳳宇 李致培 李  
己石 黃在新 各八十錢 鄭圭一 崔麟煥 沈宜成 黃斗夏 黃在弼  
黃在七 各六十錢 朴文浩 崔斗煥 柳良九 李鉉宇 全成祚 朴元  
亨 洪順龍 柳繼烈 李能用 黃景允 鄭芝連 趙仁善 黃在玉 黃在  
仁 黃定周 俞致昇 韓秉錫 邊益三 各四十錢 合 舊貨 三十四元  
四十錢 府內府司后洞 朴敬汝 一元二十錢 梁斗卿 一元 宋允燁  
金奎庸 各六十錢 金奎尊 申明五 張元俊 葛德仁 朴相燮 各四  
十錢 吳昌西 尹基弘 金京俊 各二十錢 合 舊貨 六元 吉祥面稷  
山洞 申在明 劉永瑞 各二元 柳尙根 柳興泰 具然中 高弘九 柳  
根成 韓學教 具安世 權秉懋 具允七 柳光烈 柳根培 柳根壽 柳

基永 方允日 各一元 權秉勳 柳泰永 柳尙甫 南宮澹 權明元 黃永朝 方宜杓 具然禹 方日三 柳漢永 韓景祿 權元祚 金甫亨 林聖浩 具德裕 具致根 柳根弘 柳洛鉉 柳景福 柳昌烈 金順用 黃順教 合 二十二元五元 合 舊貨 二十三元 仁政面馬場洞 張洪均 三元 裴興龍 八十錢 劉錫龍 裴斗星 金順實 李道玄 各六十錢 張得信 黃啓玄 金啓公 高聖集 裴壽甫 各四十錢 韓相吉 安俊植 金順化 李德玄 李平心 裴在坤 金順三 裴應山 裴連學 朱聖儀 各二十錢 合 舊貨 十元二十錢 矢島 朴善卿 四元 金昌默 金昌先 田炳暹 張始興 各三元 崔裕昌 田炳弼 金漢叔 金石甫 各二元 崔京七 一元二十錢 金啓溫 田炳勳 金敦守 金京日 全漢甫 田炳淳 崔元伯 張君實 尹明三 宋聖燁 金興善 金鎬石 李奇連 金元先 李漢西 金銀浩 田鏡云 白永彥 崔淳儀 白先弼 韓淳明 徐應浩 金明淳 石萬錫 朴義瑞 金雲集 劉允石 各一元 廉平信 鄭銀西 金得明 河聖道 各八十錢 李先集 韓允明 各六十錢 金亨兌 金汝寬 鄭天有 鄭德汝 徐聖淑 曹聖甫 李永華 崔聖裕 白泰淳 姜淳汝 金順西 朴泰弘 各五十錢 李聖善 金興泳 李伯先 宋聖義 白春浩 李華實 朴順文 高奉順 李洛玄 李永春 金鶴實 金聖祿 石成伯 姜道日 崔京澤 韓尙根 各四十錢 鄭云教 高日滿 高奉云 各三十錢 全尙云 金寬甫 金春逢 黃淳日 許聖水 李伯汝 金聖澤 孔奉三 金洛西 金聖凡 裴龍安 李尙順 各二十錢 合 舊貨 七十二元三十錢 (未完)

1907년 8월 16일, 국채보상금 납부자와 금액, 3면 2단 광고, 강화군 [계속] 하음면 봉산동(鳳祥洞) 이근택 2원, 한성교 1원 60전, 이현식 1원 20전, 한계이 한몽이 한만교 홍재원 각 1원, 한덕교 80전, 한덕이 김동선 홍의섭 이영수 각 60전, 심창식 이근호 이석문 김익양 전석용 한기석 이규영 이종억 각



40전, 김의철 30전, 오형규 28전, 조태영 조주영 조문영 김유선 강윤 이근준 이영수 한학돌 이현옥 염덕화 이천봉 이현구 신범균 각 20전, 신태창 15전 합계 18원 53전, 상도면(上道面) 능내동(陵內洞) 박선수 김운용 유화춘 각 4원, 정상운 이선의 유치원 각 2원, 민재현 정순상 각 1원 60전, 계성지 1원 20전, 염석근 유학소 각 1원, 김연옥 김종희 조봉교 각 80전, 유항백 정상오 김상영 유주안 유치만 이의선 민중현 각 60전, 계태웅 김군선 정순봉 계인목 김상찬 김상운 계태수 김근국 김복규 유치양 이상의 정순학 정순진 정갑출 유홍석 김재원 계태산 이순봉 유유훈 이순홍 김성업 유만준 김순근 김응용 계성곤 염탁룡 정춘길 유순영 이성근 김수경 민진현 염금룡 박제풍 이춘의 각 40전, 주만길 김기학 계획선 김경록 김기달 민복현 홍공보 계응수 고성선 김상매 이성현 각 20전, 합계 46원 80전, 부내(府內) 남산동(南山洞) 심원형 12원, 심원영 8원, 승경렬 4원, 조중련 방의정 이기영 각 2원, 고순범 남궁성천 김규봉 전덕재 양치련 조순보 박응수 박한익 각 1원, 이경우 80전, 박춘봉 박승묵 최창영 남궁환 박영문 김연근 박태경 권보현 각 60전, 이창복 이복동 각 50전, 오인서 박춘호 이용운 조명호 남궁은 김병일 지순강 김기덕 이춘홍 박상현 이연준 최응호 지경수 이덕준 이재봉 한영삼 이학도 김한숙 김은중 김성삼 조유실 조상화 이한복 장순업 각 40전, 김청일 30전, 차낙선 남궁술억 박경원 최덕보 박창근 최경서 고윤홍 오응유 한국현 이한필 유응필 박은식 유경도 오경운 박춘련 이윤수 남궁응태 각 20전 합계 57원 90전, 내가면(內可面) 고부동(古阜洞) 정성백 4원, 최치덕 황재익 유치규 각 2원, 황재선 1원 80전, 황재현 1원 60전, 최수영 유용환 황뇌하 각 1원 20전, 정지삼 1원, 이인회 유치덕 유치

영 이봉우 이치배 이기석 황재신 각 80전, 정규일 최인환 심  
 의성 황두하 황재필 황재칠 각 60전, 박문호 최두환 류양구  
 이현우 전성조 박원형 홍순룡 류계렬 이능용 황경윤 정지련  
 조인선 황재옥 황재인 황정주 유치승 한병석 변익삼 각 40전  
 합계 34원 40전, 부내(府內) 부사후동(府司后洞) 박경여 1원  
 20전, 양두경 1원, 송운엽 김규용 각 60전, 김규준 신명오 장  
 원준 갈덕인 박상섭 각 40전, 오창서 윤기홍 김경준 각 20전  
 합계 6원, 길상면(吉祥面) 직상동(稷山洞) 신재명 유영서 각  
 2원, 류상근 류흥태 구연중 고흥구 류근성 한학교 구안세 권병  
 무 구윤칠 류광렬 류근배 류근수 류기영 방윤일 각 1원, 권병  
 훈 류태영 류상보 남궁희 권명원 황영조 방의표 구연우 방일  
 삼 류한영 한경록 권원조 김보형 립성호 구덕유 구치근 류근  
 흥 류낙현 류경복 류창렬 김순용 황순교 합 22인 5원 합계  
 23원, 인정면(仁政面) 마장동(馬場洞) 장홍균 3원, 배홍룡  
 80전, 유석룡 배두성 김순실 이도현 각 60전, 장득신 황계현  
 김계공 고성집 배수보 각 40전, 한상길 안준식 김순화 이덕  
 현 이평심 배재곤 김순삼 배응산 비연학 주성의 각 20전 합  
 계 10원 20전, 시도(矢島) 박선경 4원, 김창묵 김창선 전병  
 섭 장시흥 각 3원, 최유창 전병필 김한숙 김석보 각 2원, 최  
 경칠 1원 20전, 김계은 전병훈 김교수 김경일 전한보 전병순  
 최원백 장군실 윤명삼 송성엽 김홍선 김호석 이기련 김원선  
 이한서 김은호 전경운 백영언 최순의 백선필 한순명 서응호  
 김명순 석만석 박의서 김운집 유윤석 각 1원, 염평신 정은서  
 김득명 하성도 각 80전, 이선집 한윤명 각 60전, 김형태 김여  
 관 정천유 정덕여 서성숙 조성보 이영화 최성유 백태순 강순  
 여 김순서 박태홍 각 50전, 이성선 김홍영 이백선 송성의 백  
 춘호 이화실 박순문 고봉순 이낙현 이영춘 김학실 김성록 석

성백 강도일 최경택 한상근 각 40전, 정운교 고일만 고봉운  
각 30전, 전상운 김관보 김춘봉 황순일 허성수 이백여 김성  
택 공봉삼 김낙서 김성범 배용안 이상순 각 20전 합계 72원  
30전 (미완)

**1907년 8월 17일, 富倅治聲, 2면 5단, 기사,**

富平郡守 全國煥氏는 赴任以後로 一般 郡僚를 會同하여 今番  
人民이 誤解한 事項을 一一說明하여 破疑安堵케 하며 罪人囚  
禁하는 房屋이 卑濕生病함으로 八圓金을 捐出修理하여 一般  
罪人으로 居處精繁케 함으로 莫不稱頌한다더라.

**1907년 8월 17일, 부평군수 청송, 2면 5단, 기사,**

부평군수 전국환(全國煥)은 부임이후 일반 군민과 회동하여  
금번 인민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을 일일이 설명하여 의혹을  
불식하고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 습하기에 8환으로 수리하여  
청송이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1907년 8월 17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2단,  
광고**

江華郡〔續〕 三海面下道洞 朴仁秀 二元 李鍾振 李敎承 各一元  
六十錢 郭東元 一元四十錢 李鍾徹 田允實 李聖興 各一元 李鍾  
八 朴仁瑞 李建承 各八十錢 李在義 具文祖 各六十錢 李鍾奭  
李元益 張聖완 金聖賢 朴德實 方順文 宋富吉 黃用鎭 劉汝範  
朴千萬 郭永元 朴啓春 鄭致坤 各四十錢 李鍾龜 二十錢 合 舊  
貨 十八元六十錢 三海面上道洞 李鎭奎 李泰永 各四元 李鎭和  
二元 李儀在 李奎在 李衡在 李鎭賢 李鎭豐 李鎭壽 李鎭憲 李  
根永 李斗永 李德永 各一元 合 舊貨 二十元 吉祥面稷下洞 尹

氏 六元 全京辰 六元 趙程植 四元 李義奎 二元 趙周元 鄭基완  
 全元吉 全在宗 高瓊中 柳興在 俞鎭叔 洪在鵬 洪在雲 高伯中  
 高錫雲 林漢實 趙重仁 鄭上元 金仁濟 趙厚植 趙宗裕 李軒奎  
 李德玄 洪鍾甲 洪巨禧 李鳳奎 趙應植 具然中 崔光鍊 朴儀春  
 俞賢濬 俞聖濬 李鍾萬 全賢叔 全良叔 柳興昌 張致瑞 全在福  
 鄭戊元 劉昱 千 高京中 全致明 具懿祖 合 三十九人 九元四十  
 錢 合 舊貨 二十七元四十錢 府內新村洞 張元奎 崔義睦 各一元  
 張在信 高翊鎭 金碩祚公 四十錢 合 舊貨 三元二十錢 仁政面三  
 同岩洞 沈元奉 二元四十錢 朴致西 一元二十錢 沈鍾夏 沈鍾立  
 洪在範 具南祖 黃日顯 金義之 各一元 南宮杓 南宮棕 金永三  
 具然柏 各八十錢 黃河顯 黃仁周 盧昌燮 羅宗燁 各六十錢 洪淳  
 永 黃聖周 沈魯晚 沈魯臨 黃儀春 韓興洙 具然鎰 韓尙喆 韓龍  
 喆 全在述 柳戀 黃台顯 金相烈 黃吉周 盧仁燮 各四十錢 黃立  
 周 三十五錢 申京云 韓時京 沈遠聲 沈遠相 洪鍾業 具孟祖 南  
 宮경 韓龍洙 具然龜 俞炳舜 全錫禹 金景三 黃義淳 朴應三 朴  
 龍文 南宮植 許錫甫 黃景周 具然璜 各二十錢 沈遠學 十五錢  
 沈龍鳳 十二錢 沈滿福 十錢 合 舊貨 廿五元七十二錢 松亭面率  
 亭洞中 舊貨 十二元 總合 舊貨 一千二百〇九元二十六錢 (完)  
 主殿院警衛局巡檢 第三回 朴時鉉 申學均 孔昌煥 金昌億 金遠  
 祚 金秉箕 各三十錢 合 新貨 一圓八十錢 慈城郡 崔俊極 金 四  
 圓 金浣洙 金 二圓 朴晶洙 金 五圓 新貨 以上合 十一圓 平北  
 泰川西邑內堂底里 羅時元 五圓 羅時伯 三圓 羅應範 二圓 羅應  
 福 邊益鉉 邊亨根 金達雍 金顯雍 各一圓 合 十五圓 慶尙北道  
 聞慶郡縣內面聊城里居人等 朴益東 三圓 朴萬東 五十錢 尹膺喜  
 四圓 警衛局巡檢 第四回 申學均 金昌億 朴時鉉 各三十錢 合  
 新貨 九十錢 始興上北面沙村里 李建昨 二圓 李大連 白南珊 各  
 一圓 李建明 李勉泰 金秉潤 白樂潤 韓元三 林聖澤 各五十錢

李志遠 四十六錢 孟億必 三十錢 李能遠 李象澈 各二十五錢 李象台 韓益會 白南奎 金興先 各二十錢 金興己 姜奎馨 各十錢 合 新貨 九圓二十六錢 平山西上泛鴈里 李正榮 五十錢 李元吉 梁光年 李圭陽 各十錢 李根永 李昌福 金明善 各五錢 李圭天 二錢 合 新貨 九十七錢 价川郡 圓峯站 十四圓六十錢 石上站 六圓六十錢 中西面龍興里 李載昶 七圓 卓成和 卓文興 李載鎬 各一圓 卓成章 卓成贊 各五十錢 李輔植 十錢 李希道 五十錢 李輔楨 元順興 金應浩 各三十錢 吳達清 金龍瑞 各二十錢 卓成連 李守明 吳貞俊 金禮賢 卓成初 金召史 朴元涉 各十錢 李興石 三十錢 崔炳三 李希文 李輔奕 安貞麟 金周復 各二十錢 林基賢 高得洙 白在天 吳天雄 金允成 各十錢 合 五圓四十錢 雲龍里 九圓七十錢 中南面仁谷里 金益性 金益明 各二圓 金鼎均 五圓 金益濂 金昌均 各一圓五十錢 金盡宣 金德均 各一圓 金益龍 崔鍾錫 各七十錢 崔士奎 金益溶 金化鳳 金東均 金明吉 金鎮福 金興均 各五十錢 金錫均 金益福 梁成澤 崔德永 金益俊 金台均 李永化 各三十錢 玄碩俊 崔碩九 金鎮默 金基洙 金明均 各二十錢 李良熙 三十錢 金今石 金應泰 金鎮烈 各二十錢 金益南 十錢 合 二十三圓 都合 新貨 六十九圓三十錢.

1907년 8월 17일, 국채보상금 납부자와 금액, 3면 2단, 광고  
강화군 [계속] 삼해면(三海面) 하도동(下道洞) 박인수 이원  
이종진 이교승 각 1원 60전, 광동원 1원 40전, 이종철 전윤  
실 이성흥 각 1원, 이종팔 박인서 이건승 각 80전, 이재희 구  
문조 각 60전, 이종석 이원익 장성완 김성현 박덕실 방순문  
송부길 황용진 유여범 박천만 광영원 박계춘 정치곤 각 40전,  
이종구 20전 합계 18원 60전, 삼해면(三海面) 상도동(上道  
洞) 이진규 이태영 각사원 이진화 이원 이의재 이규재 이형

재 이진현 이진풍 이진수 이진현 이근영 이두영 이덕영 각 1  
 원 합계 20원, 길상면(吉祥面) 직하동(稷下洞) 윤씨 6원, 전  
 경진 6원 조정식 4원, 이희규 2원, 조주원 정기완 전원길 전  
 재중 고경중 류홍재 유진숙 홍재봉 홍재운 고백중 고석운 립  
 한실 조중인 정상원 김인제 조후식 조종유 이현규 이덕현 홍  
 종갑 홍거희 이봉규 조응식 구연중 최광련 박의춘 유현준 유  
 성준 이종만 전현숙 전양숙 류홍창 장치서 전재복 정무원 유  
 돌천 고경중 전치명 구의조 합계 39명 9원 40전 합계 27원  
 40전, 부내(府內) 신촌동(新村洞) 장원규 최의목 각일원 장  
 재신 고익진 김석조 각 40전 합계 3원 20전, 인정면(仁政面)  
 삼동암동(三同岩洞) 심원봉 2원 40전, 박치서 1원 20전, 심  
 종하 심종호 홍재범 구남조 황일현 김의지 각 1원, 남궁표 남  
 궁중 김영삼 구연백 각 80전, 황하현 황인주 노창섭 나종엽  
 각 60전, 홍순영 황성주 심노만 심노임 황의춘 한홍수 구연  
 일 한상철 한룡철 전재술 류련 황태현 김상렬 황길주 노인섭  
 각 40전, 황입주 35전, 신경운 한시경 심원성 심원상 홍종엽  
 구맹조 남궁경 한룡수 구연구 유병순 전석우 김경삼 황의순  
 박응삼 박룡문 남궁식 허석보 황경주 구연황 각 20전, 심원  
 학 15전, 심룡봉 12전, 심만복 10전 합계 25원 72전, 송정면  
 (松亭面) 솔정동(率亭洞) 12원 총합 1,209원 26전 (완)

### 1907년 8월 19일, 警總仕進, 2면 3단, 기사

江華郡에 不穩한 狀態를 鎮撫하기 爲하야 警視總監 丸山重俊  
 氏가 發向하얏다 흙은 揭報어니와 該氏가 三昨日에 入城하얏  
 는디 再昨日부터 仕進視務한다더라.

**1907년 8월 19일, 경시총감 귀환, 2면 3단, 기사**

강화군에 불온한 상태를 진무하기 위하여 경시총감 환산중준(丸山重俊)이 출발한다는 것은 이미 보도하였는데 총감이 그제(17일) 입경하였는데 어제(1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전한다.

**1907년 8월 21일, 日兵向金浦, 2면 3단, 기사**

仁川港에 駐在하얏던 日本守備隊陸軍歩兵少尉 葛卷常彦氏가 通辯 一名과 兵丁을 領率하고 本月十四日에 富平郡에 到着하얏다가 金浦郡으로 發向하얏다고 富平郡守가 内部에 報告하얏다더라.

**1907년 8월 21일, 일본군 김포로, 2면 3단, 기사**

인천항에 주재하던 일본수비대 육군보병 소위 갈권상언(葛卷常彦)이 통역 1명과 병사를 데리고 14일에 부평군에 도착하였다가 김포군으로 향하였다고 부평군수가 내부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1907년 8월 26일, 反受其害, 2면 3단, 기사**

江華郡에 不穩한 情狀을 視察하기 爲하야 警視廳에서 派送한 日巡查가 該郡惹鬧中에 金東秀 等 七人을 京城으로 押上하다가 中路에서 該金東秀 等이 日巡查의 佩刀를 勒奪作梗하랴다가 卽時에 砲殺을 酷被하얏다더라.

**1907년 8월 26일, 강화 무뢰배 사살, 2면 3단, 기사**

강화군에 불온한 정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경시청에서 파송한 일본 순사가 강화군 무뢰배 김동수(金東秀) 등 7명을 경성의

로 압송하다가 도중에 김동수 등이 일본순사의 칼을 뺏으려다가 즉시 포살당하였다고 한다.

**1907년 8월 29일, 法訓仁裁, 2면 5단, 기사**

法部에서 仁川港裁判所에 訓令하되 平理院裁判事務囑托 三宅長策이 司法事務視察하기 爲하야 貴所에 前往하니 裁判事務視察할 際에 該員의 所請을 從하야 十分 便利케 하라 하였더라.

**1907년 8월 29일, 법부의 훈령, 2면 5단, 기사**

법부(法部)에서 인천항재판소에 훈령하되 평리원(平理院) 재판사무촉탁 삼택장책(三宅長策)이 사법사무시찰을 위해 출장하니 재산사무 시찰할 때 충분히 편의를 제공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7년 8월 30일, 朴氏發程, 2면 3단, 기사**

警視廳에 被囚하얏던 錦陵尉 朴泳孝氏가 昨日上午八時頃에 濟州島에 安寔次로 發向하얏는디 日警部及巡查 五六名이 保護하야 仁川港에서 幾日間 留連하다가 同地로 發向할 預定이라더라.

**1907년 8월 30일, 박영효 출발, 2면3단, 기사**

경시청에 수감되었던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가 어제(29일) 상오 8시경 제주도에 귀향을 떠나기 위해 출발하였는데 일본경부 및 순사 5~6명이 보호하여 인천항에서 며칠 체류하다가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라고 한다.



**1907년 8월 30일, 發配船費請撥, 2면 4단, 기사**

法部에서 度支部로 照會되 流配罪人 閔宗植 等 三十六人の 發程船費 三百九十六圓五錢을 仁川港海關에서 先爲支撥하얏슨 則 該金額數를 卽爲支撥하랴 하얏더라.

**1907년 8월 30일, 뱃삿 청구, 2면 4단, 기사**

법부(法部)에서 탁지부로 문의하되 유배죄인 민종식(閔宗植) 등 36명의 뱃삿 396환 5전을 인천항 해관에서 지불하기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1907년 8월 30일, 法務視察出張, 2면 4단, 기사**

平理院補佐官 中村竹藏氏와 事務員 北條久清氏가 法務視察次로 水原, 仁川, 大邱, 平壤, 鎭南浦, 開城 等地에出張하느디 該兩氏의 旅費는 二百八十八圓七十六錢이라더라.

**1907년 8월 30일, 법무 지방 시찰, 2면 4단, 기사**

평리원 보좌관 중촌죽장(中村竹藏)과 사무원 북조구청(北條久清)이 법무시찰로 수원 인천 대구 평양 진남포 개성 등지로 출장하는데 여비는 288환 26전이라고 한다.

**1907년 8월 30일, 江華安堵希望, 2면 5단, 기사**

江華郡守署理通津郡守 趙東善氏가 內部에 報告되 日本警察署에서 調捉한 暴徒 金東秀 等 七人을 本月二十一日에 甲串津에서 砲殺하고 本郡에 所在한 軍器庫와 積置한 舊軍物中 殘留한 銃物은 日本軍隊로 并爲移去하고 其他 旗桿 箭竹 皮甲 等物은 盡爲燒燼하얏느디 本署理가 閭里에 躬審한 則 人烟이 稀少하야 滿目慘憺이기 安堵할 意로 各面에 揭示하고

家諭戶說이더니 離散하얏던 人民이 次第 入城하야 三分居二이며 陰七月十七日市에 各塵이 開市하고 村民이 入城하야 稍有安堵之狀이나 以日兵把守之由로 民多疑懼하야 往來함이 無흔 故로 日軍隊에 交渉하야 二十六日에 各門把守를 并爲撤去하얏슨 즉 自今以後로는 似有安堵之望이라 하얏더라.

### 1907년 8월 30일, 강화도 평은 희망, 2면 5단, 기사

강화군수 서리 통진군수 조동선(趙東善)이 내부에 보고하길 일본경찰서에서 수감 중인 폭도 김동수(金東秀) 등 7명을本月 21일 갑곶진(甲串津)에서 살해하고 강화군에 소재한 군기고와 군물품 중 남아있는 무기는 일본군대로 이송하고 기타 물품은 불살랐는데 본 서리(署理)가 마을을 살피니 사람이 없고 참혹하여 안도(安堵)하길 바라는 뜻으로 각 면(面)에 게시하고 집집마다 설명했더니 흩어졌던 사람들이 점차 마을로 돌아와 음력 7월 17일에 각 시장이 열리고 촌민이 성내로 들어와 숨을 돌린 상황이나 날마다 일본군이 보초를 서기에 사람들이 두려워 왕래가 끊기기에 일본군대와 교섭하여 26일에 성문 앞 보초를 거두었다는데 현재 이후 한숨돌릴 것 같다고 한다.

## 1907년 9월

### 1907년 9월 4일, 軍物輸移報部, 2면 4단, 기사

通津郡에 在흔 軍物을 江華郡巡檢이 輸去하얏다고 京畿觀察使 李圭桓氏가 內部에 報告하얏더라.

1907년 9월 4일, 군수품 수송, 2면 4단, 기사

통진군의 군사물자를 강화군 순검이 철거하였다고 경기도 관찰사 이규환(李圭桓)이 내부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1907년 9월 4일, 朴氏發程, 2면 6단, 기사

錦陵尉 朴泳孝氏가 濟州郡으로 發向次發程호야 仁川港에서 幾日間 留連한다 ㅎ은 已爲揭報어니와 傳說을 得聞호 則 昨 日 下午五時頃에 該郡으로 發程호얏다더라.

1907년 9월 4일, 박영효 귀양, 2면 6단, 기사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가 제주군으로 출발하려고 인천항에서 며칠 체류한다는 것이 이미 보도하였고 전하는 말을 들어니 어제(3일) 오후 5시 경 제주도로 출발하였다고 한다.

1907년 9월 4일, 仁校慶祝, 2면 6단, 기사

仁川日語學校長 金潤晶氏는 再昨日에 一般 學徒를 招集하야 慶祝式을 舉行호 後에 慶祝費 四圓으로 石板과 石筆을 購買하야 學徒에게 頒給하얏다더라.

1907년 9월 4일, 인천일본어학교 축하, 2면 6단, 기사

인천일본어학교장 김윤정(金潤晶)은 그제(2일)에 일반 학생들을 모아 경축식을 거행 한 후 경축비 4환으로 석판(石板)과 석필(石筆)을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줬다고 한다.

1907년 9월 6일, 京城孤兒院寄附人氏名, 3면 5단, 광고

金相萬氏 高應遠氏 各五十錢 ..... 仁川港居無名氏 十환 ..... 皇城新聞社 天一銀行 各二환.

1907년 9월 6일, 경성고아원 기부자 명단, 3면 5단, 광고

김상만 씨 고응원 씨 각 50전 ..... 인천항 거주 무명씨(無名氏) 10환 ..... 황성신문사, 천일은행 각 2환.

1907년 9월 10일, 郡主其人, 1면 4단, 기사

向日 江華隊解放時 起擾情況은 本報에 屢揭어니와 該島來人의 傳說을 聞흔 즉 伊時 韓日兵이 交戰하다가 韓兵이 敗走하느니라 日兵이 府中으로 入來하야 機關砲及速射砲를 府東門城邊에 置하고 府中人民을 方欲放火屠戮之際에 郡守는 逃躲라가 中路被害하고 該郡主事 黃翊周氏가 許多人民의 無辜殺戮됨을 憂慮하야 其身을 不顧하고 砲丸如雨하 中에 冒入하야 日本隊長과 交涉하야 人民의 無罪함을 萬端說明하야 起火放砲함을 使之停止하고 一邊으로 渙散人民을 招集하야 使之安堵케 하며 其後 起擾根因을 懲戢할 時에 無辜人民이 日兵에게 誤捉되야 將施砲刑者을 抵死辯明하야 多數 救活하느니라 該氏의 捨己拯民하느 慈悲之心은 人所難行이요 若非黃主事면 一府生靈이 無有孑遺할변 히다고 一島가 無不稱頌하더라.

1907년 9월 10일, 강화군민 청송, 1면 4단, 기사

얼마 전 강화부대 해방 때 변란 정황은 본 신문사에 누차 보도하였거니와 강화도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 이때 한일 병사가 교전하다가 진위대가 패주하여 일본군이 강화부내로 들어가 기관총 및 속사포를 강화부 동문 성 주변에 설치하고 강화부 내 인민을 방화 도륙하고자 할 때 군수는 도중에 사망하고 강화군 주사 황익주(黃翊周)가 많은 인민이 무고 살육되는 것을 우려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포탄이 비와 같이 쏟아지는 와중에 들어가 일본군부 대장과 교섭하여 인민의

무죄함을 설명하여 가격을 중지하고 한편으로 도망간 인민을 소집하여 안전하게 하였고, 그후 사고 조사를 할 때 무고한 인민이 일본군에게 오해로 붙잡혔을 때 결사코 변호하여 다수를 구조한지라 황익주의 자비심은 타인이 실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약 황익주 주사가 아니면 강화부 사람들이 많이 사할 뻔 했다고 강화군 인민이 모두 칭송한다고 한다.

**1907년 9월 10일, 鄭氏追悼會, 2면 3단, 기사**

再昨日 侍天敎會館에서 前江華郡守 鄭璟洙氏의 被害한 追悼會를 設行하였다더라.

**1907년 9월 10일, 강화군수 정경수 추도회, 2면 3단, 기사**

그제(8일) 시천교(侍天敎) 회관에서 이전 강화군수 정경수(鄭璟洙)의 추도회를 하였다고 한다.

**1907년 9월 12일, 度訓四郡, 2면 5단, 기사**

度支部에서 仁川, 始興, 陽川, 果川 等郡에 訓令되 本郡境內에 本部所管仁川水道運水鍊管理設用地犯入田畝主姓名을 一一踏查修成冊하야 該田畝主와 會同實測하기 爲하야 本部水道官吏를 派遣이기 督訓하니 到卽轉飭各該洞頭民處이고 實測日字를 該局에서 預先排日指揮矣리니 田畝主 等이 出往該地하야 以便實地調査케 하라 하였더라.

**1907년 9월 12일, 탁지부 훈령, 2면 5단, 기사**

탁지부에서 인천, 시흥, 양천, 과천군에 훈령하니 군내 경계에 탁지부 소관 인천수도 운수 철관 매설용지에 편입되는 땅 주인 이름을 조사하고, 이 땅 주인과 실제 측량을 위하여 탁지

부 수도관리를 파견하고 실측일자를 탁지부에서 예고할 것으로  
니 땅주인은 실측 시 편의를 제공하라고 한다.

**1907년 9월 14일, 華倅新任, 2면 2단, 기사**

前憲兵正尉 高靑龍氏는 江華郡守를 被任함았더라.

**1907년 9월 14일, 강화군수 임명, 2면 2단, 기사**

전 헌병정위(憲兵正尉) 고청룡(高靑龍)이 강화군수에 임명되었다.

**1907년 9월 16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前鎮衛步兵第一大隊附陸軍步兵副尉 閔完植 全 參尉 閔泳洛 免本官 右는 該員 等이 頃以前鎮衛第一大隊附로 派在江華駐隊하여 士卒妄動을 不能止戢하고 擅離信地 故로 今當拘拿定罪이옵기 免本官 以上八月二十九日 ……

**1907년 9월 16일, 관리 진퇴, 1면 1단, 기사**

……△이전 진위보병 제1대대 육군보병 부위(副尉) 민종식(閔完植) 참위(參尉) 민영락(閔泳洛) 면관. 이들은 진위 제1대대에 배속되어 강화도에 주둔하여 병사들의 망동을 제지하지 못하고 부대를 멋대로 이탈하는 죄를 지었기에 면관함. 이상 8월 29일 ……

**1907년 9월 16일, 水道費引渡, 2면 5단, 기사**

仁川水道費 一千圓을 興業銀行에서 引出함야 中央金庫에 移付함았다더라.

1907년 9월 16일, 수도 부설비, 2면 5단, 기사

인천수도비 1,000환을 흥업은행(興業銀行)에서 인출하여 중앙금고로 보냈다고 한다.

1907년 9월 18일, 本號今有新到精美各欸綾羅綢緞及洋廣雜貨  
疋頭洋大鏡各種呂宋烟, 3면 3단, 광고<sup>165)</sup>

各種紙捲烟各種加料泡製藥丸等物貨眞價實童叟無欺格外克己以  
招廣徠諸君賜顧請早來購爲荷 兼售每月份 湖北彩票 陰曆八  
月份票有到二十四日開彩即陽曆十月初一日也 江南彩票 陰曆八  
月份票有到二十九日開彩即陽曆十月初六日也 以前售出之票得彩  
頗多貴客欲奪大彩仍望早日來購是荷 漢城 仁川 群山 同順泰  
告白.

1907년 9월 18일, 본 상점에서는 새로이 도착한 능라 주단  
및 서양 광목 잡화 등 판매, 3면 3단, 광고

각종 지권연초, 각종 약품 등 각종 물화를 염가에 판매합니  
다. 또 매월 호북(湖北) 복권(彩票), 강남(江南) 복권 등 판  
매합니다. 한성·인천·군산 동순태(同順泰) 고백(광고)

1907년 9월 18일, 地方消息, 2면 5단, 기사

…… 江華郡守署理 趙東善氏가 內部에 報告호되 前郡守를 戕  
害호 暴徒 劉明奎를 日軍隊에서 砲殺호얏다 호얏고 ……

1907년 9월 18일, 지방 소식, 2면 5단, 기사

…… 강화군수 서리 조동선(趙東善)이 내부(內部)에 보고하되

---

165) 이 광고는 10월 12일까지 게재되었다.

전 군수(郡守)를 상해한 폭도 유명규(劉明奎)를 일본군이 살해하였다 하며 .....

**1907년 9월 19일, 永島慘報, 1면 5단, 기사**

京畿警務官 金善泳氏가 内部에 報告호되 日前에 永宗島에서 覆船호야 男女 十四人이 渰死호았다 호았더라.

**1907년 9월 19일, 영종도 선박 전복 사고, 1면 5단, 기사**

경기경무관 김선영(金善泳)이 내부(内部)에 보고하되 어제 영종도에서 배가 뒤집혀 남녀 14명이 익사하였다고 한다.

**1907년 9월 19일, 隊官處答, 2면 2단, 기사**

隊官處答 陸軍監獄署에 在囚호 原州 江華 兩隊尉官덜을 答八十에 處호았다더라.

**1907년 9월 19일, 강화진위대 태형 처분, 2면 2단, 기사**

육군감옥서에 수감 중인 원주 강화 부대 장교들이 태형 80대에 처하였다고 한다.

**1907년 9월 19일, 江倅赴任, 2면 3단, 기사**

江華郡守 高靑龍氏는 昨日에 赴任호았다더라.

**1907년 9월 19일, 강화군수 부임, 2면 3단, 기사**

강화군수 고청룡(高靑龍)은 어제(18일) 부임하였다고 한다.

**1907년 9월 21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江華傳燈寺 宋戎華 一圓 呂巨淵 金海璇 各二十錢 鞠昌煥



三十錢 林應化 十錢 高漢成 朴性恬 各二十錢 朴敬雲 尹竺麟  
 金妙天 各十錢 合 二圓五十錢 淨水寺 尼正逸 五十錢 演悟 二  
 十錢 充萬 五十錢 尙法 五錢 應澤 二十錢 合 一圓九十錢 青  
 蓮寺 尼碧春 三十錢 僧根訓 五十錢 瑞章 三十錢 京祿 二十錢  
 善惠 四十錢 妙葉 三十錢 碧松 十錢 弘辰 二十錢 幸得 十錢  
 應燮 六十錢 合 三圓 白蓮寺 張普訓 朴善照 各五十錢 金奉燁  
 二十錢 崔德元 金俊亨 各三十錢 合 一圓八十錢 圓通菴 尼仁  
 福 允喜 各一圓 台仁 四十錢 元根 奇俊 各二十錢 妙黃 六十  
 錢 達城 應化 各十錢 昌植 二十錢 合 三圓八十錢 普門寺 鄭  
 惠安 五十錢 ……

1907년 9월 21일, 국채보상금 납부자와 금액, 3면 1단, 광고  
 …… 강화 전등사(傳燈寺) 송응화 1환, 여거연 김해선 각 20  
 전, 국창환 30전, 림응화 10전, 고한성 박성오 각 20전, 박경  
 운 윤축린 김묘천 각 10전 합계 2환50전, 정수사(淨水寺) 니  
 (尼) 정일 50전, 연오 20전, 충만 50전, 상법 5전, 응택 20전  
 합계 1환90전, 청련사(靑蓮寺) 비구니 벽춘 30전, 승 근훈 50  
 전, 서장 30전, 경록 20전, 선혜 40전, 묘엽 30전, 벽송 10전,  
 흥진 20전, 행득 10전, 응섭 60전 합계 3환, 백련사(白蓮寺)  
 장보훈 박선조 각 50전, 김봉엽 20전 최덕원 김준형 각 20전  
 합계 1환80전, 원통암(圓通菴) 니 인복 윤희 각 1환, 태인 40  
 전, 원근 기준 각 20전, 묘황 16전, 달성 응화 각 10전, 창식  
 20전 합계 3환80전, 보문사(普門寺) 정혜안 50전 ……

1907년 9월 22일, 鹽田視察, 2면 4단, 기사

度支部 財政顧問部에서 經營하던 仁川郡朱安面天日製試驗鹽  
 田이 竣工되야 目下 製鹽中인디 財政監查長 目賀田氏가 總相

리 完用, 內大 任善準, 度大 高永喜, 農大 宋秉峻 四氏를 請邀  
하야 本月二十三日上午十二時에 該地를 視察하기 爲하야 南  
大門驛에서 特別車를 搭乘하고 發向한다더라.

#### 1907년 9월 22일, 주안염전 시찰, 2면 4단, 기사

탁지부 재정고문부에서 경영하는 인천군 주안면 천일제염 시  
험염전이 준공되어 현재 제염 중인데 재정감사장 목하전(目  
賀田)이 총리 이완용, 내부대신 임선준(任善準) 탁지부대신  
고영선(高永喜), 농상부대신 송병준(宋秉峻)을 데리고本月  
23일 오전 12시에 이곳을 시찰하기 위하여 남대문역에서 특  
별차에 탑승하여 출발한다고 한다.

#### 1907년 9월 25일, 日皇太子轉覽, 1면 4단, 기사

日皇太子轉覽 日本皇太子殿下께서 十月十日에 東京에서 發行  
하야 軍艦鹿取号를 乘하고 仁川에 直航하야 京城에 滯留中에  
我國皇室을 訪問하고 歸路에 仁川에서 鹿取号를 乘하고 鎮海  
灣으로 前往하얏다가 佐世保에 歸航하야 軍艦利根号의 進水  
式에 參與하고 鹿兒島, 宮崎, 大分, 德島, 高知의 諸縣을 巡遊  
할 預定이라더라.

#### 1907년 9월 25일, 일본황태자 시찰, 1면 4단, 기사

일본황태자가 10월 10일 동경에서 출발하여 군함 녹취호(鹿  
取号)를 타고 인천에 직항하여 경성에 체류 중 우리 황실을  
방문하가 귀로에 인천에서 녹취호를 타고 진해만에 갔다가  
사세보(佐世保)에 들러 군함 이근호(利根号) 진수식에 참여  
하고 녹아도(鹿兒島), 궁기(宮崎), 대분(大分), 덕도(德島),  
고지(高知)를 순유할 예정이라고 한다.

**1907년 9월 25일, 副統監發行期, 1면 4단, 기사**

副統監 曾彌荒助氏가 本月二十八日에 東京에서 發行하야 宮島에서 伊藤統監과 會見하고 仁川으로 發向한다더라.

**1907년 9월 25일, 부통감 일본행, 1면 4단, 기사**

부통감 소네(曾彌荒助)가 이번 달 28일에 동경에서 출발하여 궁도(宮島)에서 이등통감(伊藤統監)과 회견하고 인천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1907년 9월 25일, 視察後陞見, 2면 3단, 기사**

總理大臣 李完氏가 再昨日에 仁川郡朱安面製鹽場을 視察하고 同日午後四時頃에 詣闕陞見하였다더라.

**1907년 9월 25일, 주안 염전 시찰, 2면 3단, 기사**

총리대신 이완용이 그제(23일) 인천군 주안면 제염장을 시찰하고 오후 4시경 폐하를 알현한다고 한다.

**1907년 9월 26일, 金鍾岳을 以鍾允으로 改名개명, 3면 4단, 광고**

仁港杻峴居 正三品 金鍾岳을 以鍾允으로 改名하오니 知舊間 照亮함 金鍾允 告白.

**1907년 9월 26일, 김종악을 중윤으로 개명, 3면 4단, 광고**

인천항 축현 거주 정3품 김종악(金鍾岳)을 중윤(鍾允)으로 개명함을 밝힙니다. 김종윤 고백(광고)

**1907년 9월 27일, 日人被害, 2면 2단, 기사**

鰲川郡鹿島에 江華散兵이 突入하야 日兵 三名과 巡查 一人과 日人 二名을 砲殺하얏다고 全北觀察使 金奎熙氏가 内部에 報告하얏더라.

**1907년 9월 27일, 일본인 피해, 2면 2단, 기사**

오천군 록도(鹿島)에 강화 병사가 돌입하여 일본군 3명과 순사 1명과 일본인 2명을 살해하였다고 전주관찰사 김규희(金奎熙)가 내부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1907년 9월 27일, 日皇太子歡迎, 2면 2단, 기사**

日本皇太子殿下게옵서 十月十日頃에 渡韓하신다 흙은 已揭하얏거니와 内部에서 其歡迎節次를 磨鍊하야 仁川府尹 京畿觀察使에게 訓令하얏는디 其節次가 如左하니 一 沿路를 淨繁修治할 事 一 韓日國旗를 自官衙로 至民家히 門楣에 交叉高揭할 事 一 祇迎處所에 綠門을 建立하고 韓日國旗를 高揭交叉할지며 夜則 球燈을 裝飾할 事 一 所經沿路에 各學校學徒를 左右로 整肅排立하야 敬禮呼萬歲할 事.

**1907년 9월 27일, 일본 황태자 환영 준비, 2면 2단, 기사**

일본황태자가 10월 10일 경 온다는 것은 이미 보도하였고, 내부에서 환영절차를 마련하여 인천부윤 경기관찰사에게 훈령하였는데 그 절차가 다음과 같으니

1. 길을 수리할 것, 1. 양국 국기를 관아와 민가에 게시할 것,
1. 환영식 장에 녹문(綠門)을 세우고 양국 국기를 게양하고 밤에는 등불을 장식, 1. 길에 각 학교 학생으로 만세를 부르게할 것.

1907년 9월 27일, 統監到着期, 2면 4단, 기사

伊藤統監의 一行이 本月二十六日에 大磯에서 發行하야 名古屋에서 一夜留宿하고 ..... 軍艦笠置号를 乘하고 仁川으로 直行한다는데 仁川은 十月二日에 到着할 듯하다더라.

1907년 9월 27일, 통감 도착 일정, 2면 4단, 기사

이토 통감(伊藤統監) 일행이 이번 달 26일 출발하여 나고야에서 숙박하고, ..... 군함 립치호(笠置号)를 타고 인천으로 직행한다는데 인천은 10월 2일 도착할 것이라고 한다.

1907년 9월 29일, 光濟號請賓, 1면 4단, 기사

今日下午一時에 仁川에 定泊한 光濟號에서 一般 紳士를 請邀宴待한다더라.

1907년 9월 29일, 광제호에서 연회, 1면 4단, 기사

오늘 오후 1시에 인천에 정박한 광제호에서 일반 신사를 초청해 연회를 연다고 한다.

1907년 9월 29일, 度次到着期, 1면 4단, 기사

日本大坂造幣局을 視察次로 渡去한 柳正秀氏가 度支部에 電報하되 次官 荒井賢太郎氏가 伊藤統監과 同伴하야 來月二日에 仁川에 到着한다 하얏더라.

1907년 9월 29일, 탁지부 차관 일정, 1면 4단, 기사

일본 오사카 조폐국을 시찰하기 위해 떠난 류정수(柳正秀)가 탁지부에 전보하길 차관(次官) 황정현태랑(荒井賢太郎)이 이등통감(伊藤統監)과 동행하여 다음 달 2일에 인천에 도착한다고 한다.

## 1907년 10월

### 1907년 10월 1일, 光漢勝宴, 1면 4단, 기사

再昨日廿九일에 例期와 如히 政府大官 各新聞記者及貴婦女 一般 紳士가 上午十一時四十分에 南門驛에서 特別瀛車를 一同搭乘하고 仁港波止場에 到着하야 一同賓客이 豫待한 小蒸船을 搭乘하고 午後一時二十分에 八尾島에 定泊한 光濟號에 達하야 魚貫而上하니 .....

### 1907년 10월 1일, 광제호에서 연회, 1면 4단, 기사

그제 29일에 정부 대신 각 신문기사 및 귀부인 일반 신사가 오전 11시 40분에 남대문역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인천항 파지장(波止場)에 도착하여 준비된 소증기선을 타고 팔미도에 정박한 광제호에서 낚시 .....

### 1907년 10월 1일, 各官人敍勳, 2면 3단, 기사

內閣書記官長 韓昌洙 前次官 金珪鉉 兩氏는 特受勳三等하고 內閣秘書官 金明秀 書記官 洪運杓 仁川府尹 金潤晶 諸氏는 特敍勳四等하고 各賜太極章하오셨더라.

### 1907년 10월 1일, 관리 서훈, 2면 3단, 기사

내각 서기관장 한창수(韓昌洙) 전 차관(次官) 김각현(金珪鉉)은 3등 서훈을 받고 ..... 인천부윤 김윤정(金潤晶) 등은 훈 4등 서훈과 태극장을 받았다고 한다.

### 1907년 10월 2일, 統監到着期, 2면 2단, 기사

伊藤統監의 一行이 軍艦翌賓號를 搭乘하고 三昨日 宮島에서

出發호았는디 本月三日上午十一時頃 仁川港에 到泊호 預定이라더라.

**1907년 10월 2일, 통감 일정, 2면 2단, 기사**

이등통감 일행이 군함 익치호(翌寔號)를 타고 그제 궁도(宮島)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번 달 3일 오전 11시 경 인천항에 정박할 예정이라고 한다.

**1907년 10월 2일, 被害郡守敍勳, 2면 2단, 기사**

內部地方局長 廉仲模氏가 地方의 不穩호 狀態를 鎮壓호라면 地方官의 償罰을 實行함이 妥當호다 함은 已爲揭報호았거니와 更聞호 則 義徒에게 被害호 江華郡守 鄭璟洙 陽城郡守 趙漢哲 砥平郡守 金泰植 三氏는 敍勳호 意로 內部에서 現今 擬議호는 中이라더라.

**1907년 10월 2일, 강화군수 서훈, 2면 2단, 기사**

내부 지방국장 염중모(廉仲模)가 지방의 불온한 상태를 진압 하려면 지방관의 상벌을 실행함이 타당하다고 한 것은 이미 보도하였고 다시 들으니 의도(義徒)에게 피해를 당한 강화군수 정경수(鄭璟洙) 등은 서훈할 것을 내부에서 현재 의논 중 이라고 한다.

**1907년 10월 2일, 何故投石, 2면 3단, 기사**

三昨日午後二時頃에 仁川郡牛角洞停車場에서 不知何許人 十餘名이 突出호야 瀝車에 投石호았다는디 琉璃窓만 破碎호고 人命은 致傷함이 無호다더라.

**1907년 10월 2일, 기차에 투석, 2면 3단, 기사**

엿그제 오후 2시경 인천군 우각동 정거장에서 10여 명이 튀어나와 기차에 투석하였는데 유리창만 파손하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1907년 10월 2일, 測候所開務, 2면 4단, 기사**

農商工部所管仁川測候所京城支店을 東署馬頭山大韓醫院構内に 設置하고 技手 入江信介로 該支所長을 任하야 今日부터 事務를 開始한다더라.

**1907년 10월 2일, 인천측후소 개시, 2면 4단, 기사**

농상공부 소관 인천측후소 경성지점을 동서(東署) 마두산(馬頭山) 대한의원(大韓醫院) 구내에 설치하고 기수 입강신개(入江信介)를 지소장으로 임명하여 오늘부터 사무를 개시하였다고 한다.

**1907년 10월 3일, 宮廷錄事, 1면 1단, 기사**

관보 …… 隆熙元年九月二十九日 詔曰 …… 仁川府尹金潤品俱有出疆之勞內閣書記官洪運杓恪勤供職特敘勳四等各賜太極章 ……

**1907년 10월 3일, 궁궐 소식, 1면 1단, 기사**

…… 융희 원년 9월 29일, 조를 내려 말씀하시기를 …… 인천 부윤 김윤정(金潤品) 등 특훈 4등 태극장 수여 ……

**1907년 10월 3일, 測候所通信, 2면 4단, 기사**

十月二日午後十一時三分 仁川發 海上風雨의 慮가 有함으로



韓國北部의 沿海로 警戒함 低氣壓이 滿洲에서는 七百五十耗을 示하고 其中心이 東으로 進함.

**1907년 10월 3일, 측후소 통신, 2면 4단, 기사**

10월 2일 오후 11시 30분 인천발, 해상 풍우 우려가 있기에 한국북부 연안은 경계함 저기압이 만주에서는 750모(耗)로 보이고 그 중심이 동으로 나아감.

**1907년 10월 4일, 渰死請恤, 1면 4단, 기사**

去月三十日에 仁川府永宗津에 津船 一隻이 發行할 時에 風猛 船覆호야 搭乘호았던 男女 十四人이 渰死호야 三名의 屍身은 姑未拯出호았다는디 救恤金을 特別施惠호라고 該府尹 金潤晶氏가 內部에 報告호았더라.

**1907년 10월 4일, 영종도 선박 사고, 1면 4단, 기사**

지난 달 30일 인천부 영종진에 선박 1척이 전복하여 탑승자 남녀 14명이 사망하고 3명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는데 구휼금을 특별 시혜하라고 인천부윤 김윤정(金潤晶)이 내부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1907년 10월 4일, 富平報告, 2면 5단, 기사**

富平郡守 全國煥氏가 內部에 報告호되 賊漢이 稱以義兵호고 村閭에 橫行호면서 民財를 劫掠호는 故로 日兵이 該徒를 偵探호고 軍物을 調査次로 本郡에 來到라 호았더라.

**1907년 10월 4일, 부평 보고, 2면 5단, 기사**

부평군수 전국환(全國煥)이 내부에 보고하길 적한(賊漢)이 의

병이라 칭하고 시골에 횡행하며 일반인의 재물은 빼앗기에 일  
본군이 폭도를 정찰하고 군사물자를 조사하기 위해 부평군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1907년 10월 5일, 統監迎接, 2면 2단, 기사**

伊藤經監이 再昨日下午三時三十分에 入城한 事은 昨報에 揭  
載한것과 法部大臣 趙重應氏는 仁川까지 前往迎接한것  
.....

**1907년 10월 5일, 통감 영접, 2면 2단, 기사**

이토통감(伊藤經監)이 그제 오후 3시 30분 임경한 것은 이미  
보도하였고 법무대신 조중응(趙重應)이 인천까지 영접하였고  
.....

**1907년 10월 5일, 天氣豫報, 2면 6단, 기타**

△ 十月五日午後六時까지 南風 曇後雨 暴風警報 十月四日午  
前十一時四十一分仁川發 海上風雨의 虞가 有함으로 .....

**1907년 10월 5일, 기상예보, 2면 6단, 기타**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남풍 구름 후 비 폭풍경보 10월 4일  
오전 11시 41분 인천발 해상풍우의 염려가 있으므로 .....

**1907년 10월 6일, 虎列刺歷史及預防法, 2면 1단, 사설**

虎列刺이라 하는 病은 各種 傳染病의 中에 最劇烈한 者오 世  
人の 最忌避한 者라 ..... 今我國에 不幸히 又此毒菌이 發生  
한야 義州 平壤 三和 釜山 仁川 等 各港市의 地方으로브터  
京城까지 至한야 種種 罹患者를 發現하니 .....

1907년 10월 6일, 콜레라의 역사와 예방법, 2면 1단, 사설  
호열자는 각종 전염병 중 가장 치열한 것이고 세계인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라 ..... 우리나라에 불행히 이 독균이 발생하여  
의주 평양 삼화 부산 인천 등 각 개항시장 지방으로부터 경  
성까지 여러 환자가 발생하니 .....

1907년 10월 6일, 檢疫調査, 2면 4단, 기사

檢疫部에서 京城及各郡에 虎列刺在患者를 調査하야 内部에  
報告하였는데 其地名及人命數조가 如左하니 城京에 三十六人,  
仁川에 三人, 釜山에 十五人, 平壤에 一人, 義州에 十四人 新  
義州에 十四人 .....

1907년 10월 6일, 검역 조사, 2면 4단, 기사

검역부에서 경성 및 각 군에 호열자 환자를 조사하여 내부로  
보고하였는데, 그 지명 및 환자는 다음과 같다. 경성에 36명,  
인천에 3명, 부산에 15명, 평양에 1명, 의주 14명, 신의주 14  
명 .....

1907년 10월 8일, 新小說 愛國婦人傳, 3면 6단, 광고<sup>166)</sup>

愛國婦人傳 一冊 定價金 十五錢 新鮮한 圖本도 具備함 右冊  
은 純國文으로 世界에 有名한 法國婦人 若安氏의 事蹟을 譯  
出하여사오니 無論男女하고 愛國性이 有한 同胞는 맛당이  
보실 書冊이오니 陸續 購覽하심을 望함 發賣所 皇城布屏下金  
相萬書舖 南門內博文書館 仁川大韓每日申報支社.

---

166) 이 광고는 12월 29일까지 연재되었다.

**1907년 10월 8일, 신소설 애국부인전, 3면 6단, 광고**

1책 정가 15전, 새로운 그림도 구비. 이 책은 순 국문으로 세계에 유명한 프랑스 여인 잔다르크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니 남녀 막론하고 애국성이 깊은 동포는 마땅히 봐야할 책이니 1권 정가는 15전 신선한 그림책도 구비함 앞의 책을 순 국문으로 세계에 유명한 프랑스 부인 잔다르크의 사적을 번역하였으니 남녀를 물론하고 애국심이 있는 동포는 마땅히 보실 서책이오니 계속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발매소 경성 성벽 아래 김상만(金相萬) 서보(書舖), 남대문 내 박문서관(博文書館), 인천 대한매일신보 지사.

**1907년 10월 8일, 三港虎列刺, 2면 5단, 기사**

仁川에서는 虎列刺患者가 初發以來로 六名이니 其中 一名은 九月廿九日, 一名은 三十日, 一名은 十月二日, 一名은 四日, 一名五日인디 其中 五名은 死亡하고 現在 患者가 一人이오 .....

**1907년 10월 8일, 3항구 콜레라, 2면 5단, 기사**

인천의 호열자 환자가 발생 이래 6명이고 그 가운데 1명은 9월 29일, 1명은 30일, 1명은 10월 2일, 1명은 10월 4일, 1명은 10월 5일인데 그 중 5명은 사망하고 현재 환자가 1명이고 .....

**1907년 10월 9일, 無疑犯罪, 1면 4단, 기사**

漢城裁判所에서 法部에 報告호되 崔申根訴狀을 因호야 前局長河相驥를 招引審査호 則 該員이 仁川府尹으로 在任時에 開城居 李用默 孫儀文 崔中根 等を 謂以國事犯이라 稱호고 無

罪拘禁에 受財銅貨 六千元호얏슨 즉 其 犯罪成立이 十分 無  
疑인 바 該員이 係是曾經勅任官이기 報告호니 查照處辦호라  
호얏더라.

#### 1907년 10월 9일, 의심스러운 범죄, 1면 4단, 기사

한성재판소에서 법부에 보고하되 최신근(崔申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전 국장 하상기(河相驥)를 조사하니 하상기가 인천부  
윤으로 재임할 때 개성 거주 이용묵(李用默) 손의문(孫儀文)  
최중근(崔中根) 등을 국사범이라고 칭하고 무죄구금하고  
6,000원을 받았는데 범죄성립이 미심쩍은 바 하상기가 척임  
관이라 보고하니 조사 후 판단하라고 하였다 한다.

#### 1907년 10월 10일, 學生勸學, 2면 2단, 기사

李海忠氏가 日本에 留學次로 數日前에 發程하야 仁川港으로  
轉往하얏는디 該港에 所在호 仁明, 興化, 日語 等 三學校에  
輪回하야 學徒에게 勸勉演說하고 每校에 十圓式을 義捐하얏  
다더라.

#### 1907년 10월 10일, 학생에게 권고, 2면 2단, 기사

이해충(李海忠)이 일본에 유학차 수일전 출발하여 인천항에  
인명(仁明), 흥화(興化), 일어(日語)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권면하길 연설하고 각 학교에 10환을 의연하였다고 한다.

#### 1907년 10월 10일, 檢疫部調査, 2면 4단, 기사

近日 各處에 虎列刺를 檢疫部에서 調査하는디 自發生以來로  
京城 仁川 釜山 新義州에 死亡이 八十九人이오 現患者가 四  
十五人이라더라.

1907년 10월 10일, 검역부에서 환자조사, 2면 4단, 기사  
현재 각처에서 콜레라(虎列刺)를 검역부에서 조사하는데 발생 이래 경성 인천 부산 신의주에 사망이 89명이고 현재 환자는 45명이라고 한다.

1907년 10월 10일, 請議繳還, 2면 5단, 기사  
義徒에 被害한 江華郡守 鄭璟洙 陽城郡守 趙漢哲 砥平郡守 金泰植 華川郡主事 沈宜道 四氏를 贈職及敍勳한 案件을 內部에서 內閣에 請議하였다가 該案件을 昨日 內部에서 還爲繳還하였다더라.

1907년 10월 10일, 청원 파송, 2면 5단, 기사  
의도(義徒)에게 피해를 입은 강화군수 정경수(鄭璟洙) 양성군수 조한석(趙漢哲) 등을 증직(贈職) 및 서훈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내각에 청원하였다가 이 안건을 어제 내부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1907년 10월 11일, 御駕出迎, 2면 2단, 기사  
日本皇太子殿下가 入京하는 當日에 皇太子殿下의 御座 大皇帝陛下御駕를 陪衛하옵서 仁川까지 出迎하시기로 內定되었다더라.

1907년 10월 11일, 황태자 환영, 2면 2단, 기사  
일본 황태자가 입경하는 당일 황태자 전하께서 황제폐하가 인천까지 환영하기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1907년, 10월 11일, 仁川府尹報告, 2면 5단, 기사  
仁川府尹 金潤晶氏가 內部에 報告하기를 衛生費 一千圓을 支

撥<sup>하</sup>라 <sup>하</sup>얏고 日本皇太子殿下渡御時에 奉迎<sup>하</sup>기 爲<sup>하</sup>야 民團長을 丁致國으로 定<sup>하</sup>얏스니 官報에 掲載<sup>하</sup>라 <sup>하</sup>얏더라.

**1907년, 10월 11일, 인천부윤의 보고, 2면 5단, 기사**

인천부윤 김윤정(金潤晶)이 내부에 보고하기를 위생비 1,000환을 지발하라 하였고, 일본황태자 전하 도한 때 봉영을 위해 민단장을 정치국(丁致國)으로 정하였으니 관보에 기재하라 하였다고 한다.

**1907년 10월 12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仁川府主事 趙南稷 興海郡主事 崔昌錫 依願免本官 九月十日 免本官 ……

**1907년 10월 12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인천부주사 조남직(趙南稷) 흥해군 주사 최창석(崔昌錫)이 면관하기를 의원하여 9월 10일에 면관하였다 ……

**1907년 10월 12일, 仁川禮砲, 2면 2단, 기사**

日本皇太子殿下<sup>의</sup> 仁港에 到泊<sup>하</sup>신 後에 伊日 仁港에 碇泊<sup>하</sup>는 第一第二艦隊의 艦艇 二十餘隻이 皇上陛下<sup>의</sup> 對<sup>하</sup>야 皇禮砲 二拾一發을 放<sup>하</sup>다더라.

**1907년 10월 12일, 인천항에서 예포 발사, 2면 2단, 기사**

일본 황태자가 인천항에 도착한 후에 이날 인천항에 정박한 제1 제2함대의 함정 20여 척이 예포 21발을 발사한다고 한다.

**1907년 10월 12일, 陪從人員, 2면 4단, 기사**

來拾六日에 大皇帝陛下及皇太子殿下께서 仁川港에 動駕하신다  
함은 別項과 如하거니와 大皇帝陛下陪從人員은 海豐府院君 尹澤榮氏와 總理大臣, 宮內府大臣, 侍從卿, 侍從武官長, 侍從 二人, 禮式官 二人, 侍醫 一人이오 皇太子殿下陪從人員은 陪從武官長 趙東潤氏와 詹事 一人, 侍從 一人이라더라.

**1907년 10월 12일, 황제폐하 수행원, 2면 4단, 기사**

오는 16일 大皇帝폐하 및 황태자 전하께서 인천항에 행차하신다는 것은 별항과 같고, 大皇帝폐하를 따르는 인원들은 해풍부원군 윤택영씨와 총리대신, 궁내부대신, 시종경, 시종무관장 2인, 예식관 2인, 시의 1인이오. 황태자전하 배종인원은 배종무관장 조동윤씨와 첨사 1인, 시종 1인이라더라.

**1907년 10월 12일, 迎接節次, 2면 4단, 기사**

日本皇太子殿下께서 來拾六日 仁川港에 渡泊하실 預定인디 其迎接節次가 如左하니 同日上午拾二時에 大皇帝陛下께서와 皇太子殿下께서 宮中御用特別列車을 御乘하시고 仁川港阜頭에 停車하옵서 會見하옵사고 十七日上午拾二時三拾分에 惇德殿에서 皇上陛下께서와 日本皇太子殿下와 相見禮를 行하신 後에 午餐을 進御하시고 拾八日上午拾二時에는 本國各大臣이 日本皇太子殿下께 拜謁禮를 行하고 拾九日上午拾二時에는 日本高等官五等以上과 各國 總領事及領事が 并히 日本皇太子께 拜謁한 後에 立食禮를 設行하고 次에 昌德宮을 御覽하시고 二拾日에는 日本皇太子殿下가 出駕하실 터이라더라.



**1907년 10월 12일, 일본황태자환영 절차, 2면 4단, 기사**

일본 황태자전하께서 16일 인천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그 영접 절차가 다음과 같다. 같은 날 오전 12시에 대황제 폐하와 황태자 전하가 궁중 전용 특별열차를 타고 인천항 부두에 정차해 회견하고 17일 오전 12시 30분에 순덕전에서 황상폐하와 일본 황태자 전하와 상견 후 오찬을 하시고 18일 오전 12시에는 각 대신이 일본 황태자 전하에게 배례를 하고 19일 상오 12시에는 일본고등관 5등 이상과 각국 총영사와 영사가 일본황태자를 배알한 후에 입식례를 시행하고 다음에 창덕궁을 관람하고 20일에는 일본 황태자 전하가 떠나실 것이라고 한다.

**1907년 10월 13일, 詬辱稅主, 2면 4단, 기사**

仁川府退吏 趙義煥이 該府稅務主事에게 無數詬辱을 받았다고 漢城稅務官 金敎聲氏가 度支部에 報告을 하였더니 該部에서 仁川府에 訓令을 되 該漢을 捉囚嚴懲하라 하였더라.

**1907년 10월 13일, 세무사를 모욕, 2면 4단, 기사**

인천부 전 관리 조희환(趙義煥)이 인천부 세무주사를 무수히 욕보였다고 한성세무관 김교성(金敎聲)이 탁지부에 보고하였더니 탁지부에서 인천부에 훈령하길 이 사람을 엄벌에 처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7년 10월 13일, 橋梁費請撥, 2면 4단, 기사**

橋梁費請撥 總稅務司에서 度支部에 照會를 되 日本皇太子의 渡韓을 야 仁川上陸時에 橋梁을 臨時修築할 터이니 該費額 五千六百圓을 支出하라 하였더라.

1907년 10월 13일, 교량건설비 청구, 2면 4단, 기사

충세무사에서 탁지부에 조회하길 일본 황태자가 도한하야 인천 상륙 때에 교량을 임시 수축할 것이니 비용 5,600원을 지출하라고 하였다 한다.

1907년 10월 13일, 天氣豫報, 2면 6단, 기타

△ 十月十三日 自十二日午後六時至十三日午後六時 南風 曇後晴 暴風警戒 十月十二日午前十一時仁川發 海上風雨의 虞가 有함으로 ……

1907년 10월 13일, 기상 예보, 2면 6단, 기타

10월 13일 12일 오후 6시~13일 오후 6시 남풍 흐린 후 맑음 폭풍 경계 10월 12일 오전 11시 인천발 해상풍우의 염려가 있으므로 ……

1907년 10월 15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 任公立江華普通學校副敎員敍判任官十級 鄭惠煥 …… 任公立富平普通學校副敎員 …… 以上十月一日 ……

1907년 10월 15일, 서임 및 사령, 1면1단, 기사

…… △ 공립강화보통학교 부교원 판임관 10급 정덕환(鄭惠煥) …… 공립부평보통학교 부교원 판임관 10급 김영락(金永樂) …… 이상 10월 1일로부터.

1907년 10월 15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富平栗島 金應宇 一圓 金伯五 六十錢 金達成 金致順 金

德山 各三十錢 金致弘 二拾錢 金元日 十五錢 金士先 金景元  
 金景集 金昌根 金景三 各 十錢 羅化先 二十錢 羅學俊 張聖宇  
 李台辰 各十錢 合 新貨 三圓八十五錢 富平西面佳峴里 嚴柱冕  
 嚴翼舜 各四十錢 李舜儀 二十錢 合 新貨 一圓 ……

1907년 10월 15일, 국채보상금 납부자와 금액, 3면 1단, 광고  
 …… 부평 울도(栗島) 김응우 1환, 김백오 60전, 김달성 김치  
 순 김덕산 각 30전, 김치홍 20전, 김원일 15전, 김사선 김경  
 원 김경집 김창근 김경삼 각 10전, 나화선 20전, 나학준 장성  
 우 이태진 각 10전 합 신화폐 3환85전, 부평 서면(西面) 가  
 현리(佳峴里) 엄주면 엄익순 각 40전, 이순의 20전 합 신화  
 폐 1환 ……

#### 1907년 10월 16일, 宮內府布達, 2면 2단, 기사

陰九月初七日에 大皇帝陛下에서 仁川港에 幸行하옵시는 旨意  
 를 奉承頒布하얏는디 …… 同十一時五十分에 南門停車場에 到  
 하샤 下午一時에 仁川停車場에 臨御하샤 日本國皇太子를 會  
 見하신 後同三時三十分에 還御하옵시고 皇太子殿下에서옵서  
 仁川港에 行啓하옵시는 旨意를 奉承頒布하얏는디 出御時刻은  
 上午十一時三十五분에 大漢門으로 出御하샤 同十一時五十分  
 에 停車場에 到하샤 下午一時에 仁川港停車場에 臨御하샤 日  
 本國皇太子를 會見하옵시고 泥岬日本皇太子御旅館에 伴往하  
 옘섯다가 同四時三十分에 還御하옵신다더라.

#### 1907년 10월 16일, 궁내부 소식, 2면 2단, 기사

음력 9월 초7일에 대황제폐하께서 인천항에 행차하신다는데  
 …… 11시 50분에 남대문정거장에 도착하여 오후 1시에 인천

정거장에 도착해 일본국 황태자를 회견하신 뒤, 3시 5분에 궁으로 돌아가셨고, 황태자 전하께서 인천항에 행차하신다고 하셨는데, ..... 11시 50분에 정차장에 도착하시어 오후 1시에 인천항 정차장에 도착하시어 일본국 황태자를 회견하시고, 이현(泥峴) 일본황태자 여관에 동반하여 가셨다가 4시 30분에 궁으로 돌아가셨다.

### 1907년 10월 16일, 畿參報告, 2면 5단, 기사

京畿道參書官 金漢陸氏가 內部訓令을 承準하여 管下各郡分派所巡檢被害한 姓名及月日을 調查報告하였는디 竹山郡分派所巡檢 庾漢辰은 九月十七日에 匪徒偵探次로 舊下里에 到達하였다가 匪徒에게 被害하고 同分派所巡檢 朴文元은 九月十六日에 該所近處에서 巡回타가 亦爲被害하였고 本道警務署巡檢 洪秉善은 八月三十一日에 陽智郡 等地에 出張하였는디 于今 兩個月에 杳無消息인디 傳說을 據한 則 竹山 等地에서 匪徒에게 被捉하여 生理地中이라 하나 姑末의知하여 現方 調探中이라 하였스며 呂州郡分署巡檢 權重善 李應漢及補助員 一人이 原州 等地로 同爲出張타가 匪徒에게 遇害하였고 巡檢 二名은 去處不明이라 하였스며 砥平郡分署巡檢 宋玉辰은 八月十九日에 匪徒에게 所逐되야 去處不明하여 現今 調探中이라 하였고 同分派所巡檢 李奎斗는 匪徒에게 被打折脚이라 하였고 江華郡分派所巡檢 金顯一은 匪徒에게 中丸致傷하여 治療 免死하였다더라.

### 1907년 10월 16일, 경기도 참서관의 보고, 2면 5단, 기사

경기도 참서관 김한묵(金漢陸)이 내부 훈령에 따라 관하 각 군 분파소 순검 피해자 이름과 날자를 조사 보고하였는데

…… 강화군 분과소 순검 김현일(金顯一)은 비도(匪徒)에게 총을 맞고 치료 중이라고 한다.

**1907년 10월 16일,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 富平郡東所井面大井里 韓章浩 一圓 梁璿洙 朴明瑞 各五十錢 具在喜 二十錢 金永化 四十錢 李根貞 二十錢 趙永信 一圓 蘇永實 朴秉德 朴允植 朴英根 各五十錢 徐德化 二十錢 元世仁 十錢 李公直 六十錢 李明玉 李聖天 各三十錢 秋成文 二十錢 合 新貨 七圓五十錢 …… [未完]

**1907년 10월 16일, 국채보상금 납부자와 금액, 3면 1단, 광고**  
…… 부평군 동소정면 대정리(大井里) 한창호 1환, 양준수 박명서 각 50전, 구재희 20전, 김영화 40전, 이정근 20전, 조영신 1환, 소영실 박병덕 박윤서 박영근 각 50전, 서덕화 20전, 원세인 10전, 이공직 60전, 이명옥 이성천 각 30전, 추성문 20전 합계 신화폐 7환 50전 …… [미완]

**1907년 10월 17일, 宮廷錄事, 1면 1단, 기사**

관보 宮內府達第二十七號 本月十六日예 大皇帝陛下계옵서 仁川港에 幸行하옵시느 旨를 奉承하온 바 出宮時刻과 御路는 如左함이라 上午十一時三十分에 大漢門으로 出御하사 宍谷大平洞 崇禮門 里門洞前路로 十一時五十分에 南大門停車場에 到하사 同十二時에 玉車を 乘하옵시고 下午十一時에 仁川港停車場에 臨御하사 日本國皇太子를 會見하옵시고 同二時에 動駕하사 同三時三十分에 還御하심이라 隆熙元年十月十五日 宮內府達第二十八號 本月十六日예 皇太子殿下계옵서 仁川港

에 行啓호옵시는 旨를 奉承호은 바 出御時刻과 道路는 如左  
 함이라 上午十一時三十五分에 大漢門으로 出御호사 暘谷 大  
 平洞 崇禮門 里門洞前路로 同十一時五十五分에 南大門停車場에  
 到호사 同十二時에 玉車를 乘호옵시고 下午十一時에 仁川港  
 停車場에 臨御호사 日本國皇太子를 會見호옵시고 同二時에  
 動輿호사 同三時十分에 南大門停車場에 到호사 里門洞前路  
 崇禮門 水閣橋 長洞 泥岬으로 日本國皇太子御旅館에 伴往호  
 옵시고 四時에 動輿호사 泥岬 長洞 圓丘牆前路 大漢門으로  
 同四時三十分에 還御호심이라. ....

### 1907년 10월 17일, 궁내부 소식, 1면 1단, 기사

관보 궁내부 도착 제27호 본월 16일에 대황제폐하께서 인  
 천항에 행행할 뜻을 알려온 바 출궁시각과 일정은 다음과  
 같음이라. 상오 11시 30분에 대한문으로 출어하여 양곡 대  
 평동 승례문 이문동 앞길로 11시 50분에 남대문 정거장에  
 도착해 12시에 기차를 타고 오후 1시에 인천항 정거장에  
 도착하여 일본국황태자를 회견하시고 2시에 이동해 3시 30  
 분에 귀궁하심이라. 융희 원년 11월 15일. 궁내부달 제28  
 호 본월 16일에 황태자 전하께서 인천항에 행계할 뜻을 알  
 려온 바 출발시각은 다음과 같다. 오전 11시 35분에 대한  
 문으로 가서 상오 11시 35분에 대한문으로 출어하셔서 양  
 곡 대평동 승례문 이문동 앞길로 11시 55분에 남대문 정거  
 장에 도착하여 12시에 기차를 타고 오후 1시에 인천항 정  
 거장에 도착하여 일본 황태자를 회견하고 2시에 이동하여  
 3시 10분에 남대문 정거장에 도착하여 이문동 앞길 승례문  
 순각교 장동 이현으로 일본국 황태자가 머무는 여관에 따라  
 가셨다가 4시에 이동하여 이현 장동 환구장 앞길 대한문으

로 4시 30분에 귀궁하실 예정입니다. ....

1907년 10월 17일, 大皇帝陛下仁川幸行儀節, 2면 1단, 기사  
昨日에 大皇帝陛下의셔와 皇太子殿下의셔 仁川港에 幸行하시  
日本皇太子殿下를 迎接하옵시는데 各官私立學徒들은 前期하  
야 大漢門前에서 南門外停車場까지 大路左右에 排立하얏고  
韓日警吏는 各屏門에 把守하야 人民의 誼誼를 戒嚴하더라 上  
午十一時三十分鍾에 大皇帝陛下의셔와 皇太子殿下의셔 動駕  
하시 大漢門으로 出御하옵시는데 警視副監 具然壽氏及各大臣  
은 先詣前導하얏고 宮內府大臣 李允用氏는 馬車를 乘하고 前  
導하얏고 侍從卿 閔丙奭氏는 大皇帝陛下玉駕에 驂乘陪坐하얏  
고 陪從武官長 趙東潤氏는 皇太子殿下寶駕에 驂乘陪坐하얏고  
日本騎兵과 警察官吏는 玉駕前後에 侍衛하얏고 總理大臣 李  
完用氏와 海豐府院君 尹澤榮氏는 馬車를 同乘하고 陪從하얏  
고 永宣君 李竣鎔氏及各高等官은 追後陪從하얏고 各國 領事  
들은 南門外停車場에서 祇送하얏더라 兩位大駕가 大漢門前으  
로 南門通新作路로 停車場에 到하시 宮中特別列車를 御乘하  
옵시고 仁川港으로 出御하옵시는데 處處 停車場에서 威儀節  
次를 盛備하고 奉迎하는 誠意를 表呈하얏더라 下午一時에 仁  
川停車場에 出御하시 同下午二時에 日本皇太子로 敍禮하옵신  
後에 休憩室에 御入하섯다가 大皇帝陛下의셔는 先爲動駕還宮  
하섯고 皇太子殿下의셔는 日本皇太子殿下와 休憩室에 同入하  
시 暫時休憩하신 後에 御馬車를 同乘하시고 日本皇太子旅館  
에 伴往하시 敍禮하신 後에 動輿還宮하섯더라.

1907년 10월 17일, 대황제폐하 인천행 절차, 2면 1단, 기사  
어제 대황제 폐하와 황태자 전하가 인천항에 행차해 일본 황

태자 전하를 영접하는데 각 관사립학생들은 예전처럼 대한문 앞에서 남대문 밖 정거장까지 좌우에 도열하였고 한일 경찰은 각문을 지키며 인만의 소란을 경계하더라. 오전 11시 30분경 대황제 폐하와 황태자 전하께서 이동하여 대한문으로 나아갔는데 경시부감 구연수 및 각 대신은 뒤를 따랐고 궁내부대신 이윤용은 마차를 타고 전도하였고 시종경 민병석은 대황제폐하 가마에 같이 앉았고 부종무관장 조동윤은 황태자 전하 가마에 탑승했고 일본군 기병과 경찰관리는 어가 전후에서 시위하였고 총리대신 이완용과 해풍부원군 윤택영은 마차를 동승하고 따랐고 영선군 이준용과 고등관은 뒤에서 따랐고 각국 여사들은 남대문 밖 정거장에서 환송하였다. 어가가 대한문 앞으로 남대문통 신작로로 정거장에 도착하여 궁중 특별열차를 타고 인천항으로 행차였는데 정거장 곳곳에 행사준비로 성황이었고 오후 1시에 인천정차장으로 오시어 오후 2시에 일본 황태자와 인사한 후에 휴게실에 들어가셨다가 대황제 폐하께서는 먼저 환궁하셨고 황태자 전하는 일본 황태자 전하와 휴게실에 같이 잠시 휴식 후 마차를 타고 일본 황태자가 머무는 여관에 가서 인사 후 환궁하셨다고 한다.

### 1907년 10월 17일, 韓日兩國의 交誼親密, 2면 1단, 사설

논설 我韓과 日本은 一衣帶水를 隔호야 從來로 關係가 密接호지라 新羅와 百濟와 日本의 史를 溯考호건되 新羅의 王太子와 百濟의 王太子가 日本에 游歷호 舊蹟이 頗有호지라 日本皇太子殿下의서 我韓에 游歷함이 我大皇帝陛下의서와 皇太子殿下의서 特別欸接호실 次로 仁川港까지 動駕호옵시고 一般 商民及妓樂 等도 奉迎의 節次를 舉行호니 此는 實로 無前 邇有호 盛禮라 兩國의 人士덜니 觀瞻聳動호도다. ....



**1907년 10월 17일, 한일 양국의 친밀감, 2면 1단, 사설**

우리 한국과 일본은 좁은 해협으로 떨어져있으나 종래 관계가 밀접한지라 신라와 백제와 일본 역사를 보면 신라의 왕태자와 백제의 황태자가 일본에 재류한 유적이 꽤 있는지라 ..... 일본 황태자가 이번에 오기에 우리 황태자 전하가 특별 영접을 위해 인천항까지 행차하시고 일반 상민 및 기악 등도 환영 절차를 거행하니 이는 실로 전무후무한 영접이라 양국 인사들이 환영하도다. ....

**1907년 10월 17일, 仁港歡迎, 2면 3단, 기사**

日本皇太子殿下渡韓時 奉迎하기 爲야 京畿觀察使 李圭桓氏가 仁川港에 前往야 該港實業紳士 數十名을 會集야 說明되 今番에 日本皇太子殿下께서 渡韓심은 我韓以來로 初有한 事이니 諸公덜도 幾圓式 募集야 歡迎節次를 舉行하라 한 즉 該紳士中에서 卽地에 九百圓을 募集하고 其後에 數千圓을 募集야 歡迎節次를 盛設하얏다더라.

**1907년 10월 17일, 인천항에서 환영, 2면 3단, 기사**

일본황태자가 도한할 때 환영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찰사 이규환(李圭桓氏)이 인천항에서 가서 인천항 실업 신사 수십명을 모아 설명하길 금번 일본 황태자가 도한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니 여러분도 얼마씩 내서 환영절차를 거행하라하니 이 신사들 중에서 바로 900환을 모은 후 그 후에도 수 천 환을 모아 환영절차를 성대하게 치렀다 한다.

**1907년 10월 17일, 陽川報告, 2면 5단, 기사**

各道各郡에 義徒가 猖獗함으로 陽川郡에 在한 軍物을 仁川에

駐筭 日本守備隊에서 輸去 餉料이라고 陽川郡守가 内部에 報告하였더라.

**1907년 10월 17일, 양천군의 보고, 2면 5단, 기사**

각도 각군에 의도(義徒)가 창궐하니 양천군에 있던 군수물자를 인천 주둔 일본군수비대가 수거하였다고 양천군수가 내부에 보고하였다.

**1907년 10월 18일, 特贈救恤, 2면 3단, 기사**

内部에서 度支部에 照會되 江華前郡守 鄭璟洙, 砥平前郡守 金泰植, 陽城前郡守 趙漢哲, 華川郡主事 沈宜道 等에게 特贈 敍勳救恤에 關한 請議案件을 繕交하니 聯署以送하리라 하였더라.

**1907년 10월 18일, 특별 구휼, 2면 3단, 기사**

내부에서 탁지부로 조회하길 강화 전 군수 정경수(鄭璟洙) 등에게 특증서훈구휼에 관한 안건을 보내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7년 10월 19일, 檢疫部調査, 2면 4단, 기사**

警視廳檢疫部에서 本月十五日까지 虎列刺現患人數를 調査하여 内部에 報告하되 京城에는 日本人이 七人이고 仁川에도 日本人이 一이고 釜山에는 本國人이 六이고 日本人이 九고 平壤에는 本國人이 拾五고 日本人이 四라 하였더라.

**1907년 10월 19일, 전염병 환자 조사, 2면 4단, 기사**

경시청 검역부에서 이번 달 15일까지 콜레라(虎列刺) 환자수를 조사하여 내부로 보고하길 경성에는 일본인 7명, 인천에도

일본인 1명, 부산에 한국인 6명 일본인 9명, 평양에는 한국인 15명 일본인 4명이라 하였다.

**1907년 10월 20일, 餞別仁港, 2면 2단, 기사**

本皇太子殿下御下前報와 如히 本日上午拾時二拾分에 歸國次로 仁川港으로 出御하시는데 皇太子殿下御下 餞別하시실 次로 仁川港까지 出駕하시고 各部大臣이 陪從하사다더라.

**1907년 10월 20일, 인천항에 영접, 2면 2단, 기사**

일본 황태자 전하가 전날 보도처럼 오늘 오전 12시 20분에 귀국하려고 인천항에 도착 .....

**1907년 10월 20일, 行啓路程, 2면 3단, 기사**

日本皇太子殿下御下 本月二十日正午에 仁川에 發行하시야 二十二日午前六時에 鎭海灣外加性水道附近에 到着하시고 午前七時에 鎭海灣內를 巡航하시다가

**1907년 10월 20일, 귀국 일정, 2면 3단, 기사**

일본 황태자 전하가 이번 달 20일 정오에 인천에 출발해 22일 오전 6시에 진해만 ..... 오전7시에 진해만을 순행하시고 .....

**1907년 10월 22일, 餞送日儲, 1면 4단, 기사**

本月二十日에 東宮殿下御下을 日本皇太子殿下를 餞別하기 爲하시야 仁川港까지 出駕하신다 ㅎ은 前報에 已揭하얏거니와 總理大臣以下各部大臣이 東宮殿下를 陪從하얏다가 同日下午二時三十分에 詣闕陛見하얏다더라.

**1907년 10월 22일, 송별 수행원, 1면 4단, 기사**

이번 달 20일에 동궁전하(東宮殿下)가 일본 황태자 전하를 송별하기 위해 인천항까지 행차하신다는 것은 이미 보도한 바로 .....

**1907년 10월 22일, 仁吏犯逋, 2면 3단, 기사**

仁川府吏 趙義煥의 公錢犯逋가 一千三百餘圓인디 該氏를 捉致督捧히가고 度支部에서 該府에 訓令한다더라.

**1907년 10월 22일, 인천관리 범죄, 2면 3단, 기사**

인천부 관리 조희완(趙義煥)의 공전(公錢) 포탈이 1,300 여 환 인데 조희완에게 배상 독촉하라고 탁지부에서 인천부로 훈령 하였다고 한다.

**1907년 10월 22일, 日儲賜金, 2면 4단, 기사**

日本皇太子殿下와 有栖川親王이 日本人居留氏에게 下賜金이 如左히니 韓日衛生費 三萬元, 民團衛生費 五千元, 漢城病院 千五百元, 赤十字社韓國支部 千元, 愛國婦人會韓國支部 千元, 仁川民團衛生費 千元, 仁川病院 千五百元, 在韓日人教育獎勵費 一萬元, 京仁小學校 三百元式 京仁病院 五百元式, 京仁衛生費 六百元式, 釜山公共事業費 四千元, 平壤 元山公共事業費 千五百元式, 龍山 群山 馬山 木浦 大邱 甌南浦公共事業費 千元式이라더라.

**1907년 10월 22일, 일본황태자 하사금, 2면 4단, 기사**

일본 황태자 전하와 유서친친왕(有栖川親王)이 일본인 거류민에게 하사금을 주니 한일위생비 3만원, 민단위생비 9천원, 한성병원 1,500원, 적십자사한국지부 1천원, 애국부인회한국

지부 1천원, 인천민단위생비 1,000원, 인천병원 1,500원, 재한일인교육장려비 1만원, 경인소학교 각 3백원, 경인병원 각 500원, 경인위생비 각 6,000원, 부산 공공사업비 4,000원, 평양 원산공공사업비 각 1,500원, 용산 군산 마산 목포 대구 진남포 공공사업비 각 1,000원이라고 한다.

#### 1907년 10월 22일, 奪砲縛師, 2면 5단, 기사

本月十一日에 義徒 二拾餘名이 自安養으로 安山革山面諭谷里에 來到하야 該里에 在호 洋銃 三柄과 六穴砲 一柄을 奪取하고 私立日語學校教師 森下四方治氏의 夫妻를 結縛하야 砲殺한다 聲言하고 該洞民 三人은 指途하라고 率去하고 仁川桃里峴으로 向하얏다더라.

#### 1907년 10월 22일, 의병 출현, 2면 5단, 기사

이번 달 11일 의도(義徒) 20여 명이 안양에서 안산 초산면 논곡리(諭谷里)에 들어와 논곡리에 있던 양총 3정과 권총 1정을 탈취하고 사립일어학교 교사 삼하사방치(森下四方治)의 처를 결박하고 쏘 죽였다는 소문이 있고 ..... 인천 도리현(桃里峴)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 1907년 10월 23일, 宮廷錄事, 1면 1단, 기사

宮內府達第三十號 本月二十日에 大皇帝陛下게옵서 南大門停車場에 幸行하옵시는 旨를 奉承하온 바 出宮時刻과 御路는 如左함이라 上午九時二十分에 大漢門으로 出御하사 暘谷 大平洞 崇禮門 里門洞前路로 同時四十分에 南大門停車場에 臨御하사 日本國皇太子殿下를 御餞別하옵시고 同時五十分에 動駕하사 同十時二十分에 還御하심이라 隆熙元年十月十九日 宮

內府達第三十五號 本月二十日 皇太子殿下下계옵서 仁川港에  
行啓하시느 旨를 奉承하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는 如左함이라  
上午九時二十分에 大漢門으로 出御하사 暘谷 大平洞 崇禮門  
里門洞前路同時四十分에 南大門停車場에 到하사 同時五十分  
에 玉車를 乘하옵시고 同十一時에 仁川港停車場에 到하사 香  
取艦에 上御하사 日本國皇太子殿下를 御餞別하옵시고 同十二  
時三十分에 動輿하사 下午一時四十分에 南大門停車場에 到하  
사 同二時에 惇德殿에 入御하심이라. ....

### 1907년 10월 23일, 왕궁 소식, 1면 1단, 기사

관보 궁내부 제30호, 이번 달 20일에 대황제 폐하께서 남대  
문 정거장에 나가실 뜻을 알려온 바 출궁시간과 행로는 다음  
과 같다. 오전 9시 20분에 대한문으로 나아가 양곡 대평동  
송례문 이문동 앞길로 9시 40분에 남대문 정거장에 도착하여  
일본황태자 전하를 전별하고 9시 50분에 이동하여 10시 20  
분에 환궁하심이라. 융희 원년 10월 19일 궁내부달 제35호  
이번 달 20일에 황태자전하께서 인천항에 나가실 뜻을 알려  
온 바 출궁시간과 행로는 다음과 같다. 오전 9시 20분에 대  
한문으로 나아가 양곡 대평동 송례문 이문동 앞길로 9시 40  
분에 남대문정거장에 도착하여 9시 50분에 기차를 타고 11시  
에 인천항정거장에 도착해 향취함에 올라 일본국 황태자 전  
하와 전별하고 12시 30분에 이동하여 오후 1시 40분에 남대  
문 정거장에 도착하여 2시에 순덕전 들어가심이라. ....

### 1907년 10월 23일, 各官人敍勳, 2면 4단, 기사

日本政府에서 韓國官吏에게 敍勳함이 如左하니 內閣書記官長  
韓昌洙는 勳二等瑞寶章이오 警視副監 具然壽 漢城府尹 張憲

植은 勳二等瑞寶章이오 表勳院技師 金禹植은 勳四等旭日小綬章이오 仁川府尹 金潤晶은 勳四等瑞寶章이오 表勳院書記官 金滢模 同技師 吳悌泳은 勳五等旭日雙光章이오 同技師 辛純默은 勳五等瑞寶章이오 同主事 金寧圭 林學洙는 勳六等瑞寶章이라더라.

1907년 10월 23일, 관리에게 서훈, 2면 4단, 기사  
일본정부에서 한국관리에게 다음과 같이 서훈함. 내각서기관장 한창수는 훈2등서보장, 경시부감 구연수 한성부윤 장헌식은 훈2등서보장이오 표훈원기사 김우식은 훈4등육일소수장, 인천부윤 김윤정 훈4등서보장, 표훈원서기관 김형모 기사 오제영 훈5등육일쌍광장, 기사 신순목 훈5등서보장, 주사 김영규 임학수 훈6등서보장이라더라.

1907년 10월 25일, 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廣告 皇城新聞 新進部 金寬洙氏 江華郡

1907년 10월 25일, 황성신문 신진부, 4면1단, 광고,  
황성신문 신진부 김관수(金寬洙) 강화군

1907년 10월 26일, 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 △免本官 公立富平普通學校副敎員 李光來 右는 該員이 視務未幾에 稱病請願하야 曠廢敎育함은 敎務에 從事할 義務를 違背이기 是以免本官 △解兼任公立寧邊普通學校長 前敎員 李道載 △公立晉州普通學校敎員 李濬鎬 兼任公立晉州普通學校長 △任公立黃州普通學校副敎員敍判任官十級 白鳳源 △任公立春川普通學校副敎員敍判任官十級 庾元圭 以上十月二十三日.

1907년 10월 26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 △면관 공립부평보통학교 부교원 이광래(李光來). 이 사람은 업무 개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병으로 교육을 폐하니 이는 교무에 종사할 의무를 위배하였기에 이에 면관함 △겸임 해제 공립영변보통학교장 전 교원 이도재 △공립진주보통학교 교원 이준호 겸임공립진주보통학교장 △임공립황주보통학교 부교원 서 판임관 10급 백봉원 △임공립춘천보통학교 부교원 서 판임관 10급 유원규 이상 10월 23일.

1907년 10월 27일, 官私立學校秋季聯合運動會景況, 2면 3단, 기사

昨日은 豫期와 如히 官私立學校秋季聯合大運動會를 訓練院에 開호았는디 是日에도 天氣晴朗하고 日光이 溫暖하야 謁謁하고 氣가 大韓江山에 文明運을 挽回하느 듯하더라 各學校任員及敎師들은 學徒를 領率하고 前期하야 運動場의 左右區域에 排立호았는디 其次序는 官立修學院 師範學校, 英語學校, 日語學校, 高等學校, 大韓醫院, 法語學校, 德語學校, 漢語學校, 齋洞普通學校, 工業傳習所, 仁峴普通學校, 於義洞普通學校, 官東普通學校, 京橋普通學校, 梅洞普通學校, 貞洞普通學校, 水下洞普通學校, 中東普通學校, 仁川普通學校오 私立에는 仁明義塾, 開城學校, 孤兒院, 藥明學校, 仁川永化學校, 興英學校, 攻玉學校, 勝洞學校, 三湖學校, 彰明學校, 興仁學校, 光東學校 靑蓮學校, 均明學校 長薰學校, 東興學校, 三一學校, 普成專門學校, 牛山學校, 玄成學校, 仁昌學校, 旺新學校, 普成小學校, 光興學校, 冶洞學校, 臺洞學校, 桂山學校, 光武學校, 把成學校, 巡洞學校, 漢北學校, 靑年學校, 培材學堂, 敦明義塾, 漢南學校, 警察學校, 靑風學校, 進明學校, 養正義塾, 普成中學校, 徽文義塾,



普光學校, 海東義塾, 光成實業學校, 中橋義塾, 善隣商業學校, 興化學校, 女子普學院 仁川永化女學校, 進明女學校, 華城女學校, 尙洞女學校, 養閨義塾, 基督女學校리라 上午九時三十五分  
에 皇太子殿下에서 馬車를 御乘하옵시고 陪從武官長 趙東潤氏가 驂乘하고 大漢門으로 動駕하샤 運動場에 到達하시는데  
總理大臣以下各大臣은 前導 或 陪從하얏고 伊藤統監은 村田少將及國分書記官으로 馬車를 同驂入場하얏더라 運動會本部座次, 는 皇太子臨御所, 勅任席, 奏任席, 警衛所 衛生所參觀席 軍樂隊리라 皇太子殿下에서 場內로 御過하시는데 各學校學徒가 左右에 排立하야 敬禮의 式을 行하더라 卽時 運動式을 舉行하는데 第一은 全隊가 集合整列, 運動歌오 第二는 全隊行進이오 第三은 全隊聯合體操오 第四는 送旗競走니 (團體)修學院, 一回, 第五는 徒步競走니 (個人)上等學校, 三回, 第六은 徒步競走니 [個人]普通學校, 四回 第七은 投球競爭이니 (團體)第四隊, 連續 一回 第八은 旗取競走니 (個人)女學徒, 三回, 點心, 第十은 學校體操, 各校一隊리라 學部大臣 李載崑氏가 各學校校長을 招集하야 階下에 序立하고 皇太子殿下에서 臨御하옵섯는데 大皇帝陛下에서 勅使를 遣하사 勅語를 下하사 勅使로 하야곰 奉讀하니 勅語가 如左하더라 朕이 惟컨디 運動會는 少年子弟의 體育獎勵함을 爲함이니 精神을 愉快히 하고 協同一致의 德性을 涵養하는 良法이라 今日 訓練院에서 官公私立聯合運動會設行함을 聞하니 任員及學員 等은 公明正大한 行動을 作하야 만다시 其目的을 達함을 慎하라 乃茲侍臣을 遣하야 其實況을 視察케 하노라 朕이 侍臣의 復命을 待하야 良好한 成績을 聞코져 하노니 惟爾任員及學徒 等은 熱誠을 用하야 國民體育의 先導者가 될 模範을 全國에 示함을 期克히 其功을 完할지어다 하섯더라 各學校任員 等이 勅語를

奉聽호고 鞠躬拜禮호고 其惶感함을 不勝호더라 皇太子殿下에서 馬車를 御乘호옵사고 軍人俱樂部로 臨御호섯다가 官私立學徒排列호는 處所를 巡回觀覽호옵시디 各校學徒 等은 各其 國旗를 高揮호며 萬歲를 連唱호더라 更히 運動式을 繼行호는디 第十一은 騎馬旗取競走이니 (團體)第二隊 連續一回 第十二는 救護隊競爭走이니 (團體)第一隊, 一回, 第十三은 巡竿送旗競爭이니 (團體)女學徒, 一回, 第十四는 決選徒步競走 [個人]中等學校, 一回, 普通學校, 一回, 第十五 職員競走 第十六 來賓競走는 日力이 未及호야 未行호고 第十七은 全隊가 整列呼萬歲호고 第十八은 閉會호얏더라 皇太子殿下에서는 下午三時에 還駕호시는디 陪從武官長 趙東潤氏가 驂乘호얏고 伊藤統監도 亦同時에 鸞駕를 隨호야 還邸호더라.

### 1907년 10월 27일, 관립 및 사립학교 추계 연합 운동회 모습, 2면 3단, 기사

어제(26일)은 관사립학교 가을 연합 대운동회가 훈련원(訓練院)에서 열렸는데 ..... 각 학교임원 및 교사들은 학생을 데리고 운동장 좌우구역에 섰는데 그 순서는 관립수학원 사범학교(官立修學院 師範學校), 영어학교(英語學校), 일어학교(日語學校), 고등학교(高等學校), 대한의원(大韓醫院), 불어학교(法語學校), 독어학교(德語學校), 중국어학교(漢語學校), 재동보통학교(齋洞普通學校), 공업전습소(工業傳習所), 인현보통학교(仁峴普通學校), 어의동보통학교(於義洞普通學校), 관동보통학교(官東普通學校), 경교보통학교(京橋普通學校), 매동보통학교(梅洞普通學校), 정동보통학교(貞洞普通學校), 수하동보통학교(水下洞普通學校), 중동보통학교(中東普通學校), 인천보통학교(仁川普通學校)이고, 사립에는 인명의숙(仁明義塾), 개성학교(開城學校), 고아원(孤兒院), 약

명학교(藥明學校), 인천영화학교(仁川永化學校) 흥영학교, 공옥학교, 승동학교, 삼호학교, 창명학교, 흥인학교, 광동학교 청련학교, 군명학교 장훈학교, 동흥학교, 삼일학교, 보성전문학교, 우산학교, 현성학교, 인창학교, 왕신학교, 보성소학교, 광흥학교, 야동학교, 대동학교, 계산학교, 광무학교, 파성학교, 순동학교, 한북학교, 청년학교, 배재학당, 돈명의숙, 한남학교, 경찰학교, 청풍학교, 진명학교, 양정의숙, 보성중학교, 휘문의숙, 보광학교, 해동의숙, 광성실업학교, 중교의숙, 선린상업학교, 홍화학교, 여자보학원 인천영화여학교, 진명여학교, 화성여학교, 상동여학교, 양규의숙, 기독여학교이다. 오전 9시 35분에 황태자전하가 마차를 타고 시종무관장 조동윤이 보좌하여 대한문으로 이동하여 운동장에 도달하였는데 총리대신 이하 각 대신은 앞뒤로 모시었고 이토통감은 춘전소장과 국문서기관과 함께 입장하였다. 운동회 본부 좌석은 황태자좌석, 칙임석, 주임석, 경위소, 위생소참관석, 군악대이다 황태자전하께서 장내로 지나가시니 각 학교학생이 좌우에 서서 경례식을 행하였다. 즉시 운동식을 거행했는데 먼저 전 학교 집합정례, 운동가이고 두 번째는 전 학교 행진이고 세 번째는 전 학교 연합체조, 네 번째는 송기 경주 (단체) 수학원 제1회, 다섯 번째는 도보경주 (개인) 상등학교 제3회, 여섯 번째는 도보경주니 (개인) 보통학교 4회, 일곱 번째는 투구경쟁 (단체) 제4대 연속 1회, 여덟번째는 기취경주니 (개인) 여학교 3회, 점심, 열 번째는 학교체조, 각 학교 일대이다. 학부대신 이재곤이 각 학교교장을 모아 계단 아래에 세우고 황태자전하께서 임하셨는데 대황제폐하께서 칙사를 보내 칙어를 내리니 칙사에게 봉독케 하니 칙어가 다음과 같다. ‘짐이 생각하기에 운동회는 소년자제의 체조장려를 위함이고 정신을 유쾌히 하고 협동일치의 덕성을 함양하는 좋은 방법이라. 오늘 훈련원에서 관공사립 연합운동회

를 연다고 들으니 임원 및 학원 등은 공명정대한 행동으로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함을 믿는다. 이에 대신을 파견하여 그 실황을 시찰케 함이라. 짐이 대신의 복명을 기대하여 양호한 성적을 듣고자 하니 이에 임원과 학생 등은 열성으로 국민체육의 선도가 될 모범을 전국에 보임을 진실로 임무를 완수하라' 하셨다 한다. 각 학교임원 등이 칙어를 듣고 존경으로 배례하고 그 황궁함을 이기지 못하더라. 황태자전하께서 마차를 타고 군인구악대로 가셨다가 관사립학생 배열한 곳을 순회 관람하였는데 각 학생들을 각기 국기를 높이 들고 만세를 외쳤다. 다시 운동식을 속행하였는데 열한번째는 기마 기취경주(단체) 제2대 연속 1회, 열두번째는 구호대 경쟁주(단체) 제1대 1회, 열세번째는 순간 송기경쟁(단체) 여학생 1회, 열네번째는 결선도주경주(개인) 중등학교 1회, 보통학교 1회, 열 다섯 번째 직원경주, 열 여섯 번째 래빈경주는 시간 상 취소하고, 열 일곱 번째는 전 학교가 정렬하여 만세를 부르고, 열 여덟 번째는 폐회하였더라. 황태자전하께서는 오후 3시에 환궁하였는데 시중무관장 조동윤이 모시었고 이토통감도 역시 같은 시간에 관저로 돌아갔다.

**1907년 10월 29일, 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廣告 皇城新聞 新進部 安璿植氏 江華郡

**1907년 10월 29일, 황성신문 신진부, 4면 1단, 광고**  
 광고 황성신문 신진부 안준식(安璿植) 강화군

**1907년 10월 30일, 三處許鑛, 1면 3단, 기사**  
 本月二十五日 江華郡甫靑島所在鐵鐸 二拾四萬九千拾五坪은 龍山居 金井善藏 外一名에게 …… 許可호았더라.

**1907년 10월 30일, 광산 허가, 1면 3단, 기사**

이번 달 25일에 강화군 보청도(甫靑島) 소재 철탁(鐵鐸) 249,015평은 용산거주 금정선장(金井善藏) 외 1명에게 ..... 허가하였다고 한다.

**1907년 10월 30일, 慶會盛宴, 2면 5단, 기사**

昨日北闕慶會樓에서 桂太郎氏의 餞別宴을 開호았는디 內賓에  
는 總理大臣以下 各府部院廳勅奏任官及一般 社會諸員이오 外  
國賓에는 伊藤統監及各國 領事와 一般 紳商이 同夫人赴來호  
았는디 迎接委員은 尹致昨 魚允迪 崔相敦 等 諸氏오 夫人迎  
接委員은 仁川府尹 金潤晶氏令嬢이라 下午三時量에 宴席에  
齊就호야 桂太郎氏가 韓日兩國의 關係가 漸次平和됨을 說明  
호고 茶果를 畢호았는디 餘興은 本國妓生の 劔南舞로 破會호  
았더라.

**1907년 10월 30일, 경회루에서 연회, 2면 5단, 기사**

어제(29일) 북궐(北闕) 경회루에서 계태랑(桂太郎)의 전별연  
을 열고 내빈으로 총리대신 이하 각부 부원청칙 주임관 및  
일반 사회 임원이고, 외국빈에는 이등통감(伊藤統監) 및 각  
국 영사와 일반 신상(紳商)이 부부동반하였는데 영접위원은  
윤치오(尹致昨) 어윤적(魚允迪) 최상돈(崔相敦) 등이고 부인  
영접위원인 인천부윤 김윤정(金潤晶)의 딸이라 .....

**1907년 10월 31일, 報請增巡, 2면 5단, 기사**

江華郡에서 巡檢 十名을 增加호야 달나고 該郡守가 內部에  
報告호았더라.

1907년 10월 31일, 강화도 충순 증원 청원, 2면 5단, 기사  
강화군에서 충순 10명을 증가해 달라고 강화군수가 내부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 1907년 11월

### 1907년 11월 2일, 官廳事項, 1면 2단, 기사

內閣書記官長 韓昌洙는 曾由日本國<sup>하야</sup> 領受勳二等瑞寶章이며 表勳院技師 金禹植은 曾由日本國<sup>하야</sup> 領受勳四等旭日章이며 仁川府尹 金潤晶은 曾由日本國<sup>하야</sup> 領受勳四等瑞寶章이며 表勳院技師 吳悌泳과 陸軍參領 南基昌과 陸軍參領朴榮喆은 俱由日本國<sup>하야</sup> 領受勳五等旭日章이며 表勳院技師 辛純默과 陸軍正尉 鄭熙鳳은 俱由日本國<sup>하야</sup> 領受勳五等瑞寶章이며 表勳院主事 金寧圭와 林學洙는 俱由日本國<sup>하야</sup> 領受勳六等瑞寶章<sup>하얏기로</sup> 表勳院에서 經奏裁可<sup>후</sup> 後 佩用准許<sup>후</sup> 事.

### 1907년 11월 2일, 관청사항, 1면 2단, 기사

일본국에서 훈장을 수여하였다. 내각서기관장 한창수 훈2등서보장, 표훈원기사 김우식 훈4등육일장, 인천부윤 김윤정 훈4등서보장, 표훈원기사 오제영 육군참령 남기창 육군참령 박영철 훈5등육일장, 표훈원기사 신순묵 육군정위 정희봉 훈5등서보장, 표훈원주사 김영규 임학수 훈6등서보장, 표훈원에서 재가 후 패용을 준허함.

1907년 11월 2일, 家券及畚券逢賊廣告<sup>167)</sup>, 3면 5단, 광고

本銀行仁川舊支店擔保登記濟左開家券及畚券을 隆熙元年十月三十一日午前一時부터 同午前三時에 至할 間에 逢賊호읍고 卽速히 關係官廳으로 報明호얏기 玆에 廣告호오니 自今現發 호와도 無効홈 隆熙元年十一月一日 株式會社大韓天一銀行 左開 仁川港龍洞草家十六間 田士文家券及地券 各一張 全內洞草家廿六間 安鶴洙家券及地券 二張 一張 全龍洞草家十九間 金奎絢家券及地券 各一張 全龍洞峴瓦家十六間 金湘默家券及地券 各一張 全外洞草家十間 宋昌柱家券及地券 各一張 全全草家五間 全人家券及地券 各一張 全全草家七間半 金仁奉家券及地券 各一張 全龍洞草家五間半 全人家券及地券 各一張 全新井洞草家十間 全人家券 一張 全龍洞草家七間 全人家券及地券 各一張 全內洞草家十三間 池亨河家券及地券 各一張 全龍洞草家十四間 洪大有家券及地券 各一張 全全草家十一間 金文復家券及地券 各一張 全平洞草家八間 金儀瑞家券及地券 各一張 全龍洞草家十二間洋屋五間半 朴大呂家券及地券 各一張 全外洞草家十間 朴崙圭家券及地券 各一張 始興下北面中宗里草家廿九間 全人家券及地券 各一張 白川所在畚五石十三斗落田二日半耕 李平汝舊文記 四張 仁川港龍洞草家九間半 鄭海潤家券新文記 一張

1907년 11월 2일, 집문서 및 토지문서 분실 광고, 3면 5단, 광고

천일은행 인천 구지점에서 발행한 담보등기 집문서 및 땅문서를 1907년 10월 3일 오전 11부서 오전 3시 경에 도둑을 만나

---

167) 이 광고는 다음 날(3일)에도 실렸다

즉시 관계 관현에 보고하였기에 이에 광고하니 이제부터 무효 처리합니다. 1907년 11월 1일 주식회사 대한천일은행 인천항 용동 초가 16칸 발문서 및 지권 각 1장, 내동 초가 26칸 안학수(安鶴洙) 집문서 및 지권 2장 1장, 용동초가 19칸 김규순(金奎綯) 가권 및 지권 각 1장, 용동(龍洞) 고개 기와집 16칸 김상묵(金湘默) 가권 및 지권 각 1장, 외동 초가 10칸 안창주(宋昌柱) 가권 지권 각 1장, 외동 초가 5칸 안창주(宋昌柱) 가권 및 지권 각 1장, 외동 초가 7.5칸 김인봉(金仁奉) 가권 및 지권 각 1장, 용동 초가 5.5칸 김인봉(金仁奉) 가권 및 지권 각 1장, 신정동(新井洞) 초가 10칸, 김인봉(金仁奉) 가권 1장, 용동 초가 7칸 김인봉(金仁奉) 가권 및 지권 각 1장, 내동 초가 13칸, 지형하(池亨河) 가권 및 지권 각 1장, 용동 초가 14칸 홍대유(洪大有) 가권 및 지권 각 1장, 용동 초가 11칸 김문복(金文復) 가권 및 지권 각 1장, 평동(平洞) 초가 8칸 김의서(金儀瑞) 가권 및 지권 각 1장, 용동 초가 12칸 양옥 5.5칸 박대여(朴大呂) 가권 및 지권 각 1장, 외동 초가 10칸 박윤규(朴崙圭) 가권 및 지권 각 1장, 시흥 하북면 중종리(中宗里) 초가 29칸 박윤규(朴崙圭) 가권 및 지권 각 1장, 백천(白川) 소재 논 5석 13두락 2일반경(耕) 이평여(李平汝) 문기 4장, 인천항 용동 초가 9.5칸 정해윤(鄭海潤) 가권 새 문서 1장

### 1907년 11월 3일, 伊츠利建國三傑傳, 4면 2단, 광고<sup>168)</sup>

一冊 正價金 三十錢 此書는 距今數十年前에 伊太利愛國者 瑪志尼, 加里波的, 加富爾 三傑이 奄奄垂亡한 國勢를 挽回하여 歐洲列強間에 鼎峙한 事實을 國漢文으로 譯出하였는디 其艱難危險의

<sup>168)</sup> 이 광고는 12월 29일까지 연재되었다.



經歷과 嘔心瀝血의 景況이 讀者의 表情을 感發할 만하오며 其百折不屈의 意氣와 其九死靡變의 熱誠이 讀者의 愛國心を 激起할 만하오니 有志君子는 不可不 座右에 置하고 常目に 掛할 冊子오니 續續 來購하시옵 皇城布屏下 廣學書舖 尙洞 博文書館 仁川杻峴 開新冊肆 平壤鐘路 耶蘇敎冊肆 義州南門外 廣學書館.

### 1907년 11월 3일, 이태리 건국 영웅전, 4면 2단, 광고

1책 정가 30전, 이 책은 지금부터 수십년 전 이태리 애국자 마치니(瑪志尼), 가리발디(加里波的), 카보우르(加富爾) 3 영웅이 암담한 국세를 만회하여 구미 열강 사이에 우뚝 서는 사실을 국한문으로 번역 출간하였는데 그 어려운 위험한 경력과 심혈을 기울인 경황이 독자에게 충정을 불러일으킬만 합니다. 그 불굴의 의기와 집념이 독자의 애국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군자와 유지들은 책장에 두고 항시 눈에 둘 만한 책이나 독자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서울 성벽 아래 광학서보(廣學書舖) 하병동 박문서관(博文書館) 인천 축연 개신책사(開新冊肆) 평양 종로 예수교 책사(耶蘇敎冊肆) 의주 남문 밖 광학서관(廣學書館).

### 1907년 11월 5일, 日儲施金, 2면 3단, 기사

日儲施金 日本皇太子殿下의 漢城及仁川港의 人民 年七十以上者에게 各一圓金을 頒給하섯는디 漢城內에는 都合이 二千九百四十一圓이오 仁川港에는 八十六圓인디 漢城府尹及仁川府尹이 各其 分給한다더라.

### 1907년 11월 5일, 일본황태자의 하사금, 2면 3단, 기사

일본 황태자 전하가 한성 및 인천항민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게 각 1환을 나눠주었는데 한성 내에는 2,941환이고, 인천항에는 86환인데 한성부윤 및 인천부윤이 각기 분배한다고 한다.

#### 1907년 11월 5일, 天日鹽良好, 2면 3단, 기사

萬朝報를 據흔 즉 韓國의 製鹽業은 日本內地鹽과 臺灣關東鹽等에 壓倒되야 萎靡不振하더니 曩者에 財政顧問部에서 仁川附近의 朱安地方에 略一町步의 鹽田을 設하코 天日製鹽을 試驗하얏더니 其結果가 良好하야 畧二百五十斤을 製造흔 故로 本年度에는 更히 九町步를 增加하야 經濟上 希望이 有하면 十分 獎勵하야 韓國製鹽의 面目을 一新케 할 計畫이라더라.

#### 1907년 11월 5일, 천일염 성적 양호, 2면 3단, 기사

만조보(萬朝報)에 따르면 한국의 제염업은 일본 내지염과 대만 관동염 등에 압도되어 미약하더니 저번 재정고문부에서 인천부근 주안지방에 1정보의 염전을 만들어 천일제염을 시험하였더니 그 결과가 양호하여 약 250근 제조하였기에 본 년도에는 다시 9정보를 증가해 경제상 희망이 있다면 충분히 장려해 한국 제염의 면목을 일신할 계획하라고 한다.

#### 1907년 11월 6일, 營舍認校, 2면 3단, 기사

軍部에서 江華郡에 在흔 前鎮衛隊營舍를 該郡普昌學校로 認可하얏다더라.

#### 1907년 11월 6일, 보창학교 건물인가, 2면3단, 기사

군부(軍部)에서 강화군의 前 진위대 건물을 강화군 보창학교로 인가하였다 한다.

**1907년 11월 6일, 製銃器免稅, 2면 4단, 기사**

軍部에서 度支部에 照會호되 小銃製造用, 刀具, 工具各一組及 挿彈子を 日本砲兵工廠에 業已注文인 바 該具가 漁船高砂丸으로 仁港에 到着호얏스니 該港稅關에 指飭호야 免稅케 호라 호얏더라.

**1907년 11월 6일, 총기류 면세, 2면 4단, 기사**

군부(軍部)에서 탁지부에 조회하길 소총제조용, 칼, 공구 각 1조(各一組) 및 삽탄자(挿彈子)를 일본 포병공장에 이미 주문한 바 이 도구가 기선 고사환(高砂丸)으로 인천항에 도착하였는데 인천항 세관에 지시하여 면세하라고 하였다 한다.

**1907년 11월 7일, 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 △公立免山普通學校敎員 崔秉喜 官立仁川日語學校副敎官 徐丙協 依願免本官 △公立蔚山普通學校副敎員 李錫均 公立金浦普通學校副敎員 魚允珏 全 朴廷秀 免本官 右는 該員 등이 視務未幾에 稱病請願호고 專事規避호은 敎育에 從事호는 義務를 違背이기 是以免本官 …… 以上十一月二日.

**1907년 11월 7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 △공립토산보통학교 교원 최병희(崔秉喜), 관립인천일어 학교 부교관 서병협(徐丙協) 면관 △공립울산보통학교 부교원 이석균 공립김포보통학교 부교원 어윤각 동 박정수 면관. 위 교원들은 배치 후 곧 병을 타하며 업무를 피하니 이는 교육에 종사하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기에 면관시킴. …… 이장 11월 2일 ……

### 1907년 11월 8일, 宮廷錄事, 1면 1단, 기사

관보 詔曰仁川幸行時地方官金潤晶加資 十一月四日 宮內府達第四十八號 懿孝殿忌辰祭攝行時 初獻官以下와 裕陵忌辰祭獻官以下와 懿孝殿奠酌禮時 贊禮官以下와 懿孝殿奠酌禮時 贊禮以下와 懿孝殿提調以下와 裕陵守陵官以下別單書入하라신 旨를 奉承함이라 隆熙元年十一月三日 宮內府達第四十九號 懿孝殿奠酌禮時 從陞承寧府總管以下別單書入하라신 旨를 奉承함이라 隆熙元年十一月三日 宮內府達第五十號 奉審閣臣入侍하고 守陵官同入侍하라신 旨를 奉承함이라 隆熙元年十一月三日 宮內府達第五十一號 秘書監丞 趙命熙 ■馳詣宗廟景孝殿 懿孝殿하야 奉審摘奸以來하라신 旨를 奉承함이라 隆熙元年十一月五日

### 1907년 11월 8일, 궁궐 소식, 1면 1단, 기사

관보 어명 ‘인천 행차 때 지방관 김윤정의 품계를 올림’. 11월 4일 궁내부달 제48호 의효전 기진제 섭행 때 초헌관 이하와 유릉 기진제 헌관 이하와 의효전 전작례 때 찬례관 이하와 의효전 전작례 때 찬례 이하와 의효전 제조 이하와 유릉 수릉관 이하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명하셨다. ....

### 1907년 11월 8일, 敍任, 1면 2단, 기사

陞正三品 仁川府尹 金潤晶 △任表勳院書記官敍奏任官■等 前局長 鄭東植 以上十一月四日 陞正一品輔國 侍從院卿 閔丙奭 △陞從一品 昌山君 李海昌 △陞正一品 從二品 沈相璜 △陞嘉義 秘書監丞 李恒九 △陞從二品 正三品 孫庚鉉 全 宋昌燮 主殿院卿 李謙濟 內閣法制局長 兪星濬 軍部軍務局長 趙性根 法部書記官 金晦秀 △陞正三品 六品 尹泰善 全 尹榮洙 全 洪思弼 侍從院侍從 嚴柱東 度支部書記官 成夏國 △陞崇祿 侍從院

奉侍 金洙瑩 △陞正二品 從二品 吳元■ 全 申泰鉉 △陞嘉義  
從■品 李炳鉉 陞從二品 正三品 李冕鎬 全 朴來錫 △陞正三  
品 六品 金萬柱 全 金錫柱 全 李升淳 全 金斗寅 全 李東旭  
全 李瑑昇 全 吳敬穆 全 文宗鎬 以上十月三十一日.

### 1907년 11월 8일, 서임, 1면 2단, 기사

승정삼품 인천부윤 김윤정 △임 표훈원 서기관 서 주임관■  
등 전 국장 정동식 이상 11월 4일 승 정일품보국 시종원경  
민병석 △ 승 종1품 창산군 이해창 △승 정1품 종2품 심상  
황 △승 가의 비서감승 이항구 △승 종2품 정3품 손경현 동  
송창섭 주전원경 이겸제 내각법제국장 유성준 군부군무국장  
조성근 법무서기관 김희수 △승 정3품 6품 윤태선 동 윤영  
수 동 홍사필 시종원시종 엄주동 탁지부서기관 성하국 △승  
승록 시종원봉시 김수형 △승 정2품 종2품 오원■ 동 신태  
현 △승 가의 종■품 이병현 승 종2품 정3품 이면호 동 박  
내석 △승 정3품 6품 김만주 동 김석주 동 이승순 동 김두  
인 동 이동욱 동 이용승 동 오경목 동 문종호. 이상 10월  
31일.

### 1907년 11월 9일, 官廳事項, 1면 2단, 기사

度支部에서 請議ᄃᆞᆫ 預備金中 支出額을 左갓치 內閣會議를 經  
ᄃᆞᆫ 後 上奏ᄃᆞᆫ야 奉旨曰 可라 ᄃᆞᆫ심 以上十一月四日 隆熙元年  
十月二十四日 第一預備金支出 內部 警務整理費增額 三一, 二  
七六四八〇 全年月日 第二預備金支出 內閣 日本博覽會視察旅  
費 五, 二八〇〇〇〇 度支部 仁川棧橋浮標設費 五, 六〇〇〇  
〇〇 內部 漢城檢疫費追加額 一〇, 七三四八〇〇 度支部에서  
請議ᄃᆞᆫ 預備金中 支出額을 左갓치 內閣會議를 經ᄃᆞᆫ 後 上奏

ᄒ야 奉旨制曰 可라 ᄒ심 以上十一月五日 隆熙元年十月四日  
第二預備金支出 內閣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經費 一, 四  
六八九三九 全十一月一日 度支部 各大臣警衛費 二四, 〇〇〇  
〇〇〇 內閣 朴完植自日本救護費 二九九九〇 農商工部 氣象  
測候費 六一二〇〇〇 學部 事務官舍宅基址價 四, 五〇〇〇〇  
〇 度支部 日本銀行借款償還不足額 二〇五四七九.

### 1907년 11월 9일, 관청사항, 1면 2단, 기사

탁지부에서 의결하기로 요구한 예비금 중 지출금은 다음과  
같이 내각회의를 거친 뒤, 상주하였는데, 상께서 가하다고 하  
셨다. 이상 11월 4일.

융희 원년 10월 24일 제1예비금지출 내부 경무정리비증액  
31,276,480 동년 월 일 제2예비금 지출 내각 일본박람회 시  
찰여비 5,280,000 탁지부 인천잔교부표설비 5,600,000 내부  
한성검역비추가액 10,734,800 탁지부에서 청의한 예비금 중  
지출액을 다음과 같이 내각회의를 거친 후 상주하여 재가를  
얻음 이상 11월 5일. ....

### 1907년 11월 9일, 船破人沒, 2면 3단, 기사

● 傳說을 聞ᄒᆞᆫ 則 再昨日疾風에 仁川海上에 來往하는 船隻  
이 多數 破壞하얏다는디 人命의 致傷도 不少하다더라.

### 1907년 11월 9일, 선박 파손, 2면 3단, 기사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제(7일) 인천 해상에서 왕래하는 선박  
이 다수 파괴되었다는데 인명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한다.

**1907년 11월 9일, 地方消息一通, 2면 5단, 기사**

△富平郡守의 報告를 據호 則 去月二十九日에 義徒 數十名이 富平郡吾十面에 侵入호야 錢二十元을 奪取호고 安山方面으로 退去호얏고 .....

**1907년 11월 9일, 지방 소식, 2면 5단, 기사**

..... △부평군수 보고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에 의도(義徒) 수십 명이 부평군 10개 면에 들어와 20원을 탈취하고 안산 방면으로 물러났고 .....

**1907년 11월 12일, 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依願免本官 度支部書記郎 康漢永 十月三十日 六品 鄭奎永 任臨時軍用及鐵道用地調查局書記郎敍判任官 十一月二日 度支部書記郎 劉章賢 度支部稅務主事 金鉉台 龍川府主事 沈星澤 依願免本官 十一月五日 任忠清北道觀察道主事敍判任官八級 劉錫範 △任忠清南道觀察道主事敍判任官八級 趙東舜 △任慶尙南道觀察道主事敍判任官八級 金振常 △任江原道觀察道主事敍判任官八級 方師榮 △任慶尙北道觀察道主事敍判任官八級 吳世增 △任三和府主事敍判任官八級 任能準 △任龍川府主事敍判任官八級 白道源 △任仁川府主事敍判任官八級 南正祐 △任會寧郡主事敍判任官八級 許崧 △任麟蹄郡主事敍判任官八級 朴命勳 △任居昌郡主事敍判任官九級 愼廷穆 △任江東郡主事敍判任官八級 金鼎洪 △任華川郡主事敍判任官八級 吉春植 △任中和郡主事敍判任官八級 姜時鎔 △任黃州郡主事敍判任官八級 尹景赫 以上十一月六日 免本官 度支部技手 李圭錫 右는 該員이 派在平壤出張所인 바 無由欠勤이 已至五十日之久호니 揆以規則에 不可仍寔이기 是以免本官 △宮內府次官 小宮三保

松 内部次官 木内重四郎 度支部次官 荒井賢太郎 命臨時帝室  
有及國有財産調査局臨時委員 以上十一月八日.

**1907년 11월 12일, 서임 및 사령, 1면 2단, 기사**

의원 면본관 탁지부서기랑 강한영 10월 30일, 6품 정규영 임  
임시군용급철도용지 조사국 서기랑 서 판임관 11월 2일. 탁  
지부 서기랑 유장현 탁지부 세무주사 김현태 용천부 주사 심  
성택 의원면본관 11월 5일. 임 충청북도관찰도 주사 서 판임  
관 8급 유석범 △임 충청남도 관찰도 주사 서 판임관 8급 조  
동순 △임 경상남도 관찰도 주사 서 판임관 8급 김진상 △임  
강원도 관찰도 주사 서 판임관 8급 방사영 △임 경상북도 관  
찰도 주사 서 판임관 8급 오세증 △임 삼화부 주사 서 판임  
관 8급 임능준 △임 용천부 주사 서 판임관 8급 백도원 △임  
인천부주사 서 판임관 8급 남정우 △임 회령군 주사 서 판임  
관 8급 허송 △임 인제군 주사 서 판임관 8급 박명훈 △임  
거창군 주사 서 판임관 9급 신정목 △임 강동군 주사 서 판  
임관 8급 김정홍 △임 화천군 주사 서 판임관 8급 길춘식 △  
임 중화군 주사 서 판임관 8급 강시용 △임 황주군 주사 서  
판임관 8급 윤경혁 이상 11월 6일 △ 면 본관 탁지부 기수  
이규석 위 직원은 평양출장소에 파견 중인 바 결근이 50일에  
이르러 규칙에 따라 면관시킴 △궁내부차관 소궁삼보송 내부  
차관 목내중사랑 탁지부 차관 황정현태랑 명 임시제실유 및  
국유재산조사임시위원으로 임명함. 이상 11월 8일.

**1907년 11월 12일, 分給錢額, 2면 4단, 기사**

日本皇太子殿下의서 漢城及仁川港人民高齡者에게 頒給ᄃᆞᆫ 錢  
을 日前부터 各家僧가 巡迴分給ᄃᆞᆫ앗다더라.



**1907년 11월 12일, 은사금 분배, 2면 4단, 기사**

일본황태자가 한성 및 인천항 노인들에게 나눠준 돈을 전날부터 각 가궤(家會)에 돌아다니며 나눠준다고 한다.

**1907년 11월 14일, 威脅討財, 2면 4단, 기사**

去月二十九日에 名稱義徒 數十名이 各持洋銃 軍刀及六穴砲하고 富平郡下吾丁面各月里에 突入하야 該洞人民을 無數威脅하다가 該洞居 元武常氏에게 錢一千兩를 奪去하얏다더라.

**1907년 11월 14일, 부평에 의도, 2면 4단, 기사**

지난 달 29일 이른바 의도(義徒) 수십 명이 총과 칼 권총을 휴대하고 부평군 하오정면 각월리(各月里)에 들어와 동 주민을 협박하고 주민 원무상(元武常)에게 1,000냥을 빼앗았다고 한다.

**1907년 11월 15일, 憲兵隊排備, 2면 4단, 기사**

我國에 在하 日本憲兵隊는 今番에 多數히 增加된 故로 今番各地에 排置(開城, 太田, 大邱, 元山의 憲兵分隊는 撤廢함)함이 如左하니 平山 六名, 高陽 十五名, 麻田 十五名 鉄原 三十名, 楊州 十五名, 議政府 九名, 高安 十四名, 楊根 十六名, 江華島 二十五名 ……

**1907년 11월 15일, 헌병대 배치, 2면 4단, 기사**

한국에 있는 일본 헌병대는 금번 다수 증가되었기에 금번 각지에 배치(개성, 대전, 대구, 원산 헌병대는 철폐함)한다. 평산 6명, 고양 15명, 마전 15명, 철원 30명, 양주 15명, 의정부 9명, 고안 14명, 양근 16명, 강화도 25명 ……

**1907년 11월 17일, 鐵道用地賠償支給, 1면 3단, 기사**

度支部에서 仁川, 富平, 始興 三郡에 訓令되 京仁鐵道用地賠償金預算이 已立於本年度預算인 바 爲念民情에 不容不至急支撥이라 該賠償金支撥에 對하야 交付處所는 仁川, 柵岬이오 交付金日字는 本月二十三, 二十四 兩日로 定하고 訓令하니 另飭管下各面各洞하야 使該各債權者로 午前十時에 一齊히 定所로 來集케 하며 本郡守도 印章을 携帶하고 該地에 來到하야 本部出張員과 立會支給케 하라 하였더라.

**1907년 11월 17일, 철도용지 배상금 지급, 1면 3단, 기사**

탁지부에서 인천, 부평, 시흥 3군에 훈령하길 경인철도용지 배상금 예산이 이미 본년도에 예산인 바 현재 사정에 따라 빨래 지급하라며 지급장소는 인천 축현이고 교부금 일자는 이번 달 23, 24일로 정하고 훈령하니 각 면과 각 동에 훈령하여 각 채권자리에 오전 10시에 일제히 교부처에 모이게 하며 본 군수도 인장을 휴대하고 그곳에 도착하여 탁지부 출장원과 참석하여 지급하라고 하였다.

**1907년 11월 17일, 絶線將修, 2면 3단, 기사**

本月十四日午後二時頃에 京城開城間 電線이 距京城三十餘里 되는 地에서 絶線된 故로 京城奉天間, 京城義州間, 京城平壤間 一二番線과 仁川甑南浦間 電線이 不通되얏으나 破損處가 甚大치 아니흔 故로 今明間 修線復舊되리라더라.

**1907년 11월 17일, 절단된 전선 수리, 2면 3단, 기사**

이번 달 14일 오후 2시경 경성~개성 전선이 경성에서 30여 리 되는 곳에서 절단되었기에 경성~봉천, 경성~의주, 경성~

평양선과 인천~진남포 전선이 불통되었으나 파손 부분이 크  
질 않아서 곧 수선 회복되리라고 한다.

#### 1907년 11월 17일, 地方消息一通, 2면 6단, 기사

本月十日曉頭에 銃器를 携帶한 義徒 十九名이 漢江下流水路  
通津郡祖江浦에 下陸하여 松致洞에서 朝飯을 强請하고 洞民  
鄭歲汝家에서 錢二十圓을 掠奪하였다는 急報를 接하고 一巡  
檢이 江華郡駐在日兵에게 急報하여 巡檢 二名이 該義徒에 踪  
跡探知한 즉 午後一時半에 伊村面祖江面에 侵入하여 車石範  
氏家에서 獵銃諸具 火藥 等を 掠奪하고 白石峴方面으로 發向  
하였다 하고 .....

#### 1907년 11월 17일, 지방 의병 소식, 2면 6단, 기사

△ 이번 달 10일 새벽에 충기를 휴대한 의병 19명이 한강 하  
류 수로 통진군 조강포(祖江浦)에 상륙하여 송치동(松致洞)  
에서 아침을 빼앗고 동민 정세여(鄭歲汝) 집에서 20환을 빼  
앗았다는 급보를 접하고 순경이 강화군 주재 일본군에게 급  
보하여 순검 2명이 이 의병에 종적을 탐지하니 오후 1시 반  
에 이촌면(伊村面) 조강면(祖江面)에 침입하여 차석범(車石  
範) 집에서 수렵 총기 화약 등을 약탈하고 백산현(白石峴)  
방면으로 떠났다고 하고 .....

#### 1907년 11월 17일, 今番에 京仁鐵道用地賠償金を 左記日字 及處所에서, 4면 2단, 광고<sup>169)</sup>

公告 今番에 京仁鐵道用地賠償金を 左記日字及處所에서 交付

---

169) 11월 19일에도 같은 광고가 실렸다.

홀 터이니 地段收用홀 當時의 土地所有호얏든 債權者는 該期  
日午前十時로부터 午後五時까지 印章을 携帶호고 來到領受홀  
事 但 本人 又는 其相續人이 親自來到홈을 要호고 他人으로  
호여금 代理出頭케 홈을 不得홀 事 隆熙元年十一月十五日 度  
支部會計課 左記 交付期日 交付場所 土地所有者所屬郡名 十  
一月二十日 永 登 浦 始興 二十一日 二十二日 素砂 富平 二  
十三日 二十四日 柵峴 仁川.

#### 1907년 11월 17일, 이번에 경인철도 토지 수용비 지급 일정, 4면 2단, 광고

공고 금번에 경인철도용지 배상금을 아래 일자 및 장소에서  
교부할 것이니 지단 수용 때 토지소유한 채권자는 이 날짜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도장을 가지고 받아갈 것. 단 본  
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와야하고 타인에게 대리 출석할 수  
없다. 1907년 11월 15일 택지부 회계과, 아래 교부 기일 및  
장소, 토지소유자 소속군명 11월 20일 영등포 시흥, 21일·22  
일 소사 부평 23일·24일 인천 축현.

#### 1907년 11월 22일, 東宮搭乘艦, 2면 1단, 기사

東宮搭乘艦 皇太子殿下의서 日本에 行啓호심으로 日本에서  
搭乘호실 軍艦滿洲호를 本月二十三日에 橫須賀에서 仁川으로  
發送호다더라.

#### 1907년 11월 22일, 동궁 전하 탑승함, 2면 1단, 기사

황태자 전하가 일본에 행차하기에 일본에서 탑승할 군함 만  
주호(滿洲호)를 이번 달 23일 요코스카(橫須賀)에서 인천으  
로 출발하였다고 한다.

1907년 11월 23일, 文明錄, 3면 1단, 광고

文明錄 方圭錫氏 二圓 仁川海關 三圓六十七錢.

1907년 11월 23일, 문명록, 3면 1단, 광고

방규석(方圭錫) 2환, 인천해관 3환 60전.

1907년 11월 24일, 赦秩調査, 2면 4단, 기사

今番 赦典에 各裁判所에서 放釋할 強盜以外已決囚를 調査하야 法部에 報告하얏는디 平理院에서 流配罪人이 五人, 已決囚가 三十六人이오 漢城裁判所에서 二百四人이오 仁川港裁判所에서 二十五人이더라.

1907년 11월 24일, 죄수 사면 조사, 2면 4단, 기사

금번 특사로 각 재판소에서 방면할 강도 이외 기결수를 조사하여 법부에 보고하였는데 평리원에서 유배죄인 5명, 기결수가 36명이고 한성재판소에서 204명이고 인천항재판소에서 25명이라고 한다.

1907년 11월 24일, 華民安堵, 2면 5단, 기사

江華郡에서 義擾를 經過한 後로 日兵이 致疑하기를 城內城外의 人民이 義兵의 干連이 有하다 함으로 該郡守 高靑龍氏가 蒞任以後에 守備隊에 交渉하야 不然한 事狀을 說明한 後에야 人民 등이 安堵如故하다더라.

1907년 11월 24일, 강화도민 안도 , 2면 5단, 기사

강화군에서 의병소요 후 일본군이 의심하기를 성내 성외 사람들이 의병에 연루되었다 하기에 강화군수 고청룡(高靑龍)이 임명 이후 수비대에 교섭하여 그렇지 아는 사정을 설명한

후에 사람 등이 안도하였다고 한다.

**1907년 11월 26일, 新官制內容, 2면 5단, 기사**

新官制調査를 畢了하였다 Һ은 別項과 如하거니와 其內容을 聞흔 즉 內部에는 現在局課를 廢止하고 …… 現在 治道局及度支部水道局事務는 土木局으로 移設하고 仁川水道, 平壤水道 其他 土木事業을 設흔 地方에는 土木局出張所를 置한다. ……

**1907년 11월 26일, 신 관제 내용, 2면 5단, 기사**

신관제조사를 종료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 그 내용을 들으니 내부(內部)에는 현재 국과를 폐지하고 …… 현재 치도국 및 탁지부 수도국 사무는 토목국으로 이설하고 인천수도 평양수도 기타 토목사업을 개설한 지방에는 토목국 출장소를 설치한다. ……

**1907년 11월 28일, 移品度部, 2면 5단, 기사**

仁川朱安面天日製鹽場에 形式을 模範하야 博覽會에 出品하얏더니 該會가 閉會됨으로 該形式을 再昨日에 度支部로 移來하야 該部官房大廳에 設置하얏다더라.

**1907년 11월 28일, 천일염전 모형, 2면 5단, 기사**

인천 주안면 천일제염장의 모형을 박람회에 출품하려 하였더니 박람회가 폐회되었기에 이 모형을 그제(26일) 탁지부로 옮겨 탁지부 관방대청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1907년 11월 28일, 天氣豫報, 2면 6단, 기타**

△ 十一月廿八日 自廿七日午后六時至廿八日午后六時 北風 又는 西風 晴 ○韓國氣象概況 十一月廿七日午前六時 北風 又는

西風이 吹호고 中部는 風力이 强호며 一般히 晴天이로되 仁川附近은 雪이 降호니라.

1907년 11월 28일, 기상예보, 2면 6단, 기사

11월 28일~27일 오후 6시 북풍과 서풍에 맑음, 한국 기상개황 11월 27일 오전 6시 북풍 또는 서풍이 불고 중부지방은 바람이 세고 맑다. 인천부근은 눈이 내릴 것이다.

1907년 11월 29일, 宜蒙赦典, 1면 4단, 기사

仁川郡居 鄭泰東氏가 法部에 請願호되 本人의 從高祖 鄭厚謙이 往在正祖皇帝丙申年間に 不幸히 名登罪案호야 至有賜死之處分인 바 現值大赦之慶會호니 奏達天陛호야 伏蒙恩赦之典호와 蕩滌罪名호고 復其官爵을 泣祝이라 호앗더라.

1907년 11월 29일, 사면 청원, 1면 4단, 기사

인천군 거주 정태동(鄭泰東)이 법부에 청원하길 자신의 종고조 정후겸(鄭厚謙)이 정조 병신년(1776년)에 불행히 죄로 사형당한 바 현재 대규모 사면 중이니 사면해 주길 청하였다고 한다.<sup>170)</sup>

1907년 11월 30일, 分給所有, 2면 5단, 기사

農商工部技手 劉玩鍾 度支部會計課長 崔錫彰 兩氏가 仁川 始興 兩郡에 鐵道用地段價二萬五千六百十四圓二十錢을 該所有者에게 分給하앗다더라.

170) 정후겸 : 본관은 연일(延日). 인천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서인(庶人) 출신이었으나 영조의 서녀(庶女) 화완옹주(和緩翁主)의 양자가 되며 영조의 총애를 받아 홍인한(洪麟漢)과 더불어 국정을 좌우하였다. 1775년 세손이 대리정정하게 되자 극렬 반대하고 홍국영을 탄핵하는 등 세손을 모해하다 정조 즉위 후 사형당하였다.

1907년 11월 30일, 철도수용지 배상, 2면 5단, 기사

농상공부 기수 유원근(劉玩鍾) 탁지부 회계과장 최석창(崔錫彰)가 인천·시흥에 철도용 토지가격 25,614환20전을 토지소유자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1907년 11월 30일, 天氣豫報, 2면 6단, 기타

一月廿九日 自廿八日午後六時至廿九日午後六時 北風 又는 西風 曇后晴 ○韓國氣象概況 十一月廿九日午前六時 過半北風 又는 東風이 吹호고 極南部는 風力이 强호며 仁川附近은 灑電호얏스나 其他는 晴曇相半이라.

1907년 11월 30일, 기상예보, 2면 6단, 기타

한국기상 개황 11월 29일 오전 6시 대부분 북풍 또는 동풍이 불고 극남부에는 바람이 거세며 인천 부근은 번개가 있겠지 만 기타 지역은 맑고 흐리다.

## 1907년 12월

1907년 12월 3일, 祇送協議, 2면 3단, 기사

昨日 內部에서 京畿觀察使 李圭桓 仁川府尹 金潤晶 富平郡守 全國煥氏 等を 招上호야 皇太子殿下의 謁書 日本國動駕時에 所經沿路에서 祇送節次를 協議호얏다더라.

1907년 12월 3일, 동궁 환송 협의, 2면 3단, 기사

어제(2일) 내부(內部)에서 경기도 관찰사 이규환(李圭桓) 인천부윤 김윤정(金潤晶) 부평군수 전국환(全國煥)을 불러 황태자가 일본 행차 때 거리 환송을 협의하였다고 한다.



**1907년 12월 3일, 先自仁川, 2면 3단, 기사**

大皇帝陛下의 御眞을 十三道及府尹府에 一本式을 奉安한다  
흙은 已爲揭報했거니와 仁川府尹 金潤晶氏가 昨日에 奉安  
下去했었다더라.

**1907년 12월 3일, 인천에 어진 봉안, 2면 3단, 기사**

대황제폐하 사진을 13도 및 부에 1장씩 봉안한다는 것은 이  
미 보도하였고 인천부윤 김윤정(金潤晶)이 어제(2일) 사진을  
찾아갔다고 한다.

**1907년 12월 4일, 學徒祇送, 2면 2단, 기사**

잡보 東宮殿下께서 明日上午十時에 日本에 渡去하실 次로 南  
大門驛에서 瀛車を 搭乘하시고 仁川港으로 啓行하시는디 學  
部에서 各官私立學校에 通知해야 十二歲以上된 學徒를 領率  
하고 明日上午八時內로 南大門驛에 齊進해야 東宮殿下를 祇  
送케 하라 했었다더라.

**1907년 12월 4일, 학도들 환송, 2면 2단, 기사**

동궁전하가 내일(5일) 오전 10시에 일본에 행차하려고 남대  
문역에서 기차를 타고 인천항으로 가는데 학부(學部)에서 각  
관사립학교에 통지하여 12세 이상된 학생을 데리고 내일(5  
일) 오전 8시 내로 남대문역에 나와 동궁전하를 환송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1907년 12월 4일, 權李蒙放, 2면 4단, 기사**

江華郡普昌學校長 李東暉 前郡守 權國顯 兩氏가 警視廳에 多  
月 被囚했다가 再昨日에 無事蒙放했었다더라.

**1907년 12월 4일, 이동휘 석방, 2면 4단, 기사**

강화군 보창학교장 이동휘(李東暉) 전 군수 권국현(權國顯)이 경시청에 수개월 수감되었다가 그제(2일) 무사 방면되었다고 한다.

**1907년 12월 5일, 東宮殿下東渡路次, 2면 2단, 기사**

今日上午九時에 我皇太子殿下의 御次 日本東京에 留學하시실 次로 發駕하시는데 昨日에 宮内府布達이 如左하니 全日 上午九時에 敦化門으로 刻出御하시 罷朝橋 鐵橋 鍾路 廣通橋 水橋 南大門을 從하시 停車場에 臨御하시 同時三十分에 乘玉車하시고 同十時三十分에 仁川停車場에 臨御하시 同時四十分에 日本滿洲号艦을 搭御하시고 日本國으로 啓發하시 豫定이라더라.

**1907년 12월 5일, 동궁 전하 동경행, 2면 2단, 기사**

오늘 오전 9시 황태자 전하가 장차 일본 동경에 유학하기 위해 출발하는데 ..... 10시 30분에 인천정거장에 도착하고 40분에 일본 만주호(滿洲号)를 타고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한다.

**1907년 12월 5일, 畿察下仁, 2면 4단, 기사**

東宮殿下의 御次 今日에 日本에 御渡하시므로 京畿觀察使 李圭桓氏는 祇送節次를 舉行하기 爲하야 昨日 仁川으로 下去하얏다더라.

**1907년 12월 5일, 경기관찰사 인천에, 2면 4단, 기사**

동궁전하가 오늘 일본에 떠나기에 경기도관찰사 이규환(李

圭桓)은 환송절차를 위해 어제(4일) 인천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 1907년 12월 7일, 宮廷錄事, 1면 1단, 기사

관보 宮內府達第八十六號 本月五일에 皇太子殿下게옵서 日本國에 行啓하옵시는 旨를 奉承하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는 如左함이라 上午九時에 敦化門으로 出御하사 罷朝橋 鐵橋 鍾路 廣通橋 水橋 南大門을 從하사 停車場에 臨御하사 同時三十分에 乘玉車하시고 同十時三十分에 仁川停車場에 臨御하사 同時四十分에 滿洲艦에 御搭乘하심이라 隆熙元年十二月三日 宮內府達第八十七號 特命大使以下 入侍하라신 旨를 奉承함이라 隆熙元年十二月四日 詔曰統監府書記澤田牛麿京城理事官三浦彌五郎并特敘勳三等統監府通譯官勳五等前間恭作川上立太郎并特陞勳四等統監府通譯官烏居忠恕特敘勳五等各賜太極章統監府書記官小松綠特敘勳二等統監府書記官兒玉秀雄特敘勳三等統監府書記官荻田悅造統監府通譯官本多駒次郎并特敘勳四等各賜八卦章以示親愛之意 隆熙元年十一月二十六日 詔曰度支部前次官勳三等柳正秀久佐財賦整理著勳特陞敘勳二等前協辦玄昔運有可表之績特敘勳二等各賜八卦章經理院卿崔錫敏勤幹事務優有其勞特敘勳三等京畿觀察使勳四等李圭桓仁川幸行時奉迎有勞特陞敘勳三等各賜太極章 …… 隆熙元年十一月二十六日.

### 1907년 12월 7일, 궁궐 기사, 1면 1단, 기사

궁내부달 제86호 이번달 5일 황태자전하가 일본 유학가실 때 출발시각과 도로는 다음과 같다. 오전 9시에 돈화문으로 가서 파조교 철교 종로 광통교 수교 남대문을 도착하여 정거장에 임하여 9시 30분에 기차를 타고 10시 30분에 인천정거장에

도착하여 10시 40분에 만주함에 탑승하였다. 융희 원년 12월 3일 궁내부달 제87호 특명대사 이하 입시하라고 내리시다. 융희 원년 12월 4일 어명으로 통감부 서기 택전우마 경성이 사관 삼포미오랑 병특서훈3등, 통감부 통역관훈5등 전간공작 천상립태랑 병특승4사등, 통감부 통역관 조거충서 특서훈2등 각기 태극장을 하사하였다. 통감부 서기관 소송록 특서훈2등 통감부 서기관 아옥수웅 특서훈3등, 통감부 서기관 적전열조 통감부 통역관 본다구차랑 병특서훈4등 각기 팔괘장을 하사하시어 친히 노고를 치하하였다. 융희원년 11월 26일. 어명으로 탁지부 전 차관 훈3등 유정수는 오래동안 재무정리를 보좌함이 현저하였기에 서훈2등으로 승급함. 전 협판 현석운은 성적이 우수하여 서훈2등과 팔괘장을 수여함. 경리원경 최석민에게 사무태도가 우수한 공로로 특 3등 서훈, 경기도 관찰사 훈4등 이규항은 폐하의 인천행차 때 공이 워서 특 3등으로 서훈하고 각기 태극장을 하사 ..... 융희 원년 11월 26일

### 1907년 12월 7일, 路次奉送儀, 2면 2단, 기사

再昨日에 皇太子殿下의 謁見 仁港으로 啓駕하실 時에 南門外 停車場沿路左右에는 官公私立學徒及日本學徒가 葱密排立奉送하고 驛場에는 親勅任官及各社會員이 排立奉送하느니라 仁川까지 至하기에 人民及學徒들이 排立奉送하얏더라.

### 1907년 12월 7일, 동궁 전화 수행원, 2면 2단, 기사

그제(5일) 황태자 전하가 인천항으로 가실 때 ..... 역에는 칙임관 및 각 회사원이 서서 환송하는데 인천까지 따라가기에 일반 백성 및 학생들이 환송하였다고 한다.

### 1907년 12월 7일, 東宮乘艦, 2면 2단, 기사

皇太子殿下의 謁書 本月五日午前十二時에 仁川港에서 小蒸氣船으로 滿洲號艦에 移御하셧는디 其時循序가 如左하더라 第一艇에는 皇太子殿下, 宮內府大臣 李允用, 農商工部大臣 宋秉畯, 陪從武官長 趙東潤, 詹事 高義敬 諸氏와 伊藤統監, 曾稱副統監, 長谷川大將, 村田陸軍少將, 岩崎海軍少將, 古谷秘書官, 國分書記官, 海軍中佐 諸氏오 第二艇에는 大使 完興君 李載冕, 永宣君 李堉鎔, 特進官 趙漢國, 同 嚴柱益, 宗簿司長 李達鎔, 其他 某某 諸氏와 高崎男爵, 上村事務官, 諸氏오 第三艇에는 皇旅親任官 諸氏와 其他 祇送人 四十餘名이오 第四艇에는 祇送人이 三十餘名이라.

### 1907년 12월 7일, 동궁전하 탑승, 2면 2단, 기사

황태자 전하가 이번 달 5일 오전 12시에 인천항에서 작은 증기선으로 만주호(滿洲號)에 옮겨탔는데 그 순서가 다음과 같다. 첫번 배에 황태자전하, 궁내부대신 이윤용,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배종무관장 조동윤, 첨사 고희경 제씨와 이등통감, 증미부통감, 장곡천대장, 춘전육군소장, 암기해군소장, 고곡비서관, 국분서기관, 해군중좌 제씨이고, 두 번째 배에는 대사 완흥군 이재면, 영선군 이준용, 특진관 조한국, 동 엄주익, 중부사장 이달용, 기타 모모 제씨와 고기남작, 상춘사무관, 제씨이다. 세 번째 배에는 황여 친임관들과 기타 환송인 40여 명이고 네 번째 배에는 환송인 30여 명이다.

### 1907년 12월 7일, 伊藤答言, 2면 2단, 기사

再昨日 帝室制度監査院卿 金允植氏가 皇太子殿下奉迎次로 仁港에 下去하야 皇太子殿下의 涉海保重하심을 頌祝하고 伊藤

太師에게 信託되 我皇太子殿下를 保護勸勉하야 睿學이 日  
進하심을 切望하노라 太師答言하기를 我를 大韓臣民中에 第  
一愛國心이 有한 人으로 知하기를 望하노라 하얏다더라.

**1907년 12월 7일, 이토 통감의 답사, 2면2단, 기사**

그제(5일) 왕실제도 감사원경(帝室制度 監查院卿) 김윤식(金  
允植)이 황태자 전하 환송을 위해 인천항까지 내려가 황태자  
전하에게 건강하시길 송축하고 이등태사(伊藤太師)에게 부탁  
하길 우리 황태자 전하를 잘 보호하여 .....

**1907년 12월 7일, 白翎義擧, 2면 5단, 기사**

黃海道沿岸白翎島에서 漁業하는 日人 五名이 義徒의 來襲  
을 念慮하야 去月十三日에 家具를 携帶하고 小青島로 避乱  
하얏던 同十九日에 該徒가 突入하야 日人의 什物을 沒數燒燼  
하고 該島面長을 結縛亂打하고 金八十圓을 奪去하얏다더라.

**1907년 12월 7일, 백령도에 의병, 2면5단, 기사**

황해도 연안 백령도(白翎島)에서 어업하는 일본인 5명이 의  
병의 습격을 두려워해 지난 13일 가재를 가지고 소청도로 피  
난하였는데 19일 의병이 들어와 일본인 물품을 몰수 소각하  
고 소청도 면장 결박 구타하고 80환을 빼앗았다고 한다.

**1907년 12월 7일, 韓國皇太子殿下의 日本에 遊學하심은  
實로 空前의 大快事오, 3면 3단, 광고<sup>171)</sup>**

韓國皇太子殿下의 日本에 遊學하심은 實로 空前의 大快

---

171) 이 광고는 12월 29일까지 실렸다.

事오 韓國의 文明이 此로 從<sup>ㅎ</sup>야 早速進歩<sup>ㅎ</sup> 것은 韓國을 爲<sup>ㅎ</sup>야 深<sup>히</sup> 慶賀<sup>ㅎ</sup>는 바라 來一月一日은 韓國皇帝陛下御即位<sup>ㅎ</sup>신 後 第一의 新年이 되<sup>ㄷ</sup> 此를 紀念<sup>ㅎ</sup>기 爲<sup>ㅎ</sup>야 一大祝日로 습아 本社에서 左의 方法으로써 祝意를 表코자 <sup>ㅎ</sup>는 바니 幸願大方僉位<sup>는</sup> 此微意를 贊助<sup>ㅎ</sup>심을 切望 一 日本政府製造蜂標(벌표)烟草空匣 十個를 持來<sup>ㅎ</sup>시면 原蜂標烟草 一匣을 進呈<sup>ㅎ</sup> 一 相換處所<sup>는</sup> 京城, 仁川及其附近 小賣店에서 行<sup>ㅎ</sup> 一 相換期限은 陽曆十二月五日로부터(陰曆十一月一日) 來一月三十一日(陰曆 日)까지 <sup>ㅎ</sup> 東亞烟草株式會社.

1907년 12월 7일, 한국황태자전하께서 일본에 유학하심을 실로 공전의 유쾌한 일이다, 3면 3단, 광고

한국황태자전하께서 일본에 유학하심을 실로 공전의 유쾌한 일이고, 한국의 문명이 이에 따라 빨리 진보할 것은 한국을 위하여 깊이 축하하는 바이다. 1월 1일은 한국황제폐하가 즉위하신 후 첫번 째 새해가 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로 정해 본 회사에서 아래 방법으로 축하를 표하고자 하니 여러분은 이 뜻을 찬조해주실 바랍니다.

1. 일본정부 제조 벌표(蜂標) 연초 빈갑 10개를 가져오면 진짜 담배 1갑을 드립니다.

1. 교환처는 경성·인천 및 부근 소매점

1. 교환기한은 12월 5일 ~ 1월 31일까지

동아연초주식회사(東亞烟草株式會社)

1907년 12월 8일, 祇送費請求, 2면 3단, 기사

仁川港에서 東宮殿下祇送費 一千圓을 算外支出事로 度支部에서 内部照會를 因<sup>ㅎ</sup>야 內閣에 請議<sup>ㅎ</sup>았더라.

1907년 12월 8일, 환송비 청구, 2면 3단, 기사

인천항에서 동궁전하 환송비 1,000환을 예산 외 지출로 탁지  
부에서 내부를 거쳐 내각에 청구하였다고 한다.

1907년 12월 14일, 天氣豫報, 2면 6단, 기타

△ 十二月十四日 自十三日午后六時至十四日午后六時 北風 又  
는 西風曇後 晴 ..... 仁川附近은 東南風이 强하며 大概 快晴  
하니라 .....

1907년 12월 14일, 기상예보, 2면 6단, 기타

12월 14일, 12월 13일 오후 6시 ~ 14일 오후 6시 : 북풍 또  
는 서풍, 흐림 후 맑음 ..... 인천부근은 동남풍이 강하며 대  
개 쾌청할 것이다 .....

1907년 12월 17일, 畿察查報, 2면 3단, 기사

京畿觀察使 李圭桓氏가 管下各郡에 良民이 義徒에게 被害數  
ჯ와 被燒家屋을 調査하야 內部에 報告하얏는디 ..... 富平郡  
에는 被害人이 五오 江華郡에는 被害人이 十六이오 被燒家屋  
이 五戶오 .....

1907년 12월 17일, 경기도 관찰사의 조사, 2면 3단, 기사

경기관찰사 이규백(李圭桓)이 관하 각군에 의병에 의한 양민  
피해를 조사해 내부(內部)에 보고하였는데 ..... 부평군에는  
피해인이 5명, 강화군에는 피해인이 16에 가옥피해 5호 .....

1907년 12월 18일, 延燒廿戶, 2면 3단, 기사

再昨夜에 仁川 淸韓銀行에서 失火하야 二十戶가 延燒하얏다더라.



**1907년 12월 18일, 화재 피해 20호, 2면 3단, 기사**

그제(16일) 밤에 인천 청한은행(淸韓銀行)의 실화(失火)로 20호가 연소되었다고 한다.

**1907년 12월 18일, 舊債報還, 2면 4단, 기사**

內閣에서 度支部에 照會호되 現接統監府來文內에 韓法兩國政府間에 多年懸案호 룡동, 풀늬 商會請求金事件에 就호야 本官과 韓國駐在法國領事間에 最綿密호 審査交涉을 遂호 結果인디 ..... 三은 峴今 仁川鎮南浦에 庫入中의 平壤礦山所用器械는 現狀디로 룡, 동풀늬상 商會로부터 韓國政府에 引渡호 事라 호고 .....

**1907년 12월 18일, 채무 상환, 2면 4단, 기사**

내각에서 탁지부에 조화하길 통감부 이래 한국과 프랑스 사이 다년 현안인 룡동, 풀늬 상회 청구 사건에 대하여 본관과 한국주재 프랑스영사관 사이 면밀한 심사교섭 결과 ..... 세 번째 현재 인천과 진남포에서 보관 중인 평양 광산소 무기는 현재와 같이 룡동, 풀늬상 상회로부터 한국정부에 인도 .....

**1907년 12월 18일, 仁港夜學, 2면 4단, 기사**

仁川港 海關幫辦 諸氏의 周旋으로 該港私立博文學校內에 昨年부터 廣學會를 設始호고 夜夜會集호야 最新開明호 書籍을 購置縱覽호더니 至於 今年호야는 郭重根 全圭永 兩氏의 特別贊成으로 學員을 多募호야 夜學을 兼設호얏는디 日語專門教授는 郭氏가 擔任호고 英語專門은 全圭永氏가 擔任호고 算術은 張箕彬氏인디 學員은 三十餘名에 達호얏다더라

**1907년 12월 18일, 인천항 야학, 2면4단, 기사**

인천항 해관방관들 주선으로 인천항사립박문학교 내에 작년부터 광학회(廣學會)를 개설하고 밤마다 모여 최신 책을 구매해 돌려보더니 금년에는 곽중근(郭重根)과 전규영(全圭永)의 특별 찬성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야학을 병설하였는데 일어전문교수는 곽씨가 담당하고 영어전문은 전규영 씨가 담당하고 산술은 장기빈(張箕彬)인데 학생은 3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1907년 12월 19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任忠淸北道觀察道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金樂哲 八月四日  
任京畿觀察道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李應漢 △任京畿觀察道  
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權重善 以上八月九日 任慶尙北道觀察  
道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朴來鎬 九月二日 任京畿觀察道  
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庾漢振 九月七日 任慶尙北道觀察道  
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朴鳳陽 九月十日 任全羅南道觀察道  
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朴準謙 九月十二日 洪秉善 朴文應  
任京畿觀察道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九月十六日 任黃海道觀  
察道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孫福賢 △任忠淸北道觀察道警務  
署總巡敍判任官七級 劉錫宗 以上十月八日 任全羅南道觀察道  
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崔判五 十月九日 任忠淸北道觀察道  
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李載琬 十月十日 任京畿觀察道警務  
署總巡敍判任官七級 南敬連 十月十五日 任京畿觀察道警務署  
總巡敍判任官七級 金年相 十月二十六日 任京畿觀察道警務署  
總巡敍判任官七級 金漢榮 十一月一日 任黃海道觀察道警務署  
總巡敍判任官七級 康益洙 十一月六日 任慶尙北道觀察道警務  
署總巡敍判任官七級 鄭永弼 十一月十六日 任忠淸南道觀察道

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李相龜 十一月十七日 任京畿觀察道  
 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韓復鎭 十一月三十日 任京畿觀察道  
 警務署總巡敍判任官七級 朴瀚玉 十二月十日 前副教官 丁奎明  
 任官立仁川日語學校副教官敍判任官七級 △公立鎮南浦普通學  
 校副教員 金錫元 任公立三和普通學校副教員敍判任官十級 以  
 上十二月十一日 掌禮院典祀 鄭觀朝 全 朴泳好 奎章閣副提學  
 金甲洙 依願免本官 △任掌禮院典祀敍奏任官四等 正三品 朴齊  
 玄 △正三品 李忠植 全 鄭寅旭 任奎章閣直閣敍奏任官四等 △  
 任掌禮院典祀補敍判任官二等 五品 李纘鎬 △任掌禮院典祀補  
 敍判任官三等 六品 趙漢杰 △度支部建築所事務官 金明濟 任  
 度支部稅務官敍奏任官二等 △度支部書記官 趙漢鏞 全 宋文賢  
 任度支部稅務官敍奏任官三等 △前務安電報司長 白樂晉 度支  
 部書記郎 李容淳 任度支部稅務官敍奏官四等 △度支部書記郎  
 金善模 任度支部稅務主事敍判任官五級 △度支部書記郎 沈衡  
 鎭 全 金相赫 全 嚴德永 任度支部稅務主事敍判任官六級 △度  
 支部書記郎 南瓚熙 全 崔弘植 全 姜鳳秀 全 洪台燮 任度支部  
 稅務主事敍判任官七級 △度支部繙譯官補 俞相範 任度支部稅  
 務主事敍判任官五級 △度支部書記郎 朴有淳 全 鄭海鎭 任度  
 支部稅務主事敍判任官七級 以上十二月十三日 依願免本官 信  
 川郡主事 李承祚 十二月十四日

### 1907년 12월 19일, 서임 및 사령, 1면 1단, 기사

임 충청북도 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김락철 8월4  
 일 임 경기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이용한 △임  
 경기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권중선 이상 8월 9일  
 임 경상북도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박래호 9월 2  
 일. 임 경기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유한진 9월 7

일. 임 경상북도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박봉양 9월 10일. 임 전라남도 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박준겸 9월 12일 홍병선 박문응 임 경기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9월 16일. 임 황해도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손복현 △임 충청북도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유석중 이상 10월 8일. 임 전라남도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최판오 10월 9일. 임 충청북도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이재호 10월 10일. 임 경기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남경련 10월 15일. 임 경기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김연상 10월 26일. 임 경기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김한영 11월 1일. 임 황해도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강익수 11월 6일. 임 경상북도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정영필 11월 16일. 임 충청남도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이상구 11월 17일. 임 경기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한복진 11월 30일. 임 경기관찰도 경무서 총순 서 판임관 7급 박한옥 12월 10일. △ 전 부교관 정규명 임관립인천일어학교 부교관 서 판임관 7급 △공립진남포보통학교 부교원 김석원 임 공립삼화보통학교 부교원 서 판임관 10급 이상 12월 11일. 장례원전사 정관조 동 박영호 규장각부제학 김갑수 의원면본관 △임 장례원전사서 주임관 4등 정3품 박제현 △정3품 이충직 동 정인옥 임 규장각 직각서 주임관 4등 △임 장례원 전사보 서 판임관 2등 5품 이찬호 △임 장례원 전사보 서 판임관 3등 6품 조한걸 △탁지부 건축소 사무관 김명제 임 탁지부 세무관서 주임관 2등 △탁지부 서기관 조한용 동 송문현 임 탁지부 세무관서 주임관 3등 △전 무안전보사장 백낙진 탁지부 서기관 이용순 임 탁지부 세무관서 주임관 4등 △탁지부 서기관 김선

모 임 탁지부 세무주사서 판임관 5급 △탁지부 서기랑 심형진  
 동 김상혁 동 엄덕영 임 탁지부세무주사서 판임관 6급 △탁지  
 부 서기랑 남찬희 동 최홍식 동 강봉수 동 홍태섭 임 탁지부  
 세무주사서 판임관 7급 △탁지부 번역관보 유상범 임 탁지부  
 세무주사서 판임관 5급 △탁지부 서기랑 박유순 동 정해진 임  
 탁지부 세무주사서 판임관 7급 이상 12월 13일 △ 의원면본  
 관 신천군주사 이승조 12월 14일

### 1907년 12월 26일, 賣校肥己, 2면 4단, 기사

年前에 黃橋居 前宮大 李載克氏가 其洞中の 聰俊을 教育하기  
 爲하야 四處에 請捐하야 學校를 勸立하얏더니 昨年八月頃에  
 該校가 大韓醫院基址로 占入하얏던지 該教師 崔章燮氏가 該  
 院設役二三朔前에 自意로 請賣하야 重價를 受取하고 卽地廢  
 校한지라 校長 李載克氏가 此言을 聞하고 贊成員으로 하야곰  
 其非理함을 質問한 즉 崔氏가 語窮하야 從當復設한다 云하더  
 니 今春에 崔氏가 仁川府主事를 被任한지라 該校長及贊成員  
 諸氏가 代表로 金永昱氏를 派送하야 校舍價를 督推한 ……

### 1907년 12월 26일, 학교 부지 밀매, 2면 4단, 기사

얼마 전 황교(黃橋) 거주 전 궁내부대신 이재극(李載克)이  
 마을 인재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4곳에 학교를 설립하였더니  
 작년 8월 경 이 학교가 대한의원 부지에 들어가 이 학교 교  
 사 최장섭(崔章燮)이 대한의원 설치 1개월 전에 자의로 매매  
 하여 비싼 가격을 받고 폐교한지라 교장 이재극이 이 말을  
 듣고 지지자들에게 이 비리를 질문하니 최씨의 말이 궁박하  
 여 곧 다시 설립한다고 하더니 올 봄에는 최씨가 인천부 주  
 사로 되었기에 이 학교 교장 및 지원자들이 대표로 김영호

(金永昱)를 보내 학교 건물 가격을 독촉하니 .....

**1907년 12월 28일, 鐵線頻斷, 2면 4단, 기사**

仁川 釜山間 直通電線이 本月二十五日午前十時三拾分에 絶斷  
되야 電信이 不通하다가 同日午前拾一時三拾分에 復線되얏더  
니 同午後五時二拾分에 更히 絶斷되야 .....

**1907년 12월 28일, 전신선 절단, 2면 4단, 기사**

인천~부산 직통전선이 이번 달 25일 오전 10시 30분에 파손  
되어 전선이 불통이다가 오전 11시 30분에 고쳤는데 오후 5  
시 20분에 다시 절단되어 .....

**1907년 12월 28일, 鹽田讓校, 2면 4단, 기사**

農林學校敎授 豐永眞里氏가 農商工部에 報告되 富平朱安面  
謁 田模型及寫眞 等を 本校에 讓受하야 生徒敎授上에 有益케  
하라 하얏더라.

**1907년 12월 28일, 염전 모형 이첩, 2면 4단, 기사**

농림학교 교수 풍영진리(豐永眞里)가 농상공부에 보고하길  
부평 주안면 염전모형 및 사진 등을 농림학교에 보내 학생  
수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1907년 12월 29일, 豫備金支出, 1면 1단 기사**

관보 豫備金支出 度支部에서 請議호 豫備金中 支出額을 左  
기 內閣會議를 經호 後 上奏하야 可라 호신 旨를 奉호 十二  
月十三日 隆熙元年十二月九日 第一預備金 度支部 第一欸 度  
支部本廳 第四項 雜給及雜費 三, 七八三九九九 第四欸 國債償

還 第四項 貨幣整理借越金利子 五三, 八五三一三〇 農商工部  
 第一欸 農商工部本廳 第二項 廳費 三五〇〇〇〇 第三項 修理  
 費 二, 〇〇〇〇〇〇 第四項 雜給及雜費 三二〇〇〇 第五項  
 旅費 三六〇〇〇〇 第六項 外國人諸給 三九〇〇〇〇 第四項  
 雜給及雜費 八八八三二 隆熙元年十二月七日 法部 第一欸 法  
 部本廳 第四項 雜給及雜費 四九六〇五〇 農商工部 第十欸 農  
 事試驗場 第五項 事業費 一, 八〇〇〇〇〇 第二預備金 內閣  
 第二十二欸報聘大使諸費 第一項 手當及束裝費 七, 五〇〇〇〇  
 〇 第二項 旅費 一, 四一〇〇〇〇 第三項 雜費 一, 〇九〇〇  
 〇〇 第四項 宴費 二, 〇〇〇〇〇〇 第十四欸機密費 第一項  
 機密費 一〇, 〇〇〇〇〇〇 隆熙元年十二月六日 第二十一欸  
 慶會樓園遊會費 第一項 慶會樓園遊會費 三二一一一九 內部  
 第二十五欸 自仁川府日本皇太子祇迎費 第一項 自仁川府日本  
 皇太子祇迎費 一〇, 〇〇〇〇〇

### 1907년 12월 29일, 예비비 지출, 1면 1단 기사

탁지부에서 청구한 예비금 중 지출액은 다음과 같이 내각회의를  
 거친 후 상주하여 허가를 받음. 12월 13일.

융희 원년 12월 9일 제1 예비금 탁지부 제1관 탁지부본청 제4  
 항 잡급 및 잡비 3,783,999, 제4관 국채상환 제4항 화폐정리차  
 월금이자 53,853,130, 농상공부 제1관 농상공부 본청 제2항 청  
 비 350,000, 제3항 수리비 2,000,000 제4항 잡급 및 잡비  
 3,2000, 제5항 여비 360,000 제6항 외국인 제급 390,000, 제4  
 항 잡급 및 잡비 88,832 융희 원년 12월 7일. 법무 제1관 법무  
 본청 제4항 잡급 및 잡비 496,050, 농상공부 제10관 농사시험장  
 제5항 사업비 1,800,000, 제2 예비금 내각 제22관 보병대사제비  
 제1항 수당 및 숙장비 7,500,000, 제2항 여비 1,410,000, 제3항

잡비 1,090,000, 제4항 연비 2,000,000, 제14관 기밀비 제1항  
기밀비 10,000,000 융희 원년 12월 6일, 제21관 경회루 원유회  
비 제1항 경회루 원유회비 321,119, 내부 제25관 인천부 일본황  
태자환송비 제1항 인천부인천황태자 환송비 1,000,000



# 고(古)신문 속의 인천 2 (하)

황성신문(1905~1907) 인천관련 기사목록





## 1905년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1월 5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4단	기사
1월 5일	월곶당호 해주행(月串堂湖海州行)	4면 4단	광고
1월 5일	본호에서 인천에서 객주영업한지 십여년에(本号에서 仁港의 客主營業한지 十有餘載에)	4면 4단	광고
1월 6일	경부철도 완전 개통(京釜鐵道全通)	4면 1단	광고
1월 6일	회중시계/사진기계(懷中時計/寫眞機械)	4면 3단	광고
1월 6일	인천항 출범 광고(仁川港出帆廣告)	4면 4단	광고
1월 6일	인천항 운선 출범 광고(仁港輪船出帆廣告)	4면 4단	광고
1월 9일	인천항 일진회 회의록(一進會錄)	2면 3단	기사
1월 9일	멕시코 이주 농부 모집 광고(農夫募集廣告)	4면 1단	광고
1월 10일	대한제국 역부 의로움을 드러내다(役夫出義)	3면 1단	기사
1월 11일	인천군 도적을 경계하다(仁川賊警)	2면 3단	기사
1월 13일	인천항 감리와 주일공관 참서관이 자리를 바꾸다(監參相換)	2면 1단	기사
1월 19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월 19일	각관 및 대관 임명(各官及大官)	2면 4단	기사
1월 21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3단	기사
1월 21일	철도수하물운수 개업광고(鐵道荷物運輸開業廣告)	3면 2단	광고
1월 23일	박문학교 인재를 기르다(博校成材)	3면 1단	기사
1월 24일	영국 함장 입성(艦長入城)	2면 3단	기사
1월 25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월 25일	주경청공사 귀국 예정(淸使將歸)	2면 2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1월 27일	주경청공사 입성(淸使入城)	2면 3단	기사
1월 27일	인천항 운선 출범 광고(仁港輪船出帆廣告)	4면 4단	광고
1월 27일	인천항 운선 출범 광고(仁港輪船出帆廣告)	4면 4단	광고
1월 28일	저축채권 발매 광고(貯蓄債券發賣廣告)	3면 2단	광고
1월 31일	전우총국 실화 발생(電郵失火)	1면 4단	기사
2월 1일	회중시계/사진기계(懷中時計/寫真機械)	4면 3단	광고
2월 1일	인천항 운선 출범 광고(仁港輪船出帆廣告)	4면 4단	광고
2월 9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2월 10일	궁정의 일을 기록함(宮廷錄事)	1면 2단	기사
2월 10일	광무 9년 예산표(光武九年度豫算表)	3면 1단	기사
2월 11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2월 11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위생고문 파견(衛生顧問)	2면 4단	기사
2월 13일	광무 9년 예산표(光武九年度豫算表)	3면 1단	기사
2월 13일	본인이 인천 용동 안인기의 허락을 받고 추차당坪 38,180냥 어음 1편을(本人이 仁川龍洞安仁基許의 推次當坪三萬八千 一百十八兩於音一片을)	3면 3단	광고
2월 15일	조회 때 면세를 청하다(照請免稅)	2면 1단	기사
2월 15일	대저 강화도는 4천여년 개척지요 교린 과 화해의 시작처라 산천이 아름답고(夫 江華島난 四千餘年開拓之地요 交隣和好 開始之處라 山川이 佳麗하고)	3면 2단	광고
2월 20일	인항 신흥동 기지 일인 우영통구가 매도 하고 세금을 거둔지 이미 몇 년이라 이번 봄 한 동네 인가가 전부 헐릴 지경에 이 르다(仁港新興洞基地日人友永樋口賣渡收 稅已有年矣今春一洞人家迨至毀撤之境)	3면 4단	광고
2월 21일	경기도 관하 부윤, 군수의 가을·겨울 치 적(京畿管下府尹郡守秋冬等治績)	1면 3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2월 21일	광무 9년 예산표(光武九年度豫算表)	3면 2단	기사
2월 24일	북미 멕시코로 떠나는 배가 음력 이번 달 26일 오전 10시에 인항에서 출발하오니(北美墨西哥로떠나는배가 陰今月二十六日上午十時에 仁港서 出帆오니)	3면 3단	광고
2월 27일	본인이 최근 기계정미소를 인항 정동 가까운 곳에 신설하였사온데(本人이 今般機械精米所를 仁港井洞近地에 新設하였사온데)	3면 2단	광고
2월 27일	한일역부를 동등하게 취급하게 하라(韓日同役)	2면 4단	기사
3월 1일	본인이 최근 기계정미소를 인항 정동 가까운 곳에 신설하였사온데(本人이 今般機械精米所를 仁港井洞近地에 新設하여사온데)	4면 2단	기사
3월 1일	회중시계/사진기계(懷中時計/寫眞機械)	4면 3단	광고
3월 1일	인천항 운선 출발 광고(仁港輪船出帆廣告)	4면 4단	광고
3월 3일	위문입경(慰◆入京)	2면 3단	기사
3월 3일	화상 협흥잔에서 원춘무에게 빌려준 1월 30일에 추심될(華商協興棧에서 元春茂에 照付한 十一月三十日推尋월)	3면 3단	광고
3월 6일	일본 걸인이 대한제국으로 많이 건너오다(日丐多渡)	2면 4단	기사
3월 7일	본 읍 군용철도 터를 닦을 때 인천항 우각동에 사는 손상운, 권경운 양씨가 ◆내려와 공사를 돌보는 중(本邑軍用鉄 道開基時에 仁港牛角洞居孫相雲權景云兩 氏 ◆下來看役)	3면 3단	광고
3월 8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3월 14일	본인이 성명 도장을 잃어버린 이유로 여기에 광고하오니(本人이 姓名圖章을 關	3면 4단	광고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失故玆以廣告하오니)		
3월 17일	독일공사가 외부에 조회를 청하다(德使照請)	2면 3단	기사
3월 21일	영국공사가 외부에 서신을 보내 어려움이 없도록 함(函請無碍)	2면 2단	기사
3월 27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3월 27일	경인 철도 시간표 개정(京仁線時間改正)	3면 2단	광고
3월 28일	기상대 낙성연회를 성대하게 열다(象臺盛宴)	2면 4단	기사
4월 1일	기상대 사무장 중촌이 폐하 알현을 청하다(中村請陛)	2면 2단	기사
4월 1일	경인철도 시간표 개정(京仁線時間改正)	3면 3단	광고
4월 1일	회중시계/사진기계(懷中時計/寫眞機械)	4면 3단	광고
4월 1일	인천항 운선 출범 광고(仁港輪船出帆廣告)	4면 4단	광고
4월 3일	이민금지를 각 항구 감리에게 전훈하다(電禁移民)	2면 4단	기사
4월 4일	이민농민 인천항에서 출발(移民出航)	2면 3단	기사
4월 5일	많은 사람들이 이민하는 것을 훈령으로 금하다(訓禁多數)	2면 4단	기사
4월 7일	궁내부의 특인이 있었다(宮府有認)	2면 4단	기사
4월 8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4월 10일	궁내부의 인허와 외부의 이민금지훈칙(宮認外禁)	2면 2단	기사
4월 12일	미국 수병 입성(美水兵入城)	2면 2단	기사
4월 14일	인천항 일본인 호구 수(仁港日戶)	2면 5단	기사
4월 17일	인천항 축현 외동의 초가 4칸을 이번 달 2일에 조영순이 거처할 집을 사기 위해 집문서를 작성하려 한 즉 판매자가 (仁港杻峴外洞草家四間을 今二月日趙永	3면 3단	광고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淳處買居而家卷欲推則賣主가)		
4월 18일	전선을 절단하던 일본인이 부평 동민에게 잡히다(截線被捉)	2면 4단	기사
4월 19일	일본 체신성 관리 등 내한(遞信官來韓)	2면 5단	기사
4월 19일	장단에 사는 박승순이 자(字)는 자익인데 서울과 지방에 출몰하여야 위조 문권으로 빚을 얻고자 하오니(長湍居朴勝恂이 字는子翼인데 出沒京鄕하야 偽造文卷欲得債錢오니)	3면 2단	광고
4월 20일	석유발동기 순항선 시범운행(機船試航)	2면 4단	기사
4월 24일	적십자사 인천지소 창설 예정(赤社支所)	2면 4단	기사
4월 24일	해세의 정당한 부담(海稅正供)	3면 1단	기사
4월 25일	경부철도 직행열차(京釜鐵道直行列車)	3면 3단	광고
4월 27일	인천 신어시장 기지 인허(魚場認許)	2면 3단	기사
5월 1일	강민의 청원(江民請願)	3면 1단	기사
5월 1일	회중시계/사진기계(懷中時計/寫眞機械)	4면 3단	광고
5월 1일	경부철도 직행열차(京釜鐵道直行列車)	4면 2단	광고
5월 2일	본인의 재종손부에게 위답 6마지기 받을 갈고 봉사하며 자생하였다(本人再從孫婦以位畚六斗落田一日耕奉祀資生矣)	3면 2단	광고
5월 3일	부평 동민을 타일러 전선을 지키게 하다(曉諭保守)	2면 5단	기사
5월 4일	주러시아공사 심영섭씨 등 귀국(沈氏歸國)	2면 3단	기사
5월 5일	월미도사건(月島事件)	2면 3단	기사
5월 6일	러시아 함대의 우회설(俄艦隊東航說)	1면 4단	기사
5월 6일	[기사]상춘감탄 인항 유학생 윤인일([寄書]賞春感歎 仁港留學生尹仁一)	2면 1단	독자란
5월 6일	개항장 경찰 관제 편성(港場警制)	2면 3단	기사
5월 6일	한국금융기관론(韓國金融機關論)	3면 1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5월 10일	훈령으로 이민자를 정탐하다(訓探移民)	2면 3단	기사
5월 11일	일본 농상무성 기사 곧 도착 예정(農師續渡)	1면 4단	기사
5월 11일	프랑스 공관 호위병 철수(法兵撤歸)	2면 3단	기사
5월 11일	요동 연안의 항로 개시(遼海航船)	3면 1단	기사
5월 11일	훼철 가옥에 대한 세금 일부를 면제함을 보고하다(報請鑄戶)	3면 2단	기사
5월 12일	상해-연태-인천 항로 계획(仁海航路)	2면 4단	기사
5월 12일	부산, 인천, 경성에 일본재판관특설(裁判官特設)	3면 2단	기사
5월 15일	일본공사대리 등이 폐하를 알현하다(日使將官陛見)	2면 3단	기사
5월 18일	우편국 증설(郵局增設)	1면 3단	기사
5월 19일	복현궁의 만주시찰(伏見宮의 滿洲視察)	1면 1단	기사
5월 19일	일본인 강부 자작의 담화(岡部談話)	1면 4단	기사
5월 19일	인천항 일본인 호구(仁港日戶)	3면 1단	기사
5월 20일	두개 항로 개시(兩路開始)	1면 4단	기사
5월 20일	인천항의 일본인 호구 수 급증(日人繁殖)	1면 4단	기사
5월 20일	인천항 일어학교 졸업생을 곧바로 서임하다(學優則仕)	2면 3단	기사
5월 20일	인천항 운선 출범 광고(仁港輪船出帆廣告)	4면 5단	광고
5월 22일	원산항 일본영사가 내부에 전보하다(元港來報)	2면 3단	기사
5월 27일	주 영국명예영사가 전보를 보내오다(駐英館來電)	2면 2단	기사
5월 29일	박공왕이 경성에서 인천으로 왔다 다시 돌아가다(博恭王來發)	2면 2단	기사
5월 29일	[기사]인천 일어학교 교사 암기후태랑의 합동기한 연장([寄書]岩崎師續聘)	3면 1단	독자란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5월 29일	[기서]일본 선박 통행 금지([寄書]禁止航行)	3면 2단	독자란
6월 1일	특과대사 박공왕이 청나라로 향하다(大使渡淸)	2면 3단	기사
6월 1일	회중시계/사진기계(懷中時計/寫眞機械)	4면 3단	광고
6월 2일	인천일어학교 교사 암기후태랑의 합동기한 연장(岩崎續聘)	2면 3단	기사
6월 2일	근업사 설립(勤業設社)	2면 5단	기사
6월 3일	인천항 사촌에 사는 본 상인들은 시탄 및 선주 영업으로 자생해온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本商等在仁川港沙村以柴炭及船主營業資生已所屢年矣)	3면 3단	광고
6월 8일	독일공사가 외부에 조회를 청하다(德使照請)	2면 3단	기사
6월 8일	인천항 신상회사의 청원(紳商請願)	3면 1단	기사
6월 10일	만주와 대한제국의 경영(滿韓의 經營)	3면 2단	기사
6월 12일	영국공사가 외부에 조회를 청하다(英使照請)	2면 3단	기사
6월 13일	온양온천탕 영업개시(溫泉開始)	2면 4단	기사
6월 13일	강화부 사립보창학교 찬성록(江華府私立普昌學校贊成續)	3면 4단	광고
6월 16일	인천항 일본인 인구(仁港口口)	2면 4단	기사
6월 20일	일본공관에 투함하다(投日公館書)	2면 1단	사설
6월 21일	회중시계/사진기계(懷中時計/寫眞機械)	4면 3단	광고
6월 21일	인천항 윤선 출범 광고(仁港輪船出帆廣告)	4면 5단	광고
6월 26일	교환소 설치(交換設所)	2면 3단	기사
6월 26일	금번 폐 운송부에서 공동협의를 한 후 철도 화물 운송업조합을(今般 弊運送部에서 共同協議은 後鐵道貨物運送業組合을)	3면 1단	광고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6월 27일	탁지부령 제1호(度支部令 第一號)	2면 2단	기사
6월 27일	함릉가(흙렁거)상회와 무관(咸會無關)	3면 2단	기사
6월 28일	영국 병사 출발(英兵發往)	2면 5단	기사
6월 30일	새로운 화폐 수송(新貨輸送)	2면 4단	기사
7월 1일	금번 폐 운송부에서 공동협의를 한 후 철도 화물 운송업조합을(今般 弊運送部에서 共同協議은 後鐵道貨物運送業組合을)	3면 1단	광고
7월 1일	회중시계/사진기계(懷中時計/寫眞機械)	4면 3단	광고
7월 1일	인천항 운선 출범 광고(仁港輪船出帆廣告)	4면 5단	광고
7월 3일	수연성향(壽宴盛況)	2면 5단	기사
7월 4일	근조열혈이군(吊李君熱血)	2면 5단	기사
7월 6일	관상합의(官商合議)	2면 4단	기사
7월 7일	탁지부 제5호 세입세출처리순서(度支部 第五號 歲入歲出處理順序)	2면 1단	기사
7월 8일	참서관 이군을 애도하는 글(招參書李君辭)	3면 3단	기사
7월 8일	서울 송현 김판서가 선산 묘목이 인천 우음실에 수백년 배양하였으니(京松峴 金判書家先山邱木니 在於仁川尤音室而 累百年培養矣러니)	3면 4단	광고
7월 10일	교환소 증설(交換所增設)	2면 4단	기사
7월 12일	인천항 사립박문학교 광고(仁川港私立 博文學校廣告)	3면 4단	광고
7월 13일	화폐교환의 인민손해(對貨幣交換之人民損害)	2면 1단	사설
7월 13일	인천항 사립박문학교 광고仁川港私立博文學校廣告)	3면 4단	광고
7월 15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7월 15일	인천항 일본인 인구(仁港日口)	3면 2단	기사
7월 18일	본인의 사촌 금봉과 팔촌 경락 양인이 성본 부랑하여 출몰 경향(本人에 四寸今奉과 八	3면 3단	광고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寸敬樂兩人이 性本浮浪하와 出沒京鄉하야)		
7월 19일	여각 등이 고소(旅閣等訴)	2면 4단	기사
7월 26일	열항회사(列航會社)	3면 1단	기사
7월 27일	양무호 돌아오다(揚武還付)	2면 5단	기사
7월 29일	본인이 웅진 각처에서 추차한 수표와 집 문서, 논문서 수집장과 본인의 성명 도장을(本人이 甕津서 各人處推次手票及家券番券數十張과 本人에 姓名圖章을)	3면 3단	광고
8월 1일	이 씨를 잡아서 넘겨(李氏押交)	2면 3단	기사
8월 1일	회중시계/사진기계(懷中時計/寫眞機械)	4면 3단	광고
8월 1일	인천항 운선 출범 광고(仁港輪船出帆廣告)	4면 5단	광고
8월 2일	관청사항(官廳事項)	1면 2단	기사
8월 2일	본인이 인천항에서 문서를 잃어 버린 일을 광고하였는데 오늘 찾아(本人이 仁港서 文書見失한 事로 廣告이옵더니 今日搜覓)	3면 4단	광고
8월 4일	영국 함선 출항(英艦發行)	2면 5단	기사
8월 5일	한국해 순항(韓海巡航)	2면 5단	기사
8월 5일	금고위치(金庫位寘)	2면 4단	기사
8월 5일	열차가 장마로 피해입어(列車被霖)	2면 4단	기사
8월 5일	일본인 호구(日人戶口)	3면 3단	기사
8월 7일	마갱 씨가 외부에 보고하다(摩賡報部)	2면 3단	기사
8월 7일	청년회에서 정부에 보낸 공문서 전문이 왼쪽과 같으니(靑年會에서 政府에 公函한 全文이 如左하니)	3면 1단	기사
8월 8일	7월 29일 대한일보에 게재한 인천항 신상회사 광고를(七月二十九日大韓日報에 掲載한 仁港紳商會社廣告을)	3면 4단	광고
8월 10일	러시아 함의 증출(俄艦의 拯出)	1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8월 11일	황성신문에 게재한 근업사 광고를 열실 즉 구성칠죄하야(皇城新聞에 掲載한 勤 業社廣告를 閱悉한즉 構成七罪하야)	3면 2단	광고
8월 12일	의로운 혼백이 귀국하다(義魄返國)	2면 4단	기사
8월 12일	궁내대신 이재극 씨는 황실의 지친이요 덕문명망으로(宮內大臣李載克氏는 皇室 至親이오 德門名望으로 施措가)	3면 2단	광고
8월 17일	수도 답사(水道踏査)	3면 2단	기사
8월 19일	일본인이 권업의 표목을 세워(勸業立票)	2면 5단	기사
8월 21일	새 정부 조직에 대하여(對新政府組織說)	2면 1단	사설
8월 21일	인천항 운선 출범 광고(仁港輪船出帆廣告)	4면 5단	광고
8월 23일	본인이 순신창에서 추차한 당지어음 백동 화 3,094원 5각 중(本人이 順信昌推次唐 紙於音白銅貨三千九十四元五角中內渡)	3면 5단	광고
8월 26일	선로 확장(船路擴張)	2면 4단	기사
8월 26일	독일공사가 청도로 감(德使渡淸)	2면 5단	기사
8월 26일	보도제언(普渡堤堰)	3면 2단	기사
8월 28일	미군 병사 교대(美兵交代)	2면 5단	기사
8월 28일	신상회사 유망(紳商有望)	2면 5단	기사
8월 31일	물에서 건진 우리 함(艦)들의 가치에 해 당하는 값(拯出俄艦의 價額)	1면 4단	기사
8월 31일	본계에서 본항 용동 제16통 3호 호주 김성실의 소유 초가 7간 관문서를(本契 에서 本港龍洞第十六統三戶 戶主金聖實 의 所有草家七間官契를)	3면 2단	광고
9월 1일	본인이 순신창에서 추차한 당지어음 백동 화 3,094원 5각 중(本人이 順信昌推次唐 紙於音白銅貨三千九十四元五角中內渡)	3면 5단	광고
9월 1일	회중시계/사진기계(懷中時計/寫眞機械)	4면 3단	광고
9월 4일	미국 순양함 연태로 출발(美艦向烟)	3면 2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9월 4일	철도이원 양성소에서 졸업식을(鐵道養成에 卒業)	2면 4단	기사
9월 5일	탁지부령 제12호(度支部令第十二號)	1면 1단	기사
9월 5일	[기서]구화를 방청하고 독립을 공고케 함 ([寄書]講和를 傍聽하고 獨立을 鞏固케)	3면 1단	독자 란
9월 7일	모군 폐지(募軍廢止)	2면 5단	기사
9월 8일	청염회사 특허(鹽社特許)	2면 3단	기사
9월 9일	땅 계약에 대해 공합하여 청함(函請地契)	2면 3단	기사
9월 9일	인천항 총 호구(仁港戶總)	2면 5단	기사
9월 11일	진주에 거주하는 강영일이 인천항에서 6만 냥의 엽전을 어음으로 교환하였는데 (晉州居姜永逸이 有所推葉錢六萬兩於仁港인바)	3면 2단	광고
9월 11일	진주에 거주하는 강영일이 엽전 6만 냥을 어음으로 바꾸었는데 인천항 객주처에서 발급한(晉州居姜永逸이 葉六萬兩을 執換하였는데 仁港客主處에 所推)	3면 3단	광고
9월 12일	인천항 비바람으로 재난(仁港風災)	2면 3단	기사
9월 15일	인천감리 청유(仁監請由)	2면 2단	기사
9월 19일	청회의 청년회의 회보 출간과 삭발(靑會의 刊起剃髮)	2면 5단	기사
9월 20일	영랑입성(令娘入城)	2면 3단	기사
9월 25일	미국 기함 부산으로(美艦向釜)	2면 5단	기사
9월 25일	신상과 미상 두 회사 유지(兩社有志)	2면 5단	기사
9월 25일	독일 군함 출항(德艦發往)	3면 1단	기사
9월 27일	인천항감리 체임(仁監遞任說)	2면 3단	기사
9월 27일	변호사 회의 안건(辯士議案)	2면 5단	기사
9월 27일	회사연금(會社捐金)	2면 5단	기사
9월 30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10월 2일	인천 백성이 집을 잃어(仁民失所)	3면 1단	기사
10월 2일	회중시계/사진기계(懷中時計/寫眞機械)	4면 3단	광고
10월 7일	총순을 호송함(總巡起送)	2면 4단	기사
10월 10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10월 12일	이 달 9일에 본인 피홍규는 성명장을 유실하고 새 도장은 피교진으로 (本月九日 에 本人皮鴻奎姓名章을 遺失하고 新圖章 은 皮敎鎭으로)	3면 3단	광고
10월 17일	어학자벽(語學自辟)	2면 5단	기사
10월 19일	유배가 풀려 사저로 돌아와(解配還邸)	2면 4단	기사
10월 19일	침수지역 답사(漲灘踏査)	2면 4단	기사
10월 20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10월 20일	22명 군수(廿二郡守)	2면 3단	기사
10월 20일	백 씨가 연회를 열어(柏氏設宴)	2면 4단	기사
10월 21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10월 23일	화폐조례반포(貨條頒佈說)	2면 1단	기사
10월 23일	민간집을 훼손한 사건(民戶毀撤事件)	2면 3단	기사
10월 24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10월 24일	학교부지 투매(校土偷賣)	2면 4단	기사
10월 25일	해관전장(海關傳掌)	2면 3단	기사
10월 25일	한국을 수비하려는 일본군병 인천 도착 (守備日兵到仁)	2면 3단	기사
10월 27일	서대문 반석방 합동(西署磐石坊蛤洞)	3면 2단	광고
10월 28일	도량법이 장차 시행되니(度量法將施)	2면 3단	기사
10월 28일	이 씨가 일본 헌병에 붙잡혀(李氏被捉)	2면 4단	기사
10월 30일	미군 보호병 철수하여 돌아가(美兵撤還)	2면 3단	기사
10월 30일	부평에서 황재연이 전답권과 수표 1장 을 도적을 만나 모두 잃어버렸으니(富平	3면 1단	광고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黃在淵田畚券과 手票一張逢賊時並失)		
10월 30일	일본 군병 인천으로 입성(日兵續入)	2면 3단	기사
11월 1일	수비대에서 병참사무를 시무하게 되어 (守隊代站)	2면 4단	기사
11월 1일	세관전장(稅關傳掌說)	2면 4단	기사
11월 1일	인천수비대 교대(仁川守隊交代)	2면 4단	기사
11월 1일	회중시계/사진기계(懷中時計/寫眞機械)	4면 3단	광고
11월 2일	오른쪽 두 집을 방매할 터이니 사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인에게로 문의하시오 (右二家を 放賣 터이니 願買하시난 人은 本人에게로 來議하시오)	3면 2단	광고
11월 6일	강화부 사립보창학교 찬성금(江華府私 立普昌學校贊成金)	3면 5단	광고
11월 7일	외부에서 내부에 회답하되(外復內部)	2면 2단	기사
11월 7일	도량형 판매(度量衡販賣)	2면 5단	기사
11월 8일	일본선박의 검사(日航船舶의 檢査)	2면 5단	기사
11월 9일	일본 수비대 귀국차 출발(日隊發歸)	2면 3단	기사
11월 11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1월 15일	금광폭약에 면세를 청함(礦爆請免)	2면 3단	기사
11월 16일	24명의 군수(廿四郡守)	2면 2단	기사
11월 17일	재정고문 설명(속)[財顧說明(續)]	1면 4단	기사
11월 17일	이토대사 황제를 접견(伊使陛見)	2면 3단	기사
11월 18일	재정고문 설명(속)[財顧說明(續)]	1면 3단	기사
11월 18일	조개를 캐러 갔다 물에 빠져 죽어(採蛤鎔死)	2면 4단	기사
11월 18일	철도감부의 수장의 연설(鐵道監都演說)	3면 1단	기사
11월 20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11월 20일	5건 조약 청체의 전말(五件條約請締顛末)	2면 2단	기사

## 1906년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2월 12일	미국 우오루사루 스위스 다우한스(美國 우오루사루 瑞西 다우한스)	4면 4단	광고
2월 12일	인천항 윤선 출범(仁港輪船出帆)	4면 5단	광고
2월 13일	지폐 모두 불타(紙貨亦燼)	2면 4단	기사
2월 16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
2월 17일	김 씨 특별히 석방(金氏特放)	2면 4단	기사
2월 17일	어떠한 사단이 있었는가(有何事段)	3면 2단	기사
2월 21일	이사관의 성명(理事聲明)	2면 3단	기사
2월 21일	인천경찰의 누락된 비용(仁警漏費)	3면 1단	기사
2월 22일	통감부에서 내부에 조회하다(統照內部)	2면 4단	기사
2월 22일	경성 인천 간 우편 연락 시각표(京仁間郵便聯絡時刻表)	3면 2단	기사
2월 23일	내부에서 통감부에 조회하다(內照統府)	2면 2단	기사
2월 27일	통감의 행선소리(統監行聲)	2면 2단	기사
3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
3월 1일	미국 우오루사루 스위스 다우한스(美國 우오루사루 瑞西 다우한스)	4면 4단	광고
3월 1일	인천항 윤선 출범(仁港輪船出帆)	4면 5단	광고
3월 7일	보조동화의 수입(補助銅貨輸入)	2면 3단	기사
3월 7일	술 빚는 쌀의 양(釀酒米額)	3면 4단	기사
3월 8일	인천항 자선(仁港慈善)	3면 3단	기사
3월 8일	셋을 잡고 하나는 보호(三拘一護)	3면 3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3월 9일	새 화폐 유통액(新貨流通額)	2면 4단	기사
3월 13일	천한 관리를 훈령하여 다스림(訓諭奸吏)	3면 3단	기사
3월 15일	일본군대 교대 귀국(日隊交歸)	2면 4단	기사
3월 21일	감리와 국장이 서로 교체(監局相換)	2면 2단	기사
3월 22일	수비대 귀국(守隊歸國)	2면 4단	기사
3월 23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3월 23일	간석지 매축(漲灘填築)	2면 2단	기사
3월 23일	교사봉급(教師俸給)	2면 2단	기사
3월 27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3월 29일	일본 군함 9척(日艦九隻)	3면 1단	기사
3월 30일	재정고문 의견(財顧意見)	2면 1단	기사
3월 30일	일진회의 제안(一會提案)	2면 5단	기사
3월 31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4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
4월 1일	인천항 윤선 출범(仁港輪船出帆)	4면 5단	광고
4월 2일	본부 경내에 본인이 소유한 장토(本府境內所有本人의 庄土)	3면 6단	광고
4월 2일	미국 우오루사루 스위스 다우한스(美國 우오루사루 瑞西 다우한스)	4면 4단	광고
4월 2일	인천항 윤선 출범(仁港輪船出帆)	4면 5단	광고
4월 3일	김 군수의 조회(金倅照會)	2면 6단	기사
4월 3일	강화부 사립보창학교 찬성금 (속)(江華府私立普昌學校贊成金 續)	3면 5단	광고
4월 3일	소학(小學) 보통학원 모집 광고(小學普通學員 募集 廣告)	3면 6단	광고
4월 4일	학사(學事)	1면 2단	기사
4월 4일	일본 군함 출항(日艦發向)	1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4월 4일	강화부 사립 보창학교 찬성금 (속)(江華府私立普昌學校贊成金 續)	3면 3단	광고
4월 5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4월 5일	관청의 사항(官廳事項)	1면 5단	기사
4월 5일	인천항 사람들에게 감사를 청함(仁民致謝)	2면 4단	기사
4월 9일	통감 환영(統監歡迎)	2면 3단	기사
4월 9일	수도국의 관제(水道局官制)	3면 3단	기사
4월 10일	인천항 수도 부설(仁川港水道敷設)	2면 1단	기사
4월 11일	러시아 대사의 선언(俄國大使의 宣言)	1면 3단	기사
4월 12일	왕립한 참석자 환영(往叅歡迎)	1면 4단	기사
4월 12일	보창학교 시험(普校試驗)	4면 1단	기사
4월 13일	평양 수도 부설계획(平壤水道敷設計劃)	1면 4단	기사
4월 13일	일본 거류관민의 통감 환영 경황(日民의 統監歡迎景況)	1면 4단	기사
4월 13일	일본 함대 출항(日艦發錨)	1면 4단	기사
4월 13일	일본 병사를 각지로 보내어 보내어 주둔(日兵派駐各地)	1면 4단	기사
4월 13일	전선과 전목의 공급 수(電桿給價)	2면 5단	기사
4월 17일	강화부의 중학교(江府中校)	1면 5단	기사
4월 17일	세를 내는 것에 힐난함을 조회(會詰稅供)	4면 1단	기사
4월 18일	일본함대 여순으로 향함(日艦向旅)	2면 3단	기사
4월 18일	재물을 훔친 죄수를 잡음(盜財捉囚)	4면 1단	기사
4월 19일	대동고사(大東古事)	1면 6단	기사
4월 19일	예 씨가 득하고 일본이 담당함(芮得日擔)	2면 4단	기사
4월 19일	교장이 교사를 신축함을 청함(校長請舍)	3면 1단	기사
4월 21일	인천항 일본인 호구(仁港日戶口)	3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4월 21일	부윤이 학교 설립을 청하다(尹請設校)	3면 5단	기사
4월 21일	본인의 종숙 필수가(本人에 從叔必壽가)	4면 1단	광고
4월 23일	한성부 참서관의 체임(漢叅遞任)	2면 2단	기사
4월 23일	수도귀결(水道歸決)	2면 3단	기사
4월 23일	일본인이 강제로 점유(日人勒占)	3면 2단	기사
4월 23일	최 씨가 열심(崔氏熱心)	3면 4단	기사
4월 24일	영화학교 봄의 업적(永校春勳)	3면 2단	기사
4월 26일	양궐을 관람(拜觀兩闕)	3면 2단	기사
4월 26일	우리나라의 일본군대 주둔 위치(我國에 日本 駐隊位置)	2면 5단	기사
4월 27일	수도시작(水道始作)	3면 3단	기사
4월 27일	장단수출품(長湍輸出品)	1면 4단	기사
4월 28일	각 지방 신화폐 유통액(各地方新貨流通額)	2면 5단	기사
4월 28일	잡세를 없애라고 훈령(訓罷雜稅)	2면 3단	기사
5월 1일	주주모집 훈령(訓募株主)	2면 3단	기사
5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
5월 3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5월 3일	학도를 보호(保護學徒)	2면 2단	기사
5월 4일	수도국 기사 고용(水局傭士)	2면 3단	기사
5월 5일	인천항 전봇대(仁港電桿)	2면 4단	기사
5월 5일	보창학교의 지교(普昌支校)	3면 4단	기사
5월 7일	또 하나의 매매 도적(又一賣賊)	3면 2단	기사
5월 12일	민영찬 공사 귀국(閔使歸國)	2면 3단	기사
5월 14일	소금회사 시설 허가(鹽社許施)	3면 3단	기사
5월 15일	양정의숙 창립식(養正創立式)	3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5월 18일	박람회 참석 인원(博覽參員)	1면 6단	기사
5월 18일	간힌 죄수의 석방을 청함(被囚請放)	2면 2단	기사
5월 18일	학도를 위로하여 보냄(慰送學徒)	2면 3단	기사
5월 19일	문서로 지계에 청함(函請地契)	2면 3단	기사
5월 19일	절의 논을 학교에 속함(寺畓屬校)	2면 6단	기사
5월 21일	죽었다 다시 살아남(死而復生)	2면 3단	기사
5월 21일	농공은행 모집(農銀募集)	2면 4단	기사
5월 23일	인지첨입을 시행(印紙添施)	2면 2단	기사
5월 26일	일어학교 졸업식(日校卒業式)	2면 2단	기사
5월 28일	탁지부령 제8호(度支部令第八號)	1면 3단	기사
5월 28일	탁지부령 제9호(度支部令第九號)	1면 3단	기사
5월 28일	탁지부령 제10호(度支部令第十號)	1면 3단	기사
5월 28일	학교설립반대(設校反對)	2면 6단	기사
5월 29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5월 29일	조회하여 초원을 청함(照請草坪)	2면 5단	기사
5월 29일	강화부 향교의 사립중성학교 개교식 (江華府鄉校의 私立中成學校開校式)	4면 5단	기사
5월 30일	경찰 사무확장을 꾀함(請警務擴張)	3면 3단	기사
5월 31일	학사(學事)	1면 3단	기사
6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
6월 8일	농상공부가 인천감리에게 훈령을 내림 (農訓仁監)	3면 3단	기사
6월 9일	송양서원에서 개교식(開校崧陽)	2면 5단	기사
6월 13일	매음을 영업(賣淫營業)	2면 6단	기사
6월 15일	구역을 정함(區域劃定)	2면 5단	기사
6월 18일	일본인의 범법행위(日人の 法外行爲)	2면 5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6월 18일	땅을 파다 사상(掘土死傷)	2면 5단	기사
6월 19일	수도비 지불(水道費支撥)	2면 1단	기사
6월 25일	체납으로 감봉함(愆納減俸))	2면 6단	기사
6월 25일	보창학교 운동회 시행(普昌運動)	3면 5단	기사
6월 28일	전라남도 일본군(全南日軍)	2면 4단	기사
6월 29일	러시아 선박의 동양항로 개시(俄船의 東洋航路 開始)	1면 4단	기사
6월 30일	순검을 엄벌하여 징계에 처함(悖巡懲處)	2면 6단	기사
6월 30일	7월 1일부터 개업(七月一日부터 開業)	4면 1단	광고
7월 2일	전 씨 병사 자살(全兵自斃)	2면 6단	기사
7월 2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
7월 3일	함장이 사람을 구함(艦長救人)	1면 6단	기사
7월 3일	인천감리 품의를 올림(仁監質稟)	2면 4단	기사
7월 4일	검시관이 정성을 다함(檢官得情)	1면 6단	기사
7월 6일	바다를 건너기 또한 어려움(渡海亦難)	2면 4단	기사
7월 6일	군부에서 검안에 대해 조회함(軍照檢案)	2면 4단	기사
7월 7일	영화학교 졸업식(永校卒業式)	3면 5단	기사
7월 10일	일종생명보험주식회사 계약의 상황(日宗生命保險株式會社 契約의 狀況)	3면 3단	기사
7월 11일	졸업우등(卒業優等)	1면 4단	기사
7월 13일	고 씨의 아름다운 거행(高氏美舉)	3면 3단	기사
7월 14일	수도비 지불을 청함(水道費 請撥)	2면 3단	기사
7월 18일	선장에게 표창(船長褒証)	2면 3단	기사
7월 18일	양민을 잘못하여 죽임(誤殺良民)	3면 5단	기사
7월 24일	두 도적을 잡아 옥에 가둠(兩賊捉囚)	2면 5단	기사
7월 27일	도적 현치하를 낱낱히 조사함(玄盜查覈)	2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7월 28일	민단설립(民團設立)	1면 5단	기사
8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
8월 2일	어떤 사람이 옳은가(是何人斯)	2면 3단	기사
8월 2일	조사하여 바로 잡아 달라함(照有查正)	2면 5단	기사
8월 3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8월 3일	삼조법률사무국(森肇法律事務所)	1면 6단	광고
8월 6일	인천감리 정부에 보고(仁監報政)	2면 6단	기사
8월 9일	부산항 수도(釜港水道)	2면 3단	기사
8월 10일	감고를 올려 학교로 옮김(升監付校)	3면 3단	기사
8월 11일	교육이 점차 넓어짐(教育漸張)	2면 5단	기사
8월 13일	사필귀정(事必歸正)	2면 4단	기사
8월 14일	삼가 아웁니다. 지금 상업에 힘쓸 시대에(敬啓者而今商業을 힘쓸 時代에)	4면 3단	광고
8월 15일	속성부기회(速成簿記會))	3면 4단	기사
8월 16일	군용철도 감부 원유회(監部園遊會)	2면 6단	기사
8월 17일	정부가 통감부에 조회함(政照統府)	2면 3단	기사
8월 18일	법부에서 경기관찰부에 훈령함(法訓畿府)	2면 5단	기사
8월 20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8월 22일	면세청원(免稅請願)	2면 6단	기사
8월 23일	두 부윤을 견책함(兩尹譴責)	2면 4단	기사
8월 24일	신진부(新進部)	4면 1단	광고
8월 27일	일본인이 강제로 세워진 표목을 뽑아 버림(日人勒立標木拔去)	2면 3단	기사
8월 28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8월 28일	지금고 부속 각부(支庫附屬 各郡)	2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8월 28일	사기꾼을 압송함(欺騙被押)	2면 6단	기사
8월 29일	영왕부 개간 인허(英王府 開墾 認許)	2면 4단	기사
8월 30일	학교행정 변경(學政變遷)	2면 4단	기사
8월 31일	개간을 허락한 이유를 분명히 밝힘(示明許墾理由)	2면 6단	기사
8월 31일	문서 인허에 얽힌 것을 풀 것(應信請付)	3면 4단	기사
9월 1일	두 부서의 문서가 적체됨(二府滯籍)	2면 4단	기사
9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
9월 3일	칙령 제40호(勅令 第四十號)	1면 2단	기사
9월 5일	사령관 입성(司令官 入城)	2면 3단	기사
9월 5일	러시아 영사 차례(俄事次第)	2면 6단	기사
9월 6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9월 7일	서기를 올려 보냄(書記押上)	2면 4단	기사
9월 8일	지방제도(地方制度)	2면 5단	기사
9월 8일	본인의 대리인 여성하가(本人에 幹事人 魚聖夏가)	3면 5단	광고
9월 10일	칙령 제45호(勅令 第四十五號)	1면 2단	기사
9월 10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3단	기사
9월 12일	인천감리 보고(仁監報告)	2면 4단	기사
9월 12일	죄수를 전도함(傳道罪囚)	2면 4단	기사
9월 17일	영국 중장이 함대에서 연회(英將艦宴)	2면 3단	기사
9월 19일	지방제도 제의(地制提議)	2면 2단	기사
9월 20일	훈령을 내려 계약서를 발급함(訓飭發契)	2면 3단	기사
9월 22일	특별광고(特別廣告)	3면 6단	광고
9월 25일	문명록(文明錄)	3면 1단	광고
9월 29일	칙령 제48호(勅令第四十八號)	1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9월 29일	여자교육에 열심(女子教育熱心)	2면 5단	기사
10월 1일	부윤서임(府尹叙任)	2면 2단	기사
10월 1일	27명의 군수(廿七郡守)	2면 2단	기사
10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
10월 1일	특별광고(特別廣告)	3면 6단	광고
10월 2일	잡세가 넘치는 것을 벌함(雜稅濫討)	2면 4단	기사
10월 5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0월 8일	육운미곡회사 설립(陸運設社)	3면 1단	기사
10월 9일	내부에서 인천부윤에게 훈령함(內訓仁尹)	2면 3단	기사
10월 9일	의복비 지불을 청함(服費請撥)	2면 4단	기사
10월 9일	총순의 행정(總巡行政)	3면 4단	기사
10월 9일	영화학교 가을운동회(永校秋動)	3면 4단	기사
10월 12일	염운회사 설립(鹽運會社設立)	3면 1단	기사
10월 13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0월 16일	자백하여 징역에 처함(自服處役)	2면 5단	기사
10월 16일	선희궁이 민정을 염려함(宮念民情)	3면 3단	기사
10월 17일	공정히 선발하라 훈령함(訓飭公選)	2면 4단	기사
10월 18일	민단조직(民團組織)	2면 6단	기사
10월 19일	시학관 보고(視學官 報告)	3면 3단	기사
10월 20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0월 20일	백성이 원망하는 마음을 호소함(民訴冤情)	2면 5단	기사
10월 20일	학부에서 안 수령의 면관을 청함(學請 安倖免官)	2면 5단	기사
10월 20일	강화보창학교 가을시험(江校秋試)	2면 6단	기사
10월 20일	우등상을 시상함(施賞優等)	3면 4단	기사
10월 22일	조계확정(租界確定)	2면 2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10월 22일	결과는 즉 면직에 해당(果則當免)	2면 3단	기사
10월 23일	승려가 논 환속을 청함(僧訴推畜)	2면 5단	기사
10월 26일	해산협동회사가 상민을 강제로 강탈함 (海産協同會社 勒討商民)	3면 2단	기사
10월 26일	총세무사의 허가를 얻어(總稅務司의 許可를 得하야)	4면 1단	광고
10월 27일	인천감리 보고(仁監報告)	2면 5단	기사
10월 29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0월 29일	궁정녹사(宮廷錄事)	1면 2단	기사
10월 30일	통감출입(統監出入)	2면 2단	기사
10월 30일	미곡상의 미혹된 생각(米商迷想)	3면 3단	기사
10월 31일	진흥회사에서 농상공부 인허를 받아(進 興會社에서 農商工部 認許를 承하야)	3면 6단	광고
11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株式會社 公 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
11월 1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1월 1일	포사도파원에 뇌물(庖員賄賂)	2면 6단	기사
11월 5일	부와 군의 서임(府郡叙任))	2면 3단	기사
11월 5일	3부의 참서관(三府叅書)	2면 3단	기사
11월 5일	인천에 경보(仁川警報)	3면 4단	광고
11월 6일	공무국장 새로 임명(工長新任)	2면 3단	기사
11월 7일	독일군함 인천 도착(德艦倒仁)	2면 3단	기사
11월 8일	두 명의 전임(兩氏轉任)	2면 3단	기사
11월 8일	내부에서 학부에 조회함(內照學部)	2면 3단	기사
11월 8일	결과는 즉 월권(果則越權)	2면 4단	기사
11월 9일	각 사람을 유배 보냄(各人發配)	2면 3단	기사
11월 9일	안 씨 범인이 법률에 의하여 처분됨 (安犯當律)	3면 5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11월 10일	영국 군함 인천항에 도착(英艦到仁)	2면 4단	기사
11월 13일	소생이 의업에 종사한지(生이 醫業從事한지)	4면 3단	광고
11월 14일	죄수가 아닌 즉 보관(非囚即保)	2면 4단	기사
11월 15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1월 16일	학부에서 내부에 조회(學照內部)	2면 3단	기사
11월 16일	신진부(新進部)	4면 1단	광고
11월 17일	법부령 제3호(法部令 第三號)	1면 3단	기사
11월 20일	관립한성사범학교 교원(官立漢城師範學校 教員)	4면 2단	광고
11월 21일	러시아영사 관할 구역(俄事管轄區)	2면 2단	기사
11월 21일	부평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함(富民呼冤)	2면 5단	기사
11월 24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1월 24일	보창학교에 기금(寄金普昌校)	2면 5단	기사
11월 24일	개항하지 않은 항구에서 몰래 상행위(不通港潛商)	2면 6단	기사
11월 26일	법부대신이 인천에 내려 옴(法相下仁)	2면 3단	기사
11월 29일	부평 수령의 공적(富倅政跡)	2면 6단	기사
12월 1일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株式會社 公立漢城銀行)	3면 5단	광고
12월 1일	전라북도 임피군(全羅北道 臨陂郡)	4면 5단	광고
12월 3일	두 관리를 대질(兩官面質)	2면 3단	기사
12월 3일	도둑 단속을 위하여 배를 청함(戢盜請船)	2면 5단	기사
12월 3일	백성의 형편이 비참(民情悲慘)	3면 4단	기사
12월 4일	일이 타당하게 판별되지 못함(事不妥決)	2면 4단	기사
12월 7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2월 7일	정식인장(正式認狀)	2면 2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12월 10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2월 13일	본인의 인천항 축현에 있는(本人에 所居仁港杻峴)	3면 5단	광고
12월 14일	일어학교 낙성연(日校落成)	2면 4단	기사
12월 19일	4명의 수령을 관직에서 면함(四倅免官)	2면 4단	기사
12월 19일	세무시찰 출발(稅務視察 發程)	2면 5단	기사
12월 19일	유지인사의 아름다운 거행(志士美舉)	3면 3단	기사
12월 19일	뜻이 있는 이 사람(有志斯人)	3면 3단	기사
12월 22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2월 24일	군수를 아뢰어 재가를 받음(郡奏 裁下)	2면 3단	기사
12월 25일	서임 및 사령(叙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2월 25일	김포군 운양리 노경화가(金浦郡 雲陽里 盧敬화가)	3면 5단	광고
12월 29일	장 씨의 토지 암매(張哥의 土地暗賣)	2면 4단	기사
12월 29일	회원의 특별한 의(會員特義)	3면 2단	기사
12월 31일	조 씨에게 팔고 영국인에게는 그렇지 아니함(賣趙非英)	3면 3단	기사

## 1907년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1월 5일	광무 10년 내외 역사(光武十年度内外歴史)	2면 1단	기사
1월 5일	황성신문 신진부(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1월 5일	주식회사 한성은행(株式會社 漢城銀行)	4면 6단	광고
1월 7일	삼가아뢴 본인이 염업자생인 바 염세를 금년 위시하여(敬啓者 本人이 鹽業資生)	3면 6단	광고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인 바 鹽稅을 今年爲始하야)		
1월 8일	본인의 죽인 통진 벌곡에 사는 이운하 아명은 기손이라 본래 부랑해서(本人의 族人 通津堡谷居 李芸夏 兒名은 奇孫이 라 性本浮浪하야)	3면 6단	광고
1월 9일	세금 폐단을 바로잡으라 훈령하다(訓正 稅弊)	2면 5단	기사
1월 9일	재정고문 설명(財顧說明)	3면 1단	기사
1월 11일	지회시찰(支會視察)	1면 4단	기사
1월 12일	광무 1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光武十一 年度歲入歲出總預算)	3면 4단	기사
1월 14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1월 15일	정부 물품 면세(御用免稅)	2면 4단	기사
1월 15일	황성신문 신진부(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1월 16일	수도비 옮김(水道費移庫)	2면 4단	기사
1월 16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1월 16일	농업환등(農業幻燈)	3면 3단	기사
1월 18일	탁지부에 공문을 보내다(統函度部)	2면 4단	기사
1월 19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1월 22일	간호사 포상을 청하다(看婦請褒)	2면 6단	기사
1월 24일	지사동정(志士同情)	2면 5단	기사
1월 24일	문명록(文明錄)	3면 1단	광고
1월 24일	어대신이 탁지부 대신일 때에 강화 군 향이 많기로 달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 았는데 급한 일로(魚大臣度大時에 以江 華軍餉多月未下時急事로)	3면 3단	광고
1월 24일	재일본 단지유학생 학자의연(在日本斷 指留學生學資義捐)	4면 4단	광고
1월 26일	황성신문 신진부(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1월 26일	재일본 단지유학생 학자의연(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	4면 4단	광고
1월 28일	두 여성이 재산을 다투다(兩女爭財)	2면 5단	기사
1월 28일	특사가 왔다 돌아가다(特使往還)	2면 6단	기사
1월 28일	재일본 단지유학생 학자의연(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	4면 4단	광고
1월 29일	학부에서 탁지부에 조회하다(學照度部)	2면 4단	기사
1월 30일	황태자 전하 혼례 때 일본 특과 대사 진중광현 각하께서 인천항에 광림하실 때(皇太子殿下嘉禮時 日本特派大使 田中光顯閣下께서 仁港에 光臨時)	3면 2단	광고
1월 31일	특사가 인천일어학교에 기부하다(特使寄金日校)	2면 4단	기사
2월 2일	장씨의 의로운 마음(張氏義心)	2면 5단	기사
2월 4일	러시아 순양함의 제조(俄國巡洋艦의 製造)	1면 2단	기사
2월 4일	주식회사 한성은행(株式會社 漢城銀行)	4면 6단	광고
2월 5일	황성신문 신진부(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2월 6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2월 6일	군함 포획 기념(捕艦紀念)	2면 4단	기사
2월 7일	정신과 감각(속)(精神과 感覺(續))	2면 1단	사설
2월 8일	문명록(文明錄)	3면 1단	광고
2월 12일	각부 관리를 맞이하다(各官赴邀)	2면 4단	기사
2월 12일	세관이 일이 적음(稅關事簡)	2면 5단	기사
2월 12일	인천 도로 건설비(仁川治道費)	3면 2단	기사
2월 12일	재일본 단지유학생 학자의연(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	4면 4단	광고
2월 15일	세 명의 도적을 모두 잡다(三賊並捉)	2면 5단	기사
2월 16일	부기할 서기 초빙(簿記應聘)	2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2월 18일	부령(部令)	1면 2단	기사
2월 18일	[기사] 도량형을 논함([寄書]論度量衡)	1면 4단	독자란
2월 18일	재일본 단지유학생 학자의연(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	4면 4단	광고
2월 19일	부령(部令)	1면 2단	기사
2월 20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2월 21일	금연결심(斷烟決心)	1면 4단	기사
2월 21일	제염 표시 세움(製鹽立標)	2면 3단	기사
2월 23일	일본 군대가 인천을 향함(日隊向仁)	2면 3단	기사
2월 23일	본인 아들 창오가 제작년 음력 2월경에 송건 김덕환 이태영 등과 인천항에서 헤어하여(本人子昌五於再昨年陰二月分與宋健金德煥李台永等諸人邂逅於仁川港)	4면 4단	광고
2월 25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2월 26일	면세를 청하며 조회하다(照請免稅)	2면 4단	기사
2월 27일	제염지 경계를 정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하다(製鹽定界派員)	2면 4단	기사
2월 27일	황성신문 신진부(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3월 4일	황성신문 신진부(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3월 5일	제녕학교가 다시 구제됨(濟寧復濟)	1면 3단	기사
3월 5일	황성신문 값(皇城新聞價)	3면 2단	광고
3월 5일	황성신문 신진부(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3월 6일	인천항 대화재(仁港大火災)	1면 4단	기사
3월 7일	금연하여 빚을 갚는 것이 즉 친일이요 배일이 아니라(斷烟報債가 卽親日이요 非排日)	2면 1단	사설
3월 7일	인천항 대화재 이후 기사(仁港大火後報)	2면 6단	기사
3월 8일	통감부 법무원장 시찰(統員法務視察)	2면 3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3월 8일	도망친 병사가 구타를 당하다(避兵被打)	2면 5단	기사
3월 8일	본인이 이준구 있는 곳에서 음력 정월 23일 즈음 신화 3백 원 어음을 유실하였사오니(本人이 李駿九處에 陰正月廿三日推次 新貨 三百元魚驗을 遺失하였사오니)	4면 3단	광고
3월 9일	인천항 용동의 박삼홍이 보낸 글(仁港龍洞 朴三洪 寄書)	1면 5단	독자란
3월 13일	문명록(文明錄)	3면 1단	광고
3월 13일	입찰광고(入札廣告)	3면 2단	광고
3월 13일	제일본 단지유학생 학자의연(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	3면 5단	광고
3월 14일	부인의 애국성(夫人의 愛國誠)	2면 5단	기사
3월 14일	친한 친구가 신문 값을 대신 갚아주다(愛友代償報價)	2면 6단	기사
3월 14일	문명록(文明錄)	3면 2단	광고
3월 14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3단	광고
3월 15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3단	광고
3월 16일	탁지부에서 인천부에 훈령하다(度訓仁府)	2면 3단	기사
3월 16일	공립과 사립이 터를 두고 다투다(公私競址)	3면 2단	기사
3월 16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4단	광고
3월 18일	지회시찰(支會視察)	2면 4단	기사
3월 18일	본교 신학기에 학생을 다시 모집하니 입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本校新學期에 學員을 更해 募集하오니 入學에 有志人員은)	3면 3단	광고
3월 21일	공문을 보내서 널리 알리라고 함(函請示明)	2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3월 23일	특별히 죄를 용서하라 조서를 내리심 (特旨貸罪)	3면 2단	기사
3월 23일	세금을 훔친 면장(盜稅面長)	3면 2단	기사
3월 25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3월 27일	칙령 제15호(勅令第十五號)	1면 1단	기사
3월 27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國 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5단	광고
3월 28일	주식회사 한성은행(株式會社 漢城銀行)	4면 6단	광고
3월 29일	부기 졸업(簿記卒業)	2면 6단	기사
3월 29일	보창학교의 발전(普校大振)	2면 6단	기사
3월 30일	인천관립일어학교 졸업식(仁校卒業式)	2면 6단	기사
4월 1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國 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4단	광고
4월 5일	오 군수의 선처(吳倅善處)	2면 6단	기사
4월 5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國 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3단	광고
4월 5일	음력 2월 10일 본인 집에 도적의 무리 가 총을 들고 갑자기 쳐들어와(陰二月 旬夜 本人家에 賊黨이 放銃突入하야)	3면 6단	광고
4월 9일	국채보상 의무금 집송 인원과 액수(國 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4월 11일	국채보상 의무금 집송 인원과 액수(國 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4월 12일	일본 이사청에 공문을 보내다(度函日事)	2면 4단	기사
4월 13일	어학교 졸업생(語校卒業生)	1면 2단	기사
4월 13일	백성들이 하소연하다(愚民蚩訴)	1면 3단	기사
4월 13일	두 군수의 청원(兩倅請願)	2면 5단	기사
4월 15일	장례 비용 불허(葬費不許)	2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4월 15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과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4월 16일	단성 총회 연기(團成總會延期)	1면 1단	기사
4월 16일	우편국 소재지(郵便局所在地)	1면 3단	기사
4월 16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과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4월 17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4월 17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과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4월 20일	진고소식(銓考消息)	2면 3단	기사
4월 22일	황성신문 신진부(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4월 23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과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4월 24일	해상 도적이 성함(水賊熾盛)	2면 6단	기사
4월 25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4월 26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4월 26일	수원지 매수(水源地買收)	2면 4단	기사
4월 26일	세금 징수원 보고(稅員報告)	2면 5단	기사
4월 26일	국채보상 의무금 집송 인원과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4월 27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4월 27일	군수 30명(郡守三十)	2면 3단	기사
4월 27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과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4월 29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4월 29일	밀아자에게 연설을 청함(蜜啞請演)	1면 5단	기사
4월 29일	일본 군함이 인천항에 정박하다(日艦到仁)	2면 5단	기사
4월 29일	국채보상 의무금 집송 인원과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4월 29일	본인의 아들이 개성의 본가에 있으면서 지폐 2백 60환을 편지에 동봉하여(本人의 자가 在開城本家하야 紙貨 二百六拾圓을 書簡同封하야)	4면 3단	광고
4월 30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5월 1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 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5월 1일	주식회사 한성은행(株式會社 漢城銀行)	4면 6단	광고
5월 2일	학도 궁궐 배관(學徒拜闕)	1면 5단	기사
5월 3일	지사의거(志士義舉)	1면 4단	기사
5월 3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5월 4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5월 4일	보창학교가 점점 창성하다(普校漸昌)	1면 4단	기사
5월 4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5월 6일	일본 선박이 출항함(日船拔錨)	2면 4단	기사
5월 6일	각 비용을 이관(各費移劃)	2면 4단	기사
5월 6일	교장 초빙(校長延聘)	2면 6단	기사
5월 7일	보국론(속)(保國論(續))	2면 1단	사설
5월 8일	국내 일본인 호구(國內日人戶口)	1면 3단	기사
5월 8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5월 9일	인천천기외숙(仁川千起義塾)	1면 4단	기사
5월 9일	구휼금을 내려 주심(恤金頒賜)	2면 4단	기사
5월 10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5월 11일	제염을 장차 시작함(製鹽將始)	2면 3단	기사
5월 13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5월 13일	철도 개축(鐵道改築)	2면 4단	기사
5월 13일	탁지부에서 3군에 훈령을 내리다(度訓三郡)	2면 6단	기사
5월 14일	원유회 개최(園遊開會)	2면 4단	기사
5월 14일	문명록(文明錄)	3면 1단	광고
5월 15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5월 16일	인천의숙 개명(仁塾改名)	1면 4단	기사
5월 17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5월 18일	세 군수의 청원(三倅請願)	2면 2단	기사
5월 21일	보창학교 운동회(普校運動)	2면 4단	기사
5월 21일	서둘러 늦지 않게 하라(宜急還緩)	2면 4단	기사
5월 21일	인명학교 개숙식(仁校開塾式)	2면 4단	기사
5월 21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5월 22일	농상공부가 탁지부를 조회하다(農照度支)	2면 3단	기사
5월 23일	지사의연(志士義捐)	1면 3단	기사
5월 23일	인명의숙 성황(仁塾盛況)	1면 3단	기사
5월 27일	강화 대운동회 경황(江華大運動景況)	1면 4단	기사
5월 27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5월 28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5월 30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5월 30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6월 1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6월 1일	통감 인천항에 오다(統監仁港行)	2면 4단	기사
6월 5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6월 6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6월 6일	인교 기지 매수 훈칙(仁校基址買收訓飭)	2면 5단	기사
6월 6일	인천항 도둑 단속 방법(仁港戢盜方略)	2면 5단	기사
6월 7일	통감이 인천항에 왔다는 후문 (統監下仁續聞)	2면 3단	기사
6월 7일	네 군수 의원면직(四倅依免)	2면 4단	기사
6월 8일	[가서] 멕시코에 머물러 있는 동포의 참상 ([寄書] 墨西哥에 留在한 同胞의 慘狀)	2면 1단	독자란
6월 10일	인민을 보호함은 마땅히 이와 같이 (保護人民固當如是)	2면 4단	기사
6월 11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6월 15일	반드시 폐단이 없게 하라(必也使無弊)	2면 4단	기사
6월 17일	조지사 창설(造紙社創設)	2면 4단	기사
6월 18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6월 20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 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6월 21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 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6월 22일	인천군 도적을 경계하라(仁郡賊警)	1면 4단	기사
6월 25일	황성신문 신진부(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6월 27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 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6월 29일	26명의 군수(二十六郡守)	2면 3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6월 29일	탁지부에서 과친군에 훈령하다(度訓果郡)	2면 4단	기사
6월 29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7월 1일	본인이 북미 멕시코 유카탄에 기거하는 본국 동포의 전어관으로(本人이 北美墨西哥有加丹에 羈居하는 本國同胞의 傳語官으로)	4면 1단	광고
7월 2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7월 4일	정재홍군 약전(鄭在洪君略傳)	2면 1단	기사
7월 5일	경기관찰사 초정(畿察初政)	2면 2단	기사
7월 5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7월 6일	덕적도 도적 소식(德島賊報)	1면 3단	기사
7월 6일	범무대신 인천행(法大仁川行)	2면 5단	기사
7월 8일	각 부 대신이 일함식에 참여하다(各大往參日艦式)	2면 3단	기사
7월 8일	정지사 장례(鄭志士葬禮)	2면 5단	기사
7월 8일	지사 정재홍 씨 유족 구조 의연금 씨명 (志士鄭在洪氏遺族救助義捐金氏名)	4면 4단	광고
7월 9일	지사 정재홍 씨 상중 부의금 씨명(志士鄭在洪氏喪中賻儀金氏名)	4면 4단	광고
7월 10일	보창학교 운동(普昌校運動)	1면 4단	기사
7월 10일	불법자 금증 훈칙(不法者禁戢訓飭)	2면 4단	기사
7월 11일	김 씨가 인천항에 도착(金氏到仁)	2면 3단	기사
7월 12일	증명 착오 기소(證明錯誤起訴)	1면 3단	기사
7월 13일	조 씨 영접 김 씨(趙氏迎接金氏)	2면 3단	기사
7월 15일	말뜻이 구슬프다(言志悽悵)	2면 6단	기사
7월 17일	이 씨가 고향에 내려오다(李氏下鄉)	2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7월 18일	9명 군수 의원면직(九郡守依免)	2면 3단	기사
7월 18일	협잡 수세자 금훈(挾雜收稅者禁訓)	2면 5단	기사
7월 19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7월 19일	비용이 거액에 달하다(費達巨額)	2면 4단	기사
7월 20일	인천항 화재(仁港回祿)	1면 5단	기사
7월 23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7월 24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7월 24일	유배 죄인 여럿이 유배를 떠나다(流刑諸氏發配)	2면 4단	기사
7월 24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7월 25일	인천항 평안(仁港賴安)	2면 5단	기사
7월 25일	주식회사 한성은행(株式會社 漢城銀行)	4면 4단	광고
7월 26일	교장에 농장 설치(敎場何如農場)	2면 6단	기사
7월 27일	15군 군수(十五郡守)	2면 3단	기사
7월 30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7월 31일	보창학교 성적(普校夏期成績)	1면 4단	기사
7월 31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8월 1일	프랑스 군함 정박(法艦泊仁)	2면 3단	기사
8월 1일	타임스사 고소(타임스社被訴)	2면 6단	기사
8월 2일	인천항 화재(仁港失火)	2면 5단	기사
8월 7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8월 8일	이번 달 1일부터 평택정거장 앞에 출장소 개설(本月一日爲始하여 平澤停車場前에 本會社出張所를 開設하고)	3면 6단	광고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8월 8일	주식회사한성은행(株式會社漢城銀行)	4면 4단	광고
8월 10일	일본 선박 인천 도착(日艇泊仁)	2면 4단	기사
8월 12일	통감 환송(統監餞別)	2면 3단	기사
8월 13일	강화도 불온(江華不穩)	2면 4단	기사
8월 13일	국채보상사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8월 14일	조사원 강화도로(探查員下江)	2면 4단	기사
8월 14일	지방소식 일속(地方消息一束)	2면 5단	기사
8월 14일	국채보상사무금 집송인원 및 금액(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8월 15일	일본함대 일본으로 돌아가다(日艦歸國)	2면 4단	기사
8월 15일	경시총감 강화행(警總江華行)	2면 4단	기사
8월 15일	경시청에 압송(兩氏被捉)	2면 5단	기사
8월 15일	국채보상사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3단	광고
8월 16일	권 씨 압송설(權氏被捉說)	2면 6단	기사
8월 16일	국채보상사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2단	기사
8월 17일	부평군수 칭송(富倅治聲)	2면 5단	기사
8월 17일	국채보상사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2단	광고
8월 19일	경시총감 귀환(警總仕進)	2면 3단	기사
8월 21일	일본군 김포로(日兵向金浦)	2면 3단	기사
8월 26일	강화 무뢰배 사살(反受其害)	2면 3단	기사
8월 29일	법부의 훈령(法訓仁裁)	2면 5단	기사
8월 30일	박영효 출발(朴氏發程)	2면 3단	기사
8월 30일	햇삿 청구(發配船費請撥)	2면 4단	기사
8월 30일	법부 지방 시찰(法務視察出張)	2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8월 30일	강화도 평온 희망(江華安堵希望)	2면 5단	기사
9월 4일	군수품 수송(軍物輸移報部)	2면 4단	기사
9월 4일	박영효 귀양(朴氏發程)	2면 6단	기사
9월 4일	인천일본인학교 축하(仁校慶祝)	2면 6단	기사
9월 6일	경성고아원 기부자 명단(京城孤兒院寄附人氏名)	3면5단	광고
9월 10일	강화군민(郡主其人)	1면 4단	기사
9월 10일	강화군수 정경수 추도회(鄭氏追悼會)	2면 3단	기사
9월 12일	탁지부 훈령(度訓四郡)	2면 5단	기사
9월 14일	강화군수 임명(華倅新任)	2면 2단	기사
9월 16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9월 16일	수도 부설비(水道費引渡)	2면 5단	기사
9월 18일	본 상점에서는 새로이 도착한 능라 주 단 및 서양 광목 잡화 등 판매(本號今有新到精美各款綾羅綢緞及洋廣雜貨疋頭洋大鏡各種呂宋烟)	3면 3단	광고
9월 18일	지방 소식(地方消息)	2면 5단	기사
9월 19일	영종도 선박 전복 사고(永島慘報)	1면 5단	기사
9월 19일	강화 진위대 태형 처분(隊官處答)	2면 2단	기사
9월 19일	강화군수 부임(江倅赴任)	2면 3단	기사
9월 21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9월 22일	주안염전 시찰(鹽田視察)	2면 4단	기사
9월 25일	일본 황태자 시찰(日皇太子轉覽)	1면 4단	기사
9월 25일	부통감 일본행(副統監發行期)	1면 4단	기사
9월 25일	주안염전 시찰(視察後陞見)	2면 3단	기사
9월 26일	김종악을 종윤으로 개명(金鍾岳을 以鍾允으로 改名)	3면 4단	광고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9월 27일	일본인 피해(日人被害)	2면 2단	기사
9월 27일	일본 황태자 환영 준비(日皇太子歡迎)	2면 2단	기사
9월 27일	통감 도착 일정(統監到着期)	2면 4단	기사
9월 29일	광제호에서 연회(光濟號請賓)	1면 4단	기사
9월 29일	탁지부 차관 일정(度次到着期)	1면 4단	기사
10월 1일	광제호에서 연회(光漢勝宴)	1면 4단	기사
10월 1일	관리 서훈(各官人敍勳)	2면 3단	기사
10월 2일	통감 일정(統監到着期)	2면 2단	기사
10월 2일	강화군수 서훈(被害郡守敍勳)	2면 2단	기사
10월 2일	기차에 투석(何故投石)	2면 3단	기사
10월 2일	인천측후소 개시(測候所開務)	2면 4단	기사
10월 3일	궁궐 소식(宮廷錄事)	1면 1단	기사
10월 3일	측후소 통신(測候所通信)	2면 4단	기사
10월 4일	영종도 선박 사고(渰死請恤)	1면 4단	기사
10월 4일	부평보고(富平報告)	2면 5단	기사
10월 5일	통감 영접(統監迎接)	2면 2단	기사
10월 5일	기상예보(天氣豫報)	2면 6단	기타
10월 6일	콜레라의 역사와 예방법(虎列刺歷史及預防法)	2면 1단	사설
10월 6일	콜레라 검역(檢疫調査)	2면 4단	기사
10월 8일	신소설 애국부인전(新小說 愛國婦人傳)	3면 6단	광고
10월 8일	3항구 콜레라(三港虎列刺)	2면 5단	기사
10월 9일	의심스러운 범죄(無疑犯罪)	1면 4단	기사
10월 10일	학생에게 권고(學生勸學)	2면 2단	기사
10월 10일	검역부에서 환자 조사(檢疫部調査)	2면 4단	기사
10월 10일	청원 파송(請議繳還)	2면 5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10월 11일	황태자 환영(御駕出迎)	2면 2단	기사
10월 11일	인천부윤 보고(仁川府尹報告)	2면 5단	기사
10월 12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10월 12일	인천항에서 예포 발사(仁川禮砲)	2면 2단	기사
10월 12일	황제폐하 수행원(陪從人員)	2면 4단	기사
10월 12일	일본황태자환영 절차(迎接節次)	2면 4단	기사
10월 13일	세무사를 모욕(詆辱稅主)	2면 4단	기사
10월 13일	교량건설비 청구(橋梁費請撥)	2면 4단	기사
10월 13일	기상예보(天氣豫報)	2면 6단	기타
10월 15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10월 15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 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10월 16일	궁정 소식(宮內府布達)	2면 2단	기사
10월 16일	경기도 참여관의 보고(畿參報告)	2면 5단	기사
10월 16일	국채보상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國債 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3면 1단	광고
10월 17일	궁정 소식(宮廷錄事)	1면 1단	기사
10월 17일	대황제폐하 인천행 절차(大皇帝陛下仁 川幸行儀節)	2면 1단	기사
10월 17일	한일양국의 친밀감(韓日兩國의 交誼親密)	2면 1단	사설
10월 17일	인천항에서 환영(仁港歡迎)	2면 3단	기사
10월 17일	양천군의 보고(陽川報告)	2면 5단	기사
10월 18일	특별구휼(特贈救恤)	2면 3단	기사
10월 19일	전염병 환자 조사(檢疫部調査)	2면 4단	기사
10월 20일	인천항에 영접(餞別仁港)	2면 2단	기사
10월 20일	귀국일정(行啓路程)	2면 3단	기사
10월 22일	송별 수행원(餞送日儲)	1면 4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10월 22일	인천관리 범죄(仁吏犯逋)	2면 3단	기사
10월 22일	일본 황태자 하사금(日儲賜金)	2면 4단	기사
10월 22일	의병출현(奪砲縛師)	2면 5단	기사
10월 23일	궁정 소식(宮廷錄事)	1면 1단	기사
10월 23일	관리에게 서훈(各官人敍勳)	2면 4단	기사
10월 25일	황성신문 신진부(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10월 26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0월 27일	관립 및 사립학교 추계 연합운동회 모습(官私立學校秋季聯合運動會景況)	2면 3단	기사
10월 29일	황성신문 신진부(皇城新聞 新進部)	4면 1단	광고
10월 30일	광산허가(三處許鑛)	1면 3단	기사
10월 30일	경회루에서 연회(慶會盛宴)	2면 5단	기사
10월 31일	강화도 총순 증원 청원(報請增巡)	2면 5단	기사
11월 2일	일본국에서 훈장 수여(官廳事項)	1면 2단	기사
11월 2일	집문서 및 토지문서 분실 광고(家券及畝券逢賊廣告)	3면 5단	광고
11월 3일	이태리 건국 영웅전(伊忒利建國三傑傳)	4면 2단	광고
11월 5일	일본 황태자의 하사금(日儲施金)	2면 3단	기사
11월 5일	천일염 성적 양호(天日鹽良好)	2면 3단	기사
11월 6일	보창학교 건물 인가(營舍認校)	2면 3단	기사
11월 6일	총기류 면세(製銃器免稅)	2면 4단	기사
11월 7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1월 8일	궁궐소식(宮廷錄事)	1면 1단	기사
11월 8일	서임(敍任)	1면 2단	기사
11월 9일	관청사항(官廳事項)	1면 2단	기사
11월 9일	선박 파손(船破人沒)	2면 3단	기사
11월 9일	지방소식(地方消息一通)	2면 5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11월 12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2단	기사
11월 12일	은사금 분배(分給錢額)	2면 4단	기사
11월 14일	부평의 의도(威脅討財)	2면 4단	기사
11월 15일	헌병대 배치(憲兵隊排備)	2면 4단	기사
11월 17일	철도용지 배상금 지급(鐵道用地賠償支給)	1면 3단	기사
11월 17일	절단된 전선 수리(絶線將修)	2면 3단	기사
11월 17일	지방소식(地方消息一通)	2면 6단	기사
11월 17일	이번에 경인철도 토지 수용비 지급 일정(今番에 京仁鐵道用地賠償金을 左記 日字及處所에서)	4면 2단	광고
11월 22일	동궁전하 탑승함(東宮搭乘艦)	2면 1단	기사
11월 23일	문명록(文明錄)	3면 1단	광고
11월 24일	죄수 사면 조사(赦秩調査)	2면 4단	기사
11월 24일	강화도민 안도(華民安堵)	2면 5단	기사
11월 26일	신 관제내용(新官制內容)	2면 5단	기사
11월 28일	천일염전 호형(移品度部)	2면 5단	기사
11월 28일	기상예보(天氣豫報)	2면 6단	기타
11월 29일	사면청원(宜蒙赦典)	1면 4단	기사
11월 30일	철도수용지 배상(分給所有)	2면 5단	기사
11월 30일	기상예보(天氣豫報)	2면 6단	기타
12월 3일	동궁 환송 협의(祇送協議)	2면 3단	기사
12월 3일	인천에 어진 봉안(先自仁川)	2면 3단	기사
12월 4일	학도들 환송(學徒祇送)	2면 2단	기사
12월 4일	이동휘 석방(權李蒙放)	2면 4단	기사
12월 5일	동궁전하 동경행(東宮殿下東渡路次)	2면 2단	기사
12월 5일	경기관찰사 인천에(畿察下仁)	2면 4단	기사
12월 7일	궁궐기사(宮廷錄事)	1면 1단	기사

일자	기사제목	면단	구분
12월 7일	동궁전하 수행원(路次奉送儀)	2면 2단	기사
12월 7일	동궁전하 탑승(東宮乘艦)	2면 2단	기사
12월 7일	이토통감의 답사(伊藤答言)	2면 2단	기사
12월 7일	백령도에 의병(白翎義擧)	2면 5단	기사
12월 7일	한국 황태자전하께서 일본에 유학하심을 실로 공전의 유쾌한 일이다(韓國皇太子殿下께옵서 日本에 遊學하심은 實로 空前의 大快事오)	3면 3단	광고
12월 8일	환송비 청구(祇送費請求)	2면 3단	기사
12월 14일	기상예보(天氣豫報)	2면 6단	기타
12월 17일	경기도 관찰사의 조사(畿察查報)	2면 3단	기사
12월 18일	화재 피해 20호(延燒廿戶)	2면 3단	기사
12월 18일	채무상환(舊債報還)	2면 4단	기사
12월 18일	인천항 야학(仁港夜學)	2면 4단	기사
12월 19일	서임 및 사령(敍任及辭令)	1면 1단	기사
12월 26일	학교 부지 밀매(賣校肥己)	2면 4단	기사
12월 28일	전신선 절단(鐵線頻斷)	2면 4단	기사
12월 28일	염전 모형 아춤(鹽田讓校)	2면 4단	기사
12월 29일	예비비 지출(豫備金支出)	1면 1단	기사

## 《인천역사문화총서》 발간 목록

### ○ 2003년

1. 『인천의 역사와 문화』
2. 『Incheon, Her History and Culture』
3. 『仁川歷史和文化』
4. 『仁川の歴史と文化』
5. 『인천사 자료집』 I

### ○ 2004년

6. 『인천의 섬』
7. 『옛날 옛적에 인천은』
8. 『美軍政期の 인천자료』
9. 『譯註 仁川府邑誌』
10. 『인천역사』 1호
11. 『譯註 仁川事情』
12. 『譯註 仁川開港25年史』 (信夫淳平)
13. 『譯註 仁川開港25年史』 (加瀬和三郎)
14. 『近代의 移民과 仁川』

### ○ 2005년

15. 『인천의 산과 하천』
16. 『한국최초 인천최고』
17. 『고종시대 인천자료』
18. 『譯註 부평군읍지』
19. 『인천역사』 2호
20. 『譯註 仁川港』
21. 『譯註 仁川郷土誌』
22. 『멕시코 移民 100년의 回想』
23. 『역주 인천축항사진도록』

○ 2006년

- 24. 『인천의 길과 시장』
- 25. 『인천개항장풍경』
- 26. 『조선시대 인천지역의 생원·진사시 합격자들』
- 27. 『譯註 喬桐郡邑誌』
- 28. 『譯註 先祖江華先生日記』
- 29. 『譯註 韓國二大港實勢』
- 30. 『인천역사』 3호
- 31. 『동북아 한인공동체와 삶』

○ 2007년

- 32. 『인천개항장 역사기행』
- 33. 『譯註 江華府誌』
- 34. 『외국인의 기록으로 보는 인천 근대』
- 35. 『譯註 邵城續錄』
- 36. 『譯註 邵城陣中日誌』
- 37. 『譯註 併合後の 仁川』
- 38. 『인천역사』 4호
- 39. 『Chemulpo, Jinsen 그리고 인천』

○ 2008년

- 40.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 41. 『譯註 最近의 仁川』
- 42. 『譯註 永宗鎭 戶籍資料』
- 43. 『英譯 근대문화로 보는 한국최초 인천최고』
- 44. 『인천역사』 5호
- 45. 『바다와 섬, 인천에서의 삶』
- 46. 『인천사진자료집성』 (CD)
- 47. 『譯註 仁川の 史話와 史蹟』
- 48. 『譯註 仁川米豆取引所沿革』

○ 2009년

- 49. 『譯註 현대 한국의 마을』
- 50. 『譯註 仁川港關草』 (上)

51. 『Theme Trip of the old City Incheon Open Port』
52. 『건축으로 보는 도시 인천』
53. 『인천역사』 6호
54. 『譯註 仁川과 仁川港』
55. 『인천의 갯벌과 간척』

#### ○ 2010년

56. 『譯註 仁川港關草』 (下)
57. 『譯註 江都古今詩選』 (前集)
58. 『Incheon's Cultural Heritage』
59. 『지역 연구 현황과 시사편찬의 방향』
60. 『인천역사』 7호
61. 『인천상식문답』
62. 『譯註 仁川島嶼地域의 地誌資料』

#### ○ 2011년

63. 『譯註 덕적도 고문서 자료집』
64. 『譯註 江都古今詩選』 (後集)
65. 『譯註 學宮儀例』
66. 『역사와 문화지리로 보는 인천』
67. 『인천역사』 8호
68. 『譯註 仁川府勢一般』
69. 『인천의 전통사찰과 불교미술』 (1)

#### ○ 2012년

70. 『譯註 三港口關草』
71. 『20세기 소비에트 연방과 러시아 한인들』

#### ○ 2014년

72. 『인천의 전통사찰과 불교미술』 (2)
73. 『譯註 照會程式』

#### ○ 2015년

74.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 75. 『譯註 江都志』 (상·하)
- 76. 『인천의 전통사찰과 불교미술』 (3)

○ 2016년

- 77. 『譯註 仁川府勢一班』 (2)
- 78. 『譯註 續修增補江都誌』 (상·하)
- 79. 『인천의 중국불교문화유산』

○ 2017년

- 8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仁川抄錄譯註』
- 81. 『譯註 仁川土地調查簿』
- 82. 『인천의 호국과 현충』

○ 2018년

- 83. 『譯註 仁川府勢一般』 (3)
- 84. 『各司謄錄仁川抄錄譯註』 (1)
- 85. 『古新聞 속의 仁川』 (1)(상·하)

○ 2019년

- 86. 『고(古)신문 속의 인천』 (2)(상·하)
- 87. 『근대 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
- 88. 『각사등록인천초록역주』 (2)



집필자

강덕우 (사)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사

신언호 인천고전연구소 연구위원

이승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이유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이윤희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추교찬 인하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황은수 인천 미추홀구 문화예술과

인천역사문화총서 86

## 고(古)신문 속의 인천 2 (하)

---

발행일 2019. 12.

발 행 인천광역시

발행처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032) 440-8382

인 쇄 수디자인 032) 431-5974

---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430-01

ISBN 979-11-87854-26-5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에 있습니다.

